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학술 포럼



unesco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World Heritage since 2019

(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목차

총론: 한국 서원의 인문성과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 모색	1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가장 오래된 서원의 기록 ‘소수서원이 품은 고문헌의 가치’	41
채광수(영남대학교)	
남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과 소장 고문헌의 성격 :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77
박소희(영남대학교)	
경주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성격과 가치 : 옥산진장(玉山珍藏)	111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문헌자료의 현황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145
임근실(단국대학교)	
필암서원 기록유산의 현황과 가치 : 호남도학의 연수(淵藪)	265
김소희(한국학중앙연구원)	
지식의 자유를 향한 여정,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 道東書院	289
김정운(경북대학교)	
병산서원 소장 고문헌 기초 연구 : 서애학(西厓學)의 지식문화적 자취	319
강문식(송실대학교)	
남거진 문헌과 서원의 위상 : 기호예학의 산실 遯巖書院과 호남 유림의 거점 武城書院	337
이선아(전북대학교)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기초 연구	367
김하영(한국학중앙연구원)	

총론: 한국 서원의 인문성과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 모색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한국 서원의 인문성
- III. 서원의 지식문화적 기능성 : 지식의 수합·생산·유통처로서의 서원
- IV. 맺음말 :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대한 제언

I. 머리말

이 글은 한국의 서원 문헌, 특히 세계유산 목록 등재 9개 서원의 문헌을 집성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서원’은 조선시대를 설명하는 10대 keyword의 하나로 손색이 없고, 서원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교육문화사를 이해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역사 연구는 문헌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볼 때, 서원 문헌의 아카이브 구축은 해당 분야 연구의 이해도를 신장함은 물론 학계와 대중이 소통하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서원이 지닌 우수성과 그 문헌의 중요성을 글로벌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아카이브 구축은 매우 절실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무엇을 담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려이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9개 서원 소장 문헌의 현황과 가치를 진단하는 작업인데, 금년 연구의 핵심도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하고 있다. 본고는 9개 서원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서원이 함유하고 있는 인문성을 개략적으로 진단하고 몇몇 서원의 문헌을 통해 서원의 지식문화적 기능을 소개함으로써 아카이브 구축의 작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II. 한국 서원의 인문성

1. 문치(文治)·예치(禮治)의 상징적 공간

‘문(文)으로 빛고 예(禮)로 다듬은 나라’, 조선은 한국의 역사에서 문치(文治)의 꽃을 만개시킨 역사적 무대였다. 조선의 설계자들은 반듯한 나라, 학문을 좋아하고 예의(禮儀)를 숭상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자학(朱子學)의 이론과 가치를 국가경영에 적용, 주입시켰고, 이런 정신은 사대부(士大夫)에 의해 꾸준히 계승되었다.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였다. 조선에 있어 사대부는 국가경영의 주체였고, 주자학을 신봉하는 이념의 수호자였으며, 문치를 선도하는 향도(嚮導)였다. 이점에서 사대부는 관료이자 학자였으며, 격조 높은 문화를 디자인하고 다듬는 문화예술인이었다.

2. 서원의 출현 : 주자학의 종교화

한국에 서원이 출현한 것은 주자학의 종교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16세기 중엽이었다.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주자학을 도입한 안향(安珦)의 학자 정신을 기리고 향촌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건립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그 효시였다. 백운동서원은 1550년 후임 풍기군수 이항(李滉)에 의해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되어 국가의 공인을 획득하게 된다. '소수(紹修)'는 '끊어진 학문을 이어서 닦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백운동서원'과 '소수서원'의 성격이다. 전자와 후자는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세붕이 건립했던 백운동서원이 관학(官學)의 보완재(補完財)였다면 이항의 노력으로 사액된 소수서원은 관학의 대체재(代替財)였다. 공교육에 대한 확신이 적었던 이항은 서원을 통해 조선의 학술문화를 진흥시키려 했던 것이고, 그 웅대한 출발이 소수서원으로의 사액이었다. 서원으로 상징되는 사학중시풍토(私學重視風土)는 역사적 시간의 전개 속에서 한국사회에 강하게 착근되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도도하게 지속되고 있다.

3. 주자학적 인간의 양성 : 문명화 된 인간

서원은 주자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공간이었다. 주자학으로 정련하게 디자인된 양질의 인간을 배출하고, 그런 인간을 통해 세상의 품격을 고양시키고자 했던 것이 서원교육의 본질이었다. 따라서 서원에서는 과업(科業)이라 불리는 세속의 영달을 위한 공부는 철저히 배격되었다.

4. 학파 및 학풍 형성과 서원 : 지식의 집단화 및 계승성

서원이 출범, 정착하던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조선에 주자학 계통의 학파가 형성되는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항(李滉)의 퇴계학파(退溪學派)는 예안의 도산서원(陶山書院), 서경덕(徐敬德)의 화담학파(花潭學派)는 개성의 화곡서원(花谷書院), 조식(曹植)의 남명학파(南冥學派)는 진주의 덕천서원(德川書院), 이이(李珥)의 율곡학파(栗谷學派)는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 성혼(成渾)의 우계학파(牛溪學派)는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을 중심으로 사설(師說)을 계승하며 그들만의 학풍(學風)을 계승,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유생들은 사유(師儒)로서의 학(學)과 행(行)을 겸비한 원장이 주관하는 강회에 참여하여 자기시대의 학문을 체험하며 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했다. 이것은 위기지학에 바탕한 '사(師)'의 위상의 재정립의 과정이자 학풍의 탄생으로 언명할 수 있다. 서원 출범 이전의 '사(師)'가 과업의 지도를 통해 나의 풍요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준 존재였다면,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가르쳤던 서원의 '사(師)'는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존재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후자에 대한 학문적 계승의식은 학풍의 형성으로 나타났고, 그것의 장기 지속을 의미하는 통서(統緒)의 연결성이 곧 학맥(學脈)이었다.

5. 지식의 수합·생산 및 보급처로서의 서원 : 서원 아카이브

조선의 서원은 지식문화의 생성 및 보급처였다. 사대부들은 서원에서 예양(禮讓)의 범절을 익히고, 주자학적 담론(談論)을 전개하며 자신들의 지적 수준을 고양시켜 갔다. 그 담론은 철학적 명제를 비롯하여 상제례(喪祭禮) 등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윤리 또는 규범을 포괄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여러 경전 중에서도 『대학(大學)』을 가장 중시하였는데, 그것은 이 책이 치자(治者)의 경세(經世) 규범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엄격하게 구분된 신분사회였다. 반상(班常)의 논리 속에 서원은 반(班)에 해당하는 양반 사대부들의 전유(專有) 공간으로 귀착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서원에서 양성(養成)했던 지식과 예법은 조선이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도덕적인 시대로 꼽히는 이유가 되었다.

서원은 양질의 도서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던 아카이브(archives)였다. 모든 서원에는 장서각(藏書閣), 장서실(藏書室), 경장각(敬藏閣) 등으로 불리는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었다. 도산서원(陶山書院) 광명실(光明室)과 필암서원(筆巖書院) 경장각(敬藏閣)은 조선시대 서원문고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른바 서원문고는 서원의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서적, 국왕이 하사한 서적, 지방관이 증여한 서적, 서원 출신으로 관직에 진출한 이가 기증한 서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충되었다. 대부분의 서원들이 귀중한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선에서 가장 양질의 서원문고를 꼽는다면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의 도서였다. 여기에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은 물론 삼국사기(三國史記) 등 희귀본 서책들이 소장되어 학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책의 본질은 보관과 보존인 아니라 그것의 충분한 활용이다. 조선의 서원문고는 관리를 엄격히 하되 그것의 활용에 인색하지 않았다. 17세기 영남의 거유로 인동에 살았던 장현광(張顯光)이 경주 옥산서원에 삼국사기의 대출을 요청한 사실은 서원문고의 사회적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6. 서원의 공공성 및 대중성 : 진입장벽 완화와 평민층의 출입

서원은 사대부들이 배타적 교육 공간으로 출발하였지만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은 배타성의 이완을 수반했다. 비록 ‘액외(額外)’라는 조건이 붙었고, 재정 지원 등의 경제적 기여가 전제되기는 했지만 서원을 출입할 수 있는 유생의 대상이 평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은 입현무방(立賢無方)이라는 공자의 교육관과 일치하며, 교육 기회의 대중적 확대라는 측면에서 근대정신과 맞닿아 있었다.

16세기에 출범하여 19세기까지 조선의 학술문화인프라의 근간을 이루었던 서원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당쟁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훼손당하는 수난사가 있었다. 서원이 지니는 정치적 부작용이 학술문화적 기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 시대의 위정자들은 서원을 그렇게 인식했고, 또 그렇게 처분했다.

7. 서원의 인문성 : 문명성 제고, 지식의 생성과 유통, 교육의 대중화

정치적 질곡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인문성은 부정될 수 없다. 조선의 서원은 학술과 문화를 창출, 보급하며 예치(禮治)와 문치(文治)를 지향했던 조선의 문명성(文明性)을 높였고, 지식을 끊임없이 유통시킴으로써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기는데 기여했다. 또한 18세기 이후 서원은 출입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애의 발로이자 근대를 향한 강렬한 행보였다. 아울러 서원은 민간 주도형 교육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주도형이 지니는 획일성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다는 점에서 교육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했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었고, 그런 전통은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도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것이 한국[조선]의 서원이 지니는 인문성의 요체이다.

<조선시대 서원의 인문적 기능과 가치>

서원의 지식문화적 가치

- 주자학 시대 문치 및 예치의 상징적 공간
- 문명화 된 인간을 지향하는 교육 공간
- 지식의 집단화 및 계승성을 추구하는 학술 공간
- 지식을 수합·생산 및 보급하는 아카이브
- 의학 및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

Ⅲ. 서원의 지식문화적 기능성 : 지식의 수합·생산·유통처로서의 서원

1. 옥산서원본 『삼국사기』와 독락당 소장 『해동명적』

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굳이 이황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책은 학습의 도구이고, 그것을 통한 지식의 축적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장서량을 자랑 처럼 입에 올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의 쓰임의 양태일 것이다.

경주 옥산서원에는 2018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삼국사기』(50권 9책) 완질이 갈무리되어 있다. 1512년에 개각된 판본을 1573년에 인출한 이 책은 삼국의 천년 역사를 관통하는 장엄한 콘텐츠만큼이나 지식인들의 열람 욕구를 자극했음에 분명했다. 하지만 서원 문고는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사실상 모든 서원 문고에 락(Lock)이 걸려 있었다. 옥산서원 또한 서책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사사로운 열람을 통제했음은 물론 원문(院門) 밖으로의 대여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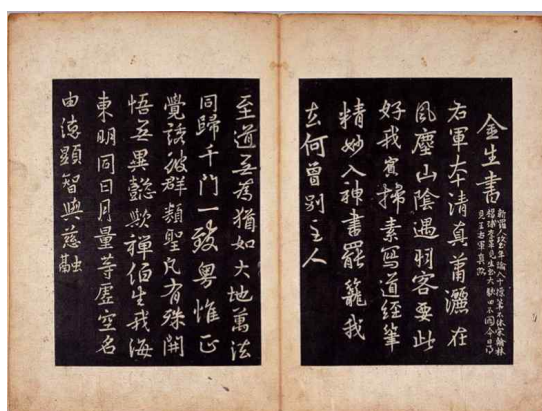
『삼국사기』 : 옥산서원 소장

1600년대 초반 옥산서원 운영진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정구(鄭逋:寒岡)와 함께 17세기 영남학계를 이끌었던 인동 출신의 석학 장현광(張顯光:旅軒)이었다.

『삼국사기』가 귀원의 장서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한 번 보았으면 합니다. 서책은 딴 곳으로 반출해서는 안 됨을 잘 알지만 그저 심심풀이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채록하여 후세에 전하려는 뜻이 있어 어렵사리 청하는 것이니, 잠시 보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장현광, 『여헌속집』 권2, <옥산서원 사람에게>)

장현광의 요청에는 예의가 갖춰져 있고, 후속 세대를 위한 지식문화인프라의 확장이라는 학자적 진정성이 배어 있다. 이 청원을 옥산 원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원유들의 상당수가 여헌문인이고, 장현광이 명세(鳴世)의 대유였음은 군 말을 요하지 않는 바, 차람 요청은 수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옥산장서의 활용성을 감각할 수 있고, 여헌학(旅軒學) 형성의 지적 자양분으로서의 옥산장서와 『삼국사기』의 가치를 인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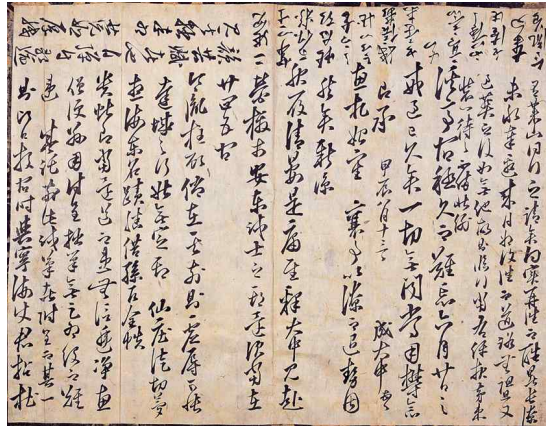
옥산서원 바로 뒤편에는 이언적의 후손이 사는 독락당이라는 고옥이 있다. 서원이 이언적의 학자적 성취를 기리는 공적 영역이라면 독락당은 삶의 자취가 깃든 사적 공간이다. 독락당에는 이언적의 체취가 담긴 수많은 유품과 함께 귀중한 서책들이 갈무리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보물로 지정된 『해동명적(海東名蹟)』이다.



『해동명적』 : 여주이씨 독락당 소장

문화 및 예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지닌 선비라면 누구나 탐을 낼만한 책이었다. 수백년 세전되는 동안 무수한 문사들의 손길을 거쳤겠지만 그 중에는 서울 출신의 엘리트 지식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얼이라는 신분적 장벽을 학문적 성취로서 극복하여 북학사상 형성의 향도 역할을 했던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해동명적은 마침 손우(孫友)로부터 전질을 빌리게 되어 당신에게서 빌린 것을 즉시 되돌려드리고자 했으나 인편이 없어 걱정하다가 정혜사의 스님 편에 부쳐드립니다.<성대중서간>(1784), 독락당 소장>)



성대중 서간(1784년) : 여주이씨 독락당 소장

성대중은 독락당본 『해동명적』을 몹시 애중히 다루었고, 그 덕분에 천리 타관으로 대출되었던 『해동명적』 또한 탈없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서첩의 천리 왕래는 단순한 물질의 유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의 융복합의 과정이었고, 성대중이 홍대용·박지원·박제가·유득공 등과 함께 18세기 조선의 문단 및 사상계의 거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지식과 문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점에서 독락당 문고는 영남을 넘어 조선 문화(文華)를 꽃피운 양질의 영양소였다.

2. 임고서원(臨臯書院) : 이항의 서책 증정기

‘다움’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 공자의 정명(正名) 사상은 군신부자(君臣父子)라는 신분질서의 범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인간의 자질과 능력이 역사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전제할 때, 공간을 공간답게 하는 이른바 ‘공간디자인’의 솜씨야말로 그 시대의 문명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경북 영천에 정몽주를 제향하는 임고서원(臨臯書院)이 있다. 동방 이학(理學)의 종사를 기리는 곳인데다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액되었으니,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학술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김응생(金應生) 등 퇴계문하 제현의 노력 끝에 낙성을 맞은 것은 1555년이였다. 낙성연은 벽찬 감동 속에서 엄수되었고, 조선의 주자학적 문명화의 서광 또한 훤히 비치는 듯 했다. 이처럼 임고서원 낙성연은 공축(恭祝)의 분위기 속에 진한 여운을 남겼지만 유독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항이었다. 서원의 마스터플랜을 짚기에 누구보다 기뻐했어야 할 이항의 미편한 심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항은 공무로 인해 낙성 행사에 몸소 참석치는 못했지만 지인이나 문인들을 통해 세세한 내막을 다 듣고 있었다. 그의 정서가 폭발한 지점은 유과(油果)·밀과(蜜果)가 등장하는 대목에 서였다. 이 두 음식은 반가(班家) 문화의 상징으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럭셔리한 먹거리였다. 이항은 배움의 공간에 사치품이 등장하여 판을 치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몇 달이 지난 1556년 봄 께 임고 원유를 경계하는 취지의 편지를 조카 이완(李完)에게 보냈다. 인화(仁和)의 문자들로 가득찬 『퇴계집』에서 이항의 노기(怒氣)가 이처럼 직설적으로 드러난 것도 드물어 보인다.

듣자하니, 임고서원이 이미 낙성되었다고 하는데, 멀리서나마 축하할 일이다. 다만 그 잔치가 너무 사치스러워 유과(油果)와 밀과(蜜果)를 쓰기까지 했으니, 이는 참으로 배움의 장소에서는 마땅치가 않다. 노군(盧君:盧遂)과 정군(鄭君:鄭允良)은 어찌 이토록 생각이 없단 말인가. 만약 두 사람을 보거든 조용히 바로잡아 주도록 해라.(이항, 『퇴계집』 권40, <조카 완에게 답하는 편지(1556)>)

그랬다. 이항은 사람의 교학기관인 서원의 공간다움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것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여움이 서린 훈계의 서한은 이후 서원은 물론이고 사대부가의 잔치상에 유과·밀과를 자제하는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하니 석학의 무게감이란 정년 이런 것인가보다.

그렇다고 이항이 형식에만 집착하는 원칙론자는 결코 아니었다. 그는 매사를 이치에 따라 처리하는 합리론자였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서는 격물(格物) 공부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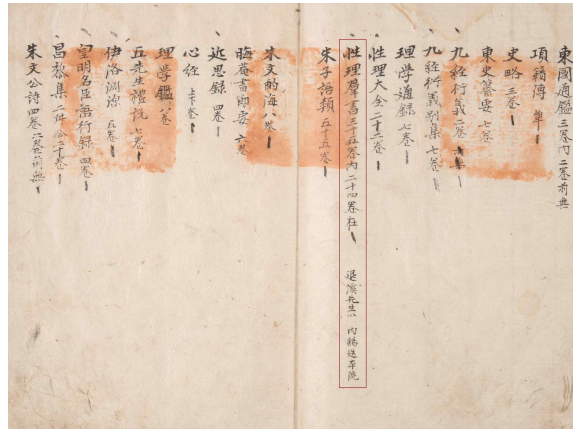
임고서원 낙성식이 있기 한 해 전인 1554년 여름 서원 건립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노수(盧遂)가 서울로 이항을 찾아 왔다. 준공을 앞두고 서원에 비치할 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지식인프라의 조성에 힘쓰는 제자의 정성은 이항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또한 사환 차 서울에서 우거하던 터라 서책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했다. 그나마 서가에는 얼마 전 명종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성리군서(性理群書)』(35권) 한 질이 꽂혀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기에 이 책을 임고서원에 증정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속절 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호사가는 어느 시대에도 있기 마련이었다. 내사본을 증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 저곳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군왕이 하사품을 사사로이 남에게 주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다는 것이 작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목소리에 위축되거나 소심해 할 이항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군왕이 하사한 책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혐의하였지만 서원에서 소장하는 책은 한편으로 선현을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학을 위함인데, 이것을 어찌 남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항, 『퇴계집』 권42, <내사본 성리군서를 상사 노수에게 부쳐 임고서원에서 소장토록 한 글>)

여기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책의 본질이다. 그에게 책은 기념품이 아닌 학습의 도구였고, 그것은 배움의 공간에 있을 때 그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서원의 공간다움을 위한 공익적 증정을 사사로이 주고받음으로 폄하했던 일각의 주장은 이항으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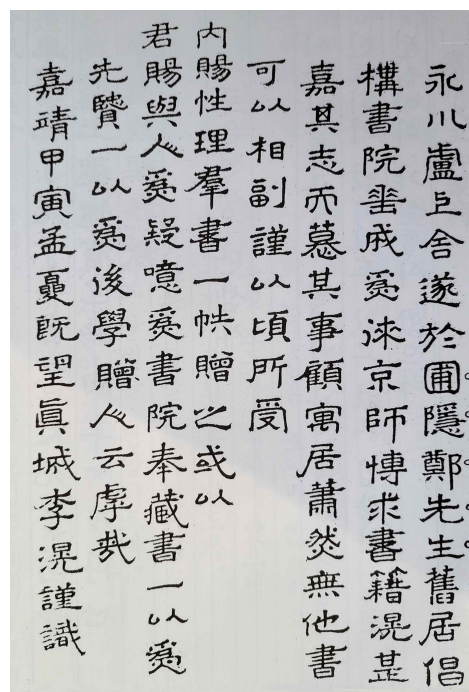
이항은 그만의 독특한 필치를 창출하였지만 글씨로서 자부한 적이 없고, 평생 해정(楷定)한 글씨만을 고집했다. 노수가 『성리군서』를 받아들이고 영천으로 내려가던 날 이항은 증표 한 장을 건넸다. ‘내사본 성리군서를 상사 노수에게 부쳐 임고서원에서 소장토록 한 글(內賜性理羣書付盧上舍遂俾藏圃隱書院識)’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이항이 남긴 유일한 예서체 글씨이다. 책이 왜 서원에 있어야 하는지를 피력한 이 글은 진중한 필치만큼이나 거기에 담긴 뜻 또한 간명하면서도 육중하다.

이항의 깊은 뜻은 임고 원유들에게 깊이 주입되어 하나의 교육적 지침이 되었던 것 같고, 명종과 이항이라는 군신 공여(共與)의 서책 또한 매우 소중하게 관리되었음은 도서목록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임고서원 서책록 : 임고서원 소장

1991년 12월 16일 임고서원 소장 전적 가운데 10종 25책이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어 국가의 공적 관리시스템 속에 편입되었다. 당시의 지정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이황의 증정기(贈呈記)가 누락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서원의 공간다움을 위해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었던 이황의 신념과 결단이야말로 이 땅의 문명화를 촉진하는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이황이 임고서원 유생 노수에게 써 준
서책 증정기(1554)
명종 하사본 성리군서를 증정하며
학업을 면려하는 내용

IV. 맺음말 :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대한 제언

☐ 문헌의 형식적 고려

1. 문(文)의 영역

- 1) 고서류: 공간된 책
 - 경사자집류
- 2) 고문서류 : 개별 문서류
 - 개별고문서
 - 정책고문서
- 3) 금석문류 : 비석 및 각자
 - 신도비/묘정비등
- 4) 액서류
 - 편액/시액등

2. 헌(獻)의 영역 : 구비 전승

☐ 서원 문헌의 내용적 범주에 대한 고려 : 고문서/정책고문서

1. 연혁 및 운영 : 원지/원임안 등
2. 교육 및 강학 : 강안/거접안/유생안 등
3. 의례 및 제향 : 봉안록/집사록/분향록 등
4. 재정 및 경영 : 노비/전답안 등
5. 소통 및 교류 : 통문/서간
6. 기타 : 시문류 등

□ 서원 아카이브 구축에서 고려해야 할 3대 구성 요소

1. 문헌 : 생산/유통/취득/축적한 제 문헌
2. 인간 : 제향/건립/운영/지적 활동에 관여한 제 유형의 인간
3. 공간 : 서원이 위치한 자연/인문지리적 환경 등의 장소성
4. 세 영역의 융복합적 구성 : 아카이브의 학술/효율/실용성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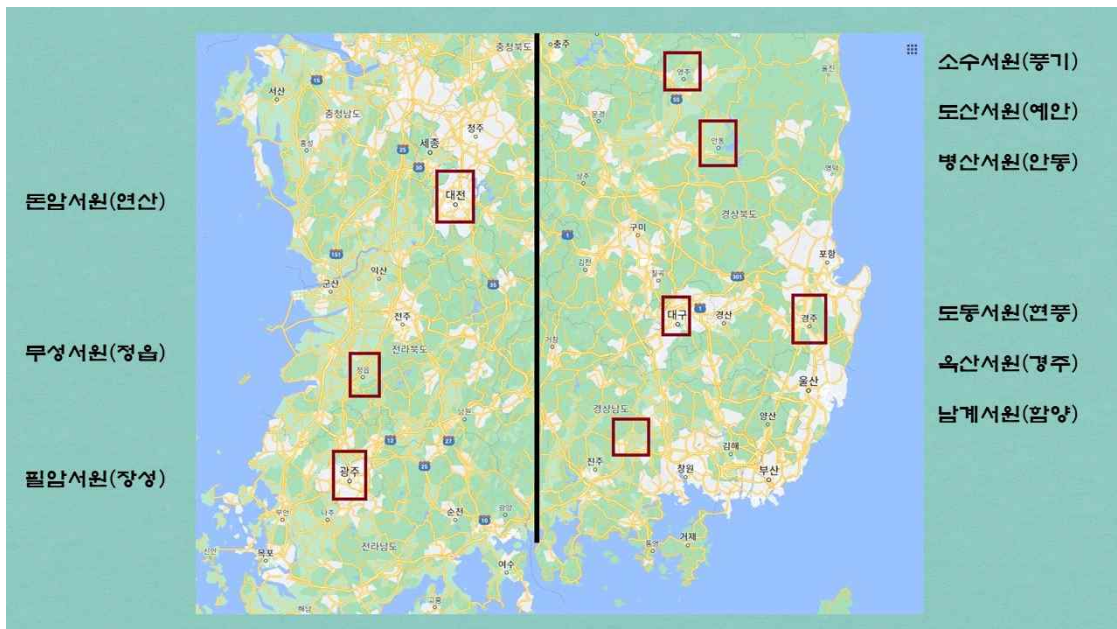
□ 기타 유의 사항

1.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문헌 : 장서목록 등을 통해 구현
2. 현존 문헌 : 실물을 통한 구현
 - 1) 생산
 - 2) 구입
 - 3) 수증 : 군왕/사림
3. 타처 소장 문헌
 - 1) 정상적 이관 : 통문류(조사 및 수집의 영역)
 - 2) 비정상적 이관 : 피향인의 후손가또는 원임 수행자 집안으로의 이관
 - 3) 세 요소를 아우르는 학문/기술적 방안 필요 : 과거+현재의 병존

중론

한국 서원의 인문성과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 모색

김학수(연구책임자,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세계유산 목록 등재 9개 서원 : 지역 및 학파성

◦ 소수서원	: 영주	_영남학파(교육학)	
◦ 도산서원	: 예안	_영남학파(성리학)	_퇴계학(이황)
◦ 병산서원	: 안동	_영남학파(경제학)	_서애학(류성룡)
◦ 도통서원	: 현풍	_영남학파(성리학)	_한원(김광필) / 한강학(정구)
◦ 옥산서원	: 경주	_영남학파(성리학)	_회재학(이언적)
◦ 남계서원	: 함양	_남명학파(의리학)	_일두(정여창) / 남명학(조식)
◦ 돈암서원	: 연산	_기호학파(예학)	_율곡(이이) / 사계학(김창생)
◦ 무성서원	: 정읍	_기호학파(문장)	
◦ 필암서원	: 장성	_기호학파(성리학)	_모재(김안국) / 학서학(김인후)

한국의 서원 : 지식문화적 가치와 인문성

<p>한국의 서원</p> <p>지식문화적 가치</p> <p>및</p> <p>인문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朱子學 시대 文治 및 禮治의 상징적 공간 2) 주자학적 文明人을 육성하는 교육 공간 3) 知識의 집단화 및 계승성을 추구하는 學術 공간 4) 지식의 수합·생산 및 보급 : 아카이브 5) 醫學 및 文化行事를 통한 地域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공익 기관
---	---

서원 문헌의 구성 : 문(文)과 헌(獻)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서류 : 공간권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자집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고문서류 : 개별 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고문서 - 정책고문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금석문류 : 비석 및 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비/묘정비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액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액/시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문(文)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구비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헌(獻)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보다 내밀한 사실/진실의 영역



소수서원 암각 : '敬'



옥산서원 : '희재신도비'



병산서원 : 만대루

서원 문헌의 내용적 범주 : 고문서/성책고문서

- 1) 연혁 및 운영 : 원지/원입안 등
- 2) 교육 및 강학 : 강안/거접안/유생안 등
- 3) 의례 및 제향 : 봉안록/집사록/분양록 등
- 4) 재정 및 경영 : 노비/전답안 등
- 5) 소통 및 교류 : 통문/서간
- 6) 기타 : 시문류 등

서원 아카이브의 3대 구성 요소 : 제안

- 1단계) **문헌** : 생산/유통/취득/축적한 제 **문헌**
- 2단계) **인간** : 제향/건립/운영/지적 활동에 참여한 제 유형의 **인간**
- 3단계) **공간** : 서원이 위치한 자연/인문지리적 환경 등의 **장소성**

세 영역의 융복합적 구성 : 아카이브의 **학술/효율/실용성** 담보

서원 아카이브 : 유익점

-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문헌** : 장서목록 등을 통해 구현
- **현존 문헌** : 실물을 통해 구현
 - 1) 생산
 - 2) 구입
 - 3) 수증 : 군왕/사림
- **타저 소장 문헌** : 정상/비정상적 이관
 - 1) 정상적 이관 : 통문류 (조사 및 수집의 영역)
 - 2) 비정상적 이관 : 피향인의 후손가 또는 원임 수행자 집안으로의 이관

세 요소를 아우르는 학문/기술적 방안 필요 : 과거+현재의 병존

서원 아카이브의 구축 방식과 방향 : 어떻게 할 것인가?

-보편성과 특수성의 점점에 대한 모색-

- 일률적 적용
- 지역별 구분
- 학파적 구분

서원별 아카이브적 성격과 특성 개관

남계 / 도동 /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9개 서원의 아카이브적 특성 : 예시

- 소수서원 : 관학의 보완재에서 대체재로의 이행
- 도산서원 : 광명한 인간과 세상
- 병산서원 : 서애학의 허브
- 도동서원 : 개방형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 옥산서원 : 영남학의 지적 수원(水源)
- 남계서원 :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 돈암서원 : 예학의 본산
- 무성서원 : 글로벌지식
- 필암서원 : 호남문헌의 보고

남계서원(함양_정여창)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 전략적 셀렉션

사림삼보(士林三寶) : 책/노비/전답



남
계
서
원

-함양



남계서원 장서 규모(1555-1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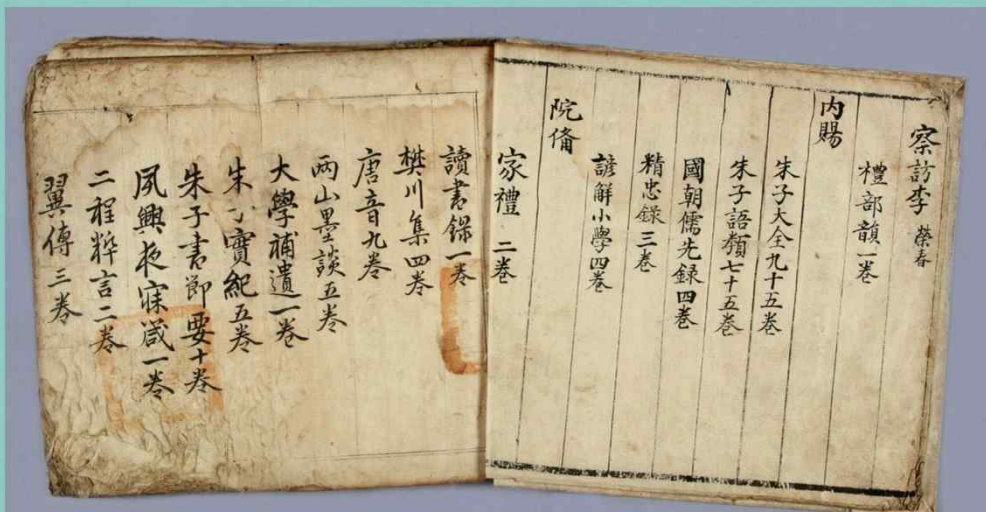
약 1,000집

古文書集成 24- 瀟溪書院篇, 「哀實錄」(2), “已上千秩, 萬曆丁酉, 爲倭奴所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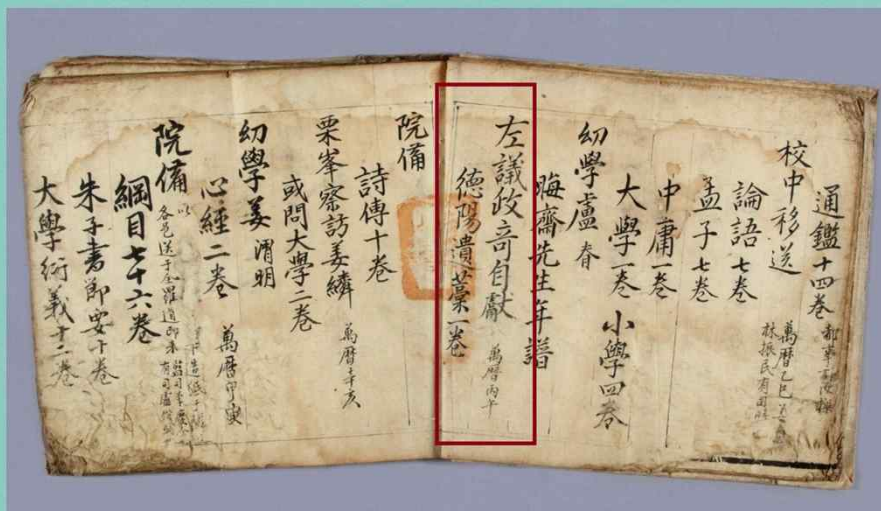
□ 재물 담당 : 양홍택(梁弘澤)

□ 서책 담당 : 노 관(盧 祿) _對 사림 로비(酬酌)가 가능한 전문직 사서(司書)

내사본 및 서원 자체 구비[院備]



기증 _기자현 _덕양집(1606간행)



정구 기증 _벼루



구분	성명	비고
咸陽郡守	徐九淵·金應祥·雷又新·尹確·金霽·金宇弘·郭趙·李長榮·鄭姬龍·鄭姬蕃·李軸·金潤國·趙宗道·安大垣·洪德元·李天樞·柳舜懋·高尚顏·尹認	
慶尙監司	李戡·洪曇·朴大立·任說·盧禕·金繼輝·尹根壽·朴謹元·李滌·崔顯·鄭芝衍·洪聖民·柳埈·權克禮·李山甫·權克智·金晬·韓致謙·柳永詢	
慶尙都事	崔滉·宋廷荀·魚雲海·李惟誠·權縉·南復圭	
官人層 (함양 출신)	盧禕(知禮縣監/潭陽府使/晉州牧使)·梁喜(扶安縣監)·鄭宗懋(僉正)	
官人層 (일반 관료)	徐九淵(淳昌郡守)·田胤武(山陰縣監)·朴永漢(安陰縣監)·鄭復始(丹城縣監)·陳賓(雲峯縣監)·曹忠彦(居昌縣監)·李求仁(全羅都事)·朴汝珩(忠義衛)·金清(宜寧縣監)·禹世臣(淳昌郡守)·李元常(山陰縣監)·崔稀壽(知禮縣監)·鄭大民(雲峯縣監/谷城縣監)·吳長(鎭安縣監)·鄭起龍(兵使)·李光庭(營餉使)·金弘遠(金山郡守)·鄭逖(安東府使)	

1550-70년까지	· 伊洛淵源錄_鄭復顯(贈呈)
李滉/李栢이	· 讀書錄_陳克興(贈呈)
기획/편찬한	· 伊洛續錄_都希寧(贈呈)
24종	· 朱子詩集_李俊民(贈呈)
가운데	· 醫無閭集_盧禕(贈呈)
濫溪書院에	· 孔子通紀_林希茂(贈呈)
증정/구비된	· 程氏遺書_李栢(贈呈)
책은 16종	· 唐鑑_趙惟誠(贈呈)
옥산(6)/도산(11)/임고(3)	· 朱子感興詩_盧禕(贈呈)
	· 延平答問_盧禕(贈呈)
	· 朱文公家禮儀節_盧禕(贈呈)
	· 二程粹言_院備
	· 皇明名臣言行錄_院備
	· 讀書錄_院備
	· 朱子書節要_院備
	· 朱子實紀_院備

전란과 책 _ 정경운(鄭慶雲)의 고대일록(孤臺日錄)_(1)

· 1595년 6월 10일

나는 서원(書院)에 갔다. 지부(支夫) · 군술(君述) · 위서(渭瑞)와 함께 서책을 실어 오는 일을 의논해서 결정하였다. 애 질 무렵에 가서 공간(公幹)을 만났다가 황혼에 집으로 도착했다.

· 1595년 8월 28일

나는 서원(書院)에 가서 여러 차례 서책을 조사하였는데, 임금께서 하사하신 《주자대전(朱子大全)》 6권이 분실되었다. 탄식할 만하다. 노덕부(盧德夫) 어른과 계시(啓時)가 또한 와서 이야기하였다. 군술(君述)과 서원(書院)에서 잤다.

· 1596년 7월 10일

서원(書院)으로 가서 서책을 별에 맡겼다. 지부(支夫:노사상_노관 아들) · 군술(君述:진경운) · 위서(渭瑞:강용왕)와 만나서 이야기하였다. 사고(士古)도 와서 이야기하였다.

전란과 책_ 정경운의 고대일록_(2)

· 1597년 8월 7일

진군술(陳述)과 함께 서원에 가서 서책을 옮기고 신판(神版)을 물었다.

· 1597년 9월 11일

서원(書院)으로 와서 유허(遺墟)를 보았다. 서책이 불에 타서 남은 것이 없으니, 안타깝다.

· 1599년 1월 28일

서원(書院)의 책을 점검해보니, 단지 두시(杜詩)만 전집(全秩)이 있을 뿐이고, 기타 어류(語類)나 성리대전(性理大全)은 반 이상 흩어져 없어졌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불에 타버렸으니, 너무 통탄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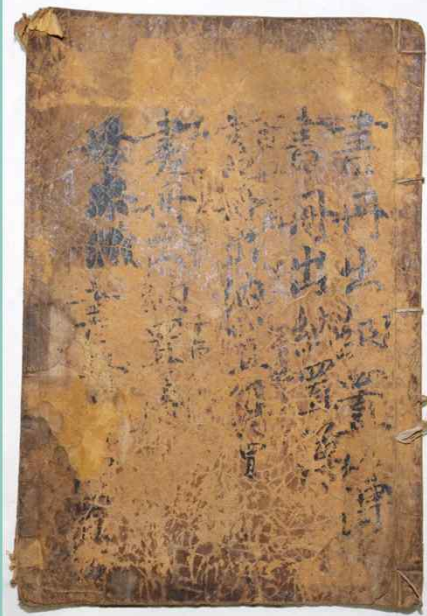
· 1599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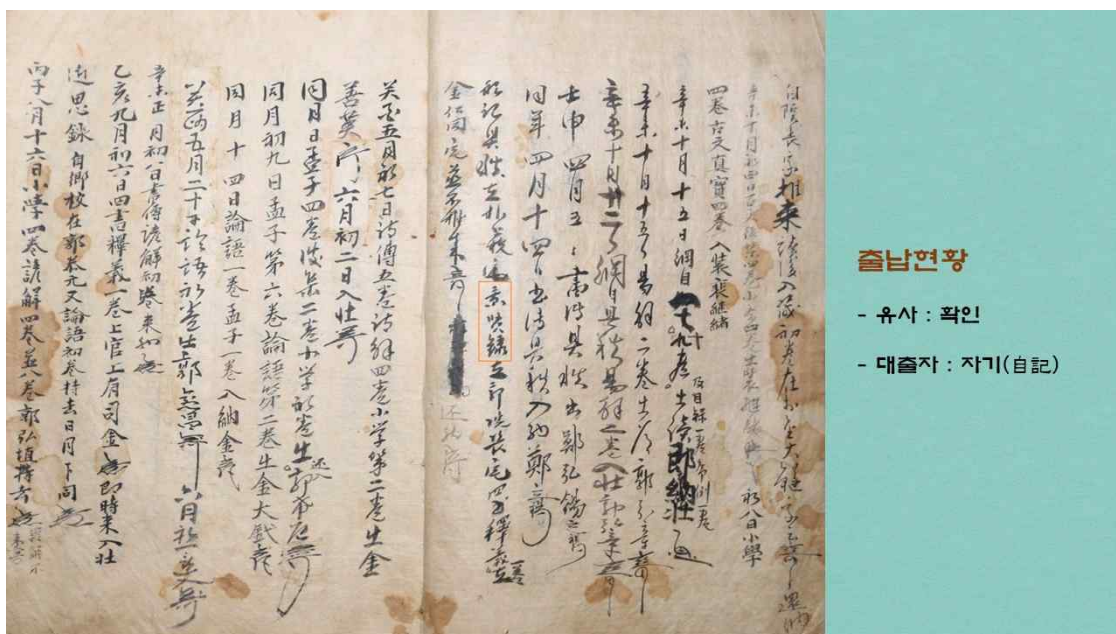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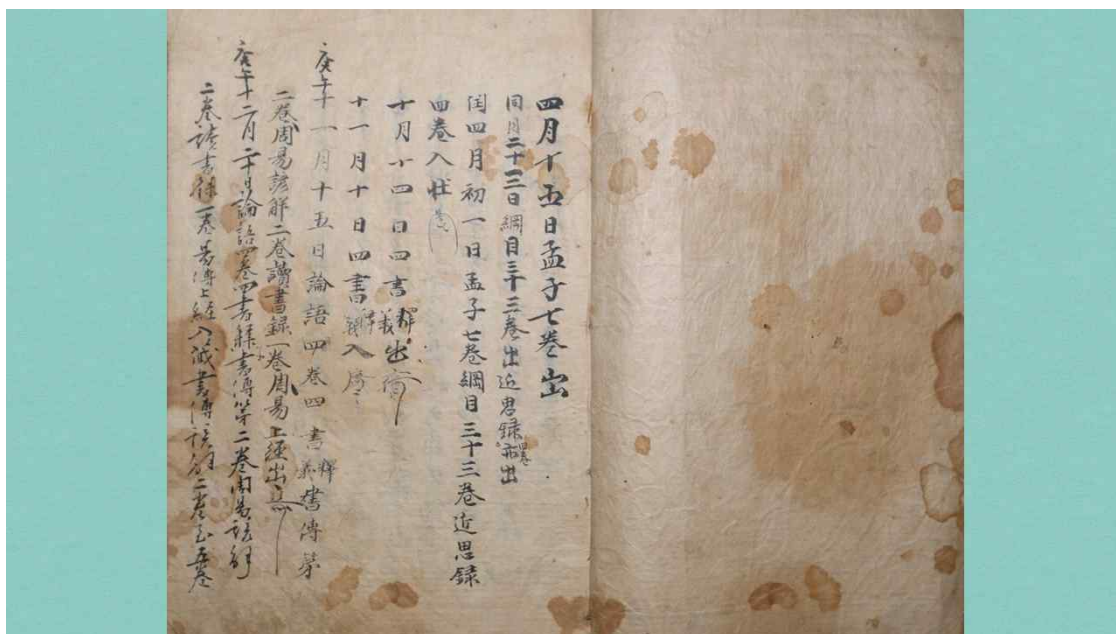
서원(書院)에 가서 진술(陳述)과 함께 문적들을 펴서 조사하였다. 보존된 것은 기록하였는데, 파책(破冊)이 오십여 권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도동서원(현풍 _김광필)

개방형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서책출납 (1629-1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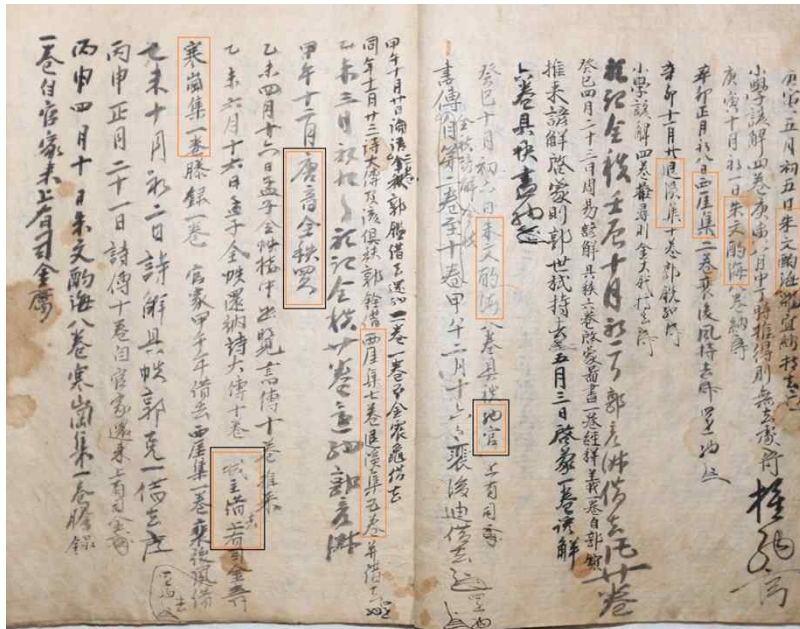
출납연광

- 유사 : 확인
- 대출자 : 자기(自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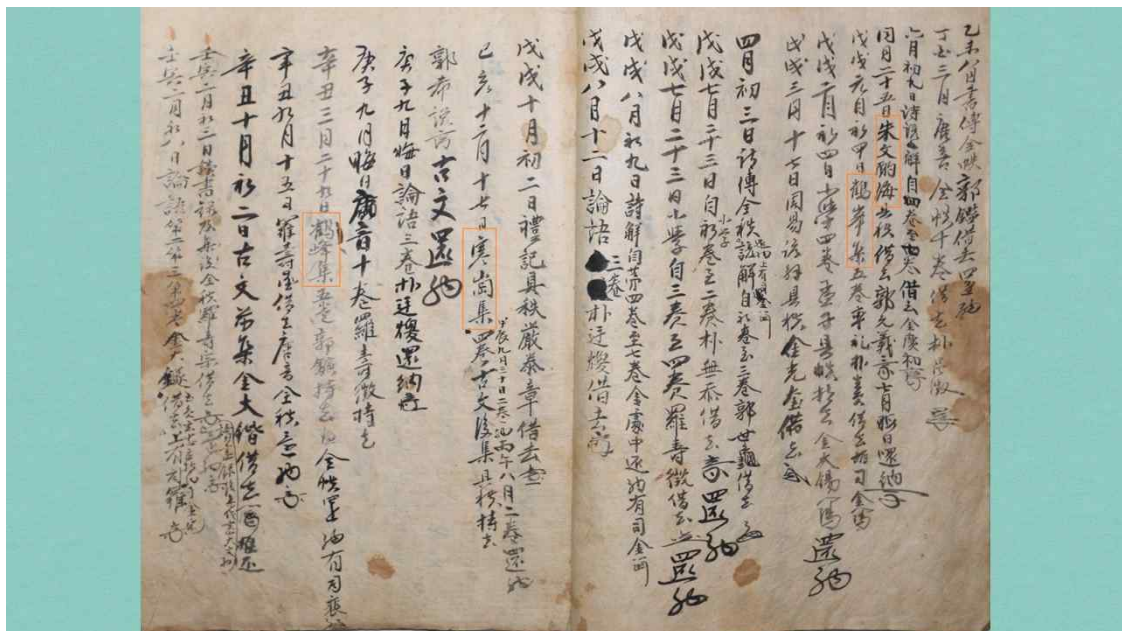
- **덕양집**(奇邊, 1606년 간행)
- **서애집**(柳成龍)
- **한강집**(鄭述)
- **경헌록**(金宏弼)
- **퇴계집**(李滉)
- **곽봉집**(金誠一)
- **심경발휘**(心經發揮, 鄭述)

禮記二十卷五正月十日郭院長朱納
 讀書錄一卷在御校
 陽陽集卷西屋以系工卷上於抄東面
 綱目初卷至第六卷持去時汝南李友
 同年六月廿五日探目上卷西屋以系工卷全
 初抄半
 同年七月十六日汝陽集卷初
 己卯三月十六日西崖持卷初卷郭即
 己卯士月初五郭和隨小堂與汝解入卷來納也
 土同
 郭泰元汝溪的卷來納也
 唐辰二月十日
 詩坊經史校持去朴傷漫還納
 庚辰有約自小學該解持去郭惟漢焉
 辛巳九月晦寒宮集郭泰元還納
 辛巳十月朔日重宮集郭泰元還納
 金碑四書釋義還納
 壬午二月十六日汝溪解吳校持去郭書
 癸未二月十三日寒宮集羅以監持去
 癸未二月十三日汝溪解吳校持去郭書
 癸未三月十日周易大全吳校持去郭書
 二月十八日
 甲申十二月初二日青林齋出金林齋
 甲申十二月初二日青林齋出金林齋

乙酉二月十五日綱目見郭子伯持卷
郭子伯持卷全綱伯持卷不屬同年七月初三日達入
乙酉十月初旬論孟見郭子伯持卷
丁亥二月十四日孟子具秩及論語三卷納初卷未納
右郭鎮納
上右司金庫
同月十六日禮記二十卷具秩郭鎮納寒園集五卷內四卷
羅以賢納一卷未納
上右司金大貳寺
三月十九日羅以賢寒園集一卷納同月同日
郭鎮淪語一卷納工右司金大貳寺
同月同日郭准寧詩話解一卷納三卷未納大貳寺
三月十日寒園集郭後龜持去



- 주문작애 : 納官
- 서책의 매입 : 唐音
- 수령의 대출 : 詩大全
- 주문작애 (朱文酌海_鄭經世)
- 주문작애 : 1648년 간행
- 간행 후 2년 뒤 소장



주요대출인

- 배계서 : 낙전 배신 손자 _1664년 정구의 도통서원 추향 정원
- 곽홍장 : 1607-1673 _진사(1651) _조임도 등과 교육
- 김선영 : 1605년생 _문과(1636)
- 김대익
- 곽홍식
- 곽홍제 : 재정기반 확충 상서(1644)
- 김저중 : 원장 _재정기반 확충 상서
- 곽유번 : 1594-1668 _묘갈명(곽중석 찬술)
- 곽태원 : 김세렴 교육
- 김 올

주요대출인

- 나이현 : 배응경(정구 교육인)의 외손
- 곽홍지 : 이언영(한강고제) 교육
- 곽연숙 : 문과 _박사 _한강문인 성이성 교육
- 곽세구 : 1618년생 _1660 생원 _김을 질서
- 김저중
- 엄태장 : 1618년생 _정구의 처질 이당의 손서 _생원(1660)
- 곽태제
- 나수중 : 나학전 부친

壬戌二月十日詩傳全秋請解四卷金元華借去有司羅
同月心經上下心經發擇上下卷郭鑑借去有司羅
同年月日西庄集十一卷羅壽宗借去有司羅
壬戌十月四日唐音十卷郭進士借去有司郭勤
同年同月日詩解四卷張傳其秋借去郭恭齋
癸卯三月十日宋同集一卷郭進士借去有司郭勤
癸卯四月十六日小學諸解四卷官寄借去有司郭勤
甲辰三月十日古文前集三卷借去金特振
同年八月十八日論語四卷郭希英借去有司郭勤
乙巳三月初六日周易諸解官家具秋借去有司郭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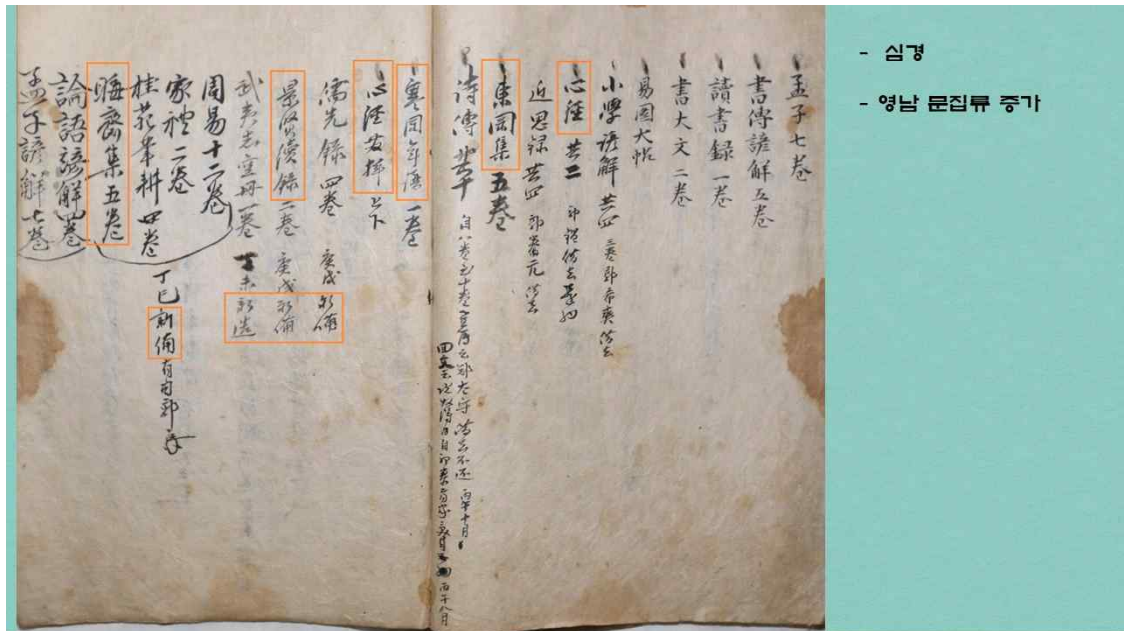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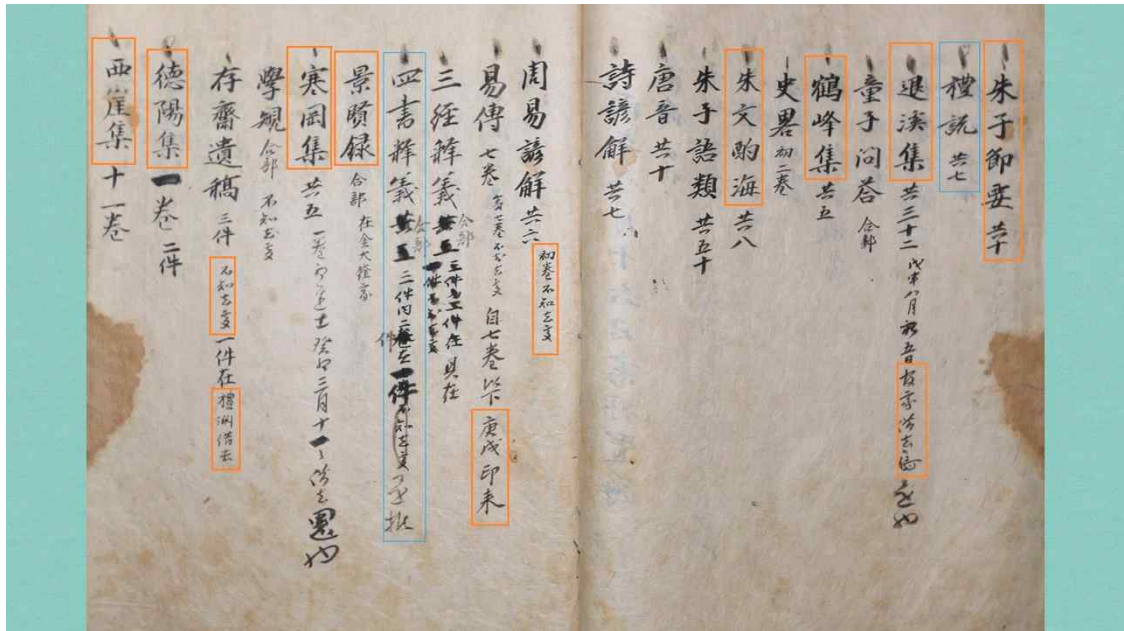
同年七月十九日自郭察訪家
丙午二月十六日唐音具秋還來有司郭勤
丙午十月二日西庄集其秋還河 朴廷燾
同年同月同日西庄集其秋十一卷讀 郭進士
丙午十月二日詩解四卷借得七卷還納其餘三卷郭勤
同年月日宋同集全秋羅壽宗借去有司郭勤
上下卷內死有司張俊
丁未二月九日唐音具秋還來有司郭勤
丁未閏四月初八日德陽集全秋金慶和來也
辛戌六月八日唐音具秋還來有司郭勤
辛戌十月十一日西庄集其秋還來有司郭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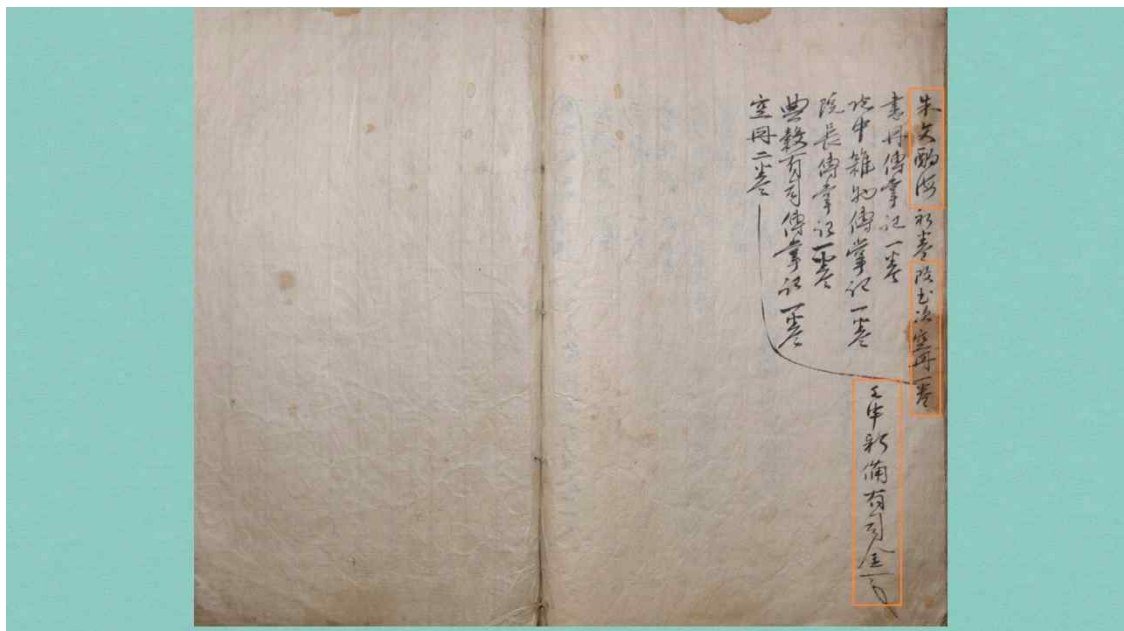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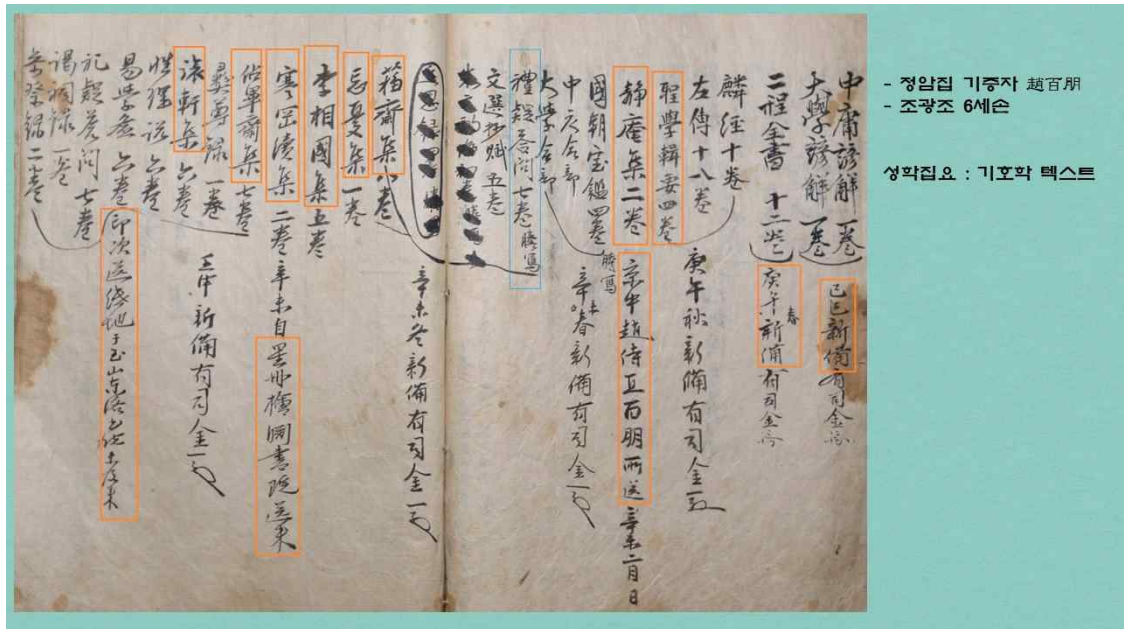
辛戌七月七年西庄集其秋還來有司郭勤
同年九月日西庄集其秋還來有司郭勤

丙午八月十六日書冊置簿

書傳 全秋
古文前集 共三 西向美堂書村來美借去
小學 共四二件
通鑑 共十五
夙興夜寐箴 合并
禮記 共十
大學衍義 共十三
綱目 共八十一
論語大註 共四 初卷不細書

三萬六千六百卷內
十二卷不細書





병산서원(안동 _류성룡)

서애학의 사회적 확장

병산서원 대학통독회(1781)

서애학이라는 가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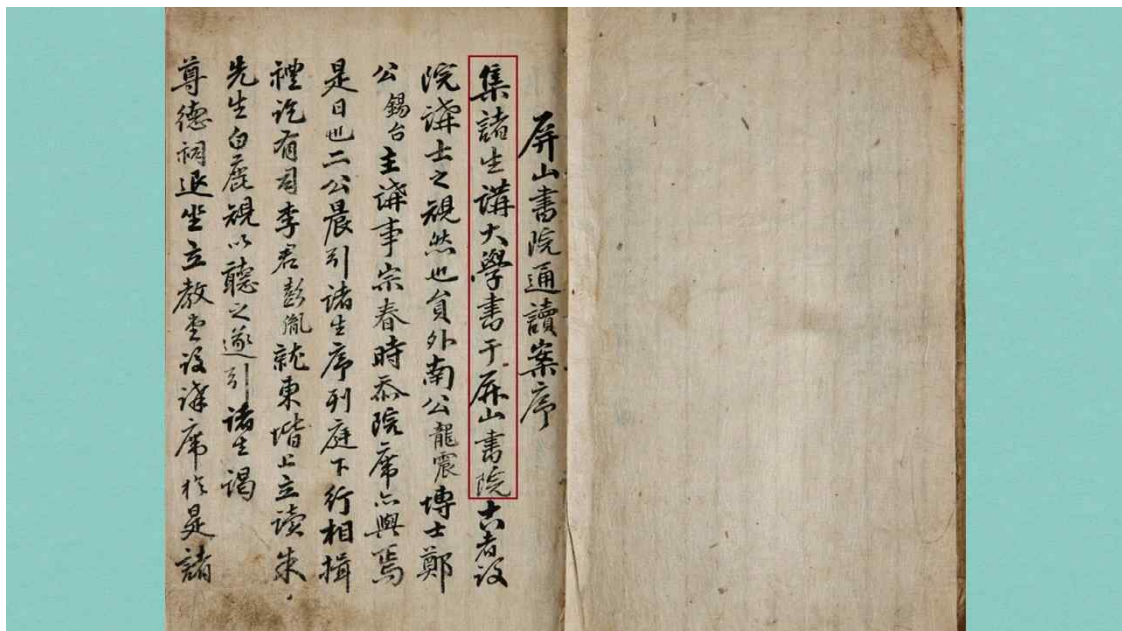


서원이라는 지식문화 인프라를 통해



사회학으로 확장

<병산서원통독안>(1781) : 대학강독회(大學講讀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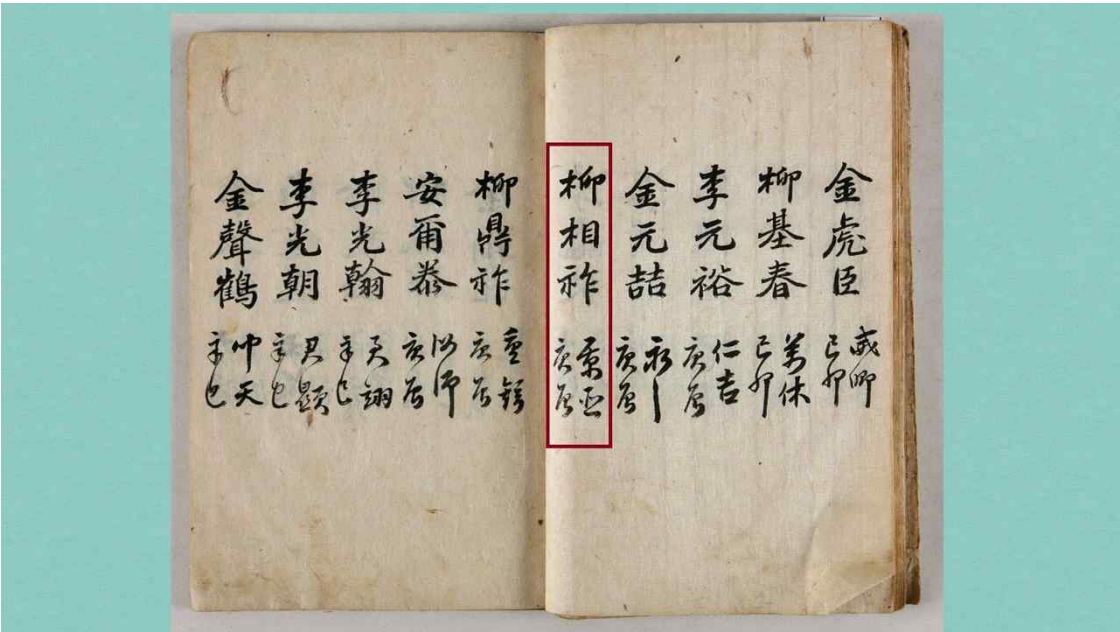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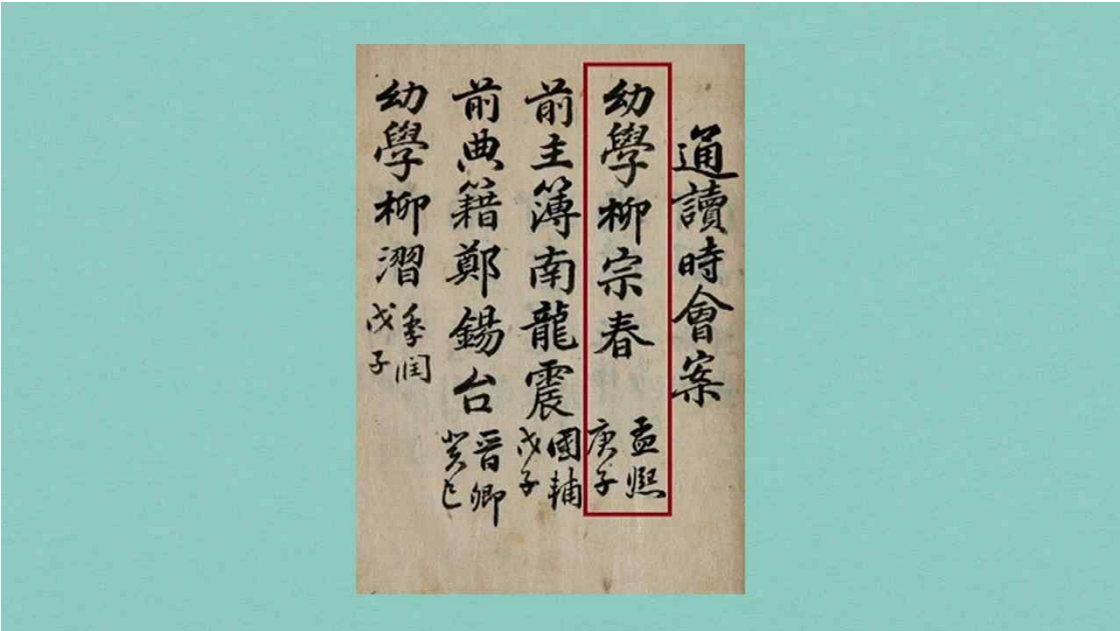
生戴中園博者僅六十餘負各持大學
 一部以次而坐儀甚肅然也坐既定一人
 進詣二公前拜跪讀首章一過誦終
 義大畧坐中諸君各隨見解而及之相反
 後必次焉然後次者又進讀次章誦終
 義必以之自是月終未幾越四日而戔而畢
 此誦事之顛末也倭所竊念書院之
 作亦宜於誦學以進士也且焉 儒賢
 尸祿而已故古之書院莫不以經學為
 重春秋真嶺南以儀招集諸生而羣
 處之四子六經治建羣書切於心身者為
 之日夜誦習歷四序而不撤其任士之
 為擇術之精有如此者古之書院必反
 是焉而重春秋嶺南之至在於經使錦
 業性本有之而率不出於科場地好之
 而誦經學誦討之事則亦非也嗚呼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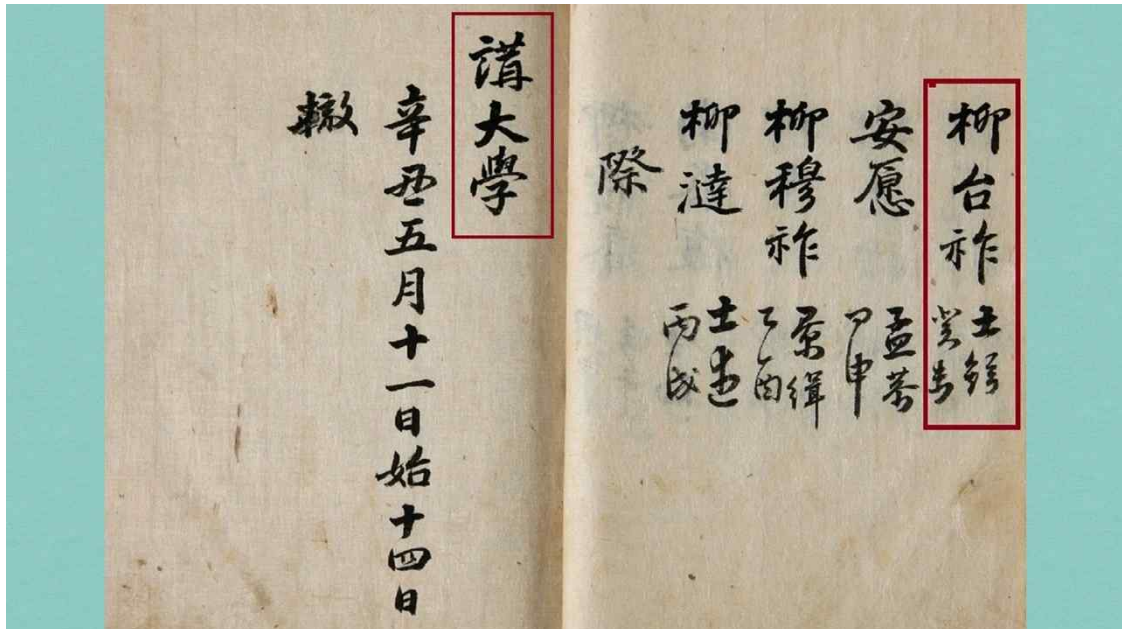
勢也猶矣 述陶先生而理漢人心術郭
 杜瀾品著之固者不幸而逝矣然則今日
 之舉其可已乎一縣同心多士齊聲相乞
 以久相親以善有進退揖讓之節焉有
 尊賢尚德之儀焉有切懇琢磨之道
 焉況其誦之書即修己治人之方乃吾
 儒本分內事豈維於改設誦士之視不敢
 妄議而抑可謂儒官之當務吾輩之集
 集也猶收夫不倭之蒙誨云哉四廟誦求
 無以復是書蘊奧之趣答諸賢叩問之
 勤使有誦士之名而誦士之實是其可
 愧也哉其可懼也哉會將罷先少諸君子
 各記姓名字年以為辛丑誦讀榮且曰
 此事之廢墜久矣今日而幸於羣焉子盍
 書之以為後人勸不倭醒然作而曰有誦
 士之名而無誦士之實則何以為後人勸



1781년 병산서원 대학강독회

- 일 시 : 1781.5.11 - 5.14 (4일간)
- 주관자 : 류중준(류성룡 7세 宗孫)
- 참가인원 : 107명
 - 회원(45) : 강독회 정규 회원
 - 유생(62) : 강독회 참관 유생 _정강생
- 강장
 - 남용진(1777년 원장)
 - 정석태(1778년 원장)





대학강독회의 의미

- 류성룡의 사당 존덕사(尊德祠)를 참배하고 강당 입교당(立敎堂)에서 이루어진 '대학강독'의 명분은 본령 공부의 회복
- 과거에 빠져드는 풍조의 개선책으로서 경학(經學) 공부를 통한 유자의 본분 확립
- 수기(修己)·치인(治人)의 대방이 집약된 <대학>을 채택함으로써 류성룡의 훈화론(訓誨論)을 서원교육에 접목

(김학수_서애가학 연구_2015)

가장 오래된 서원의 기록 ‘소수서원이 품은 고문헌의 가치’

채광수(영남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한국 최초의 서원
- III. 소수서원 藏書의 구축과 전승
- IV. 소수서원 고문서 현황과 가치
- V. 맺음말

I. 머리말

첫째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 둘째 어진 이를 예우할 것, 셋째 사당을 잘 보수할 것, 넷째 물자를 비축할 것, 다섯째 **서책**을 점검할 것.¹⁾

위 문구는 주세붕[1495-1554]이 백운동서원을 창건 후 제정한 院規의 1條로, 1조에 서책 점검의 중요성을 특서해 둔 점이 주목된다. 서원은 교육과 교화 못지않게 지역 사회에서 지식 창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장서로 대표되는 서원 아카이브가 그것이다. 서적을 수집·생산·유통시키는 장서제도는 강학의 보조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서원이 지역의 도서관적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지식 확산에 기여했다. 책이 귀했던 전통사회에서 다수의 장서를 보유한 서원은 일종의 도서관으로서 지식인들의 서원 출입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院儒들은 강회·시회 통해 지식을 교류하며 문학작품을 남겼고, 원임들은 서원을 운영하면서 다종의 기록물인 고문서를 생산하여 전승시켰다.

현재 서원의 장서와 출판·도서관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서원의 문고설치, 서적 수집 및 관리, 간행과 판본, 개별 서원의 장서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제법 해명이 된 상태이다.²⁾ 이중 배현숙의 논문은 본고와 직결되는 소수서원 장서 전반에 대해精緻하게 분석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또 고문서를 활용한 서원 논저는 하나하나 거론할 수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corhkdt911@ynu.ac.kr

1) 영남고문헌연구소, 「院規」, 『소수서원지』, 소수서원, 2007, 275쪽.

2) 이춘희, 『조선조의 敎育文庫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배현숙,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한국서지학회, 31, 2005;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46, 대동한문학회, 2016;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옥영정, 「엄격한 서책 관리와 도서관 역할」,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2;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배현숙, 「陶山書院 刻板活動研究」,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없을 정도로 다양하나, 서원에 소장된 고문서 자체를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는 보고서 또는 자료집을 제외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³⁾

1543년(중종 38) 창건된 백운동서원 곧 소수서원은 한국서원의 시초이며 典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소수서원에서는 지역 선현을 선정하는 전통, 교육과 제향 규정, 사액 제도 등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는 이후 건립된 서원의 기준으로서 한국서원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소수서원에서 전승되어 온 가장 오래된 서원의 고문헌은 현재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서원의 역사 자체를 함축하고 있는 소수서원 고문헌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의 일환으로 고서의 구축과 전승, 고문서의 현황과 가치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소수서원의 고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확인하고, 本院의 특성을 재조명하여 향후 콘텐츠를 구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

조선의 서원제도는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설립으로 출현했지만, 이후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이황이었다. 이황은 당시 집권층의 권력을 이용한 私利 추구를 배제하고 公道를 회복하는 것을 조선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사회의 부패는 士習의 不正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이는 수기를 통한 ‘正人心’한 인간형의 창출로서만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황은 이와 같이 治人의 전제로서 위기치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서원이라는 새로운 학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황은 서원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관학인 성균관과 향교는 변화가에 위치해 있어 차별하게 공부할 수 없고, 과거와 관련되고 學舍에 구애받기 때문에 출세·공리주의를 떠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⁴⁾

즉 그는 당시의 정치현실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의욕적인 신진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다. 따라서 그는 향촌의 士子에게 주자학적 정치이념과 학문체제를 훈도하고 수련시킴으로써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구축해, 이를 발판으로 다가올 사람의 시대를 준비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송대 주자에 의해서 창안된 지방사학인 서원을 강조하였다. 이 새로운 교학체제의 확립은 선초 이래 있어온 중앙통제방식의 관학적 교화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촌사람 위주로 전개될 새로운 교화체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황은 신진사람의 강학·장수처로서 서원제에 주목해, 풍기군수 시절 백운동서원의 사액과 확충에 힘썼다. 나아가 고향 예안에서 향촌사람과 제자를 총동원해 직접 서원 건립을 주관하는 등 그 창설 보급운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院規를 직접 제정해 유생들의 공부 영역과 학문에 임하는 자세 및 운영방향 등을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황의 문인들이 이러한 스승의 서원론에 공감하고 서원보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서원은 빠르게 하나의 교육제도로 자리 잡았다.

3)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김순한, 「상주 玉洞書院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4)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그의 教化論과 관련하여-」,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백운동서원은 한국 최초의 서원으로 고려 후기 유학자 안향을 제향하는 祠廟에서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이 서원은 16세기 중엽 이래 향사를 계속하여 한국 서원의 제향 의식과 서원에서 행해지는 일상 의례를 대표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곳이다. 1542년(중종 37) 8월 풍기군수로 임명된 주세붕은 순흥 출신으로 주자학을 수용한 선구자이자, 1319년(충숙왕 6) 문묘에 종사되었던 안향을 제향하는 사우인 ‘文成公廟’의 설립공사를 시작해 1543년(중종 38) 2월 준공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설립자 주세붕은 『竹溪志』 서문에서 “무릇 가르침은 반드시 존현에서부터 비롯되므로 이에 사묘를 세워 덕을 높이고, 서원을 두어 배움을 두터이 하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가르침이란 어지러움을 수습하고 굽주림을 구하는 것보다 급하다”고 하였다. 즉 그는 서원건립의 동기로 교화를 내세웠으며, 교화는 반드시 존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설파하면서, 이를 풍기에 적용했다. 즉 풍기의 교화를 위해서 이 지역 출신인 안향을 존봉하는 사묘와 儒生藏修를 위한 서원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그는 이 시기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교화라고 인식하여 사묘·서원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세붕은 백운동서원 건립에서 사묘와 서원을 별개로 간주하였고, 서원은 사묘의 부수적인 존재에 그쳤다. 사묘는 교화를 위한 존현처요, 서원은 단순한 유생의 독서처였던 것이다.

이후 서원이 명실상부한 유생의 장수 및 강학소로 발전한 것은 상술한 이항에 의해서였다.⁵⁾ 이항은 안향을 제향하는 것은 그가 진실로 동방 도학의 祖로서 삼한의 묵은 때를 한번 씻어내었고, 이제현·정몽주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에 들어와 천리를 밝히고 문풍이 크게 일어나도록 해서, 실로 사문에 막대한 공을 남긴 선현이라 했다. 그러므로 안향이 살던 풍기의 교화를 위해서는 이곳 출신인 안향을 존봉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그를 제향하는 사묘를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향의 종손 安珽의 후의로 서울 대종가에 봉안되어 있던 안향의 遺像을 가져와 새로운 사묘에 봉안하였다. 그러면서 「奉安安文成公遺像跋」에서 다음과 같이 그가 세운 祠院이 사문 흥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뒤에 군수로 와서 오늘을 잇는 사람은 진실로 내가 세운 바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문성공의 사묘에 정성을 다하고 어진 선비들로 하여금 즐겨 이 서원에서 공부하고 덕을 닦게 한다면 반드시 회현과 마음이 회합할 터이니 그것이 斯文을 일으키는데 또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안 된다 고는 못할 것이다.⁶⁾

1543년 4월에는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강당과 동·서재를 짓기 시작하여 8월에 완공하고, 같은 달 유생들의 유식처로서 ‘景濂亭’을 건립하였다. 경렴정은 성현을 경모하고, 북송의 염계 학파처럼 많은 후학을 길러내라는 뜻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처럼 서원의 외형이 갖추어지자 1543년 8월 안향의 영정을 봉안한 후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주세붕이 소백산 아래 죽계천변에 터를 잡고 서원을 지어 그 이름을 ‘백운동’이라고 한 것은 주희가 재흥시킨 백록동서원이 있는 廬山에 못지않게 구름, 산, 언덕, 강물이 항상 서원을 세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백운동서원은 자연경관에 비추어 명명한 것이었다.

백운동서원은 건립 당시부터 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 당시 경상도 관찰사 임백령[1498-1546]과 후임관찰사 이연적[1491-1553]의 어엄·鹽藿의 施措가 있었고,⁷⁾ 또 서원을 건립함으로써 향촌민을 교화하여 교육진흥을 꾀한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독

5) 정만조,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1980;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6) 주세붕, 『武陵雜稿』 권8, 原集, 跋, 「奉安安文成公遺像跋」.

지가의 희사가 상당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다. 그 예로 읍인 진사 황빈은 서원운영에 필요한 租米 75석을 희사하였다. 그는 서원뿐 아니라 향교를 이건할 때도 많은 협조를 한 사람이었다.⁸⁾ 이렇게 볼 때 백운동서원은 지방관과 향촌사림의 공동협력 하에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원건립에 당시 풍기사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많은 풍기사림들은 기존의 유향소·사마소를 통하여 이미 지위와 세력을 굳건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자기들의 세력기반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당시 전국적인 기근 현상을 들어 이를 반대하였다.⁹⁾ 한편 정권담당자인 훈구파의 입장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의 향촌자치적인 성격을 띤 서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향촌민 또한 서원설립이 노동력 동원 등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백운동서원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의 신설은 될 수 있으면 한유한 寺院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점 또는 송유역불의 이중효과를 노리겠다는 국가의 정책적인 의도에 발맞추어 당시 폐사화되어 있었던 宿水寺 廢址에 설립되었다.¹⁰⁾

주세붕은 안향의 영정을 봉안하고 서원의 규모가 일정부분 갖추어지자 1544년(중종 39) 순흥 출신으로 안향의 후손이었으며, 각각 고려 충렬왕과 충목왕 대의 유학자로 알려진 安軸과 安輔를 제향하였다. 같은 해에 주세붕은 서적을 구비하여 서원에 비치하고, 원규를 제정하여 서원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1633년(인조 11) 순흥 사람들에 의해 주세붕이 소수서원에 추향되었다.

주세붕은 자주 서원에 와서 머물면서 유생과 더불어 經義를 강론했으며, 그의 노력으로 풍기 일대의 교화가 크게 떨쳐서 유생이 존중되었다. 또한 入院한 유생들이 불과 4~5년 만에 名士가 되고 과거에 급제하여 백운동서원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다.¹¹⁾ 이는 백운동서원에 대한 주세붕의 열의가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당시 서원 교육이 修己보다는 과거 위주로 운영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주세붕의 이런 시책은 1545년(인종 1)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안향의 후손 安玠 [1501-1560]에 의해 더욱 진흥되었다. 그는 토지와 서적을 기부하고 서원 건물을 증축하는 한편, 「斯文立議」를 제정하여 서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리를 관에서 관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백운동서원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

「사문입의」는 모두 19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의성·흥해·진주 등지에서 屬公奴婢 3~4구씩 모두 12구를 서원노비로 차정하고, 4~5인의 院直에 대한 면역과 구휼 및 院役人 부족 시 풍기군 僧人 환속자의 차정 등을 수령에게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궤를 위하여 유생의 어물 반찬용으로 熊川 소산의 靑魚基 3곳을 확보했다. 서원 근처에 있는 민간 전답 30결은 경작인들에게 잡역을 면제하는 대신 오로지 서원을 수호하고, 공궤 시 땀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생 공궤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과 물품은 그때그때 각 읍에서 조달

7) 『雲院雜錄』, 紹修院史.

8) 『죽계지』 권2, 順興白雲洞紹修院學田記.

9) 윤희면, 「白雲洞書院의 設立과 豐基士林」, 『震檀學報』 49, 진단학회, 1980, 66~73쪽. 백운동서원에 뒤이어 설립된 함양의 남계서원의 예를 보면, 서원건립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초기 서원에 한정되었으며 사림세력이 중앙정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선조연간 이후의 상황은 이와 판이하였다.

10) 『죽계지』 권2, 順興白雲洞紹修院學田記.

11) 『紹修書院謄錄』,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12) 구체적 내용은 『소수서원등록』, 「白雲洞書院加造成 及讀書儒生常養雜物 分定行移謄錄」 참조.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서원 전답에 대해서는 재임 시 논 29부 5속, 밭 13부 9속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하고, 寶米 長利의 운용에 대한 군수의 감독과 협조를 지시하였다.

백운동서원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고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548년(명종 3) 10월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항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이항은 1549년(명종 4) 12월 당시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에게 계문하여 백운동서원을 사액서원으로 발전시켜줄 것을 청원하였다.¹³⁾ 여기에서 이항은 중국의 예를 들어 사액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인 후원 및 관찰사·수령 등 지방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의 지원은 경제적인 것에만 한정시키고, 이 외의 서원 운영은 사람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직접 사액을 요청하지 않고 경상도 관찰사를 통한 것은 당시 사화가 계속되는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권신계가 서원을 또 다른 사람 탄압의 구실로 삼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講明道學과 藏修를 위해서라고 해도 유생이 취회하는 장소를 권신계가 좋게 볼 리 없었다. 그래서 이항은 일체의 정치적 혐의가 있는 표현은 피하고 다만 서원이 교학진흥을 위한 방책의 하나이며, 중국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관찰사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이다.¹⁴⁾ 실제 당시 관찰사 심통원은 좌의정 沈連源의 친동생이자, 명종의 외척이었다. 심통원을 통한다면 조정의 동의를 받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서원이 당시 관학의 부진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일단 인정하고, 유생을 고무·진작시키기 위해 그 청을 대개 수락하되, 전토와 노비는 주세봉과 안현이 이미 조처했으므로 이는 不給하였다. 이후 대제학 申光漢이 명을 받아, 上啟한 ‘紹修’와 ‘興慶’의 명칭을 올렸다. 이에 명종은 서원의 이름을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했다[既廢之學 紹而修之]”는 뜻을 담은 ‘소수’로 낙점하였다. 서원의 이름에 성리학의 이념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신광한에게 명명하게 된 뜻을 기록한 書院記를 짓게 하고, 교서관에서 편액을 刻造頒降하도록 했으며, 1550년(명종 5) 2월에는 ‘소수서원’이라고 쓴 현판을 내렸다. 또한 『사서오경』, 『성리대전』 각 1건씩도 함께 내렸다.¹⁵⁾

이로써 서원은 단순한 사설 교학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공인 하에 발전하고 보급되었다. 또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은 이후 서원 사액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 뒤이어 설립되는 남계·임고서원 등에 대한 사액은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후 신진사림의 강학·장수처로서 서원제에 주목한 이항은 서원 건립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항의 서원론에 공감한 그의 문인들이 서원보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서원은 단기간에 하나의 교육제도로서 자리 잡았다.

소수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되자 입학을 원하는 유생들이 늘어났다. 소수서원은 1543년 첫 입원유생이 들어온 후 353년간 약 4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이항의 문인을 비롯해 경향 각지에서 찾아온 유생들이 운집하여 명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는 소수서원이 초창기 서원 중 대표적 교육기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수서원을 필두로 서원 건립이 사림들과 위정자들에 의해 장려되자 선조 대부터는 건립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서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여기에는 교육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방관들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자치 기구라는 점이 사족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이후 각 고을의 사족들이 경쟁적으로 서원을 건립해 나갔던 것

13) 『退溪全書』 권9, 「上沈方伯」.

14) 정만조, 앞의 책, 1997, 39쪽.

15) 『명종실록』 권10, 명종 5년 2월 병오.

이다. 더구나 17세기 이후 정치적으로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각 붕당은 자파세력 확보를 위해 서원 건립을 장려하였고, 이는 서원의 남설과 첩설을 일으켰다. 18~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조상 추숭사업의 일환으로 각 문중이 서원 건립을 주도하며 남설과 첩설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조선 후기 서원은 점차 정치·사회적 폐해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에 국가에서는 서원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책을 추진해 나갔다.

흥선대원군은 1864년(고종 1)부터 1871년(고종 8)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서원철폐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47개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원사가 훼철되었다. 소수서원은 이때 훼철되지 않은 47개소 서원 중 하나였다. 문묘에 제향된 안향의 위패를 제향하는 대표적인 서원이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였기 때문에 훼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서원은 역사적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55호로, 201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Ⅲ. 소수서원 藏書의 구축과 전승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었던 만큼 서원 연구에 있어서 특수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원의 역사가 긴 까닭에 다른 영남 지역의 유력한 서원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었다. 서원에 서적의 필요성을 인정한 주세붕은 서원 창건 후 원생들의 강학 교재로 활용할 서적들을 구비했다. 마침 서원 공사 개토 작업과정에서 銅器 300여근을 얻었고¹⁶⁾ 이것을 밀천 삼아 서울에서 필수 성리서인 『二程全書』·『주자대전』·『대학연의』·『통감강목』등을 구입했다. 당시 구입한 서적의 목록은 『藏書錄』에 수록되어 있다.¹⁷⁾ 또한 성리학서와 경서 몇 질을 인쇄하여 비치했다.¹⁸⁾ 나아가 주세붕은 다른 성리서들을 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아래 주세붕이 안향의 후손 注書 安挺然에게 보낸 서신에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중략) 『주자전서』 『주자어류』를 아직까지 사오지 못하여 자나 깨나 갈망하고 있고, 『주자강목』 또한 갖추기를 바라지만 값이 폭등하여 다른 책에는 미치지 어렵지 않을까 여깁니다. 오직 당신께서 더욱 힘써 조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¹⁹⁾

이같이 집적된 서적들은 1543년(중종 38)에 지은 藏書閣에 보존하여 장서각이 도서관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백운동서원 시절의 소장 전적 자료는 창건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 간행된 『죽계지』에 그 목록이 반영되어 있다. 『죽계지』권4 「白雲洞書院藏書錄」에는 43종 525책의 책자가 소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²⁰⁾

16)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17) 배현숙, 앞의 논문, 2016, 279쪽.

18) 옥영정, 앞의 논문, 2005, 315쪽.

19) 영남고문헌연구소, 앞의 책, 2007, 73쪽.

20) 『죽계지』 권4 「藏書錄 - 백운동서원 藏書」.

표 1 1544년 소수서원 장서 목록

분류	서적 목록
經[24종]	주역대전(14권), 예기대전(16권), 唐板小全(10권), 시대전(9권), 大文(5권), 서대전(9권), 주례(7권), 대학(1부), 或問(1부), 중용(1부), 논어대전(2건 14권), 맹자대전(2건 14권), 근사록(2건 8권), 성리대전(36권), 대학연의(12권), 소학(2건 10권), 眞西山心經(2권), 伊洛淵源錄(2권), 주자어류(59권)
史[7종]	춘추부록대전(17권), 胡傳大全(7권), 호전소전(4권), 통감(15권), 좌전대전(23권), 宋鑑(16권)
子[9종]	명신언행록(16권), 自警編(7권), 文選(15권), 초사(2권), 문장귀범(2권), 儷語編錄(20권), 운부군옥(10권), 박물지(1권), 속박물지(1권)
集[4종]	韓昌黎誌(16권), 柳子厚集(13권), 樊川集(1권), 宛陵集(1권).

위의 표를 살펴보면 성리학 경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초기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원이 지향하였던 교육 기능을 대변하는 것이다.²¹⁾ 또한 향촌사회에 성리학이 한창 보급되던 시대를 장서 분위기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주세붕이 구입한 서적은 모두 525권에 달한다. 이를 주제별로 세분하면 총 43종 중 經部 20종, 史部 5종, 子部 10종, 集部 8종으로 경부가 가장 많았다.²²⁾ 한국 서원 문고의 기틀은 주세붕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목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서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안향의 또 다른 후손 안현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 49책을, 榮川郡에서 43책의 서적을 기증했다. 이렇게 구비된 서적에 관해서는 院外 반출 엄금, 표지 손상 시 郡에서 보수, 完帙 여부를 연말 보고 등의 관리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²³⁾ 이러한 소수서원의 장서의 관리 규정은 다른 서원에서도 차용되어 일반화 되어 갔다.

한편 1550년(명종 5) 사액을 받은 소수서원은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나라에서 인출된 『四書』·『五經』·『성리대전』을 하사 받았다. 조정에서 사액을 줄 때 책을 함께 내리는 전통의 시작이었다. 1552년(명종 7) 說經 安璣가 조정에서 새로운 서적을 인출할 때 소수서원에도 반질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강목』과 『사문유취』를 특명으로 반질해 주었다. 이처럼 소수서원은 사액을 전후하여 구입·하사·기증 등의 방법으로 총 620책 이상의 서적을 소장할 수 있었고, 그 뒤에도 서적 기증이 계속되면서 최초의 서원이라는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²⁴⁾ 이후에도 소수서원에는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 이렇게 축적된 장서는 규칙을 제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서원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되었다.²⁵⁾

21) 임근실, 앞의 논문, 2017, 85쪽.

22) 배현숙, 앞의 논문, 2016, 316쪽.

23) 배현숙, 앞의 논문, 2016, 273쪽.

24) 1581년(선조 15) 12월 원장 黃詡과 유사 許繼李등이 『주자절요』 19권을, 영천군수 周博이 『武陵雜稿』 8권을 기증했다. 배현숙, 앞의 논문, 2016, 282쪽.

25) 『죽계지』, 「雜錄後」

·서책을 점검할 것【서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흠어져 없어지게 된다.】

·재계하는 날 현관이 장서를 점검하여 햇볕을 쬌고【사마소 유사는 반드시 계절마다 점검하고, 서원 유사는 달마다 점검한다.】

·수령의 자제가 서적을 마음대로 다루게 해서는 안 된다【서적을 제멋대로 다루게 하면 반드시 이로 인한 절취의 폐단이 생길 것이다. 자제의 마음을 부형이라도 어찌 모두 알 수 있겠는가? 만일 서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유실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절취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수치를 남겨 죽계수와 함께 영원히 전해질 것이니 어찌 부형으로서 경계하지 않으며 자제로서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내가 수령 자제들을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함은 그 근원을 막고자 함이다. 그러나 큰 뜻을 가

이후 서적의 증가 양상은 1602년(선조 35) 7월에 작성된 『紹修書院書冊置簿』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자는 107종 1,678책을 수록하고 있으며, 장서를 ‘內賜’와 ‘道上院備’로 구분하고 있다.²⁶⁾ 전자는 사액 후 국가로부터 반질 받은 것이고, 후자는 경상감영에서 기증한 서적을 수록한 것이다. 당시 내사본 중에서는 『續綱目』, 『주자대전』, 『精忠錄』, 『주자어류』, 『사서언해』 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임란 이전 국왕의 하사본은 21종 663책으로, 전체 하사본의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비율이라 하겠다. 1984년 출판된 이춘희의 『조선조의 교육문고에 관한 연구』에는 서술되어 있으나, 현재 이 목록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조선 후기 소수서원 장서의 추이는 서원에서 작성된 여러 종의 書目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조선 후기~현대 소수서원 장서 추이²⁷⁾

순	작성연대	書目	장서 수량
①	1653년(효종 4) ~ 1697년(숙종 23)	『院中書冊置簿』 ²⁸⁾	122종, 追錄 21종
②	1698년(숙종 24) ~ 1761년(영조 37)	『서책목록』	서적 136종, 화상·碑銘 25종, 서원기록류 7종, 책판 7종, 추록 27종
③	1762년(영조 38) ~ 1785년(정조 9)	『紹修書院冊錄』 ²⁹⁾	서적 209종, 책판 7종, 추록 27종
④	1796년(정조 20) ~ 1810년(순조 10)	『丙辰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	서적 163종, 추록 39종, 책판 3종
⑤	1875년(고종 12) ~ 1891(고종 28)	『乙亥七月三日曝曬書冊現存目錄』	181종
⑥	1917년	『丁巳九月日現存書冊目錄』	129종, 책판 6종
⑦	1951년	『辛卯五月十六日書冊引受現存目錄』	94종 574책
⑧	1969년	이춘희 조사	141종 563책

서원 측에서는 이러한 서원 소장 서책의 관리를 위해 각 책의 앞 面紙에 “來讀院中 勿出院門”이라 墨書해 서원 밖으로 반출을 금했다. 또한 書目에 대출관련 기록을 해두거나 傳掌記 등을 작성하여 그 보관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했다. 그래서 서적의 종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53년에 작성된 ①에 수록된 서적은 122종이며, 권말에 다른 서체로 추록된 서적이 21종이다. 1697년까지 143종이 증대되었다. 1698년부터 1761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②에는 서적 168종, 책판 7종, 추록 서적 14종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와 앞부분 몇 장이 탈락된 상태이다. 1759년 제정한 院中完의에 서적 운용 규정을 재차 강조되는 것으로 미루어 서적의 유실과 훼손이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졌으나 공부할 책이 없어 지성으로 와서 공부하려는 군자라면 또한 일체 이 규례에 얽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6) 다만 서목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이춘희, 앞의 책, 경인문화사, 1984, 22쪽.

27) 배현숙, 앞의 논문, 2005, 275쪽의 내용을 도표로 재 작성한 것이다.

28) 현재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

29) 현재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

30) 영남고문헌연구소, 「院中完議 己卯三月日」, 앞의 책, 2007, 288쪽.

본원의 서책을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은 선배들이 정한 좋은 규약이다. 그러나 지금 보면 서책의 유실과 훼손이 매우 심하다. 이는 서원의 임원이 직접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城上의 손에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관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빌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는 서책재임이 전담하여 수장고의 개폐를 직접 처리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라. 관가에서 간혹 빌려달라고 독촉하는 일이 있으면 성상은 반드시 재임에게 보고하여 개폐하여 내보내고 받아들이게 하되, 반드시 예방 아전이 官帖과 冊祿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린 뒤에 잘 싸서 보내고, 그것을 다 본 뒤에는 때를 맞춰 돌려받도록 하라.

1762년에 작성된 ③에는 서적 209종, 책판 7종에 ②처럼 권말에 다른 서체로 추록된 서적 27종이 수록되어 있다. ④에서는 1796년 8월에 서적 163종이 수록되어 있고, 1810년까지는 서적 39종이 추록되어 202종으로 증대되었다. 이 시기 서적의 증대는 문중의식 강화로 문집류 간행, 기증이 활발해짐에 따른 것이다.³¹⁾ 책판의 경우 3종 450판이 추록되어 있으며, ‘丙辰八月三十日院長權益休’의 주기가 있다. 참고로 권익휴는 1796년에 원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⑤에는 181종이, 1891년까지 16종이 추가되어 197종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④·⑤시기에 양적으로는 증가하는 모습이나 ①과 교차 검증해보면 서적의 종수는 감소되었다. 아마 지방관 또는 지역 명망가의 서적 대출이 많았을 것인데 소수서원은 한국의 다른 서원에 비해 官權과 지역 유력 가문과 깊은 밀착성을 보인 서원이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이다. ⑤에는 포쇄가 5차례 이루어진 가운데 당시 담당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³²⁾ 소수서원의 포쇄는 치제일에 연 1회로 규정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장되었다가 환수한 서목인 ⑦에는 서적 129종과 책판 6종이 수록되어 있다. 94종 574책이 수록된 ⑧은 6·25전쟁 뒤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복귀하여 남은 책을 인수인계한 것이라는 後記가 있다. 바로 소수서원 장서의 가장 큰 산실의 요인은 6.25전쟁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장서 대출 후 회수하지 못하거나 타처로 유출이 되면서 분실이 심화 되었다. 그 같은 실상은 1969년 이춘희의 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①에 등재되어 있는 서적 대비해 불과 32종 243책만 수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 85%를 분실한 것이다. 더욱이 임란 이전 내사본 21종 663책이 안타깝게도 4종 123책으로 급감했다. 배현숙은 적어도 2,600책 이상을 분실한 것으로 분석했다.³³⁾ 이러한 결과는 6.25전쟁의 피해와 관리 소홀에 기인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97년 이루어진 조사에서 30종 145책만 수장되었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 이후에도 장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³⁴⁾ 2022년 진행된 조사 결과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의 장서는 종 114책이었고 이를 분류하면 경서류 11책, 문집·실기류 66책, 사서류 12책, 선집류 9책, 잡저류 7책, 기타 9책으로 파악되었다.³⁵⁾ 이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중 4종 [진한 이탤릭체]이 내사본이다.

31)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93~194쪽.

32) 1875년 金輝鍵·申錫履, 1876년 鄭麒燁·黃震夏, 1879년 李承奎, 1886년 朴明鍾·徐相鏞, 1891년 安聖淵·權相濟.

33) 배현숙, 앞의 논문, 2005, 276쪽.

34) 남권희, 『소수서원 소장 고서 및 고문서 해제』, 소수서원, 1998.

3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 고문헌』, 소수박물관, 2022.

표 3 2022년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 장서 목록

분류	서적 목록
경서류 [11종]	근사록, 논어집주대전, 孟子大文, 心經附註(乾), 주역언해, 周易傳義大全[2], 易解, 書傳, 書傳彥解[2]
문집 · 실기류 [66종]	주자대전[3], 퇴계선생문집(목록), 白沙先生集, 嘯臯先生文集, 嘯臯文集[2], 庸窩寢藁, 葛川先生文集, 敬亭先生集, 溪西先生逸稿, 溪村先生文集, 久菴集, 蘿山世稿, 楠溪文集, 訥隱先生文集, 訥軒文集, 唐柳先生集, 大山文集, 東渠集, 杜詩, 遯庵先生逸集, 藤巖先生逸稿, 梅潭集, 孟巖集, 牧隱集, 霧隱先生文集, 文節公金先生逸稿, 朴正字遺稿, 白沙先生集, 樊川文集, 四佳詩集, 沙村先生文集, 西原世稿, 松巖先生文集[2], 松巖先生續集, 松隱先生文集, 松坡集, 梧峯先生文集, 六臣遺稿, 一松集(貞), 田園文集, 槽巖集(乾), 竹南文集, 瞻慕堂先生文集, 秋江集, 沖齋先生逸稿, 沖齋先生文集, 癡巖逸稿, 澤堂先生集, 澤堂先生續集, 澤堂先生別集, 八斯遺稿, 湖陽先生文集, 活齋先生文集, 悔堂先生文集, 晦齋先生文集, 陶軒先生逸稿[岐陽世稿, 朱子語類, 勿巖先生文集, 晦軒先生實記, 正氣錄, 遯翁先生實記, 許貞簡公遺事]
사서류 [12종]	동국통감, 唐鑑,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元史, 자치통감강목, 春秋胡氏傳, 春秋, 春秋胡氏大傳, 통감, 通鑑口訣, 綱鑑會要, 天運紹統
선집류 [9종]	詩解, 麗語編類[2], 文選, 分類補註李太白詩, 四佳詩集, 詩大全, 諭中外大小臣庶綸音, 重刊陸宣公奏議
잡저류 [7종]	撰集辯誣錄, 闡義昭鑑, 楚辭後語, 破字冊, 皇朝名臣言行外錄, 會纂宋岳武穆王精忠錄, 紹修書院謄錄
기타 [9종]	무자식년사마방목, 韻府群玉[2], 大廣益會玉篇[2], 鄉禮合編叢書, 東醫寶鑑雜篇, 自庵書帖, 體本用書帖
타기관 소장	院中書冊置簿[계명대], 紹修書院冊錄[계명대]

한편 소수서원의 소장 책판은 총 902판 곧 『죽계지』 목판 229점, 『추원록』 목판 661점, 『육선생유고』 목판 8점, 『가례언해』 목판 4점이 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지로 1544년(중종 39)에 편찬된 『죽계지』는 백운동서원의 창건과 제향 인물의 전기 자료, 특히 장서기록을 담고 있어 사료로서 의미가 특별하다.³⁶⁾ 1658년(효종 9) 간행된 『추원록』은 안향을 중심으로 한 순흥안씨 선대 인물의 전기서이다. 安應昌이 의성현령에 있을 당시 판각해 소수서원으로 옮긴 것이다. 印本の 전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판목의 중요성은 크다. 『육선생유고』는 1658년(효종 9)에 박팽년의 7대손 박송고가 사육신의 遺文을 모아 만든 책이다. 판목 아래 ‘辛亥十二月二十日移送于彰節祠祥見雜錄’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영월의 장절사로 이관할 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가례언해』는 주자의 『가례』를 申湜(1551-1623)이 언해한 책으로 서문만 전한다.³⁸⁾

36) 초판이 산란되어 후에 중복되는 판이 상당수이며, 죽계지의 판본은 모두 5종이다. 옥영정, 앞의 논문, 2005, 320쪽.

37) 배현숙, 앞의 논문, 2005, 284쪽.

38) 이외에도 소수서원에는 ‘文成公神道碑’, ‘薦飛漁躍’, ‘學求聖賢’ 등이 전한다. 배현숙, 앞의 논문, 2005, 284쪽.

IV. 소수서원 고문서의 현황과 사료적 가치

소수서원에서 작성되어 소장했던 고문서와 각종 성책류는 소실된 것도 많지만 다수가 현전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에 소장된 자료답게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서책과는 달리 고문서와 성책류의 경우 작성지가 뚜렷한 관계로 유출된 것 중 일부는 소장처가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유출된 것으로 여겨지는 상당수의 소수서원 고문서 및 성책류는 소수박물관에 기탁 또는 환수되어 집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7년 간행한 『소수서원지』에는 소수서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고문서와 성책류가 조사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자료가 소수서원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 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 소수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소수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기탁한 기관이나 문중도 명기하였다.

소수서원 고문서와 성책류로 외부로 유출되었던 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은 소수서원 운영 전반에 관한 기록을 엮어 놓은 『소수서원등록』이다. 이 책은 서원 연구에 있어 그 자료적 가치가 주목되어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하여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소수서원이 위치한 영주시에서도 소수서원 관련 주요 성책류에 대한 국역 및 간행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05년에 『국역 소수서원잡록』이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당시까지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던 『운원잡록』, 『잡록』, 『강소잡록』 등 3종의 잡록을 엮어 놓았다.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대소사를 엮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영인본과 국역본을 함께 수록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소수서원 소장 주요 성책류에 대한 영인본 간행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물인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³⁹⁾에는 소수서원과 관련된 고문서 및 성책류에 대한 간단한 해제와 더불어 영인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서원 자료로는 『소수서원원록등본』, 『잡록(院中完議)』, 『소수서원강소잡록』,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 『소수서원전답안(1767)』, 『주신재선생수필 흘기』, 『퇴계선생친필 흘기』 등이 있다. 현재 소수박물관에 소장된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 144점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2022년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 고문서 목록

문서 유형	문서 종류
조직·운영[26점]	紹修書院 任事錄(8점), 院任題名錄, 爬錄, 入院錄(3점), 時存錄, 紹修書院 院錄謄本, 單子(3점), 望記(8점)
강학[10점]	居齋雜錄, 居齋錄, 雲院齋錄, 通讀雜錄, 居齋雜錄, 講所雜錄, 朔望講都目, 都圈點秩, 名簿(2점)
제향[4점]	周愼齋先生手筆 笏記, 退溪先生親筆 笏記, 道東曲, 歲謁錄,
사회관계[55점]	尋院錄(32점), 通文(23점)
경제[3점]	紹修書院 田畝案, 紹修書院 秋收記, 紹修書院 三所田畝謄錄
장서·출판[5점]	紹修書院 書冊目錄(4점), 紹修書院 書冊都錄(1점)
시문류[3점]	廟宇重修記, 紹修書院 鄉飲酒禮詩律訓約, 梅陰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증빙류[5점]	觀察使關文, 紹修書院 立議, 牌旨(3점)
치부류[30점]	謄錄, 雜錄(12점), 傳掌記(4점), 紹修書院 時用面分案(8점), 備品台帳, 狀況調查, 文書傳掌冊, 財産管理所(2점)
기타[3점]	聖幀改摹時日記, 紹修書院影幀處變時史蹟, 紹修書院事蹟

39) 이수건 외,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① 조직·운영[26점]

조직·운영과 관계된 자료는 원임록인 『임사록』(8점)·『원임제명록』·『파록』, 원생안인 『입원록』(3점)·『시존록』·『원록등본』 및 기타 단자(3점)와 망기(8점) 등이 있다.

•『원임록』은 「백운동서원규」에 의하면 원임은 원장 - 院貳[부원장] 각 1인이 院事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수서원의 『임사록』을 보면 서원이 ‘원장 - 유사’ 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15~16세기에는 원장 - 監官[유사], 18세기에는 일시적으로 원장 1인 - 별유사 2인 - 상유사 1인 체제, 이후 다시 원장 - 유사 체제가 유지되었다. 기존에도 별유사가 존재했으나 「임사록」에는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가 1708년(숙종 34)에 다시 기재하였다. 상유사는 1772년(영조 48) 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수서원에는 1542년(중종 37)부터 현대까지의 『임사록』이 온전히 남아있어 원임 구성과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명부는 서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던 인물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1542년부터 1900년까지 359년 동안 선임된 원장은 총 657명으로, 평균 5개월씩 재임하였다. 거주지가 파악된 원장 439명의 군현을 조사한 결과 순흥 236명, 풍기 67명, 榮川 43명, 안동 42명, 서울 15명, 예안 12명 등 20개 열읍에 분포했다. 한편 원장의 상위 성씨는 중복을 포함해 김 101명·이 75명·권 62명·박 61명·황 70명·서 46명·안 38명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서원 실무를 담당하는 유사는 초기에는 1인이 유사를 맡았으나 이후 많을 때는 9명까지 서원 환경에 따라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 9명까지 두었을 때는 상유사가 있던 기간이었다. 상유사는 유사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 또 서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임시유사를 수시로 선발하기도 했다.

•『입원록』 3점은 1543년(중종 38)부터 1888년(고종 25)대까지 346년 동안의 입원생 명부이다. 초기 입원생의 入院은 司馬 내지 초시 입격자를 우선하며, 향학열이 높고 조행이 있으나 초시입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문의 승인을 얻어 입원하도록 규정하였다. 1543년 첫 입원유생이 들어온 이래 약 4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는데 초기에는 상당수가 이황의 문하생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찾아온 유생들이 운집하여 명성이 높았다.

16~17세기의 경우 사마시 입격자는 선조 이전 16.7%, 선조 연간 14%, 인조반정 이후는 19%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생진은 16% 뿐이고 대부분의 입원생은 유학층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입원생으로 사마시 입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던 당시 향촌사회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지역 서원에서의 입원 자격은 이황의 이산원규 이후 점차 학행 위주로 바뀌어 가자 소수서원에서도 罷格하자는 주장이 많아졌다. 이후 파격과 입격을 반복하다가 1719년(숙종 45)년 서원 당중회의에서 파격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인·서얼의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록』 매권 앞에 ‘中人庶孽 雖大小科 勿許濫書’라 하여 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② 강학[10점]

조선시대 서원의 핵심 기능은 ‘尊賢養士’, 곧 교육과 제향이다. 조선에 서원 제도를 보급·정착시킨 이황이 둘 중 교육을 더 중요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수서원은 조선시대 내내 강학이 전개된 서원으로 손꼽히는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강학 자료가 비교적 시계열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중에는 18~19세기에 생성된 것들이 주종이다.⁴⁰⁾ 서원에서 실시된 강학의 종류에는 거접, 거재, 강회, 旬題, 백일장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8점은 바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소수서원 강학 전말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다양한 형태와 절차,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들이다. 특징적인 면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거재잡록』은 2점이다. ①은 1761년(영조 37)부터 1780년(정조 4)까지 총 19차례의 강학 기록이다. 여기에는 순제와 백일장이 각 7회, 거재 3회, 거접이 2회 개설되었다. 거재가 순제와 백일장 보다 많은 까닭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②는 1810년(순조 10)부터 1824년(순조 24)까지 거재 기록, 죽계구곡의 同遊 일기와 당시 시작詩作 등이 수록된 성책이다. 특히 부기되어 있는 「庭揖禮 홀기」와 「庭揖禮圖」는 강학의 절차와 서원 교육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 『거재록』은 1780년(정조 4)부터 1793년(정조 17)까지의 거재에 관한 자료이다. 「居齋錄奉諭齋中」, 「거재절목[6조항]」, 「酬唱詩」, 「거재일기」, 「通讀節目識」, 「거재유생안」 등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18세기에 오면 과업科業 위주의 강학이 거재 중심으로 바뀌고, 과업과 독서의 병행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거재록도 이때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거재가 활성화되는 배경에는 강학 전담 재정 기구인 양사청의 설립과 1732년(영조 8)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의 「권학절목」 반포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⁴¹⁾

- 『강소잡록』은 19세기 전반 소수서원에서 실시된 강학 관련 기록물이다. 특히 1810년(순조 10)과 1813년(순조 13)에는 ‘거재일기’를 작성하여 유생의 하루일과를 기록했고, 1826년(순조 26)에는 통독과 제술을 시험했는데 서원에서의 과거 공부에 대한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 『삭망강도목』은 소수서원에서 초하루와 보름에 강론을 시행하고 시험을 친 뒤 작성한 都目이다. 도목에는 시험과목, 시험점수, 참여자들의 숫자, 지역별 분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 『도권점질』은 1775년(영조 51) 8월 30일 소수서원에 거행된 고강의 채점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응시자의 이름과 채점 결과만 기재되어 있다

- 2점의 『명부』는 강학에 참여한 인사 명단으로 보인다.

40) 김자운,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2쪽.

41)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143~144쪽.

③ 제향[4점]

소수서원의 제향관련 자료로는 주세붕과 이항의 홀기 2점과 도동곡과 세알록 2점이 세전한다. 이 홀기는 서원의 향사례 절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며, 도동곡은 소수서원의 제향의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제향절차에 더하여 제향 시 가사를 부르는 것이다.

- 「주신재선생친필 홀기」는 주세붕이 소수서원 춘추 향사시 절차를 기록한 것이며, 후에 이항이 증감하여 법식으로 정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 「이항선생친필 홀기」는 기존 주세붕의 홀기가 간략하여 절차상 빠진 것들이 있으므로 이항이 풍기군수 시절 이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향후 설립되는 서원 향사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 「도동곡」은 성리학을 최초로 한국에 도입한 안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작곡되었다. 노래의 형식은 안향 생전에 유행했던 곡조이며, 대체로 성리학이 한국에 전래된 경위와 안향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향의례에 제향인물과 연관된 가사가 포함된 것은 한국에서도 유일한 사례이다.

- 「세알록」은 1730년(영조 6) 1월 5일 순흥부사 申弼夏를 비롯해 20명의 선비가 소수서원에 세알한 후 그 이름과 이때 지어진 여러 편의 시를 수록한 자료이다.

④ 사회관계[55점]

소수서원의 사회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심원록』과 통문이 있다. 『심원록』은 『임원록』과 함께 서원에서 중요하게 취급했던 문서로 그 등재 여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통문은 서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의사 결집, 집단 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견 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⁴²⁾

- 『심원록』은 소수서원을 찾은 방문자의 명부로 현존하는 서원의 『심원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가 본 서원에 있다. 총 33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방문자들의 이름과 본관, 字, 생년, 방문 날짜, 방문목적,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작성 시기는 1546년(명종 원년)~1976년까지이며 방문자 수는 총 12,487명이다. 거주지는 대체로 서원과 인접한 순흥, 榮川, 풍기를 비롯하여 안동, 예천 등 경상도 북부지역이 많은 편이다.

『심원록』(28책)「小識」에 의하면 『심원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서원이 창건된 1542(중종 37)부터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심원록』은 1546년(명종 1)부터 확인된다. 이후 1836년(헌종 2)에 『심원록』을 새롭게 작성하는데, 이는 그동안 유사나 서원 관련자들이 서원을 방문한 뒤 『심원록』을 작성하지 않고, 또 『심원록』이 일정한 규칙이 없어 난잡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임·신임·원장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명·字·甲을 쓰도록 하였다.

42) 이병훈, 앞의 논문, 2018, 148쪽.

한편 『심원록』에 기재된 주요 인사들로는 16세기에는 오건[1521~1574], 금난수[1530~1604], 정구[1543~1629] 등이 확인된다. 17세기 중·후반에는 대체로 퇴계학파의 일원이거나 영남 남인계 인사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18세기에도 이어져 이현일 문인들의 방문이 산견된다. 이렇게 볼 때 소수서원의 『심원록』은 서원의 위상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심원록』에 등재된 인물들의 문집에는 소수서원을 주제로 한 술한 문학작품들이 남아있어 당시의 서원 사정을 살펴볼 수 있다. 교류 및 유식공간에 위치한 경령정에도 서원을 방문한 여러 인물들의 문학작품이 걸려있어 사람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소수서원이 수급한 통문의 작성 시기는 대부분 1910~1930년대로 경상도 지역 향교·서원·서당·유계·문중 등이 물력 지원, 충효인 포장, 봉안식 참석을 요청하거나, 각종 향중 쟁단 등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급한 것이다. 서원 훼손령과 근대 교육 실시로 서원의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소수서원은 일제강점기까지 여전히 향촌 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⑤ 경제[3점]⁴³⁾

서원의 재원은 전답·노비·院屬·屬寺·屬店 등이 있었다. 이중 서원전과 원노비는 서원경제를 구성하는 2대 경제적 기반이다. 백운동서원은 건립 직후부터 주세봉과 안현의 조치로 상당한 규모의 서원전 확보를 비롯해 인근의 公田의 이속, 풍기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寶米 40석 확보, 사람의 출조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경제력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소수서원의 경제력은 점점 확대되어 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래 3점의 자료이다.

- 『전답안』은 1767년(영조 43)까지의 전답 규모와 18세기 말까지 추가로 확보된 상황을 적어 두었다. 18세기 중반에는 약 19결 정도였고, 18세기 말에는 6결 정도가 증가되어 약 25결 정도로 나타난다. 전답의 분포는 인근 풍기·영주·안동에도 다수 소재하고 있으나, 절대다수는 본읍에 집중되어 있다.

- 『추수기』는 소수서원에서 추수한 내용을 정리한 대장으로 전답의 위치와 규모, 소작인 명단(80명), 소출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60여 곳 중 17여 곳은 강학소와 講修禊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소수서원의 안정적인 강학 재정 운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삼소전답등록』은 소수서원에서 서원전을 本所, 강학소, 別所 3개소로 구분하여 서원전 전체 현황을 필사해 둔 문서이다. 이러한 서원전에 대한 收稅의 기록은 『운원잡록』에 적시되어 있는데 조세율은 대체로 1두斗에 3승升씩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때때로 5승씩을 납부받기도 하였다.

43)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도 『紹修書院田畵案』, 『紹修書院田畵量案』, 『紹修書院奴婢案』, 『紹修書院秋收記』 등 소수서원 경제관련 문서 4건이 소장되어 있다.

⑥ 장서·출판[5점]

서원의 장서는 강학에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서원 건립과 함께 서적을 구비하는 일은 서원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소수서원 역시 건립 당시부터 장서를 갖추었다. 당시 주세붕이 구비한 서적의 목록이 『죽계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백운동서원장서록」이 바로 그것이다. 서적이 귀했던 전통사회에서 다수의 장서를 소장한 서원은 도서관 역할은 물론 지식인들의 서원 출입을 유도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현재 소수서원에 소장된 장서·출판 자료는 5점이며,⁴⁴⁾ 1698년(숙종 24)부터 1959년까지 서원 소장의 서책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1698년~1761년 서책도록』에는 서적 168종과 책판 7종 및 추록 서적 14종이 수록되어 있다.

- 『1796년 서책목록』에는 서적 163종과 1810년(순조 10)년까지의 서적 39종이 추록되어 202종으로 증대된 사실 및 책판 3종 450판이 추록되어 있다.

- 『1875년 서책목록』은 16종이 증가된 목록으로 1876년(고종 13), 1879년(고종 15), 1868년(고종 5), 1891년(고종 28) 포쇄 시 별임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서원 장서의 포쇄는 주기적으로 시행되었다.⁴⁵⁾

- 나머지 2권은 현대까지의 소수서원 서책과 책판의 변화상이 적혀있다. 이들 문서는 소수서원이 서책관리를 원규에 적기된 장서 관리의 규칙대로 엄격하게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⑦ 시문류[3점]

시문류로 분류할 수 있는 소장 자료는 모두 3점이다. 중수기와 향음주례 문자는 서원에서 생산한 것이고, 행적은 국가에서 반포한 책을 필사한 것이다.

- 『묘우중수기』는 1813년(순조 13) 서원의 묘우를 중수한 후 그 경위를 정리해 놓은 기사이다. 자료 후반부에는 1815년(순조 15) 서원에서 거행한 ‘巡題榜目’을 첨부해 놓았다.

- 『소수서원 향음주례시율훈약』은 1818년(순조 18) 3월 3일 소수서원에서 향음주례를 시행하고 작성한 문서이다. 38명의 참석자의 詩作과 訓辭, 남전여씨향약, 참석자 명단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 「매음나선생병자난호성행적」은 조정에서 병자호란 당시 성균관 내 선현 위패를 수호한 羅以俊[1602-1676]·鄭信國[1510-?]·朴漕美[?-?] 등의 행적을 현양한 자료를 필사한 것이다.

44) 그 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도 院中書冊置簿, 紹修書院冊錄(1762~1785)이 소장되어 있다.

45) 임근실, 앞의 논문, 2017, 82쪽.

⑧ 증빙류[5점]

증빙류는 소수서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관부가 발급한 關文·입의 각 1점과 儒籍에서 사적을 통보한 牌旨 3점이 전한다.

- 「관찰사관문」은 1546년(명종 1) 12월 1일 경상도 관찰사 안현의 백운동서원에 대한 노비及屬과 획급한 둔전 경작과 관련된 관문이다. 안향의 후손인 안현은 인재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백운동서원에 토지와 노비 획급, 서원소용의 각종 현물의 지원 등 서원의 경제 확립에 일조하였다. 이 문서는 서원 설립 초기 관의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자 서원이 조선사회에 정착하는 실증적인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 「소수서원 입의」는 서원 운영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작성 배경과 13개 조항을 명시해 두었다. 그 내용은 크게 임원 자격, 서원 재정, 선비와 임원간의 쟁단, 부사의 원장 겸임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는 소수서원의 또 다른 특징인 관권과의 깊은 밀착성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 「패지」3점은 일제강점기 소수서원에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유안·명부에서의 사적을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⑨ 치부류[30점]

『등록』과 『잡록』은 서원 건립 당시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원 운영의 구체적 양상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소수서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향촌사회의 다양한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었던 각종 문서들이 이들 성책에 필사되어있다.

- 18~19세기의 『면분안』은 소수서원을 출입했던 원유들의 규모와 신향과 서민층 등의 새로운 유입을 보여준다.

- 『전장기』는 19세기 소수서원의 재물 현황을 정리하여 인수인계한 것인데, 20세기 초반에는 순흥군수가 원장에게 소수서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수서원 상황조사』가 있다. 이러한 서원 비품의 현황 조사는 20세기 중반에도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파손되지 않고 남아있던 각종 비품과 현판의 현황을 기재하여 서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을 보여준다.

- 『소수서원 재산관리소』 2점은 해방 후의 것으로 서원의 재산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관리소를 설치했고, 그 운영을 위해 임원 구성·선출 방법, 역할 등을 기록해 두었다.

⑩ 기타[3점]

•『聖幀改摹時日記』는 1815년(순조 15) 10월부터 1816년 4월까지 공자·안향·주세붕 영정의 개모과정을 일기로 기록한 것이다. 개모배경 및 진행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紹修書院影幀處變時史蹟(1912년)』이다. 1911년 10월 5일 소수서원에서는 영정실에 있던 공자 이하 안향, 주세붕, 이덕형, 허목의 영정을 도난당해 남아있던 舊本을 冊室로 옮겨 봉안하였다. 다음해 2월 14일 다시 도회를 열고 구본 영정은 환봉하였는데, 당시 환봉 절차 및 참석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소수서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소수서원사적(연도 미상)』은 조선시대 순흥부 관할 내 건립되었던 서원을 정리한 것이다. 소수서원을 포함하여 총 9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순흥부 관내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소수서원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서원이라는 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소수서원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장서와 고문서는 한국 서원제도의 정착과 발전과정을 상징하는 기록문화이다. 이들 자료는 한국서원의 역사 그 자체를 담보한 종합 보고서라 할 만하며,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또한 소수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맞물려 서원 연구에 있어서의 활용도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서는 한국 서원 문고의 기틀은 주세붕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는 서원 창건과 동시에 서적의 중요성을 인지해 다각적인 경로로 525권에 달하는 장서들을 집적해 장서각을 설치해 이를 보존했다. 이후 기증, 구입, 頒賜 등이 이어지면서 사액을 전후해 총 620책의 서적을 소장할 수 있었다. 그 중 하사본이 21종 663책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임란 이후 소수서원 장서의 증감 추이는 1602년 작성된 『소수서원서책치부』를 비롯해 여러 종의 書目 즉 <표. 2>를 통해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대출 후 미회수 또는 타처로 유출이 되면서 분실이 심화 되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란 이전 내사본이 4종 123책으로 급감했다. 배현숙은 적어도 2,600책 이상을 분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문서는 ①조직·운영 자료는 한국 서원의 임원 조직 체제, 임원 자격과 입록 방법 등이 설정이 되어 있다. ②16~19세기까지 시계열적으로 남아 있는 강학 자료에서는 서원 교육의 형태와 절차,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도동곡’은 제향의례에 제향자와 연관된 가사가 포함된 한국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④33책의 방대한 심원록은 서원의 위상과 네트워크를 추적할 수 있으며, 가장 오래된 심원록이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⑤잡록 등 치부류에는 소수서원의 운영양상이 잘 수록되어 있다. ⑥더불어 서원의 경제 기반 확대, 서원의 도서관 역할, 관련과의 친밀성, 서원운영과 향사례, 影幀 개모 일기 등 한국서원 역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다.

현재 소수서원에 장판각에 소장하던 고서, 고문서, 목판 일체를 소수박물관에 이관하여 위탁 관리 중에 있다. 2001년 『소수서원소장판목』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으로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되어 등록되었다.

끝으로 소수서원의 장서는 상당량이 망실된 상태인 반면 고문서 중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다수가 확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 현전하는 내사본 4종과 함께 엄선된 고문서를 국가문화재 신청도 고려해 볼 만하다.

참고문헌

『명종실록』

『紹修書院 任事錄』, 『院任題名錄』, 『爬錄』, 『入院錄』, 『時存錄』, 『紹修書院 院錄謄本』, 『單子』, 『望記』, 『居齋雜錄』, 『居齋錄』, 『雲院齋錄』, 『通讀雜錄』, 『居齋雜錄』, 『講所雜錄』, 『朔望講都目』, 『都圈點秩』, 『名簿』, 『周愼齋先生手筆 笏記』, 『退溪先生親筆 笏記』, 『道東曲』, 『歲謁錄』, 『尋院錄』, 『通文』, 『紹修書院 田畝案』, 『紹修書院 秋收記』, 『紹修書院 三所田畝謄錄』, 『紹修書院 書冊目錄』, 『紹修書院 書冊都錄』, 『廟宇重修記』, 『紹修書院 鄉飲酒禮詩律訓約』, 『梅陰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觀察使關文』, 『紹修書院 立議』, 『牌旨』, 『謄錄』, 『雜錄』, 『傳掌記』, 『紹修書院 時用面分案』, 『備品台帳』, 『狀況調査』, 『文書傳掌冊』, 『財産管理所』, 『聖幀改摹時日記』, 『紹修書院影幀處變時史蹟』, 『紹修書院事蹟』

남권희, 『소수서원 소장 고서 및 고문서 해제』, 소수서원, 1998.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수건 외,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춘희, 『조선조의 敎育文庫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정수환 외, 『소수서원(紹修書院)·병산서원(屏山書院)』,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주세붕, 『武陵雜稿』

김순한, 「상주 玉洞書院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배현숙,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46, 대동한문학회, 2016.

-----,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옥영정, 「엄격한 서책 관리와 도서관 역할」,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2.

-----,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도동서원 소장 자료 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 정만조,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0.

※ 부록

● 소수서원 고서 목록 (총수량 : 114점)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	-----	----	----	---------------	----

1. 경서류 [11점]

1	근사록 近思錄		2	23.5×34cm	송나라 유학자인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이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
2	논어집주대전 論語集註大全		1	20.4×31cm	명나라 호광 등이 『논어』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펴낸 책.
3	맹자대문 孟子大文		1	18.3×29.3cm	『맹자孟子』의 본문을 담은 책.
4	심경부주 건 心經附註 乾	1794년	1	23.3×33.3cm	송나라 유학자 신덕수慎德秀의 『심경』에 명나라의 정민정程敏政이 주를 붙인 책.
5	주역언해 周易諺解	정묘년	5	22×31cm	『주역』에 한글로 토를 달고 풀이하여 간행한 언해서.
6	주역전의대전 周易傳義大全		11	21×33cm	호광 등 42인이 『주역周易』에 대한 여러 주석을 모아 펴낸 책.
7	주역전의대전 周易傳義大全		14	22.3×33.8cm	호광 등 42인이 『주역周易』에 대한 여러 주석을 모아 펴낸 책.
8	역해 易解	1818년	5	22.3×33.5cm	『주역』에 한글로 토를 달고 풀이하여 간행한 언해서.
9	서전 書傳	병술년	10	22.6×33.6cm	명나라 호광이 『서경』에 주해를 달아 편찬한 책.
10	서전언해 書傳彥解	1826년	5	22.7×34.0cm	『서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펴낸 책.
11	서전언해 書傳彥解	1826년	5	22.3×34.0cm	『서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펴낸 책.

2. 문집·실기류 [66점]

12	주자대전 朱子大全		1	22×34.3cm	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희의 문집.
13	주자대전 朱子大全	1575년	29	20×31cm	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희의 문집.
14	주자대전 朱子大全		3	22×34.3cm	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희의 문집.
15	퇴계선생문집[목록] 退溪先生文集[目錄]		1	20.1×29.3cm	조선시대 이항李滉의 시문집.
16	백사선생집 白沙先生集	임자년	2	20.1×29.3cm	조선 중기 학자 이항복李恒福의 시문집.
17	소고선생문집 嘯臯先生文集		1	19.8×30.3cm	조선 전기 문신 박승임朴承任의 시문집.
18	소고문집 嘯臯文集		2	20.2×31.8cm	조선 전기 문신 박승임朴承任의 시문집.
19	소고문집 嘯臯文集		2	19.8×30.3cm	조선 전기 문신 박승임朴承任의 시문집.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20	용와예고 庸窩稾藁		12	21.5×28cm 외	의성김씨 가문의 필사본 문집 초고본.
21	갈천선생문집 葛川先生文集		1	21.6×32.3cm	조선 전기 문신·학자 임훈林薰의 시문집.
22	경정선생집 敬亭先生集		1	19.3×29cm	조선 중기 문신 이민성李民晟의 시문집.
23	계서선생일고 溪西先生逸稿		1	20.8×32.5cm	조선 중기 문신 성이성成以성의 시문집.
24	계촌선생문집 溪村先生文集		1	21×32.7cm	조선 후기 학자 이도현李道顯의 시문집.
25	구암집 久菴集		1	19×29.3cm	조선 중기 문신·학자 한백겸韓百謙의 시문집.
26	나산세고 蘿山世稿		1	20.5×30.4cm	조선 중기 문신 이문흥李文興·이구李構의 시문집.
27	남계문집 楠溪文集		1	20.3×30.5cm	조선 말기 학자 안호연安浩淵의 시문집.
28	눌은선생문집 訥隱先生文集		2	20.6×33cm	조선 후기 문신·학자 이광정李光庭의 시문집.
29	눌헌문집 訥軒文集		1	20.6×31cm	조선 후기 학자 서성구徐聖勳의 시문집.
30	당유선생집 唐柳先生集		12	20.5×33cm	당나라 문인 유종원柳宗元의 시문과 송대 문인들의 주해본을 담아 편찬한 책.
31	대산문집 大山文集		9	21.3×32cm	조선 후기 문신·학자 이상정李象靖의 시문집.
32	동거집 東渠集		1	16.3×20.4cm	조선 후기 학자 송정환宋鼎鎭의 시문집.
33	두시杜詩		14	21×32.3cm	두보杜甫의 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역대 제가의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
34	둔암선생일집 遯庵先生逸集		1	19.5×31.1cm	조선 초기 학자 서한정徐翰廷의 시문집.
35	등암선생일고 藤巖先生逸稿	1828년	1	20×30.5cm	조선 중기 무신 권징權徵의 시문집.
36	매담집 梅潭集		1	20.4×30.2cm	조선 중기 문신·학자 안공신安公信의 시문집.
37	맹암집 孟巖集	2005년	1	19.2×29.2cm	조선 전기 공신·학자 김영렬金英烈의 시문집.
38	목은집 牧隱集		7	19.5×28.2cm	고려 후기 학자 이색李穡의 시문집.
39	무은선생문집 霧隱先生文集		1	15.2×28.6cm	조선 후기 문신 정지호鄭之虎의 시문집.
40	문절공김선생일고 文節公金先生逸稿		2	20.3×30.5cm	조선 전기 천문학자 김담金淡의 시문집.
41	박정자유고 朴正字遺稿		4	22×32.3cm	조선 후기 문신·학자 박태한朴泰漢의 시문집.
42	백사선생집 白沙先生集		2	20.2×29.3cm	조선 중기 학자 이항복李恒福의 시문집.
43	번천문집 樊川文集		2	18.3×28.9cm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시집.
44	사천문집 四佳詩集		2	20.8×30.9cm	조선 후기 학자 서창경徐昌鏡의 시문집.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45	사촌선생문집 村先生文集		1	20.8×31cm	조선 중기 학자 안덕린安德麟의 시문집.
46	서원세고 西原世稿	1872년	1	21.8×32cm	조선 중기 학자 곽수지郭守智의 시문집.
47	송암선생문집 松巖先生文集		2	20.8×32cm	조선 중기 문신 이로李魯의 시문집.
48	송암선생문집 松巖先生文集		1	20.8×32cm	조선 중기 학자 권호문權好文의 시문집.
49	송암선생속집 松巖先生續集		2	19.5×30.4cm	조선 중기 학자 권호문權好文의 시문집 속집.
50	송은선생문집 松隱先生文集	1925년	1	19.3×29.8cm	조선 중기 학자 김광수金光粹[의 시문집.
51	송파집 松坡集	을미년 개간	2	19×28cm	조선 후기 문신 이해창李海昌의 시문집.
52	오봉선생문집 梧峯先生文集		3	18.3×29cm	조선 중기 문신 신지제申之悌의 시문집.
53	육신유고 六臣遺稿	경자년	2	19.7×30cm	조선 전기 사육신의 시문집.
54	일송집 정 一松集 貞		1	18.6×26.6cm	조선 중기 문신 심희수沈喜壽의 시문집.
55	전원문집 田園文集		1	21×30cm	조선 말기 학자 류도헌柳道獻의 시문집.
56	조암집 건 槽巖集 乾		1	21×32.4cm	조선 후기 학자 조창기趙昌期の 시문집.
57	죽남문집 竹南文集		2	19.5×29.5cm	조선 후기 문신·학자 안치묵安致默의 시문집.
58	첨모당선생문집 瞻慕堂先生文集	1669년	2	21.5×31.6cm	조선 중기 학자 임운林芸의 시문집.
59	추강집 秋江集	1577년	1	20×32.3cm	조선 전기 학자 남효온南孝溫의 시문집.
60	충재선생일고 沖齋先生逸稿	1681년	1	21.2×31.7cm	조선 전기 문신·학자 권벌權穰의 시문집.
61	충재선생문집 沖齋先生文集		1	21.2×31.7cm	조선 전기 문신·학자 권벌權穰의 시문집.
62	치암일고 癡巖逸稿	1884년	1	20.3×30.3cm	조선 후기 문신 배상익裴尙益의 시문집.
63	택당선생집 澤堂先生集		3	20.3×32cm	조선 중기 문신 이식李植의 시문집.
64	택당선생속집 澤堂先生續集		1	20.3×32cm	조선 중기 문신 이식李植의 시문집 속집.
65	택당선생별집 澤堂先生別集		4	20.3×32cm	조선 중기 문신 이식李植의 시문집 별집.
66	팔사유고 八斯遺稿		1	20.9×32cm	조선 후기 학자 배유화裴幼華의 시문집.
67	호양선생문집 湖陽先生文集		1	20.3×30.5cm	조선 중기 학자 권익창權益昌의 시문집.
68	활재선생문집 活齋先生文集		1	21.4×32.3cm	조선 후기 학자 이구李渠의 시문집.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69	회당선생문집 悔堂先生文集		1	21.3×33.3cm	조선 중기 학자 신원록申元祿의 시문집.
70	회재선생문집 晦齋先生文集		1	21.3×31cm	조선 전기 문신·학자 이언적李彦迪의 시문집.
71	도헌선생일고[기양세고] 陶軒先生逸稿[岐陽世稿]		1	21.3×32.7cm	조선시대 문신·학자 유의손柳義孫·유식柳軾·유복기柳復起·유우잠柳友潛의 시문집.
72	주자어류 朱子語類		2	23×37cm	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희가 강학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어록 모음집.
73	물암선생문집 勿巖先生文集		2	19.7×30.8cm	조선 중기 문신 김응金隆의 시문집.
74	회헌선생실기 晦軒先生實記		2	19.9×30.4cm	고려 후기 문신·학자 안향安珦의 실기.
75	정기록 正氣錄	17세기 초반	1	20.3×31.5cm	조선 중기 문인 고경명高敬命과 아들 고종후高從厚·고인후高因厚의 실기.
76	둔옹선생실기 遯翁先生實記	1962년	1	20.4×29.8cm	고려후기의 무신 박구朴球의 실기.
77	허정간공유사 許貞簡公遺事		1	16.3×27.2cm	조선 전기 문신인 허후許誥의 실기.

3. 사서류 [12점]

78	동국통감 東國通鑑		3	22.3×34.7cm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편년사編年史.
79	당감 唐鑑	1585년	4	22×34.5cm	당조사唐朝史를 강목체로 서술한 책.
80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5	19.8×30.3cm	『자치통감』을 절요한 책.
81	원사 元史		1	20×33.5cm	중국 원나라 왕조의 역사책.
82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45	21.5×35.2cm	주희의 『자치통감강목』을 훈의하여 간행한 역사서.
83	춘추호씨전 春秋胡氏傳		7	20.4×30.8cm	공자가 편찬한 노魯나라 역사서 『춘추』의 해설서.
84	춘추 春秋		3	21×35cm	공자가 편찬한 노魯나라 역사서 『춘추』의 해설서.
85	춘추호씨대전 春秋胡氏大傳		3	19.3×29.8cm	공자가 편찬한 노魯나라 역사서 『춘추』의 해설서.
86	통감 通鑑		2	20.3×30.7cm	중국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이 저술한 편년체 역사서.
87	통감구결 通鑑口訣		2	20.3×30.6cm	『통감절요』를 간략하게 뽑아 구결을 붙인 책.
88	강감회요 綱鑑會要	1702년	1	20.5×30.8cm	조선 중기 문신·학자인 강항姜沆이 편찬한 역사서.
89	천운소통 天運紹統		2	20.9×32.8cm	중국 명나라 주권이 편찬한 역사서.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	-----	----	----	---------------	----

4. 선집류 [9점]

90	시해 詩解	을미년	1	22.5×35cm	『시경』의 경문에 한자음과 한글 구결을 달고 언해한 책.
91	여어편류 儼語編類	1533년	1	18.6×26.8cm	중국의 변려문駢儼文을 모으고 분류하여 편찬한 책.
92	여어편류 儼語編類	1533년	1	17.8×27cm	중국의 변려문駢儼文을 모으고 분류하여 편찬한 책.
93	문선 文選		6	20.8×32.5cm	진·한 이후 제齊·양梁대의 대표적 시·서序·부 등을 수록한 책.
94	분류보주이태백시 分類補註李太白詩		5	21.1×32.5cm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집에 대한 주석서.
95	사가시집 四佳詩集		6	19.3×31cm	조선 전기 문신·학자 서거정徐居正의 시집.
96	시대전 詩大全		4	22.4×33cm	명나라 호광弧光 등이 편찬한 『오경대전』 중 『시경대전』을 간행한 책.
97	유중외대소신서운음 諭中外大小臣庶綸音		1	21.3×33cm	1782년 왕이 내린 윤음綸音을 인쇄한 책.
98	중간육선공주의 重刊陸宣公奏議		1	20.5×33.3cm	당나라 중기 관료이자 학자인 육지陸贄의 저술을 모아 편찬한 책.

5. 잡저류 [7점]

99	찬집변무록 撰集辯誣錄	1726년	1	21.2×31.5cm	이언적의『태극문변太極問辯』의 초·중·개간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책.
100	천의소감 闡義昭鑑		1	21.7×33.8cm	1721년 신축옥사부터 1755년 을해옥사까지의 토역討逆 사실을 모아 간행한 책.
101	초사후어 楚辭後語	1454년	1	19.7×29cm	송나라 주희가 『초사楚辭』의 여러 문제들을 고증한 책.
102	파자책 破字冊	1915년	1	20.7×32cm	한자 93자를 사언시四言詩로 풀이해 놓은 책.
103	황조명신언행외록 皇朝名臣言行外錄		1	17.9×27.7cm	송대 정치가와 학인들의 행적 및 발언들을 집록한 책.
104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 會纂宋岳武穆王精忠錄		2	22.8×33.2cm	남송 초기 사사된 악비岳飛의 사적과 후인의 찬문讚文을 모은 책.
105	소수서원등록 紹修書院謄錄	1937년	1	19.8×29.3cm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소수서원 운영 전반을 기록하여 간행한 책.

6. 기타 [9점]

106	무자식년사마방목 戊子式年司馬榜目	1665년	1	21.4×31.6cm	1648년 시행된 생원·진사시의 합격자 명단.
107	운부군옥 韻府群玉	1781년	2	16×27cm	중국 고전에 등장하는 문구文句들을 운자韻字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편집한 백과사전.
108	운부군옥 韻府群玉		1	16.3×27cm	중국 고전에 등장하는 문구文句들을 운자韻字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편집한 백과사전.
109	대광익회옥편 大廣益會玉篇		1	21.2×30.3cm	양나라 고야왕의 자서인 『옥편』의 중수본.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110	대광익회옥편 大廣益會玉篇		3	21×30.3cm	양나라 고야왕의 자서인 『옥편』의 중수본.
111	향례합편총서 鄉禮合編叢書		1	21×34.7cm	향례鄉禮에 관한 것을 모아서 엮은 예서.
112	동의보감잡편 東醫寶鑑雜篇		1	20.8×31.2cm	조선시대 의관 허준이 작성한 의서.
113	자암서첩 自庵書帖	1664년	1	28×44cm	조선 전기 기묘명현·서예가 김구金絿의 서첩.
114	체본용서첩 體本用書帖		1	36.8×64.2cm	명나라 서화가書畫家 장필張弼의 서첩.

● 소수서원 고문서 목록 (총수량 : 144점)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	-----	----	----	---------------	----

1. 조직·운영 문서 [26점]

1	원임제명록 院任題名錄	1542년 ~1718년	13	26×34cm	중종 37년~숙종 44년까지 재임한 역대 소수서원 원장 181명의 명부.
2	소수서원 임사록任事錄	1542년 ~1718년	17	27.2×39.5cm	중종 37년~숙종 44년까지 소수서원 원장 181명과 감관監官 152명의 명부.
3	소수서원 임사록任事錄	1708년 ~1794년	52	21.2×35.4cm	숙종 34년~정조 18년까지 소수서원 원임 708명의 명부.
4	소수서원 임사록任事錄	1794년 ~1827년	17	28.8×34.3cm	정조 18년~순조 27년까지 소수서원 원임 311명의 명부.
5	소수서원 임사록任事錄	1794년 ~1897년	87	22×36.8cm	정조 18년~1897년까지 소수서원 원임 1170명의 명부.
6	소수서원 파록爬錄	19세기 후반 ~일제강점기	64	24×32.7cm, 37×46.3cm	소수서원에서 별도의 행사가 있을 때 분정한 인사 872명의 명부.
7	소수서원 임사록任事錄	1898년 ~1914년	41	24×34.1cm	광무 2년~1914년까지 소수서원 임원 616명의 명부.
8	소수서원 임사록任事錄	1918년 ~1931년	38	27.4×33cm	1918년~1931년까지 소수서원 임원 385명의 명부.
9	소수서원 임사록任事錄	1933년 ~1944년	65	27.8×31.5cm	1933년~1944년까지 소수서원 임원 602명부.
10	소수서원 임사록任事錄	1944년 ~1968년	89	25.5×33.3cm	1944년~1968년까지 소수서원 임원 788명의 명부.
11	입원록 入院錄	1619년 ~1696년	57	26×36cm	중종 38년~숙종 22년까지 입원생 735명의 명부.
12	입원록 入院錄	1660년 ~1691년	22	24.3×34.5cm	현종 1년~숙종 17년까지 입원생 299명의 명부.
13	입원록 入院錄	1790년 ~1888년	133	32×35cm	정조 14년~1888년까지 입원생 1,864명의 명부.
14	시존록 時存錄	1808년 ~1828년	31	27.4×37.7cm	순조 8년~고종 5년에 작성된 입원생 377명의 명부.
15	소수서원 원록등본院錄謄本	1826년	9	32×35cm	순조 26년에 작성된 145명의 입원생 명부.
16	단자 單子	1928년	1	40×42cm	이종섭李鐘燮이 소수서원 원임을 거절한 단자.
17	단자 單子	1938년	1	40×27cm	김우림金遇林이 소수서원 원임을 거절한 단지.
18	단자 單子	1947년	2	53×38cm	이희정李羲鼎이 소수서원 원장을 거절한 단자.
19	망기 望記	1928년	1	22×36.8cm	소수서원 별유사로 직임을 받은 김우림의 망기.
20	망기 望記	1930년	1	59×102cm	김우림을 소수서원 부도감副都監으로 추천한 망기.
21	망기 望記	1943년	3	58×49cm	춘향시 집례執禮로 김우림을 천거한 망기.
22	망기 望記	1947년	1	58.5×50cm	김우림을 소수서원 춘향시 집례執禮로 추천한 망기.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23	망기 望記	1947년	1	57.5×94cm	김우림을 소수서원 사정司正으로 추천한 망기.
24	망기 望記	1952년	1	55×47cm	김우림을 소수서원 문묘석전대제 헌관으로 천거한 망기.
25	망기 望記	1954년	3	57×101cm	김우림을 소수서원 원장으로 추천한 망기.
26	망기 望記	1959년	1	58×103cm	봉화奉化 삼계서당三溪書堂의 도유사로 직임을 받은 망기.

2. 강학 문서 [10점]

27	거재잡록 居齋雜錄	1761년 ~1780년	79	22.2×33cm	영조 37년~정조 4년까지 소수서원에서 운영된 강학에 관한 기록.
28	거재록 居齋錄	1780년 ~1793년	67	26.1×32cm	정조 4년~정조 17년까지 소수서원에서 개설된 거재에 관한 자료.
29	운원재록 雲院齋錄	1790년	16	20.3×31.0cm	정조 14년에 작성된 소수서원 거재居齋 때의 기록.
30	통독잡록 通讀雜錄	1801년	47	21.5×33cm	순조 1년 거행한 통독회 관련 기록을 엮어 놓은 잡록.
31	거재잡록 居齋雜錄	1810년 ~1824년	27	19.8×29.6cm	순조 10년~순조 13년까지 거재, 동유同遊 일기, 시문詩文 등을 수록한 자료.
32	소수서원 강소잡록講所雜錄	1826년 ~1828년	66	18.5×28.2cm	순조 26년~순조 28년까지 소수서원에 거행된 거재와 강학 관련 기록.
33	소수서원 삭망강도목朔望講都目	1914년 ~1915년	35	27×32.2cm	1914년 겨울과 1915년 봄 강론을 시행하고 시험을 친 후 작성한 도목.
34	도권점질 都圈點秩	1775년	1	101×32cm	영조 51년 8월 30일 소수서원에 거행된 고강考講의 채점 결과를 기록한 문서.
35	명부 名簿	18~19세기	22	23.4×36.6cm	영조 1년~헌종 2년까지 총 25회의 강학에 참여한 233명의 명부.
36	명부 名簿	18세기	65	24.5×32cm	경종 1년~영조 36년까지 총 100회의 강학에 참여한 497명의 명부.

3. 제향 문서 [4점]

37	주신재선생수필흘기 周愼齋先生手筆笏記	16세기 전반	1	117.2×31.6cm	주세붕이 소수서원 춘추 향사시 절차를 기록한 흘기.
38	퇴계선생친필흘기 退溪先生親筆笏記	1549년	1	117×31.6cm	명종 4년에 주세붕의 흘기를 풍기군수로 재임하던 퇴계 이황이 보완하여 작성한 것.
39	도동곡 道東曲	미상	1	89.3×34.4cm	안향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가사.
40	세알록 歲謁錄	1730년	32	28×34.3cm	영조 6년 20명의 선비가 문성공묘文成公廟를 세알歲謁 후 이름과 시를 수록해 둔 자료.

4. 사회관계 문서 [55점]

41	심원록 尋院錄	1546년 ~1599년	31	27.8×35.3cm	명종 1년~선조 32년까지 685명의 방명록.
42	심원록 尋院錄	1657년 ~1660년	28	25×32cm	효종 8년~현종 1년까지 235명의 방명록.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43	심원록 尋院錄	1660년 ~1670년	45	26×32.8cm	현종 1년~현종 11년까지 567명의 방명록.
44	심원록 尋院錄	1676년 ~1679년	15	26×32.8cm	숙종 2년~숙종 5년까지 447명의 방명록.
45	심원록 尋院錄	1681년 ~1682년	24	23×30cm	숙종 7년~숙종 8년까지 233명의 방명록.
46	심원록 尋院錄	1686년 ~1691년	50	22.8×30.2cm	숙종 12년~숙종 17년까지 490명의 방명록.
47	심원록 尋院錄	1690년 ~1699년	54	25.2×31.4cm	숙종 16년~숙종 25년까지 649명의 방명록.
48	심원록 尋院錄	1699년 ~1702년	50	25.2×31.5cm	숙종 25년~숙종 28년까지 475명의 방명록.
49	심원록 尋院錄	1702년 ~1718년	93	28×36cm	숙종 28년~숙종 44년까지 918명의 방명록.
50	심원록 尋院錄	1706년 ~1709년	45	26.5×30.2cm	숙종 32년~숙종 35년까지 463명의 방명록.
51	심원록 尋院錄	1709년 ~1711년	40	25×31cm	숙종 35년~숙종 37년까지 249명의 방명록.
52	심원록 尋院錄	1711년 ~1714년	45	26×30cm	숙종 37년~숙종 40년까지 423명의 방명록.
53	심원록 尋院錄	1721년 ~1724년	53	25×35cm	경종 1년~경종 4년까지 561명의 방명록.
54	심원록 尋院錄	1732년 ~1733년	34	27.5×38.5cm	영조 8년~영조 9년까지 369명의 방명록.
55	심원록 尋院錄	1741년 ~1744년	30	23.6×35.8cm	영조 17년~영조 20년까지 320명의 방명록.
56	심원록 尋院錄	1745년 ~1747년	41	23.7×35.7cm	영조 21년~영조 23년까지 406명의 방명록.
57	심원록 尋院錄	1747년 ~1748년	30	24×36.3cm	영조 23년~영조 24년까지 296명의 방명록.
58	심원록 尋院錄	1765년 ~1769년	46	28×33cm	영조 41년~영조 45년까지 466명의 방명록.
59	심원록 尋院錄	1770년 ~1771년	15	26×32.8cm	영조 46년~영조 47년까지 201명의 방명록.
60	심원록 尋院錄	1777년 ~1782년	30	29.5×33cm	정조 1년~정조 6년까지 416명의 방명록.
61	심원록 尋院錄	1782년 ~1785년	22	26×33.8cm	정조 6년~정조 9년까지 325명의 방명록.
62	심원록 尋院錄	1788년 ~1791년	26	28.5×34.2cm	정조 12년~정조 15년까지 407명의 방명록.
63	심원록 尋院錄	1798년 ~1801년	39	28.5×36.5cm	정조 22년~순조 1년까지 601명의 방명록.
64	심원록 尋院錄	1821년 ~1822년	14	26×30cm	순조 21년~순조 22년까지 248명의 방명록.
65	심원록 尋院錄	1822년 ~1884년	26	28×34cm	순조 22년~고종 21년까지 436명의 방명록.
66	심원록 尋院錄	1824년 ~1826년	21	27.5×36cm	순조 24년~순조 26년까지 308명의 방명록.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67	심원록 尋院錄	1836년 ~1838년	36	20.5×29.3cm	헌종 2년~헌종 4년까지 391명의 방명록.
68	심원록 尋院錄	1847년 ~1918년	22	29×47cm	헌종 13년~1918년까지 215명의 방명록.
69	심원록 尋院錄	1951년 ~1965년	10	28×24cm	1951년~1965년까지 190명의 방명록.
70	심원록 尋院錄	1965년 ~1968년	13	23.5×29cm	1965년~1968년까지 199명의 방명록.
71	심원록 尋院錄	1968년 ~1971년	10	28.6×24.3cm	1968년~1971년까지 215명의 방명록.
72	심원록 尋院錄	1971년 ~1976년	14	28×24cm	1971년~1976년까지 204명의 방명록.
73	통문 通文	1854년	1	50×89cm	헌종 5년 광산김씨에서 선조 시호諡號에 대해 퇴계 집안에 문제를 제기한 통문.
74	통문 通文	1916년	1	45.5×36.5cm	고산서당高山書堂에서 이상정李象靖의 시호 고유제告由祭 알리는 통문.
75	통문 通文	1916년	1	50×81.5cm	구계서당龜溪書堂에서 김씨의 효성을 알리는 통문.
76	통문 通文	1917년	2	45×33.5cm	도산서원에서 「구암선생역범도발문龜巖先生易範圖跋文」에 관해 의견을 묻는 통문.
77	통문 通文	1917년	1	62.2×89.5cm	경산단소景山壇所에서 옥산서원의 열쇠 제작과 관련해 신항新鄉들을 규탄한 통문.
78	통문 通文	1917년	1	61×97.5cm	영일향교에서 영천이씨 이눌李訥의 후손 중 환본역조換本易祖의 일을 알린 통문.
79	통문 通文	1917년	1	49.5×46cm	고산서당에서 이상정의 위패 봉안식 참석을 요청한 통문.
80	통문 通文	1917년	4	45×33.5cm	진주연산도통사晉州硯山道統祠에서 중국의 학자 공상림孔祥霖의 부고를 알리는 통문.
81	통문 通文	1919년	1	54×82.5cm	단산면丹山面에서 함창김씨가 사림 공의로 정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는 통문.
82	통문 通文	1921년	1	56.5×97cm	행계서당杏溪書堂에서 김도수가 입근순절立殯殉節한 사실을 알린 통문.
83	통문 通文	1921년	1	50.5×50cm	노봉서원魯峯書院에서 의례 개최를 안내한 통문.
84	통문 通文	1923년	1	58.5×90.5cm	금호서당琴湖書堂에서 다른 후손들이 첩설한 서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통문.
85	통문 通文	1923년	1	49×32.7cm	연경서당研經書堂에서 당우堂宇 건립 관련해 재정 지원을 요청한 통문.
86	통문 通文	1923년	3	20×30.5cm	자계서원에서 일족 한 사람이 탁영 선생 등을 모시려는 부당한 행위를 알리는 통문.
87	통문 通文	1923년	3	25.7×34cm	남계서원에서 이병헌李炳憲을 규탄하기 위해 보낸 통문.
88	통문 通文	1924년	1	54×88cm	양산서당陽山書堂에서 이상정의 문집 보존을 위해 노력하자는 통문.
89	통문 通文	1925년	1	47×89cm	구암재회중龜巖齋會中에서 봉안식에 참석해 달라는 통문.
90	통문 通文	1927년	1	52.5×33cm	도연회중道淵會中에서 『가례집유家禮輯遺』 간행에 물력 지원을 요청한 통문.
91	통문 通文	1928년	3	54×96cm	병산서원에서 소천청원정유계소蘇川淸遠亭儒楔所의 부당함을 알리는 통문.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92	통문 通文	1928년	1	53×48cm	구학정龜鶴亭에서 봉안식 참석을 요청한 통문.
93	통문 通文	1930년	1	56×103cm	대구오천유계소大邱梧川儒契所에서 예천 소천蘇川 용궁전씨 가문을 규탄한 통문.
94	통문 通文	1957년	1	52×70.5cm	군위 남계서당에서 장해빈 제향 사당을 서원으로 승격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보낸 통문.
95	통문 通文	1957년	1	55.2×92cm	군위향교에서 북산사北山社를 서원으로 승격하기 위해 의견을 구하고자 보낸 통문.

5. 경제 문서 [3점]

96	소수서원 전답안田畵案	1766년	38	26.5×52.8cm	영조 4년에 소수서원이 소유한 전답의 현황을 정리한 문서.
97	소수서원 추수기秋收記	경오년	12	19×30cm	소수서원에서 경작하는 전답 위치와 규모, 소작인 명단, 소출량 등을 기재해 둔 문서.
98	소수서원 전답등록田畵謄錄	미상	6	28.8×23.7cm	소수서원 소유 전답을 3개소로 분류해 상세내역을 기재해 둔 문서.

6. 장서·출판 문서 [5점]

99	서책도록 書冊都錄	1698년 ~1761년	16	19.5×31.1cm	숙종 24년~영조 37년 소수서원의 서책 목록.
100	서책목록 書冊目錄	1796년	12	21.2×29cm	정조 20년에 작성된 소수서원의 서책 관리 대장.
101	서책목록 書冊目錄	1875년	13	15.4×24.2cm	고종 12년에 작성된 소수서원의 서책 관리 대장.
102	서책목록 書冊目錄	1917년	6	28.3×23.5cm	1917년에 작성된 소수서원의 서책 관리 대장.
103	서책목록 書冊目錄	1951	5	18.3×25cm	1951년에 작성된 소수서원의 서책 관리 대장.

7. 시문류詩文類 [3점]

104	묘우중수기 廟宇重修記	1813년	25	20.3×34cm	순조 13년 소수서원의 묘우를 중수한 후 그 경위를 정리해 놓은 기사.
105	향음주예시율훈약 鄉飲酒禮詩律訓約	1818년	8	30×32cm	순조 18년 소수서원에서 향음주례를 시행하고 작성한 문서.
106	매음나선생병자난호성행적 梅陰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미상	5	22×34cm	병자호란 때 성균관의 선현先賢 위패를 수호한 나이준羅以俊 등의 행적을 기록한 책.

8. 증빙류證憑類 [5점]

107	관찰사 관문 觀察使 關文	1546년	1	77.5×97cm	명종 1년 경상도 관찰사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 풍기군수에게 보낸 관문.
108	소수서원 입의立議	19세기	10	22.8×33.5cm	소수서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기록한 것.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109	패지 牌旨	1910년	1	46×27cm	순흥 단곡丹谷 박별유사 덕에서 김건용金健鏞을 유안儒案에서 삭제하는 일로 보내 온 패지
110	패지 牌旨	1910년	1	34×30cm	순흥 도촌都村의 이씨문중에서 김건용을 유안儒案에서 삭제하는 일로 보내 온 패지.
111	패지 牌旨	1910년	1	49×29.5cm	순흥 화천花川의 박씨문중에서 파회波回김씨 규탄 및 명안名案 삭제削去를 요청한 패지.

9. 치부류置簿類 [30점]

112	등록 謄錄	1546년 ~1670년	6	36.5×44.5cm	명종 원년~현종 12년까지 서원 운영 전반에 걸친 방침을 기록한 책.
113	운원잡록 雲院雜錄	1558년 ~1610년	63	24×31.5cm	명종 13년~광해군 2년까지 서원 운영 중에 발생한 주요 사건과 관련 문서를 기록해 놓은 잡록.
114	소수서원 잡록雜錄	1667년 ~1720년	141	23.2×29.5cm	현종 8년~숙종 46년까지 서원 운영 중에 발생한 주요 사건과 관련 문서를 기록해 놓은 잡록.
115	소수서원 잡록雜錄	17세기	73	23.1×30.8cm	공문서 및 통문, 입의, 서간書簡, 부조기 등을 모아 둔 잡록.
116	잡록 雜錄	1712년 ~1718년	61	23.3×30.7cm	숙종 38년~숙종 48년까지 서원 운영 중에 일어난 주요 사건과 각종 문서를 등사한 잡록.
117	잡록 雜錄	1720년 ~1760년	44	23×28.7cm	숙종 46년 기존 잡록을 개장改粧한 것.
118	잡록 雜錄	1759년 ~1832년	31	22×33cm	영조 35년~순조 32년까지 서원 운영 중에 일어난 주요 사건과 각종 문서를 등사한 잡록.
119	잡록 雜錄	1796년	15	21.8×29.9cm	정조 20년~정조 19년까지 서원 운영과 관련된 기사를 놓은 잡록.
120	잡록 雜錄	1799년· 1805년· 1900년	23	20×29.5cm	정조 23년·순조 5년·광무 4년에 서원 운영 중 발생한 주요 사건과 문서를 기록해 놓은 잡록.
121	소수서원 잡록雜錄	1826년 ~1827년	38	18.4×28.2cm	순조 26년~순조 27년까지 서원 운영 중 발생한 주요 사건과 문서를 기록해 놓은 잡록.
122	소수서원 잡록雜錄	20세기 초반	70	22.5×33.5cm	소수서원의 연혁을 보여주는 3종의 자료를 하나로 엮은 필사본.
123	운원잡록 雲院雜錄	미상	65	24.5×34cm	1558년~1610년에 작성된 운원잡록의 필사본.
124	잡록 雜錄	미상	30	22.5×33.5cm	광해군 6년~인조 11년까지 서원 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공문서 및 통문, 입의, 서간, 부조기 등을 기록한 잡록의 필사본.
125	전장기 傳掌記	1770년 ~1772년	37	23×33.5cm	영조 46년~48년 서원 인수인계 장부.
126	전장책 傳掌冊	1780년 ~1781년	13	20.3×30cm	정조 4년~5년 서원 인수인계 장부.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가로×세로)	내용
127	소수서원 전장기傳掌記	1817년 ~1822년	170	21.2×32.1cm	순조 17년~순조 22년까지 서원 인수인계 장부.
128	전장책 傳掌冊	1824년	206	20.1×30cm	순조 24년에 작성된 서원 인수인계 장부.
129	시용면분류 時用面分類	1735년 ~1744년	17	26.8×30.1cm	영조 11년에 작성한 순흥부의 향원鄉員 185명 명부.
130	시용면분류 時用面分類	1745년 ~1750년	19	24×33cm	영조 21년에 작성한 순흥부의 향원 200명의 명부.
131	면분류 面分類	1756년	6	24.3×25.5cm	영조 32년에 작성한 순흥부의 향원 86명의 명부.
132	면분류 面分類	1772년	31	22.7×32.3cm	영조 48년에 작성한 순흥부의 향원 219명의 명부.
133	면분록 面分錄	1813년	25	26.9×32.8cm	순조 13년에 작성한 순흥부의 향원 392명의 명부.
134	면분류 面分類	미상	7	25.8×27.7cm	순흥부의 향원 75명의 명부.
135	면분류 面分類	미상	10	22×33cm	순흥부 향원 100명의 명부.
136	면분류 面分類	미상	31	31×34.2cm	순흥부의 향원 428명의 명부.
137	소수서원 상황조사狀況調査	1912년	6	18.5×28.3cm	1912년에 순흥군수가 소수서원 원장에게 서원 전반 상황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
138	재산관리소 財産管理所	1947년	6	28.3×23.8cm	1947년 소수서원재산관리소의 임원규정집.
139	재산관리소 財産管理所	1947년· 1953년	3	28×24cm	1947년·1953년 소수서원재산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소수서원재산관리소의 임원명부.
140	비품대장 備品台帳	1951년· 1957년	4	19.6×24.7cm	1950년·1957년 소수서원 비품 대장.
141	문서전장책 文書傳掌冊	1959년	20	22.3×28.1cm	1959년 서원 인수인계 장부.

10. 기타 [3점]

142	소수서원 성정개모시일기聖幀改摹時日記	1815년 ~1816년	50	23.5×35cm	1815년~1816년까지 공자·안향·주세붕의 영정 개모시 일기.
143	영정처변시사적 影幀處變時史蹟	1912년	10	30.3×24.2cm	1911년 10월 5일 소수서원 영정 도난에 관한 전말 기록.
144	사적事蹟	미상	12	24×32cm	조선시대 순흥부 관할 내 건립되었던 서원의 사적 정리.

남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과 소장 고문헌의 성격 :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박소희(영남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남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
- III. 남계서원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성격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강학과 제향이라는 2대 기능 속에서 향촌 내 지식보급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영남 지역 서원은 퇴계가 제정한 「이산서원원규」를 모범으로 하여 사서오경과 『소학』, 『가례』 및 여러 제자백가의 글과 문집류까지 다방면의 서적들을 교재로 삼았다. 이에 서원에서는 경서류, 성리서, 문집류, 사서류 등 다양한 서적들을 구비하여 지역 내 도서관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당대 지식인들은 성리학적 학문을 보다 심화시켜 나갔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직접 제향자와 관련된 책을 출판·간행하면서 지식의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현재 서원 장서 연구는 서지학과 역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에 주목하거나,⁴⁶⁾ 소수·도산·옥산·병산·남계서원 등 개별서원의 장서 수집을 다루고 있으며,⁴⁷⁾ 현전하는 서원 소장 고문서류를 종합하여 분석한 글도 일부 확인된다.⁴⁸⁾

46) 이춘희, 『조선조의 敎育文庫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47) 박현규, 「병산서원서책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 서지학보』 94, 한국서지학회, 1994; 배현숙,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옥영정, 「『竹溪誌』의 編纂과 板本에 관한 書誌의 研究」,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김종석, 「도산서원 고전적의 형성과 관리」, 『고전적』 4,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8; 윤동원, 「옥산서원 소장 고전적 서목 비교 고찰」, 『경주문화』 97, 경주문화원, 2011; 옥영정, 「엄격한 서책 관리와 도서관 역할」,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배현숙,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윤혜민, 「서원의 전략적인 지식정보 확보와 사회적 호응-함양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과 서양 중세 수도원의 아카이브적 성격의 비교연구 자료집』, 한국서원학회, 2023.

48)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김순환, 「상주 옥동서원 소장 자료

한편 정여창을 제향하는 남계서원은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자 1552년(명종 7) 유림의 결속으로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향촌 유림과 지방관들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들은 서원에 기증함으로써 남계서원에는 일종의 ‘기증문고’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기증 내역은 『부보록』으로 남아 있어 서원 장서 연구와 소장 고문헌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16세기 중반 남계서원의 네트워크와 당대 지식인들이 지향했던 학문의 이상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남계서원 장서에 관한 연구는 『부보록』을 통해 16~17세기 장서 구축을 살펴본 연구⁴⁹⁾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남 서원 연구 속에서 일부 다루어져 왔다.⁵⁰⁾ 그러다 보니 서원 장서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남계서원 자체에서 생산한 고문서들이 다수 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원 소장 고문서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문서들로, 그간 서원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다보니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근래 서원 연구를 보면, 일제시기까지 시대를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¹⁾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남계서원 장서 구축의 내력을 보다 통시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종합·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소장 고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남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

남계서원의 제향자인 정여창은 김종직의 대표 제자이자 영남 사림파의 초석을 이룬 인물이다. 함양 출신이었던 그는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생을 마감하고,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는 부관참시까지 당하였다. 다행히 1506년(연산군 12)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연산군이 물러나면서 정여창·김굉필 등 피학인들에 대한 신원 작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먼저 1507년(중종 2) 무오사화 희생자들에 대한 관작이 복구되었고, 정여창은 통정대부 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상서원정에 증직되었다. 1517년(중종 12) 2월에는 조광조가 김굉필·정여창에 대한 포상을 건의하였으며⁵²⁾ 같은 해 8월에는 정여창 후손에 대한 녹용이 이루어졌다.⁵³⁾ 이후 우의정에 추증, 같은 해 9월에는 예조에서 김굉필·정여창이 講道하던 곳에 사우를 세우고 치제하자는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다.⁵⁴⁾ 하지만 정여창이 제자들을 모아 강도한 곳이 없자 봄, 가을 관

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49) 윤혜민, 「서원의 전략적인 지식정보 확보와 사회적 호응-함양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과 서양 중세 수도원의 아카이브적 성격의 비교연구 자료집』, 한국서원학회, 2023.

50)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51) 이병훈,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최성한, 「한말·일제강점기 영남지역 서원·사우의 건립 양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조명근, 「일제 말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실태」, 『한국서원학보』 14, 한국서원학회, 202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흥선대원군 서원해철령 이후 서원 복설의 추이와 성격』 국내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3.4.2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근대 이후 동아시아 서원의 변용과 전개』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3.5.26.

52) 鄭汝昌, 『一蠹集』卷2, 附錄, 「褒贈祀典」에는 중종 12년(1517) 2월 경연관 조광조가 선비의 기풍이 무너졌으니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김굉필·정여창의 포상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2월 19일 기사에서는 "廢朝 이후로 師友의 도가 끊어지고, 간혹 스승을 찾거나 벗을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화의 씨라고 지목합니다. 대범, 사우의 도가 있는 연후에 인륜이 밝아지게 되는 법이니, 임금도 역시 당시의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스승을 삼고, 그 다음 사람으로 벗을 삼아 존대해야 하는 법입니다.(생략)"라고 하여 김굉필·정여창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53)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8월 5일.

청에서 그의 家廟에 치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⁵⁵⁾

한편 1543년(중종 38) 주세붕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건립되었다. 이 서원은 국내에 성리학을 처음 도입한 안향의 제향처라는 상징성이 있었고, 이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에 의해 1550년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그러자 정여창의 고향인 함양에서도 1552년(명종 7) 姜翼을 필두로 다음과 같이 서원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姜介庵翼이 朴公承任, 盧徙菴祿, 鄭梅村復顯, 林湛溪希茂와 논의하기를 “우리 고을은 일두 선생의 고향인데, 선생께서 세상을 떠신 지 이미 50년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서원을 짓고 사당을 세우는 일을 못 했으니, 실로 우리 고을의 수치입니다.” 하니, 모두들 그렇다고 하여, 이에 서원을 창립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서원은 오직 周武陵[周世鵬]이 竹溪에 세운 서원 이외에는 없었으므로 聞이 익숙지 않아서 반대가 없지 않았으나, 개암이 의연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뜻을 굳혀 공역을 거행하니, 고을의 儒士들이 다투어 米穀을 가져왔고 이웃 고을에서 보내온 보조도 많았다. 군수 徐侯[徐九淵]가 마음을 다하여 도왔는데, 講堂을 세운 뒤 서후가 遞差되어 돌아가고 농사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강당에 기와를 올리지 못한 채 드디어 그 공역이 정지되었다. 남은 재화를 증식하여 넉넉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공역을 마무리할 것을 기약하였다.⁵⁶⁾

강익과 함께 서원 건립을 논의했던 박승임·노관·정복현·임희무 등은 함양의 대표 유학자인 鄭熙普의 문인으로⁵⁷⁾ 이들은 당시 향안에도 임록되었었고, 사마재 건립 등을 주도하면서 향촌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위 인용문에서도 나오듯 서원 건립이 시작되자 함양과 인접 지역 유림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미곡을 가져왔다. 당시 함양군수였던 서구연도 마음을 다해 도움으로써 강당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당에 기와도 올리지 못한 채 군수 서구연이 체임되고, 흉년마저 겹치면서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공사는 1559년(명종 14) 尹確이 함양 군수로 부임하면서 재개되었다. 군수의 적극적 지원 아래 사당이 건립되고 마침내 1561년(명종 16) 서원 건립을 완공할 수 있었다. 순창에서도 건립 초창기 도움을 주었던 서구연이 군수로 있으면서 쌀·콩·細木·화문석·白紙·화로·관노 등을 보내왔다. 이렇게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고 1564년(명종 19) 함양군수로 부임한 김우흥⁵⁸⁾의 지원을 받아 동·서재까지 건립하였다. 1565년(명종 20)에는 서원의 외형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재곡과 서책도 차곡차곡 쌓여갔다. 하지만 서원 운영을 원활히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었다. 초대 원장이었던 강익의 『介庵集』 「年譜」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원에 學徒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자 했으나 서적이 없고 재곡이 부족하였다. 선생이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음을 걱정하여 盧祿에게 서책 마련 책임을 맡기고, 梁弘澤에게 財寶을 모으는 책임을 맡겼다. 시종 협력하여 마침내 이일을 성취하니 서책은 모두 백여 권이 되고, 財穀은 선비를 供養하기에 남음이 있었다. 선생이 盧禎, 梁喜 두 선생과 의논하여 서원의 재곡을 경내의 서당과 洞內에 나누어 주어 혼례와 상례, 春秋講信禮를 행하는데 돕게 했다. 마침내 이것이 一鄉의 定式이 되었다.⁵⁹⁾

54)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9월 24일.

55) 鄭汝昌, 『一蠹集』卷2, 附錄, 「褒贈祀典」.

56) 鄭汝昌, 『一蠹集』卷2, 附錄, 「褒贈祀典」; 한국고전종합DB 번역문 재인용.

57) 鄭熙普, 『唐谷鄭先生實記』下 「諸賢讚述」

58) 김우흥의 동생은 동강 김우옹으로 남명의 외손녀 사위이다.

59) 姜翼, 『介庵集』下, 附錄, 「年譜」 “嘉靖四十四年乙丑. 先生年四十三歲. 院中學徒. 交集講業. 而書籍無存. 財穀不多. 先生大懼無以養育人材. 以盧徙庵祿. 掌備書之任. 以梁竹庵弘澤. 典褒寶之責. 終始協

강익은 서적과 재곡이 부족하자 노관에게 서책을, 양홍택에게는 재곡을 모으는 임무를 맡겼다. 그리고 마침내 서책은 백여 권이나 모이고 재곡은 공양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러한 기부 내역은 현재 서원 소장 『을묘년서원부보록』과 『부보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⁶⁰⁾

표 1 16세기 남계서원 서책 기부 목록

연대	지역	직위	성명	내용
1560년(명종 15)	咸陽	郡守	尹確	『名臣言行錄』10卷, 『書傳』10卷, 『大全』10卷, 『言行錄』12卷, 『禮記』16卷
*임기: 1561년(명종 16)~1562년(명종 17)	密陽	府使	徐九淵	『朱子語類』50卷, 『溪志』3卷
*임기: 1563년(명종 18)	潭陽	府使	盧禎	『十九史略』8卷, 『心經』1部
	咸陽	幼學	鄭業	『大學衍義』12卷
	咸陽	幼學	朴承元	『家禮』6卷
	咸陽	幼學	姜文弼	『左傳』17卷
	咸陽	幼學	鄭復顯	『伊洛淵源錄』2卷, 『小學』3卷
	咸陽	進士	姜翼	『心經』1卷
	咸陽	幼學	盧祿	『理學類編』2卷
	咸陽	幼學	陳克興	『讀書錄』1卷, 『孟浩然集』1卷
	咸陽	幼學	梁弘澤	『通鑑小傳』7卷
		幼學	申石潏	『小學』2卷
		進士	崔樂壽	『春秋』4卷
	長城	縣監	趙惟誠	『大學』1卷 大字
	安陰	進士	金禧年	『理學類編』2卷
*임기: 1564년(명종 19)~1565년(명종 20)	咸陽	正字	都希寧	『伊洛淵源續錄』2卷
		幼學	李師閔	『文章軌範』1卷
	咸陽	幼學	李維	『中庸或問』1卷
		幼學	韓壽祿	『性理大全』25卷
		幼學	■翼臣	『近思錄』4卷
	咸陽	幼學	鄭乘	『陸宣公奏議』4卷
		幼學	全大中	『後集』4卷
		都事	金啓	『近思錄』4卷
		幼學	張伋	『晦庵文抄』3卷, 『朱子封事』2卷

心. 克有成就. 書秩凡百餘卷. 財穀有裕於供士. 先生乃與玉溪. 九拙兩先生定議. 分院財. 各授境內書堂及洞內. 使之各助其昏喪. 而春秋行講信禮. 遂爲一鄉定式.”

60) 『을묘년서원부보록』은 1552년(명종 7)~1561년(명종 16)과 1891년의 기부 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앞 시기는 약 116명의 수령 및 유림들이 재곡과 서책 일부[『名臣言行錄』 10권, 『書傳』 10권]를 기부한 내역이고, 1891년의 내용은 함양군수 金靖鎭과 하동정씨 문중을 포함한 59개 문중에서 844兩을 기부한 내역이다. 『부보록』은 크게 서책 기부 현황과 현물 기부 내역[備忘錄]으로 구분된다. 또 군데 군데 서원 자체에서 구비한 목록은 院備라 하여 총 22회 기록해 놓았다. 시기는 1552년~1931년까지이며 총 238명과 3개 문중에서 서책과 재곡을 공여하였다.

연대	지역	직위	성명	내용
*임기: 1563년(명종 18)~1564년(명종 19)	羅州	牧使	李俊民	『朱子詩集』4卷, 『宋鑑』12卷
1564년(명종 20) 추정	全羅	都事	李求仁	『論語』7卷
	安陰	幼學	朴義卿	『韋蘇州』2卷
		幼學	李德悅	『性理群書』12卷
	京	進士	朴忠侃	『春秋』13卷
		幼學	張思善	『杜詩』8卷
	咸陽	學諭	林希茂	『孔子通紀』2卷
	丹城	幼學	李光祖	『理學類編』2卷
*임기: 1563년(명종 18)~1566년(명종 21)	順天	府使	李楨	『通鑑』17卷
		教授	姜霽	『楚辭』2卷
*임기: 1564년(명종 19)	晉州	牧使	盧禎	『醫問集』3卷, 『性理字義』1卷
	咸陽	學諭	林希茂	『朱子年譜』2卷
		縣令	閔德鳳	『性理群書』11卷
*임기: 1563년(명종 18)~1566년(명종 21)	順天	府使	李楨	『程氏遺書』8卷
*임기: 1565년(명종 20)	慶尙	都事	趙惟誠	『唐鑑』5卷
*임기: ?~1566년(명종 21)	光州	牧使	崔應龍	『大學或問』3件
*임기: 1564년(명종 19)~1568년(명종 23)	咸陽	郡守	金宇弘	『春秋』8卷
1566년 사액				
		典籍	張範	春秋 7卷
1567년(명종 22)	忠淸	監司	盧禎	儀節 4卷, 感興詩 1卷, 延平問答 2卷
		幼學	權汝謙	擊壤集 4卷
	宜寧	縣監	金淸	周易 14卷
1572년(선조 5)	咸陽	郡守	李長榮	小學 2件
1570년(선조 3)~1571년(선조 4)	慶尙	監司	朴大立	大學 1卷, 中庸 1卷, 論語 7卷
1573년(선조 6)	慶尙	監司	盧禎	性理字義 1卷
		幼學	李慶	上蔡語錄 1卷
	沙斤驛	察訪	李榮春	禮部韻 1卷
1591년(선조 24)	慶尙	監司	金晬	諺解小學 1件 ⁶¹⁾

* 임기: 『부보록』 상에 연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재임기간을 명기함.

군수 윤확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밀양·장성·나주·순천 등지의 지방관들도 서책을 기부해왔다. 1560년 윤확은 『명신언행록』10卷, 『서진』10卷을 기부하고 연이어 『大全』10卷, 『言行錄』12卷, 『禮記』16卷을 공여하였으며, 밀양부사로 가있던 서구연은 『朱子語類』50卷과 『(竹)溪志』3卷을 보내왔다. 노진은 담양부사 시절 『十九史略』8卷·『心經』1部를, 진주목사 시절 『醫問

61) 경상감사 김수가 기증한 『언해소학』 1건은 서책목록이 아닌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다. “監司 金晬 萬曆辛卯 米七石, 太四石, 狀紙三十束, 羔毛十柄, 油烟十笏, 諺解小學 一件.”

集』3卷·『性理字義』1卷, 충청감사 재임 시 『儀節』4卷·『感興詩』1卷·『延平問答』2卷, 경상감사 시절 『性理字義』1卷을 기증해주었다. 장성현감 趙惟誠은 『大學』1卷과 경상도사 재임시 『唐鑑』5卷을, 나주목사 이준민은 『朱子詩集』4卷·『宋鑑』12卷을 보내주었다. 순천부사 李楨 역시 『通鑑』17卷과 『程氏遺書』8卷을 보내왔다. 이에 호응하여 함양 사족들의 전폭적인 기증도 이어졌다.

이들은 대체로 함양 출신이거나 남명학파의 구성원으로서 지연과 학연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원 건립을 주도한 박승임·노관·정복현·임희무 등은 당국 문하에서 수학했던 인사들이지만 이들은 정희보 말년 남명과 교유하거나 문인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노진·강익·임희무·정복현 등이다. 특히 지례·담양·진주·충청·경상감사를 지낸 노진은 서원 건립을 주도했던 강익과는 절친한 사이로, 건립 초창기 지례현감 시절부터 米1石 8斗 太14斗를 보내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장성현감 조유성은 아버지의 묘갈을 노진에게 부탁할 정도로 둘 사이 교분은 두터웠다.⁶²⁾ 나주목사 李俊民은 남명의 조카였으며 김우흥은 남명의 외손녀 사위였던 김우옹의 형이다. 이정은 퇴계·남명 양 문하에서 수학했던 인물이다.

특히 이정은 16세기 지방관으로 재임할 무렵 퇴계와 논의하여 약 24종의 서적을 간행한 바 있는데,⁶³⁾ 그러한 서적들이 서원에 기증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정이 청주목사(1552~1555) 시절 간행한 『擊壤集』, 『延平問答』, 『朱子詩集』은 각각 權汝謙⁶⁴⁾, 노진, 이준민이 기증하였고, 경주부윤(1561~1562) 시절 간행한 『醫閭集』, 『孔子通紀』, 『伊洛淵源錄』, 『伊洛淵源續錄』, 『唐鑑』은 각각 노진, 임희무, 정복현, 도희령, 조유성이 기증해 주었다. 또 순천부사(1564~1565) 시절 간행한 『程氏遺書』는 이정이 직접 기증하였고, 『朱子年譜』는 임희무가 보내왔다. 이상 16세기 남계서원에는 이정의 간행 서적을 약 16종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임고서원이 3종, 옥산서원이 6종, 도산서원이 11종을 소유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라 할 수 있다.⁶⁵⁾

통상 이정은 남명보다 퇴계 문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정은 남명의 대표 종유인 중 한명으로서, 학파 내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 1567년~1568년 무렵 일어난 음부옥 사건⁶⁶⁾으로 남명과 절교하면서 강우사림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해 갔던 것이다.⁶⁷⁾ 따라서 그 이전에 간행된 서적들은 충분히 이정과 교유하며 동문수학했던 인사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남계서원의 소장 비율이 압도적인 것은 이정과 당시 남명학파 간의 학연·지연 등 복합적 관계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남계서원이 건립될 무렵 남명은 삼가현 뇌룡정에서 문인들을 양성하고 있었고, 1561년(명종 16) 무렵에는 진주 덕산동 산천재에 기거하고 있어 일대 많은 유림들이 그의 문인이 되었다. 이에 1563년(명종 18)에는 남명과 문인들이 남계서원에 함께 방문하여 정여창의 사당

62) 장성현감 조유성의 아버지 趙壽億의 묘갈을 노진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조유성의 기부는 노진과의 관계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옥천(순창)조씨 대종회 전자족보 (www.cho.or.kr)

63) 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의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219~220쪽.

64) 권여겸의 부친 權濂은 노진의 문인이다.

65) 윤혜민, 앞의 발표문, 2023, 62쪽.

66) 진주 출신 河宗岳의 후처 함안이씨의 음행 사건이다. 하종약의 전처는 남명의 조카였고, 후처 함안이씨는 구암 이정의 첩과 인척관계였다. 이정은 함안이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남명과 입장을 달리하면서 서로 절교하였다. 정인홍 등 남명 문인들은 함안이씨의 집을 부수고 횡가출향시켰다.

67) 김학수, 「林谷 林眞愼의 현실인식과 17세기 영남학계에서의 위상 -南冥·退溪學을 접목한 17세기 영남학계의 새로운 모색」, 『남명학연구』 5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7, 231~233쪽.

을 참배하고 강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계서원은 남명학파의 학문적 구심체이자 거점 공간이 되었다. 이상 서원의 외형과 서책·재곡 등이 갖추어지자 강익을 비롯한 함양 유림들은 1566년(명종 21) 6월 청액소를 올리고⁶⁸⁾ 마침내 7월 瀟溪로 사액을 받았다.

사액과 함께 남계서원에는 『논어』 7권, 『맹자』 7권, 『중용』 1권, 『대학』 1권이 내사되었다. 이보다 앞서 사액된 소수·임고서원에도 사서오경이 반사된 것으로 보아 사액 서원이 가장 먼저 하사받는 서적이 경서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⁹⁾ 이후에도 『주자대전』 95권, 『주자어류』 75권, 『국조유선록』 4권, 『정충록』 3권, 『언해소학』 4권 등을 하사받았다. 서원에는 이러한 내사본과 함께 서원 자체에서 구비한 서적들도 확인된다.

표 2 16세기 남계서원 서책 내사·구입 목록

분류	서적 목록	수량
내사	論語, 孟子, 中庸, 大學, 朱子大全, 朱子語類, 國朝儒先錄, 精忠錄, 諺解小學	9종
院備	詩傳, 周易, 大學講義(2件), 論孟或問, 小學日記, 家禮, 大學補遺, 儀禮圖, 二程全書, 朱子大全, 讀書錄, 朱子實紀, 朱子書節要, 夙興夜寐箴, 二程粹言, 朱子行狀, 翼傳, 童蒙須知, 皇明名臣言行錄, 通鑑前紀, 歷代要錄, 唐音, 大廣益會, 續蒙求, 紫陽集, 樊川集, 秋江集, 晦齋集, 選詩, 柳州集, 太白集, 西山集, 東文選, 陸放翁, 三蘇文, 兩山墨談	36종

<표 1>·<표 2>를 통해 우리는 당시 유림들이 서원에서 어떤 공부를 배우고자 했는지, 서원에서는 이들의 학문 증진을 위해 어떤 서적들을 중점적으로 구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四書五經의 경서류와 성리서이다. 이는 서원 장서가 강학의 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당시 성리학 보급의 주체로서 사림세력의 학문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는 1935년에 발간된 『남계서원지』 내 院規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축년에 제작된 이 원규는 현재까지 남계서원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오고 있는데⁷⁰⁾ 그 내용은 퇴계가 제정한 「伊山書院 院規」와 거의 흡사하다.⁷¹⁾ 이 원규에는 제생들이 추구해야 할 학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제생의 독서는 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小學』, 『家禮』를 입문으로 하여 국가가 인재를 기르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지킨다. 모든 خوب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옛도를 지금에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으며, 몸소 행동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本體를 밝히고 쓰임에 맞게 하는 학문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여러 史書와 제자백가, 문집, 문장, 과거 공부 또한 널리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생략)

— 성균관 명륜당에는 利川선생의 「四勿箴」과 晦庵선생의 「백록동규」와 「十訓」, 陳茂卿의 「夙興夜寐箴」을 걸어두었는데, 그 의미가 매우 좋으니 서원 안에도 이것을 벽에 걸어두고 서로 바로잡고 경계한다. ⁷²⁾

68) 『중종실록』 명종 21년(1566) 6월 15일.

69) 윤해민, 앞의 발표문, 2023, 60쪽.

70)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예맥, 2013, 126쪽.

71) 『남계서원지』 수록 원규는 총 13개 조항으로 11개 조항이 이산서원 원규와 같다. 다만 이산서원 원규는 12항으로 되어있는데, 3·4항이 남계서원 원규에는 3항으로 합쳐져 있다. 이외 2개 조항은 서원 보수 및 사당을 배알할 때 입는 의관에 관한 내용이다.

72) 『남계서원지』 내 「院規」,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源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

서원에서는 원규에 따라 사서오경의 경서류와 성리서류를 비롯하여 제자백가의 문집류, 문장, 과거공부에 필요한 각종 사서류도 구비하고 있었다. 문집류에는 중국 당나라 시인 孟浩然의 『孟浩然集』·杜牧의 『樊川集』, 북송시대 邵雍의 시집 『擊壤集』, 주자의 『紫陽集』과 조선 인물로 남효온의 『秋江集』, 이언적의 『晦齋集』 등이 확인되며, 사서류에는 『十九史略』, 『宋鑑』, 『通鑑』 등이 있었다. 이상 16세기 남계서원에서는 약 천 질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으로 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⁷³⁾

전쟁으로 인해 서원이 피해를 입어 따라 남계서원은 1605년(선조 38) 새로운 터(羅村)로 이건을 완료하고 3월 12일 위판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서원으로서 강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서적의 확보가 급선무였다. 이에 『通鑑』40卷을 구입하고, 향교로부터 『논어』7卷, 『맹자』7卷, 『중용』1卷, 『대학』1卷 『소학』4卷 등을 이송해왔다. 노진의 손자 盧脊은 『晦齋先生年譜』를, 1606년(선조 39) 좌의정 奇自獻은 『德陽遺藁』1卷을 보내왔다. 『덕양유고』는 기자현의 증조부인 奇遵의 문집으로 1606년에 간행되었는데, 이 해에 바로 남계서원에 보내진 것이다.⁷⁴⁾ 1611년(광해군 3) 정인홍의 문인 姜縝은 『或問大學』2卷을, 1614년(광해군 6) 강린의 아들 姜渭明은 『心經』2卷을 보내왔다. 1649년(인조 27) 경상감사 李冕은 1년 전 정경세가 저술한 『주문작해』를 기증해 주었다.

17세기 서원에서 구입한 서적은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경서류와 성리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통감』, 『강목』 등 중국 역사서와 우리나라 역사서인 『고려사』를 구입한 것도 눈에 띈다. 또 퇴계가 저술한 『주자서절요』나 『사서석의』도 구입하였는데, 앞서 정경세의 『주문작해』를 포함하여 이러한 서적의 구비는 그간 축적된 조선 성리학의 이론 성과를 서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유림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⁷⁵⁾

한편 1621년(광해군 13)에 구입한 『남명집』 4권은 당시 남계서원 운영 주체들의 학파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남명 조식의 문집인 『남명집』은 본래 그의 고제인 정인홍이 詩文 2권과 附錄 1권을 엮어 1604년(선조 37) 합천 해인사에서 초간하였다. 이후 해인사에 보관 중이던 목판이 화재로 불타면서 정인홍의 문인 許從善이 1606년(선조 39) 중간하였고, 1609년(광해군 1)에도 정인홍의 문인이었던 문경호가 새로 수집한 문자들을 취합하여 4권 3책으로 만든 바 있다. 남계서원에서 구입한 것은 아마도 문경호가 간행한 『남명집』으로 추정된다.

서원에서 『남명집』을 구입할 무렵 중앙 조정에서는 정인홍·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세력이 남명학통의 공인화를 위해 주력하던 시기였다. 1615년(광해군 7)에는 도성에 남명 제향처인 백운서원을 건립하고 이듬해 사액까지 받았으며, 1614년(광해군 6)부터 시작된 남명문묘종사운동은 1617년(광해군 9)부터 1620년(광해군 12)까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⁷⁶⁾ 따라서 『남명집』의 구입은 남명학의 정통성을 공인받고자 했던 시기 그들의 활동 공간이었던 서원에서도 남명의 학문과 사상을 배움으로써 당대 분위기에 조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 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73) 『부보록』, “已上千帙萬曆丁酉秋八月十六日 爲倭奴所焚”

74) 『덕양유고』는 동시에 도산·옥산서원에도 보내졌다.

75) 이병훈, 앞의 논문, 2021, 190쪽.

76) 남명문묘종사운동과 관련해서는 설석규, 「선조, 광해군대 남명학파의 공론형성과 문묘종사 운동」, 『남명학연구논총』 11, 남명학연구원, 2002 참고.

표 3 17세기 서책 구비 목록

시기	분류	서적 목록
1604년(선조 37)	院備	『通鑑』40卷
1605년(선조 38)	校中移送	『論語』7卷, 『孟子』7卷, 『中庸』1卷, 『大學』1卷 『小學』4卷
1605년(선조 38)	盧育	『晦齋先生年譜』
1606년(선조 39)	奇自獻	『德陽遺藁』1卷
1606년(선조 39)	院備	『詩傳』10卷
1611년(광해군 3)	姜縝	『或問大學』2卷
1614년(광해군 6)	姜渭明	『心經』2卷
1617년(광해군 9)	院備	『綱目』76卷, 『朱子書節要』10卷, 『大學衍義』12卷, 『孟子』4卷, 『唐音』4卷, 『近思錄』4卷
1621년(광해군 13)	院備	『韻會』13卷, 『三經釋義』1卷, 『四書釋義』1卷, 『孟子或問』2卷, 『禮部韻』1卷, 『南冥集』4卷
1623년(인조 1)	刊行	『文獻公實紀』
1641년(인조 19)	院備	『高麗史』71卷, 『家禮』2卷, 『小學諺解』4卷
1648년(인조 26)	院備	『禮記』20卷
1649년(인조 27)	李舅	『朱文酌海』8卷, 『書傳大文』2卷
1663년(현종 4)	院備	『杜詩諺解』
1684년(숙종 10)	院備	『朱子大全』65卷, 『心經』2卷, 『德溪集』4卷

17세기 남계서원에서는 서원 제향자의 문집을 직접 간행하기도 했는데, <표 3>과 같이 1623년(인조 1)에는 정여창의 『문헌공실기』를, 1686년(숙종 12)에는 梁天翼이 별묘에 제향되어 있던 강익의 『개암집』 초간본을 간행하였다.⁷⁷⁾ 양천익은 1689년(숙종 15) 강익의 본원 승향까지 성사시켰던 인물로, 정여창과 강익의 문집 간행은 서원이 대외적으로 제향자의 학문과 사상을 전파하고, 지식정보를 공유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서원의 장서 목록은 현전하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현재 서원 소장 고서 중 奎章之寶⁷⁸⁾가 찍힌 『御定奎章全韻』과 정조의 내사기가 수록된 『御定五經百篇』이 있어 18세기 서원에 내사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정규장전운』은 정조의 명으로 1796년(정조 20) 규장각에서 간행한 韻書이다. 기존의 운서는 글자가 소략하고 주석도 자세하지 못하였다. 또 4성 중 三韻만 모아져 있고, 入聲은 따로 적혀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어정규장전운』이 완성되자 정조는 곧바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해 내렸다.⁷⁹⁾ 『어정오경백편』은 『주역』, 『서경』, 『시경』, 『춘추』, 『예기』의 주요 내용 99편과 주희의 저술 2편을 수록한 것으로 1794년(정조 18)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듬해 정조는 친히 영남에 서적을 내려 보내 啓書營吏로 하여금 잘 베껴쓰도록 하고 도내 유생이 이를 교정보게 하였다. 이는 영남 유생들이 經 공부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798년(정조 22) 마침내 『오경백편』이 완성되자⁸⁰⁾ 서원에 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도산·옥산서원에도 『오경백편』을 하사하였는데, 정조는 자신이 편집에 관여했던 서적들을 인쇄하여 전국 향교와 사액서원에 배포하였다.⁸¹⁾ 따라서 남계서원에

77) 『개암집』 초간본 권말에는 “崇禎甲申後丙寅仲春日 咸陽濫溪書院開刊”이라 기록되어 있다.

78) 남계서원 소장본에는 내사기 대신 내사본에 찍는 御寶인 ‘奎章之寶’가 찍혀있다.

79) 『정조실록』, 정조 20년 8월 11일, 「『어정규장전운』을 서울과 지방에 반포해 내리다」.

80) 『정조실록』, 정조 20년 9월 3일, 「『어정오경백편』을 베껴 쓰고 교정을 본 영리에게 상을 내리다」; 정조 22년 7월 29일 「『오경백편』을 완성하다」.

도 『오경백편』 외에 정조 연간 간행된 여러 서적들이 내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외 18~19세기 남계서원의 장서현황은 목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192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원 원규에 의하면, ‘서원 안의 서책은 서원에 와서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빌려주지 말 것’, ‘서책은 매년 여름이 지난 뒤에 수량을 살펴서 포쇄할 것’⁸²⁾ 등의 규정이 있어 그전까지도 서책목록이 계속 작성되고 관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세기 남계서원 장서현황은 다음 <표 4>와 같이 1935년에 작성된 『書冊臺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 1935년 서책 목록

구분	서적 목록	수량
경서류	四書釋義, 春秋, 諺譯六書, 御定五經	4종
문집·실기류	朱子大全, 一蠹集, 濯纓集, 栗谷全書, 介庵集, 桐溪集, 鄭忠莊公集, 李月暈堂集, 楊大峰集, 林濫溪集, 曹梅庵集, 晦軒實記, 林晦軒集, 李三友堂集, 李黃江集, 李聾巖集, 李龜巖集, 李三賢紀年, 安子年譜, 李松圃遺稿, 金節孝實紀, 李桐谷實紀, 李三梧實紀, 馬晚雲遺稿, 徐孺子集, 柳敬勝齋遺稿, 閔農隱集, 松灘集, 郭定庵集, 龍城世稿, 李惠山集, 鄭薇山遺稿, 姜武山遺稿, 姜悟齋遺稿, 姜橘庵遺稿, 李梅軒集, 李惺齋集, 奇松沙集, 金江湖實紀, 晦齋別集, 許敬庵集, 許敬庵禮說, 許一寧集, 許凝川集, 李氏壽序集, 金氏蘭美錄, 閔芝岡集, 閔稽樵集, 卞志齋集, 崔茅廬集, 華海師全, 金蘆溪集, 金雪齋集, 鄭梅村集, 許一寧集, 李和杏集, 禹擇窩集, 李和村集, 鄭愛日堂實記, 許肅齋實記, 許愼庵集, 鄭霞谷集	62종
사서류	綱目, 麗史, 朝鮮史, 東鑑節要	4종
성리서	徐孺子性理述集	1종
기타	東賢遺墨, 華陽誌, 清溪書院誌, 松湖書院誌, 八溪鄭氏世稿, 達城徐氏世稿	6종

조선시대와 달리 일제 시기 남계서원은 경서·성리서보다는 개인의 문집·실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많은 서원이 훼철되고, 일제 강점이라는 당시 상황 속에서 서원은 강학보다 제향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었다. 이에 강학교재였던 경서의 보유량은 현격히 줄어들고, 가문의 현조를 높이기 위해 문집 발간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만큼 문집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목록에는 없으나 1919년 남계서원에는 7권 2책의 『일두유집』을 간행한 바 있다. 이상 일제시기 남계서원 소장 장서는 총 77종 확인된다.

해방 이후 남계서원의 서책은 1969년 이춘희 조사 당시 약 54종이 파악된다. 일제시기 77종에서 약 23종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1950년 6·25 전쟁의 여파와 대출 후 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81) 이병훈, 앞의 논문, 2021, 199쪽.

82)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24-濫溪書院篇-』, 2006.

표 5 1969년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내 소장 서책 목록

구분	서적 목록	수량
경서류	四書釋義, 五經百篇, 春秋左氏傳	3종
문집·실기류	艮窩集, 江湖實紀, 介庵集, 敬勝齋遺稿, 敬庵集, 龜巖集, 關美錄, 濫溪集, 蘆溪集, 聾巖集, 農隱先生實記, 大峰集, 桐溪集, 東谷先生實記, 晚雲遺稿, 晦庵先生遺稿, 梅村先生實記, 梅軒集, 茅蘆集, 三梧實紀, 三友堂集, 三賢紀年, 徐孺子集, 雪齋集, 惺齋先生實記, 松沙集, 肅齋實記, 安子年譜別本, 愛日堂實記, 龍城世稿, 栗谷全書, 一寧先生實記, 一蠹先生遺集, 定菴逸稿, 鄭忠莊公實記, 朱子大全, 芝岡集, 濯纓集, 擇窩集, 霞谷集, 惠山集, 華海師全, 晦齋別集, 晦軒先生實記	44종
사서류	高麗史, 資治通鑑綱目, 朝鮮史	3종
성리서	性理述集	1종
기타	八溪鄭氏世稿, 和谷戊申日記, 華陽誌,	3종

III. 남계서원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성격

남계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 조선에서 두 번째로 건립을 시작한 서원이다. 그만큼 그 내력이 깊고 서원에서 생산한 문서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인조반정을 계기로 정치적 위기를 겪으며 몇몇 문서들은 의도적으로 소실되기도 했을 것이다. 서원의 원임을 기록한 『경임안』만 하더라도 광해군 시기부터 1682년(숙종 8)까지의 명단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그만큼 남계서원이 복인계를 강하게 표방했음을 의미한다. 또 정유재란으로 많은 서적들이 소실된 것처럼 여러 전란 속에 사라지기도 했을 것이다. 이에 현재 남아 있는 남계서원 문서 약 185종 중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18종에 불과하고, 일제강점기 문서들이 114종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 해방 이후 문서가 47종, 시기 미상이 6종이다.

하지만 적은 수량이라는 하나 조선시대 『부보록』, 『경임안』, 『원록』 등은 서원 초창기 건립 과정과 서원의 인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구들도 그간 많이 축적되어왔다.⁸³⁾ 반면 일제시기 남계서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서원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다보니 일제강점기 문서들은 연구대상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본다면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제강점기 문서들은 남계서원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남계서원 소장 고문서들은 인적구성, 제향, 경제, 사회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고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각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3)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김기주, 『맑은 강물 같은 문화의 흐름 濫溪書院』, 경인문화사, 2015; 이정희, 「16·17세기 咸安·咸陽 在地土族의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재철,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난」, 『대구사학』 31, 대구사학회, 1986; 강상택, 「조선 중·후기 서원 발달에 관한 연구-현 경상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59, 국사편찬위원회, 1994;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박소희,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윤혜민, 앞의 발표문, 2023.

1. 서원 운영의 주체들-조직·운영 문서

서원의 인적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로 원생 명단인 『원록』과 원임 명단인 『경임안』이 있다. 특히 1962년에 간행된 존위록은 역대 서원 원생과 원임, 서원에 기증한 사람들의 명부인 『부보록』의 인물에 대해 각 문중으로부터 단자를 받아 자, 본관, 관직, 후손 거주지 등을 기록함으로써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경임안』의 경우 광해군 시기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건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서원 운영 주체들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상(상량시집사록)』 『남계서원중수임원록』은 서원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또는 중수 시 관련 임원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전자의 문서는 표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1849년 풍영루를 중수할 때 분정한 집사들의 명단이다. 당시 一有司는 河龍圖, 二有司는 鄭煥弼이며, 成造都有司, 典有司, 都片手, 重修庫直 등을 수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후자의 문서는 1937년 남계서원에서 묘우·전사청·명성당·동재·서재·풍영루 중수시 임원들과 부조한 내역이다.

1923년에 작성된 남계서원의 원규는 서원의 운영 지침과도 같다. 현재 『고문서집성24-남계서원편』(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有司傳受時財産及物品必對照後引繼事

유사는 인수인계시 재산과 물품을 반드시 대조한 뒤에 인계할 것.

一 院土稅金自院擔當賭稅■額數而若有災則看坪事

서원 토지의 세금은 서원에서 담당하고, 도세는 정해진 액수에 의하되, 재해가 있을 경우 간평할 것.

一 享禮經用以賭租中春秋各十五石式例封調用事

향례 경비는 도조 가운데 봄, 가을에 각각 하며 5石으로 하는 전례에 따라 봉하여 적절히 사용할 것.

一 脯牛價一百五十兩以定事

포우가는 150냥으로 정할 것.

一 院中財用無証不得施行事

서원 내 재용은 증빙이 없으면 시행하지 말 것.

一 有司行公時接待費用以十五兩以內的定事

유사가 공무를 행할 때 접대 비용은 45냥 이내로 확정할 것.

一 院中書冊非院中來讀者切物借給事

서원 안의 서책은 서원에 와서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절 빌려주지 말 것.

一 參謁員接待若有過費量宜削事

참알 인원의 접대에 과다한 경비가 있으면 적절히 삭감할 것.

一 書冊每年經夏後照數曝曬事

서책은 매년 여름이 지난 뒤에 수량을 살펴서 포쇄할 것.

一 未盡條件推後補益事

미진한 조건을 추후에 보충할 것.

癸亥 三月三日

계해 삼월삼일

『남계서원지』는 서원의 내력과 제향자 및 운영 방침 등을 종합한 서원 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계서원에는 1935년에 간행된 것은 초간본과 1962년 간행본이 있다. 초간본은 일제 시대 서적 간행에 대한 검열이 심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안담당관의 「출판허가」의 檢印이 찍혀있다. 또 내용 중 고조선을 칭할 때 「朝鮮國」이라 쓴 것은 「國」字를 삭제하였고, 明을 칭할 경우 「皇明」에서 ‘皇’을 삭제하는 등 내용 중간 중간에 검열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⁸⁴⁾

한편 1935년~1938년 3월까지 서원 유사들의 근무대장인 『유사출무일지』도 당시 서원 유사들의 명단과 업무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대체로 분향, 院會 등 서원에 入院한 사유와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는 도장을 찍어놓았다.

2. 선현을 기리는 의례_향사와 묘제

남계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에 춘추향사를 지내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분향례를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는 춘추향사 시 제관의 명단을 기록한 『참제록』이 있다. 시기는 비교적 늦은 1846년(헌종 12)부터지만 이후 2000년대까지 꾸준히 작성되었다.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은 춘추향사 시 의례 순서와 내용이 기록된 문서이다. 서원의 춘추향례 의절에 따르면 제향일은 중춘·중추 중정일에 거행하며 齋戒, 省牲, 陳設, 陳設圖, 春秋常享祝文 등을 담고 있다.

「원회결의안」은 1927년 서원 원회를 통해 일두 선생 묘제에 대해 유림이 이전의 규약을 회복하여 봉행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원에는 1927년부터 1935년까지 묘제를 지낼 때 구입한 제수 물품 및 비용, 식상기, 『승안홀기』 등을 보관하고 있다.

3. 서원의 사회관계망_공문서와 통문·인명류

서원의 사회관계망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인명류·통문·公私문서 등이 있다. 인명류에는 『지알록』이 있다. 대외적으로 서원의 사당을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1902년 3월 宋秉珣부터 1981년 24대 함양군수 임종택까지 약 1,181명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근대전환기부터 현대시기까지 남계서원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통문류로는 1902년 김우옹을 제향하는 진주 용강서당이 건립되자 성주 회원서당에서 정구와 김우옹의 학문 정통성에 관해 보내온 통문, 1936년 흥암서원에서 안의 영승서원의 李滉, 全轍, 宋浚吉의 위차와 관련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 개최를 알리는 통문, 李炳憲의 공교운동을 비판하는 옥천향교와 필암서원의 통문들이다.

공사문서 중 조선시대 문서로는 1843년 관으로부터 保人에 대한 군포 징수권을 인증받은 「완문」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일제시기 문서들이다. 일제 강점기 공문서류는 1936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동면 탁아소 설치와 관련하여 3건, 소작쟁의 관련 2건, 대성문학원 관련 2건이 있다. 사문서류에는 1937년·1938년 서원의 수·발신 문서대장이 있다. 이 문서는 서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4. 서원 재정의 정확성과 투명성_수입·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들

남계서원 고문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 문서 중 조선시대 것으로는 『부보록』, 『을묘년 서원부보록』, 『남계서원전답양안등서』, 『남계서원전답양안』 등이 있다. 부보록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책목록도 수록되어 있어 장서·출판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나 현물 기부 등

84)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24-瀟溪書院篇-』(2006), 남계서원의 고문서 해제 참조.

은 재정 수입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재정 문서로 분류하였다.

『남계서원전답양안등서』는 量案에 기재된 서원 소유 전답의 내역을 謄寫해 온 문서로, 남계서원에서는 역대 수령들이 기부한 토지를 비롯하여 서원소유 전답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 結數(斗落) 및 耕作者 등을 적어 관리하였다. 이 양안에 의하면, 당시 서원 전답 중 영구히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가 1결 2부, 면세지가 3결이었다. 면세지 중에는 밭이 95부 3속, 논이 2결 4부 7속이었다. 이 등서에는 1937년(영조 13)의 완의가 추가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간 서원 전답을 임원들이 바꿔치기하거나, 누락시키고 파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원에서는 전답을 감사하는 유사(查有司)를 별도로 정하여 양안을 일일이 확인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⁸⁵⁾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제 강점기 경제문서들은 상당히 세분화하여 정리되고 있었다. 1923년 제정된 10개 조항의 원규를 보면, 7개 조항이 모두 서원 재정과 관련될 정도로 남계서원은 재정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재정 관련 원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사는 인수인계 시 재산과 물품을 반드시 대조한 뒤 인계할 것.
- 서원의 토지세는 서원에서 담당하고 賭稅는 정해진 액수에 의거하되, 재해가 있을 경우 간평할 것.
- 향례 경비는 賭租 가운데 봄, 가을에 각각 하나 5石으로 하는 전례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것.
- 脯牛價는 150냥으로 정할 것.
- 서원 내 財用은 증빙이 없으면 시행하지 말 것.
- 유사가 공부를 행할 때 접대 비용은 45냥 이내로 확정할 것.
- 參謁 인원의 접대에 과다한 경비가 있으면 적절히 삭감할 것.⁸⁶⁾

이에 맞게 현전하는 재정 문서는 크게 1904년~1970년대까지 약 60여 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소작료 및 추수기류, 1920년대 재정 출납부인 用下記, 1930년대~해방시기까지 작성된 세입세출내역부와 증빙서류들, 1930년대~해방 직후까지 작성된 현금·현곡수불부, 서원 중건 및 신도비 건립 등 서원 대소사와 관련된 수입·기부·지출 현황 등이 있다.

5.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장서·서책목록과 출판 문서

서원의 장서와 출판 현황을 알 수 있는 문서로는 『서책대장』(1935)과 『일두집 분질』(시기 미상)이 있다. 『서책대장』은 18~19세기 서책대장이 현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대시기 서원 장서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 문서를 통해 『부보록』에 기록된 16~17세기 서원에서 보유한 장서가 근대시기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새롭게 추가·분실된 장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두집 분질』(시기 미상)은 작성 시기는 미상이나 1919년 남계서원에서 일두집을 간행한 뒤 배포한 곳의 명단으로 짐작된다. 당시 배포한 곳은 함양 지역이 대다수를 이루며 경남 거창·합천 4곳, 경북 성주·김천 2곳, 호남권 남원·보성·광주 등이다. 이러한 배포처는 남계서원이 당시 학문적으로 형성하고 있던 사회관계망을 파악하는 데도 용이한 자료이다.

85)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예맥, 2013, 40쪽.

86)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24-濫溪書院篇-』(2006) 「院規」;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예맥, 2013, 132쪽 재인용.

6. 시문류 및 기타

이 외 시문류로는 『경일재기』, 『남계서원문루상량문』, 『풍영루 중수기』가 있다. 『경일재기』는 1881년 將時杓가 작성한 것으로, 함양 南城山 아래에 정여창 제향처이자 함양 사림의 강학처였던 경일재의 내력을 작성한 것이다. 『남계서원문루상량문』은 1849년 河龍圖가 작성한 것이고, 『풍영루 중수기』는 1940년 閔丙承이 작성한 중수기이다. 이 문서들은 현재 『고문서집성24-남계서원편』(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록되어 있다.

기타 문서로는 『이노정유계함양인원명부』, 『함양향안』 등이다. 『이노정유계함양인원명부』의 二老亭은 조선시대 때 김광필과 정여창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에 위치하고 있다. 1885년 영남 유림들에 의해 이노정이 개축되고 1904년 중수가 이루어졌다. 이 이노정을 중심으로 영남 유림들의 계가 조직되자 함양 인원의 명부를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함양향안』은 1969년 함양 향교 명륜당에서 간행한 것으로 선조 말부터 1713년(숙종 39)까지의 향안과 1824년(순조 24)의 향안을 담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역대 함양 유림의 존재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IV. 맺음말

남계서원은 건립 초창기 함양 유림들의 결속과 지방관의 보조에 힘입어 1552년(명종 7) 건립을 시작, 1566년(명종 21) 사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많은 유림들이 서적을 기부해 주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부보록』이라는 자료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만 하더라도 주세붕이 직접 서적을 구입한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16세기 사림 시대 지식인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가 무엇인지, 서원에서는 어떤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지, 평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학문의 이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부보록』의 장서 구축 범위는 16~17세기이다.

이후 서원 장서목록은 1935년의 『서책대장』과 1969년 『李朝書院文庫目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남계서원 장서는 『부보록』에 집중되다보니 장서 구축의 통시적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비록 일제 강점기 이기는 하지만 『서책대장』이 확인됨으로써 이 자료가 남계서원의 조선시대와 근대 시기 장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현전하는 고서들 중 1935년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으로는 『오경백편』, 『규장전운』, 『고려사』 등이 있었다. 이중 『오경백편』, 『규장전운』은 정조의 내사본으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고려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원 소장 고문서들은 약 185종 중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18종에 불과하고, 일제강점기 문서들이 114종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 해방 이후 문서가 47종, 시기 미상이 6종이다. 적은 수량이지만 조선시대 고문서 중 『부보록』, 『경임안』, 『원록』 등은 서원 초창기 건립과정과 서원의 인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다. 일제 시기 문서들은 대부분 서원의 재정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문서들로, 그간 남계서원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었던 만큼 이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일제시기 남계서원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에도 좋은 사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1935년에 간행된 『남계서원지』 역시 일제시대 서적 간행에 대한 검열이 심할 때 만들어진 초간본으로 검열의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 일제의 검열관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중종실록』, 『정조실록』

鄭汝昌 『一蠹集』, 鄭熙普 『唐谷鄭先生實記』, 姜翼 『介庵集』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예맥, 201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년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Ⅱ)』, 문화재청, 2005.

이춘희, 『조선조의 敎育文庫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정만조 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24-濫溪書院篇-』, 2006.

김순한, 「상주 옥동서원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김종석, 「도산서원 고전적의 형성과 관리」, 『고전적』 4,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8.

김학수, 「林谷 林眞愼의 현실인식과 17세기 영남학계에서의 위상 -南冥·退溪學을 접목한 17세기 영남학계의 새로운 모색」, 『남명학연구』 5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7.

박현규, 「병산서원서책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 서지학보』 94, 한국서지학회, 1994.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남계서원 소장 『裒寶錄』을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 75, 대동한문학회, 2023.

배현숙,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설석규, 「선조, 광해군대 남명학파의 공론형성과 문묘종사 운동」, 『남명학연구논총』 11, 남명학연구원, 2002.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 「『竹溪誌』의 編纂과 板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의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윤동원, 「옥산서원 소장 고전적 서목 비교 고찰」, 『경주문화』 97, 경주문화원, 2011.

윤희민, 「서원의 전략적인 지식정보 확보와 사회적 호응-함양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과 서양 중세 수도원의 아카이브적 성격의 비교연구 자료집』, 한국서원학회, 2023.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 ,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 ,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조명근, 「일제 말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실태」, 『한국서원학보』 14, 한국서원학회, 2022.
- 최성한, 「한말·일제강점기 영남지역 서원·사우의 건립 양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부록

● 남계서원 고서 목록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	-----	----	----	---------------	----

1. 경서류 [5점]

1	어정규장전운 御定奎章全韻	1796년	1	32.5×21.5cm	정조의 명으로 이덕무 등이 편찬한 한자 운서
2	어정오경백편 御定五經百篇	1798년	5	42.0×25.8cm	정조의 명으로 『주역』·『서경』·『시경』·『춘추』·『예기』의 주요 내용 99편을 뽑고 주희의 저술 2편을 덧붙여 엮은 책
3	삼경사서정문 三經四書正文	1820년	4	34.2×23.0cm	정조가 삼경 사서의 주석을 제외한 원문만 추려 정리한 책
4	사서석의 상 四書釋義 上	1917년	1	30.0×21.3cm	이이가 지은 사서의 해석본. 1899년 송병선의 서문이 있음.
5	논어 論語	1922년	4	23.0×15.8cm	1922년 儒敎經典講究所에서 간행한 논어

2. 문집·실기류 [100점]

1	최모려집 崔茅蘆集	1892년	1	30.1×20.3cm	조선 후기 학자 최남두崔南斗의 시문집
2	삼오실기 三梧實記	1896년	1	32.3×21.8cm	조선 후기 학자 이유열李惟說의 실기
3	동봉실기 東峰實記	1900년	1	29.9×20.4cm	조선 후기 학자 정재로鄭在櫓의 실기
4	삼우당실기 三友堂實記	1900년	2	30.3×20.3cm	조선 후기 무신 이윤서李胤緒의 실기
5	추만선생실기 秋巒先生實記	1900년	1	28.4×19.6cm	조선 전기 학자 정지운鄭之雲의 실기
6	구암집 속 龜巖集 續	1902년	1	30.8×19.8cm	조선 전기 문신 이정李楨의 시문집
7	구암집 별 龜巖集 別	1902년	1	30.7×19.7cm	조선 전기 문신 이정李楨의 시문집
8	신삼주문집 申三洲文集	1902년	3	28.8×19.9cm	조선 후기 학자 신호인申顯仁의 시문집
9	곡은유고 谷隱遺稿	1904년	1	29.2×20.0cm	조선 후기 한말 학자 이육李堉의 유고
10	회헌집 晦軒集	1905년	1	29.7×19.5cm	조선 전기 학자 임대동林大叟의 시문집
11	경암모왕조길례 敬菴謨王朝吉禮	1907년	2	32.7×22.2cm	조선 전기 문신 허조許稠의 시문집
12	대봉집 大峯集	1907년	2	27.5×18.9cm	조선 전기 문신 양희지楊熙止의 시문집
13	송암실기 松菴實記	1907년	1	28.5×18.7cm	고려 후기 문신 박문수朴門壽의 실기
14	강목계선생일고 姜木溪先生逸稿	1910년	1	27.4×18.0cm	조선 전기 문신 강흔姜渾의 시문집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15	놀암유사 訥庵遺事	1910년	1	27.0×18.7cm	조선 후기 학자 박지서朴智瑞의 시문집
16	정농포집 鄭農圃集	1910년	5	25.8×18.2cm	조선 중기 문신이자 의병장 정문부鄭文孚의 시문집
17	회헌선생실기 晦軒先生實記	1910년	1	28.7×19.6cm	고려 후기 문신 안향安珦의 실기
18	수족당유고 睡足堂遺稿	1912년	1	27.7×18.5cm	조선 후기 학자 이수완李秀完의 유고
19	학강유고 學岡遺稿	1913년	2	29.7×20.2cm	근대 학자 정재경鄭在璟의 유고
20	안자연보 安子年譜	1915년	1	29.2×20.4cm	진주 도통사道統祠에서 발행한 안자의 연보
21	송포집 松圃集	1916년	2	31.3×21.3cm	조선 후기 학자 이병일李晷一의 시문집
22	류경승재집 柳敬勝齋集	1917년	2	29.7×20.0cm	한말 학자 류가호柳可浩의 시문집
23	일두선생유집 一蠹先生遺集	1919년	1	32.0×21.2cm	조선 전기 문신 정여창鄭汝昌의 시문집
24	일두선생속집 一蠹先生續集	1919년	1	32.0×21.2cm	조선 전기 문신 정여창鄭汝昌의 시문집
25	탁영문집 濯纓文集	1920년	4	31.0×20.3cm	조선 전기 문신 김일손金駟孫의 시문집
26	마만운유고 馬晩雲遺稿	1922년	1	31.4×21.2cm	조선 후기 학자 마지원馬志遠의 유고
27	동곡실기 桐谷實記	1923년	1	29.8×20.1cm	달성서씨세고에 수록되어 있는 서택호徐宅鎬의 시문집
28	서씨성리술집 徐氏性理述集	1923년	5	30.0×20.1cm	조선 말기 학자 서응윤徐應潤의 유학서
29	서유자집 徐孺子集	1923년	1	29.7×20.5cm	한말 학자 서응윤徐應潤의 시문집
30	곽정암일고 郭定菴逸稿	1925년	1	31.9×21.0cm	조선 전기 문신 곽월郭越의 시문집
31	혜산집 惠山集	1925년	5	30.2×20.8cm	조선 말기 학자 이상규李祥奎의 시문집
32	김절효실기 金節孝實記	1926년	1	30.0×20.5cm	조선 전기 문신 김극일金克一의 실기
33	변지제집 卞志齊集	1927년	3	30.9×21.3cm	조선 말기 문신 변응수卞應洙의 시문집
34	한주집 寒洲集	1927년	22	28.5×20.1cm	조선 후기 학자 이진상李震相의 시문집
35	강굴암유고 姜橘菴遺稿	1928년	1	31.5×21.3cm	조선 말기 학자 강수형姜壽馨의 유고
36	강무산집 姜武山文集	1928년	2	31.3×20.9cm	조선 말기 학자 강용하姜龍夏의 시문집
37	강오재유고 姜悟齋遺稿	1928년	1	31.0×21.8cm	조선 말기 학자 강민영姜敏永의 유고
38	택와집 擇窩集	1929년	4	28.3×19.3cm	한말 학자 우하철禹夏轍의 시문집
39	기송사집 奇松沙集	1931년	24	30.9×21.0cm	조선 후기 학자이자 한말 의병장 기우만奇宇萬의 시문집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40	기송사집 속 奇松沙集 續	1931년	1	30.9×21.0cm	조선 후기 학자이자 한말 의병장 기우만奇宇萬의 시문집 속집
41	경암모 敬菴謨	1933년	3	32.1×21.3cm	조선 전기 문신 허조許綯의 시문집
42	응천선생실기 凝川先生實記	1933년	1	32.0×21.3cm	조선 전기 학자 허시許諡의 실기
43	계초집 稽樵集	1934년	5	32.3×21.3cm	조선 말기 학자 민치량閔致亮의 시문집
44	오천실기 梧泉實記	1934년	1	28.7×18.0cm	한말 문신 김석진金奭鎭의 실기
45	이화곡집 李和村集	1934년	2	30.0×20.0cm	조선 후기 무신 이술원李述原의 시문집
46	화해사 華海師	1934년	7	30.5×19.1cm	고려 후기 학자 신현申賢의 시문집
47	최종모당집 崔終慕堂集	1935년	1	29.3×19.4cm	조선 후기 학자 최윤정崔胤貞의 시문집
48	김노계집 金蘆溪集	1936년	1	29.6×18.8cm	조선 후기 문신 김재현金載顯의 시문집
49	김설재집 金雪齋集	1936년	1	30.0×18.8cm	조선 후기 문신 김려金礪의 시문집
50	정각금정문집 鄭覺今亭文集	1936년	1	31.3×20.5cm	조선 전기 문신 정표鄭彪의 시문집
51	최간와집 崔艮窩集	1936년	4	30.0×20.4cm	조선 말기 학자 최장한崔鏘翰의 시문집
52	최우계집 崔愚溪集	1936년	1	29.2×19.7cm	조선 후기 학자 최해두崔海斗의 시문집
53	개암집 介庵集	1938년	1	30.3×20.9cm	조선 전기 학자 강익姜翼의 시문집
54	지강집 芝岡集	1952년	2	32.2×21.3cm	한말 학자 민단수閔端粹의 시문집
55	김양양공실기 金良襄公實記	1956년	1	29.9×20.3cm	조선 전기 문신 김교金嶠의 실기
56	백암유고 栢菴遺稿	1958년	1	29.6×18.9cm	조선 말기 학자 정동의鄭東義의 유고
57	유모록 孺慕錄	1959년	1	28.0×18.0cm	근대 학자 김요원金堯元의 시문집
58	최옥간집 崔玉澗集	1959년	2	27.9×19.4cm	한말 근대 학자 최병식崔秉軾의 시문집
59	하곡집 霞谷集	1959년	2	30.1×20.6cm	조선 중기 학자 정운룡鄭雲龍의 시문집
60	대은유고 臺隱遺稿	1960년	1	26.0×17.4cm	한말 학자 정재훈鄭在勳의 유고
61	급우재집 及愚齋集	1961년	10	28.8×18.3cm	한말 문신이자 근대 학자 김영한金寧漢의 시문집
62	급우재속집 及愚齋續集	1961년	4	28.7×18.2cm	한말 문신이자 근대 학자 김영한金寧漢의 시문집 속집
63	안정선생실기 安亭先生實記	1961년	1	29.3×20.1cm	조선 전기 학자 신영희辛永禧의 실기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64	임천유고 臨川遺稿	1961년	2	29.2×19.3cm	한말 근대 학자 안광진安光鎭의 유고
65	소성세고 邵城世稿	1962년	1	29.7×19.7cm	조선 전기 문신 이문화李文和를 비롯하여 이적李績, 이간李衍, 이경李璟 등 인천이씨 세고
66	송우암선생존현록 宋尤菴先生尊賢錄	1964년	1	26.6×18.8cm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 송시열의 시문집
67	회암실기 會巖實記	1965년	1	28.9×21.0cm	조선 전기 문신 임승인林宗仁의 실기
68	소송집 小松集	1969년	3	29.7×20.6cm	조선 말기 학자 노태현盧泰鉉의 시문집
69	송호유집 松濤遺集	1967년	1	30.6×21.3cm	조선 후기 학자 정홍서鄭弘緒의 시문집
70	모암실기 帽巖實記	1968년	1	29.4×20.4cm	조선 말기 학자 위계철魏啓哲의 실기
71	죽성문집 竹醒文集	1969년	3	28.2×19.4cm	한말 근대 학자 정은교鄭閔敎의 시문집
72	국담추선록역본 菊潭追先錄譯本	1971년	1	29.0×19.8cm	조선 중기 학자 박수춘朴壽春의 선대 가계 내력이 기록된 추선록의 번역본
73	비천집 飛泉集	1971년	5	28.5×18.9cm	한말 근대 학자 전기진田璣鎭의 시문집
74	요수선생실기 樂水先生實記	1971년	1	27.4×17.9cm	조선 전기 학자 신권愼權의 실기
75	창암선생일고역본 窓巖先生逸稿譯本	1972년	1	27.0×19.5cm	조선 후기 문신 강봉수姜鳳壽의 시문집 번역본
76	내산유고 內山遺稿	1974년	1	27.8×18.8cm	근대 학자 이교면李敎冕의 시문집
77	초은유고 樵隱遺稿	1974년	1	28.4×18.6cm	한말 근대 학자 박동식朴東植의 유고
78	취은일고 醉隱逸稿	1974년	1	27.3×19.2cm	조선 후기 문신 정덕필鄭德弼의 시문집
79	여암집 厲菴集	1976년	5	28.6×19.4cm	근현대 학자 정도현鄭道鉉의 시문집
80	풍천노씨선세실기 豐川盧氏先世實記	1977년	1	29.2×19.5cm	풍천노씨 노형발盧亨發 등의 실기
81	낙헌유고 樂軒遺稿	1978년	2	28.5×19.9cm	한말 근대 학자 정효현鄭孝鉉의 유고
82	송죽세고 松竹世稿	1978년	1	28.5×20.5cm	하동정씨 정여창의 조부 정복주鄭復周와 후손 정홍서鄭弘緒의 시문집
83	백석유고 栢石遺稿	1978년	1	28.5×19.2cm	조선 후기 학자 정거姜舉의 유고
84	봉강유집 鳳岡遺集	1981년	1	28.5×18.9cm	한말 근대 학자 강찬희姜燦熙의 시문집
85	응천징신록 凝川徵信錄	1982년	2	27.9×18.8cm	하양허씨 허후許誼에 관한 책
86	이운실기 怡雲實記	1985년	1	26.0×18.9cm	한말 문신 신영학辛泳學의 실기
87	문암충의록 聞巖忠義錄	1987년	1	29.0×19.2cm	조선 중기 무신이자 의병장 신초辛礎의 충의록
88	이안정유고 二安亭遺稿	1987년	1	29.2×19.3cm	근대 학자 박공진朴公鎭의 유고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89	연정유고 蓮汀遺稿	1990년	1	27.5×19.3cm	한말 근대 학자 정환철鄭煥喆의 유고
90	경암집 敬菴集	1995년	13	28.5×20.3cm	근대 학자 김노수金魯洙의 시문집
91	강씨양세실록 姜氏兩世實錄	丙寅年	1	30.5×21.5cm	강처문姜處文, 강재호姜載虎 양세兩世 실록
92	동계집 桐溪集	丙子年	4	31.8×21.3cm	조선 후기 문신 정온鄭蘊의 시문집
93	묵재집 默齋集	壬寅年	2	29.2×19.8cm	조선 후기 학자 류희천柳希天의 시문집
94	농암유고 蠶菴遺稿	미상	1	34.6×23.5cm	합천이씨세고의 권8~권12, 조선 후기 이원李源, 이우신李又新, 이창지李昌祉, 이홍서李鴻瑞, 이양주李陽柱의 유고
95	미산유고 薇山遺稿	미상	2	29.7×21.0cm	조선 말기 학자 정환주鄭煥周의 유고
96	박우졸재실기 朴迂拙齋實記	미상	1	28.3×19.0cm	조선 전기 문신 박한주朴漢柱의 실기
97	송은집 松隱集	미상	1	27.6×20.0cm	고려 말기 충신 박익朴翊의 시문집 영인본
98	용성세고 龍城世稿	미상	1	29.9×20.0cm	조선 전기 학자 양천지梁川奎를 비롯하여 남원양씨 가문 주요 인물의 시문집
99	일녕선생실기 一寧先生實記	미상	2	32.1×21.3cm	조선 전기 문신 허후許詡의 실기
100	참판공실록 參判公實錄	미상	1	30.1×20.1cm	조선 전기 무신 이윤검李允儉의 시문집

3. 사서류 [5점]

1	한사경변 韓史繫辨	1924년	1	25.6×17.4cm	1918년 김택영이 편찬한 우리나라 역사서 『한사경』에 대한 비판서
2	동감절요 東鑑節要	1930년	3	30.0×20.0cm	이도복이 단군조선에서 조선 철종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
3	조선사 朝鮮史	1936년	17	23.8×15.6cm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 고대에서 1894년(고종 31)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
4	대동요감 大東要鑑	1962년	1	22.7×15.8cm	우리나라 역사, 문물제도에 대해 항목별로 개관한 책
5	강목 綱目	미상	48	34.5×22.7cm	송나라 학자 주희가 쓴 중국의 역사서

4. 선집류 [2점]

1	수서시집 壽瑞詩集	1871년	1	29.9×20.7cm	강맹경姜孟卿이 지은 시와 이 시에 여러 명사들의 차운시를 모은 책. 1871년 중간본
2	문원 文苑	1990년	22	28.3×19.0cm	호남문원편간회에서 간행한 우리나라 역대 훌륭한 문장을 문체별로 엮은 선집

5. 잡저류 [6점]

1	선현궐리도 先聖闕里圖	1904년	1	31.5×21.3cm	명나라 장응등이 공자의 행적을 그린 그림에 해설을 붙여 엮은 도설서이자 유학서
2	이화곡집 李和谷集	1934년	1	30.3×19.8cm	조선 후기 거창 출신 이우태李遇泰가 1728년(영조 4) 일어난 무신난의 진압 과정을 기록한 일기. 내제는 화곡무신일기(和谷武申日記)
3	천미록 闡美錄	1934년	1	29.1×20.3cm	한말 효자 전병기全炳基의 효행을 기리며 제현諸賢들이 지은 시문을 취합하여 全鑒湜이 간행한 책

순	자료명	연도	책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4	당도기행 湯島紀行	1936년	1	26.5×15.0cm	근대시기 공성학孔聖學이 지은 탕도 여행기
5	화행일기 華行日記	1937년	1	30.3×19.8cm	함양 유학자 안효진安孝鎭이 1917년 중국 곡부曲阜를 다녀오고 쓴 중국 여행기
6	청파일기 靑巴日記	1958년	1	28.0×18.7cm	한말 애국지사 송병선宋秉璿의 순국사실을 기록한 책

6. 기타 [19점]

1	화양지 華陽誌	1861년	2	32.5×21.8cm	화양동과 화양서원, 송시열에 관한 기록을 종합한 책
2	사동서원지 社洞書院誌	1905년	1	28.1×19.9cm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사동서원에 관한 책
3	창주서원지 滄洲書院誌	1917년	1	29.1×19.6cm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창주서원에 관한 책
4	연계안 蓮桂案	1933년	1	30.7×20.4cm	고려 후기부터 근대 개항기까지 함양 지역의 역대 대·소과 합격자 명단
5	남계서원천세력 濫溪書院千歲曆	1939년	1	22.3×15.5cm	1939년 신흥서관新興書館에서 발행한 천세력
6	청계서원지 靑溪書院誌	1957년	1	30.2×20.2cm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청계서원에 관한 책
7	석강서원지 石岡書院誌	1961년	1	28.7×20.1cm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석강서원에 관한 책
8	하동정씨세적실록 河東鄭氏世蹟實錄	1961년	1	30.5×20.8cm	하동 취정재聚精齋에서 발행한 하동정씨 문종의 세적실록 중간본
9	남악사지 南岳祠誌	1964년	1	27.6×18.9cm	경상북도 진주시에 위치한 남악사에 관한 책
10	고산서원지 高山書院誌	1968년	1	27.4×18.4cm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고산서원에 관한 책
11	개천정사지 介川精舍誌	1969년	1	27.3×19.6cm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개천정사에 관한 책
12	담성계안 淡成稷案	1970년	1	25.0×18.2cm	담성계淡成稷의 명부와 시집
13	모산사지 茅山祠誌	1971년	1	26.4×17.9cm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모산사에 관한 책
14	백현서원지 栢峴書院誌	1974년	1	28.1×18.9cm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백현서원에 관한 책
15	용암서원지 龍巖書院誌	1978년	1	27.5×20.2cm	전라북도 장수군에 위치한 용암서원에 관한 책
16	경현서원지 景賢書院誌	1983년	1	29.3×19.3cm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경현서원에 관한 책
17	차산서원지 車山書院誌	1983년	1	26.8×20.0cm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차산서원에 관한 책
18	단구원지 丹邱院誌	1985년	1	29.0×21.0cm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단구서원에 관한 책
19	유현홍기집 儒賢笏集	1988년	1	26.5×19.3cm	성주향교에서 발행한 홍기집

● 남계서원 고문서 목록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	-----	----	----	---------------	----

1. 조직·운영 문서 [21점]

1	경임안 經任案	1552년~ 1687년	27	30.0×22.0cm	남계서원 원임 명단
2	경임안 經任案	1777년~ 1795년	14	30.0×22.0cm	남계서원 원임 명단
3	경임안 經任案	1795년~ 1852년	39	32.0×26.0cm	남계서원 원임 명단
4	경임안 經任案	1886년~ 1917년	38	32.8×28.1cm	남계서원 원임 명단
5	경임안 經任案	1552년~ 1945년	43	29.5×30.0cm	남계서원 원임 명단
6	경임안 상 經任案 上	1525년~ 1838년	69	34.0×30.0cm	1525년 10월 20일 원록수정院錄修定 명단과 1687년~1838년까지 원임 명단
7	경임안 하 經任案 下	1839년~ 1886년	22	35.0×30.0cm	남계서원 춘추향사시 원임 명단
8	경임안 일 經任案 一	1917년~ 1993년	21	32.0×28.0cm	남계서원 원임 명단
9	경임안 이 經任案 二	1933년~ 1967년	38	31.0×24.7cm	남계서원 원임 명단
10	경임록 經任錄	1962년	125	27.5×20.1cm	경임록, 부보록, 원록의 합본
11	원록 院錄	1651년, 1658년, 1671년	28	35.0×25.0cm	남계서원 원생 명단, 표지에는 경임안經任案 하下로 되어 있음.
12	원록 수정 院錄 修定	1945년	214	28.3×20.3cm	원록, 경임록, 부보록 명단의 단자를 받아 기록. 1962년 존위록의 초본으로 추정
13	원록 정단 院錄 正單	1962년	96	270×20.0cm	원록, 경임안, 부보록 정단의 합본. 내제는 남계서원 존위록濫溪書院尊衛
14	남계서원 존위록 濫溪書院 尊衛錄	1962년	89	27.7×20.2cm	원록, 경임안, 부보록의 합본
15	미상(존위록) 未詳(尊衛錄)	1962년	124	27.8×20.3cm	원록, 경임록, 부보록 명단, 표지 결락
16	남계서원중수임원록 濫溪書院重修任員錄	1937년	10	34.8×27.8cm	남계서원 묘우·전사청·명성당·동재·서재·풍영루 중수시 임원과 부조 명단
17	미상(상량시집사록) 未詳(上樑時執事錄)	1849년	1	56.0×42.0cm	1849년 풍영루 중수시 집사 명단
18	원규 院規	1923년	1	24.6×46.0cm	계해년 3월 3일 제정된 남계서원의 원규 고문서집성 수록
19	남계서원지 濫溪書院誌	1935년	44	35.0×24.0cm	1935년 일제 검열을 거친 남계서원지 초고본
20	남계서원지 濫溪書院誌	1962년	33	29.5×20.0cm	남계서원의 연혁·사적·제향자 등을 기록한 서원지
21	남계서원지 단 濫溪書院誌 單	1962년	33	35.0×24.0cm	남계서원의 연혁·사적·제향자 등을 기록한 서원지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	-----	----	----	---------------	----

2. 제향 문서 [19점]

1	참제록 參祭錄	1846년~ 1886년	64	33.0×21.0cm	춘추향례시 헌관 및 집사 명단
2	참제록 사 參祭錄 四	1888년~ 1910년	43	33.0×29.0cm	춘추향례시 헌관 및 집사 명단
3	참제록 일 參祭錄 一	1911년~ 1919년	22	25.0×25.7cm	춘추향례시 헌관 및 집사 명단
4	참제록 이 參祭錄 二	1920년~ 1931년	44	29.2×22.0cm	춘추향례시 헌관 및 집사 명단
5	참제록 삼 參祭錄 三	1932년~ 1955년	79	24.5×24.0cm	춘추향례시 헌관 및 집사 명단
6	참제록 參祭錄	1956년~ 1979년	55	29.5×25.0cm	춘추향례시 헌관 및 집사 명단
7	참제록 오 參祭錄 五	1979년~ 2001년	49	31.5×28.2cm	춘추향례시 헌관 및 집사 명단
8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 濫溪書院春秋享禮儀節	미상	1	34.7×16.5cm	남계서원 춘추 향사 시 향례 의절
9	원회결의안 院會決議案	1927년	4	25.0×20.5cm	일두 선생 묘제에 대해 유림이 이전의 규약을 회복하여 봉행할 것을 결의하는 문서
10	묘사제수책 墓祀祭需冊	1927년~ 1928년	7	25.6×25.0cm	일두 선생 묘사 제수 구입 물품과 비용 내역
11	승안묘제수 昇安墓祭需	1932년	2	17.0×23.0cm	일두 선생 묘제 제수 구입 물품과 비용 내역
12	승안묘제제수기 昇安墓祭祭需記	1931년	4	15.9×22.9cm	일두 선생 묘제 제수 구입 물품과 비용 내역
13	일두선생묘제제수책 一蠹先生墓祭祭需冊	1931년~ 1932년	7	16.5×23.1cm	일두 선생 묘제 제수 구입 물품과 비용 내역
14	묘제하기 墓祭下記	1935년	25	24.2×27.8cm	일두 선생 묘제 제수 구입 물품과 비용 내역
15	제수기 祭需記	미상	3	25.6×25.0cm	일두 선생 묘제 제수 구입 물품과 비용 내역
16	승안묘제식상기 昇安墓祭食床記	1932년, 1928년	4	16.5×23.5cm 22.0×23.0cm	일두 선생 묘제시 식상기, 1932년 식상기 뒤에 1928년 식상기가 있음
17	승안묘제식상기 昇安墓祭食床記	1933년	3	22.1×21.5cm	일두 선생 묘제시 식상기
18	승안묘제식상기 昇安墓祭食床記	1934년	4	21.1×25.5cm	1934년 10월 7일 승안묘제 식상기, 10월 10일 문헌공묘제 식상기
19	승안홀기 昇安笏記	미상	1	33.0×16.0cm	일두 선생 묘제 홀기

3. 사회관계 문서 [6점]

1	지알록 祇謁錄	1902년~ 1981년	78	33.5×22.4cm	1902년 3월 송병순宋秉珣부터 1981년 24대 함양군수 임종택까지 서원 방문자 명부
2	통문 通文	1902년	8	23.0×19.8cm	1902년 회연서당에서 김우옹 제향처인 진주 용강서당으로 발송한 통문
3	답용강도강급각처통문 答龍江道江及各處通文	1902년	30	29.5×20.0cm	1902년 김우옹을 제향하는 진주 용강서당과 관련한 답문과 응변변應辦辨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4	통문 通文	1918년	5	29.5×20.5cm	충청북도유회소 옥천향교에서 진주 도통사의 문성공 안향 배향과 관련하여 발송한 통문
5	답통문 答通文	1923년	2	29.5×25.0cm	장성 필암서원에서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운동을 규탄하는 내용의 답통문
6	통문 通文	1936년	1	29.5×40.5cm	흥암서원에서 안의 영승서원의 이항李滢, 전철全轍, 송준길宋浚吉의 위치와 관련된 회의 개최를 알리는 통문

4. 경제 문서 [102점]

1	남계서원전답양안등서 蓋溪書院田畝量案謄書	1733년~ 1737년	15	49.0×30.0cm	양안量案에 기재된 서원 소유 전답의 내역을 등서謄書해온 문서
2	남계서원전답양안 蓋溪書院田畝量案	1740년	13	49.0×30.0cm	1733년~1737년까지의 등서를 포함한 서원 소유 전답 양안
3	남계서원답안 蓋溪書院畝案	1910년	6	26.7×26.0cm	1910년 남계서원 소유 전답안
4	지세분배수렴기 地稅分排收斂記	1920년~ 1930년	1	25.0×150cm	서원 소유 토지에 대한 지세를 거둔 명부
5	남원지세반액수납책 蓋院地稅半額收納冊	1930년	4	16.7×23.6cm	서원 소유 토지의 지세 반액 수납책
6	남원명기장등초 蓋院名寄帳謄草	1935년	5	32.0×23.7cm	남계서원 소유 소작지의 위치, 소작료, 소작자 등을 기록
7	남계서원세입내역부 蓋溪書院歲入內譯簿	1935년	6	19.2×16.6cm	1935년 소작료 등의 서원 수입 내역부
8	남계서원세입내역부 蓋溪書院歲入內譯簿	1936년	4	26.5×19.2cm	1936년 소작료 등의 서원 수입 내역부
9	남계서원세입내역부 蓋溪書院歲入內譯簿	1937년	7	26.1×19.4cm	1937년 소작료 등의 서원 수입 내역부
10	남계서원세입내역부 蓋溪書院歲入內譯簿	1938년	4	26.7×19.1cm	1938년 소작료 등의 서원 수입 내역부
11	남계서원세입내역부 蓋溪書院歲入內譯簿	1939년	6	28.7×20.5cm	1939년 소작료 등의 서원 수입 내역부
12	남계서원세입내역부 蓋溪書院歲入內譯簿	1940년	5	28.5×21.0cm	1940년 소작료 등의 서원 수입 내역부
13	남계서원세입내역부 蓋溪書院歲入內譯簿	1941년	5	27.7×20.2cm	1941년 소작료 등의 서원 수입 내역부
14	남계서원세입내역부 蓋溪書院歲入內譯簿	1942년	5	28.5×20.5cm	1942년 소작료 등의 서원 수입 내역부
15	남계서원세출내역부 蓋溪書院歲出內譯簿	1935년	22	26.7×19.5cm	1935년 제향, 관리비, 건물, 세금, 유사비, 여비, 접대비, 잡비, 회의비 등 지출 내역부
16	남계서원세출내역부 蓋溪書院歲出內譯簿	1936년	34	26.5×19.4cm	1936년 제향, 관리비, 건물, 세금, 유사비, 여비, 접대비, 잡비, 회의비 등 지출 내역부
17	남계서원세출내역부 蓋溪書院歲出內譯簿	1937년	30	26.1×19.8cm	1937년 제향, 관리비, 건물, 세금, 유사비, 여비, 접대비, 잡비, 회의비 등 지출 내역부
18	남계서원세출내역부 蓋溪書院歲出內譯簿	1938년	31	26.0×19.5cm	1938년 제향, 관리비, 건물, 세금, 유사비, 여비, 접대비, 잡비, 회의비 등 지출 내역부
19	남계서원세출내역부 蓋溪書院歲出內譯簿	1939년	35	28.6×20.3cm	1939년 제향, 관리비, 건물, 세금, 유사비, 여비, 접대비, 잡비, 회의비 등 지출 내역부
20	남계서원세출내역부 蓋溪書院歲出內譯簿	1940년	39	28.2×19.3cm	1940년 제향, 관리비, 건물, 세금, 유사비, 여비, 접대비, 잡비, 회의비 등 지출 내역부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21	남계서원세출내역부 濫溪書院歲出內譯簿	1941년	23	27.5×20.0cm	1941년 제향, 관리비, 건물, 세금, 유사비, 여비, 접대비, 잡비, 회의비 등 지출 내역부
22	남계서원세출내역부 濫溪書院歲出內譯簿	1942년	24	26.5×19.7cm	1942년 제향, 관리비, 건물, 세금, 유사비, 여비, 접대비, 잡비, 회의비 등 지출 내역부
23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35년	9	27.4×19.3cm	1935년 소작료 수입 내역
24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36년	8	26.8×19.3cm	1936년 소작료 수입 내역
25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37년	8	26.6×19.6cm	1937년 소작료 수입 내역
26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37년	6	28.6×20.4cm	1937년 소작료 수입 내역
27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38년	7	28.0×20.4cm	1938년 소작료 수입 내역
28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39년	4	24.5×17.7cm	1939년 소작료 수입 내역
29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40년	5	28.2×20.3cm	1940년 소작료 수입 내역
30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41년	4	28.4×20.1cm	1941년 소작료 수입 내역
31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42년~ 1944년	12	28.2×19.8cm	1942년~1944년 소작료 수입 내역
32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45년	4	17.3×19.5cm	1945년 소작료 수입 내역
33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46년	8	26.5×19.4cm	1946년 소작료 수입 내역
34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48년	4	25.8×18.2cm	1948년 소작료 수입 내역
35	소작료수납부 小作料收納簿	1949년	4	26.2×19.5cm	1949년 소작료 수입 내역
36	신해추봉기 辛亥秋捧記	1911년	9	30.5×24.4cm	1911년 10월 서원 소유 전답 추봉기
37	추봉기 秋捧記	1919년	7	23.8×23.5cm	1919년 10월 서원 소유 전답 추봉기
38	을묘원답추수기 乙卯院畓秋收記	1915년	9	19.9×20.4cm	1915년 서원 소유 원답 추수기
39	임술년원답추수기 壬戌年院畓秋收記	1922년	1	15.6×19.2cm	1922년 서원 소유 원답 추수기
40	추수기 秋收記	1904년~ 1905년	47	26.2×29.5cm	1904년~1905년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41	추수기 秋收記	1941년	1	42.0×25.0cm	1941년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42	추수기 秋收記	1942년	1	60.0×41.0cm	1942년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43	추수기 秋收記	1946년	7	27.3×30.0cm	1946년 9월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44	추수기 秋收記	1947년	7	26.9×30.0cm	1947년 8월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45	추수기 秋收記	1948년	7	26.5×30.2cm	1948년 9월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46	추수기 秋收記	1950년	3	27.4×30.2cm	1950년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47	추수기 秋收記	1951년	5	26.0×26.2cm	1951년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48	추수기 秋收記	1952년	4	24.8×26.4cm	1952년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49	추수기 秋收記	1953년	4	26.6×28.2cm	1953년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50	추수기 秋收記	1956년	4	25.9×17.5cm	1956년 10월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51	추수기 秋收記	1957년	5	25.6×17.5cm	1957년 9월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52	추수기 秋收記	1924년, 1954년~ 1975년	50	25.0×17.0cm 26.8×27.1cm	1924년, 1954년~1975년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53	추수기 秋收記	1976년	13	24.6×29.1cm	1976년 서원 소유 전답 추수기
54	현곡출납부 現穀出納簿	1935년	3	25.6×17.3cm	1935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55	현곡출납부 現穀出納簿	1936년	6	24.9×17.0cm	1936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56	현곡출납부 現穀出納簿	1937년	3	25.1×17.3cm	1937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57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38년	3	25.4×17.1cm	1938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58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39년	4	25.1×17.6cm	1939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59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40년	5	25.3×17.1cm	1940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60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41년	2	27.6×20.1cm	1941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61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42년~ 1944년	2	27.5×19.8cm	1941년~1944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62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45년	4	26.5×19.4cm	1945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63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48년	3	24.9×17.5cm	1948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64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50년	4	25.8×18.2cm	1950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65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51년	4	25.5×18.3cm	1951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66	현곡수불부 現穀受拂簿	1953년	4	25.7×18.2cm	1953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67	현금출납부 現金出納簿	1935년	9	26.5×19.2cm	1935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68	현금출납부 現金出納簿	1936년	12	26.6×19.5cm	1936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69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37년	28	28.2×20.2cm	1937년 4월 남계서원 중건시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0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37년	16	26.6×19.6cm	1937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1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38년	12	26.8×19.2cm	1938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2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39년	12	26.5×19.6cm	1939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3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40년	11	26.4×19.7cm	1940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4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41년	14	26.5×19.6cm	1941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5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42년	12	26.5×19.5cm	1942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6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46년	6	27.4×19.2cm	1946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7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47년	4	26.1×19.4cm	1947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8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48년	3	25.7×18.2cm	1948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79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49년	5	25.3×17.6cm	1949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80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50년	3	26.2×19.4cm	1950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81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51년	2	25.6×18.2cm	1951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82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52년	2	24.5×18.5cm	1952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83	현금수불부 現金受拂簿	1953년	2	24.2×17.1cm	1953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84	현금출납부 現金出納簿	1974년	71	27.6×19.4cm	1974년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85	생재용하기 生財用下記	1914년~ 1916년	34	21.0×21.2cm	1914년~1916년 남계서원의 수입 지출 내역부
86	사치부 私置簿	1923년	14	20.0×20.5cm	1923년 남계서원 지출 내역부
87	남계서원용하기 濫溪書院用下記	1924년~ 1928년	97	29.0×21.8cm	서원 수입 지출 내역부
88	신도비용하문부 神道碑用下文簿	1926년	4	25.6×20.3cm	신도비 제작 시 지출 내역 장부
89	남계서원용하책 濫溪書院用下冊	1931년	27	30.6×23.9cm	서원 지출 내역부
90	중건시지출내역부 重建時支出內譯簿	1937년	34	28.5×20.5cm	1937년 남계서원 중건시 지출 내역부
91	중수의연금 수입부 重修義捐金 收入簿	1937년	27	28.4×20.8cm	서원 중수 시 의연금 기부 명단과 금액, 소재지 등 기록
92	남계서원세입세출 濫溪書院歲入歲出	1941년	4	24.0×17.0cm	1941년 서원 세입 세출 내역
93	지세수봉책 地稅收捧冊	1931년	6	17.1×22.9cm	1931년 12월 서원 전답에 대한 지세 수봉 책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94	지세수봉책 地稅收捧冊	1933년	6	16.8×23.0cm	1933년 10월 서원 전답에 대한 지세 수봉 책
95	식상기 食床記	1942년~ 1944년	29	21.5×19.1cm	1942년 9월~1944년까지 서원 식상 내역
96	식상기 食床記	1945년~ 1946년	22	26.6×19.8cm	1945년 8월~1946년 10월까지 서원 식상 내역
97	토지수입부 土地收入簿	1950년	2	25.7×18.1cm	1950년 서원 소유 토지의 수량과 납부자 주소 및 이름 등 기록
98	토지수입부 土地收入簿	1953년	2	25.9×18.2cm	1950년 서원 소유 토지의 수량과 납부자 주소 및 이름 등 기록
99	현금현곡백미수불부 現金現穀白米受拂簿	1955년~ 1956년 1966년~ 1967년	92	25.2×17.7cm	1955년~1956년, 1966년~1967년 남계서원의 현금·곡식·백미의 수입, 지출 내역
100	신축년봉도기 辛丑年棒賭記	1961년	4	27.5×20.1cm	소재지, 지번, 지목, 地積, 定賭, 當年 소작료, 소작인 성명 등 기록
101	전곡출납실황 錢穀出納實況	1965년	3	24.0×28.5cm	1965년 남계서원 전곡 출납 내역
102	미상 未詳	미상	84	33.0×25.0cm	표지 결락. 서원 지출 내역부로 추정

5. 장서·출판 문서 [2점]

1	서책대장 書冊臺帳	1935년	6	25.5×17.3cm	1935년 남계서원 소장 서책 목록 대장
2	일두집 분질 一蠹集 分秩	미상	4	25.0×25.5cm	1919년 남계서원에서 일두집을 간행한 뒤 배포한 곳의 명단

6. 시문류詩文類 [3점]

1	경일재기景一齋記	1881년	1	25.8×52.1cm	1881년 장시표將時杓가 함양 남성산南城山아래 정여창 제향처이자 함양 사림의 강학처인 경일재의 내력을 작성한 기문. 고문서집성 수록
2	남계서원문루상량문 濫溪書院門樓上樑文	1849년	1	93.5×58.3cm	1849년 하용도河龍圖가 작성한 남계서원 문루 상량문. 고문서집성 수록
3	풍영루중수기風詠樓重修記	1940년	1	27.0×33.8cm	1940년 민병승閔丙承이 작성한 풍영루 중수기. 고문서집성 수록

7. 증빙류證憑類 [11점]

1	남계서원완문 濫溪書院完文	1843년	6	32.1×29.3cm	남계서원 수호를 위해 서원 주변 10호의 보인保人들에게 군포를 서원이 독점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한 관의 인증 문서
2	소작계약서 小作契約書	1923년	1	24.1×33.5cm	1923년 소작인 정재련鄭在輦과의 소작 계약서, 고문서집성 수록
3	소작인증서 小作人証書	1923년	18	23.7×16.8cm	남계서원과 소작인간의 계약서를 모아놓은 책
4	소작계약서 小作契約書	1928년	1	24.1×33.5cm	1928년 소작인 허길오許吉五와의 소작 계약서, 고문서집성 수록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5	공함 公函	1936년	1	31.0×38.0cm	1936년 6월 대성문학원大聖文學院에서 10월에 함양군 서상면 중남리에서 모임이 있음을 알리는 문서
6	공함 公函	1936년	1	31.0×38.0cm	1936년 6월 대성문학원大聖文學院에서 10월에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에서 모임이 있음을 알리는 문서
7	소작권에 관한 건 小作權에 관한 건	1936년	1	24.5×30.5cm	남계서원 유사 정재규鄭在奎가 작성한 소작권과 관련된 기록
8	수면 제51호 水面 第51號	1936년	1	24.0×16.5cm	수동면장水東面長이 탁아소 설치 건과 관련하여 6월 10일 면사무소로 내방하여 줄 것을 통지한 문서
9	수면 제51호 水面 第51號	1936년	1	24.7×33.0cm	수동면장이 6월 10일 협의 결정한 院坪里 탁아소 개소식을 25일에 거행함을 통지하는 문서. 추이로 필요경비 20냥을 25일까지 면사무소로 보내줄 것을 요청
10	수면 제51호 水面 第51號	1936년	1	24.7×33.0cm	수동면장이 6월 25일 탁아소 개소식을 거행하였는 바, 근래 농번기임으로 탁아에 필요한 경비 20냥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
11	협정조서 協定調書	1936년	1	24.5×33.2cm	1936년 6월 5일 소작인 양정원梁正原이 지주 남계서원을 대상으로 신청한 소작쟁의에 대한 기록

8. 치부류置簿類 [19점]

1	부보록 부헌존서책우상편 哀寶錄 現存書冊于上篇	1552년~1931년	55	29.0×26.0cm	1552년~1931년 남계서원에 기부한 명단과 내역(서책, 현물 등)
2	을묘년서원부보록 乙卯年書院哀寶錄	1555년~1561년, 1891년	14	26.5×30.2cm	1555년~1561년, 1891년 남계서원에 기부한 명단과 내역
3	부보록 哀寶錄	1916년~1952년	93	32.0×21.5cm	1916년~1952년 남계서원에 기부한 명단과 내역. 첫 장에는 을묘년 서원 부보록 내용 기록.
4	남계서원출납부 濫溪書院出納簿	1917년~1922년	84	24.2×28.1cm	1917년~1922년 서원 재정 관련 인수인계 장부
5	원조록 願助錄	1918년	18	30.0×22.0cm	1918년 9월 9일 정여창의 실기 중간 시 원조해준 내역을 기록
6	유사출무일지 有司出務日誌	1935년	16	24.5×17.2cm	1935년 10월~1936년 3월까지 유사 근무 일지
7	유사출무일지 有司出務日誌	1936년	24	24.4×17.3cm	1936년 4월~1937년 3월까지 유사 근무 일지
8	유사출무일지 有司出務日誌	1937년	23	23.9×17.2cm	1937년 4월~1938년 3월까지 유사 근무 일지
9	증빙서류철 證憑書類綴	1935년	139	25.6×17.3cm	서원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철
10	증빙서류철 證憑書類綴	1936년	114	24.8×17.5cm	서원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철
11	증빙서류철 證憑書類綴	1937년	189	25.2×17.4cm	서원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철
12	증빙서류철 證憑書類綴	1938년	233	25.6×17.5cm	서원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철
13	증빙서류철 證憑書類綴	1939년	117	24.9×17.4cm	서원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철
14	증빙서류철 證憑書類綴	1940년	174	28.2×20.1cm	서원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철

순	자료명	연도	장수	크기 (세로×가로)	내용
15	남계서원문서수발부 濫溪書院文書收發簿	1937년	5	26.5×18.0cm	1937년 남계서원에서 수·발신한 문서 장부, 원록수정 문서 뒤에 있음
16	남계서원문서수발부 濫溪書院文書收發簿	1938년	5	26.5×18.0cm	1938년 남계서원에서 수·발신한 문서 장부
17	양진재유허수비원조록 養眞齋遺墟悤碑願助錄	1938년	9	21.0×29.8cm	강익이 지은 양진재 터에 비를 건립할 때 기부한 명단과 내역 및 지출 내역
18	양진재유허수비원조록 養眞齋遺墟悤碑願助錄	1939년	7	29.5×24.5cm	강익이 지은 양진재 터에 비를 건립할 때 기부한 명단과 내역
19	미상 未詳	일제강점기	45	28.0×20.0cm	남계서원에 기부한 명단과 내역, 표제 미상

9. 기타 [2점]

1	이노정유계함양인원명부 二老亭儒契咸陽人員名簿	1959년	26	33.4×28.0cm	이노정 유계에 속한 함양인의 명부
2	함양향안 咸陽鄉案	1969년	59	30.0×20.3cm	함양 향교에서 간행한 함양 향안

경주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성격과 가치 : 옥산진장(玉山珍藏)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목차

- I. 머리말
- II.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형성
- III.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보존·관리 노력
- IV.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주요 유물

I. 머리말

아카이브(archive)란 어떤 장소, 조직 등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의 모음을 의미한다. 아카이브는 원래 그리스어로 ‘관공서(시청)’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고대부터 국가나 단체 등에서 중요한 문서나 유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을 일컬었다. 이러한 개념은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향촌사회기구이자 교육기구로 역할하였던 서원은 유생의 교육과 사족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중요기구였다. 그 결과 서원의 건립이래로 교육과 운영, 각종 사업에 관여하면서 생성된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자료가 전승되는 서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오랜 세월동안 전란과 화재, 도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주 옥산서원은 건립이래로 현재까지 4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수의 자료를 보관해왔다. 그것은 옥산서원 아카이브를 보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였다.

주지하다시피 옥산서원은 李彦迪(1491~1553)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1572년 경주부윤 이제민과 향인들이 협력하여 창건하였고, 1573년 사액을 받았다. 건립 이래로 경주지역 학맥과 교육전통을 이어오면서 경상도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성장하였다. 16세기 후반 옥산서원은 경주부 유일의 사액서원으로서 致祭와 세 차례에 걸쳐 서적을 하사받고, 왕명으로 제향자인 이언적의 문집과 저서가 경주부에서 출간되었다. 그 결과 부남의 경주향교, 서악서원과 더불어 부북의 유생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 교육기구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경주향교와 서악서원은 소실되었지만, 옥산서원은 전화를 피하여 건물과 서적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언적의 문묘 종사와 양질의 장서, 강회와 거점, 출판을 통한 회재학 확산 노력에 힘입어 경주향교와 서악서원이 중건된 후에도 옥산서원은 17세기 경주부의 유생 교육을 대표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던 교육 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18세기 중반까지 강회와 거점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 거점으로서 경주와 인근 지역 유생들의 옥산서원 출입이 증가하였고, 그것은 서원의 영향력 확대와 위상 제고로 이어졌다.

이처럼 옥산서원의 위상 제고를 뒷받침한 것은 건립이래로 잘 보존해온 藏書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실제 옥산서원은 초창기 건립된 건물과 장서들을 서원의 보물로 여기며 관리에 노

력을 기울였다. 18세기 중반이후 장서의 망실과 강당의 소실이라는 피해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유물이 현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유물전시관에는 서원의 생생한 운영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본고는 옥산서원에 남아있는 자료의 현황과 그것의 수집 경위 및 관리 노력을 확인함으로써 옥산서원 아카이브가 한국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II.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형성

옥산서원 관련 자료는 고서, 고문서(성책류 포함), 책판·편액류, 기타 자료로 나눌 수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독락당과 무첨당 자료 일체와 서원내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 고서 943종(3,977책), 고문서 1,163점, 책판 19종 1,121장, 기타 유물 22점 등 총 3,250점이 확인되었다.⁸⁷⁾ 이들 자료는 서원의 교육과 출판(도서관) 및 행정(경제), 사회·정치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표 1 옥산서원 자료 현황

구분	전적 (종)	고문서					편액	책판	기타 (각석·비문)	계
		제향 의례	교육	운영 조직	출판 인쇄	향촌 사회				
16세기	77	1		1		4			3	86
17세기	15	1	1	7		20				44
18세기	38	9	3	117	7	46	10			230
19세기	32	7	7	367	1	208	2			624
20세기	107	13		57	6	166	1	127		477
미상	674			51		60	9	994		1,788
계	943	31	11	600	14	504	22	1,121	3	3,249

옥산서원의 고서 943종, 3,977책은 문집류가 300여 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서, 역사, 전기, 유가류이다. 옥산서원 고서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보 322-1호로 지정된 『삼국사기』이다. 이 책은 1573년 경주부가 인출하여 옥산서원에 보낸 것으로, 현재 전래되는 몇 안 되는 『삼국사기』 완질본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조선전기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들이 있는데 『晉書』, 『埤雅』, 『唐柳先生集』, 『漢書』 등의 갑인자본과 『朱子大全』 등의 을해자본이 그것이다. 또한, 『주자대전』(95책)과 『朱子語類』(75책)는 1577년에 내 사된 것으로 완질을 보관중이며, 이외에도 『大廣益會玉篇』, 『翻譯小學』, 『小學集說』 등의 임진왜란 이전 목판본이 귀중본으로 분류될 만한 전적이다.

또한 옥산서원에서는 『회재선생문집』, 『구인록』, 『근사록』, 『太極問辯』, 『九經衍義』, 『대학장구보유』, 『봉선잡의』, 『임거십오영』 등 제향인인 이언적의 문집과 저서의 책판을 자체 제작하여 출판하기도 했다. 2004년 문화재청과 2007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재 총 19종, 1,121장이 남아있다.⁸⁸⁾

87) 문화재청,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88) 한국국학진흥원 편, 『경북지역의 목판자료(2)』,

옥산서원 소장 고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서원의 인적구성과 조직·운영체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과 서원 경제 관계 및 기타 일기·부조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원초기의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토지와 노비에 관한 문서, 서원의 역사, 원장·유사 등 원임(院任)의 명단, 서원을 내방한 인사가 자필로 서명한 방명록, 수입·지출 상황을 기록한 경리장부 등 서원 경제에 관계된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이들은 경제사적으로도 의의가 큰 자료이다.

1. 옥산문고의 형성 과정

서원이 존현을 통해 道學을 수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科擧를 도외시하고 순수한 爲己之學만을 위한 서원으로 존재하였다면 서원제도의 정착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서원들은 건립 이래로 經學을 중심으로 수기를 위한 성리학에 중점을 두었지만, 과거시험을 위한 詞章이나 역사 등의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았다.⁸⁹⁾ 서원에서는 이런 교육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그에 맞는 도서를 갖춰 나갔다.

옥산서원의 현전하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파악되는 서적명과 수집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를 장서의 수집 경위에 따라 기증과 내사, 구매와 등서 등의 순서로 살펴본다.

표 2 옥산서원 서적 수집 내역⁹⁰⁾

번호	연도	서책명	비고	전거
1	15세기	古今韻會舉要	15세기초 판(50권)	印本
2	15세기	唐柳先生集	15세기중반 판(13권)	"
3	15세기	大廣益會玉篇	15세기초 판	"
4	15세기	東國通鑑	龔齋(李彦适, 1494-1553)印, 獨樂堂印(28권)	"
5	15세기	東國通鑑[外紀]	龔齋(李彦适)印, 獨樂堂印	"
6	16세기	春秋四傳	16세기 판(19권)	"
7	16세기	太平廣記詳節	冊主溪齋宅, 主驪江李...家藏	藏書記
8	16세기	東萊先生南史詳節	16세기 판	印本
9	16세기	東萊先生唐書詳節	16세기 판	"
10	16세기	東萊先生東漢詳節	16세기 판	"
11	16세기	(東萊先生)史記詳節	16세기 판	"
12	16세기	(東萊先生)三國志詳節	16세기 판	"
13	16세기	東萊先生西漢(書)詳節	16세기 판	"
14	16세기	東萊先生隋書詳節	16세기 판	"
15	16세기	東萊先生五代史詳節	16세기 판	"
16	16세기	文選	16세기 판(24권)	"
17	16세기	翻譯小學	16세기 판, 玉山書院(朱印)	"
18	16세기	漢書	16세기초 판(54권), 晦齋(朱印)	장서기
19	16세기	西涯擬古樂府	16세기 판(3권)	인본

89) 17세기에 작성된 옥산서원의 「山堂居接騰錄」, 「立學記」을 보면 유생들은 정기적으로 과거 준비를 위한 합숙을 해왔으며, 그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생활 규정도 정해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0) 이 표는 2004년 당시 조사한 보고서(문화재청·경상북도,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2004.)와 옥산서원 소장 『전여기』, 『서책기』, 『서책전여도록』, 『고왕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부록의 <표1>옥산서원 장서목록 대장, <표2>옥산서원 전여기 내역 참조 바람). 그 외에는 『고사촬요』(남문각, 1974)는 1585년 허봉이 속찬한 것과 『열읍원우사적』을 참고하였다.

번호	연도	서책명	비고	전거
20	16세기	薛文清公讀書錄	16세기 刊(1권)	〃
21	16세기	說文解字韻譜(蒙韻譜)	16세기 刊	〃
22	16세기	伊洛淵源	16세기 刊(14권 8책)	〃
23	16세기	小學集說	溪亭冊, 獨樂堂印	장서기
24	16세기	心經附註	獨樂堂印, 驪江後人, 李守天遠(2권)	〃
25	16세기초	默齋亂藁(鄭士龍)	玉山書院(朱印), 權士毅所納	墨書
26	1513	正德癸酉司馬榜目	玉山書院(朱印), 筆寫本	인본
27	1520	佔畢齋集	16세기 刊(7권)	〃
28	1527	大學衍義	16세기 刊(1527)	〃
29	1538	埤雅	內賜弘文館應教李彥迪(5권)	장서기
30	1561	東萊先生晉書詳節	16세기 刊, 嘉靖四十年(1561)六月	褙接紙
31	1562	東萊先生音註唐鑑	萬曆元年(1573)八月日玉山書院上(墨書)	장서기
32	1562	二程先生傳道粹語	慶州府刊, 玉山書院(朱印)	攷事撮要
33	1562	孔子通紀	慶州府刊, 慶州府刊板(刊記)	〃
34	1562	皇明理學名臣言行錄	慶州府刊	〃
35	1562	庸學指南	慶州府刊, 玉山書院上(墨書)	〃
36	1564	程氏遺書	嘉靖甲子秋順天府開刊(5권)	木記
37	1570	聖學十圖	隆慶四年河東開刊, 敬齋·玉山書院(朱印)	목기
38	1573	論語集註大全	收藏(慶州府刊)	고사찰요
39	1573	三國史記(三國史)	萬曆元年(1573)八月日玉山書院上(慶州府刊)	장서기
40	1573	自警編	收藏(慶州府刊)	고사찰요
41	1573	筆談	萬曆元年(1573)八月日玉山書院上(慶州府刊)	장서기
42	1573	性理大全	萬曆元年(1573)十月日玉山書院(慶州府刊)	〃
43	1573(?)	宋朝名臣錄	權士毅(1552-1596)所納	〃
44	1573	左傳	收藏, 옥산서원(朱印), 23책	〃
45	1574	新編性理群書句解	收藏 12책	고사찰요
46	1575	續蒙求分註	萬曆乙亥三月甲子柳希春書于漢都客舍(4권)	題文
47	1575	朱子書節要	萬曆乙亥(1575) 川谷書院(20권 18책)	장서기
48	1575	晦齋先生集	慶州府刊 (宣祖3年(1570))印	고사찰요
49	1575	兩山墨談	慶州府刊	〃
50	1575	續大學或問	慶州府刊	〃
51	1575	大學章句補遺	慶州府刊	〃
52	1577	禮記	宣賜(30권)-2질	列邑院宇事蹟
53	1577	周易	宣賜(26권)-2질	〃
54	1577	詩傳	宣賜(10권)-2질	〃
55	1577	書傳	宣賜(20권)-2질	〃
56	1577	論語	宣賜(14권)-2질	〃
57	1577	孟子	宣賜(16권)-2질	〃
58	1577	中庸	宣賜(2권)-2질	〃
59	1577	大學	頒賜萬曆七年二月日玉山書院上(2권)-2질	〃, 藏書記
60	1577	春秋	宣賜(10권)-2질	〃
61	1577	朱子語類	宣賜(75권)-1질	〃
62	1577	國朝儒先錄	宣賜(4권)-1질	〃

번호	연도	서책명	비고	전거
63	1577	朱子大全	宣賜(95권)-1질	"
64	1577	秋江集	收藏(외증손 兪泓 刊行)	장서기
65	1580	東萊先生比史詳節	萬曆八年(1580)三月二十四日慶尙道寧海府	배접지
66	1581	武陵雜稿	玉山書院(墨印), 周博	印記
67	1581	武陵雜稿別集	玉山書院(墨印), 周博, 癸丑8월 改裝	장서기
68	1583	諺解小學	宣賜(1질)	열읍원우사적
69	1585	論語諺解	宣賜(1질)	列畧
70	1585	孟子諺解	宣賜(1질)	列畧
71	1585	大學諺解	宣賜(1질)	列畧
72	1585	中庸諺解	宣賜(1질)	列畧
73	1590	孝行錄	慶州府 重刊	鏤板考
74	1600	晦齋先生集	玉山 重刊	鏤板考
75	1600	櫟翁稗說	萬曆庚子廬江書院活字印出	印記
76	1600	退溪集	萬曆庚子九月玉山書院上	墨書
77	1600	孟子大文	萬曆二十八年庚子取廬江書院活字印出于難林	藏書記
78	1600	續大學或問	玉山 重刊	鏤板考
79	1602	改正大學	萬曆壬寅玉山重刊	鏤板考, 木記
80	1602	大學章句補遺	玉山 重刊	鏤板考
81	1606	德陽遺稿	收藏(1609년 奇自獻 來院)	藏書記
82	1606	詩傳	萬曆 丙午 慶州	藏書記
83	1615	唐詩彙選	萬曆乙卯暮秋海平尹暄次野書于鷄林之倚竹堂	藏書記
84	1619	忠烈錄	玉山書院上	藏書記
85	1624	晦齋先生集	玉山 重刊(14권5책)	鏤板考
86	1631	晦齋先生集	玉山 重刊(13권5책)	鏤板考
87	1631	班史(漢史)	玉山 刊(2권2책)	鏤板考
88	1631	濯纓集	崇禎四年辛未清道紫川書院刊(2권)	刊記
89	1642	西岳誌	西岳書院	鏤板考
90	1645	易學圖說	筆寫本, 傳書	보고서
91	1648	纂圖互註周禮	院上(墨書), 玉山書院(朱印), 7책	藏書記
92	1662	太極問辨	壬寅玉山書院重刊(1책)	鏤板考
93	1666	太極書撰集辨誣錄	玉山刊	鏤板考
94	1683	靜菴集	先生後裔趙渭叟(1630-1699)所送	서책기1
95	1693	益齋亂藁	慶州府 重刊	鏤板考
96	1693	櫟翁稗說	慶州府 重刊	鏤板考
97	17세기	震英粹語	3책, 玉山書院上, 17세기印	墨書記
98	17세기말	(先生點朱)大學衍義	(1696 內侍敎官)孟萬擇所送	서책기1
99	1701	光國志慶錄	崔方伯(錫恒) 所送	전여기1
100	1709	佔畢齋文集	禮林書院重刊, 玉山上	藏書記
101	1703~1709	漢陰先生手筆	河陽倅(1703~1709)李復仁所送	전여기1
102	1713	史略	新備	서책기1
103	1713	周禮	新備(院上), (7권)	전여기2
104	1713	柳文	新備(5권, 合 15권)	전여기2
105	1713	晚悔集	新備(대전 道山書院)(10권)	전여기2

번호	연도	서책명	비고	전거
106	1717	增續會通韻府羣玉	院上(墨書), 옥산서원(朱印), (21권)	藏書記
107	1728	禮記		
108	1732	退溪言行錄	新備 화산본(權斗經刊, 5권)	전여기7
109	1733	退溪言行錄	新備 선성본(陶山書院刊, 2권)	전여기7 서책기2
110	1734	奉先雜儀	李文龍傳與時失 1734(甲寅) 8월 備納	전여기6
111	1739	孤松集	新備 申震龜 刊(2권)	전여기7
112	1739	貞武公崔先生實紀	崇禎紀元後再己未季夏下浣 明川府開刊龍山書院藏, 玉山書院(印)	木記 서책기2
113	1739 以前	敬亭集	新備 (의성 藏待書院 來送, 6권)	서책기2 傳與記7
114	1740	梧峯集	新備 (의성 藏待書院 來送, 4권)	전여기7
115	1740	松隱集	新備 (의성 藏待書院 來送, 1권)	전여기7
116	1743	謙菴集	新備 柳泳 初刊(2권)	전여기7
117	1745	歷代捷錄	新備 抄史略 4卷內2卷 相換	전여기7
118	1748	炭翁集	新備自監營印送(7권), 戊午春刊板在公州道 山書院(刊記), 玉山書院(朱印)	서책기2
119	1748	詩藪	新備自監營印送(6권)	서책기2
120	1753	近思錄	慶州府 刊出(4권)	鏤板考
121	1753	小學	慶州府 刊出	鏤板考
122	1755	耐齋集	新備(慶州府印送)府尹洪益三父洪泰猷(3권)	서책기2
123	1755	陰崖集	新備(監營印送-監司李彝章(李紆從後孫, 3권)	서책기2
124	1755	孟子諺解	購入(7권)	전여기17
125	1755	圃隱集	新備(2권)	전여기17
126	1756	史記評林	自刊所新備(30권)	서책기2
127	1756	愚齋實記	新備 (東江書院, 1권)	서책기2
128	1756	艮齋集	新備 (榮州 汚溪書院, 4권)	서책기2
129	1756	存齋集	新備 (寧海 仁山書院, 3권)	서책기2
130	1756	貞武公實記	新備 (龍山書院, 2권)	서책기2
131	1756	三仁錄	新備 (後孫來送, 1권), 玉山書院(朱印)	서책기2
132	1757	禮記	印備(冊紙, 8권)	간소별비책가 전전여기
133	1757	鶴峯集	印備(冊紙)	”
134	1760	膽錄	院備(筆寫本, 1권)	전여기19
135	1761	梧里集	新備(1705 刊, 6권)	전여기20
136	1762	禮記	購買(康陵)	간소별비책가 전전여기
137	1762	魯史零言	印備(冊紙), 購買	”
138	1762	漢書	印備(冊紙)	”
139	1764	近思錄	新備(4권)	전여기21
140	1769	書傳全文	己丑十月日巡營備送玉山書院上(墨書)	藏書紀
141	1769	三韻聲彙	己丑初春嶺營開板(2책)	藏書記
142	1772	通鑑節要	藏在壬辰嶺營新刊(陰刻), 驪江李容天章	藏書記

번호	연도	서책명	비고	전거
143	1776	修巖集	安東屏山書院所送	전여기25
144	1779	省吾堂集	2권, 1775년 간행	전여기26
145	1779	海月集	7권, 1776년 간행(울진 明溪書院)	전여기26
146	1779	大海集	1권, 1776년 간행(울진 明溪書院)	전여기26
147	1779	黔澗集	4권(內 辰巳日錄 1권), 1707년 간행	전여기26
148	1782	禮記	10권, 前不受壬寅(1782)冬新備入藏唐板	전여기30
149	1782	太極問辨	1권, 花山本自良洞來	전여기30
150	1782	認齋集	9권, 善山(三治堂, 1778 刊)來	전여기30
151	1782	太極問辨	1권-本院 新刊本	전여기30
152	1782	鶴峯先生續集	壬寅仲春虎溪書院開刊, 玉山書院上(藏書記)	전여기30
153	1782	鶴沙集	6권 - (1776년 刊)	전여기30
154	1785	朱書講錄刊補	3권, 1785년 刊	전여기33
155	1786	白雲齋(忠毅公)實記	4권, 新寧 龜川書院印送	전여기33
156	1787	疎菴集	3권 - 豆洞來	전여기33
157	1787	貞武公實記	龍山書院	전여기33
158	1794	御製續大學或問	宣賜(御製題先生正續大學或問, 1권)	서책전여도록4
159	1794	御定朱書百選	宣賜(3권)-內賜記	서책전여도록4
160	1796以後	近思錄	玉山 重刊(4권)	木記
161	1797	鄉禮合編	宣賜(2권)-內賜記	서책전여도록4
162	1798	(新印)春秋(左氏傳)	宣賜(10권)	서책전여도록5
163	1798	書傳大全	戊午二月嶺營重刊(3집, 30책)	木記
164	1799	御製雅頌	宣賜(2권)	서책전여도록5
165	?	御定春秋四傳	宣賜(27권)	서책도록7
166	?	禮說	宣賜(10권)	서책도록7
167	1801	孝經	慶州栗谷開刊, 章山書院上	墨書記
168	1817.1	耕隱遺事	永川 龍溪書院 印來 捧置 經閣(1권)	考往錄
169	1817.1	小山集	安東 龜潭書堂 印來 捧置 經閣	考往錄
170	1819.2	松塢集	軍威 松峴祠 印來 捧置 經閣(2권)	考往錄
171	1820.8	觀感錄	寧海 九峯書院 印來 捧置 經閣(3권)	考往錄
172	1825.10	眞樂堂金先生文集	善山 坪城 金氏門中 印來 捧置 經閣 (1권, 2권)	考往錄
173		久菴金先生集		
174	1827.1	敬齋洪先生實紀	義興 印來 捧置 經閣(1권)	考往錄
175	1828.6	聲漢孫先生文集	孫氏門中 印來 捧置 經閣(3권)	考往錄
176	1828.8	桐溪實紀	咸昌 臨湖書院 印來 捧置 經閣(1권)	考往錄
177		傳巖實記	光山祠 印來 捧置 經閣(1권)	考往錄
178	1831.2	韓遁翁集	本孫(谷山韓氏) 印來 捧置 經閣(4권1집)	考往錄
179	1832.10	夢庵集	本孫(驪州李氏, 養拙堂) 印來 捧置 經閣(3권)	考往錄
180	1838.3	錦石集	巡營 印來 捧置 經閣(朴岐壽巡使時所送而其時忘漏故乃臚錄) (5권 1집)	考往錄
181	1838.8	川沙集	本家(安東金氏, 金宗德) 印送故受納經閣 (5권 1집)	考往錄
182	1841.2	晚默堂集	咸安本孫家 印來 捧置 經閣(1권)	考往錄

번호	연도	서책명	비고	전거
183	1842.1	景賢錄(外續錄補遺)	玄風道東書院來到捧置 經閣(3권) 己亥三月道東重刊(木記)	考往錄
184	1844.6	陽坡堂記	軍威本孫家來到故捧置 經閣[己亥(1839)春來到而忘漏故追後膽錄] (2권)	考往錄
185	1846.3	東湖實紀	星州本孫家來到奉置 經閣(2권)	考往錄
186	1847.3	松隱集	淸道 德南書院印來奉置 經閣(1질)	考往錄
187		四禮便覽	京李判書光正家裁書印送故奉置 經閣(4권)	考往錄
188	1847.6	旅軒續集	仁同 東洛書院印來奉置 經閣(4권)	考往錄
189	1850.9	魯庵集	沙洞本孫家來(2권)	考往錄
190	1857.4	守庵集	(永川)稷川刊役所印來奉置 經閣(2권)	考往錄
191	1860.4	鄭守菴文集	來到故奉置 經閣(2권)	考往錄
192		南癡菴文集	來到故奉置 經閣(6권)	考往錄
193		南寓菴文集	來到故奉置 經閣(3권)	考往錄
194	1863.8	無忝堂先生文集	刊行事鄉會, 執事排定	考往錄
195	1866.春	聾齋集	來到故奉置 經閣(4권)	考往錄
196		龍川聯稿	來到故奉置 經閣(4권)	考往錄
197		喪祭輯略	來到故奉置 經閣(4권)	考往錄
198	1868.3	是庵集	來到故奉置 經閣(2권)	考往錄
199	1868.12	三政矯揉節目	本府來到故奉置 經閣(1권)	考往錄

1) 내사와 기증

1572년 건립된 옥산서원의 초창기 장서 수집 경위도 초창기 여타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내사본과 지방관의 기증에 의한 것이 중심이었다. 여기에는 제향자인 회재 이언적이 퇴계와 함께 동방오현의 일인으로 추존되고, 종묘와 문묘에 배향된 관료이자, 학자로서 국가와 사람으로부터 확고부동한 儒賢의 지위를 공인 받았기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추존 과정을 거쳐 동방사현의 한분으로 평가된 회재의 위상은 1570년(선조 3)에 조광조, 정여창, 김굉필 등과 함께 회재의 저서 및 사실·행장을 인출하여 반포하라는 명이 내려지면서 더욱 높아졌다.⁹¹⁾

경주에서는 1561년(명종 16) 경주부윤 龜巖 李楨(1512-1571, 재임 :1560.9-1563.1)이 스승인 퇴계의 자문을 받아서 『孔子通紀』(1562), 『伊洛淵源錄·續錄』(1561), 『二程粹語』(1562), 『皇明理學名臣言行錄』(1562), 『唐鑑』(1562), 『庸學指南』(1562), 『皇極內篇』(1562) 등의 서적들을 간행함으로써 경주일대 文風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⁹²⁾ 그 외에도 경주부에서 1512년(중종 7) 경주부윤 李繼福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간하거나, 1543년(중종 38)에 『春秋胡氏傳』, 『書傳』, 『自警編』을 소수서원으로 印送한 사실이 확인된다.⁹³⁾ 옥산서원 『서책기』에도 이들 서적들이 기재되어 있어 옥산서원도 경주부로부터 같은 서적을 기증받은 것으로 보인다.

91) 『선조실록』 권4, 선조3년 5월 16일(계미).

92) 이정은 순천부사 재임시에 『程氏遺書·外傳』(1564), 『(胡敬齋)居業錄』(1564), 『景賢錄』(1564), 『性理遺編·補遺』, 『朱子年譜』(1565), 『濂洛風雅』(1565) 등을 저술하고, 1564년에는 김굉필을 제향하는 玉川書院을 건립하는 한편, 함양 남계서원에 『通鑑』(17권)과 『程氏遺書』(8권)을 기증하였다.(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217~220쪽 참조).

93)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7~9쪽.

<표 2>를 보면 서원 건립 이전에 간행된 서적들이 많다. 특히 16세기 간행본들은 대부분 역사서로서 초창기 서원 교육에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확한 입수 경위는 알 수 없지만 ‘主驪江李...家藏’, ‘獨樂堂’, ‘晦齋’ 등의 註記가 있는 것은 회재 후손가에서 기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회재가 家藏하고 있던 內賜本과 手筆稿本, 手澤本은 옥산서원 장서 중 내사본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⁹⁴⁾ 이외에도 회재의 동생 李彦适 가장본은 그 후손들이 기증한 것으로 보이며, 문인 權士毅가 『송조명신록』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경주부에서는 『공자통기』를 비롯한 서원 건립 이전까지 간행되었던 성리서와 역사서, 문집 등을 보내왔는데, ‘玉山書院上’이라 墨記되어 있다.

1574년(선조 7)에는 경주부윤 이제민이 경상감사 盧禎에게 건의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회재선생문집』을 간행하였으며, 그의 저술들도 뒤이어 간행하였다.⁹⁵⁾ 1575년(선조 8)에는 경주부에서 『회재선생집』, 『양산묵담』, 『대학장구보유』 및 부록 『속대학혹문』을 간행하였다. 당시 『회재집』 간행에 관찰사 노진과 경주부윤 이제민의 적극적인 부조가 있었는데⁹⁶⁾, 여타 서적들의 간행도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옥산서원은 건립 당시 경주부에서 간행한 서적들을 기증받음으로써 서원 장서의 초석을 이루었던 것이다.

사액 요청시 함께 요구한 서적의 하사도 이어졌다. 1577년(선조 10)에 사서육경 각 2질, 『주자대전』, 『주자어류』, 『儒先錄』 각 1질을 宣賜받았으며, 조정으로부터 부족한 교육용 교재의 지원 방안으로 1583년(선조 16)에는 『언해소학』 1질, 1585년(선조 18)에는 『사서언해』 각 1질을 선사 받았다.⁹⁷⁾ 이후 옥산서원에 서적이 내사된 것은 1794년부터이다. 전란 등으로 17세기에는 전란의 후유증으로 국가의 서적 편찬이 어려웠다. 이후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서적의 頒賜가 있었는데 옥산서원을 비롯한 영남지역 서원들은 속종 이래로 이전에 비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영·정조 시대에서야 비로소 퇴계와 회재의 학문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서적의 반질과 치제가 이어졌다. 17세기 들어 옥산서원 장서는 자체 간행과 기증에 의해 충당되었다. 구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었다.

경주부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기증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경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란 이후 국가 주도로 각 감영에 서적 간행을 명하면서 경주부에서의 간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감영에서는 직접 간행한 경전 및 『통감절요』와 같은 역사서를 보내오거나 감사들의 개인적 기증이 있었다. 일례로 1701년에 감사 최석항은 『광국지경록』을 보내왔으며, 1748년에는 『탄옹집』과 『詩藪』, 1755년에는 감사 李彝章이 『음애집』, 1838년에는 순사 朴岐壽가 『錦石集』을 보내왔다. 1847년에는 서울의 판서 이광정 집안에서 『사례편람』을 보내왔다.

17세기 중반 이래로 서원의 건립이 증가하면서 서원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기증도 이어졌다. 1631년 청도 자천서원에서 『탁영집』, 1642년 서악서원의 『서악지』, 1709년 예림서원의 『점필재집』, 1722년 호계서원의 『학봉집』, 1733년 도산서원의 『퇴계언행록』, 1739~1756년 용산서원의 『정무공실기』, 1739~1740년 의성 藏待書院의 『경정집』·『송은집』·『오봉집』, 1748년 공주 道山書院의 『탄옹집』, 1756년 동강서원의 『우재실기』, 영주 오계서원의 『간재집』, 영해 인산

94) 『전여기』 등에는 회재의 手澤稿本是 ‘儒案匱’ 등처럼 서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서적들과 함께 께에 넣어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95) 남권희, 앞의 논문, 2009, 7~9쪽.

『선조실록』 권8, 선조7년 9월 27일(무술); 선조7년 11월 4일(갑술). 이언적의 『九經衍義』는 유희춘이 인출할 것을 아뢰고, 옥당에서 이를 교정하였는데, 이후 1583년(선조 16) 경주부에서 初刊되었다.

96) 『晦齋先生集』, 柳希春 跋 “...願見全集者久矣 今鷄林尹李侯齊民請於方伯盧公禎鳩材募工開板...”

97)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玉山書院.

서원의 『존재집』, 1801년 경주 장산서원의 『효경』, 1817년 영천 용계서원의 『경은유사』, 안동 구담서당의 『소산집』, 1819년 군위 송현사의 『송오집』, 1820년 영해 구봉서원의 『관감록』, 1828년 함창 임호서원의 『동계실기』, 광산사의 『전암실기』, 1842년 현풍 도동서원의 『경현록』, 1847년 청도 덕남서원의 『송은집』 등이 그러하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문중서원의 증가와 함께 서원 간행본의 기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문중에서의 서적 반질도 이어졌다. 1606년奇遇의 『덕양유고』가 나주의 幸州奇氏 가문에서 보내져왔는데, 기준은 회재의 狀碣文을 지은 기대승의 숙부가 된다. 또한 1609년 기준의 증손이 되는 前좌의정 奇自獻이 옥산서원에 알묘한 것처럼 행주기씨 가문과의 인연은 특별하였다. 1683년에는 조광조의 후예인 조위수가 『정암집』을 보내왔으며, 內侍敎官을 지낸 맹만택이 회재가 직접 點朱한 『대학연의』를 보내었다. 1703~1709년 사이에는 한음의 후예인 하양현감 이복인이 『한음선생수필』을, 1713년에는 대전 안동권씨 집안에서 권득기의 문집인 『만회집』을 보내왔다. 1755년에는 경주부윤 홍삼익이 그의 부친의 문집『내재집』을 보내왔다. 이처럼 기증에 의한 것은 사적·공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

옥산서원 『서책기』, 『서책전여도록』에 수록된 서적수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장서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1758년 『서책기』에 184종 1,618책에서 1801년에는 253종 1,905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1796-1874년에는 310종 2,076책으로,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370종 2,121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표 2>의 19세기 기증 내역에서와 같이 문중서원·사우와 개별 가문 등에서 顯祖를 현창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집과 遺稿의 간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표 3 옥산서원 서책수

서명	경주교원서책 (1863-1907)	書冊記 (1713)	書冊記 (1756)	書冊記 (1758)	書冊傳與都錄 (1801)	서책전여도록 (1796-1874)	서책전여기 (1906)	서책현재도록 (1862-1945)
계	1,862 (198)	1,446 (161)	1,626 (182)	1,618 (184)	1,905 (253)	2,076 (310)	2,048 (338)	2,121 (370)

이상에서 초창기 서원들은 서원 건립과 장서 구비에 지방관의 도움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원 건립에 참여했던 향촌 유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증이 있기도 했으나, 서원이 해당 지역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 면모와 권위를 갖추는 데는 사액과 함께 국왕으로부터 서적을 下賜받으면서 가능하였다. 서원의 건립 초기에는 서원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 확대할 필요가 있던 시기였기에 서적의 구매에 소용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서원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서원의 지위를 격상하고, 경제적 보조를 받기 위해 서원의 건립과 동시에 사액을 청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갔다. 한편 조정에서는 교육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소수서원 이래로 사액과 동시에 서책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처럼 서로의 이해가 맞으면서 초창기 서원들은 사액시에 서책을 하사받아 서원 장서를 늘려갔던 것이다.

이러한 내사본은 책 첫 면에 내려준 연도와 날짜 및 ‘內賜’를 표기하여 나라에서 특별히 하사했음을 표시하였다. 또한 서원 장서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여 별도의 궤에 넣어 두었고, 서원에 따라 御書閣 등의 별도 건물을 지어 보관하기도 했으며, 열람시에는 반드시 再拜를 하는 의식을 행하였다.⁹⁸⁾ 그러나 기증과 宣賜에 의한 장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

98)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8쪽.

의 증가와 장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서원 자체에서 경비를 들여 서적을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원규 등을 통해 서원 장서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였다.

2) 구입과 등서(筆寫)

도서 구입은 서원에서 필요한 장서를 수집하는 방법 중 비교적 손쉬운 것이지만 자금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국왕의 내사본 내지 지방 관아와 개인의 기증에 의한 서적 입수는 서원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증에 의한 것은 서원에서 필요한 서적만을 선택할 수 없기에 부득이 구매에 의한 장서 마련이 뒤따랐다. 소수서원이 건립 당시 다량의 銅器가 수습되어 그것으로 일부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 하였다는 것이나, 임고 서원에서 건립 초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 서적을 구매하려 다녔다는 사실⁹⁹⁾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서원을 건립할 당시 장서의 수집 방법은 주로 구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사액 서원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서적의 하사라는 것도 없었기에 더욱 서적을 구비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의 남설 과정에서 많은 서원이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제향의 기능만을 갖춘 것도 서적을 구매하고 교육기능을 유지할 재정의 부족이라는 측면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사액서원의 경우에도 형편이 좋지만은 않았다. 사액이 되면 편액과 함께 서책이 반질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조선후기 들면서 사액서원의 증가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문묘종사대헌 내지 총절인을 제향하는 사액원사에 한정해서 서적을 반질하였던 것이다.¹⁰⁰⁾ 일례로 경주 서악서원의 경우 1623년(인조 1) 사액되었지만 『고왕록』을 보면 ‘買藏’, ‘印藏’, ‘寫藏’ 등의 방법으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서적을 구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전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사액 당시 사서오경과 성리서 등을 하사 하던 이전의 특전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적 수요량이 폭증하는 상황과는 달리 공급량이 부족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임란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과 조정에 보관되어있던 서적들의 소실¹⁰¹⁾ 등으로 조정에서도 이를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왕명으로 옥산서원에서는 경전 23권을 홍문관에 진상하기도 하였다.¹⁰²⁾ 서적이 부족한 상황은 중국에서의 구입과 私家에서의 입수 및 교서관을 통한 인출로 완화되어 갔다.¹⁰³⁾ 하지만 사액서원의 증설로 모든 사액서원에 대한 서적 반질 요구를 조정으로서도 수용하기 힘들었다.¹⁰⁴⁾ 그 결과 영조대부터 문묘종사 대헌을 모신 서원만 간혹 서적을 내려주는 경우가 나타났다.¹⁰⁵⁾ 전란 직후 중앙정부의 서적 부

99) 趙稜, 『慕庵先生文集』 권3, 「通列邑書院文(道南洞主時)」. 영천의 사람들이 포은선생의 서원을 건립할 때 서울에 와서 서적을 널리 구하였는데, 퇴계선생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겨 內賜받은 『性理群書』 1질을 기증하였다고 한다.

100) 『영조실록』 권127, 부록 영조대왕행장.

101)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11일(정해); 권117, 선조 32년 9월 25일(신미); 권134,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권212, 선조 40년 6월 16일(정미).

102) 『열읍원우사적』 경상도 옥산서원 고적.

103) 『광해군일기』 권19, 광해군 1년 8월 24일(임신);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20일(을축);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22일; 권35, 광해군 2년 11월 20일(신유), 22일(계해); 권54, 광해군 4년 6월 3일(병인); 권106, 광해군 8년 8월 4일(임인); 권113, 광해군 9년 3월 19일(갑신);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17일(기사); 『효종실록』 권14, 효종6년 3월 8일(계사);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0월 13일(경진); 『영조실록』 권39, 영조 10년 12월 20일(신유); 권51, 영조 16년 6월 3일(임신); 권97, 영조 37년 3월 23일(임술).

104) 윤희면, 앞의 논문, 2005, 9~10쪽 참조.

105) 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303~304쪽 참조.

죽헌상은 지방관 및 서원, 문중 등에도 영향을 주어서 기증에 의한 서적 입수는 줄어들게 되었고, 반면 구매가 늘어났다.

옥산서원은 주로 기증과 간행에 의해 장서를 구비했기에 구매에 의한 사례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7세기 말 제작된 『역학도설』이 필사본이고, 1755년에 『맹자』를, 1782년에는 『예기』 당판본 10권을 구매하였다. 18세기에 경주부와 감영에서 『소학』, 『시전』, 『서전전문』, 『서전대문』 등을 간행하여 보내왔지만 강학에 필요할 경우 구매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刊所別備冊價錢傳與記』(1756-1762)는 18세기 중반의 사정을 알려준다.

이를 보면 옥산서원에서는 1756년 『사기평림』을 7냥에 구매하고, 이듬해인 1757년에 『포은집』을 1냥에 추가 구입하였다. 같은 해 겨울에는 『예기』를 서적으로 완비된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종이값과 謄書비, 인쇄에 필요한 墨값을 치렀듯이 등서하였다. 표지를 꾸미는 裝黃價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옥산서원에서 筆寫本을 직접 제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봉집』과 『언행통록』도 종이값만 지불한 것으로 보아서 마찬가지로 印出만 한 것으로 보인다. 1762년 정월에는 이항복이 편찬한 『노사영언』에 대해 11냥의 책값을 지불하였는데 謄寫한 글을 잘 써서 5냥의 종이값을 지불하고 그냥 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책을 구비하는 방법으로 인출 외에도 謄書(筆寫)의 방법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같은 달에 11냥을 들여 서울 康陵에서 『禮記』를 추가로 구매하였다. 그리고 1782년에도 唐板本 『예기』를 구매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옥산서원 교육에서 『예기』가 필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를 보면 ‘新備’로 기록된 것이 있다. 새로 갖추었다는 것인데 신간 도서를 나타낸다. 新備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은 기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문집을 제외한 『史略』, 『周禮』, 『柳文』 등이 보인다.¹⁰⁶⁾ 이외에도 드물지만 상호 교환을 통해 필요한 서적을 구비하기도 했다. 옥산서원은 1734년에 『家禮』 2권(1질)과 『近思錄』 4권(1질)을 교환하고¹⁰⁷⁾, 1745년에는 『抄史略』 2권과 『歷代捷錄』 2권을 교환하였다.¹⁰⁸⁾

3) 출판

서적은 간행 주체에 따라 官板과 私板으로 구분하는데, 관판은 간행 주체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별하여 중앙판과 지방판으로 나눌 수 있고, 사판은 寺刹板, 書院板, 私家板으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저술된 문헌의 보급을 위해서는 서책의 간행이 필수적이었다.¹⁰⁹⁾ 경주지역은 신라의 古都이자, 고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관판 내지 사찰판의 출판문화가 발달하여 많은 서적이 간행된 곳이었다.¹¹⁰⁾ 조선전기에는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유교문화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관판이 출판문화의 중심을 이루었지만, 17세기 중반이래로 문중 의식의 고취와 서원의 증가 등에 힘입어 출판문화의 중심이 사판 그 중에서도 서원판과 사가판으로 이동되어 갔다. 경주지역의 경우 그 중심에 옥산서원이 있었다.

106) 『전여기』에는 서적 외에도 서원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필사본도 서적의 한 종류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서책기』에는 서원에서 생성된 필사본은 제외하고 있다. 1760년 『전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謄錄』과 1745년 『전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院規』 및 서원 건립시부터 작성된 『심원록』은 『서책전여도록』에 기재되어 있다. 서원의 중요 방문객의 명단인 심원록은 서원의 대외적 인망을 증명하는 것이며, 원규와 등록은 서원 운영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7) 『전여기』 갑인(1734) 2월.

108) 『전여기』 을축(1745) 12월 25일.

109) 박장승, 「경주 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110) 남권희, 앞의 논문, 2009.

도서를 간행하는 일은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서원에서는 이의 추진이 어려웠다. 그래서 초기 서원에서 간행된 판목은 평안도 中和의 淸涼書院에서 1566년(명종 21)에 『근사록집해』, 『漢書傳抄』와 1568년(선조 1)에 『古史通略』을 간행하였고, 1574년에는 성주 川谷書院에서 『薛文淸公讀書錄要解』와 『朱子書節要』를, 1581년 서천 鳴谷書院에서는 『標題句解孔子家語』, 『新刊素王事紀』 등만이 확인된다.¹¹¹⁾ 이후 서원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서원제도가 확립되었듯이 서원에서의 간행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이것은 1796년 徐有渠의 『鏤板考』에 수록된 ‘서원판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책에는 전국 84개 서원의 185종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중 도산서원이 17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옥산서원, 논산 魯岡書院으로 7종이 수록되어 있다. 경주에서는 그 외에도 구강서원 3종, 서악서원 2종, 동강서원과 용산서원이 각 1종씩 보인다.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전여기』와 『東京雜記』(1670), 『루판고』(1796), 『金鰲勝覽』(1936)을 통해 그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¹¹²⁾ 옥산서원에서는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별도의 ‘刊所’를 속사인 정혜사에 두고 운영하였는데, 인출에 사용할 책판도 정혜사에서 보관하였다.¹¹³⁾ 1670년 『동경잡기』를 보면 당시 정혜사에는 『구경연의』, 『구인록』, 『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 『대학보유』, 『梅月堂四遊錄』, 『봉선잡의』, 『櫟翁稗說』, 『益齋集』, 『抄漢書』, 『태극도설』, 『韓濩所書赤壁賦』, 『회재문집』, 『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 『孝行錄』 등 14종의 책판이 있었다. 이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 『역옹패설』, 『적벽부』, 『효행록』, 『익재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1711년부터 1793년까지 작성된 『전여기』를 보면 책판의 종류가 31종에서 12종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1748년을 기점으로 옥산서원 판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효행록』, 『심경』, 『익재집』, 『역옹패설』, 『익재화상』, 『동경지』 등은 경주부에서 판각한 것으로 改版을 위하여 잠시 옥산서원에 보관했던 것이다. 1796년의 『루판고』에는 옥산서원에 소장된 책판으로 『구인록』, 『근사록』, 『대학장구보유』, 『봉선잡의』, 『중용구경연의』, 『태극문변』, 『회재집』 등 7종이 확인된다. 1936년 『금오승람』에서는 1670년 정혜사 소장 책판 14종 외에 『東史纂要』, 『晦齋別集』 등이 새로 확인된다. 이중 『동사찬요』는 1609년 경주부에서 간행한 관판본이며, 『회재별집』은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것을 1934년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금오승람』에는 정혜사 소장 책판이 옥산서원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834년 정혜사가 화재로 전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옥산서원에 소장된 『전여기』 등에 보이는 책판을 모두 망라하면 『구경연의』, 『회재선생문집(구)』, 『회재선생문집(신)』, 『대학장구보유』, 『근사록』, 『구인록』, 『봉선잡의』, 『대원조오잠』, 『십육영』, 『태극문변』, 『改正大學』, 『원조오잠(구)』, 『收心良性風松寒竹』 등 회재와 그의 저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東京誌』, 『익재집』, 『역옹패설』, 『익재화상』, 『효행록』, 『심경』, 『大屏風』, 『小屏風』, 『구인당』현판, 『해월루』현판 등이 있었다. 『동경지』는 1669년(현종 10) 경주부사 閔周冕이 진사 李堦 등과 함께 편찬한 『동경잡기』를 1711년(숙종 37) 경주부윤 남지훈이 재간행하면서 인출을 옥산서원 측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대학』은 1602년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었는데, 앞선 기록들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⁴⁾

111)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240쪽.

112) 옥산서원 간행 판본과 책판 등은 박장승, 앞의 논문, 2001 및 윤상기, 「경주 옥산서원판본에 관한 연구」 『東義論集』 38, 동의대학교, 2003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113) 정혜사는 1572년 옥산서원 창건과 동시에 속사로 정속되어, 1834년 11월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옥산서원의 서적 간행 및 책판보관, 유생 공궤 등 인적·물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서원에서 刊役을 시행할 때는 간소를 사찰 내에 두어 운영하였다.(『文集刊役記事』, 1744)

요컨대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목판은 옥산서원 경각과 정혜사 별고에 分藏하고 있었으며, 인쇄내지 개판을 위하여 수시로 옮겨졌다. 경주부에서 간행한 일부 책판도 이 두 곳에 보관되기도 했는데, 1748년을 전후한 시기에 익재와 관련된 책판은 구강서원으로 옮겨지고 옥산서원에는 회재와 관련된 책판만이 남게 되었다. 특히, 『회재집』은 1575년 경주부에서 초간한 이래 1600년에 다시 중간하였고, 이후 3판(1624)부터 10판(1926)까지는 옥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Ⅲ.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보존·관리 노력

옥산서원은 도산서원과 더불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서원 중 하나이다.¹¹⁵⁾ 이것은 건립 이래로 도서의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기에 가능했다. 옥산서원에는 원임의 인수인계시나 포쇄시에 작성한 『傳與記』, 『書冊記』, 『書冊(傳與)都錄』 등의 자료가 남아 있어서 장서의 수와 서책 관리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책의 『서책(전여)도록』에는 서적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적은 「임신년 9월 부윤 완문」과 「임자년 치제시 예관문」, 「임술 5월 1일 당중 완의」가 있다.

1752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년 부윤 완문」은 옥산서원의 서책 編囊이 많고 또 宣賜된 것도 많은 것은 서원을 건립할 초기에 ‘不出院門’하는 節目을 정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1권도 闕失하는 폐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0여 년부터 관가로부터 혹 책자를 살펴볼 것이 있다고 서원에 下帖하여 매번 輪上 왕래하는 사이에 편질이 훼손되거나 혹 오랫동안 推尋하지 않아서 서실되기에 이르렀다고 당시의 사정을 말하고 있다. 이에 사람의 백년 成規를 이 해에 嚴截하니 官長 또한 인편으로 책을 빌려보는 것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다.¹¹⁶⁾

실제 현전하는 옥산서원 『원규』에는 반드시 껍을 갖춰 책을 넣어 보관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흠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적의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¹¹⁷⁾ 부윤의 완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원규는 대체로 잘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1권의 서실도 없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관가에 의해 서적의 훼손 내지 서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부윤의 이런 지적은 「전여기」내의 서적 대여 및 분실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표 4>은 전여기내의 기사를 정리한 것으로 옥산서원의 경전과 성리서 및 문집 등이 경주부로 반출되고 있음을 ‘官入’, ‘入府’로 표기하고 있다. 1753년에는 대규모의 서적들을 서실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완문에서 언급한 대로 경주부에서 빌려간 뒤 오랫동안 추심하지 않아서 서원의 기록에는 누락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전의 대여 기록은 관명에 의해 반출되었다가 돌려받았기에 미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14) ‘구인당’ 현판은 1711년 이전에 改刊하고, 原板은 經閣에 보관하였으며, 1748년 이후 대소‘병풍’판도 경주부 판목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다. 청하 ‘해월루’ 현판은 중수시에 청하 현감 鄭岐胤(재위:1692~1702) 推去해 갔다.(『전여기』, 신유(1711)).

115)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16) 『書冊傳與都錄』 「壬申9월일 府尹完文」.

117) 『원규』(무첨당 소장), “...五曰點書...不備則必匱書 不點則必散...一邑宰子弟不得留滯胎弊不得擅便書冊...”. 옥산서원 ‘院規板’은 1716년(丙申) 8월 『전여기』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시기는 17세기 말 원임직을 두고 적서간의 향전이 치열히 전개되던 때였다. 실제 그 여파로 1697년 『關西錄』판목을 훼손하고, 계정을 서원에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던 시기로서 서원측은 서원 입록과 운영을 규정한 원규를 새롭게 정비하여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주부윤의 완문이 있었음에도 이후 경주부로의 서적 대출은 계속 진행되었다. 서원 운영에 필수적인 원속, 전답, 노비 등에 대한 면역, 면세 등의 각종 혜택이 부윤의 재량에 달려있었던 만큼 부윤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전임 부윤의 명령을 후임 부윤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도 없었기에 이 완문은 사족들에게만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현전하는 각종 자료에서 19세기 이전에 사사로이 서적을 빌려간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서적이 필요할 경우 서원에 공식 요청을 하면 堂中에서 회의하여 서적을 보내거나 인출하였다. 즉 서적의 반출에 그만큼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완문에도 불구하고 부윤의 서적 반출 요구가 계속되자 옥산서원 측은 1792년(임자) 치제시에 예관(李晩秀)이 전달한 경연석 상에서의 국왕의 말을 부기하여 관에 의한 서적반출을 엄금하였다.¹¹⁸⁾ 즉 옥산서원에서 ‘書院書冊不出院門’이라는 원규가 이미 있으니 국왕이 책을 보고자 한다면 명을 내려 책을 가져오게 하면 되지만, 이는 원규를 어기는 것이 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옥산서원측은 이러한 왕의 말을 「전여도록」에 부기하여 관아를 비롯한 유력자들의 서적 반출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 이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데, <표 4>에서처럼 1792년 이래로 경주부로의 반출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4 서적 대여 및 분실 내역

번호	연도	내역	비고
1	1709	원비 : 奉先雜儀 [齋任 權慶祚失]	전여기1
2	1734	원비 : 鶴峯續集(前任李文龍(1732.2~1733.8)傳與時失)	전여기6
3	1753	선사 : 全失 - 주역(26권), 시전(9권), 서전(18권), 춘추(8권) 失 - 孟子(1권), 중용(2권내 1권), 예기(31권내4권) 院備 : 全失 - 書傳(10권), 禮記(15권), 魯史零言(14권), 大學補遺(1권), 楚辭(4권), 圃隱集(2권), 退溪言行錄(6권), 鶴峯集(5권) 失 - 周易(11권내5권), 詩傳(17권내1권), 選賦抄評(4권내2권)	전여기14
4	1755	선사 : 맹자(7권 1질)-官入 원비 : 詩傳(17권내 7권)-官入, 詩傳諺解(14권내7권-官入) 退溪言行錄 - 7권내 4권(1질) 在堤澄	전여기17
5	1764	원비 : 西岳誌-前任不傳	전여기21
6	1765	선사 : 入府 - 논어(7권1질), 맹자(7권1질), 중용(1질), 대학(1질) 원비 : 入府 - 주역(13권), 주역언해(5권), 서전(10권), 시전(10권1질), 시전언해(7권1질), 맹자언해(7권), 논어언해(4권), 대학언해(1권), 서전언해(5권), 중용언해(1권)	전여기22
7	1775	선사 : 入府- 논어(7권), 맹자(7권), 대학(1권), 중용(1권) 원비 : 入府(潤月11日出來) - 周易(12권), 주역언해(5권), 서전(10권), 서전언해(5권), 시전(7권), 시전언해(7권), 맹자언해(7권), 논어언해(4권), 대학언해(1권), 중용언해(1권), 史略(7권), 통감(14권), 三韻通考(1권)	전여기25
8	1779	求仁錄(2권), 九經衍義(27권 3질) 代次還江界	전여기26
9	1783	선사 : 孟子(7권 1질)-入府 원비 : 詩傳(7권 1질), 詩傳諺解(7권 1질)-入府	전여기31

118) 『서책전여도록』, “壬子 致祭時 仕臣領 筵教云玉山書院書冊不出院門已爲成規良庸嘉爲然 予欲見之 則必當與之以此傳諭于士子處如有可觀 冊子卽爲齎來”

번호	연도	내역	비고
10	1792	원비 : 奉先雜儀 - 6권내 1권 忠淸道 柳生員求請送, 1권 無忝堂 還去, 1권 龍宮 茂村 李參議宅送去 還去[1790(庚戌)2월 堂中傳與時] 太極問辨(本院新刊本)-李佐郎持去前任時	전여기34
11	1793	원비 : 奉先雜儀(6권)내 1권 迎日官求請送, 1권 忠淸道 柳生員求請送, 1권 無忝堂 還去, 1권 龍宮 茂村 李參議宅送去 還去 / 奎華名選(1794(甲寅)正月自本府來)	전여기35
12	1798	宣賜 : 孟子 2卷 戊午(1798)失	書冊傳與都錄4

이렇게 서적을 잘 보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적의 서실과 훼손은 심해지고 있었다. 1836년(丙申) 1월 15일 전여할 당시에 당중¹¹⁹⁾에서 서적을 점검해보니 卷帙이 중간에 서실된 것이 많음에도 이전의 전여시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기록에는 있으나 뒤로 전수할 때는 없어서 새로운 신·구임 간에 많은 다툼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書冊傳與記中前無來抄出’이라 하여 권질이 누락된 19종의 서적을 부기하고 있다.¹²⁰⁾

1862(壬戌) 5월 1일 당중 완의¹²¹⁾에는 서원 서책을 ‘불출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서 퇴계가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 원규를 훼손하지 않고 받들기 위해 큰 글씨로 새겨서 經閣의 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였다고 한다.¹²²⁾ 그러나 근래에 도서관의 임사의 서책을 전여하는 일이 사람이 적어 혹 빌려간 것을 잊거나 오래되어 돌려받지 못하고 散失한 것이 허다하다고 하였다. 이에 금번의 포쇄를 맞이하여 서적을 일일이 점검하여 현전하는 실재 수량을 파악하여 都錄을 새로 고쳐 경각에 보관한다고 했다. 이후부터는 마땅히 古規를 지켜서 前轍을 밟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서원의 귀한 책을 보고자 하는 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任司를 경유하여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 열람을 하고, 열람이 끝나면 바로 반환하도록 했다. 그런데 즉시 반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임사가 따로 더욱 독려하고, 遞任으로 傳受시에는 打點하여 책수를 도록에 의거하여 확인했다. 혹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이 완의는 서적의 관리에 있어서 임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명시한 것이 특징인데 인수인계시에 서실된 서적의 책임소재로 분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서적의 열람을 원할 시 임사를 경유하여 날짜와 대여자, 책명을 기록하면 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서적의 문외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 서원 운영에 유력한 가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에서 나온 고육책이었다. 또한 책의 분실 내지 훼손시 그 책임이 임사에게 있으므로 인수인계시에 책의 대출여부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으며, 혹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옥산서원 「書冊借去秩」(庚子(1900) 5월 1일)에는 宅號로 기재되어 있어서 대여자를 파악하

119) 『書冊傳與都錄』(經閣所藏書冊), 「丙申 正月十五日 傳與時 堂中」.

120) 『書冊傳與都錄』(經閣疏狀書冊), 「書冊傳與記中前無來抄出」. “宣賜『孟子』(6卷前無), 『儀禮經傳圖解』(14卷內1卷前無), 『의례도』(9권내1권전무), 『程氏臥書』(2권내1권전무), 『孔子通紀』(2권내1권전무), 『馬史』(3권내1권전무), 『註唐詩』(10권내1권전무), 『選賦抄評』(6권내4권전무), 『小學講譜』(2권내1권전무), 『奉先雜儀』(5권내3권전무), 『九經衍義』(3권내1권전무), 『武陵集』(8권내1권전무), 『孤松集』(2권 전무), 『瓶窩集』(9권내1권전무), 『修庵集』(3권내1권전무), 『省吾堂集』(2권내1권전무), 『孝經』(1권 전무), 『太極問辨』(新備1권전무)”

121) 『書冊現在都錄』, 1862(壬戌) 5월 1일.

122) 옥산서원내에 남았는 「書院書冊不出院門」현판에는 1840년(庚子) 仲春에 의견을 수렴하여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792년(임자)에 정조가 경연석 상에서 한 이야기를 판각한 것이다.

기 힘들지만 本洞, 內洞, 守城, 上里 등 서원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침당, 계정과 같이 화재 후손의 종가도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서적의 주요 대출자들은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사족들로서 화재의 후손들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과 옥산서원이 인근 사족들의 지식문화 보급소로서 도서관적 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IV.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주요 유물

현전하는 옥산서원의 주요 전적과 고문서, 현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문집간역기사』는 화재집 간행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면면과 그들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정서등록』은 옥산서원 초창기 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연혁, 중요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인당중건일기』는 재사액과 치제 절차 및 공론 형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높아서 역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1. 전적(典籍)

1) 삼국사기(三國史記) : 1573, 50권 9책, 국보 제322-1호

옥산서원에 소장된 『삼국사기』는 보물 제525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국 최고(最古)의 관찬 사서이다. 또한 후대에 편찬된 역사서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전체 50권 9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이면에는 ‘만력원년팔월일옥산서원상(萬曆元年八月日玉山書院上)’이라는 장서기(藏書記)가 있어 1573년부터 옥산서원에 소장되어왔다.

2)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 : 1547~1553, 필사본, 1책

조선 중종 때의 유학자이며 정치가인 회재 이언적(1491~1553)이 1547년에서 1553년 사이에 직접 쓴 원고본이다. 이 책은 송의 주희가 지은『대학혹문(大學或問)』에서 언급하지 않은 항목을 추가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권수에는 ‘御製題先生正續大學或問’라는 정조의 친필 머리글과 함께 ‘내가 등극한 18년 갑인년에 쓴다’는 기록이 있다. 책의 권수에는 “奎章之寶”라는 인기(印記)가 있다.

3)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 : 1570, 4권 4책, 내사본

이 책은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 등 사현(四賢)의 행적에 대하여 엮은 것이다. 부제학이었던 유희춘(柳希春)이 1570년에 국왕의 명령으로 편찬하게 되었는데, 유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한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을 모방하여 정몽주 이후로 성리학에 정진한 사현의 기록을 모았다.

4)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 : 1579, 1책, 내사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가 처음 한국에 반입된 것은 고려후기로 알려져 있고, 그 간행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록상 최초의 국내 간행은 1423년이며 현존하는 판본들로 미루어 조선시대 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산서원 소장의 이 책은 “반사만력칠년이월일옥산서원상(頒賜萬曆七年二月日玉山書院上)”이라는 내사기(內賜記)가 있어서, 1579년에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5) 번역소학(翻譯小學) : 16세기 간, 영본 2책

1518년 통문관(通文館)의 계(啓)에 의하여 김전(金詮)·최숙생(崔淑生) 등이 왕명으로 『소학』을 알기 쉽게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소장본은 권3·8·10의 2책으로 현재까지 6~10권 까지는 알려져 있으나 권3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자료이다. 선조 때의 연해본이 직역이 많은 것에 비하여 의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한글 자료로 방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권10의 발문에는 정사룡(鄭士龍), 소세양(蘇世讓)을 비롯한 당대의 유명 학자들 구성원 간행 참여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옥산서원(玉山書院) 소장의 이 책은 15세기 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책을 다시 번각하여 16세기에 간행된 것이다.

6) 비아(埤雅) : 16세기 초, 20권 5책, 내사본

이 책은 주공(朱公)의 『이아(爾雅)』를 증보한 유서(類書)로 편찬자는 송나라의 월주산음인(越州山陰人) 육전(陸佃:1042-1102)이다. 책의 편찬은 육전(陸佃)이 신종(神宗)의 명을 받아 이루어졌고 본문은 석훈(釋訓)·석친(釋親)·석수(釋水)·석초(釋草)·석목(釋木)·석충(釋蟲)·석어(釋魚)·석조(釋鳥)·석수(釋獸)·석축(釋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이 책은 권수에 회재 이언적(李彦迪: 1491-1553)에게 내려진 내사기록과 보자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중종(中宗) 연간 16세기 초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7) 주자대전(朱子大全) : 1543, 95권 95책, 내사본

이 책은 남송(南宋)의 대학자인 주희(朱熹)의 시문집(詩文集)으로 95권 95책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1543년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校書館)에서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자대전』초간본(初刊本)이다. 옥산서원 소장본은 이 초간본을 내사한 것으로서 완질로 남아있다.

8) 주자어류(朱子語類) : 16세기초, 140권 75책, 내사본

이 책은 송(宋)나라 여정덕(黎靖德)이 1270년에 주자와 문인 사이에 행하여진 문답의 기록을 분류하고 다시 편찬하여 엮은 것이다. 옥산서원 소장본은 1516년 임시로 설치된 주자도감(鑄字都監)에서 주조한 병자자(丙子字)로 이루어졌다. 옥산서원에는 현재 완질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임진왜란의 주자어류서 간행에 참고가 되었던 것이다.

9) 한서(漢書) : 16세기 초, 영본 50책, 수택본

후한(後漢)의 반표, 반고, 반소 등이 편찬하고 안사고가 주를 붙인 책으로 전한(前漢) 고조(高祖)에서부터 왕망에 이르기까지 229년간의 역사서이다. 이 책은 16세기경에 초주갑인자로 찍었으며, 중간에 부족한 활자를 목활자로 보충하여 찍은 것이 확인된다. 권수(卷首)에 ‘회재(晦齋)’라는 인(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언적의 수택본(手澤本)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문서

1) 제향·의례

(1) 치제시일기(致祭時日記) : 1792, 1책

정조가 이언적이 저술한 『대학장구보유』를 옥산서원에서 빌려 읽고, 그 서문을 직접 써서 돌려주면서 치제했을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일기이다.

(2) 사제운(賜祭韻) : 1781, 1건

정조가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 사제했을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남애(南厓) 이진원(李晉遠) 지었다.

(3) 홀기(笏記) : 1614, 2건

1614년 작성한 홀기와 이때 참고한 태종릉홀기이다. 축문(祝文)과 향례시 의절에 대하여 적고 있다.

(4) 제문(祭文) : 1792·1781·1839·1840, 4건

1792년의 치제, 1781년의 사제, 1839년 재사액 및 1840년 강당 낙성식에 작성한 제문.

(5) 제수단자(祭需單子) : 19~20세기, 74건

회재 이언적 불천위와 춘추 향사에 사용된 제수 품목을 적은 단자이다.

2) 강학

(1) 입학기(立學記) : 1649, 1책

1649년 유생들의 입학과 교육활동을 기록한 장부로 유생 30명을 5명씩 6학(學)으로 나누어 성명을 기재하였다. 입학 후에는 거재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5일간 기숙하며 송시(誦詩)와 독서(讀書)를 했다. 또한 강회 참석과 거재 태도를 평가하여 정도에 따라 벌을 주었다.

(2) 천안(薦案) : 1734·1771·1805·1827·19세기 초, 5장

1734년부터 19세기 초까지 5장의 천안이 남아있다. 1734년 옥산서원 유생으로 천거된 32명의 명단과 천주(薦主)를 기재한 문서이다. 천주는 현관·원임·원유(院儒)들로서 각자 2~15명의 유생을 춘추 향사와 도회(道會)·당회(堂會)·향회(鄉會)시에 천거하였다. 천거 유생 명단 아래에는 고강(考講)과 생원·진사시 입격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

(3) 강지(講紙) : 1802, 1장

1802년과 1817년에 실시한 고강(考講)의 성적 기록부로서 시험 과목은 중용·대학·소학·가례 등으로 성적에 따라 통·약·조·불로 나누고 각 과목의 성적 아래에 채점자의 서압을 하였다. 당시 옥산서원의 기본 교재를 확인할 수 있다.

(4) 산당거접등록(山堂居接謄錄) : 18세기 후반, 1책

신묘년과 갑오년의 거접시에 지켜야할 생활 규범과 거접시 모금한 자금의 활용에 대하여 기록한 정책이다. 과거시에만 시행하던 거접을 매년 시행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감당하기 어려워 산당에서 거접을 실시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거접 유생들을 공개하고 시중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유지를 위해 식리하여 전답을 구매했음을 알 수 있다.

3) 운영(원입·재정)

(1) 정서등록(呈書謄錄) : 1588~1683, 1책

1588년부터 1683년까지 옥산서원 유생들이 감영, 병영, 경주부와 여러 읍에 청원한 문서 46건을 필사하여 성책한 것이다. 내용은 노비, 전답, 속점, 속사, 선척(船隻), 염부(鹽釜), 어부(漁夫), 격군(格軍), 염간(鹽干) 등의 사급(賜給)과 면역(免役)·면세(免稅)에 관한 것으로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 운영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 각 서원에서는 이처럼 당시 생성된 많은 문서들을 보관상의 이유로 필사하여 성책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옥산서원 관노비안(玉山書院 官奴婢案) : 1578, 1책

1578년 4월 경주부에서 받은 관노비들의 명단이다. 고직(庫直)·도척(刀尺)·반모(飯母) 각 1구와 속공노비(屬公奴婢) 14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옥산서원 건립 초기의 노비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지방관의 협조가 서원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3) 전여기(傳與記) : 1703~1796, 56책

옥산서원 원입의 교체시에 작성한 인수인계 장부로 서책·제복·제기·유기(鑰器)·철물·신물(新物)·포진(鋪陳)·목기와 각종 문서, 책판 등의 목록이 적혀 있다. 이외에도 간소(刊所), 서책(書冊)전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여기를 포함하여 모두 56책이 전한다.

(4) 고왕록(考往錄) : 1816~1873, 1책

19세기 옥산서원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한 자료로서 연월일 순으로 주요 서원 내방자와 기부 목록, 건물의 수리 및 중건, 향사, 향회(鄉會) 등을 기록하고 있다.

(5) 구인당중건일기(求仁堂重建日記) : 1840, 1책

1839년 1월부터 1840년 3월까지 화재로 소실된 구인당을 중건하면서 일어난 일들과 중건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일기로서 이해상(李海祥)이 정리한 것이다. 강당 중건을 위한 논의와 건립의 과정을 기록한 강당중건일기(講堂重建日記)와 재사액이 진행되면서 사액 의례와 관련하여 작성한 연액일기(延額日記)·치제일기(致祭日記)·계액일기(揭額日記), 그리고 낙성시의 낙성시일기(落成時日記)로 구성되어 있다. 19세기 초반 강당 중건을 둘러싼 경주부내와 도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당시 옥산서원의 사회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6) 옥산서원강당중건시출물치부(玉山書院講堂重建時出物置簿) : 1839, 1책

1839년 2월 경주 서악서원에서 향회(鄉會)를 열어 옥산서원 강당 중건을 결의하고, 경주부 내의 향교, 서원, 사우 및 54개 문중에서 건물 중건비를 분배한 장부이다. 본손들의 경우 생활 형편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뉘 30냥에서 1전까지 거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옥산서원에는 구인당 중건시에 작성된 일기 외에도『講堂重建時鄉中出物置簿』,『重修錢冊』,『重修錢捧上記』,『鄉中錢入記』,『道內錢入記』,『賜祭時都廳下記』,『揭額時都廳下記』,『額板祗延時都廳下記』,『重修米下』등의 각종 성책이 남아있어서 19세기 초반 향촌사회에서의 상호협력 방안과 당시 물가 경제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7) 호구단자(戶口單子) : 1762, 1장

옥산서원 수노(首奴) 석노(石老)가 1762년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서원 소속 노비 162구의 이름, 나이, 출생년, 거주지, 부모, 혼인관계 및 매득(買得), 도망(逃亡), 환현(還現) 등을 표기하였다. 노비들은 옥산리를 중심으로 한 경주부뿐만 아니라 영천, 밀양, 울산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다.

4) 출판 (서적관리·인쇄·대여 등)

(1) 간역시도기(刊役時到記) : 1786, 1책

『태극서(太極書)』찬집과 변무록(辨誣錄)을 간역할 당시의 도기(到記)로서 56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2) 문집간역기사(文集刊役記事) : 1744, 1책

회재선생문집을 중간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중간 작업에 참여한 자들이 이를 기념하여 남긴 시(詩)가 부록되어 있다.

(3) 서책전여도록(書冊傳與都錄) : 1752, 2책

원임 인수인계시 작성한 옥산서원 소장 서책 목록이다.

(4) 옥산서원서책도록(玉山書院書冊都錄) : 20세기 중반, 1책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옥산서원 서책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5) 서책현재도록(書冊現在都錄) : 1863~1918, 1책

옥산서원 소장 서책을 포쇄하면서 작성한 장서 목록이다.

(6) 서책차거록(書冊借去錄) : 1906, 1책

옥산서원의 장서를 빌려간 가문 명단과 반납일을 기록하고 있다.

(7) 반질기(頒帙記) : 1934, 1책

회재선생별집을 간행한 후 이를 100여 개의 문중, 서원, 사우 등에 배포한 명단이다.

5) 향촌사회

(1) 심원록(尋院錄) : 1573~1922, 105책

옥산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곽 사람세력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다. 이 책은 서원 내방인사가 자필 서명한 일종의 방명록으로, 기재순서는 직위(본관), 인명, 거주지, 내방일 순으로 되어 있다. 심원록은 등재 여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기재된 인사는 당시 서원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당시 옥산서원의 인적교류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옥산서원은 심원록은 천자문(千字文)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玄.宇.荒.陽.爲.師 등이 缺秩이다. 일부는 뒷부분이 탈락된 경우도 있지만 1573년부터 1922년까지 약 37,2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현재 총 106책이 남아있다.

(2) 본향심원록(本鄉尋院錄) : 1756~1995, 58책

본향심원록은 경주부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방명록이다. 원래 서원에 따라서는 심원록에 「本府人勿許濫書」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옥산서원에서도 초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 같다. 본향심원록을 작성한 목적은 첫째, 후생들에게 본읍 인사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과 둘째, 서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원복(院僕)들의 비리를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본향심원록은 1756년에 처음 작성되어 1995년까지 총 58책이 현존하는데, 여기에 등재된 인사는 당시 경주부내 대표적인 사족인 양동의 손.이씨가 주축이 되고 있다.

(3) 통문(通文) : 19세기~20세기 초, 260건

발행처는 대체로 서원.향교 및 각 문중이었는데 그 범위는 경상좌도 전역에 집중되어 있다. 통문의 내용은 서원건립과 배향.추향문제, 道會 개최, 승무운동, 중건·중수 및 문집 중간 부조, 충효열에 대한 표창 문제 등이며, 19세기중반 이후에는 적서간과 사족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각종 시비와 관련된 것이 많다.

(4) 복제개혁반대만인소(服制改革反對萬人疏) : 1884, 1건

1884년 이재교(李在嶠)를 소수(疏首)로 8,849명이 서명한 복제개혁반대소이다. 이 상소는 12월에 발발한 갑신정변으로 복제개혁 자체가 취소되자 올리지 않았다. 길이는 약 100m로서 완전한 형태로 현전하는 만인소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3. 책판

옥산서원 소장 판목은 2004년 문화재청과 2007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일괄 조사하여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옥산서원에는 제향자 이언적의 문집인 『회재선생집』 외에도 『구인록』, 『대학장구』, 『봉선잡의』, 『태극문변』, 『중용구경연의』, 『근사록』, 『금파집』, 『임거십오영』 등 총 19종 1,121장이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無忝堂文集』, 『龜峯先生遺集』, 『蒙庵先生文集』, 『太極圖說』, 『漢史列傳抄』 등의 책판이 있었음을 문헌과 판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책판은 없다. 또한 남아있는 책판도 결락이 많다.

번호	분류	명칭	수량
1	책판	구인록(求仁錄)	79
2	책판	대학장구(大學章句)	17
3	책판	봉선잡의(奉先雜儀)	13
4	책판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	9
5	책판	어제속혹문(御製續或問)	4
6	책판	태극문변(太極問辨)	38
7	책판	회재선생유묵(晦齋先生遺墨)	12
8	책판	회재선생집(晦齋先生集)	163
9	책판	회재선생집별집(晦齋先生集別集)	79
10	책판	회재집(晦齋集)	72
11	책판	조선총독부회등실(朝鮮總督府齋藤實)	1
12	책판	구경연의(九經衍義)	208
13	책판	구경연의별집(九經衍義別集)	142
14	책판	근사록(近思錄)	130
15	책판	금파집(琴坡集)	127
16	책판	원조오잠(대)元朝五箴(大)	9
		원조오잠(소)元朝五箴(小)	4
17	책판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12
18	책판	입춘축문(立春祝文)	1
19	책판	천자문(千字文)	1
소계			1,121

참고문헌

『광해군일기』, 『선조실록』, 『영조실록』, 『인조실록』

『전여기』, 『서책기』, 『서책전여도록』, 『고왕록』, 『慕庵先生文集』

문화재청·경상북도,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200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한국국학진흥원 편, 『경북지역의 목판자료(2)』, 2007.

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박장승, 「경주 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부록

● 옥산서원 고문서(정책) 분류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1. 조직·운영 문서 [105점]				
1	수부임안 首副任案	1573~1987	5책	옥산서원이 건립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원장과 유사의 명단
2	고왕록 攷往錄	1816~1873	1책	19세기 옥산서원의 각종 현안을 기록함
3	집사기 執事記	1585~1947	15책	옥산서원 춘추향사에 참석했던 헌관, 집사들의 명단
4	산당거접등록 山堂居接膳錄	1711, 1714	1책	18세기 초반 옥산서원에서 운영했던 산당 거접의 취지와 절목
5	구인당중건일기 求仁堂重建日記	1840	1책	1839년 1월말 구인당 화재부터 1840년 3월의 낙성식까지의 중건과정과 재사액일기, 치제시일기, 낙성시일기 등을 수록
6	치제시일기 致祭時日記	1792	1책	1792년 치제 당시의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
7	완의 完議	1755	1책	1755년 옥산서원 운영 전반에 대해 전면 개편한 지침
8	중수소별판완의 重修所別辦完議	정사	1책	옥산서원 중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청도 별장의 자금을 식리하는 방안 제시
9	금양참동록 禁養參同錄	무인	1책	옥산서원 주산(主山) 금양계의 절목과 초군도목(草軍都目)
10	옥산서원규약 玉山書院規約	1940	1책	일제강점기 옥산서원의 규약을 정리한 서류철
11	왕복문서류철 往復文書類綴	1940~1942	1책	1940~1942년 사이 옥산서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왕복하였던 문서를 모음
12	청분각건립지 淸芬閣建立誌	1970	1책	옥산서원 서책 도난사건 이후 후손들이 모금하여 전시관겸 수장고인 청분각을 건립한 사실
13	등록 膳錄	18C	1책	18세기 중반 옥산서원을 경정(更定)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반 규정
14	전여기 傳與記	18~19C	42책	옥산서원 원임의 교체시에 작성한 인수인계 장부. 서책·제복·제기·유기(鑪器)·철물·신물(新物)·포진(鋪陳)·목기와 각종 문서, 책판 등의 목록 기재.
15	천안 薦案	1734·1771· 1805·1827· 19세기 초	5건	1734년부터 19세기 초까지 5장의 천안이 남아있다. 천주는 헌관·원임·원유(院儒)들로서 각자 2~15명의 유생을 춘추향사와 도회(道會)·당회(堂會)·향회(鄉會)시에 천거하였다. 천거 유생 명단 아래에는 고강(考講)과 생원·진사시 입격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
16	정서등록 呈書膳錄	17C 후반	1책	1588년부터 1683년까지 옥산서원 유생들이 감영, 병영, 경주부와 여러 읍에 청원한 문서 46건을 필사하여 성책함. 노비, 전답, 속점, 속사, 선척(船隻), 염부(鹽釜), 어부(漁夫), 격군(格軍), 염간(鹽干) 등의 사급(賜給)과 면역(免役)·면세(免稅)에 관한 것으로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 운영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임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17	완의 完議	1634·임술· 갑오·임자· 병진·병신· 계유·정축· 을묘·무진· 정해·무진· 병진·신해	14건	17~20C 초반까지 교육, 출판, 수곡수납, 건물관리 등 서원의 제반 운영에 대하여 당중(원중)에서 결의한 문서. 구체적 운영 내용은 절목(節目)으로 별도 부기하기도 함.
18	완문 完文	무진·을사· 병신·을미· 갑인·병자·1 902	8건	18~20C 옥산서원 청원에 대해 관[경주부, 병마절도사, 어사 등]에서 발급한 완문. 정혜사 승려, 원노 등의 면역 및 서원전 등에 대한 면세에 관한 내용
19	첩문 帖文	무술·갑인· 을사·기미	4건	원임의 향사참석, 권학, 향례절차, 시비에 대한 조사 등을 명령한 내용

2. 강학 문서 [9점]

1	입학기 立學記	1649	1책	1649년 윤번으로 거재에 참석할 명단과 불참시 처벌규정
2	회우록 會友錄	기해·경자· 경오	1책	옥산서원 문회에 참석한 인물들의 명단
3	순제계획방목 旬題計劃榜目	무인 ~신사	1책	순제 시부의(詩賦義)에 응시한 인사들의 명단
4	문회시 방목 文會時 榜目	임오	1책	임오년 5월 16일 문회의 시부에 응시한 인물들의 방목
5	서악서원강안 西岳書院講案	1840	1책	1840년 1월 4일 서악서원 강회에 참석한 자들의 명단
6	서악서원전후응강원수록 西岳書院前後應講員修錄	임자	1책	임자년 1월 4일에 을사·병오·무신·기유년 응강에 참석한 이들의 명단을 수정하여 기록함
7	서악서원원유시용안등록 西岳書院院儒時用案謄錄	신미	1책	서악서원 원유들의 명단
8	서악서원강유부안록 西岳書院講儒付案錄	계미	1책	서악서원 강회시 유생들의 명단
9	강지 講紙	1802, 1817	1건	1802년과 1817년에 실시한 고강(考講)의 성적 기록부로서 시험 과목은 중용·대학·소학·가례 등으로 성적에 따라 통·약·조·불로 나누고 각 과목의 성적 아래에 채점자의 서압을 하였다.

3. 제향 문서 [91점]

1	홀기 笏記	1614	1건	춘추향사시 홀기로서 향례절차와 축식(祝式), 진설도(陳設圖), 의도제용잡물식(依圖祭用雜物式)이 수록되어 있다. 만력 갑인(1614) 2월 14일 찬한 것이다.
2	태종릉홀기	미상	1건	<태종릉홀기>는 옥산서원에서 홀기를 만들기 위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3	향사시서위도 享祀時序位圖	미상	1건	향사시 내상문(신문) 내외의 삼헌관 및 집사의 대기 위치와 절할 때의 위치를 표기한 그림
4	제수단자 祭需單子	19~20C	74건	음력 2월과 8월 향사에 사용되는 제수와 11월 회재 이언적 기일에 사용하는 제수의 물목(物目)
5	식상도록 食床都錄	기미 ~계축	1책	기미년 11월 15일부터 계축년까지 옥산서원에서 거행된 향알(香謁) 및 대제(大祭)의 일체 경비를 기록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6	치제문 致祭文	1781·1792· 1839	3건	옥산서원 치제(致祭)를 위해 1781년 승정원 좌부승지 이양정(李養鼎)을 보낸 치제문, 1792년 내각 검교 이만수(李晩秀)를 보낸 치제문, 1839년 경주부윤 유장환(兪章煥)을 보낸 치제문
7	제문 祭文	1840	1건	1840년 경상도관찰사겸대구도호부사 김도희(金道喜)의 제문
8	사제시도기 賜祭時到記	1839	2책	1839년 치제를 앞두고 옥산서원을 내방했던 유생들의 명부. 2건이 전하는데 하나는 12월 8일, 하나는 12월 11일부터 작성된 것이다.
9	향축지영절목 香祝祗迎節目	1792	1건	1792년 치제시 향축을 맞이하는 절차
10	어제봉안시절목 御製奉安時節目	1839	1건	어제 봉안시 절차
11	지영절목 祗迎節目	1839	1건	1839년 11월 재사액판을 맞이하는 절차
12	祗迎節目 지영절목	1839	1건	1839년 12월 치제시 향축과 사제관을 맞이하는 절차
13	치제시절목 致祭時節目	1839	1건	1839년 12월 치제시 절차를 당중에서 정함
14	사제시절목 賜祭時節目	1792	1건	1792년 사제시 절차를 당중에서 규정함
15	▣▣응행도절목 ▣▣應行都節目	1840	1건	1840년 3월 구인당 중건 낙성식 당시 순상의 영접, 고유, 치제판의 계약, 연회, 백일장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절목

4. 사회관계 문서 [604점]

1	소지초 所志草	가정~만력 연간	1책	보문지 인근 땅의 관리와 관련된 경주부내 향교, 향청 등과의
2	옥산서원도회시도기 玉山書院道會時到記	1843	1책	퇴계선생집 중간을 위한 도회시 참석자 명단과 각 시군별 분배금 및 도감 명단
3	어제간시도기 御製刊時到記	1794	1책	왕명으로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치제문을 새길 때 참석했던 인사들의 명단
4	영하도회시도기 營下道會時到記	1839	1책	구인당 화재로 재사액을 청원할 당시 감영 앞에 모였던 인사들의 명단
5	도회제명록 (통문초부) 道會題名錄 (通文草附)	1717	1책	숙종과 이이명의 독대문제를 비판하고 처벌을 청원하는 상소를 올리기를 위한 도회시 참석자 명단과 통문의 초안 및 서명한 인물 명단
6	우통도산문 右通陶山文	20C	1책	도산급문록과 관련하여 일부 인사들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온 도산서원 통문
7	경주부서원사적 慶州府書院事蹟	미상	1책	경주의 서악서원, 옥산서원의 사적에 대하여 기록
8	향리약법 鄉里約法	미상	1책	향리약속서문과 향약, 면약의주를 수록함
9	향약 鄉約	미상	3책	향청에서 옥산서원에 보내온 향약
10	통문 通文	18~19C	225건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옥산서원에 보내온 전국 향교, 서원, 문중, 개인의 통문 및 옥산서원에서 발송한 통문
11	회문 回文	19~20C	155건	19~20세기 초반까지 옥산서원의 향사 및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합장소와 일자를 적어서 경주부내 각 문중에 돌렸던 문서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12	복제개혁반대만인소 服制改革反對萬人疏	1884	1건	1884년 이재교(李在嶠)를 소수(疏首)로 8,849명이 서명한 복제 개혁반대소
13	심원록 尋院錄	1573 ~1910	106책	옥산서원 건립 당시부터 1910년까지의 방문객 명단
14	본향심원록 本鄉尋院錄	1756 ~1947	58책	옥산서원을 방문했던 경주부내 인사들의 명단
15	상서·소지 上書·所志	18~19C	48건	옥산서원 노비·토지·산림 등의 물침을 요청하는 문서

5. 경제 문서 [242점]

1	역비일기 役費日記	경신	1책	경신년 서원 전체를 개축할 당시 일정별 소용비를 기록
2	서원포사협각중수기 書院庖舍俠閣重修記	신유	1책	신유년 옥산서원의 부속 건물인 부역과 창고의 중수시 소용되었던 물목과 비용
3	주사중수기 廚舍重修記	임술	1책	임술년 주사를 중수하면 사용한 비용으로
4	노청전답깃기 奴廳田畓衿記	기묘	1책	옥산서원 노청 전답의 절목과 본동 및 영해 자방동의 전답 내역
5	옥산서원깃기 玉山書院衿記	무신	1책	경주부내 각 동리에서 산재한 옥산서원 전답 소작인과 도지가 내역
6	옥산서원깃기 玉山書院衿記	정미	1책	경주부내 각 동리에서 산재한 옥산서원 전답 소작인과 도지가 내역
7	서원전답질 書院田畓秩	정사 ~갑오	1책	옥산서원 전답 내역
9	옥산서원전답안 玉山書院田畓案	1694	1책	옥산서원 전답 내역
10	추수기 秋收記	19C	4책	경주부내 서원 전답 소작인과 추수 내역
11	타작기 打作記	19C	3책	경주부내 서원 전답 소출 내역
12	송정이년기사원노비안 崇禎貳年己巳院奴婢案	1629	1책	옥산서원 원노비안
13	기유 조집화등초기 己酉 租執禾登抄記	경술	1책	경주 외 현풍, 달성 등지 수확 내역
14	청도 집화기 靑道 執禾記	갑진·경자· 임인	3책	청도 별장에서 소출되는 수확 내역
15	곡물수입도록 穀物收入都錄	신축 정유~무술	2책	곡물을 납입한 사람들의 명단과 곡물량 및 항목매도증 수록
16	하곡대지세 夏穀垓地稅	을묘	1책	소작인들에게 하곡(夏穀)을 거둔 내역
17	곡수수입질 穀穗收入秩	무자	1책	정조(正租)를 무역하여 전수(傳受)한 증빙
18	곡수수출기 穀穗收出記	정해	1책	정조(正租)를 사용한 증빙
19	하곡수집(납)기 夏穀收集(納)記	계묘·무신· 임자·기유· 갑진·을사· 병오·정미· 경술·계사~ 병신·계축	11책	보리·밀 등의 하곡(夏穀)을 소작인들에게 거둔 내역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20	추곡수집(입)기 秋穀收集(入)記	임인·갑인· 경술·갑진· 을사·정미· 병진·병오· 정사·임진· 계묘·신축· 신해	13책	쌀 등의 곡물을 소작인들에게 거둔 내역
21	곡수기 穀收記	정해·경술	2책	곡물을 소작인들에게 거둔 내역
22	미곡수불기 米穀授拂記	경술·신해	1책	미곡의 사용 내역
23	수지부 受支簿	임진	2책	수입지출내역
24	도가수입 賭價收入	임신	1책	도지가 수입 내역
25	시목집수기 柿木執收記	정해	1책	감나무에서 감을 수집한 내역
26	식량수입질 食糧收入秩	정해	1책	백미르 거둔 내역 증빙
27	추곡배정집수기 秋穀配定集收記	임자	1책	경작인 명단, 수납량, 대여토지 면적, 지번 수록
28	수입록 受入錄	기축	1책	도지와와 쌀값으로 사용한 내역
29	백미수불기 白米受拂記	경술	1책	백미를 돈으로 바꾼 내역
30	지세명기장 地勢名寄帳	기미	1책	기미년 4월29일에 원본을 베꼈다. 양동의 이석희 등 23명의 소작인과 지번, 토지규모 내역
31	본원추수기 本院秋收記	무인	1책	무인년 경주, 영일지역에서 추수한 내역
32	미수질 未收秩	계묘~무신	1책	미수금액과 미수인을 기록
33	회계록 會計錄	19~20C	10책	옥산서원의 매일 지출내역을 기록
34	신구도색전여기 新舊都色傳與記	미상	1책	신구도색의 전여 기록과 옥산서원에서 미수한 기록
35	별장회계·별장전곡기 別莊會計·別莊錢穀記	임인	2책 합본	청도에 있는 별장의 회계 내역과 전곡의 수입 기록
36	서원수입부·지출부 書院收入簿·支出簿	신유~임술	2책 합본	신유 4월1일부터 임술 1월 15일까지 수입·지출부
37	옥산학교수입지출장부 玉山學校收入支出帳簿	무오	1책	청도, 경산 및 서원 인근 전답의 수입과 이를 사용한 내역
38	전교등서 傳敎謄書	미상	1책	숙종이 동부승지와 야대시 문묘종사대현의 서원에 대한 양정 모임을 허가한다는 내용
39	향회하기 鄉會下記	미상	1책	향회당시 사용한 내역
40	고자하기 庫子下記	무자·정해· 병술	3책	무자년 2월 향사부터 10월 삭망분향까지 향사와 삭망분향 당시 나간 식사 수량을 기록
41	각양봉상용하기 各樣奉上用下記	임오	1책	임오년 10월에 전수받은 쌀 등 각종 곡물의 내역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42	사제시도청하기 賜祭時都廳下記	1839	1책	1839년 12월 13일 치제시 비용 내역
43	액판지영시하기 額板祇迎時下記	1839	1책	11월 30일 재사액판을 받을 때의 비용 내역
44	계액시도청하기 揭額時都廳下記	1840	1책	1840년 3월 7일 낙성식 당시 사액판을 계액할 때 사용한 비용 내역
45	어서실변시하기 御書失變時下記	병진	1책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어서를 잃어버린 일로 방문한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내역
46	옥산서원 관노비안 玉山書院 官奴婢案	1578	1책	1578년 4월 경주부에서 받은 관노비들의 명단. 고직(庫直)·도척(刀尺)·반모(飯母) 각 1구와 속공노비(屬公奴婢) 14구의 이름 기재.
47	호구단자 戶口單子	1762	1건	옥산서원 수노(首奴) 석노(石老)가 1762년에 작성한 호구단자. 서원 소속 노비 162구의 이름, 나이, 출생년, 거주지, 부모, 혼인관계 및 매득(買得), 도망(逃亡), 환현(還現) 등을 표기
48	관문 關文	병자	1건	경상도 관찰사가 대구, 청도지역의 옥산서원 원전에 대해 침해하지 말 것을 명령한 관문
49	옥산서원노비화명안 玉山書院奴婢花名案	계묘, 1726, 1783	1책	옥산서원 노비의 계보
50	노비추쇄안 奴婢推刷案	갑자, 정묘	2책	노비추쇄안
51	노청전답깃기 奴廳田畝衿記	기묘	1책	노비청 소유 전답 내역
52	노비안(수공병부) 奴婢案(收貢并付)	무인	1책	옥산서원 노비 명단
53	옥산서원노비안 玉山書院奴婢案	갑자	1책	옥산서원 노비 명단
54	유(원)생안 儒(院)生案	19C	41책	원생안 2책과 유생안 39책의 원생, 유생 명단. 이들은 양인으로 피역을 위해 서원에 투탁함
55	양하전안 良下典案	18~19C	49책	옥산서원에 소속된 양인과 하인들의 명단
56	소속안 所屬案	18~19C	25책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 흥해, 영일, 장기 등의 타읍에도 거주하는 옥산서원 소속의 양정 명단
57	수직군안 守直軍案	19C	29책	옥산서원 어서각을 지키는 수직군의 명단으로 양인으로 구성됨

6. 장서·출판 문서 [21점]

1	문집간역기사 文集刊役記事	1746	1책	회재집 중간 후 간역사실을 기록하고, 간역에 참석했던 인물들의 제영(題詠)을 수록
2	회재선생별집간소부조기 晦齋先生別集刊所扶助記	1934	1책	경주향내와 도내에서 회재선생별집 간행에 부조한 내역
3	회교록 會校錄	20C	1책	회재선생별집을 간행하는 일로 여럿이 모이고, 이를 기념하여 시를 지어 수록함
4	간역시도기 刊役時到記	1786	1책	<태극서찬집변무록>간역 당시의 명단
5	서책전여도록 書冊傳與都錄	1752	2책	원임 인수인계시 작성한 옥산서원 소장 서책 목록
6	옥산서원서책도록 玉山書院書冊都錄	19~20C	1책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옥산서원 서책 목록을 정리
7	서책현재도록 書冊現在都錄	1863 ~1918	1책	옥산서원 소장 서책을 포쇄하면서 작성한 장서 목록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8	서책차거록 書冊借去錄	경자,병오, 임신	3책	옥산서원의 장서를 빌려간 가문 명단과 반납일을 기록이다. 표제는 <서책출입기>,<서책차거질>,<서책차거록> 등이다.
9	반질기 頒帙記	1934	1책	희재선생별집을 간행한 후 이를 100여 개의 문중, 서원, 사우 등에 배포한 명단
10	서책기 書冊記	18C	3책	18세기 옥산서원 장서 목록
11	간소전여기 刊所傳與記	19C	5책	간역소(별소)의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기재
12	간소별비책가전전여기 刊所別備冊價錢傳與記	병자	1책	병자년부터 병술년까지 간소에서 책을 구매하기 위해 운영한 자금의 내역

7. 시문류詩文類 [2점]

1	한려양선생유묵 寒旅兩先生遺墨	미상	1책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의 친필 유묵
2	정암필찰 靜菴筆札	미상	1책	정암 조광조의 유묵 탁본첩

8. 치부류置簿類 [343점]

1	본사중수후여전치부 本寺重修後餘錢置簿	1780	1책	정혜사를 중수할 때의 수입과 지출내역 및 여전 사용에 대한 절목 수록
2	옥산서원강당중건시향중출 물치부 玉山書院講堂重建時鄉中出 物置簿	1839	1책	1839년 향회이후 경주부내 향교,서원,향청,사마소 및 각 문중에 배당한 강당 중건 비용 및 여주이씨 후손들이 분담한 금액 수록
3	중수전책 重修錢冊	1840 ~1843	1책	1840년 구인당 중건이후 남은 돈을 1843년까지 식리한 내역
4	구인당중수부조기(향) 求仁堂重修扶助記(鄉)	1905	1책	<구인당중수도록>과 합철되어 있음. 구인당 중수시 부조 내역
5	구인당중수도록 求仁堂重修都錄	1905 ~1906	1책	구인당중수 기간 중 사용한 비용 내역
6	체인묘중수부조책(향) 體仁廟重修扶助冊(鄉)	1905	1책	체인묘를 중수할 때 향중으로부터 부조 받은 금액
7	체인묘중수부조기(도) 體仁廟重修扶助記(道)	1905	1책	체인묘를 중수할 때 도내로부터 부조 받은 금액
8	향중전입기 鄉中錢入記	1840	1책	구인당을 중건하면서 향중의 향교, 서원,사우와 각 문중 등으로부터의 기부 내지 각출한 금액
9	하청식권 下廳息券	1819 ~1823	1책	옥산서원 하전
10	제복개비급주사중건도록 齊服改備及廚舍重建都錄	정미	1책	제복을 다시 갖추고, 주사를 중건할 때 소용되었던 비용의 내역
11	도내전입기 道內錢入記	1840	1책	1840년 3월의 낙성식 이전과 이후에 들어온 도내의 구인당 중건 부조금 내역
12	원우수리용하질 院宇修理用下秩	경자	1책	윤6월 6일부터 19일까지 원우를 수리하면서 쓴 467냥 2전의 내역
13	원우중수용하 院宇重修用下	기사	1책	기사년 5월에 원우 중수시 사용 내역을 기록
14	중수도록 重修都錄	정사	1책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의 중수시 사용 내역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15	중수전봉상기 重修錢捧上記	미상	1책	중수전 봉상 내역과 미납내역
16	중수미하 重修米下	계묘	1책	9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수시 사용한 쌀의 내역
17	무변루중수하기 無邊樓重修下記	계묘	1책	9월 무변루를 중수할 당시 사용한 내역
18	체인묘중수도록 고자용하질 體仁廟重修都錄 庫子用下秩	을사	1책	갑진 9월 27일 향회시부터 체인묘를 중수한 을사 6월 2일까지의 사용 내역
19	서원중수일용기 書院重修日用記	을묘	1책	3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일 사용한 비용 내역
20	대고중수도록 大庫重修都錄	계묘	1책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창고 중수시 사용 내역
21	간소도록 刊所都錄	19C	42책	간소(별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월별로 정리
22	식상도록 食床都錄	18~19C	18책	매일 나간 밥상의 수를 정리한 내역
23	유물도록 遺物都錄	19C	35책	매월 삭망에 서원의 유물 수량을 확인한 내역
24	도록 都錄	18~20C	219책	매일 사용한 물품과 금전을 기록한 내역. 향회, 도회, 중건, 천회, 계판, 춘추향례, 원임천망 등 특별한 날에는 별책으로 도록을 작성함
25	하기 下記	19~20C	9책	고지기가 기록한 창고 출입내역과 구인당 중건 당시 행해졌던 사액례, 게액례 당시의 출입 내역 등

도산서원 문헌자료의 현황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임근실(단국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고서
- III. 고문서
- IV. 木板類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도산서원은 영남지역은 넘어 전국의 서원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이라 할 수 있다. 도산서원의 전신은 退溪 李滉(1501~1570)이 문인들과 독서·수양·저술 등 학술 활동을 하였던 陶山書堂이었다.¹²³⁾ 1570년(선조 3) 12월 8일 이항이 사망한 후 그의 學德을 추송하는 서원의 건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574년 이항의 문인들과 유림이 중심이 되어 서원을 창건하였고, 다음 해 賜額을 받음으로써 도산서원은 국가의 공인을 받았다. 도산서원은 이항의 위패를 모시는 尙德祠, 학문을 가르치는 강당인 典教堂, 원생들이 기거하는 동서재와 進道門 등을 건립하였다. 이후 도서를 소장하는 光明室과 책판을 보관하는 藏板閣도 건립되었다. 도산서원에서는 다량의 藏書에 기반하여 학술 활동이 이루어졌고, 자체적인 서적의 편찬과 간행을 통해 지식 생산과 유통에도 영향을 끼쳤다.

조선 후기 도산서원은 지역의 首院으로서 학술 활동을 주관하였고, 수 많은 지식인의 탐방과 기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산서원과 관련한 문헌자료는 여타의 서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가 남아있다. 그러나 도산서원은 비교적 근래까지 광명실에서 자료를 보존하였기에 서원의 문헌자료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2003년에 이르러서 도산서원운영위원회는 향온·향습이 가능한 한국국학진흥원에 도서와 책판을 비롯한 고문헌들을 기탁하였다.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는 고서 4,665책, 고문서 2,152점, 목판류 4,027점, 서화류 13점, 기타 105점 등 모두 10,962점에 달하는 많은 분량이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²⁴⁾

표 1 도산서원 문헌자료 및 유물 기탁 현황

고서	고문서	목판류	서화류	기타	합계
4,665책	2,152점	4,027점	13점	105점	10,962점

123) 도산서당: 이항은 1560년 3칸의 서당이 완성하였고, 이듬해 문인들의 숙소인 隴雲精舍가 완공되자 ‘도산서당’이라는 현판을 걸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124)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해냄, 2021, 10쪽.

이 자료들은 도산서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그리고 약 10여 년의 세월을 걸쳐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도산서원의 문헌 중 지식 생산과 관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물들이 나왔다.¹²⁵⁾ 하지만 도산서원의 방대한 문헌자료는 현재까지도 그 전모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¹²⁶⁾ 이 글에선 도산서원의 문헌자료 중 현존 및 목록상의 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낱장의 고문서 및 成冊 문서, 고도서의 전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원 자체에서 생산한 문헌 및 각판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고서¹²⁷⁾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도산서원의 문헌자료 중 고서는 총 1,026種, 4,665冊이다. 4부 분류법인 經史子集으로 나누면 經部 98종, 史部 161종, 子部 63종, 集部 704종이다. 이를 책수로 나누면 경부 600여 책, 사부 1,100여 책, 자부 400여 책, 집부 2,500여 책으로 집부>사부>경부>자부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판종별로 구분하면, 목판본 2,600여 책, 금속활자본 800여 책, 목활자본 500여 책, 석인본 300여 책 등과 필사본, 신연활자본, 영인본이 일부 확인되었다. 도산서원의 서책 목록인 「光明室傳掌記」과 고서를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구분하면 內賜本, 刊行本, 寄贈本, 求入本, 易東書院 移管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內賜本

내사본은 국왕의 명령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에 頒賜한 서책을 의미한다. 도산서원의 내사본은 모두 30종으로 집계된다. 그중 가장 시기가 빠른 내사본은 조선전기의 『會纂宋岳鄂武牧王精忠錄』이다. 1585년(선조 18) 7월에 국왕 宣祖(1552~1608)는 『會纂宋岳鄂武牧王精忠錄』을 도산서원으로 반사하였다. 선조는 『정충록』외에도 經書를 금속한글활자로 인출한 여러 서적을 반사하였다. 모두 5종으로 『小學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이 선조시대 도산서원에 반사된 경서류이다. 조선후기에는 英祖(1694~1776)와 正祖(1752~1800)가 도산서원으로 서책을 반사하였다. 1774년(영조 50) 3월 24일 국왕 영조는 목판으로 간행된 『聖學十圖』를 도산서원으로 반사하였다. 이후 1793년(정조 17)에는 국왕 정조가 금속활자인 丁酉字로 간행된 四書三經을 도산서원으로 반사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모두 7차례에 걸쳐 도산서원에 서적을 반사하였다. 정조는 1794년에 『朱書百選』, 1796년에 『御定奎章全韻』, 1797년에 『鄉禮合編』, 1798년에 『春秋左氏傳』과 『五經百篇』, 1799년(정조 23) 10월에 朱子の 詩文을 선별하여 간행한 『雅誦』을 반사하였다.

125)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3; 한국국학진흥원,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126) 도산서원의 문헌자료에 대해서는 서지학과 역사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다(裴賢淑,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대동한문학회, 2016;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裴賢淑, 「조선시대(朝鮮時代) 서원(書院) 각판본(刻板本)의 연원(淵源) 연구(研究)」,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裴賢淑,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최우경, 「안동 도산서원 광명실의 장서관리」, 『안동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2021.)

127) 도산서원의 고서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의 도록(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해냄, 2021.) 및 사이트를 주로 참고하고, 이외에도 연구논저(배현숙, 이병훈, 임근실 등)를 참고하였다.

이외에도 도산서원에서 수장한 내사본에는 개인에게 반사한 8종의 서적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주로 도산서원이 설립되었던 16세기 중반의 서적들이다. 먼저, 『儀禮經傳通解』는 1570년 판중추부사로 있던 이항에게 반사한 서적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반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儀禮經傳通解續』도 도산서원에 수장되었다. 그리고 『闕里誌』는 16세기 초 병조판서에게 내사된 서적을 도산서원에서 수장하였다. 『通典』은 1560년 李仲樑(1504~1582)에게 반사된 서적이었고, 『文獻通考』¹²⁸⁾는 1588년에 이증량에게 반사된 서적이 도산서원에 수장되었다. 이외에도 1564년 사헌부지평에게 반사되었던 『大明一統志』도 도산서원 수장본으로 확인되었다. 『대명일통지』는 중국 전역의 서원에 대한 지식정보가 담겨있어 16세기 중반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원을 설립함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서적이었다.¹²⁹⁾ 17세기 향교로 내사된 『孝經大義』도 도산서원에 수장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도산서원 內賜本 목록

	서명	판종	간행시기	수량	비고
1	주자어류	금속활자본 (병자자)	1575년		-「광명실전장기」 내사본 기록 *1575년 내사 *내사인 없음
2	주자대전	금속활자본 (을해자)	1575년		
3	논어집주대전	목판본	<15~16세기>		
4	대학장구대전				
5	성리대전서				
6	시전대전				
7	예기집설대전				
8	중용장구대전				
9	춘추호씨전				
10	서전대전				
11	회찬송악악무목 왕정총록	금속활자본 (재주갑인자)	1585년	(전)6권3책	-1585년 내사 -宣賜之記
12	소학언해	금속활자본 (경자 한글활자)	<1587년>	(전)6권4책	-1588년 내사 -宣賜之記
13	대학언해		<1587~1590년>	(불분권)1책	-1590년 내사 -宣賜之記
14	논어언해			(전)4권4책	-1590년 내사 -宣賜之記
15	맹자언해			(전)14권7책	-내사본 추정
16	중용언해			(불분권)1책	-1590년 내사 -宣賜之記

128) 『문헌통고』: 이증량은 농암 李賢輔(1467~1555)의 넷째 아들이다. 이증량이 반사받은 서적을 이항이 대여하였다가 도산서원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책 속에서 ‘책 주인 영천 이 공간(公幹, 이증량의 字)이 진성(眞城) 이 경호(景浩, 이항의 字)에게 보라고 주다(冊主永陽李公幹 供覽眞城李景浩).’라는 기록이 있었다. 이후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관련 자료를 일괄 기탁하면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관리하였다. 하지만 2022년 도산서원운영위원회와 퇴계종가는 이항이 사망하기 전에 남긴 "빌려온 책은 모두 돌려주라"는 유지를 되새기며 반환을 결정하여 해당 서적은 농암종택으로 반환되었다.

129) 임근실, 『迎鳳志』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서명	판종	간행시기	수량	비고
17	성학십도	목판본	1774년	(불분권)1책	-1774년 내사 -宣賜之記
18	논어집주대전	금속활자본 (정유자)	1793년	(전)20권7책	-1793년 내사 -奎章之寶 -內賜七書
19	맹자집주대전			(전)14권7책	
20	대학장구대전			(불분권)1책	
21	중용장구대전			(불분권)1책	
22	주역전의대전			(전)24권14책	
23	서전대전			(전)10권10책	
24	시전대전			(전)20권10책	
25	주서백선	금속활자본 (정유자)	1794년	(전)6권3책	-1794년 내사 -奎章之寶
26	어정규장전운	목판본	1796년	(전)2권1책	-1796년 내사 -奎章之寶
27	항례합편	금속활자본 (정유자)	1797년	(전)3권2책	-1797년 내사 -奎章之寶
28	춘추좌씨전	목판본 (번각)	<1797~1798년>	(전)27권10책	-1798년 내사 -奎章之寶
29	오경백편	목판본	1798년	(전)5권5책	-1798년 내사 -奎章之寶
30	아송	금속활자본 (임진자)	1799년	(전)8권2책	-1799년 내사 -奎章之寶
31	의례경전통해	금속활자본 (초주갑인자)	<선조연간>	(전)37권20책	-1570년 이항 내사 -宣賜之記
32	의례경전통해속		<선조연간>	(전)27권32책	-내사본 추정
33	궐리지		<16세기 초>	(전)13권13책	-1512년 병조판서 내사 -宣賜之記
34	문헌통고	금속활자본 (갑진자)	1558년	(영본)113책	-1558년 이종량 내사 -宣賜之記
35	통전	금속활자본 (을해자)	<중종연간>	(전)200권75책	-1560년 이종량 내사 -宣賜之記
36	대명일통지			(전)90권60책	-1564년 사헌부지평 내사 -宣賜之記
37	부석음주례주소			(전)42권22책	-宣賜之記
38	효경대의	목판본(번각)	1631년	(불분권)1책	-1631년 향교 내사 -宣賜之記

위 표에서 순번 1~10까지는 「광명실전장기」에 내사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기탁된 실물자료 가운데 내사인이나 내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한 조선시대 도산서원으로 반사된 내사본은 20종 169권 94책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이항과 이종량 등 개인에게 반사된 내사본 8종 411권 356책도 확인되었다.¹³⁰⁾

130)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21, 10~12쪽.

2. 刊行本

조선시대 서원의 여러 기능 중 서책을 간행하는 인쇄·출판의 기능은 도산서원에도 적용되었다. 도산서원은 16세기 후반에서 20세기까지 다양한 서적을 간행하였는데, 주로 性理書와 先賢의 文集을 이었다. 도산서원에서 최초로 간행한 서적은 1576년에 간행한 『宋季元明理學通錄』(목판본)¹³¹⁾이었다. 도산서원의 서적 간행은 16세기 말엽부터 진행하여 1600년에 『啓蒙傳疑』·『眞城李氏族譜』·『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하였다. 도산서원에선 18세기에도 다양한 서적을 간행하였다. 1732년(영조 8)에는 『退溪先生言行錄』, 1734년(영조 10)에는 『朱子書節要』, 1772년(영조 48)에는 『溫溪先生逸稿』 등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적 간행을 이어갔다. 19세기에는 1895년에 『溪山世稿』을 간행하였다. 20세기인 1909년에는 『蒙齋先生遺稿』와 『後溪集』, 1913년에는 『眞城李氏上溪派世譜』, 1914년에는 『陶山及門諸賢錄』, 1937년에는 『松齋先生文集別集』 등을 간행하였다. 아래는 도산서원의 간행 서적이거나, 또는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을 간행연도 순으로 정리한 표이다.¹³²⁾

표 3 도산서원 刊行本 목록

	간행시기	서명	비고
1	1576년	『宋季元明理學通錄』	-간행 -1743년 도산서원 중간
2	1600년	『啓蒙傳疑』	-간행 -1894·1915년 중간
3	1600년	『眞城李氏族譜』	-간행, 오운 발문
4	1600년	『退溪先生文集』	-간행 -1600년(경자) 복각 책판 -1725년(갑진) 중간 -1817년(정축) 보각 -1843년(계묘) 중간
5	1607년	『古鏡重磨方』	-안동부사 정구 및 문인 -도산서원 판각
6	1609년	『經書釋義』	-경상감사 崔瓘의 지원 -도산서원 판각
7	1639년	『恥齋先生遺稿』	-간행
8	1662년	『月川先生文集』	-간행 추정
9	1665년	『聾巖先生文集』	-책판 수장, 『누판고』
10	1732년	『退溪先生言行錄』	-간행 -1867년 중간 -1905년 중간
11	1734년	『朱子書節要』	-간행 -1904년 중간
12	1768년	『誣書辯破錄』	-간행
13	1772년	『溫溪先生逸稿』	-간행

131) 『宋季元明理學通錄』: 이항이 朱熹를 비롯하여 宋·元·明의 성리학자의 略傳과 語錄 등을 간략히 정리한 서적이다.

132)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21, 10~11쪽.

	간행시기	서명	비고
14	1772년	『溪巖先生逸稿』	-간행
15	1783년	『近始齋文集』	-각판, 『누판고』
16	1895년	『溪山世稿』	-판각 추정, 識文
17	19세기	『心經』	-간행, 通文
18	1900년	『松齋先生文集續集』	-간행 추정
19	1909년	『後溪集』	-판각
20	1909년	『蒙齋先生遺稿』	-간행
21	1913년	『眞城李氏上溪派世譜』	-간행
22	1914년	『陶山及門諸賢錄』	-간행
23	1916년 추정	『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간행
24	1922년	『嶠南賓興錄』	-중간 -1792년 경상감영 주관 판각, 도산서원 책판 소장 -1796년 증보
25	1924년	『吾家山誌』	-간행 추정
26	1937년	『松齋先生文集別集』	-간행
27	무인년	『梅花詩』	-戊寅冬陶山書院刊

3. 寄贈本

도산서원의 기증본은 퇴계학파의 지식인들이 기증한 서적이 다수이다. 특히 그들이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로 재임할 때 기증한 서적들이 많았다. 즉, 이항의 문인이나 후인들이 스승의 사상을 계승한 도산서원에 다양한 서적을 기증하여 학파의 인재양성에 기여한 것이다.

먼저, 具鳳齡(1526~1586)¹³³⁾은 1576년(선조 9)에 湖西 監司로 재임시 여러 서적을 도산서원에 기증하였다. 모두 3종으로 『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¹³⁴⁾·『陶淵明集』¹³⁵⁾·『陣法』 등의 서적이었다. 沈義謙(1535~1587)은 1577년 9월에서 1578년까지 湖南 監司로 재임시 성리서를 도산서원에 기증하였다. 모두 2종으로 『近思錄』¹³⁶⁾·『性理遺編』 등인데, 이 서적들은 성리학의 주요한 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서적이었다. 또한 조선 최초의 서원을 설립한 周世鵬(1495~1554)의 문집도 기증되어 도산서원에서 소장하였다. 주세붕의 아들인 周博(1524~1588)¹³⁷⁾은 1581년 겨울에 永川 郡守로 재임시 『武陵雜稿』¹³⁸⁾를 인쇄하여 도산서원에 기증하였다. 이항의 제자였던 金誠一(1538~1593)¹³⁹⁾은 스승의 저술을 도산서원에 기증하였다. 1585년

133) 구봉령: 1545년부터 이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560년 별시 문과 을과로 급제하였다.

134) 『연평답문』: 李楨(1521~1571)이 淸州 牧使로 재임시 이항의 발문을 받아 1554년 겨울에 청주목에서 간행한 서적이다.

135) 『도연명집』: 忠州牧에서 간행한 서적으로, 1522년 7월 충주 목사 朴祥(1474~1530)의 발문이 권말에 있다.

136) 『근사록』: 1519년 여름에 鳳城精舍에서 간행한 것으로, 봉성은 전라남도 구례군의 옛 지명이다.

137) 주박: 周世鵬(1495~1554)의 아들로, 1579년 10월에서 1583년 10월까지 영천 군수로 재임하였다.

138) 『무릉잡고』: 주박이 家藏 草稿를 수합하고, 이항의 質正을 구하여 1564년 醴德 郡守로 재임시 초간본을 간행하였다. 이후 초간본을 원집으로 하고, 초간본에서 지워진 시문을 別集으로 편집하여 1581년 영천에서 중간하였다. 주박이 기증한 『무릉잡고』 제4책의 뒤표지 이면에는 “1581년 겨울에 도산서원에서 인쇄하여 보낸다[是年冬印送于陶山書院].”라는 墨書가 있다(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21, 15쪽.).

139) 김성일: 1583년 8월 26일부터 1586년 11월 12일까지 羅州 牧使를 역임했다. 김성일은 나주에서 五賢을 제향하는 景賢書院을 건립하였다.

김성일은 『退溪雜詠』과 『退陶先生自省錄』을 간행하여 도산서원으로 보냈다. 또 柳雲龍(1539~1601)도 여러 서적을 간행하였는데, 도산서원에도 서적을 기증하였다. 특히 류운룡은 1588년 인동현감으로 부임하여 길재를 제향하는 吳山書院을 건립하고, 書院志인 『吳山志』를 간행하였다. 『오산지』는 퇴계학파의 서원운영론과 道統論이 반영된 서원지였다.¹⁴⁰⁾ 따라서 『오산지』가 도산서원에 기증된 사실을 16세기 퇴계학파에서 서원과 관련한 지식 정보가 서원지를 통해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崔興源(1529~1603), 金富倫(1531~1598), 權文海(1534~1591), 尹根壽(1537~1616), 柳成龍(1542~1607), 沈岱(1546~1592), 金晬(1547~1615) 등 이항의 문인 또는 후학들은 도산서원으로 서적을 기증하였다.

4. 購入本

도산서원에서 구입한 서적은 「광명실전장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구입한 연도의 干支, 買得, 買 등으로 표시하거나 院買得, 院買 등으로 표기했다. 도산서원의 구입본 중 희귀본은 『新增圖像小學日記故事大全』¹⁴¹⁾, 『資治通鑑綱目集覽鐫誤』¹⁴²⁾, 『通典』, 『關里誌』 등으로 전존본이 드물다.

Ⅲ. 고문서¹⁴³⁾

조선시대 도산서원에서는 운영과 관련한 다량의 고문서도 소장하였다. 도산서원의 고문서는 모두 약 28종, 2,129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⁴⁴⁾ 도산서원의 고문서 자료 현황을 정리하면

- 140)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金烏書院과 吳山書院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2015.
- 141) 『신증도상소학일기고사대전』: 도산서원에서 1588년에 구입한 完帙의 『신증도상소학일기고사대전』은 중국본을 16세기에 번각한 것이다. 이 서적은 조선에서는 1566년 錦溪 四字堂에서 간행된 초간본과 16세기와 17세기에 번각한 것이 있는데 현재 초간본과 번각본 모두 전존본이 희귀하다.
- 142) 『자치통감강목집람전오』: 이 서적은 조선 전기 주조된 금속활자인 乙亥字로 인출하였다. 도산서원에서 1754년에 구입하였는데 전존본이 희귀하다.
- 143) 도산서원의 고문서는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의 영인본과 그 해제를 주로 참고하고(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II, 신양사, 1994.),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 144)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간된 『도산서원』(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21, 17쪽.)에서는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2,152점의 고문서를 기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필자가 직접 한국국학진흥원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와는 차이가 있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간된 『도산서원』의 도산서원 고문서 자료를 정리표도 아래에 첨부하였다.

유형	수량(점)	유형	수량(점)	유형	수량(점)
簡札	378	所志	50	族譜	1
告目	9	手標	3	座目	86
關文	12	試卷	14	牒呈	20
其他	3	詩文	9	帖	7
單子	11	完文	6	置簿記	106
望記	223	完議	5	通文	358
明文	38	日記	2	牌旨	13
上疏	1	立案	2	行狀	4
書目	6	節目	7	戶籍	2
成冊	706	祭文	59	笏記	11
합: 2,152점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도산서원 고문서 자료 현황

	유형	수량(점)
1	簡札	395
2	告目	6
3	關文	9
4	其他	14
5	望記	222
6	明文	38
7	物目	2
8	事目	5
9	上疏	1
10	成冊	702
11	所志	43
12	手標	3
13	試卷	14
14	詩文	9
15	完文	5
16	完議	5
17	日記	1
18	立案	2
19	祭文	60
20	座目	83
21	牒呈	20
22	置簿記	105
23	通文	357
24	牌旨	13
25	稟目	1
26	行狀	4
27	戶籍	2
28	笏記	8
		2,129

도산서원의 고문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서는 700여 점인 성책류이다. 성책류에는 「전장기」, 「집사안」, 「심원록」, 「시도기」, 「노비안」, 「일기」, 「전답안」, 「군안」 등이 있다. 다음으로 도산서원에서는 간찰과 통문이 각 300여 점 이상을 수장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망기를 200여 점 이상 수장하고 있었다. 또한 치부기도 100여 점을 수장하였는데, 「노비치부」, 「택일기」, 「추수기」, 「유숙록」, 「서책목록」, 「분배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지는 40여 점인데 대체적으로 서원 소유 노비들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처분의 시정을 관에 진정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원의 노비가 군대로 잘못 편입되면서 서원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유지하는데 지장이 생겼을 것이다. 또한 『퇴계집』의 간행을 위해 관찰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지 등이 있다. 서원의 재산 관리에는 완의, 수표, 명문 등의 고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도산서원에서 수장한 간찰은 300여 점 이상으로 그 중에서는 『도

산급문제현록』의 간행과 관련된 내용, 1901년 도산서원 상덕사에 모셔진 이항의 위판을 도난당한 변고와 관련한 간찰이 다수였다.¹⁴⁵⁾

상소 중에서는 萬人疏로 알려진 1855년 사도세자 추존상소가 도산서원에 수장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추존상소는 李彙炳(1790~1869)을 疏首로 작성된 상소로 그 내용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상소는 연명상소로 총 10,094명의 영남지역 지식인이 참여하였으며, 상소의 전체 길이가 100미터에 근접한다.

도산서원과 관련한 여러 사항이 논의된 통문도 300여 점 이상 수장되어 있었다. 통문은 개인 또는 다른 서원으로부터 도산서원의 받은 것으로 서원의 현안과 관련있었다. 통문의 주제는 서적의 간행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심경』,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과 선현의 文集 및 年譜, 진성이씨 가문의 族譜를 간행하는 현안이 통문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통문 중에선 이휘병의 아들인 이만손과 관련한 주제도 있었다. 상소 중 만인소의 疏頭였던 이휘병의 아들인 李晩孫(1811~1891)은 1881년에 올린 위정척사 만인소의 소두였다. 따라서 이휘병과 이만손 부자는 대를 이어 영남지역 지식인의 대표로 만인소를 올렸고, 그 내용이 통문으로 영남지역 서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통문은 사회적 논쟁에 대한 주제가 많았다. 사회적 논쟁이 되었던 주제는 寒旅是非, 屏虎是非 등이며, 訟事에 관련한 사항도 도산서원에서 공정히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통문이 다수 있었다. 즉, 도산서원이 경상북도의 公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자리매김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이외에도 도산서원의 致祭 및 祭禮와 享禮 등의 의례에 관련한 사항도 통문으로 남아있어, 도산서원의 의례가 지방사회의 공적인 의식이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또 도산서원의 장서 현황과 관리를 알 수 있는 고문서도 확인된다. 성책류 중 「전장기」가 바로 도산서원의 藏書를 기록해놓은 고문서였다. 「藏書置簿」, 「光明室書冊置簿」, 「光明室傳掌記」 등의 表題로 평균 7년 간격으로 새로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년에 4번까지 傳掌을 하였으며, 堂會, 曝曬, 享禮 등의 특정 사항들을 명시하여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서책을 전장할 때에는 서책 전체를 목록화하고 서책의 유무, 유실, 이동, 출처 등의 사항을 서명 아래에 기록하였다. 이 기록들에서 도산서원에서 소장한 서적의 상세한 내력과 서책 관리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도산서원의 書院沿革類 고문서

서원연혁류는 「書院創建年條」, 「陶山書院事蹟」의 2건이 주목된다. 「서원창건연조」는 도산서원을 비롯한 易東書院, 汾江書院, 鄉賢祠의 창건시기, 祭享(主享·從享·配享) 인물, 致祭 등의 사실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역동서원, 분강서원, 淸溪書院 등의 기록을 부기한 이유는 이항이 서원 건립에 대한 의례와 院規의 제정에 깊이 간여한 경우와 제향 인물이 이항의 조부, 부형이거나 제자, 문인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도산서원과 관련이 깊었기 때문이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1781년에서 1785년 사이로 추정되며 문서의 마지막에 1781년(정조 5) 李養鼎의 치제 이후에도 1785년의 賜祭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¹⁴⁶⁾

「도산서원사적」은 1868년(고종 4)에 작성된 문서로 도산서원의 모체이자 이항의 강학처였던 도산서당이 설립된 때로부터 고종 연간의 致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으며, 이외에 이항의 부, 형, 숙부, 조부 등을 모신 啟賢祠, 청계서원, 향현사의 사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145)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21, 17쪽.

146)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 신양사, 1994, 5~6쪽.

2. 도산서원의 運營 고문서

1) 일상[院規類]

서원의 院規는 서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강학 활동, 서원 조직과 운영 등을 조목별로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해당 서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陶山書院規』의 경우는 이를 현판로 만들어 서원의 강당인 典敎堂에 각인하여 게시하였다. 「도산서원규」는 이항이 직접 제정한 「伊山院規」를 모태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남인계 서원의 典範으로 위치하였다. 그리고 원규에 이어서 附記되어 있는 「鄭寒岡論安東鄉校儒生書」는 1607년(선조 7) 한강 鄭述(1543~1620)가 안동 향교의 유생들에게 제시한 글이다. 그 내용은 유생들이 학문을 하면서 지키고 힘써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17세기 향교뿐만 아니라 서원, 사우에서 학업을 연마하는 諸生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도산서원의 「完議」¹⁴⁷⁾와 「節目」¹⁴⁸⁾은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과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서원의 원규가 법률이라면 완의와 절목은 서원을 운영하는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1943년(癸未年) 완의에선 春秋享祀儀禮 및 正謁, 朔望焚香, 財務, 院隸, 田畝 耕作 등의 사항이 주요한 내용이다. 壬寅年 완의에서는 「淸溪書院祭物單子式」이 언급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도산서원에서 청계서원의 운영을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완의는 내용을 많은 부분은 서원의 경제 기반인 田畝와 院隸에 관한 조항이다. 특히 서원의 노비와 전답은 ‘公’의 소유이기에 本孫이라 하더라도 사사로이 취급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원의 藏書도 光明室에 소장된 서책들은 본손이나 사족이 무단으로 대여할 수 없었다. 도산서원의 「式例」¹⁴⁹⁾에선 서원을 찾은 손님의 숙박, 식사, 의복(道袍), 제수비용, 南草[담배] 등에 대한 시행원칙과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다.¹⁵⁰⁾

2) 교육[講錄]

「講會錄」(日記)는 강회의 규정과 절차를 적은 기록으로 원생의 考講을 통해 평가하는 시험의 하나였다. 도산서원의 「강회록」은 1795년(정조 19) 2월 국왕 정조가 도산서원에 『朱書百選』 3책을 하사한 것을 계기로 실시한 강회의 경과와 참여 인원(講長, 聽講, 講生)의 명부를 수록하였다. 「강회일기」는 1854년(철종 4) 강회의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 鄕長들이 12월 15일 강회를 개최하고 강회의 전일부터 마친 17일까지 4일간의 사실을 일기로 기록한 문서이다.¹⁵¹⁾

3) 變故

「記事日記」는 도산서원에 일어난 각종 사건과 그에 대하여 기록한 고문서이다. 「從祀位改題時日記」는 1890년(순조 10) 도산서원에 종향된 趙穆(1524~1606)의 위패를 모신 櫝에서 땀이 발견되어 위패를 새로 제작하게 된 경과를 기록한 일기이다. 「陶山書院庶類事變時日記」는 1884년(고종 21) 서열들이 서원 운영에 참여하고, 평시에도 謁廟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

147) 「완의」: 宗中, 家門, 洞中, 契, 書院·祠宇 등에서 문제를 상의하여 그 합의된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를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148) 「절목」: 완의와 비슷한 성격의 문서이며 규약을 조목별로 간략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49) 「식례」: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약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완의나 절목과도 유사하나 의식주에 관한 사항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50)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 신양사, 1994, 7~8쪽.

151)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 신양사, 1994, 12~13쪽.

하며 일으켰던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¹⁵²⁾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경북 지역 서원 운영의 현실과 신분적 차별이 지속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01년 도산서원 尙德祠에 모셔진 이항의 위패를 도난당했다 환수하여 埋安한 사실을 기록한 3종의 고문서가 있다. 「陶山書院廟變時日記」는 사건의 경위와 대처방안, 군수와 관찰사의 조치, 중앙관청[掌禮院 등]의 지시, 경상도의 여러 門中과 鄉校·書院, 전국 유림의 대응과 扶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일기엔 「廟變後儀節」이 부기되어 있어 사건 후 임시 紙牌를 제작하여 봉안하는 의식 절차, 새로 제작한 위패를 봉안하는 의식 절차, 위패의 척도, 제수품 등을 알 수 있다. 「陶山書院復室時張華植在京日記」는 당시 경성에서 소식을 접한 副領 장화식이 황실과 중앙관청, 도산서원 및 관찰사의 사이에서 復室하기 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舊位版埋安時日記」는 전년도에 도난당한 이항의 위패를 발견하여 이를 埋安하기 까지의 과정을 기록하였다.¹⁵³⁾

4) 刊行

「及門錄營刊時日記」는 1913년 4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기존에 전해지던 「陶山及門諸賢錄」을 1冊으로 묶으면서 원고를 교감한 사실을 기록한 일기이다. 다만, 이 일기는 6월 13일 이후부터 결락되어 교감 이후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 사항을 알 수 없다.¹⁵⁴⁾

3. 도산서원의 儀禮[儀節, 笏記, 陳設圖] 고문서

서원은 「儀節」¹⁵⁵⁾과 「笏記」¹⁵⁶⁾를 제정하여 의식을 거행할 때 반드시 미리 정해놓은 격식에 따라 시행하였다. 도산서원의 의례류 고문서들은 總則, 取士, 薦望, 傳掌, 香謁, 正謁, 享禮, 堂會, 財政, 文簿, 報酬, 給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산서원은 이항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국왕이 직접 제문을 지어 학덕과 덕망을 기리는 致祭가 거행된 곳이었다. 치제는 국왕이 예조의 禮官을 보내 제사를 거행하였으나, 국왕이 직접 참석하는 의례와 같이 그 절차가 엄격하였다. 이러한 의식절차가 기록된 문서가 致祭儀, 致祭文, 賜祭文, 賜祭日記, 賜祭笏記 등이다. 도산서원의 치제는 광해군 시대부터 숙종 시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賜祭는 덕망있는 신하가 사망한 후나 그 忌日에 국왕이 예관을 보내어 香과 祭文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그를 추모하는 의례로 치제와 비슷하다. 다만, 사제 및 치제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개 치제는 家廟에서, 賜祭는 서원의 祠廟에서 의례가 행해질 때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⁵⁷⁾

도산서원의 「사제일기」에는 일기 이외에도 사제문, 고유문, 홀기, 의절, 執事, 有司分定, 參班本孫錄, 진설도 등의 기록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도산서원의 「사제일기」는 ①1614년(萬曆 42, 甲寅, 광해군 6년 12월) ②1733년(雍正 11년, 癸丑, 영조 9년 12월) ③1756년(乾隆 21년, 丙子, 영조 32년 정월) ④1781년(乾隆 46년, 辛丑, 정조 5년) ⑤1785년(건륭 50년, 乙巳, 정조 9년 2월) ⑥1792년(乾隆 57년, 壬子, 정조 16년 3월) ⑦1796년(嘉慶 1년, 丙辰, 정조 20

152) 이 사건을 기록한 일기는 모두 세 책이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乙酉院事轉末」, 「甲申日記」, 「陶山書院庶類事變時日記」로 내용이 동일하여 초고, 수정, 정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53)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 신양사, 1994, 13~14쪽.

154)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 신양사, 1994, 14쪽.

155) 「의절」: 의식과 사무에 대하여 관장하는 주체, 일의 내용, 절차를 기록한 문서.

156) 「홀기」: 告由, 享禮, 鄉飲酒禮 등 의식의 순서를 기록한 문서.

157)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 신양사, 1994, 9~12쪽.

년 9월) ⑧1816년(崇禎 189년, 丙子, 순조 16년 8월) ⑨1839년(道光 19년, 己亥, 헌종 5년 12월) 등에 작성된 9종 등이 있다.

4. 修理

도산서원은 서원의 주요 건축물과 부속 건물이 끊임없이 修理, 重修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을 도산서원에서는 여러 건의 「修理日記」를 통해 남겨 후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략 15건의 「수리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건물뿐만아니라 창건일기, 川防·道路 등을 수리한 기록도 있다. ①「廟宇修理時日記」(1753년 癸酉, 7월) ②「雲影臺川防時日記」(1826년 丙戌, 3월) ③「廟宇修理日記」(1835년 乙未, 7월) ④「典教堂重修日記」(1836년 丙申, 7월) ⑤「廟宇重修時日記」(1862년 壬戌, 11월) ⑥「廟宇修理時日記」(1901년 辛丑, 3월) ⑦「巖棲軒修理時日記」(1929년 己巳, 秋) ⑧「谷口道路修繕時日記」(1931년 辛未, 5월) ⑨「隴雲精舍重修時日記」(1932년 壬申, 정월) ⑩「講廳重建時日記」(1933년 癸酉, 8월) ⑪「東西齋重建時日記」(1934년 甲戌, 3월) ⑫「西光明室創建日記」(1939년 己卯, 2월) ⑬「廟階磚石改築時日記」(1956년 檀紀4289) ⑭「廟宇重建時日記」(1959년 己亥, 10월) ⑮「尙德祠改築日記」(1963년 癸卯, 3월) 등이다.

표 5 도산서원 修理日記 목록

	일기명	작성시기
1	「廟宇修理時日記」	1753년 癸酉, 7월
2	「雲影臺川防時日記」	1826년 丙戌, 3월
3	「廟宇修理日記」	1835년 乙未, 7월
4	「典教堂重修日記」	1836년 丙申, 7월
5	「廟宇重修時日記」	1862년 壬戌, 11월
6	「廟宇修理時日記」	1901년 辛丑, 3월
7	「巖棲軒修理時日記」	1929년 己巳, 秋
8	「谷口道路修繕時日記」	1931년 辛未, 5월
9	「隴雲精舍重修時日記」	1932년 壬申, 정월
10	「講廳重建時日記」	1933년 癸酉, 8월
11	「東西齋重建時日記」	1934년 甲戌, 3월
12	「西光明室創建日記」	1939년 己卯, 2월
13	「廟階磚石改築時日記」	1956년 檀紀4289
14	「廟宇重建時日記」	1959년 己亥, 10월
15	「尙德祠改築日記」	1963년 癸卯, 3월

이상의 수리일기를 통해 도산서원의 건물을 수리할 때 착공하는 과정 및 시행 절차, 서원의 인력, 공사 자재, 官·軍·民의 지원 등을 알 수 있다. 시행과정에선 관가에 報狀을 제출하고, 위패를 移安·還安하며 告由祭를 시행하였다. 또한 서원의 역사엔 官에선 軍丁으로 돕고, 서원 인근의 민들도 부역을 나가서 200~300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¹⁵⁸⁾

158)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 신양사, 1994, 15~18쪽.

IV. 木板類

도산서원에서 다량의 목판도 소장하였다. 도산서원에서는 고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였고, 그 다음으로 목판의 수량이 많았다. 도산서원의 목판류는 책판, 시판, 현판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모두 4,027점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도산서원의 목판이 등재되었는데, 2015년 유교책판의 일부로 모두 31종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¹⁵⁹⁾

표 6 도산서원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판 목록

	목판명	저자/(편자)	판각시기
1	易學啓蒙傳疑	이황(편)	1657년
2	溪山世稿	이안도(편)	1824
3	古鏡重磨方	이황(편)	1744
4	嶠南賓興錄	이만수(편)	1792
5	陶山及門諸賢錄	도산서원/권두경	1854
6	陶山十二曲	이황	1601
7	蒙齋先生遺稿	이안도	1909
8	誣書辨破錄	미상	18세기 이전
9	宋季元明理學通錄	이황(편)	1576
10	松齋先生文集別集	이우	1937
11	松齋先生詩集	이우	1584
12	吾家山誌	이황/이만여(편)	1924
13	溫溪先生逸稿	이해	1772
14	雲巖逸稿	김연	1783
15	月川先生文集	조목	1666
16	朱子書節要	이황(편)	1743
17	眞城李氏族譜	진성이씨	1600
18	恥齋先生遺稿	홍인우	1639
19	退溪先生文集(甲辰重刊本)	이황	1904
20	退溪先生文集(庚子本)	이황	1600
21	退溪先生文集(庚子本)別集	이황	1732
22	退溪先生世系圖①	진성이씨	
23	退溪先生世系圖②	진성이씨	
24	退溪先生續集	이황	1905
25	退溪先生言行錄①	이수연(편)	1867
26	退溪先生言行錄②	이수연(편)	1905
27	退溪先生年譜①	류성룡(편)	1781
28	退溪先生年譜②	류성룡(편)	
29	退溪先生外集	이황	1834
30	退溪先生自省錄	이황	1585
31	後溪集	이이순	1840

159)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21, 19~20쪽.

V. 맺음말

도산서원은 조선의 首院으로 학문과 교육에 있어 단연 조선을 선도하였다.¹⁶⁰⁾ 도산서원은 다량의 장서를 기반으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산서원은 자체적으로 서적을 편찬하고 판각하는 인쇄·출판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퇴계학파 지식인들이 다량의 서적을 도산서원에 기증하였다. 즉, 퇴계학파의 지식인들은 스승을 제향하는 서원에 지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서적을 기증하여 후학의 강학활동을 도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서적들 중에선 퇴계학파의 서원운영론과 도통론이 반영된 서원지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영남지역의 지식인들은 서원과 관련한 지식정보를 서원지를 통해 유통하여 전파한 사실도 도산서원의 장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도산서원은 운영과 관련한 여러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한 고문서도 여타 서원에 비해 엄청난 양을 수장하였다.

이러한 도산서원의 고도서와 고문서의 현황을 감안한다면 아카이브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도산서원의 실상과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문헌자료의 전모를 확인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재 도산서원의 문헌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기탁 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은 도산서원의 문헌자료를 목록화하고, 주요한 자료는 이미지 촬영, 탈초 및 해제, 국역하여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¹⁶¹⁾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중 도산서원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선 한국국학진흥원과의 긴밀한 연계가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160) 배현숙, 「도산서원 刻板활동 연구」, 『동아시아 서원 아카이브와 지식 네트워크』, 온샘, 2022, 138쪽.

161) 기록유산의 총아, 고도서(<https://book.ugyo.net/>);

만인소(<https://maninso.ugyo.net/kr/index.do>);

목판아카이브(<https://mokpan.ugyo.net/index.do>);

선인들의 일상생활, 일기(<https://diary.ugyo.net/>);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front/index.do>);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https://life.ugyo.net/search.do>);

옛 일상 속 인간관계(<https://doc.ugyo.net/>).

참고문헌

-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II, 신양사, 1994.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아시아 서원 아카이브와 지식 네트워크』, 온샘, 2022.
-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해냄, 2021.
- 한국국학진흥원, 『陶山書院 古典籍』, 성심, 2006.
-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한국 정신문화를 이어오다』, 성심, 2019.
-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3.
- 한국국학진흥원,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 裴賢淑, 「조선시대(朝鮮時代) 서원(書院) 각판본(刻板本)의 연원(淵源) 연구(研究)」,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 ,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 ,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대동한문학회, 2016.
- ,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 ,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이우진,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 ,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金烏書院과 吳山書院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2015.
- , 「『迎鳳志』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 ,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전배배, 「디지털 인문학 관점에서의 서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초보적 연구」,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 조국권, 「‘중문’의 시각에서 본 양송시기 서원의 도서관행에 대한 고찰」, 『한국서원학보』 5, 한국서원학회, 2017.
- 최우경, 「안동 도산서원 광명실의 장서관리」, 『안동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2021.
- 편집부, 「도산서원 장서목록」, 『語文學』 1, 한국어문학회, 1956.
- 기록유산의 총아, 고도서(<https://book.ugyo.net/>)
- 만인소(<https://maninso.ugyo.net/kr/index.do>)
- 목판아카이브(<https://mokpan.ugyo.net/index.do>)
- 선인들의 일상생활, 일기(<https://diary.ugyo.net/>)
-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front/index.do>)
-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https://life.ugyo.net/search.do>)
- 옛 일상 속 인간관계(<https://doc.ugyo.net/>)

※ 부록

도산서원 문헌자료 목록의 서지 사항은 『陶山書院 古典籍』을 주로 활용하여 정리하였다.¹⁶²⁾ 도산서원 자료의 서지사항과 원본의 이미지 파일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소장자료 검색서비스(<https://search.koreastud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산서원의 자료의 해제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전통문화콘텐츠 사이트들을 참고할 수 있다. 물론 도산서원의 전체 자료에 대한 해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분야별로 해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산서원의 고도서 자료 중 일부(문집류)는 ‘기록유산의 총아, 고도서(<http://book.ugyo.net>)’에서 상세한 해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서명별, 저자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검색을 통해 찾을 수도 있다.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는 이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산서원의 고문서 자료 중 일부(약 612건)는 ‘옛 일상 속 인간관계(<https://doc.ugyo.net/>)’ 사이트에서 상세한 해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분류별(치부기류, 교령류, 명문·문기류, 사목·절목류, 서간·통고류, 소·차·계·장류, 시문·기록류, 증빙류, 첩·관·통보류 등), 시대별, 발급자별, 수급자별, 서명별 등으로 카테고리화 하였다. 또한 웹서비스하고 있는 자료는 자료의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http://life.ugyo.net>)’에서도 도산서원의 고문서 중 일부의 해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인소에 대한 자료는 ‘만인소(<http://maninso.ugyo.net>)’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일기류의 일부는 ‘선인들의 일상생활, 일기(<http://diary.ugyo.net>)’에서 서지에 대한 해제와 자료의 이미지, 원문 텍스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도산서원 고서 목록 [1,026종]

	유형	수량(종)
1	經部	98
2	史部	161
3	子部	63
4	集部	704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	----	------	-----	-------	-----	----	----

1. 經部 [98종]

1	고서	經	中庸章句大全	중용장구대전	朱熹 章句	1	34.3×21.8cm
2	고서	經	中庸章句大全	중용장구대전	朱熹 章句	1	34.4×21.4cm
3	고서	經	中庸章句大全	중용장구대전	朱熹 章句	1	34.2×21.4cm
4	고서	經	中庸章句大全	중용장구대전	朱熹 章句	1	35.3×22.4cm
5	고서	經	中庸諺解	중용언해	宣祖 命撰	1	35.8×22.9cm
6	고서	經	中庸諺解	중용언해	宣祖 命撰	1	34.6×22.3cm
7	고서	經	中庸講解錄	중용강해록	金德峻 著	1	28.6×19.3cm
8	고서	經	五經百篇	오경백편	內閣(朝鮮) 編	5	42.0×25.5cm

162) 한국국학진흥원, 『韓國國學振興院所藏 國學資料 目錄集 6) 陶山書院 古典籍』, 성심, 2006.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9	고서	經	儀禮	의례		2	36.0×23.0cm
10	고서	經	儀禮	의례		2	36.8×23.0cm
11	고서	經	儀禮圖	의례도		8	36.8×23.0cm
12	고서	經	儀禮圖	의례도		8	36.0×23.0cm
13	고서	經	儀禮經傳通解	의례경전통해	朱熹宋 著	20	36.5×23.0cm
14	고서	經	儀禮經傳通解續	의례경전통해속	黃幹宋 著	32	36.2×22.8cm
15	고서	經	古今韻會舉要	고금운회거요	黃公紹 著	11	25.7×17.0cm
16	고서	經	古今韻會舉要	고금운회거요	黃公紹 著	8	26.3×17.5cm
17	고서	經	周易傳義大全	주역전의대전	胡廣明 等 著	14	34.3×21.8cm
18	고서	經	周易傳義大全	주역전의대전	胡廣明 等 著	13	32.8×21.5cm
19	고서	經	周易傳義大全	주역전의대전	胡廣明 等 著	12	34.2×22.0cm
20	고서	經	周易傳義大全	주역전의대전	胡廣明 等 著	11	32.9×21.6cm
21	고서	經	周易傳義集解	주역전의집해	朴?鎭 編, 朴昌宇 撰集	3	28.6×19.3cm
22	고서	經	周易大文	주역대문		1	36.2×23.3cm
23	고서	經	四禮問答	사례문답	金應祖 著	2	31.6×20.0cm
24	고서	經	四禮纂說	사례찬설	李巖 著	4	30.6×20.0cm
25	고서	經	四禮輯要	사례집요	權萬斗 著	2	31.5×21.0cm
26	고서	經	大學或問	대학혹문	朱熹 著	1	35.0×22.5cm
27	고서	經	大學或問	대학혹문	朱熹 著	1	34.3×21.5cm
28	고서	經	大學章句大全	대학장구대전	朱熹 著	1	35.0×21.5cm
29	고서	經	大學章句大全	대학장구대전	朱熹 著	1	34.7×22.0cm
30	고서	經	大學章句大全	대학장구대전	朱熹 著	1	34.3×21.9cm
31	고서	經	大學章句大全	대학장구대전	朱熹 著	1	35.3×22.0cm
32	고서	經	大學章句大全	대학장구대전	朱熹 著	1	34.2×21.0cm
33	고서	經	大學章句大全	대학장구대전	朱熹 著	1	34.3×21.2cm
34	고서	經	大學章句大全	대학장구대전	朱熹 著	1	33.7×21.3cm
35	고서	經	大學箴	대학잠	柳崇祖 著	1	33.2×21.0cm
36	고서	經	大學箴	대학잠	柳崇祖 著	1	31.3×20.6cm
37	고서	經	大學衍義	대학연의	眞德秀 著	13	30.2×20.7cm
38	고서	經	大學諺解	대학언해		1	34.4×22.8cm
39	고서	經	大學諺解	대학언해		1	36.0×22.8cm
40	고서	經	大廣益會玉篇	대광익회옥편	陳彭年 著	3	34.5×21.4cm
41	고서	經	字彙	자휘		8	29.7×19.8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42	고서	經	孝經大義	효경대의	朱熹 著	1	33.3×21.6cm
43	고서	經	孟子或問	맹자혹문	張元禎 著	1	34.6×21.2cm
44	고서	經	孟子諺解	맹자언해		7	34.2×22.7cm
45	고서	經	孟子諺解	맹자언해		7	35.8×23.2cm
46	고서	經	孟子集註大全	맹자집주대전		7	34.5×21.9cm
47	고서	經	孟子集註大全	맹자집주대전		7	32.7×21.6cm
48	고서	經	孟子集註大全	맹자집주대전		7	32.9×21.8cm
49	고서	經	孟子集註大全	맹자집주대전		6	34.2×21.6cm
50	고서	經	家禮集解	가례집해	辛夢參 編, 辛夢參 著	5	29.8×19.2cm
51	고서	經	小學章句	소학장구	柳徽文 編	5	32.3×21.8cm
52	고서	經	小學諺解	소학언해		4	35.9×23.0cm
53	고서	經	小學集說	소학집설	程愈 編	4	30.6×21.5cm
54	고서	經	小學集說	소학집설	程愈 編	4	31.3×21.2cm
55	고서	經	小學集說	소학집설	程愈 編	4	35.2×21.5cm
56	고서	經	常變通攷	상변통고	柳長源 著	16	31.1×21.1cm
57	고서	經	御定奎章全韻	어정규장전운	正祖 命撰	1	31.4×20.4cm
58	고서	經	文公家禮儀節	문공가례의절	丘濬 撰	3	31.9×19.7cm
59	고서	經	新增圖像小學日記故事大全	신증도상소학일기고사대전	??老農 著	4	31.2×21.0cm
60	고서	經	易學啓蒙覆繹	역학계몽복역	金宏弼 著	4	32.5×21.5cm
61	고서	經	易解參攷	역해참고	柳正源 著	10	31.2×20.7cm
62	고서	經	春秋左氏傳	춘추좌씨전	左丘明周 撰	10	35.3×22.7cm
63	고서	經	春秋胡氏傳	춘추호씨전	胡安國 著	8	33.5×21.4cm
64	고서	經	春秋胡氏傳	춘추호씨전	胡安國 著	8	34.3×22.0cm
65	고서	經	春秋胡氏傳	춘추호씨전	胡安國 著	8	33.4×21.3cm
66	고서	經	春秋胡氏傳	춘추호씨전	胡安國 著	8	32.3×21.6cm
67	고서	經	書傳大全	서전대전		9	33.1×21.9cm
68	고서	經	書傳大全	서전대전		9	32.8×21.4cm
69	고서	經	書傳大全	서전대전		9	32.8×21.4cm
70	고서	經	書傳大全	서전대전		10	34.4×21.8cm
71	고서	經	書傳大文	서전대문		2	34.4×22.8cm
72	고서	經	書傳正文	서전정문		2	27.6×19.5cm
73	고서	經	書傳諺解	서전언해		4	34.3×21.0cm
74	고서	經	洪範衍義	홍범연의	李徽逸·李玄逸 著	13	31.5×21.5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75	고서	經	續大學或問	속대학혹문	李彦迪	1	34.0×21.3cm
76	고서	經	訓蒙易義	훈몽역의	申弼貞 著	6	31.7×21.5cm
77	고서	經	詩傳大全	시전대전		10	34.4×21.9cm
78	고서	經	詩傳大全	시전대전		9	33.5×21.6cm
79	고서	經	詩傳大全	시전대전		9	32.3×21.5cm
80	고서	經	詩傳大全	시전대전		9	32.7×21.5cm
81	고서	經	詩傳大全	시전대전		9	32.4×21.6cm
82	고서	經	詩經諺解	시경언해	宣祖 命編	7	34.3×20.9cm
83	고서	經	鄉校禮輯	향교례집	楊兆坊 等 著	5	33.9×22.3cm
84	고서	經	鄉禮合編	향례합편	李秉模 等 著	2	34.7×22.3cm
85	고서	經	附釋音周禮註疏	부석음주례주소	鄭玄 註	22	31.9×19.6cm
86	고서	經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林梅谿 著	17	30.2×17.5cm
87	고서	經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5	25.6×15.4cm
88	고서	經	論語或問	논어혹문		4	35.0×21.5cm
89	고서	經	論語諺解	논어언해		4	35.5×22.5cm
90	고서	經	論語諺解	논어언해		4	34.5×22.5cm
91	고서	經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7	33.5×21.9cm
92	고서	經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7	34.0×21.8cm
93	고서	經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7	33.8×23.0cm
94	고서	經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7	33.0×21.3cm
95	고서	經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7	34.4×21.8cm
96	고서	經	禮記集說大全	예기집설대전	陳澧 著	15	33.8×21.7cm
97	고서	經	禮記集說大全	예기집설대전	陳澧 著	15	33.6×21.4cm
98	고서	經	禮記集說大全	예기집설대전	陳澧 著	17	34.2×21.3cm

2. 史部 [161종]

1	고서	史	三仁事蹟	삼인사적	金澍 等 著	1	30.3×20.2cm
2	고서	史	三仁事蹟	삼인사적	金澍 等 著	1	30.3×20.2cm
3	고서	史	三憂堂文先生實記	삼우당문선생실기	文益漸 著	2	31.7×21.3cm
4	고서	史	五峯先生實紀	오봉선생실기	權策 著	1	30.5×19.6cm
5	고서	史	仙巖實紀	선암실기	李儼 著	1	28.8×19.5cm
6	고서	史	伊洛淵源二錄	이락연원이록	楊方震(明) 著	5	31.1×20.7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7	고서	史	佔畢齋金先生門人錄	점필재금선생문인록	金紐 著	2	29.9×19.9cm
8	고서	史	先生手蹟	선생수적	李滉 著	5	36.5×24.8cm
9	고서	史	先生文集改刊日記	선생문집개간일기		1	32.1×23.1cm
10	고서	史	光山李氏淵源錄	광산이씨연원록	李弘器 等 著	3	31.2×21.0cm
11	고서	史	克明堂先生實紀	극명당선생실기	張乃範 著	1	31.5×21.0cm
12	고서	史	凝溪先生實紀	응계선생실기	玉沾 著	1	31.5×20.4cm
13	고서	史	前漢書	전한서	班固漢 著	16	34.2×21.4cm
14	고서	史	卓隱三世忠孝誌	탁은삼세충효지	張星五 著	1	31.6×20.7cm
15	고서	史	厖村先生實紀	방촌선생실기	黃喜 著	2	32.7×22.0cm
16	고서	史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고금력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	余進明 編	6	36.0×22.4cm
17	고서	史	古今歷代標題十九史略通攷	고금역대표제십구사략통고	曾先之(元) 編	2	30.9×21.0cm
18	고서	史	古溪亭實記	고계정실기	李宅鎭 著	1	29.1×18.8cm
19	고서	史	合湖書院誌	합호서원지	安承憲 等 編	1	28.5×19.0cm
20	고서	史	同春堂先生年譜	동춘당선생연보		2	30.4×20.0cm
21	고서	史	咸安鳳鳴亭記事	함안봉명정기사	趙瓚奎 等 編	1	26.6×18.4cm
22	고서	史	國望峰志	국망봉지	李和聖 編	1	29.5×19.5cm
23	고서	史	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	申叔舟·姜希孟 等 編	6	34.0×21.6cm
24	고서	史	國朝五禮序例	국조오례서례	申叔舟·姜希孟 等 編	2	33.9×21.5cm
25	고서	史	國朝京省分郡人物考	국조경성분군인물고	成山先生 著	80	25.8×16.9cm
26	고서	史	塤簞兩先生語錄	훈지양선생어록	鄭萬陽·鄭葵陽 著	2	29.2×20.6cm
27	고서	史	增修附註資治通鑑節要續編	증수부주자치통감절요속편	劉剡 編	15	33.8×21.5cm
28	고서	史	增修附註資治通鑑節要續編	증수부주자치통감절요속편	劉剡 編	15	32.7×21.0cm
29	고서	史	增修附註資治通鑑節要續編	증수부주자치통감절요속편	劉剡 編	8	36.0×22.0cm
30	고서	史	墨溪先生實記	묵계선생실기	柳復立 著	1	31.8×21.0cm
31	고서	史	大明一統志	대명일통지	李賢明 等 著	60	33.8×21.5cm
32	고서	史	大明一統志	대명일통지	李賢明 等 著	51	32.2×20.7cm
33	고서	史	奉修齋實紀	봉수재실기	李聖宅 著	1	30.0×20.4cm
34	고서	史	孝行錄	효행록	權近 編	1	30.8×21.2cm
35	고서	史	守分窩實紀	수분와실기	金九成 著	1	29.6×19.9cm
36	고서	史	守岡亭實紀	수강정실기	金時翕 著	1	29.2×19.8cm
37	고서	史	守默齋先生實紀	수묵재선생실기	朴成敏 著	1	31.1×21.2cm
38	고서	史	寒岡先生言行錄諺條辨破錄	한강선생언행록류조변파록		1	29.2×20.3cm
39	고서	史	寶白堂先生實紀	보백당선생실기	金係行 著	2	32.1×21.0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40	고서	史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	江贊 著	17	33.7×22.5cm
41	고서	史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	江贊 著	12	32.2×22.3cm
42	고서	史	尙賢錄	상현록	禹宅準 等 編	1	31.4×21.0cm
43	고서	史	尙賢錄	상현록	禹師德 等 編	1	30.5×20.5cm
44	고서	史	師門手簡	사문수간	李滉 著	7	40.8×27.2cm
45	고서	史	帽巖實紀	모암실기	朴始淳 著	1	29.5×20.5cm
46	고서	史	弘窩先生實記	홍와선생실기	盧士豫 著	1	31.8×21.9cm
47	고서	史	後漢書	후한서	范曄 著	32	31.3×19.6cm
48	고서	史	德川通文	덕천통문		1	29.4×19.8cm
49	고서	史	忠烈錄	충열록	朴承宗 編	1	32.5×20.7cm
50	고서	史	思庵實記	사암실기	千萬里 著	2	29.6×20.9cm
51	고서	史	思復齋先生實記	사부재선생실기	權泰春 等 編	1	30.6×20.5cm
52	고서	史	惟一齋先生實紀	유일재선생실기	金彦璣 著	1	32.0×21.2cm
53	고서	史	愚齋孫先生實紀	우재손선생실기	孫仲墩 著	1	30.6×19.7cm
54	고서	史	懲毖錄	징비록	柳成龍 著	5	31.5×19.9cm
55	고서	史	攷血錄	문혈록	洪重明 著	1	31.3×20.2cm
56	고서	史	挽祠	만사		1	30.6×20.3cm
57	고서	史	敬庵許文敬公遺事	경암허문경공유사	許稠 著	1	28.0×16.8cm
58	고서	史	敬齋先生實紀	경재선생실기	洪魯 著	1	31.7×21.2cm
59	고서	史	文元公晦齋先生年譜	문원공회재선생연보	李浚 編	1	32.5×20.5cm
60	고서	史	文獻通考	문헌통고	馬端臨 著	133	30.4×19.3cm
61	고서	史	新增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	李荇 等 著	25	33.4×21.7cm
62	고서	史	昊亭先生實紀	호정선생실기	金世良 著	1	31.0×20.9cm
63	고서	史	昌臺鄭公實紀	창대정공실기	鄭大任 著	1	29.2×20.2cm
64	고서	史	明川孝行錄	명천효행록	呂相琪 編	1	29.6×20.4cm
65	고서	史	春堂先生遺事	춘당선생유사	卞仲良 著	1	31.1×20.0cm
66	고서	史	味軒先生實記	매헌선생실기	權伯麟 著	1	30.4×20.6cm
67	고서	史	晉書	진서	房玄齡 等 著	43	32.9×21.7cm
68	고서	史	晦軒先生實紀	회헌선생실기	安珦 著	3	29.8×20.5cm
69	고서	史	景賢續錄增補	경현속록증보	金宏弼 著	1	30.0×19.9cm
70	고서	史	景賢錄	경현록	金宏弼·曹偉 著	1	33.3×21.5cm
71	고서	史	景賢錄	경현록	金宏弼 著	3	31.5×20.7cm
72	고서	史	晴暉堂先生實紀	청휘당선생실기	李承 著	1	31.5×21.2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73	고서	史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	李山海(朝鮮) 編	3	37.3×22.8cm
74	고서	史	月峯先生實紀	월봉선생실기	李廷賢 著	1	31.0×21.3cm
75	고서	史	月峯先生實記	월봉선생실기	方智 著	1	30.0×20.4cm
76	고서	史	朝鮮史	조선사	金暲中 著	16	24.2×15.9cm
77	고서	史	木齋家塾彙纂麗史	목재가숙휘찬려사	洪汝河 著	8	31.1×20.8cm
78	고서	史	木齋家塾彙纂麗史	목재가숙휘찬려사	洪汝河 著	15	31.3×20.9cm
79	고서	史	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	목재가숙동국통감제강	洪汝河 著	7	29.2×19.1cm
80	고서	史	朱子實紀	주자실기	戴銑 編	5	34.8×21.8cm
81	고서	史	朴孝娘實紀	박효랑실기		1	25.8×18.1cm
82	고서	史	杏亭先生實記	행정선생실기	權軾 著	1	28.8×19.7cm
83	고서	史	東國十志	동국십지	裴象鉉 著	3	30.4×20.0cm
84	고서	史	東國通鑑	동국통감	受命 編, 徐居正 等 著	32	34.3×22.1cm
85	고서	史	東萊先生音註唐鑑	동래선생음주당감	范祖禹 撰	5	34.5×22.2cm
86	고서	史	東萊先生音註唐鑑	동래선생음주당감	范祖禹 撰	5	36.1×22.7cm
87	고서	史	桃村先生實記	도촌선생실기	李秀亨 著	1	31.3×21.1cm
88	고서	史	梧泉實紀	오천실기	金奭鎭 著	1	29.0×18.4cm
89	고서	史	正氣錄	정기록	高由厚 編, 高敬命 等 著	1	32.3×21.1cm
90	고서	史	永慕亭誌	영모정지	金哲麟 著	1	30.0×19.9cm
91	고서	史	河陽許氏譜系辨證	하양허씨보계변증		1	32.0×21.7cm
92	고서	史	海藏實紀	해장실기	高彦伯 著	1	30.1×21.2cm
93	고서	史	淸安李氏忠義錄	청안이씨충의록	李應春 等 著	1	27.9×19.5cm
94	고서	史	淸遠亭考證	청원정고증		1	30.1×20.5cm
95	고서	史	淸香堂先生實紀	청향당선생실기	李源 著	1	32.3×21.0cm
96	고서	史	淸齋先生實紀	청재선생실기	朴審問 著	1	31.0×21.4cm
97	고서	史	渾溪先生言行錄	혼계선생언행록	李琯 著	1	34.2×21.8cm
98	고서	史	湖叟鄭先生實紀	호수정선생실기	鄭世雅 著	2	29.8×19.4cm
99	고서	史	湖叟鄭先生實紀	호수정선생실기	鄭世雅 著	2	29.8×19.3cm
100	고서	史	潛窩先生實紀	잠악선생실기	崔震立 著	2	31.7×20.2cm
101	고서	史	濯淸軒先生實紀	탁청헌선생실기	郭永甲 編, 郭? 著	1	30.0×19.5cm
102	고서	史	皇朝名臣言行錄	황조명신언행록	朱熹 等 著	21	31.9×21.6cm
103	고서	史	眉叟許先生年譜	미수허선생연보	許磊 編	1	32.1×21.7cm
104	고서	史	眉叟許先生年譜	미수허선생연보	許磊 編	1	32.0×21.2cm
105	고서	史	眞寶李氏上溪派世譜	진보이씨상계파세보		4	33.6×22.0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106	고서	史	眞寶李氏世譜	진보이씨세보		19	33.6×22.0cm
107	고서	史	眞寶李氏世譜	진보이씨세보		29	33.5×22.1cm
108	고서	史	秋淵先生癸甲日錄	추연선생계갑일록	禹性傳 著	2	31.5×21.7cm
109	고서	史	竹林先生實紀	죽림선생실기	權山海 著	1	31.3×21.1cm
110	고서	史	芝山先生實紀	지산선생실기	李芸 著	1	30.6×20.8cm
111	고서	史	芝峯先生實紀	지봉선생실기	皇甫仁 著	1	33.4×21.7cm
112	고서	史	英陽金氏世譜	영양김씨세보		2	33.5×22.5cm
113	고서	史	英陽金氏世譜	영양김씨세보		5	30.5×20.7cm
114	고서	史	英陽金氏源石合編	영양김씨원석합편	金昌鉉·金聲漢·金源伯 著	1	29.2×19.5cm
115	고서	史	菊潭先生追先錄	국담선생추선록	朴壽春 著	1	31.7×21.3cm
116	고서	史	菊潭先生追先錄	국담선생추선록	朴壽春 著	1	32.3×21.1cm
117	고서	史	葛川先生年譜	갈천선생연보		1	28.2×18.4cm
118	고서	史	褒忠祠誌	포충사지	安圭容 等 著	1	27.6×20.4cm
119	고서	史	西厓先生年譜	서애선생연보		2	31.8×21.2cm
120	고서	史	西岳誌	서악지	孫國鎬 等 編	1	28.2×18.2cm
121	고서	史	西峴先生實紀	서현선생실기	金九鼎 編	1	30.0×20.6cm
122	고서	史	訥翁先生遺事	눌옹선생유사	宋碩忠 著	1	30.6×19.1cm
123	고서	史	許貞簡公遺事	허정간공유사	許? 著	1	27.4×16.6cm
124	고서	史	誣書辨破錄	무서변파록		1	30.1×20.2cm
125	고서	史	諭中外大小臣庶綸音	유중외대소신서륜음		1	34.7×21.2cm
126	고서	史	貞武公崔先生實紀	정무공최선생실기	崔慶老 等 編, 崔震立 著	2	33.4×21.1cm
127	고서	史	資治通鑑綱目	자치통감강목	朱熹 著	150	33.2×21.7cm
128	고서	史	資治通鑑綱目集覽鐫誤	자치통감강목집람전오	朱熹 著	3	32.3×21.5cm
129	고서	史	賜祭日記	사제일기		1	31.2×20.6cm
130	고서	史	辨整錄	변정록		1	29.0×20.0cm
131	고서	史	迂拙齋先生實紀	우졸재선생실기	朴漢柱 著	1	28.3×19.1cm
132	고서	史	迂拙齋先生實記	우졸재선생실기	朴漢柱 著	1	31.8×21.3cm
133	고서	史	迂拙齋先生實記	우졸재선생실기	朴漢柱 著	1	32.5×21.0cm
134	고서	史	退溪先生年譜	퇴계선생연보	李滉 著	1	32.8×21.8cm
135	고서	史	退溪先生年譜	퇴계선생연보	李滉 著	1	31.8×21.0cm
136	고서	史	通典	통전	杜佑唐 撰	75	32.2×19.8cm
137	고서	史	遊軒先生年譜	유현선생년보	張錫龍 著	1	32.2×21.4cm
138	고서	史	錦溪先生辨誣錄	금계선생변무록	黃範麟 編	1	30.5×19.4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139	고서	史	錦溪先生辨誣錄	금계선생변무록	黃範麟 編	1	29.8×20.8cm
140	고서	史	關里誌	궐리지	陳鎬 著	13	34.2×21.5cm
141	고서	史	陶山及門諸賢錄	도산급문제현록	陶山書院 著	1	31.5×21.5cm
142	고서	史	集成祠誌	집성사지	安東燮 著	1	31.3×20.9cm
143	고서	史	集成祠誌	집성사지	任達宰 等 著	1	27.8×19.8cm
144	고서	史	霞溪先生實紀	하계선생실기	都應雲 著	1	29.2×19.5cm
145	고서	史	霽月堂先生實紀	제월당선생실기	李景淵 著	1	31.5×21.0cm
146	고서	史	靜浦先生實紀	정포선생실기	韓雍 著	1	29.5×19.5cm
147	고서	史	高山書院誌	고산서원지	金相晉 等 編	1	27.3×18.6cm
148	고서	史	鶴坡先生實紀	학파선생실기	李藝 著	1	29.8×20.7cm
149	고서	史	鶴山實紀	학산실기	金麟祥 著	1	32.8×21.5cm
150	고서	史	鶴峰先生年譜	학봉선생연보	金誠一 著	1	30.8×20.8cm
151	고서	史	鼎谷公辨誣錄	정곡공변무록		1	31.9×20.7cm
152	고서	史	龜山先生實紀	귀산선생실기	卞璧 著	1	31.1×20.0cm
153	고서	史	鷺渚遺事	노저유사	李陽元 著	1	25.5×18.0cm
154	고서	史	聾巖先生年譜	농암선생연보	李賢輔 著	1	31.9×21.0cm
155	고서	史	聾巖先生年譜	농암선생연보	李賢輔 著	1	32.0×21.1cm
156	고서	史	良丹世蹟	양단세적	朴基泰 編	1	30.5×21.2cm
157	고서	史	禮安辨惑錄	예안변혹록		1	30.5×20.5cm
158	고서	史	禮州世錄	예주세록	申賢 等 著	4	31.5×21.0cm
159	고서	史	龍庵實錄	용암실록	金益重 著	1	31.7×21.4cm
160	고서	史	李松巖龍蛇日記	이송암용사일기	李魯 著	1	30.5×19.3cm
161	고서	史	李浚書辨破時事蹟	이준서변파시사적		2	34.0×21.8cm

3. 子部 [63종]

1	고서	子	三綱行實圖	삼강행실도	?循 等 著	1	36.3×22.1cm
2	고서	子	三綱行實圖	삼강행실도	?循 等 著	1	36.3×22.1cm
3	고서	子	三綱錄	삼강록	柳夏榮 編	1	28.6×19.0cm
4	고서	子	二倫行實圖	이륜행실도	曹伸 著	1	36.2×22.0cm
5	고서	子	二倫行實圖	이륜행실도	曹伸 著	1	35.2×22.0cm
6	고서	子	五先生禮說分類	오선생예설분류	鄭述 著	7	33.3×22.8cm
7	고서	子	仁經類解	인경류해	鄭圭興 編	2	30.3×20.6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8	고서	子	傳習錄	전습록	王守仁 著	1	33.8×21.5cm
9	고서	子	啓蒙傳疑	계몽전의	李滉 著	1	32.6×21.7cm
10	고서	子	啓蒙傳疑	계몽전의	李滉 著	1	32.6×21.7cm
11	고서	子	夙興夜寐箴集說	숙흥야매잠집설	張福樞 著	1	30.5×20.7cm
12	고서	子	大寶箴	대보잠	張蘊吉 著, 李滉 書	1	37.3×26.5cm
13	고서	子	太極問辨	태극문변	鄭述 著	1	34.1×22.2cm
14	고서	子	太極問辨	태극문변	鄭述 著	1	33.5×21.6cm
15	고서	子	太極問辨	태극문변	鄭述 著	1	34.6×23.0cm
16	고서	子	太極問辨	태극문변	鄭述 著	1	29.9×19.4cm
17	고서	子	太極書撰集辯誣錄	태극서찬집변무록	玉山書院 著	1	31.7×21.4cm
18	고서	子	孔子通記	공자통기	潘府 著	2	35.0×22.5cm
19	고서	子	學部通辨	학부통변	陳建 著	4	36.6×21.7cm
20	고서	子	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	연평이선생사제자답문	周木明 著	2	31.1×18.6cm
21	고서	子	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	연평이선생사제자답문	周木明 著	2	27.2×17.7cm
22	고서	子	延平李氏師弟子答問	연평이씨사제자답문	周木明 著	1	30.8×18.0cm
23	고서	子	德谷答問錄	덕곡답문록		1	28.5×19.1cm
24	고서	子	心經講錄刊補	심경강록간보	李象靖 等 著	1	33.6×21.8cm
25	고서	子	心經附註	심경부주	程敏政 著	2	35.1×22.9cm
26	고서	子	性理大全書	성리대전서	胡廣 等 著	26	33.5×21.5cm
27	고서	子	性理大全書	성리대전서	胡廣 等 著	26	33.5×21.5cm
28	고서	子	性理大全書	성리대전서	胡廣 等 著	28	34.5×22.0cm
29	고서	子	性理大全書節要	성리대전서절요	金正國 著	4	29.8×20.3cm
30	고서	子	性理述集	성리술집	徐應潤 著	5	29.8×20.0cm
31	고서	子	性理遺編	성리유편	李楨 編	1	33.2×21.6cm
32	고서	子	性理遺編	성리유편	李楨 編	1	31.5×21.0cm
33	고서	子	敬齋箴集說	경재잠집설	李象靖 著	1	34.4×22.0cm
34	고서	子	新編古今事文類聚	신편고금사문유취	祝穆 等 著	73	25.2×17.7cm
35	고서	子	晦菴書節要序	회암서절요서	李滉 著	1	34.6×22.4cm
36	고서	子	晦谷先生進學圖	회곡선생진학도	權春蘭 著	4	32.5×20.4cm
37	고서	子	朱子增損呂氏鄉約	주자증손여씨향약	呂大忠 等	1	33.0×21.9cm
38	고서	子	朱子書節要	주자서절요	李滉 編	10	31.8×21.9cm
39	고서	子	朱子書節要	주자서절요	李滉 編	10	32.7×21.2cm
40	고서	子	朱子書節要	주자서절요	李滉 編	10	31.9×22.0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41	고서	子	朱子書節要質疑	주자서절요질의		2	39.0×25.0cm
42	고서	子	朱子語類	주자어류	黎靖德 編	75	36.9×23.4cm
43	고서	子	朱文酌海	주문작해	鄭經世 著	8	34.3×21.8cm
44	고서	子	朱書百選	주서백선	正祖 編	3	35.2×23.1cm
45	고서	子	朱書百選	주서백선	正祖 編	2	31.9×21.1cm
46	고서	子	朱書講錄刊補	주서강록간보	李栽 編	3	32.7×21.3cm
47	고서	子	正俗諺解	정속언해	王逸菴 著	1	29.0×21.2cm
48	고서	子	祭文	제문		1	30.6×20.4cm
49	고서	子	竹川遺墨	죽천유묵	朴光前 著	1	33.8×20.7cm
50	고서	子	經書類抄	경서류초		2	32.0×22.1cm
51	고서	子	續近思錄	속근사록	李漢膺 著	4	32.0×21.7cm
52	고서	子	續近思錄	속근사록	李漢膺 著	4	32.1×21.0cm
53	고서	子	聖學十圖	성학십도	李滉 編	1	34.7×22.4cm
54	고서	子	讀書錄	독서록	薛瑄明 撰	9	34.9×21.7cm
55	고서	子	近思錄集解	근사록집해	葉采 編	4	35.6×21.7cm
56	고서	子	退溪先生言行錄	퇴계선생언행록	李守淵 編	3	32.0×22.0cm
57	고서	子	鄉約	향약		1	32.3×19.7cm
58	고서	子	鄉約	향약		1	33.0×19.8cm
59	고서	子	陣法	진법	文宗 命 編	1	35.9×21.3cm
60	고서	子	韻府羣玉	운부군옥	陰時夫(元) 編	9	27.5×17.0cm
61	고서	子	旅軒先生性理說	여헌선생성리설	張顯光 著	6	31.8×22.5cm
62	고서	子	歷代聖賢道學正統旁統傳授編	역대성현도학정통방통전수편	金喆銖 著	1	31.4×20.2cm
63	고서	子	李子書節要	이자서절요	鄭? 編	6	33.1×22.4cm

4. 集部 [704종]

1	고서	集	睥窩集	재와집	崔昇羽 著	3	30.9×20.0cm
2	고서	集	一悔軒集	일회헌집	都右龍 著	4	31.0×20.6cm
3	고서	集	一默齋先生文集	일묵재선생문집	金光斗 著	1	32.3×22.3cm
4	고서	集	七友亭文集	칠우정문집	權大臨 著	2	30.1×20.5cm
5	고서	集	七峯先生逸集	칠봉선생일집	金希參 著	1	32.4×20.7cm
6	고서	集	三吾堂先生文集	삼오당선생문집	金世洛 著	2	29.8×20.0cm
7	고서	集	三山先生文集	삼산선생문집	柳正源 著	4	31.4×21.0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8	고서	集	三松先生逸稿	삼송선생일고	南夢鰲 著	11	31.7×19.5cm
9	고서	集	三棄堂先生集	삼기당선생집	琴是養 著	1	30.9×20.5cm
10	고서	集	三窩聯稿	삼와연고	權(金+翼) 等 著	4	29.7×20.4cm
11	고서	集	三烈堂文集	삼렬당문집	甘景仁 著	1	30.8×20.6cm
12	고서	集	下廬先生文集	하려선생문집	黃德吉 著	10	27.4×18.7cm
13	고서	集	丫溪先生遺稿	아계선생유고	金一鏡 著	1	29.5×20.0cm
14	고서	集	丹谷先生文集	단곡선생문집	郭(山+晉) 著	3	30.6×19.5cm
15	고서	集	久堂先生集	구당선생집	朴長遠 著	11	31.6×21.6cm
16	고서	集	久菴遺稿	구암유고	韓百謙 著	1	29.3×19.3cm
17	고서	集	乖庵先生逸稿	괴암선생일고	李? 著	1	30.4×21.4cm
18	고서	集	九峯先生實紀	구봉선생실기	李鍾翕 編, 李弘? 著	1	30.2×19.7cm
19	고서	集	九思堂先生文集	구사당선생문집	金樂行 著	5	30.2×20.0cm
20	고서	集	九思堂先生續集	구사당선생속집	金樂行 著	2	32.2×21.2cm
21	고서	集	九曲遺稿	구곡유고	李重? 著	1	29.6×19.7cm
22	고서	集	九灘文集	구탄문집	張緯邦 著	2	29.5×21.0cm
23	고서	集	二愚堂先生文集	이우당선생문집	權奭 著	2	31.2×20.2cm
24	고서	集	二柳齋文集	이류재문집	李中洙 著	4	29.7×20.0cm
25	고서	集	二樂堂先生逸稿	이락당선생일고	周怡 著	1	30.5×20.8cm
26	고서	集	五宜亭先生文集	오의정선생문집	李宜溫 著	1	32.0×20.8cm
27	고서	集	亦樂齋先生文集	역락재선생문집	金致寬 著	2	31.3×21.3cm
28	고서	集	伊川擊壤集	이천격양집	邵雍宋 著	4	27.0×17.5cm
29	고서	集	何有堂遺稿	하유당유고	南天祐 著	1	29.4×20.5cm
30	고서	集	俗隱齋文集	속은재문집	李龜星 著	3	32.9×21.4cm
31	고서	集	俛窩先生文集	면와선생문집	權象鉉 著	6	29.5×19.8cm
32	고서	集	俛窩逸稿	면와일고	鄭來源 著	1	29.4×20.2cm
33	고서	集	修巖先生文集	수암선생문집	柳袵 著	3	30.8×19.8cm
34	고서	集	倦翁先生文集	권옹선생문집	柳贊 著	1	29.3×20.3cm
35	고서	集	倬溪先生文集	야계선생문집	宋希奎 著	2	32.3×22.0cm
36	고서	集	健齋逸稿	건재일고	朴遂一 著	1	30.7×19.5cm
37	고서	集	儉巖詩集	검암시집	丁彦? 著	1	31.8×20.7cm
38	고서	集	儒仙先生文集	유선선생문집	韓卷 著	1	29.3×19.4cm
39	고서	集	儷文程選	여문정선	李植 著	6	30.8×19.5cm
40	고서	集	光山卓氏世稿	광산탁씨세고	卓光武 等 著	2	32.2×21.5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41	고서	集	克難齋先生文集	극난재선생문집	權濟敬 著	3	32.0×20.6cm
42	고서	集	克齋先生文集	극재선생문집	申益愷 著	7	32.0×20.9cm
43	고서	集	兢齋集	궁재집	鄭趾善 著	3	29.9×20.2cm
44	고서	集	全歸堂先生遺集	전귀당선생유집	徐時立 著	2	29.2×19.7cm
45	고서	集	八友軒先生文集	팔우헌선생문집	趙普陽 著	4	29.9×20.0cm
46	고서	集	八當世稿	팔영세고	都錫垢 等 著	1	30.9×20.9cm
47	고서	集	八谷先生集	팔곡선생집	具思孟 著	3	29.7×20.3cm
48	고서	集	兼山先生文集	겸산선생문집	徐永坤 著	3	28.3×20.1cm
49	고서	集	冥菴先生文集	명암선생문집	李柱大 著	2	30.2×20.8cm
50	고서	集	冲齋先生文集	충재선생문집	權? 著	5	30.5×19.9cm
51	고서	集	冲齋先生文集	충재선생문집	權? 著	5	31.7×20.5cm
52	고서	集	冲齋先生文集	충재선생문집	權? 著	5	30.5×19.6cm
53	고서	集	冲齋先生逸稿	충재선생일고	權? 著	1	31.9×21.5cm
54	고서	集	分類杜工部詩	분류두공부시	柳允謙 等 著	17	30.9×20.6cm
55	고서	集	分類補註李太白詩	분류보주이태백시	李白 著	12	33.5×21.3cm
56	고서	集	別洞先生文集	별동선생문집	尹祥 著	2	29.5×20.0cm
57	고서	集	別洞先生集	별동선생집	尹祥 著	1	29.3×19.0cm
58	고서	集	制庵先生文集	제암선생문집	鄭象履 著	4	30.9×20.7cm
59	고서	集	剛窩先生文集	강와선생문집	任必大 著	4	32.4×21.0cm
60	고서	集	勿巖先生文集	물암선생문집	金隆 著	3	31.0×19.5cm
61	고서	集	北厓先生文集	북애선생문집	金圻 著	2	32.1×20.8cm
62	고서	集	十淸先生集	십청선생집	金世弼 著	2	30.7×19.2cm
63	고서	集	卑窩文集	비와문집	鄭重岱 著	2	31.1×20.5cm
64	고서	集	南冥先生別集	남명선생별집	曹植 著	1	29.6×20.4cm
65	고서	集	南冥先生文集	남명선생문집	曹植 著	5	32.3×22.5cm
66	고서	集	南川先生文集	남천선생문집	權斗文 著	2	29.5×20.6cm
67	고서	集	南浦文集	남포문집	朴庭杰 著	2	34.2×22.6cm
68	고서	集	南谷逸稿	남곡일고	金? 著	1	31.9×20.5cm
69	고서	集	南豐集	남풍집	尹家默 著	1	31.0×20.5cm
70	고서	集	南野先生文集	남야선생문집	朴孫慶 著	4	31.2×20.0cm
71	고서	集	危齋文集	위재문집	趙相憲 著	3	32.0×21.8cm
72	고서	集	厚庵集	후암집	權濂 著	4	32.2×20.8cm
73	고서	集	及愚齋集	급우재집	金寧漢 著	14	28.7×18.3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74	고서	集	反招堂先生文集	반초당선생문집	李溟翼 著	1	31.3×20.4cm
75	고서	集	反求齋遺稿	반구재유고	權聖? 著	1	32.0×21.2cm
76	고서	集	古文	고문		4	27.5×17.5cm
77	고서	集	古溪文集	고계문집	李暈寧 著	4	32.4×21.2cm
78	고서	集	可畦先生文集	가휴선생문집	趙翊 著	5	32.0×21.0cm
79	고서	集	后山先生文集	후산선생문집	李宗洙 著	9	32.1×21.3cm
80	고서	集	后溪文集	후계문집	李? 著	2	32.1×21.0cm
81	고서	集	吾家山誌	오가산지	李晩興 編	1	31.5×20.0cm
82	고서	集	吾峯遺稿	오봉유고	金在坤 著	1	28.3×19.9cm
83	고서	集	問月堂先生文集	문월당선생문집	吳克成 著	2	32.5×21.0cm
84	고서	集	啞盲先生逸稿	아맹선생일고	權昌震 著	1	31.7×21.1cm
85	고서	集	喚醒堂逸稿	환성당일고	朴演 著	1	30.7×19.4cm
86	고서	集	嘉林四稿	가림사고	李德胄·李惠胄·李憲胄·李瑞胄 著	9	30.5×19.0cm
87	고서	集	嘯臯先生文集	소고선생문집	朴承任 著	2	31.9×20.6cm
88	고서	集	嘯臯先生文集	소고선생문집	朴承任 著	5	30.4×20.0cm
89	고서	集	四未軒文集	사미헌문집	張福樞 著	6	29.9×20.8cm
90	고서	集	四無子遺集	사무자유집	丁載老 著	1	31.3×20.9cm
91	고서	集	四而齋逸稿	사이재일고	南惠鎭 著	1	27.3×19.3cm
92	고서	集	四而齋逸稿	사이재일고	南惠鎭 著	1	29.6×20.4cm
93	고서	集	困齋先生愚得錄	곤재선생우득록	鄭介淸 著	3	32.8×22.5cm
94	고서	集	圃隱先生文集	포은선생문집	鄭夢周 著	4	34.2×22.9cm
95	고서	集	圃隱先生文集	포은선생문집	鄭夢周 著	4	34.1×22.9cm
96	고서	集	坡谷遺稿	파곡유고	李誠中 著	1	29.1×19.4cm
97	고서	集	埴簞兩先生續集	훈지양선생속집	鄭萬陽·鄭葵陽 著	3	29.2×20.5cm
98	고서	集	壺峯先生文集	호봉선생문집	李燾 著	1	32.5×21.7cm
99	고서	集	壽瑞詩	수서집	李楨 編	1	31.0×19.9cm
100	고서	集	壽瑞詩	수서집	李楨 編	1	29.4×19.6cm
101	고서	集	大埜文集	대야문집	柳健休 著	5	32.5×21.0cm
102	고서	集	大山先生文集	대산선생문집	李象靖 著	27	32.0×21.2cm
103	고서	集	大峯先生文集	대봉선생문집	楊熙止 著	2	30.7×19.6cm
104	고서	集	大峯逸稿	대봉일고	車應周 著	1	32.0×21.7cm
105	고서	集	大海先生文集	대해선생문집	黃應淸 著	1	30.3×20.3cm
106	고서	集	奈山文集	내산문집	李運淵 著	2	29.8×20.7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107	고서	集	奎華名選	규화명선	正祖 命 編	3	28.5×18.0cm
108	고서	集	好古窩先生文集	호고와선생문집	柳徽文 著	15	32.3×21.2cm
109	고서	集	存齋先生文集	존재선생문집	李徽逸 著	3	30.6×19.9cm
110	고서	集	孝處堂遺稿	효처당유고	郭杓 著	1	28.6×20.3cm
111	고서	集	孤村先生文集	고촌선생문집	裴正徽 著	2	28.4×19.8cm
112	고서	集	孤松集	고송집	申弘望 著	2	28.4×18.5cm
113	고서	集	學田遺稿	학전유고	李起鎬 著	3	29.4×19.6cm
114	고서	集	守庵先生文集	수암선생문집	鄭四震 著	2	30.7×20.2cm
115	고서	集	守拙齋集	수졸재집	李相采 著	2	29.4×20.1cm
116	고서	集	守軒先生文集	수헌선생문집	柳懿睦 著	3	30.7×20.7cm
117	고서	集	定庵先生逸稿	정암선생일고	郭越 著	1	31.9×21.1cm
118	고서	集	定軒先生文集	정헌선생문집	李鐘祥 著	10	30.1×19.8cm
119	고서	集	定齋先生文集	정재선생문집	柳致明 著	19	31.1×21.1cm
120	고서	集	宜庵集	익암집	安德文 著	3	31.4×20.7cm
121	고서	集	密城世稿	밀성세고	朴忠錄 等 著	1	28.9×19.2cm
122	고서	集	寒岡先生續集	한강선생속집	鄭逋 著	1	30.6×21.2cm
123	고서	集	寒岡先生續集	한강선생속집	鄭逋 著	1	29.8×20.3cm
124	고서	集	寓菴先生文集	우암선생문집	洪彦忠 著	2	31.7×21.0cm
125	고서	集	寓軒先生文集	우헌선생문집	柳世鳴 著	4	30.3×20.5cm
126	고서	集	審安堂遺稿	심안당유고	南震萬 著	1	29.3×20.3cm
127	고서	集	小巖遺稿	소암유고	金麗宅 著	1	31.0×19.6cm
128	고서	集	小溪文集	소계문집	南萬會 著	2	31.0×20.7cm
129	고서	集	尤園先生文集	우원선생문집	李楨國 著	4	31.8×20.5cm
130	고서	集	屏谷先生文集	병곡선생문집	權? 著	5	31.6×20.9cm
131	고서	集	屏谷先生續集	병곡선생속집	權? 著	2	31.6×21.2cm
132	고서	集	岾山文集	급산문집	安永鎬 著	2	30.5×20.5cm
133	고서	集	巖塘文集	암당문집	金道赫 著	2	29.3×19.7cm
134	고서	集	左庵遺稿	좌암유고	金龍鉉 著	2	30.7×20.5cm
135	고서	集	巴山先生逸稿	파산선생일고	柳仲淹 著	1	31.6×20.5cm
136	고서	集	希齋文集	희재문집	金輝濬 著	4	31.6×20.1cm
137	고서	集	平潭文集	평담문집	李銓 著	3	29.2×19.6cm
138	고서	集	廣瀨文集	광뢰문집	李野淳 著	7	32.5×21.5cm
139	고서	集	後松齋先生文集	후송재선생문집	金士貞 著	1	31.5×21.0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140	고서	集	後溪集	후계집	李?淳 著	3	32.1×21.7cm
141	고서	集	徐孺子文集	서유자문집	徐應潤 著	1	29.7×20.0cm
142	고서	集	從吾堂遺集	종오당유집	許? 著	1	29.9×20.2cm
143	고서	集	復初堂遺集	복초당유집	金? 著	1	28.2×19.1cm
144	고서	集	復齋先生文集	복재선생문집	李道孜 著	1	31.7×21.3cm
145	고서	集	復齋文集	복재문집	李彙濬 著	3	28.0×19.0cm
146	고서	集	德峯文集	덕봉문집	李鎭宅 著	3	32.6×21.6cm
147	고서	集	德溪先生文集	덕계선생문집	吳健 著	4	30.0×20.4cm
148	고서	集	德陽遺稿	덕양유고	奇遵 著	1	36.4×23.4cm
149	고서	集	德陽遺稿	덕양유고	奇遵 著	1	36.4×23.4cm
150	고서	集	忍庵文集	인암문집	權龍燮 著	1	30.5×19.2cm
151	고서	集	忍百堂先生逸稿	인백당선생일고	金樂春 著	1	29.5×20.3cm
152	고서	集	忍窩先生文集	인과선생문집	李述賢 著	2	30.0×19.5cm
153	고서	集	忍齋先生文集	인재선생문집	洪暹 著	3	25.3×17.0cm
154	고서	集	志庵文集	지암문집	金在默 著	1	30.3×20.1cm
155	고서	集	忘軒先生文集	망헌선생문집	李胄 著	2	27.8×18.5cm
156	고서	集	性齋先生文集	성재선생문집	許傳 著	17	30.9×19.4cm
157	고서	集	恒齋遺稿	항재유고	崔炳寅 著	1	30.5×19.2cm
158	고서	集	恕軒先生文集	서헌선생문집	李世珩 著	2	32.8×21.5cm
159	고서	集	恥庵文集	치암문집	金碩奎 著	4	31.5×21.1cm
160	고서	集	恥恥齋文集	치치재문집	金秀三 著	1	31.7×20.9cm
161	고서	集	恥齋先生文集	치재선생문집	曹善迪 著	2	30.7×21.2cm
162	고서	集	恥齋先生遺稿	치재선생유고	洪仁祐 著	2	25.3×20.2cm
163	고서	集	恬窩遺稿	염와유고	趙星臣 著	1	30.5×21.2cm
164	고서	集	息庵先生文集	식암선생문집	黃暹 著	3	30.3×19.7cm
165	고서	集	悔咎文集	회구문집	李德祿 著	1	30.2×20.5cm
166	고서	集	悔堂先生文集	회당선생문집	柳世哲 著	2	30.2×20.3cm
167	고서	集	悔堂先生文集	회당선생문집	申元祿 著	2	31.1×21.4cm
168	고서	集	悔尤文集	회우문집	李忠國 著	1	32.2×21.1cm
169	고서	集	悠然堂先生文集	유연당선생문집	金大賢 著	2	31.0×20.2cm
170	고서	集	惺巖文集	성암문집	崔世鶴 著	4	29.5×19.5cm
171	고서	集	惺軒先生逸集	성헌선생일집	白見龍 著	1	30.8×20.8cm
172	고서	集	惺齋先生文集	성재선생문집	琴蘭秀 著	2	32.0×21.5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173	고서	集	愚伏先生別集	우복선생별집	鄭經世 著	4	31.3×22.2cm
174	고서	集	愚伏先生文集	우복선생문집	鄭經世 著	10	32.1×21.5cm
175	고서	集	愚川先生文集	우천선생문집	鄭? 著	4	30.6×19.6cm
176	고서	集	愚潭先生文集	우담선생문집	丁時翰 著	6	31.9×20.6cm
177	고서	集	愚谷先生文集	우곡선생문집	宋亮 著	2	32.0×21.5cm
178	고서	集	愚軒文集	우헌문집	金養鎭 著	5	31.4×21.5cm
179	고서	集	愚齋先生文集	우재선생문집	孫仲敏 著	2	29.5×19.9cm
180	고서	集	愚齋文集	우재문집	吳渙 著	2	30.7×20.2cm
181	고서	集	愼庵文集	신암문집	李晩愼 著	5	31.0×20.4cm
182	고서	集	慈山逸稿	자산일고	權益九 著	1	28.7×19.8cm
183	고서	集	慕亭先生文集	모정선생문집	李著秀 著	6	29.3×19.6cm
184	고서	集	慕堂先生文集	모당선생문집	孫處訥 著	2	31.9×21.9cm
185	고서	集	慵窩先生文集	용와선생문집	李弘? 著	3	31.2×21.1cm
186	고서	集	慵窩集	용와집	柳升鉉 著	2	33.2×21.6cm
187	고서	集	慵齋訥齋兩先生遺稿	용재눌재양선생유고	李宗準·李弘準 著	1	30.7×21.1cm
188	고서	集	憂菴先生文集	우암선생문집	尹時衡 著	1	31.0×20.3cm
189	고서	集	懈軒先生文集	해헌선생문집	黃命河 著	3	30.2×19.8cm
190	고서	集	懶拙齋先生文集	나졸재선생문집	李山斗 著	2	30.7×20.2cm
191	고서	集	懶窩集	나와집	奇彦鼎 著	4	31.0×20.2cm
192	고서	集	懶隱先生文集	나은선생문집	李玄亮 著	1	31.0×19.3cm
193	고서	集	拙隱先生文集	졸은선생문집	李漢輔 著	4	30.8×19.1cm
194	고서	集	拙齋先生文集	졸재선생문집	柳元之 著	7	32.5×21.9cm
195	고서	集	撫松軒先生文集	무송헌선생문집	金淡 著	3	31.3×20.9cm
196	고서	集	操省堂先生文集	조성당선생문집	金澤龍 著	2	2805.0×20.7cm
197	고서	集	故寔	고식	金熙洛 著	3	32.7×20.1cm
198	고서	集	敬亭先生集	경정선생집	李民咸 著	6	30.5×19.6cm
199	고서	集	敬堂先生文集	경당선생문집	張興孝 著	1	29.8×20.2cm
200	고서	集	敬庵先生文集	경암선생문집	吳汝? 著	1	30.6×20.2cm
201	고서	集	敬庵文集	경암문집	李在穆 著	5	32.5×21.4cm
202	고서	集	敬窩先生文集	경와선생문집	金然 著	4	31.2×21.0cm
203	고서	集	敬菴先生實紀	경암선생실기	金淮 著	1	33.1×20.3cm
204	고서	集	敬菴先生文集	경암선생문집	盧景任 著	3	30.2×19.5cm
205	고서	集	敬菴先生文集	경암선생문집	李漢膺 著	6	31.8×21.0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206	고서	集	敬齋遺稿	경재유고	金是楨 著	1	31.4×20.9cm
207	고서	集	文巖集	문암집	丁志晟 著	1	32.1×21.3cm
208	고서	集	文節公金先生逸稿	문절공김선생일고	金淡 著	2	28.6×19.6cm
209	고서	集	文節公金先生逸稿	문절공김선생일고	金淡 著	2	28.6×19.8cm
210	고서	集	文節公金先生逸稿	문절공김선생일고	金淡 著	1	30.9×20.4cm
211	고서	集	文苑	문원	邊時淵 編	11	28.2×19.0cm
212	고서	集	文選	문선	蕭統 著	30	32.1×21.6cm
213	고서	集	新塘文集	신당문집	李成全 著	2	31.9×21.0cm
214	고서	集	新安世稿	신안세고	南隆達 等 著	4	31.5×20.7cm
215	고서	集	新野先生文集	신야선생문집	李仁行 著	7	33.5×21.9cm
216	고서	集	新野先生文集續集	신야선생문집속집	李仁行 著	2	30.6×21.3cm
217	고서	集	方潭先生文集	방담선생문집	權? 著	2	31.8×20.5cm
218	고서	集	方蘭文稿	방란문고	金秉益 著	2	29.1×20.0cm
219	고서	集	无憫齋文集	무민재문집	李時養 著	2	28.5×19.7cm
220	고서	集	日休勉進兩先生聯稿	일휴면진양선생연고	琴應夾·琴應堦 著	1	32.0×21.4cm
221	고서	集	明庵先生文集	명암선생문집	李泰一 著	5	30.3×19.9cm
222	고서	集	星湖先生全集	성호선생전집	李滉 著	36	31.0×19.8cm
223	고서	集	春亭先生文集	춘정선생문집	卞季良 著	5	31.1×20.0cm
224	고서	集	春塘先生文集	춘당선생문집	吳守盈 著	2	31.0×21.2cm
225	고서	集	春潭文集	춘담문집	奇東準 著	5	29.4×19.6cm
226	고서	集	春雨亭文稿	춘우정문고	金永相 著	3	31.1×21.3cm
227	고서	集	是庵先生文集	시암선생문집	任華世 著	2	31.1×21.3cm
228	고서	集	是窩遺稿	시와유고	韓泰東 著	3	30.4×19.7cm
229	고서	集	時庵先生文集	시암선생문집	南阜 著	8	31.7×21.0cm
230	고서	集	晉陽世稿	진양세고	河滌 等 著	2	29.0×19.7cm
231	고서	集	晦峯集	회봉집	金鳳煥 著	2	28.2×17.9cm
232	고서	集	晦谷先生文集	회곡선생문집	權春蘭 著	2	30.3×20.4cm
233	고서	集	晦谷先生文集	회곡선생문집	權春蘭 著	2	32.5×20.3cm
234	고서	集	晦齋先生別集	회재선생별집	李彦迪 著	2	29.7×20.2cm
235	고서	集	晦齋先生集	회재선생집	李彦迪 著	1	29.3×20.5cm
236	고서	集	晚喜堂文集	만희당문집	權錫璘 著	2	28.4×19.7cm
237	고서	集	晚圃文集	만포문집	李翊鎬 著	1	30.2×21.0cm
238	고서	集	晚寓齋文集	만우재문집	琴英澤 著	2	28.5×19.5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239	고서	集	晩寤遺稿	만오유고	申晉運 著	2	31.5×21.5cm
240	고서	集	晩悔堂先生文集	만회당선생문집	張慶遇 著	2	31.5×21.0cm
241	고서	集	晩悔軒文集	만회헌문집	金建銖 著	3	29.4×19.2cm
242	고서	集	晩悟公逸稿	만오공일고	李相鉉 著	1	31.9×20.5cm
243	고서	集	晩悟文集	만오문집	鄭裕昆 著	7	30.6×21.4cm
244	고서	集	晩松遺稿	만송유고	劉秉憲 著	2	28.7×19.4cm
245	고서	集	晩洲先生文集	만주선생문집	權以復 著	2	31.6×20.6cm
246	고서	集	晩窩文集	만와문집	金裕壽 著	2	31.5×21.5cm
247	고서	集	晩翠先生逸稿	만취선생일고	金盖國 著	1	31.0×19.3cm
248	고서	集	晩聞遺稿	만문유고	林萬彙 著	1	32.7×21.7cm
249	고서	集	景淵堂先生集	경연당선생집	李玄祚 著	3	31.0×18.7cm
250	고서	集	景玉先生遺集	경옥선생유집	李? 著	2	31.8×21.1cm
251	고서	集	書巢先生文集	서소선생문집	金宗杰 著	3	30.6×20.8cm
252	고서	集	月下文集	월하문집	趙運道 著	1	31.0×20.7cm
253	고서	集	月川先生文集	월천선생문집	趙穆 著	4	31.2×21.4cm
254	고서	集	月川先生文集	월천선생문집	趙穆 著	4	27.0×19.0cm
255	고서	集	月川先生文集(抄本)	월천선생문집(초본)	趙穆 著	7	30.7×21.5cm
256	고서	集	木齋先生文集	목재선생문집	洪汝河 著	6	31.0×19.7cm
257	고서	集	朱子大全	주자대전	朱熹 著	76	32.0×20.7cm
258	고서	集	朱子大全	주자대전	朱熹 著	83	34.5×22.0cm
259	고서	集	朱子感興詩諸家集解	주자감흥시제가시해	李宗洙 著	1	31.5×21.0cm
260	고서	集	朱文公校昌黎先生集	주문공교창려선생집	韓愈 著	18	33.0×21.2cm
261	고서	集	朴正字遺稿	박정자유고	朴泰漢 著	7	32.4×21.8cm
262	고서	集	朴谷先生文集	박곡선생문집	李元錄 著	2	32.0×21.4cm
263	고서	集	杏堂先生文集	행당선생문집	張萬杰 著	2	29.2×20.6cm
264	고서	集	杜臯世稿	두고세고	權應生 等 著	1	31.3×21.0cm
265	고서	集	杜陵集	두릉집	李濟兼 著	2	31.5×21.3cm
266	고서	集	東圃先生紀行錄	동포선생기행록	裴秉民 編, 裴興立 著	1	28.2×19.0cm
267	고서	集	東圃遺稿	동포유고	李炳轍 著	2	29.1×19.3cm
268	고서	集	東園先生文集	동원선생문집	金貴榮 著	3	31.3×20.7cm
269	고서	集	東岡先生文集	동강선생문집	金宇? 著	9	31.0×21.1cm
270	고서	集	東巖先生文集	동암선생문집	柳長源 著	7	33.1×21.4cm
271	고서	集	東巖先生文集	동암선생문집	權省吾 著	2	30.8×21.1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272	고서	集	東旅文集	동려문집	安昌烈 著	3	31.2×20.6cm
273	고서	集	東泉文集	동천문집	文正儒 著	2	31.7×21.9cm
274	고서	集	東淵文集	동연문집	鄭伯休 著	2	31.0×21.0cm
275	고서	集	東渠集	동거집	宋鼎? 著	2	31.1×21.2cm
276	고서	集	東湖先生文集	동호선생문집	邊永淸 著	1	31.2×20.1cm
277	고서	集	東溟先生文集	동명선생문집	黃中允 著	5	31.8×20.4cm
278	고서	集	東田潛士遺稿	동전잠사유고	李中鈞 著	8	29.9×19.8cm
279	고서	集	東隱逸稿	동은일고	權碩物 著	1	29.6×20.2cm
280	고서	集	東隱集	동은집	尹炳? 著	3	28.5×19.5cm
281	고서	集	松亭遺集	송정유집	金履德 著	1	29.0×19.8cm
282	고서	集	松厓集	송애집	李遂大 著	1	31.5×20.5cm
283	고서	集	松坡先生逸稿	송파선생일고	朴全 著	1	31.6×19.5cm
284	고서	集	松堂先生文集	송당선생문집	朴英 著	2	30.2×20.9cm
285	고서	集	松巖先生文集	송암선생문집	李魯 著	3	32.0×20.6cm
286	고서	集	松巖先生文集	송암선생문집	權好文 著	2	30.7×19.8cm
287	고서	集	松巖先生續集	송암선생속집	權好文 著	2	30.5×19.7cm
288	고서	集	松川子獨娛錄	송천자독오록	權得興 著	2	29.9×20.4cm
289	고서	集	松巢先生文集	송소선생문집	權宇 著	2	32.8×21.3cm
290	고서	集	松月齋先生集	송월재선생집	李時善 著	3	30.9×20.1cm
291	고서	集	松溪先生文集	송계선생문집	李亨男 著	1	31.2×22.0cm
292	고서	集	松澗先生文集	송간선생문집	李庭檜 著	1	31.0×20.3cm
293	고서	集	松澗先生文集	송간선생문집	黃應奎 著	2	30.7×20.0cm
294	고서	集	松臯文集	송고문집	權靖夏 著	2	32.2×21.6cm
295	고서	集	松臯集	송고집	宋程欽 著	2	31.5×20.7cm
296	고서	集	松窩先生文集	송와선생문집	李從允 著	2	30.2×20.1cm
297	고서	集	松西先生文集	송서선생문집	姜標 著	5	32.3×21.0cm
298	고서	集	松隱先生文集	송은선생문집	金光粹 著	1	29.8×19.0cm
299	고서	集	松隱先生文集	송은선생문집	朴翊 著	1	31.5×20.4cm
300	고서	集	松齋先生文集別集	송재선생문집별집	李? 著	1	30.4×20.4cm
301	고서	集	松齋先生文集續集	송재선생문집속집	李? 著	1	30.3×20.1cm
302	고서	集	松齋先生文集續集	송재선생문집속집	李? 著	1	30.3×20.4cm
303	고서	集	松齋詩集	송재시집	李? 著	2	30.3×20.4cm
304	고서	集	枕山文集	침산문집	李世綱 著	2	29.7×20.4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305	고서	集	柱峯集	주봉집	李峽 著	1	30.4×20.3cm
306	고서	集	柱江文集	주강문집	趙是光 著	2	31.5×20.9cm
307	고서	集	栢巖先生文集	백암선생문집	金? 著	4	31.0×19.0cm
308	고서	集	栢潭先生文集	백담선생문집	具鳳齡 著	4	30.2×20.7cm
309	고서	集	栢潭先生續集	백담선생속집	具鳳齡 著	2	30.0×20.6cm
310	고서	集	格齋先生文集	격재선생문집	孫肇瑞 著	1	31.0×20.1cm
311	고서	集	桂隱先生集	계은선생집	李冕宙 著	2	29.2×19.2cm
312	고서	集	桃源先生文集	도원선생문집	李末全 著	1	32.1×21.5cm
313	고서	集	桐溪先生文集	동계선생문집	權達手 著	1	31.2×19.8cm
314	고서	集	桐溪先生文集	동계선생문집	鄭蘊 著	5	29.6×20.2cm
315	고서	集	梅山先生文集	매산선생문집	鄭重器 著	6	33.1×21.7cm
316	고서	集	梅山先生續集	매산선생속집	鄭重器 著	2	29.6×19.4cm
317	고서	集	梅巖先生文集	매암선생문집	李叔樸 著	1	29.4×20.4cm
318	고서	集	梅村文集	매촌문집	琴詩述 著	3	31.4×21.3cm
319	고서	集	梅溪先生文集	매계선생문집	鄭鐸 著	1	31.6×20.9cm
320	고서	集	梅潭先生詩稿	매담선생시고	安公信 著	2	30.2×20.5cm
321	고서	集	梅窓先生文集	매창선생문집	鄭士信 著	3	31.0×19.4cm
322	고서	集	梅窩遺稿	매와유고	李永錫 著	1	29.0×20.0cm
323	고서	集	梅竹筆筒酬唱帖	매죽필통수창첩	李養? 著	1	29.2×20.2cm
324	고서	集	梅竹軒文集	매죽헌문집	金英震 著	2	30.7×20.4cm
325	고서	集	梅軒先生文集	매헌선생문집	琴輔 著	2	30.6×20.2cm
326	고서	集	梧亭世稿	오정세고	權安世 等 著	2	30.7×20.5cm
327	고서	集	梧峯文集	오봉문집	申之悌 著	4	28.8×18.5cm
328	고서	集	梧里先生文集	오리선생문집	李元翼 著	6	29.8×21.3cm
329	고서	集	棲碧亭遺集	서벽정유집	申致龜 著	1	30.2×20.8cm
330	고서	集	楠溪文集	남계문집	安浩淵 著	2	30.5×20.5cm
331	고서	集	楸菴集	추암집	金夏九 著	4	32.9×21.2cm
332	고서	集	槐堂先生文集	괴당선생문집	李曼勝 著	1	32.4×21.0cm
333	고서	集	槐潭遺稿	괴담유고	裴相說 著	3	33.2×21.3cm
334	고서	集	槐軒集	괴헌집	金瑩 著	2	31.4×20.5cm
335	고서	集	樊巖先生集	번암선생집	蔡濟恭 著	27	31.7×20.6cm
336	고서	集	樊川文集	번천문집	杜牧唐 著	4	27.5×18.3cm
337	고서	集	樊窩文集	번와문집	金龍圭 著	2	29.2×20.2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338	고서	集	樹谷文集	수곡문집	權? 著	3	30.3×20.2cm
339	고서	集	檀溪先生文集	단계선생문집	金海一 著	2	32.6×20.7cm
340	고서	集	櫟亭逸稿	역정일고	權是中 著	1	31.0×21.0cm
341	고서	集	櫟窩文集	역와문집	李世胤 著	1	30.7×20.5cm
342	고서	集	櫟翁稗說	역옹패설	李齊賢 著	1	31.4×21.0cm
343	고서	集	櫟翁稗說	역옹패설	李齊賢 著	1	30.8×21.4cm
344	고서	集	止庵先生文集	지암선생문집	金養植 著	2	29.4×19.2cm
345	고서	集	止菴先生文集	지암선생문집	黃永祖 著	7	29.5×19.9cm
346	고서	集	武陵雜稿	무릉잡고	周世鵬 著	4	34.6×21.3cm
347	고서	集	武陵雜稿	무릉잡고	周世鵬 著	9	30.7×19.8cm
348	고서	集	歸巖先生文集	귀암선생문집	李元禎 著	6	29.0×19.6cm
349	고서	集	臺山先生文集	호산선생문집	李? 著	2	31.1×21.3cm
350	고서	集	水山文集	수산문집	李性和 著	2	30.0×20.1cm
351	고서	集	水村文集	수촌문집	吳始壽 著	5	30.3×20.0cm
352	고서	集	水西先生文集	수서선생문집	朴善長 著	2	31.8×19.5cm
353	고서	集	汎窩文集	범와문집	金翰洛 著	2	29.0×19.7cm
354	고서	集	江坡先生文集	강파선생문집	權尙任 著	1	32.8×21.4cm
355	고서	集	江東詩稿	강동시고	權士溫 著	2	30.0×19.8cm
356	고서	集	江海文集	강해문집	金佐永 著	2	29.8×19.6cm
357	고서	集	江湖先生實紀	강호선생실기	金叔滋 著	2	30.7×20.5cm
358	고서	集	沂墅文集	기서문집	金驥善 著	1	29.3×19.2cm
359	고서	集	沙川文集	사천문집	徐昌鏡 著	2	31.1×20.8cm
360	고서	集	泉井世稿	천정세고	金洛圭 著	1	29.9×20.3cm
361	고서	集	泉齋先生文集	천재선생문집	申弼欽 著	4	31.8×21.1cm
362	고서	集	泗隱文集	사은문집	申鍾浩 著	2	30.3×20.9cm
363	고서	集	泛虛亭集	범허정집	尙震 著	4	30.9×20.3cm
364	고서	集	泰村先生文集	태촌선생문집	高尙顔 著	3	31.1×20.7cm
365	고서	集	泰齋先生文集	태재선생문집	柳方善 著	2	30.1×20.0cm
366	고서	集	泰齋先生文集	태재선생문집	柳方善 著	2	29.2×20.3cm
367	고서	集	活山先生文集	활산선생문집	南龍萬 著	4	29.9×19.9cm
368	고서	集	活齋先生文集	활재선생문집	李? 著	4	32.6×21.4cm
369	고서	集	海月先生文集	해월선생문집	黃汝一 著	7	30.1×20.4cm
370	고서	集	海窓文集	해창문집	宋基植 著	5	30.4×20.9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371	고서	集	海華堂先生文集	해화당선생문집	徐選 著	1	31.0×20.8cm
372	고서	集	海隱先生遺稿	해은선생유고	姜必孝 著	13	33.2×21.6cm
373	고서	集	涵溪先生文集	함계선생문집	鄭碩達 著	3	33.1×21.7cm
374	고서	集	淡庵先生逸集	담암선생일집	白文寶 著	1	30.5×20.4cm
375	고서	集	深窩文集	심와문집	李鼎齋 著	2	30.5×20.5cm
376	고서	集	深谷先生文集	심곡선생문집	張悌元 著	2	32.9×21.1cm
377	고서	集	淸休齋先生文集	청허재선생문집	金揚烈 著	1	31.1×21.0cm
378	고서	集	淸臺先生文集	청대선생문집	權相一 著	9	30.2×20.8cm
379	고서	集	淸虛齋先生文集	청허재선생문집	孫曄 著	1	30.0×20.0cm
380	고서	集	渴睡軒文集	갈수헌문집	金? 著	2	30.6×19.6cm
381	고서	集	游齋先生集	유재선생집	李玄錫 著	8	30.5×18.6cm
382	고서	集	湖陽先生文集	호양선생문집	權益昌 著	2	30.6×20.3cm
383	고서	集	湖隱天山齋兩先生遺集	호은천산재양선생유집	許麒·許千壽 著	1	30.3×20.2cm
384	고서	集	溪山世稿	계산세고	李安道 等 著	3	31.2×20.3cm
385	고서	集	溪巖先生文集	계암선생문집	金鈴 著	3	30.6×19.5cm
386	고서	集	溪巖先生文集	계암선생문집	金鈴 著	3	30.8×19.4cm
387	고서	集	溪村先生文集	계촌선생문집	李道顯 著	4	32.8×21.4cm
388	고서	集	溪東先生集	계동선생집	全慶昌 著	1	32.0×20.7cm
389	고서	集	溪翁文集	계옹문집	張之杰 著	1	29.9×19.5cm
390	고서	集	溪西文集	계서문집	權奎度 著	1	30.8×21.5cm
391	고서	集	溫溪先生逸稿	온계선생일고	李濯 著	3	31.7×20.4cm
392	고서	集	滄厓文集	창애문집	李重光 著	2	31.1×21.1cm
393	고서	集	滄洲先生文集	창주선생문집	李昌鎭 著	2	31.9×21.2cm
394	고서	集	滄溪先生文集	창계선생문집	文敬全 著	2	32.4×21.3cm
395	고서	集	滄雲遺稿	창운유고	朱在英 著	2	28.2×18.7cm
396	고서	集	潁水全集	영수전집	徐壽錫 著	17	30.8×20.2cm
397	고서	集	潛庵先生逸稿	잠암선생일고	金義貞 著	2	31.4×21.0cm
398	고서	集	潛溪文集	잠계문집	權昌植 著	2	30.4×20.3cm
399	고서	集	澗松先生文集	간송선생문집	趙任道 著	4	30.5×19.2cm
400	고서	集	澹溪遺稿	담계유고	邊鍾基 著	2	31.0×20.5cm
401	고서	集	澹翁文集	담옹문집	丁奎昌 著	2	29.1×20.2cm
402	고서	集	濟西先生文集	제서선생문집	李貞基 著	10	30.2×20.5cm
403	고서	集	濯纓文集	탁영문집	金駟孫 著	2	28.3×19.2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404	고서	集	灋西先生文集	양서선생문집	李光胤 著	3	31.7×21.0cm
405	고서	集	炊沙先生文集	취사선생문집	李汝? 著	3	31.3×21.1cm
406	고서	集	無住先生逸稿	무주선생일고	洪鎬 著	2	32.7×20.1cm
407	고서	集	無忝堂先生文集	무첨당선생문집	李宜潤 著	1	32.0×20.7cm
408	고서	集	牟陽世稿	모양세고	吳碩福 等 著	2	30.8×20.0cm
409	고서	集	猿溪先生文集	원계선생문집	柳仁培 著	2	31.9×21.5cm
410	고서	集	玉峯先生文集	옥봉선생문집	權曄 著	2	31.6×21.0cm
411	고서	集	玉川先生文集	옥천선생문집	趙德隣 著	9	31.3×20.7cm
412	고서	集	玉川先生遺稿	옥천선생유고	安餘慶 著	1	30.8×19.4cm
413	고서	集	玉成軒逸稿	옥성헌일고	邊尙綏 著	1	30.4×20.7cm
414	고서	集	琴坡文集	금파문집	李鼎秉 著	3	29.5×19.8cm
415	고서	集	琴易堂先生文集	금역당선생문집	裴龍吉 著	4	32.0×21.0cm
416	고서	集	琴村文集	금촌문집	鄭敦永 著	2	28.7×20.5cm
417	고서	集	琴湖世稿	금호세고	許稠 等 著	2	33.2×21.1cm
418	고서	集	瓢隱先生文集	표은선생문집	金是? 著	2	31.3×19.8cm
419	고서	集	瓢隱先生文集	표은선생문집	金是? 著	2	31.5×20.8cm
420	고서	集	瓶窩先生文集	병와선생문집	李衡祥 著	9	30.8×20.0cm
421	고서	集	瓶齋先生文集	병재선생문집	朴河澄 著	1	30.0×20.0cm
422	고서	集	畏菴文集	외암문집	金道明 著	2	29.0×19.8cm
423	고서	集	畸軒先生文集	기헌선생문집	朴龍相 著	3	31.7×21.0cm
424	고서	集	白愚文集	백우문집	金載? 著	4	32.5×21.2cm
425	고서	集	白氏文集	백씨문집	白居易 著	31	35.5×23.3cm
426	고서	集	白隱文集	백은문집	李鎭萬 著	2	30.0×20.0cm
427	고서	集	百拙庵先生文集	백졸암선생문집	柳? 著	2	33.2×21.5cm
428	고서	集	皇明處士南谷先生文集	황명처사남곡선생문집	權相吉 著	2	32.0×21.2cm
429	고서	集	益齋亂藁	익재난고	李齊賢 著	3	31.2×21.0cm
430	고서	集	益齋亂藁	익재난고	李齊賢 著	3	30.9×21.4cm
431	고서	集	省吾堂先生文集	성오당선생문집	李介立 著	2	30.0×19.3cm
432	고서	集	省齋先生文集續集	성재선생문집속집	權相翊 著	6	28.4×18.5cm
433	고서	集	眉山文集	미산문집	鄭道休 著	2	29.2×20.5cm
434	고서	集	眞一齋先生文集	진일재선생문집	柳崇祖 著	2	30.5×20.4cm
435	고서	集	眞一齋先生遺集	진일재선생유집	柳崇祖 著	1	31.1×20.6cm
436	고서	集	睡軒先生詩集	수헌선생시집	權五福 著	2	33.3×21.9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437	고서	集	睡軒先生詩集	수헌선생시집	權五福 著	2	33.3×21.8cm
438	고서	集	睡隱先生遺集	수은선생유집	李弘祚 著	1	31.7×20.1cm
439	고서	集	瞻慕堂先生文集	첨모당선생문집	林芸 著	2	31.7×21.7cm
440	고서	集	知足堂文集	지족당문집	權萬斗 著	1	31.5×20.7cm
441	고서	集	矩庵遺集	구암유집	申相夏 著	2	29.2×20.1cm
442	고서	集	石屏先生文集	석병선생문집	李回寶 著	3	32.7×21.8cm
443	고서	集	石愚遺稿	석우유고	李澈模 著	1	30.5×20.2cm
444	고서	集	石溪先生文集	석계선생문집	李時明 著	1	31.0×20.7cm
445	고서	集	石溪先生文集	석계선생문집	李時明 著	2	31.6×21.0cm
446	고서	集	石缸文集	석강문집	金? 著	3	30.3×21.0cm
447	고서	集	石門先生文集	석문선생문집	鄭榮邦 著	3	32.3×21.4cm
448	고서	集	石門詩稿	석문시고	張后相 著	1	32.1×21.1cm
449	고서	集	砥南先生文集	지남선생문집	金南一 著	1	32.5×20.4cm
450	고서	集	碧山遺稿	벽산유고	姜周福 著	1	29.7×20.9cm
451	고서	集	碧梧先生文集	벽오선생문집	李文樑 著	1	31.9×20.9cm
452	고서	集	碧棲文集	벽서문집	權道河 著	1	28.6×19.9cm
453	고서	集	磨巖文集	마암문집	趙進道 著	1	31.2×20.7cm
454	고서	集	秋月堂先生文集	추월당선생문집	韓山斗 著	1	33.1×20.2cm
455	고서	集	秋江集	추강집	南孝溫 著	5	31.4×20.5cm
456	고서	集	稼隱先生文集	가은선생문집	朴尙範 著	2	30.0×21.2cm
457	고서	集	竹亭逸稿	죽정일고	張潛 著	1	34.8×23.5cm
458	고서	集	竹塢遺集	죽오유집	李觀吾 著	2	29.4×20.6cm
459	고서	集	竹川先生文集	죽천선생문집	朴光前 著	4	29.7×18.9cm
460	고서	集	竹川先生文集	죽천선생문집	朴光前 著	2	29.9×19.1cm
461	고서	集	竹林世稿	죽림세고	蔡漢祖 編	2	31.1×20.7cm
462	고서	集	竹牖先生文集	죽유선생문집	吳漣 著	3	31.2×20.4cm
463	고서	集	竹閣先生文集	죽각선생문집	李光友 著	1	32.4×20.8cm
464	고서	集	竹齋先生文集	죽재선생문집	郭? 著	1	29.4×20.0cm
465	고서	集	篁巖先生文集	항암선생문집	金鎭河 著	3	33.1×21.4cm
466	고서	集	篁林先生文集	항림선생문집	申思進 著	4	30.5×19.9cm
467	고서	集	簣谷集	운곡집	鄭宗惠 著	1	30.4×20.5cm
468	고서	集	簡齋文集	간재문집	邊中一 著	1	32.0×19.8cm
469	고서	集	素山先生文集	소산선생문집	張寅睦 著	2	30.4×20.9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470	고서	集	素無軒文集	소무헌문집	琴書述 著	3	28.9×19.5cm
471	고서	集	素隱集	소은집	柳炳文 著	3	31.2×20.7cm
472	고서	集	綸庵先生逸集	윤암선생일집	孫宇男 著	1	31.9×20.9cm
473	고서	集	練江齋先生文集	연강재선생문집	文後 著	1	32.0×21.2cm
474	고서	集	鉞山先生文集	병산선생문집	金鸞祥 著	2	32.4×20.9cm
475	고서	集	鉞山先生遺集	병산선생유집	金鸞祥 著	1	32.6×20.7cm
476	고서	集	鉞山先生遺集	병산선생유집	金鸞祥 著	1	32.5×21.5cm
477	고서	集	美村先生文集	미촌선생문집	金健 著	2	31.2×20.7cm
478	고서	集	義士南阜文集	의사남고문집	張仁奎 著	1	29.3×19.5cm
479	고서	集	習窩遺集	습와유집	李柱天 著	1	30.2×19.9cm
480	고서	集	聚遠堂先生文集	취원당선생문집	曹光益 著	1	34.1×22.2cm
481	고서	集	聞灘先生文集	문탄선생문집	孫? 著	2	30.9×19.9cm
482	고서	集	聽水軒遺稿	청수헌유고	尹鳳翰 著	1	28.3×18.7cm
483	고서	集	自樂堂先生遺集	자락당선생유집	權守經 著	3	30.6×20.7cm
484	고서	集	臺隱先生文集	대은선생문집	權璟 著	1	30.4×20.7cm
485	고서	集	艮宇遺集	간우유집	李仁中 著	2	31.5×20.7cm
486	고서	集	艮翁先生文集	간옹선생문집	李獻慶 著	12	29.0×19.4cm
487	고서	集	艮齋先生文集	간재선생문집	李德弘 著	4	29.0×19.0cm
488	고서	集	艮齋先生文集	간재선생문집	李德弘 著	4	29.0×19.0cm
489	고서	集	艮齋先生文集	간재선생문집	崔演 著	6	31.0×20.0cm
490	고서	集	芝山先生文集	지산선생문집	金八元 著	1	31.8×20.9cm
491	고서	集	芝山先生文集	지산선생문집	曹好益 著	2	29.2×20.9cm
492	고서	集	芝嶺先生文集	지령선생문집	尹義貞 著	2	30.2×20.3cm
493	고서	集	芝村先生文集	지촌선생문집	金邦杰 著	2	31.9×20.9cm
494	고서	集	芝窩先生文集	지와선생문집	李? 著	1	29.2×19.3cm
495	고서	集	芝谷先生逸稿	지곡선생일고	柳義男 著	1	29.5×19.6cm
496	고서	集	芝谷先生遺集	지곡선생유집	金正漢 著	2	31.6×21.1cm
497	고서	集	芝軒先生文集	지현선생문집	鄭士誠 著	2	32.9×21.2cm
498	고서	集	草澗先生文集	초간선생문집	權文海 著	3	33.0×21.6cm
499	고서	集	荷塘先生文集	하당선생문집	權斗寅 著	5	31.5×20.6cm
500	고서	集	荷谷先生集	하곡선생집	許? 著	4	32.8×21.3cm
501	고서	集	菊圃逸稿	국포일고	孫漢機 著	1	32.0×21.3cm
502	고서	集	菊槐聯芳集	국괴연방집	尹秉顯·尹秉? 著	2	30.8×20.5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503	고서	集	菊潭朴先生文集	국담박선생문집	朴壽春 著	1	32.3×21.2cm
504	고서	集	菊潭朴先生文集	국담박선생문집	朴壽春 著	1	31.7×21.4cm
505	고서	集	菊牕先生集	국창선생집	李燦 著	2	29.5×19.7cm
506	고서	集	葛川先生文集	갈천선생문집	林薰 著	2	31.8×20.8cm
507	고서	集	葛川先生文集	갈천선생문집	金熙周 著	5	31.0×20.1cm
508	고서	集	蒙齋文集	몽재문집	李安道 著	1	29.0×19.5cm
509	고서	集	蒼溪遺稿	창계유고	李學基 著	3	29.5×20.4cm
510	고서	集	蒼阜文集	창고문집	李在濬 著	1	30.4×20.3cm
511	고서	集	蒼霞集	창하집	元景夏 著	5	30.8×18.6cm
512	고서	集	藤巖先生逸稿	등암선생일고	權徵 著	1	30.5×20.3cm
513	고서	集	藥南先生文集	약남선생문집	李憲洛 著	3	31.5×20.2cm
514	고서	集	藥圃先生文集	약포선생문집	鄭琢 著	4	31.5×21.0cm
515	고서	集	藥圃先生續集	약포선생속집	鄭琢 著	2	31.0×20.8cm
516	고서	集	蘿山世稿	나산세고	李文興 等 著	1	30.4×20.6cm
517	고서	集	虎溪先生遺集	호계선생유집	申適道 著	3	30.2×20.8cm
518	고서	集	虛舟文集	허주문집	金汝煜 著	1	31.8×20.6cm
519	고서	集	襄敏公文集	양민공문집	孫昭 著	1	28.9×20.0cm
520	고서	集	襄陽世稿	양양세고	權啓應 等 著	2	32.4×22.3cm
521	고서	集	西厓先生別集	서애선생별집	柳成龍 著	2	30.6×20.1cm
522	고서	集	西厓先生文集	서애선생문집	柳成龍 著	10	31.7×20.9cm
523	고서	集	西厓先生文集	서애선생문집	柳成龍 著	9	30.5×19.8cm
524	고서	集	西原世稿	서원세고	韓哲沖 等 著	2	32.1×22.3cm
525	고서	集	西山先生文集	서산선생문집	金興洛 著	16	31.9×21.0cm
526	고서	集	西山先生眞文忠公文集	서산선생진문충공문집	眞德秀 著	24	33.5×22.8cm
527	고서	集	西汀文集	서정문집	李起淵 著	2	28.3×19.0cm
528	고서	集	西溪先生逸稿	서계선생일고	金聃壽 著	1	29.3×19.3cm
529	고서	集	西溪遺稿	서계유고	李成鎬 著	1	29.5×19.7cm
530	고서	集	西潭先生文集	서담선생문집	洪瑋 著	2	32.6×21.4cm
531	고서	集	訂窩先生文集	정와선생문집	金岱鎭 著	10	32.6×21.6cm
532	고서	集	訥齋先生文集	인재선생문집	崔睨 著	9	31.4×20.4cm
533	고서	集	訥傭齋文集	눌용재문집	陳聖一 著	1	29.2×19.4cm
534	고서	集	訥庵遺集	눌암유집	曹(?+百)承 著	1	29.7×19.8cm
535	고서	集	訥淵先生逸稿	눌연선생일고	丁敏道 著	1	27.9×19.8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536	고서	集	訥軒文集	눌헌문집	徐聖耆 著	3	31.3×20.8cm
537	고서	集	訥隱先生文集	눌은선생문집	李光庭 著	11	32.8×21.8cm
538	고서	集	訥齋先生文集	눌재선생문집	金生溟 著	1	28.7×19.8cm
539	고서	集	詳說古文眞寶大全	상설고문진보대전	黃堅 編	8	31.7×21.3cm
540	고서	集	謙庵先生文集	겸암선생문집	柳雲龍 著	3	31.8×21.2cm
541	고서	集	謙菴先生逸稿	겸암선생일고	柳雲龍 著	2	30.5×21.0cm
542	고서	集	警齋先生逸稿	경재선생일고	金靈 著	2	29.5×20.5cm
543	고서	集	谷圃文集	곡포문집	李能允 著	3	30.2×19.6cm
544	고서	集	谷川先生文集	곡천선생문집	金尙鼎 著	3	31.0×20.0cm
545	고서	集	谿栖文集	계서문집	李源述 編, 李晩淑 著	2	31.2×21.0cm
546	고서	集	貞山先生文集	정산선생문집	金東鎭 著	7	31.4×20.8cm
547	고서	集	賁趾先生文集	분지선생문집	南致利 著	2	31.2×20.3cm
548	고서	集	起菴文集	기암문집	金禹昌 著	2	31.6×20.9cm
549	고서	集	農圃文稿	농포문고	柳泳熙 著	2	30.7×21.2cm
550	고서	集	農谷文集	농곡문집	金明範 著	2	29.4×19.5cm
551	고서	集	迂拙齋先生文集	우졸재선생문집	鄭夢陽 著	1	30.4×20.4cm
552	고서	集	迂溪先生文集	우계선생문집	朴潭 著	1	31.6×21.0cm
553	고서	集	迂軒先生文集	오헌선생문집	金璫 著	2	29.6×20.3cm
554	고서	集	近始齋先生文集	근시재선생문집	金垓 著	2	31.5×20.3cm
555	고서	集	退庵集	퇴암집	權重道 著	3	32.0×21.9cm
556	고서	集	退溪先生手簡	퇴계선생수간	李滉 著	1	35.0×21.7cm
557	고서	集	退溪先生文集	퇴계선생문집	李滉 著	21	35.3×22.5cm
558	고서	集	退溪先生文集	퇴계선생문집	李滉 著	40	33.2×22.0cm
559	고서	集	退溪先生文集	퇴계선생문집	李滉 著	1	35.5×21.0cm
560	고서	集	退溪先生文集	퇴계선생문집	李滉 著	1	32.3×21.8cm
561	고서	集	退溪先生文集(경자본)	퇴계선생문집(경자본)	李滉 著	32	32.3×21.0cm
562	고서	集	退溪先生文集(경자본류)	퇴계선생문집(경자본류)	李滉 著	21	30.1×20.5cm
563	고서	集	退溪先生文集(경자본류)	퇴계선생문집(경자본류)	李滉 著	27	31.8×21.2cm
564	고서	集	退溪先生文集(경자본류)	퇴계선생문집	李滉 著	1	31.0×20.6cm
565	고서	集	退溪先生文集拾遺	퇴계선생문집습유	李滉 著	12	31.8×22.0cm
566	고서	集	退溪先生續集	퇴계선생속집	李滉 著	4	34.8×20.8cm
567	고서	集	退陶先生文集	퇴도선생문집	李滉 著	2	35.4×22.7cm
568	고서	集	退陶先生集	퇴도선생집	李滉 著	20	34.3×22.5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569	고서	集	退陶先生集草本	퇴도선생집초본	李滉 著	1	35.3×23.0cm
570	고서	集	逋庵文集	포암문집	權周郁 著	4	28.5×20.1cm
571	고서	集	遊軒先生文集	유헌선생문집	張錫龍 著	6	32.1×21.3cm
572	고서	集	道山文集	도산문집	朴載憲 著	5	29.9×19.8cm
573	고서	集	達城世稿	달성세고	徐宅鎬 等 著	1	29.8×20.0cm
574	고서	集	適庵先生文集	적암선생문집	金台重 著	2	33.1×21.5cm
575	고서	集	遯庵先生逸集	둔암선생일집	徐翰廷 著	1	31.0×19.3cm
576	고서	集	遯庵集	둔암집	曹德臣 著	3	30.9×21.4cm
577	고서	集	選文掇英	선문철영	李山海 編	3	32.3×20.2cm
578	고서	集	選詩	선시		11	30.3×20.9cm
579	고서	集	邵城聯芳集	소성연방집	蔡先見 等 著	1	31.4×20.0cm
580	고서	集	酇翁先生文集	정옹선생문집	曹九齡 著	2	30.2×20.6cm
581	고서	集	醇庵集	순암집	吳載純 著	5	34.5×22.2cm
582	고서	集	醉隱逸稿	취은일고	宋德溥 著	1	32.3×21.7cm
583	고서	集	野村先生文集	야촌선생문집	孫萬雄 著	3	31.8×20.6cm
584	고서	集	野老堂先生逸集	야로당선생일집	李淳 著	1	28.9×19.6cm
585	고서	集	鋤歸子先生遺稿	서귀자선생유고	鄭允諧 著	1	31.6×21.0cm
586	고서	集	錦南文集	금남문집	朴奎陽 著	2	32.3×20.7cm
587	고서	集	錦江先生文集	금강선생문집	張? 著	2	30.0×19.8cm
588	고서	集	錦江先生文集	금강선생문집	張? 著	3	29.8×19.1cm
589	고서	集	錦溪先生文集	금계선생문집	黃俊良 著	5	30.6×19.7cm
590	고서	集	錦溪集	금계집	黃俊良 著	2	30.8×20.8cm
591	고서	集	錦翁先生文集	금옹선생문집	金學培 著	2	31.2×21.5cm
592	고서	集	鎭菴先生文集	진암선생문집	玄商濬 著	7	32.0×21.4cm
593	고서	集	開巖先生文集	개암선생문집	金宇宏 著	2	31.7×20.9cm
594	고서	集	開谷先生遺集	개곡선생유집	李爾松 著	2	31.8×21.3cm
595	고서	集	闡孝錄	천효록	李昌葉 著	1	28.5×19.7cm
596	고서	集	闡美錄	천미록	全應文 著	1	29.2×20.4cm
597	고서	集	陰崖先生集	음애선생집	李? 著	2	30.0×18.9cm
598	고서	集	陶菴集	도암집	丁敦燮 著	3	29.5×20.3cm
599	고서	集	陽坡集	양파집	柳觀鉉 著	2	33.3×21.4cm
600	고서	集	陽溪先生文集	양계선생문집	李馥 著	4	32.0×22.0cm
601	고서	集	陽田文集	양전문집	李祥鎬 著	4	28.7×19.4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602	고서	集	雅誦	아송	正祖 命 編	2	39.3×25.1cm
603	고서	集	雙梅堂先生逸稿	쌍매당선생일고	李胤 著	1	30.8×20.9cm
604	고서	集	雙槐堂文集	쌍괴당문집	權大謙 著	2	28.8×19.8cm
605	고서	集	雙槐軒辛公遺集	쌍괴헌신공유집	辛守 著	1	31.3×20.6cm
606	고서	集	雨澗文集	우간문집	金虎運 著	3	32.4×21.0cm
607	고서	集	雨臯文集	우고문집	金道行 著	4	32.5×21.0cm
608	고서	集	雪川文集	설천문집	李宜活 著	2	29.2×19.6cm
609	고서	集	雪月堂先生文集	설월당선생문집	金富倫 著	3	31.0×20.5cm
610	고서	集	雪月堂逸稿	설월당일고	全益禧 著	1	30.8×20.3cm
611	고서	集	雲山文集	운산문집	李彙載 著	6	29.8×19.7cm
612	고서	集	雲巖先生逸稿	운암선생일고	金緣 著	1	30.5×20.0cm
613	고서	集	雲巖先生逸稿	운암선생일고	金緣 著	1	31.0×20.1cm
614	고서	集	雲廣先生文集	운엄선생문집	崔光璧 著	2	31.0×20.0cm
615	고서	集	雲庭遺集	운정유집	張承遠 著	4	31.8×21.1cm
616	고서	集	雲溪先生文集	운계선생문집	鄭雷卿 著	1	26.7×17.7cm
617	고서	集	雲齋先生逸集	운재선생일집	都勻 著	1	27.5×19.6cm
618	고서	集	雲齋遺稿	운재유고	李重慶 著	2	31.2×21.4cm
619	고서	集	震峰先生逸稿	진봉선생일고	權宏 著	1	31.5×20.3cm
620	고서	集	霞浦文集	하포문집	白灝運 著	1	29.8×19.8cm
621	고서	集	霞溪文集	하계문집	李家淳 著	6	28.1×19.1cm
622	고서	集	霧隱先生文集	무은선생문집	鄭之虎 著	3	28.5×18.6cm
623	고서	集	霽山先生文集	제산선생문집	金聖鐸 著	9	30.9×20.2cm
624	고서	集	霽峯集	제봉집	高敬命 著	5	32.1×20.6cm
625	고서	集	靑壁先生文集	청벽선생문집	李守淵 著	2	31.6×21.5cm
626	고서	集	靑杜集	청두집	李濟相 著	2	29.7×20.4cm
627	고서	集	靖窩集	정와집	姜鎔 著	5	31.6×20.6cm
628	고서	集	靜思齋文集	정사재문집	姜道熙 著	4	29.2×19.3cm
629	고서	集	靜窩先生文集	정와선생문집	趙錫喆 著	4	32.0×21.6cm
630	고서	集	靜菴先生文集	정암선생문집	趙光祖 著	4	27.3×18.5cm
631	고서	集	靜菴先生文集	정암선생문집	趙光祖 著	4	27.0×18.4cm
632	고서	集	靜菴先生文集	정암선생문집	趙光祖 著	1	28.1×19.0cm
633	고서	集	靜齋先生文集	정재선생문집	李聃命 著	4	29.7×20.0cm
634	고서	集	頤庵先生遺稿	이암선생유고	宋寅 著	5	29.0×17.9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635	고서	集	風詠亭逸稿	풍영정일고	權應道 著	1	28.7×19.3cm
636	고서	集	養蒙齋先生文集	양몽재선생문집	金在洛 著	2	29.8×20.0cm
637	고서	集	騎牛先生文集	기우선생문집	李行 著	1	31.2×20.5cm
638	고서	集	高峯先生文集	고봉선생문집	奇大升 著	5	31.5×21.9cm
639	고서	集	高峯先生文集	고봉선생문집	奇大升 著	6	31.0×21.7cm
640	고서	集	鳩齋先生文集	구재선생문집	金啓光 著	2	28.6×18.8cm
641	고서	集	鳳岡集	봉강집	李晩興 著	1	32.3×21.3cm
642	고서	集	鳳洲先生文集	봉주선생문집	南國柱 著	4	31.9×20.5cm
643	고서	集	鳳溪先生逸稿	봉계선생일고	洪世恭 著	1	31.8×21.1cm
644	고서	集	鳳陽遺書	봉양유서	徐載信 著	1	30.8×20.2cm
645	고서	集	鶴南先生文集	학남선생문집	李晦慶 著	4	31.0×20.8cm
646	고서	集	鶴坡遺稿	학파유고	鄭致龜 著	2	29.6×19.5cm
647	고서	集	鶴山文集	학산문집	琴鏞夏 著	3	28.1×18.7cm
648	고서	集	鶴峯先生文集	학봉선생문집	金誠一 著	10	32.8×21.1cm
649	고서	集	鶴峯先生文集	학봉선생문집	金誠一 著	4	29.0×20.1cm
650	고서	集	鶴峯先生續集	학봉선생속집	金誠一 著	2	31.8×20.8cm
651	고서	集	鶴巖集	학암집	張華植 著	2	29.8×20.1cm
652	고서	集	鶴川先生遺集	학천선생유집	李逢春 著	1	31.8×21.0cm
653	고서	集	鶴棲先生文集	학서선생문집	柳台佐 著	10	30.5×19.1cm
654	고서	集	鶴沙先生文集	학사선생문집	金應祖 著	6	31.6×20.0cm
655	고서	集	鶴洞先生文集	학동선생문집	鄭維藩 著	1	30.3×20.6cm
656	고서	集	鶴谷集	학곡집	洪瑞鳳 著	4	28.9×17.7cm
657	고서	集	黃坡集	황파집	金宗傑 著	1	32.6×21.6cm
658	고서	集	黔澗先生文集	검간선생문집	趙靖 著	4	31.7×21.1cm
659	고서	集	默山先生文集	묵산선생문집	南基萬 著	2	32.6×22.2cm
660	고서	集	默庵先生文集	묵암선생문집	許(人+岡) 著	3	29.9×21.0cm
661	고서	集	默隱遺稿	묵은유고	李會明 著	1	30.6×20.5cm
662	고서	集	默齋先生逸稿	묵재선생일고	朴士煥 著	1	32.1×22.0cm
663	고서	集	默齋文集	묵재문집	金龍範 著	1	31.8×20.7cm
664	고서	集	龜厓先生文集	귀애선생문집	李琬 著	3	30.8×20.2cm
665	고서	集	龜峯先生遺集	귀봉선생유집	權德麟 著	1	31.3×21.1cm
666	고서	集	龜巖先生文集	귀암선생문집	李楨 著	3	30.7×20.0cm
667	고서	集	龜巖先生集	귀암선생집	李楨 著	1	29.5×20.8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668	고서	集	羅山世稿	나산세고	琴聖徽 等 著	2	20.8×18.7cm
669	고서	集	樂園東巒兩先生合稿	낙원동만양선생합고	安璫·安翔漢 著	1	31.0×20.5cm
670	고서	集	樂義齋先生遺集	낙의재선생유집	李訥 著	1	30.1×19.7cm
671	고서	集	洛北文集	낙북문집	李在哲 著	2	29.6×20.8cm
672	고서	集	洛陽世稿	낙양세고	辛乃沃 等 著	2	29.6×20.4cm
673	고서	集	蘆厓集	노애집	柳道源 著	5	33.2×21.4cm
674	고서	集	魯園先生文集	노원선생문집	金喆銖 著	5	31.0×20.2cm
675	고서	集	魯岑文集	노잠문집	孫汝斗 著	1	31.3×20.8cm
676	고서	集	魯菴先生文集	노암선생문집	鄭必奎 著	4	32.6×21.3cm
677	고서	集	魯齋文集	노재문집	全鳳錫 著	2	31.0×20.5cm
678	고서	集	魯魯齋先生文集	노노재선생문집	金萬然 著	2	30.4×20.4cm
679	고서	集	聾齋先生逸稿	농재선생일고	李彥适 著	1	31.8×21.3cm
680	고서	集	陋室集	누실집	李重延 著	2	30.8×21.2cm
681	고서	集	樂琴軒先生文集	낙금헌선생문집	李庭柏 著	1	30.8×19.8cm
682	고서	集	不求堂先生文集	불구당선생문집	金? 著	2	32.8×21.4cm
683	고서	集	沈德裕遺稿	심덕유유고	沈安世 著	1	27.7×18.2cm
684	고서	集	旅軒先生文集	여헌선생문집	張顯光 著	6	31.8×22.5cm
685	고서	集	聯芳世稿	연방세고	金璉 等 著	3	31.5×20.2cm
686	고서	集	蓮軒雜稿	연헌잡고	李宜茂 著	1	35.0×20.8cm
687	고서	集	念睡軒文集	염수헌문집	金龍翰 著	2	29.3×19.2cm
688	고서	集	龍山世稿	용산세고	金彥璣 等 著	3	28.7×18.5cm
689	고서	集	龍山文集	용산문집	李晚寅 著	5	32.2×20.9cm
690	고서	集	龍巖先生文集	용암선생문집	朴雲 著	2	30.8×19.4cm
691	고서	集	龍川聯稿	용천연고	權舜經 等 著	3	21.7×20.9cm
692	고서	集	龍溪先生文集	용계선생문집	吳? 著	1	32.2×21.5cm
693	고서	集	龍潭先生文集	용담선생문집	任屹 著	3	30.5×20.0cm
694	고서	集	劉向說苑	유향설원	劉向漢 著	3	30.8×19.3cm
695	고서	集	柳亭逸集	유정일집	崔應泗 著	1	30.8×20.6cm
696	고서	集	六先生遺稿	육선생유고	死六臣 著	3	27.6×20.3cm
697	고서	集	六先生遺稿	육선생유고	死六臣 著	3	27.3×20.3cm
698	고서	集	栗園先生文集	율원선생문집	李珙 著	1	31.1×20.2cm
699	고서	集	林庄世稿	임장세고	鄭榮邦 等 著	2	31.8×21.3cm
700	고서	集	臨淵齋先生文集	임연재선생문집	裴三益 著	3	31.5×21.0cm

순	유형	유형분류	자료명	한글자료명	편저자	책수	크기
701	고서	集	臨窩先生逸稿	임와선생일고	丁一愼 著	1	31.2×21.4cm
702	고서	集	立齋先生文集	입재선생문집	鄭宗魯 著	24	32.0×21.8cm
703	고서	集	立齋先生遺稿	입재선생유고	姜再恒 著	10	31.7×21.2cm
704	고서	集	見山先生實紀	현산선생실기	鄭期遠 著	2	29.2×19.5cm

● 도산서원 고문서 목록 [2,129점]

	유형	수량(점)
1	簡札	395
2	告目	6
3	關文	9
4	其他	14
5	望記	222
6	明文	38
7	物目	2
8	事目	5
9	上疏	1
10	成冊	702
11	所志	43
12	手標	3
13	試卷	14
14	詩文	9
15	完文	5
16	完議	5
17	日記	1
18	立案	2
19	祭文	60
20	座目	83
21	牒呈	20
22	置簿記	105
23	通文	357
24	牌旨	13
25	稟目	1
26	行狀	4
27	戶籍	2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	----	------	------	-----	-------	----	----

1. 簡札 [395점]

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01	간찰0001	1	21.0×36.5cm
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02	간찰0002	1	28.0×43.0cm
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03	간찰0003	1	22.0×48.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04	간찰0004	1	20.0×39.0cm
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05	간찰0005	1	19.0×46.0cm
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06	간찰0006	1	26.0×19.5cm
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07	간찰0007	1	24.0×40.0cm
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08	간찰0008	1	23.0×43.5cm
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09	간찰0009	1	21.5×45.0cm
1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0	간찰0010	1	26.0×31.0cm
1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1	간찰0011	1	22.0×38.5cm
1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2	간찰0012	1	26.0×44.0cm
1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3	간찰0013	1	25.0×40.0cm
1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4	간찰0014	1	19.5×36.5cm
1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5	간찰0015	1	23.0×46.0cm
1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6	간찰0016	1	22.0×40.0cm
1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7	간찰0017	1	22.5×34.5cm
1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8	간찰0018	1	22.0×41.5cm
1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19	간찰0019	1	21.0×43.5cm
2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0	간찰0020	1	23.0×46.5cm
2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1	간찰0021	1	22.5×46.5cm
2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2	간찰0022	1	23.0×55.5cm
2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3	간찰0023	1	26.0×40.5cm
2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4	간찰0024	1	23.0×40.5cm
2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5	간찰0025	1	21.0×44.5cm
2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6	간찰0026	1	26.0×43.0cm
2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7	간찰0027	1	26.0×49.0cm
2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8	간찰0028	1	21.0×45.5cm
2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29	간찰0029	1	27.0×46.0cm
3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0	간찰0030	1	25.5×41.0cm
3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1	간찰0031	1	22.0×66.0cm
3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2	간찰0032	1	23.0×33.5cm
3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3	간찰0033	1	25.5×42.0cm
3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4	간찰0034	1	26.0×39.0cm
3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5	간찰0035	1	23.0×39.0cm
3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6	간찰0036	1	21.0×42.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7	간찰0037	1	20.0×48.5cm
3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8	간찰0038	1	23.0×39.5cm
3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39	간찰0039	1	22.5×36.0cm
4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0	간찰0040	1	26.5×43.0cm
4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1	간찰0041	1	25.5×34.0cm
4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2	간찰0042	1	22.0×39.0cm
4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3	간찰0043	1	23.5×47.5cm
4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4	간찰0044	1	26.0×43.0cm
4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5	간찰0045	1	21.5×44.5cm
4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6	간찰0046	1	25.0×39.5cm
4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7	간찰0047	1	21.0×40.0cm
4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8	간찰0048	1	25.0×40.5cm
4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49	간찰0049	1	24.5×43.0cm
5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0	간찰0050	1	22.5×39.5cm
5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1	간찰0051	1	24.0×49.5cm
5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2	간찰0052	1	25.0×42.0cm
5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3	간찰0053	1	21.0×43.0cm
5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4	간찰0054	1	23.0×62.0cm
5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5	간찰0055	1	27.5×37.5cm
5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6	간찰0056	1	23.5×43.5cm
5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7	간찰0057	1	24.0×46.0cm
5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8	간찰0058	1	24.0×40.0cm
5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59	간찰0059	1	25.0×41.5cm
6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0	간찰0060	1	23.0×48.0cm
6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1	간찰0061	1	23.0×45.0cm
6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2	간찰0062	1	26.0×41.5cm
6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3	간찰0063	1	22.0×48.0cm
6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4	간찰0064	1	25.0×49.0cm
6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5	간찰0065	1	26.5×45.0cm
6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6	간찰0066	1	26.0×31.5cm
6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7	간찰0067	1	21.0×44.0cm
6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8	간찰0068	1	28.5×39.0cm
6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69	간찰0069	1	20.0×42.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7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0	간찰0070	1	22.0×41.0cm
7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1	간찰0071	1	22.5×48.0cm
7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2	간찰0072	1	29.0×42.0cm
7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3	간찰0073	1	29.0×45.0cm
7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4	간찰0074	1	21.0×42.0cm
7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5	간찰0075	1	21.0×39.5cm
7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6	간찰0076	1	18.0×49.5cm
7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7	간찰0077	1	23.0×44.0cm
7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8	간찰0078	1	19.5×41.0cm
7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79	간찰0079	1	29.5×50.0cm
8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0	간찰0080	1	25.0×43.0cm
8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1	간찰0081	1	24.5×41.0cm
8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2	간찰0082	1	26.0×37.5cm
8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3	간찰0083	1	22.5×35.0cm
8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4	간찰0084	1	19.5×41.5cm
8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5	간찰0085	1	23.0×29.5cm
8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6	간찰0086	1	23.5×39.0cm
8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7	간찰0087	1	23.0×35.5cm
8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8	간찰0088	1	21.5×45.5cm
8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89	간찰0089	1	23.0×64.5cm
9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0	간찰0090	1	21.0×42.0cm
9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1	간찰0091	1	24.0×38.0cm
9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2	간찰0092	1	22.0×44.5cm
9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3	간찰0093	1	24.0×41.0cm
9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4	간찰0094	1	21.0×45.0cm
9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5	간찰0095	1	28.0×43.0cm
9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6	간찰0096	1	22.5×42.0cm
9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7	간찰0097	1	20.5×43.0cm
9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8	간찰0098	1	26.5×39.0cm
9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099	간찰0099	1	24.0×48.0cm
10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0	간찰0100	1	27.0×39.0cm
10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1	간찰0101	1	28.0×43.0cm
10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2	간찰0102	1	28.0×31.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0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3	간찰0103	1	30.0×44.0cm
10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4	간찰0104	1	31.0×46.0cm
10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5	간찰0105	1	25.5×40.5cm
10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6	간찰0106	1	26.0×51.0cm
10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7	간찰0107	1	24.5×73.5cm
10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8	간찰0108	1	21.0×46.0cm
10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09	간찰0109	1	21.0×47.0cm
11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0	간찰0110	1	24.5×46.0cm
11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1	간찰0111	1	22.0×41.0cm
11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2	간찰0112	1	25.0×42.5cm
11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3	간찰0113	1	22.0×46.0cm
11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4	간찰0114	1	30.0×45.0cm
11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5	간찰0115	1	29.0×45.5cm
11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6	간찰0116	1	33.5×52.0cm
11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7	간찰0117	1	32.0×42.0cm
11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8	간찰0118	1	30.5×57.0cm
11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19	간찰0119	1	27.0×56.0cm
12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0	간찰0120	1	35.5×48.0cm
12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1	간찰0121	1	34.0×53.5cm
12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2	간찰0122	1	27.5×41.0cm
12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3	간찰0123	1	38.0×53.0cm
12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4	간찰0124	1	30.5×52.5cm
12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5	간찰0125	1	35.5×55.5cm
12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6	간찰0126	1	23.0×38.0cm
12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7	간찰0127	1	28.5×65.0cm
12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8	간찰0128	1	22.0×252.0cm
12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29	간찰0129	1	24.5×40.0cm
13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0	간찰0130	1	28.5×54.0cm
13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1	간찰0131	1	28.5×45.0cm
13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2(別紙)	간찰0132(별지)	1	25.0×23.5cm
13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3	간찰0133	1	23.5×47.0cm
13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4	간찰0134	1	23.0×54.5cm
13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5	간찰0135	1	30.5×39.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3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6	간찰0136	1	23.5×40.0cm
13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7	간찰0137	1	39.5×42.0cm
13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8	간찰0138	1	23.0×41.5cm
13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39	간찰0139	1	23.0×91.0cm
14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0	간찰0140	1	24.0×44.5cm
14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1	간찰0141	1	26.5×38.0cm
14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2	간찰0142	1	25.0×36.0cm
14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3	간찰0143	1	20.0×33.0cm
14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4	간찰0144	1	23.0×54.5cm
14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5	간찰0145	1	24.5×56.5cm
14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6	간찰0146	1	25.0×41.5cm
14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7	간찰0147	1	30.0×56.0cm
14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8	간찰0148	1	22.0×134.5cm
14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49	간찰0149	1	25.0×42.5cm
15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0	간찰0150	1	27.0×50.0cm
15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1	간찰0151	1	37.0×72.0cm
15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2	간찰0152	1	49.0×27.0cm
15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3	간찰0153	1	22.0×37.0cm
15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4	간찰0154	1	37.5×23.0cm
15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5	간찰0155	1	22.5×46.0cm
15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6	간찰0156	1	20.5×46.5cm
15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7(別紙)	간찰0157(별지)	1	21.5×12.0cm
15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8	간찰0158	1	17.5×114.0cm
15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59	간찰0159	1	25.0×26.0cm
16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0	간찰0160	1	27.0×41.0cm
16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1	간찰0161	1	24.5×27.5cm
16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2	간찰0162	1	25.5×39.5cm
16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3	간찰0163	1	23.0×103.0cm
16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4	간찰0164	1	122.0×24.0cm
16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5(稟議書)	간찰0165(품의서)	1	29.4×42.5cm
16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6(單子)	간찰0166(단자)	1	56.0×46.5cm
16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7(單子)	간찰0167(단자)	1	46.5×50.5cm
16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8(單子)	간찰0168(단자)	1	29.5×26.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6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69(單子)	간찰0169(단자)	1	42.5×66.0cm
17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0(單子)	간찰0170(단자)	1	29.0×37.5cm
17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1(單子)	간찰0171(단자)	1	45.0×38.5cm
17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2(單子)	간찰0172(단자)	1	37.0×45.0cm
17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3(單子)	간찰0173(단자)	1	37.0×44.0cm
17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4(單子)	간찰0174(단자)	1	54.5×37.5cm
17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5(單子)	간찰0175(단자)	1	47.0×42.5cm
17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6(單子)	간찰0176(단자)	1	66.0×41.9cm
17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7(單子)	간찰0177(단자)	1	29.5×40.0cm
17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8(單子)	간찰0178(단자)	1	29.8×43.5cm
17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79	간찰0179	1	22.5×41.5cm
18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0(單子)	간찰0180(단자)	1	65.5×40.0cm
18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1(別紙)	간찰0181(별지)	1	23.1×21.0cm
18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2	간찰0182	1	26.5×35.0cm
18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3(訃告)	간찰0183(부고)	1	27.0×30.1cm
18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4	간찰0184	1	23.1×34.0cm
18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5	간찰0185	1	23.0×15.0cm
18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6	간찰0186	1	40.2×40.4cm
18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7(單子)	간찰0187(단자)	1	40.2×40.1cm
18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8(單子)	간찰0188(단자)	1	48.2×51.0cm
18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89(單子)	간찰0189(단자)	1	46.1×39.7cm
19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0(單子)	간찰0190(단자)	1	46.8×39.6cm
19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1(單子)	간찰0191(단자)	1	40.2×42.3cm
19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2(單子)	간찰0192(단자)	1	28.8×45.1cm
19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3(單子)	간찰0193(단자)	1	47.5×55.9cm
19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4(單子)	간찰0194(단자)	1	33.1×33.4cm
19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5(單子)	간찰0195(단자)	1	39.4×47.5cm
19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6(單子)	간찰0196(단자)	1	31.0×40.1cm
19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7(單子)	간찰0197(단자)	1	30.9×53.2cm
19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8(單子)	간찰0198(단자)	1	31.9×31.7cm
19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199(單子)	간찰0199(단자)	1	46.9×47.6cm
20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0(單子)	간찰0200(단자)	1	38.2×37.5cm
20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1(單子)	간찰0201(단자)	1	26.4×42.6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0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2(單子)	간찰0202(단자)	1	45.2×51.2cm
20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3(單子)	간찰0203(단자)	1	47.7×34.9cm
20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4(單子)	간찰0204(단자)	1	30.2×30.3cm
20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5(單子)	간찰0205(단자)	1	39.8×48.6cm
20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6(單子)	간찰0206(단자)	1	40.7×39.6cm
20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7(單子)	간찰0207(단자)	1	46.6×53.7cm
20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8(單子)	간찰0208(단자)	1	51.6×52.0cm
20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09(單子)	간찰0209(단자)	1	48.3×51.3cm
21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0	간찰0210	1	40.7×40.6cm
21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1(單子)	간찰0211(단자)	1	41.1×51.0cm
21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2(單子)	간찰0212(단자)	1	29.6×39.2cm
21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3(單子)	간찰0213(단자)	1	57.0×47.3cm
21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4(單子)	간찰0214(단자)	1	31.1×48.9cm
21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5(單子)	간찰0215(단자)	1	36.4×56.2cm
21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6(單子)	간찰0216(단자)	1	37.7×37.8cm
21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7(單子)	간찰0217(단자)	1	45.7×37.4cm
21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8(單子)	간찰0218(단자)	1	27.0×42.0cm
21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19	간찰0219	1	27.7×35.5cm
22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0	간찰0220	1	54.0×40.3cm
22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1	간찰0221	1	27.2×99.0cm
22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2	간찰0222	1	26.2×39.7cm
22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3(單子)	간찰0223(단자)	1	30.4×24.3cm
22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4(單子)	간찰0224(단자)	1	31.7×54.4cm
22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5(單子)	간찰0225(단자)	1	45.8×50.4cm
22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6(單子)	간찰0226(단자)	1	32.6×36.0cm
22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7(單子)	간찰0227(단자)	1	31.6×52.6cm
22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8(單子)	간찰0228(단자)	1	31.5×39.9cm
22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29(單子)	간찰0229(단자)	1	41.4×40.0cm
23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0(單子)	간찰0230(단자)	1	43.0×38.3cm
23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1(單子)	간찰0231(단자)	1	26.4×26.3cm
23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2(單子)	간찰0232(단자)	1	33.2×33.3cm
23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3(單子)	간찰0233(단자)	1	45.0×40.2cm
23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4(單子)	간찰0234(단자)	1	35.4×48.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3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5(單子)	간찰0235(단자)	1	28.2×33.5cm
23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6(單子)	간찰0236(단자)	1	24.4×52.5cm
23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7(單子)	간찰0237(단자)	1	38.7×49.8cm
23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8(單子)	간찰0238(단자)	1	27.8×55.8cm
23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39(單子)	간찰0239(단자)	1	28.0×25.3cm
24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0(單子)	간찰0240(단자)	1	42.1×46.1cm
24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1(單子)	간찰0241(단자)	1	39.7×50.6cm
24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2(單子)	간찰0242(단자)	1	41.0×50.1cm
24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3(單子)	간찰0243(단자)	1	49.3×30.4cm
24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4(單子)	간찰0244(단자)	1	32.5×41.0cm
24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5(單子)	간찰0245(단자)	1	35.9×52.8cm
24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6(單子)	간찰0246(단자)	1	31.1×36.0cm
24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7(單子)	간찰0247(단자)	1	36.6×39.3cm
24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8(單子)	간찰0248(단자)	1	35.9×34.4cm
24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49	간찰0249	1	21.9×31.7cm
25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0	간찰0250	1	38.3×38.7cm
25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1	간찰0251	1	19.9×42.9cm
25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2(單子)	간찰0252(단자)	1	34.6×57.0cm
25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3(單子)	간찰0253(단자)	1	28.8×46.3cm
25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4(單子)	간찰0254(단자)	1	34.8×57.7cm
25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5(單子)	간찰0255(단자)	1	34.9×57.6cm
25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6(單子)	간찰0256(단자)	1	31.5×29.0cm
25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7(單子)	간찰0257(단자)	1	41.0×54.1cm
25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8(單子)	간찰0258(단자)	1	37.7×51.8cm
25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59	간찰0259	1	23.9×37.1cm
26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0(單子)	간찰0260(단자)	1	49.8×50.8cm
26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1(單子)	간찰0261(단자)	1	47.2×52.7cm
26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2	간찰0262	1	43.5×54.3cm
26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3(單子)	간찰0263(단자)	1	38.5×40.5cm
26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4(單子)	간찰0264(단자)	1	44.0×55.0cm
26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5(單子)	간찰0265(단자)	1	47.2×53.2cm
26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6(單子)	간찰0266(단자)	1	35.0×36.0cm
26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7(單子)	간찰0267(단자)	1	48.2×39.7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6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8(單子)	간찰0268(단자)	1	47.5×48.1cm
26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69	간찰0269	1	47.0×50.5cm
27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0(單子)	간찰0270(단자)	1	28.1×50.6cm
27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1(單子)	간찰0271(단자)	1	38.2×54.7cm
27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2(單子)	간찰0272(단자)	1	39.2×49.5cm
27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3(單子)	간찰0273(단자)	1	46.2×52.2cm
27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4(單子)	간찰0274(단자)	1	46.7×52.1cm
27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5(單子)	간찰0275(단자)	1	51.8×47.5cm
27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6(單子)	간찰0276(단자)	1	46.4×54.5cm
27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7(單子)	간찰0277(단자)	1	35.8×50.5cm
27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8(單子)	간찰0278(단자)	1	48.7×53.4cm
27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79	간찰0279	1	46.4×50.3cm
28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0	간찰0280	1	41.4×41.5cm
28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1(單子)	간찰0281(단자)	1	38.0×37.6cm
28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2(單子)	간찰0282(단자)	1	23.6×37.0cm
28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3(單子)	간찰0283(단자)	1	46.9×51.7cm
28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4	간찰0284	1	20.9×79.0cm
28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5(單子)	간찰0285(단자)	1	35.8×50.0cm
28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6(單子)	간찰0286(단자)	1	48.9×55.8cm
28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7	간찰0287	1	20.5×31.2cm
28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8	간찰0288	1	22.4×39.2cm
28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89	간찰0289	1	22.5×37.2cm
29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0	간찰0290	1	24.6×44.7cm
29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1(單子)	간찰0291(단자)	1	26.0×39.7cm
29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2(單子)	간찰0292(단자)	1	27.7×37.7cm
29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3(單子)	간찰0293(단자)	1	36.0×37.8cm
29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4(單子)	간찰0294(단자)	1	35.4×38.9cm
29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5(單子)	간찰0295(단자)	1	22.8×37.5cm
29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6(單子)	간찰0296(단자)	1	29.3×38.9cm
29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7	간찰0297	1	29.9×45.8cm
29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8(單子)	간찰0298(단자)	1	25.2×39.5cm
29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299(單子)	간찰0299(단자)	1	32.6×41.6cm
30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0(單子)	간찰0300(단자)	1	32.3×40.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0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1(單子)	간찰0301(단자)	1	39.2×49.9cm
30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2(單子)	간찰0302(단자)	1	43.8×51.9cm
30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3(單子)	간찰0303(단자)	1	47.5×53.3cm
30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4(單子)	간찰0304(단자)	1	36.0×47.5cm
30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5(單子)	간찰0305(단자)	1	40.0×41.2cm
30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6(單子)	간찰0306(단자)	1	39.8×51.0cm
30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7	간찰0307	1	27.0×32.9cm
30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8(單子)	간찰0308(단자)	1	31.0×34.8cm
30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09(單子)	간찰0309(단자)	1	28.8×35.6cm
31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0(單子)	간찰0310(단자)	1	36.8×40.0cm
31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1(單子)	간찰0311(단자)	1	58.1×51.7cm
31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2	간찰0312	1	48.1×53.4cm
31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3(單子)	간찰0313(단자)	1	36.4×42.5cm
31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4(單子)	간찰0314(단자)	1	49.6×41.2cm
31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5(單子)	간찰0315(단자)	1	47.3×50.7cm
31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6	간찰0316	1	40.4×38.1cm
31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7(單子)	간찰0317(단자)	1	48.8×54.4cm
31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8(單子)	간찰0318(단자)	1	47.0×51.0cm
31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19(單子)	간찰0319(단자)	1	33.5×32.5cm
32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0(單子)	간찰0320(단자)	1	37.5×53.4cm
32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1(單子)	간찰0321(단자)	1	34.1×54.7cm
32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2(單子)	간찰0322(단자)	1	47.8×52.9cm
32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3(單子)	간찰0323(단자)	1	65.5×71.1cm
32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4	간찰0324	1	20.6×50.1cm
32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5	간찰0325	1	90.0×53.0cm
32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6	간찰0326	1	35.5×73.0cm
32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7	간찰0327	1	28.4×57.5cm
32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8	간찰0328	1	25.7×57.8cm
32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29	간찰0329	1	20.0×52.3cm
33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0	간찰0330	1	31.0×40.8cm
33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1	간찰0331	1	36.3×74.7cm
33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2	간찰0332	1	35.4×62.5cm
33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3	간찰0333	1	25.4×43.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3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4	간찰0334	1	27.1×39.4cm
33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5	간찰0335	1	32.5×53.5cm
33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6	간찰0336	1	24.2×33.0cm
33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7(諺簡)	간찰0337(언간)	1	25.2×14.0cm
33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8	간찰0338	1	23.9×33.2cm
33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39	간찰0339	1	29.7×40.6cm
34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0	간찰0340	1	25.3×17.9cm
34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1	간찰0341	1	30.5×20.8cm
34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2	간찰0342	1	23.9×39.4cm
34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3	간찰0343	1	24.5×84.0cm
34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4	간찰0344	1	26.3×36.2cm
34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5	간찰0345	1	20.5×45.8cm
34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6	간찰0346	1	27.5×44.7cm
34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7	간찰0347	1	26.3×47.5cm
34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8	간찰0348	1	31.0×124.5cm
34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49	간찰0349	1	28.0×74.3cm
35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0	간찰0350	1	46.3×45.2cm
35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1	간찰0351	1	29.0×41.3cm
35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2	간찰0352	1	32.6×43.2cm
35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3	간찰0353	1	29.4×113.0cm
35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4	간찰0354	1	22.7×42.7cm
35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5	간찰0355	1	24.5×33.3cm
35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6	간찰0356	1	24.4×18.0cm
35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7	간찰0357	1	22.2×41.5cm
35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8	간찰0358	1	30.7×72.3cm
35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59	간찰0359	1	25.4×38.1cm
36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0	간찰0360	1	27.0×57.2cm
36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1	간찰0361	1	33.1×42.0cm
36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2	간찰0362	1	25.8×34.8cm
36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3	간찰0363	1	39.3×58.2cm
36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4	간찰0364	1	24.8×45.4cm
36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5	간찰0365	1	28.7×40.8cm
36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6	간찰0366	1	19.7×27.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6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7	간찰0367	1	27.6×19.7cm
36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8	간찰0368	1	24.0×33.5cm
36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69	간찰0369	1	17.4×25.0cm
37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0	간찰0370	1	39.0×40.0cm
37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1	간찰0371	1	54.0×56.5cm
37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2	간찰0372	1	47.9×38.0cm
37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3	간찰0373	1	32.8×32.7cm
37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4	간찰0374	1	33.4×60.0cm
37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5	간찰0375	1	22.5×36.3cm
37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6	간찰0376	1	26.6×42.4cm
37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7	간찰0377	1	24.1×43.2cm
37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8	간찰0378	1	20.0×25.0cm
37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79(單子2)	간찰0379(단자2)	1	23.0×18.5cm
38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0(單子3)	간찰0380(단자3)	1	23.5×27.2cm
38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1(單子4)	간찰0381(단자4)	1	23.0×21.3cm
38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2(單子5)	간찰0382(단자5)	1	21.0×8.7cm
38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3(單子6)	간찰0383(단자6)	1	28.0×21.7cm
38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4(單子7)	간찰0384(단자7)	1	28.3×22.0cm
38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5(單子8)	간찰0385(단자8)	1	20.0×21.7cm
386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6(單子9)	간찰0386(단자9)	1	28.0×54.5cm
387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7(單子11)	간찰0387(단자11)	1	28.5×48.0cm
388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8(告目1)	간찰0388(고목1)	1	34.5×52.5cm
389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89(告目2)	간찰0389(고목2)	1	21.0×262.0cm
390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90(告目3)	간찰0390(고목3)	1	21.0×21.0cm
391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91(告目4)	간찰0391(고목4)	1	30.0×21.0cm
392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92(告目5)	간찰0392(고목5)	1	26.5×17.0cm
393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93(告目6)	간찰0393(고목6)	1	23.0×271.0cm
394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94(告目7)	간찰0394(고목7)	1	21.5×16.0cm
395	고문서	書簡通告	簡札	簡札0395(告目9)	간찰0395(고목9)	1	24.3×22.7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	----	------	------	-----	-------	----	----

2. 告目 [6점]

1	고문서	牒關通報	告目	告目0001(書目:孤峰書堂有司書目)	고목0001(서목:고봉서당유사서목)	1	33.0×39.0cm
2	고문서	牒關通報	告目	告目0002(書目:陶山書院書目)	고목0002(서목:도산서원서목)	1	58.0×36.0cm
3	고문서	牒關通報	告目	告目0003(書目:陶山書院書目)	고목0003(서목:도산서원서목)	1	48.0×16.5cm
4	고문서	牒關通報	告目	告目0004(書目:陶山書院書目)	고목0004(서목:도산서원서목)	1	56.0×13.0cm
5	고문서	牒關通報	告目	告目0005(書目:陶山書院書目)	고목0005(서목:도산서원서목)	1	69.0×18.0cm
6	고문서	牒關通報	告目	告目0006(書目:孤峰書堂有司書目)	고목0006(서목:고봉서당유사서목)	1	32.0×37.0cm

3. 關文 [9점]

1	고문서	牒關通報	關文	關文0001	관문0001	1	54.0×48.0cm
2	고문서	牒關通報	關文	關文0002(私通)	관문0002(사통)	1	34.0×148.0cm
3	고문서	牒關通報	關文	關文0003(帖1:帖諭)	관문0003(첩1:첩유)	1	29.0×94.5cm
4	고문서	牒關通報	關文	關文0004(帖2)	관문0004(첩2)	1	41.5×57.0cm
5	고문서	牒關通報	關文	關文0005(帖3)	관문0005(첩3)	1	51.0×50.5cm
6	고문서	牒關通報	關文	關文0006(帖4)	관문0006(첩4)	1	35.0×120.0cm
7	고문서	牒關通報	關文	關文0007(帖5)	관문0007(첩5)	1	32.5×111.0cm
8	고문서	牒關通報	關文	關文0008(帖6)	관문0008(첩6)	1	31.6×48.5cm
9	고문서	牒關通報	關文	關文0009(帖7:報營草)	관문0009(첩7:보영초)	1	26.6×94.0cm

4. 其他 [14점]

1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01(陶山書院 修理 設計圖面)	기타0001(도산서원 수리 설계도면)	1	53.0×72.3cm
2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02(陶山大學校發起會會錄)	기타0002(도산대학교발기회회록)	1	24.7×52.0cm
3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03	기타0003	1	48.0×46.0cm
4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04	기타0004	1	56.0×38.5cm
5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05	기타0005	1	26.7×19.4cm
6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06	기타0006	1	26.4×19.2cm
7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07	기타0007	1	25.5×17.2cm
8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08	기타0008	1	26.9×19.3cm
9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09	기타0009	1	26.4×19.2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0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10	기타0010	1	26.6×19.2cm
11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11	기타0011	1	27.1×19.2cm
12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12	기타0012	1	26.9×19.2cm
13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13	기타0013	1	26.7×19.5cm
14	고문서	其他	其他	其他0014	기타0014	1	26.4×19.2cm

5. 望記 [222점]

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01(上有司望記)	망기0001(상유사망기)	1	96.0×57.0cm
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02(上有司望記)	망기0002(상유사망기)	1	99.0×57.0cm
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03(上有司望記)	망기0003(상유사망기)	1	96.5×56.0cm
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04(上有司望記)	망기0004(상유사망기)	1	92.0×55.0cm
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05(上有司望記)	망기0005(상유사망기)	1	95.5×56.5cm
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06(上有司望記)	망기0006(상유사망기)	1	97.0×57.0cm
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07(上有司望記)	망기0007(상유사망기)	1	97.5×57.5cm
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08(上有司望記)	망기0008(상유사망기)	1	112.0×60.0cm
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09(上有司望記)	망기0009(상유사망기)	1	96.0×60.0cm
1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0(上有司望記)	망기0010(상유사망기)	1	98.0×57.5cm
1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1(齋有司望記)	망기0011(재유사망기)	1	97.0×55.5cm
1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2(上有司望記)	망기0012(상유사망기)	1	95.0×56.0cm
1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3(上有司望記)	망기0013(상유사망기)	1	95.0×56.0cm
1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4(上有司望記)	망기0014(상유사망기)	1	95.5×56.5cm
1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5(上有司望記)	망기0015(상유사망기)	1	96.5×56.0cm
1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6(上有司望記)	망기0016(상유사망기)	1	100.0×56.5cm
1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7(上有司望記)	망기0017(상유사망기)	1	96.5×56.5cm
1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8(上有司望記)	망기0018(상유사망기)	1	92.0×57.0cm
1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19(上有司望記)	망기0019(상유사망기)	1	96.0×56.5cm
2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0(上有司望記)	망기0020(상유사망기)	1	90.5×55.0cm
2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1(上有司望記)	망기0021(상유사망기)	1	95.0×56.5cm
2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2(上有司望記)	망기0022(상유사망기)	1	97.0×56.5cm
2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3(上有司望記)	망기0023(상유사망기)	1	101.0×60.0cm
2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4(上有司望記)	망기0024(상유사망기)	1	95.0×56.5cm
2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5(上有司望記)	망기0025(상유사망기)	1	93.0×56.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6(上有司望記)	망기0026(상유사망기)	1	96.0×56.6cm
2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7(上有司望記)	망기0027(상유사망기)	1	96.0×57.0cm
2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8(上有司望記)	망기0028(상유사망기)	1	90.0×54.5cm
2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29(上有司望記)	망기0029(상유사망기)	1	96.5×57.0cm
3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0(上有司望記)	망기0030(상유사망기)	1	96.5×57.0cm
3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1(上有司望記)	망기0031(상유사망기)	1	95.5×56.5cm
3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2(上有司望記)	망기0032(상유사망기)	1	83.5×55.0cm
3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3(上有司望記)	망기0033(상유사망기)	1	93.5×56.0cm
3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4(上有司望記)	망기0034(상유사망기)	1	96.0×55.0cm
3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5(上有司望記)	망기0035(상유사망기)	1	95.0×56.0cm
3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6(上有司望記)	망기0036(상유사망기)	1	92.0×57.0cm
3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7(上有司望記)	망기0037(상유사망기)	1	92.0×55.0cm
3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8(上有司望記)	망기0038(상유사망기)	1	92.0×55.0cm
3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39(上有司望記)	망기0039(상유사망기)	1	99.5×56.5cm
4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0(上有司望記)	망기0040(상유사망기)	1	93.0×55.0cm
4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1(上有司望記)	망기0041(상유사망기)	1	92.5×55.0cm
4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2(上有司望記)	망기0042(상유사망기)	1	102.0×59.5cm
4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3(上有司望記)	망기0043(상유사망기)	1	94.0×56.0cm
4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4(上有司望記)	망기0044(상유사망기)	1	96.0×55.0cm
4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5(上有司望記)	망기0045(상유사망기)	1	91.0×56.5cm
4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6(齋有司望記)	망기0046(재유사망기)	1	87.0×52.0cm
4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7(齋有司望記)	망기0047(재유사망기)	1	60.0×26.0cm
4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8(齋有司望記)	망기0048(재유사망기)	1	90.5×53.0cm
4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49(齋有司望記)	망기0049(재유사망기)	1	95.0×54.0cm
5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0(土地調査有司望記)	망기0050(토지조사유사망기)	1	93.0×56.5cm
5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1(土地調査有司望記)	망기0051(토지조사유사망기)	1	92.0×38.5cm
5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2(土地調査有司望記)	망기0052(토지조사유사망기)	1	57.5×56.0cm
5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3(上有司望記)	망기0053(상유사망기)	1	97.0×57.0cm
5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4(上有司望記)	망기0054(상유사망기)	1	95.0×57.0cm
5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5(上有司望記)	망기0055(상유사망기)	1	98.5×57.0cm
5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6(上有司望記)	망기0056(상유사망기)	1	99.0×56.0cm
5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7(上有司望記)	망기0057(상유사망기)	1	99.0×56.5cm
5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8(上有司望記)	망기0058(상유사망기)	1	98.0×56.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5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59(上有司望記)	망기0059(상유사망기)	1	95.0×57.0cm
6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0(上有司望記)	망기0060(상유사망기)	1	102.0×56.0cm
6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1(上有司望記)	망기0061(상유사망기)	1	99.0×56.0cm
6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2(上有司望記)	망기0062(상유사망기)	1	98.0×57.0cm
6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3(上有司望記)	망기0063(상유사망기)	1	95.0×56.5cm
6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4(上有司望記)	망기0064(상유사망기)	1	88.5×49.5cm
6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5(上有司望記)	망기0065(상유사망기)	1	97.5×49.5cm
6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6(上有司望記)	망기0066(상유사망기)	1	97.5×52.0cm
6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7(上有司望記)	망기0067(상유사망기)	1	57.5×99.0cm
6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8(上有司望記)	망기0068(상유사망기)	1	100.0×54.0cm
6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69(上有司望記)	망기0069(상유사망기)	1	93.5×52.0cm
7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0(上有司望記)	망기0070(상유사망기)	1	54.5×99.5cm
7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1(上有司望記)	망기0071(상유사망기)	1	52.0×96.5cm
7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2(上有司望記)	망기0072(상유사망기)	1	56.0×98.5cm
7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3(上有司望記)	망기0073(상유사망기)	1	51.5×97.0cm
7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4(上有司望記)	망기0074(상유사망기)	1	55.5×94.0cm
7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5(上有司望記)	망기0075(상유사망기)	1	52.5×100.0cm
7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6(上有司望記)	망기0076(상유사망기)	1	50.0×94.5cm
7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7(上有司望記)	망기0077(상유사망기)	1	96.0×52.5cm
7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8(上有司望記)	망기0078(상유사망기)	1	97.0×52.0cm
7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79(上有司望記)	망기0079(상유사망기)	1	99.0×53.5cm
8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0(上有司望記)	망기0080(상유사망기)	1	97.0×52.0cm
8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1(上有司望記)	망기0081(상유사망기)	1	97.5×56.5cm
8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2(上有司望記)	망기0082(상유사망기)	1	99.0×57.5cm
8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3(上有司望記)	망기0083(상유사망기)	1	91.0×55.0cm
8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4(上有司望記)	망기0084(상유사망기)	1	99.0×57.0cm
8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5(上有司望記)	망기0085(상유사망기)	1	92.0×55.0cm
8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6(上有司望記)	망기0086(상유사망기)	1	95.5×57.0cm
8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7(上有司望記)	망기0087(상유사망기)	1	98.0×56.5cm
8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8(上有司望記)	망기0088(상유사망기)	1	96.5×56.5cm
8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89(上有司望記)	망기0089(상유사망기)	1	91.0×57.0cm
9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0(上有司望記)	망기0090(상유사망기)	1	96.5×57.0cm
9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1(上有司望記)	망기0091(상유사망기)	1	86.5×53.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9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2(上有司望記)	망기0092(상유사망기)	1	95.0×55.5cm
9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3(上有司望記)	망기0093(상유사망기)	1	97.0×57.0cm
9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4(上有司望記)	망기0094(상유사망기)	1	96.5×53.0cm
9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5(上有司望記)	망기0095(상유사망기)	1	98.0×53.0cm
9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6(上有司望記)	망기0096(상유사망기)	1	94.0×51.0cm
9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7(上有司望記)	망기0097(상유사망기)	1	96.5×54.0cm
9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8(上有司望記)	망기0098(상유사망기)	1	100.5×56.5cm
9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099(上有司望記)	망기0099(상유사망기)	1	97.0×56.5cm
10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0(上有司望記)	망기0100(상유사망기)	1	98.0×52.5cm
10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1(上有司望記)	망기0101(상유사망기)	1	97.5×52.0cm
10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2(上有司望記)	망기0102(상유사망기)	1	96.0×55.5cm
10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3(上有司望記)	망기0103(상유사망기)	1	91.5×54.0cm
10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4(上有司望記)	망기0104(상유사망기)	1	97.0×55.5cm
10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5(上有司望記)	망기0105(상유사망기)	1	54.0×54.0cm
10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6(上有司望記)	망기0106(상유사망기)	1	98.0×55.5cm
10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7(上有司望記)	망기0107(상유사망기)	1	98.5×52.0cm
10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8(上有司望記)	망기0108(상유사망기)	1	92.0×54.0cm
10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09(上有司望記)	망기0109(상유사망기)	1	97.5×52.5cm
11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0(上有司望記)	망기0110(상유사망기)	1	100.0×55.0cm
11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1(上有司望記)	망기0111(상유사망기)	1	101.0×56.0cm
11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2(上有司望記)	망기0112(상유사망기)	1	97.0×56.0cm
11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3(上有司望記)	망기0113(상유사망기)	1	100.5×56.5cm
11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4(上有司望記)	망기0114(상유사망기)	1	92.5×55.5cm
11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5(上有司望記)	망기0115(상유사망기)	1	97.0×54.0cm
11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6(上有司望記)	망기0116(상유사망기)	1	96.5×55.0cm
11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7(上有司望記)	망기0117(상유사망기)	1	98.0×54.0cm
11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8(上有司望記)	망기0118(상유사망기)	1	96.5×55.0cm
11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19(上有司望記)	망기0119(상유사망기)	1	95.0×55.0cm
12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0(上有司望記)	망기0120(상유사망기)	1	96.5×55.0cm
12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1(上有司望記)	망기0121(상유사망기)	1	97.0×54.5cm
12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2(上有司望記)	망기0122(상유사망기)	1	94.0×54.0cm
12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3(上有司望記)	망기0123(상유사망기)	1	99.0×55.0cm
12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4(上有司望記)	망기0124(상유사망기)	1	103.0×56.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2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5(上有司望記)	망기0125(상유사망기)	1	101.5×54.5cm
12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6(上有司望記)	망기0126(상유사망기)	1	100.0×57.0cm
12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7(上有司望記)	망기0127(상유사망기)	1	87.0×56.0cm
12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8(上有司望記)	망기0128(상유사망기)	1	102.0×55.5cm
12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29(上有司望記)	망기0129(상유사망기)	1	103.5×55.5cm
13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0(上有司望記)	망기0130(상유사망기)	1	101.0×55.5cm
13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1(上有司望記)	망기0131(상유사망기)	1	100.0×57.0cm
13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2(上有司望記)	망기0132(상유사망기)	1	95.5×55.0cm
13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3(上有司望記)	망기0133(상유사망기)	1	102.0×55.0cm
13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4(上有司望記)	망기0134(상유사망기)	1	102.0×55.0cm
13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5(上有司望記)	망기0135(상유사망기)	1	81.5×50.5cm
13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6(上有司望記)	망기0136(상유사망기)	1	90.0×55.0cm
13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7(上有司望記)	망기0137(상유사망기)	1	95.5×51.5cm
13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8(上有司望記)	망기0138(상유사망기)	1	84.0×51.0cm
13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39(上有司望記)	망기0139(상유사망기)	1	85.5×51.0cm
14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0(上有司望記)	망기0140(상유사망기)	1	81.0×50.5cm
14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1(上有司望記)	망기0141(상유사망기)	1	92.0×51.0cm
14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2(上有司望記)	망기0142(상유사망기)	1	91.5×52.0cm
14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3(上有司望記)	망기0143(상유사망기)	1	95.5×54.5cm
14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4(上有司望記)	망기0144(상유사망기)	1	92.0×54.0cm
14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5(上有司望記)	망기0145(상유사망기)	1	96.5×54.5cm
14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6(上有司望記)	망기0146(상유사망기)	1	97.0×54.5cm
14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7(上有司望記)	망기0147(상유사망기)	1	90.0×52.0cm
14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8(上有司望記)	망기0148(상유사망기)	1	98.0×54.5cm
14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49(上有司望記)	망기0149(상유사망기)	1	97.0×54.5cm
15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0(上有司望記)	망기0150(상유사망기)	1	97.0×55.0cm
15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1(上有司望記)	망기0151(상유사망기)	1	97.0×54.5cm
15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2(上有司望記)	망기0152(상유사망기)	1	95.0×54.0cm
15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3(上有司望記)	망기0153(상유사망기)	1	101.0×56.0cm
15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4(上有司望記)	망기0154(상유사망기)	1	74.5×55.5cm
15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5(上有司望記)	망기0155(상유사망기)	1	103.0×56.0cm
15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6(上有司望記)	망기0156(상유사망기)	1	97.5×52.0cm
15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7(上有司望記)	망기0157(상유사망기)	1	93.0×57.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5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8(上有司望記)	망기0158(상유사망기)	1	101.5×55.5cm
15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59(上有司望記)	망기0159(상유사망기)	1	97.0×54.5cm
16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0(上有司望記)	망기0160(상유사망기)	1	97.0×55.0cm
16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1(上有司望記)	망기0161(상유사망기)	1	97.5×56.0cm
16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2(上有司望記)	망기0162(상유사망기)	1	97.0×56.5cm
16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3(上有司望記)	망기0163(상유사망기)	1	98.5×55.5cm
16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4(上有司望記)	망기0164(상유사망기)	1	97.5×56.0cm
16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5(上有司望記)	망기0165(상유사망기)	1	98.5×56.5cm
16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6(上有司望記)	망기0166(상유사망기)	1	98.0×54.5cm
16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7(上有司望記)	망기0167(상유사망기)	1	97.0×56.5cm
16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8(上有司望記)	망기0168(상유사망기)	1	100.0×56.0cm
16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69(上有司望記)	망기0169(상유사망기)	1	98.0×56.0cm
17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0(上有司望記)	망기0170(상유사망기)	1	97.0×55.0cm
17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1(上有司望記)	망기0171(상유사망기)	1	96.5×56.5cm
17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2(上有司望記)	망기0172(상유사망기)	1	101.0×55.0cm
17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3(上有司望記)	망기0173(상유사망기)	1	99.0×56.0cm
17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4(上有司望記)	망기0174(상유사망기)	1	98.0×55.0cm
17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5(上有司望記)	망기0175(상유사망기)	1	97.5×55.0cm
17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6(上有司望記)	망기0176(상유사망기)	1	98.5×55.5cm
17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7(上有司望記)	망기0177(상유사망기)	1	95.0×55.0cm
17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8(上有司望記)	망기0178(상유사망기)	1	102.0×55.5cm
17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79(上有司望記)	망기0179(상유사망기)	1	100.0×55.0cm
18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0(上有司望記)	망기0180(상유사망기)	1	100.5×57.0cm
18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1(上有司望記)	망기0181(상유사망기)	1	100.5×55.0cm
18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2(上有司望記)	망기0182(상유사망기)	1	101.0×55.5cm
18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3(上有司望記)	망기0183(상유사망기)	1	100.5×55.5cm
18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4(上有司望記)	망기0184(상유사망기)	1	95.5×55.5cm
18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5(上有司望記)	망기0185(상유사망기)	1	101.0×54.5cm
18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6(上有司望記)	망기0186(상유사망기)	1	95.5×55.5cm
18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7(上有司望記)	망기0187(상유사망기)	1	100.0×57.0cm
18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8(上有司望記)	망기0188(상유사망기)	1	100.0×55.0cm
18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89(上有司望記)	망기0189(상유사망기)	1	97.5×55.5cm
19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0(上有司望記)	망기0190(상유사망기)	1	95.0×55.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9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1(上有司望記)	망기0191(상유사망기)	1	101.0×55.5cm
19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2(上有司望記)	망기0192(상유사망기)	1	98.5×55.0cm
19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3(上有司望記)	망기0193(상유사망기)	1	99.5×56.0cm
19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4(上有司望記)	망기0194(상유사망기)	1	103.0×55.0cm
19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5(上有司望記)	망기0195(상유사망기)	1	97.0×56.0cm
19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6(上有司望記)	망기0196(상유사망기)	1	95.5×54.5cm
19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7(上有司望記)	망기0197(상유사망기)	1	98.0×55.0cm
19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8(上有司望記)	망기0198(상유사망기)	1	97.0×55.0cm
19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199(上有司望記)	망기0199(상유사망기)	1	97.0×55.5cm
20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0(上有司望記)	망기0200(상유사망기)	1	96.5×55.5cm
20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1(上有司望記)	망기0201(상유사망기)	1	99.4×55.0cm
20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2(上有司望記)	망기0202(상유사망기)	1	103.0×55.0cm
20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3(上有司望記)	망기0203(상유사망기)	1	99.0×54.5cm
20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4(上有司望記)	망기0204(상유사망기)	1	97.5×53.0cm
20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5(上有司望記)	망기0205(상유사망기)	1	92.5×54.0cm
20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6(上有司望記)	망기0206(상유사망기)	1	89.5×51.0cm
20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7(上有司望記)	망기0207(상유사망기)	1	95.5×50.0cm
20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8(上有司望記)	망기0208(상유사망기)	1	92.5×55.0cm
20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09(上有司望記)	망기0209(상유사망기)	1	93.0×54.5cm
21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0(上有司望記)	망기0210(상유사망기)	1	97.5×56.5cm
21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1(上有司望記)	망기0211(상유사망기)	1	87.5×50.5cm
21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2(上有司望記)	망기0212(상유사망기)	1	96.5×54.5cm
213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3(上有司望記)	망기0213(상유사망기)	1	96.4×53.0cm
214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4(上有司望記)	망기0214(상유사망기)	1	93.0×54.5cm
215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5(上有司望記)	망기0215(상유사망기)	1	90.0×54.5cm
216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6(上有司望記)	망기0216(상유사망기)	1	96.0×52.0cm
217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7(上有司望記)	망기0217(상유사망기)	1	96.0×55.0cm
218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8(上有司望記)	망기0218(상유사망기)	1	87.5×50.5cm
219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19(齋有司望記)	망기0219(재유사망기)	1	97.0×53.0cm
220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20(齋有司望記)	망기0220(재유사망기)	1	93.5×50.0cm
221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21(上有司望記)	망기0221(상유사망기)	1	90.0×45.0cm
222	고문서	置簿記	望記	望記0222(陶山書院享禮時獻官)	망기0222(도산서원향례시헌관)	1	82.0×52.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	----	------	------	-----	-------	----	----

6. 明文 [38점]

1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01(土地賣買文記)	명문0001(토지매매문기)	1	52.5×44.5cm
2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02(奴婢許贖明文)	명문0002(노비허속명문)	1	57.5×52.0cm
3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03(土地賣買文記)	명문0003(토지매매문기)	1	45.0×67.5cm
4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04(土地賣買文記)	명문0004(토지매매문기)	1	25.0×40.0cm
5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05(土地賣渡證)	명문0005(토지매도증)	1	21.0×31.5cm
6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06(土地賣渡證書)	명문0006(토지매도증서)	1	29.0×52.5cm
7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07(土地賣買文記)	명문0007(토지매매문기)	1	40.0×51.5cm
8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08(土地賣買文記)	명문0008(토지매매문기)	1	41.0×29.0cm
9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09(土地賣買文記)	명문0009(토지매매문기)	1	56.0×46.0cm
10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0(土地賣買文記)	명문0010(토지매매문기)	1	37.5×26.0cm
11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1(土地賣買文記)	명문0011(토지매매문기)	1	45.0×33.0cm
12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2(土地賣買文記)	명문0012(토지매매문기)	1	47.0×37.0cm
13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3(土地賣買文記)	명문0013(토지매매문기)	1	83.0×53.5cm
14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4(土地賣買文記)	명문0014(토지매매문기)	1	45.0×28.0cm
15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5(土地賣買文記)	명문0015(토지매매문기)	1	44.0×36.0cm
16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6(土地賣買文記)	명문0016(토지매매문기)	1	44.5×35.0cm
17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7(土地賣買文記)	명문0017(토지매매문기)	1	42.0×33.5cm
18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8(土地賣買文記)	명문0018(토지매매문기)	1	39.0×34.0cm
19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19(土地賣買文記)	명문0019(토지매매문기)	1	44.0×35.0cm
20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0(土地賣買文記)	명문0020(토지매매문기)	1	41.5×30.0cm
21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1(土地賣買文記)	명문0021(토지매매문기)	1	46.5×34.0cm
22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2(土地賣買文記)	명문0022(토지매매문기)	1	45.0×34.0cm
23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3(土地賣買文記)	명문0023(토지매매문기)	1	37.0×60.5cm
24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4(土地賣買文記)	명문0024(토지매매문기)	1	26.0×40.0cm
25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5(土地賣買文記)	명문0025(토지매매문기)	1	54.5×49.0cm
26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6(奴婢賣買文記)	명문0026(노비매매문기)	1	34.0×46.0cm
27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7(奴婢賣買文記)	명문0027(노비매매문기)	1	37.0×48.0cm
28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8(奴婢賣買文記)	명문0028(노비매매문기)	1	37.5×49.5cm
29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29(奴婢賣買文記)	명문0029(노비매매문기)	1	31.5×42.0cm
30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0(奴婢賣買文記)	명문0030(노비매매문기)	1	34.5×49.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1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1(奴婢賣買文記)	명문0031(노비매매문기)	1	48.0×60.0cm
32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2(奴婢賣買文記)	명문0032(노비매매문기)	1	39.0×57.5cm
33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3(土地賣渡證書)	명문0033(토지매도증서)	1	24.5×46.5cm
34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4(田畝賣買文記)	명문0034(전답매매문기)	1	50.0×37.5cm
35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5(奴婢賣買文記)	명문0035(노비매매문기)	1	42.0×71.5cm
36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6(紙桶賣買文記)	명문0036(지통매매문기)	1	30.7×53.0cm
37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7(奴婢賣買文記)	명문0037(노비매매문기)	1	37.0×33.0cm
38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8	명문0038	1	24.0×38.0cm

7. 物目 [2점]

1	고문서	置簿記	物目	物目0001(單子1:祭需單子)	물목0001(단자1:제수단자)	1	25.0×17.5cm
2	고문서	置簿記	物目	物目0002(單子10:祭物單子)	물목0002(단자10:제물단자)	1	42.7×45.5cm

8. 事目 [5점]

1	고문서	事目節目	事目	事目0001(節目)	사목0001(절목)	1	13.0×52.5cm
2	고문서	事目節目	事目	事目0002(節目)	사목0002(절목)	1	24.0×108.0cm
3	고문서	事目節目	事目	事目0003(節目)	사목0003(절목)	1	15.0×57.0cm
4	고문서	事目節目	事目	事目0004(節目(式例))	사목0004(절목(식례))	1	33.0×113.0cm
5	고문서	事目節目	事目	事目0005(節目)	사목0005(절목)	1	27.0×71.0cm

9. 上疏 [1점]

1	고문서	疏筭狀啓	上疏	上疏0001(思悼世子追尊萬人疏)	상소0001(사도세자추존만인소)	1	111.0×9650.0cm
---	-----	------	----	-------------------	-------------------	---	----------------

10. 成冊 [702점]

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01(傳掌記)	성책0001(전장기)	1	35.0×25.0cm
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02(傳掌記)	성책0002(전장기)	1	35.5×24.0cm
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03(傳掌記)	성책0003(전장기)	1	34.0×23.5cm
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04(傳掌記)	성책0004(전장기)	1	33.0×21.5cm
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05(傳掌記)	성책0005(전장기)	1	37.5×26.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06(傳掌記)	성책0006(전장기)	1	37.0×24.0cm
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07(傳掌記)	성책0007(전장기)	1	33.0×22.5cm
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08(傳掌記)	성책0008(전장기)	1	36.5×22.0cm
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09(傳掌記)	성책0009(전장기)	1	36.0×23.0cm
1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0(獻官執事案)	성책0010(헌관집사안)	1	33.5×21.0cm
1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1(傳掌記)	성책0011(전장기)	1	37.0×24.0cm
1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2(傳掌記)	성책0012(전장기)	1	33.5×24.0cm
1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3(傳掌記)	성책0013(전장기)	1	30.0×26.5cm
1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4(傳掌記)	성책0014(전장기)	1	31.5×25.5cm
1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5(傳掌記)	성책0015(전장기)	1	25.5×31.5cm
1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6(傳掌記)	성책0016(전장기)	1	30.5×27.0cm
1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7(傳掌記)	성책0017(전장기)	1	30.0×27.5cm
1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8(傳掌記)	성책0018(전장기)	1	31.0×27.0cm
1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19(傳掌記)	성책0019(전장기)	1	31.5×27.0cm
2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0(傳掌記)	성책0020(전장기)	1	24.0×24.5cm
2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1(傳掌案)	성책0021(전장안)	1	31.0×27.0cm
2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2(傳掌案)	성책0022(전장안)	1	30.0×26.0cm
2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3(傳掌案)	성책0023(전장안)	1	29.0×27.5cm
2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4(傳掌案)	성책0024(전장안)	1	31.0×26.0cm
2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5(傳掌案)	성책0025(전장안)	1	36.5×24.0cm
2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6(傳掌案)	성책0026(전장안)	1	33.0×30.0cm
2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7(傳掌案)	성책0027(전장안)	1	32.5×30.0cm
2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8(傳掌案)	성책0028(전장안)	1	34.0×22.0cm
2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29(傳掌案)	성책0029(전장안)	1	32.5×28.0cm
3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0(傳掌記)	성책0030(전장기)	1	30.5×31.5cm
3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1(傳掌記)	성책0031(전장기)	1	31.5×45.0cm
3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2(傳掌記)	성책0032(전장기)	1	40.0×32.0cm
3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3(傳掌記)	성책0033(전장기)	1	48.5×31.0cm
3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4(傳掌記)	성책0034(전장기)	1	45.0×31.0cm
3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5(藏書傳掌記)	성책0035(장서전장기)	1	28.0×25.0cm
3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6(藏書傳掌記)	성책0036(장서전장기)	1	31.0×27.0cm
3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7(藏書傳掌記)	성책0037(장서전장기)	1	38.0×25.0cm
3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8(藏書傳掌記)	성책0038(장서전장기)	1	33.5×33.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39(藏書傳掌記)	성책0039(장서전장기)	1	30.5×29.5cm
4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0(藏書傳掌記)	성책0040(장서전장기)	1	28.5×26.0cm
4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1(藏書傳掌記)	성책0041(장서전장기)	1	31.0×29.0cm
4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2(藏書傳掌記)	성책0042(장서전장기)	1	32.0×28.0cm
4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3(藏書傳掌記)	성책0043(장서전장기)	1	34.0×23.5cm
4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4(藏書傳掌記)	성책0044(장서전장기)	1	31.5×31.5cm
4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5(傳掌案)	성책0045(전장안)	1	30.0×27.0cm
4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6(傳掌案)	성책0046(전장안)	1	27.0×30.0cm
4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7(藏書傳掌記)	성책0047(장서전장기)	1	23.5×23.5cm
4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8(傳掌案)	성책0048(전장안)	1	24.0×28.0cm
4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49(傳掌案)	성책0049(전장안)	1	24.5×28.5cm
5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0(傳掌記)	성책0050(전장기)	1	23.5×28.0cm
5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1(傳掌記)	성책0051(전장기)	1	25.0×28.5cm
5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2(傳掌記)	성책0052(전장기)	1	38.0×30.5cm
5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3(傳掌記)	성책0053(전장기)	1	38.0×32.0cm
5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4(傳掌記)	성책0054(전장기)	1	39.5×33.0cm
5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5(傳掌記)	성책0055(전장기)	1	35.5×23.5cm
5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6(傳掌記)	성책0056(전장기)	1	37.0×23.0cm
5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7(傳掌記)	성책0057(전장기)	1	32.5×22.5cm
5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8(藏書傳掌記)	성책0058(장서전장기)	1	24.0×24.5cm
5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59(執事案)	성책0059(집사안)	1	34.0×23.0cm
6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0(執事案)	성책0060(집사안)	1	35.0×21.0cm
6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1(獻官執事案)	성책0061(헌관집사안)	1	37.0×31.0cm
6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2(獻官執事案)	성책0062(헌관집사안)	1	330.0×27.5cm
6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3(獻官執事案)	성책0063(헌관집사안)	1	37.5×29.0cm
6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4(獻官執事案)	성책0064(헌관집사안)	1	21.0×33.0cm
6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5(獻官執事案)	성책0065(헌관집사안)	1	29.5×35.0cm
6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6(獻官執事案)	성책0066(헌관집사안)	1	35.0×21.0cm
6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7(尋院錄)	성책0067(심원록)	1	33.0×23.0cm
6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8(尋院錄)	성책0068(심원록)	1	35.0×29.0cm
6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69(尋院錄)	성책0069(심원록)	1	34.0×22.0cm
7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0(尋院錄)	성책0070(심원록)	1	35.0×26.0cm
7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1(尋院錄)	성책0071(심원록)	1	33.5×27.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7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2(尋院錄)	성책0072(심원록)	1	34.5×30.5cm
7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3(尋院錄)	성책0073(심원록)	1	33.0×29.5cm
7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4(尋院錄)	성책0074(심원록)	1	29.5×20.0cm
7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5(尋院錄)	성책0075(심원록)	1	30.5×28.0cm
7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6(尋院錄)	성책0076(심원록)	1	33.5×28.0cm
7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7(尋院錄)	성책0077(심원록)	1	36.0×30.5cm
7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8(尋院錄)	성책0078(심원록)	1	37.5×30.5cm
7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79(尋院錄)	성책0079(심원록)	1	37.0×31.5cm
8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0(尋院錄)	성책0080(심원록)	1	42.5×35.5cm
8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1(尋院錄)	성책0081(심원록)	1	33.0×28.0cm
8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2(尋院錄)	성책0082(심원록)	1	39.5×23.0cm
8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3(尋院錄)	성책0083(심원록)	1	37.5×30.0cm
8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4(尋院錄)	성책0084(심원록)	1	36.0×21.0cm
8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5(尋院錄)	성책0085(심원록)	1	38.0×30.0cm
8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6(尋院錄)	성책0086(심원록)	1	42.5×24.5cm
8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7(尋院錄)	성책0087(심원록)	1	39.0×24.5cm
8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8(尋院錄)	성책0088(심원록)	1	40.5×24.5cm
8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89(尋院錄)	성책0089(심원록)	1	32.0×27.5cm
9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0(尋院錄)	성책0090(심원록)	1	33.0×29.5cm
9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1(尋院錄)	성책0091(심원록)	1	32.5×28.5cm
9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2(尋院錄)	성책0092(심원록)	1	35.5×23.5cm
9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3(尋院錄)	성책0093(심원록)	1	32.5×23.0cm
9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4(尋院錄)	성책0094(심원록)	1	30.5×26.0cm
9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5(尋院錄)	성책0095(심원록)	1	31.0×28.0cm
9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6(尋院錄)	성책0096(심원록)	1	25.0×28.0cm
9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7(尋院錄)	성책0097(심원록)	1	36.5×24.0cm
9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8(尋院錄)	성책0098(심원록)	1	33.5×25.0cm
9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099(尋院錄)	성책0099(심원록)	1	35.5×24.0cm
10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0(尋院錄)	성책0100(심원록)	1	37.5×30.0cm
10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1(尋院錄)	성책0101(심원록)	1	38.5×31.5cm
10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2(尋院錄)	성책0102(심원록)	1	39.0×31.0cm
10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3(尋院錄)	성책0103(심원록)	1	39.0×32.5cm
10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4(尋院錄)	성책0104(심원록)	1	39.0×31.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0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5(尋院錄)	성책0105(심원록)	1	36.5×32.0cm
10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6(尋院錄)	성책0106(심원록)	1	36.0×32.0cm
10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7(尋院錄)	성책0107(심원록)	1	38.5×31.5cm
10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8(尋院錄)	성책0108(심원록)	1	36.5×26.0cm
10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09(尋院錄)	성책0109(심원록)	1	36.5×26.0cm
11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0(尋院錄)	성책0110(심원록)	1	38.5×25.0cm
11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1(尋院錄)	성책0111(심원록)	1	36.0×24.5cm
11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2(尋院錄)	성책0112(심원록)	1	35.0×24.0cm
11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3(尋院錄)	성책0113(심원록)	1	37.5×25.0cm
11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4(尋院錄)	성책0114(심원록)	1	37.0×26.5cm
11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5(尋院錄)	성책0115(심원록)	1	36.0×31.0cm
11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6(尋院錄)	성책0116(심원록)	1	37.0×31.5cm
11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7(尋院錄)	성책0117(심원록)	1	39.0×25.0cm
11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8(尋院錄)	성책0118(심원록)	1	35.0×26.0cm
11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19(尋院錄)	성책0119(심원록)	1	33.5×22.5cm
12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0(尋院錄)	성책0120(심원록)	1	35.0×25.5cm
12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1(尋院錄)	성책0121(심원록)	1	36.5×26.0cm
12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2(尋院錄)	성책0122(심원록)	1	34.0×25.0cm
12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3(尋院錄)	성책0123(심원록)	1	35.0×25.0cm
12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4(尋院錄)	성책0124(심원록)	1	37.0×24.5cm
12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5(尋院錄)	성책0125(심원록)	1	34.5×23.5cm
12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6(尋院錄)	성책0126(심원록)	1	37.5×26.0cm
12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7(尋院錄)	성책0127(심원록)	1	37.0×25.0cm
12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8(尋院錄)	성책0128(심원록)	1	34.0×25.0cm
12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29(尋院錄)	성책0129(심원록)	1	35.0×25.0cm
13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0(尋院錄)	성책0130(심원록)	1	36.0×26.0cm
13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1(尋院錄)	성책0131(심원록)	1	37.0×26.5cm
13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2(尋院錄)	성책0132(심원록)	1	37.5×28.5cm
13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3(尋院錄)	성책0133(심원록)	1	37.5×28.5cm
13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4(尋院錄)	성책0134(심원록)	1	35.5×29.0cm
13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5(乙酉春秋收記)	성책0135(을유춘추수기)	1	29.0×30.0cm
13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6(別所秋收田畝案)	성책0136(별소추수전답안)	1	23.0×28.0cm
13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7(春秋收記)	성책0137(춘추수기)	1	25.0×28.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3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8(春秋收記)	성책0138(춘추수기)	1	25.0×28.0cm
13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39(春秋收記)	성책0139(춘추수기)	1	25.0×28.0cm
14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0(陶山書院春秋收捧記)	성책0140(도산서원춘추수봉기)	1	16.5×28.0cm
14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1(乙卯春收記)	성책0141(을묘춘수기)	1	22.0×25.5cm
14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2(己巳春收)	성책0142(기사춘수)	1	22.5×27.0cm
14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3(庚寅春秋收記)	성책0143(경인춘추수기)	1	26.0×28.5cm
14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4(戊子春秋收記)	성책0144(무자춘추수기)	1	24.5×28.5cm
14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5(甲申春收記)	성책0145(갑신춘수기)	1	23.0×27.0cm
14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6(壬戌春收記)	성책0146(임술춘수기)	1	23.5×27.0cm
14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7(辛酉春收記)	성책0147(신유춘수기)	1	23.0×26.0cm
14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8(庚申春收記)	성책0148(경신춘수기)	1	22.0×25.0cm
14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49(丙戌春秋收記)	성책0149(병술춘추수기)	1	27.5×31.5cm
15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0(戊午春收記)	성책0150(무오춘수기)	1	22.0×25.0cm
15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1(丁卯陶山書院春秋爲數未捧記)	성책0151(정묘도산서원춘추위수미봉기)	1	12.5×27.0cm
15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2(春秋收記)	성책0152(춘추수기)	1	26.0×26.5cm
15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3(甲午秋收記)	성책0153(갑오추수기)	1	25.5×28.5cm
15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4(乙未春收記)	성책0154(을미춘수기)	1	17.0×28.0cm
15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5(丙申春收記)	성책0155(병신춘수기)	1	19.5×28.5cm
15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6(丁酉春收記)	성책0156(정유춘수기)	1	24.0×28.0cm
15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7(戊戌春秋收記)	성책0157(무술춘추수기)	1	24.5×29.0cm
15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8(己亥春秋收賭租記)	성책0158(기해춘추수도조기)	1	20.0×29.0cm
15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59(現金收支簿)	성책0159(현금수지부)	1	22.0×24.0cm
16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0(別庫土地目錄)	성책0160(별고토지목록)	1	23.0×27.5cm
16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1(乙未穀用收支簿)	성책0161(을미곡용수지부)	1	28.0×28.0cm
16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2(穀用收支簿)	성책0162(곡용수지부)	1	23.5×27.5cm
16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3(丙申春秋收記)	성책0163(병신춘추수기)	1	22.5×28.0cm
16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4(丁酉收賭記)	성책0164(정유수도기)	1	24.5×28.5cm
16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5(癸卯春秋收記)	성책0165(계묘춘추수기)	1	16.0×27.5cm
16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6(甲辰春秋收記)	성책0166(갑진춘추수기)	1	16.5×23.5cm
16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7(癸卯~甲辰錢用記)	성책0167(계묘~갑진전용기)	1	23.5×28.0cm
16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8(癸卯~甲辰穀用記)	성책0168(계묘~갑진곡용기)	1	23.5×27.0cm
16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69(癸卯~甲辰米用記)	성책0169(계묘~갑진미용기)	1	24.5×28.0cm
17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0(癸卯~甲辰月下記)	성책0170(계묘~갑진월하기)	1	17.0×27.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7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1(辛丑秋收記)	성책0171(신축추수기)	1	15.0×27.0cm
17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2(辛丑春收記)	성책0172(신축춘수기)	1	16.0×28.0cm
17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3(壬寅 春秋收記)	성책0173(임인 춘추수기)	1	16.0×27.0cm
17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4(乙巳春收記)	성책0174(을사춘수기)	1	16.0×27.5cm
17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5(庚戌春收記)	성책0175(경술춘수기)	1	17.0×28.5cm
17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6(丙午春秋收記)	성책0176(병오춘추수기)	1	15.5×28.0cm
17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7(庚午陶山書院修理所秋收記)	성책0177(경오도산서원수리소추수기)	1	19.5×18.5cm
17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8(祭需所田畓成冊)	성책0178(제수소전답성책)	1	15.5×17.5cm
17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79(刊役所下記)	성책0179(간역소하기)	1	19.0×18.0cm
18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0(癸丑陶山書院春收記)	성책0180(계축도산서원춘수기)	1	22.5×15.0cm
18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1(乙亥春收記)	성책0181(을해춘수기)	1	24.5×26.5cm
18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2(丁巳春收記)	성책0182(정사춘수기)	1	20.0×12.5cm
18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3(辛亥陶山書院春收記)	성책0183(신해도산서원춘수기)	1	22.0×14.5cm
18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4(己未春收記)	성책0184(기미춘수기)	1	33.0×22.5cm
18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5(己未隨補所)	성책0185(기미수보소)	1	18.0×28.5cm
18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6(隨補所記事)	성책0186(수보소기사)	1	25.0×29.0cm
18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7(丁卯春穀收賞記)	성책0187(정묘춘곡수세기)	1	29.0×18.0cm
18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8(乙巳田畓春秋收賞記)	성책0188(을사전답춘추수세기)	1	29.0×26.0cm
18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89(己亥田畓春秋收賞記)	성책0189(기해전답춘추수세기)	1	30.5×26.5cm
19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0(己亥道會時到記)	성책0190(기해도회시도기)	1	18.0×17.0cm
19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1(時到記)	성책0191(시도기)	1	27.5×17.5cm
19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2(丙寅享禮時到記)	성책0192(병인향례시도기)	1	27.5×17.5cm
19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3(丁卯享禮時到記)	성책0193(정묘향례시도기)	1	16.5×28.0cm
19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4(戊辰享禮時到記)	성책0194(무진향례시도기)	1	15.0×27.0cm
19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5(戊辰堂會時到記)	성책0195(무진당회시도기)	1	15.5×28.0cm
19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6(戊辰享禮時到記)	성책0196(무진향례시도기)	1	16.5×27.5cm
19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7(庚午時到記)	성책0197(경오시도기)	1	13.5×25.0cm
19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8(甲戌堂會時到記)	성책0198(갑술당회시도기)	1	19.0×28.0cm
19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199(乙亥享禮時到記)	성책0199(을해향례시도기)	1	15.5×27.5cm
20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0(丙子堂會時到記)	성책0200(병자당회시도기)	1	17.0×28.5cm
20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1(戊寅享禮時到記)	성책0201(무인향례시도기)	1	24.5×29.0cm
20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2(己卯光明室重修時到記)	성책0202(기묘광명실중수시도기)	1	18.5×26.5cm
20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3(己卯享禮時到記)	성책0203(기묘향례시도기)	1	24.0×26.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0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4(己卯享禮時及堂會時到記)	성책0204(기묘향례시급당회시도기)	1	20.0×28.0cm
20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5(己卯享禮時到記)	성책0205(기묘향례시도기)	1	19.5×28.0cm
20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6(庚辰正謁時到記)	성책0206(경진정알시도기)	1	22.5×27.0cm
20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7(辛巳享禮時到記)	성책0207(신사향례시도기)	1	16.5×28.0cm
20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8(辛巳正謁時到記)	성책0208(신사정알시도기)	1	17.0×28.0cm
20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09(癸未享禮時到記)	성책0209(계미향례시도기)	1	17.0×30.0cm
21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0(癸未享禮時到記)	성책0210(계미향례시도기)	1	17.0×31.0cm
21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1(甲申享禮時到記)	성책0211(갑신향례시도기)	1	23.5×26.5cm
21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2(甲申享禮時到記)	성책0212(갑신향례시도기)	1	22.5×26.5cm
21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3(乙酉享禮時到記)	성책0213(을유향례시도기)	1	15.5×28.0cm
21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4(乙酉曝曬時到記)	성책0214(을유포쇄시도기)	1	16.0×30.5cm
21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5(乙酉享禮時到記)	성책0215(을유향례시도기)	1	18.5×31.0cm
21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6(丙戌正謁時到記)	성책0216(병술정알시도기)	1	15.5×27.5cm
21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7(丙戌享禮時到記)	성책0217(병술향례시도기)	1	18.0×30.0cm
21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8(丙戌享禮時到記)	성책0218(병술향례시도기)	1	18.5×29.5cm
21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19(丁亥享禮時到記)	성책0219(정해향례시도기)	1	21.5×29.0cm
22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0(丁亥壇會時到記)	성책0220(정해단회시도기)	1	17.0×29.0cm
22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1(丁亥光明室書冊曝曬時到記)	성책0221(정해광명실서책포쇄시도기)	1	19.5×29.0cm
22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2(丁亥享禮時到記)	성책0222(정해향례시도기)	1	20.0×29.0cm
22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3(丁亥鄉會時到記)	성책0223(정해향회시도기)	1	17.0×27.5cm
22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4(丁亥正謁時到記)	성책0224(정해정알시도기)	1	21.0×28.5cm
22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5(戊子享禮時到記)	성책0225(술자향례시도기)	1	24.5×28.0cm
22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6(時到記)	성책0226(시도기)	1	19.5×28.0cm
22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7(辛卯享禮時到記)	성책0227(신묘향례시도기)	1	16.5×28.0cm
22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8(壬辰享禮時到記)	성책0228(임진향례시도기)	1	19.5×28.5cm
22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29(壬辰時到記)	성책0229(임진시도기)	1	16.0×27.0cm
23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0(癸巳時到記)	성책0230(계사시도기)	1	17.5×28.0cm
23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1(癸巳享禮時到記)	성책0231(계사향례시도기)	1	17.5×28.0cm
23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2(甲午享禮時到記)	성책0232(갑오향례시도기)	1	16.5×25.0cm
23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3(甲午光明室曝曬時到記)	성책0233(갑오광명실포쇄시도기)	1	16.5×27.5cm
23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4(乙未正謁時到記)	성책0234(을미정알시도기)	1	16.5×28.5cm
23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5(乙未堂會時到記)	성책0235(을미당회시도기)	1	19.0×28.5cm
23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6(乙未時到記)	성책0236(을미시도기)	1	17.0×28.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3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7(乙未享禮時到記)	성책0237(을미향례시도기)	1	19.5×28.5cm
23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8(丙申時到記)	성책0238(병신시도기)	1	16.5×28.0cm
23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39(丙申享禮時到記)	성책0239(병신향례시도기)	1	19.0×27.5cm
24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0(丙申享禮時到記)	성책0240(병신향례시도기)	1	16.5×27.5cm
24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1(丁酉歲謁時到記)	성책0241(정유세알시도기)	1	15.5×28.0cm
24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2(丁酉享禮時到記)	성책0242(정유향례시도기)	1	16.5×28.5cm
24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3(丁酉堂會時到記)	성책0243(정유당회시도기)	1	16.0×28.5cm
24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4(丁酉光明室曝曬時到記)	성책0244(정유광명실포쇄시도기)	1	16.5×28.0cm
24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5(丁酉享禮時到記)	성책0245(정유향례시도기)	1	16.5×28.5cm
24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6(丁酉堂會時到記)	성책0246(정유당회시도기)	1	15.5×28.5cm
24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7(戊戌歲謁時到記)	성책0247(무술세알시도기)	1	16.0×29.0cm
24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8(戊戌享禮時到記)	성책0248(무술향례시도기)	1	16.5×29.0cm
24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49(戊戌堂會時到記)	성책0249(무술당회시도기)	1	16.0×28.5cm
25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0(戊戌享禮時到記)	성책0250(무술향례시도기)	1	15.0×28.5cm
25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1(戊戌時到記)	성책0251(무술시도기)	1	23.0×21.0cm
25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2(己亥正謁時到記)	성책0252(기해정알시도기)	1	16.5×28.5cm
25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3(己亥享禮時到記)	성책0253(기해향례시도기)	1	18.5×28.0cm
25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4(己亥享禮時到記)	성책0254(기해향례시도기)	1	15.5×28.0cm
25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5(己亥堂會時到記)	성책0255(기해당회시도기)	1	17.0×29.0cm
25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6(己亥時到記)	성책0256(기해시도기)	1	20.0×29.0cm
25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7(壬寅正謁時到記)	성책0257(임인정알시도기)	1	16.5×28.5cm
25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8(壬寅堂會時到記)	성책0258(임인당회시도기)	1	16.5×28.5cm
25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59(壬寅享禮時到記)	성책0259(임인향례시도기)	1	18.0×28.0cm
26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0(壬寅曝曬時到記)	성책0260(임인포쇄시도기)	1	16.5×28.5cm
26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1(壬寅享禮時到記)	성책0261(임인향례시도기)	1	22.5×27.0cm
26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2(壬寅堂會時到記)	성책0262(임인당회시도기)	1	18.0×28.0cm
26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3(壬寅堂會時到記)	성책0263(임인당회시도기)	1	16.5×28.5cm
26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4(庚子正謁時到記)	성책0264(경자정알시도기)	1	16.0×28.5cm
26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5(庚子享禮時到記)	성책0265(경자향례시도기)	1	16.0×28.5cm
26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6(庚子還安時到記)	성책0266(경자환안시도기)	1	20.0×29.0cm
26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7(庚子享禮時到記)	성책0267(경자향례시도기)	1	15.5×28.0cm
26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8(庚子時到記)	성책0268(경자시도기)	1	15.5×26.5cm
26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69(時到記)	성책0269(시도기)	1	17.0×28.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7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0(贍學所下記)	성책0270(섬학소하기)	1	15.0×28.0cm
27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1(下記)	성책0271(하기)	1	20.0×28.5cm
27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2(辛丑歲謁時到記)	성책0272(신축세알시도기)	1	15.5×27.5cm
27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3(辛丑享禮時到記)	성책0273(신축향례시도기)	1	17.0×28.5cm
27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4(辛丑堂會時到記)	성책0274(신축당회시도기)	1	16.5×28.0cm
27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5(辛丑享禮時到記)	성책0275(신축향예시도기)	1	18.0×27.0cm
27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6(癸卯享禮時到記)	성책0276(계묘향예시도기)	1	16.0×27.5cm
27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7(癸卯道時到記)	성책0277(계묘도시도기)	1	22.5×28.0cm
27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8(癸卯鄉時到記)	성책0278(계묘향시도기)	1	22.5×28.0cm
27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79(癸卯通告錄)	성책0279(계묘통고록)	1	22.5×28.0cm
28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0(癸卯還安時器具目錄)	성책0280(계묘환안시기구목록)	1	16.5×26.5cm
28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1(癸卯尙德祠還安時都辦)	성책0281(계묘상덕사환안시도판)	1	23.5×28.0cm
28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2(癸卯陶山書堂修理文簿)	성책0282(계묘도산서당수리문부)	1	22.5×27.5cm
28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3(癸卯尙德祠還安時下記)	성책0283(계묘상덕사환안시하기)	1	23.5×28.5cm
28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4(癸卯尙德祠重建時日記)	성책0284(계묘상덕사중건시일기)	1	23.5×27.5cm
28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5(癸卯尙德祠重修時流用記)	성책0285(계묘상덕사중수시유용기)	1	16.5×26.5cm
28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6(甲辰正謁時到記)	성책0286(갑진정알시도기)	1	15.5×28.0cm
28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7(甲辰享禮時到記)	성책0287(갑진향예시도기)	1	15.5×29.0cm
28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8(時到記)	성책0288(시도기)	1	16.0×29.0cm
28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89(甲辰享禮時到記)	성책0289(갑진향례시도기)	1	16.5×28.0cm
29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0(己酉隴雲精舍聚會時到記)	성책0290(기유농운정사취회시도기)	1	15.5×28.0cm
29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1(甲辰隴雲精舍落成時到記)	성책0291(갑진농운정사낙성시도기)	1	21.5×27.0cm
29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2(乙巳享禮時到記)	성책0292(을사향례시도기)	1	15.5×28.5cm
29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3(時到記)	성책0293(시도기)	1	15.5×28.5cm
29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4(丙午享禮時到記)	성책0294(병오향례시도기)	1	15.5×29.0cm
29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5(丁未享禮時到記)	성책0295(정미향례시도기)	1	15.5×29.0cm
29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6(丁未享禮時到記)	성책0296(정미향례시도기)	1	15.5×28.5cm
29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7(戊申享禮時到記)	성책0297(무신향례시도기)	1	18.5×28.0cm
29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8(戊申堂會時到記)	성책0298(무신당회시도기)	1	15.5×29.0cm
29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299(戊申享禮時到記)	성책0299(무신향례시도기)	1	15.5×28.0cm
30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0(己酉正謁時到記)	성책0300(기유정알시도기)	1	20.5×29.0cm
30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1(己酉享禮時到記)	성책0301(기유향례시도기)	1	16.0×27.0cm
30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2(己酉堂會時到記)	성책0302(기유당회시도기)	1	18.5×27.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0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3(己酉陶山書院淨化起工式時到記)	성책0303(기유도산서원정화기공식시도기)	1	23.0×27.5cm
30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4(庚戌時到記)	성책0304(경술시도기)	1	15.0×28.5cm
30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5(庚戌享禮時到記)	성책0305(경술향례시도기)	1	22.0×28.0cm
30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6(庚戌陶山書院重修竣工時到記)	성책0306(경술도산서원증수준공시도기)	1	22.5×28.0cm
30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7(辛亥正謁時到記)	성책0307(신해정알시도기)	1	15.0×28.5cm
30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8(辛亥春享時到記)	성책0308(신해춘향시도기)	1	16.0×28.0cm
30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09(辛亥堂會時到記)	성책0309(신해당회시도기)	1	16.0×28.5cm
31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0(辛亥享禮時到記)	성책0310(신해향례시도기)	1	23.0×28.0cm
31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1(壬子正謁時到記)	성책0311(임자정알시도기)	1	16.0×30.5cm
31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2(壬子享禮時到記)	성책0312(임자향례시도기)	1	16.0×27.0cm
31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3(壬子堂會時到記)	성책0313(임자당회시도기)	1	15.5×27.0cm
31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4(壬子堂會時到記)	성책0314(임자당회시도기)	1	16.0×27.0cm
31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5(壬子享禮時到記)	성책0315(임자향례시도기)	1	15.0×27.0cm
31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6(癸丑正謁時到記)	성책0316(계축정알시도기)	1	15.5×28.5cm
31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7(癸丑享禮時到記)	성책0317(계축향례시도기)	1	19.5×28.0cm
31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8(癸丑曝晒時到記)	성책0318(계축포쇄시도기)	1	16.0×28.5cm
31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19(癸丑享禮時到記)	성책0319(계축향례시도기)	1	15.5×30.0cm
32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0(癸丑時到記)	성책0320(계축시도기)	1	11.5×29.0cm
32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1(甲寅正謁時到記)	성책0321(갑인정알시도기)	1	16.0×29.5cm
32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2(甲寅享禮時到記)	성책0322(갑인향례시도기)	1	16.5×29.5cm
32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3(甲寅享禮時到記)	성책0323(갑인향례시도기)	1	19.5×28.0cm
32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4(乙卯時到記)	성책0324(을묘시도기)	1	19.5×27.5cm
32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5(乙卯堂會時到記)	성책0325(을묘당회시도기)	1	16.5×28.5cm
32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6(乙卯時到記)	성책0326(을묘시도기)	1	23.5×28.0cm
32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7(乙卯享禮時到記)	성책0327(을묘향례시도기)	1	15.0×28.5cm
32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8(丙辰正謁時到記)	성책0328(병진정알시도기)	1	18.0×28.0cm
32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29(丙辰享禮時到記)	성책0329(병진향례시도기)	1	19.0×28.0cm
33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0(辛卯時到記)	성책0330(신묘시도기)	1	16.5×16.0cm
33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1(戊戌享禮時到記)	성책0331(무술향례시도기)	1	15.5×27.0cm
33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2(癸丑時到記)	성책0332(계축시도기)	1	18.5×22.5cm
33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3(甲寅及門錄刊役時到記)	성책0333(갑인급문록간역시도기)	1	13.0×24.0cm
33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4(甲寅時到記)	성책0334(갑인시도기)	1	13.0×24.0cm
33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5(丁丑光明室遺帖見失時到記)	성책0335(정축광명실유첩견실시도기)	1	15.0×17.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3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6(丁巳正謁時到記)	성책0336(정사정알시도기)	1	10.5×25.5cm
33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7(己亥時到記)	성책0337(기해시도기)	1	14.5×27.5cm
33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8(戊辰時到記)	성책0338(무진시도기)	1	15.5×18.0cm
33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39(癸巳時到記)	성책0339(계사시도기)	1	14.5×17.0cm
34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0(癸丑時到記)	성책0340(계축시도기)	1	15.5×27.5cm
34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1(癸丑時到記)	성책0341(계축시도기)	1	11.5×24.0cm
34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2(安東道會時到記)	성책0342(안동도회시도기)	1	16.0×29.5cm
34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3(堤川南塘書院道會時赴會草)	성책0343(제천남당서원도회시부회초)	1	19.5×24.0cm
34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4(陶山進慰時北道各郡諸吏時到記)	성책0344(도산진위시북도각군제리시도기)	1	29.0×28.5cm
34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5(癸丑及門錄營刊時扶助記)	성책0345(계축급문록영간시부조기)	1	24.0×28.0cm
34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6(戊辰修理文簿)	성책0346(무진수리문부)	1	24.0×27.5cm
34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7(己巳巖棲軒修理時下記)	성책0347(기사암서헌수리시하기)	1	16.5×27.0cm
34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8(己巳巖棲軒修理時下記)	성책0348(기사암서헌수리시하기)	1	16.0×28.0cm
34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49(庚辰~壬午修理所文簿)	성책0349(경진~임오수리소문부)	1	22.5×26.5cm
35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0(辛未修理所文簿)	성책0350(신미수리소문부)	1	22.5×26.5cm
35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1(丙申修理文簿)	성책0351(병신수리문부)	1	24.0×28.0cm
35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2(癸酉修理所錢用記)	성책0352(계유수리소전용기)	1	20.0×27.5cm
35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3(癸未修理所文簿)	성책0353(계미수리소문부)	1	22.5×28.0cm
35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4(丙午修理所文簿)	성책0354(병오수리소문부)	1	24.0×28.5cm
35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5(癸酉降廳重建時下記)	성책0355(계유강청중건시하기)	1	16.0×27.0cm
35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6(己亥尙德祠重修時流用記)	성책0356(기해상덕사중수시유용기)	1	25.0×27.0cm
35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7(典敎堂重建時流用下記)	성책0357(전교당중건시유용하기)	1	23.5×28.0cm
35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8(丁酉典敎堂重修日記)	성책0358(정유전교당중수일기)	1	23.0×27.5cm
35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59(甲辰隴雲精舍重築文簿)	성책0359(갑진농운정사중축문부)	1	29.0×22.0cm
36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0(戊戌收賭記)	성책0360(무술수도기)	1	24.0×28.0cm
36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1(己亥收賭記)	성책0361(기해수도기)	1	24.0×28.0cm
36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2(庚子收賭記)	성책0362(경자수도기)	1	24.0×28.0cm
36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3(辛卯月下記)	성책0363(신묘월하기)	1	12.5×28.5cm
36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4(丁亥月下記)	성책0364(정해월하기)	1	29.5×16.5cm
36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5(丁亥月下記)	성책0365(정해월하기)	1	32.0×28.0cm
36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6(享禮下記)	성책0366(향례하기)	1	30.5×26.5cm
36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7(甲申月下記)	성책0367(갑신월하기)	1	18.5×28.0cm
36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8(癸巳月下記)	성책0368(계사월하기)	1	12.5×27.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6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69(甲午月下記)	성책0369(갑오월하기)	1	16.0×28.0cm
37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0(乙未月下記)	성책0370(을미월하기)	1	16.0×28.0cm
37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1(丙申月下記)	성책0371(병신월하기)	1	16.0×28.0cm
37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2(丁酉月下記)	성책0372(정유월하기)	1	16.0×28.0cm
37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3(己亥米用下記)	성책0373(기해미용하기)	1	16.0×28.0cm
37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4(己亥錢用月下記)	성책0374(기해전용월하기)	1	16.0×28.0cm
37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5(己亥都辨記)	성책0375(기해도변기)	1	23.5×28.5cm
37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6(己亥領收簿)	성책0376(기해영수부)	1	15.5×29.0cm
37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7(己亥船造時下記)	성책0377(기해선조시하기)	1	19.5×28.0cm
37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8(丙申刊役時下記)	성책0378(병신간역시하기)	1	15.5×28.5cm
37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79(己亥重修時月下記)	성책0379(기해중수시월하기)	1	16.0×28.0cm
38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0(丁酉渡船修理時下記)	성책0380(정유도선수리시하기)	1	16.0×28.5cm
38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1(庚子月下記)	성책0381(경자월하기)	1	15.0×28.0cm
38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2(辛丑~壬寅月下記)	성책0382(신축~임인월하기)	1	19.0×27.5cm
38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3(甲辰隴雲精舍重修時月下記)	성책0383(갑진농운정사중수시월하기)	1	13.0×24.0cm
38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4(乙巳月下記)	성책0384(을사월하기)	1	19.0×27.5cm
38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5(己酉月下記)	성책0385(기유월하기)	1	15.0×28.5cm
38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6(己酉月下記)	성책0386(기유월하기)	1	16.0×28.5cm
38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7(庚戌下記)	성책0387(경술하기)	1	21.5×28.0cm
38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8(辛亥月下記)	성책0388(신해월하기)	1	15.0×28.5cm
38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89(辛亥月下記)	성책0389(신해월하기)	1	21.5×28.5cm
39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0(壬子月下記)	성책0390(임자월하기)	1	21.5×28.5cm
39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1(癸丑月下記)	성책0391(계축월하기)	1	21.0×28.0cm
39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2(丙辰月下記)	성책0392(병진월하기)	1	16.0×29.5cm
39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3(丁巳月下記)	성책0393(정사월하기)	1	15.0×30.0cm
39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4(戊午月下記)	성책0394(무오월하기)	1	16.0×28.0cm
39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5(月下記)	성책0395(월하기)	1	17.0×28.5cm
39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6(月下記)	성책0396(월하기)	1	19.0×30.0cm
39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7(丙戌改船時下記)	성책0397(병술개선시하기)	1	21.5×28.5cm
39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8(癸丑陶山及門錄刊役時下記)	성책0398(계축도산급문록간역시하기)	1	24.0×24.0cm
39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399(己卯光明室修理時下記)	성책0399(기묘광명실수리시하기)	1	23.5×28.5cm
40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0(己卯光明室修理扶助記)	성책0400(기묘광명실수리부조기)	1	22.0×27.5cm
40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1(壬午藏板閣修理下記)	성책0401(임오장판각수리하기)	1	19.5×28.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40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2(乙卯造船時下記)	성책0402(을묘조선시하기)	1	18.0×23.0cm
40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3(丙子造船時下記)	성책0403(병자조선시하기)	1	23.0×28.0cm
40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4(己卯光明室修理時下記)	성책0404(기묘광명실수리시하기)	1	19.0×27.5cm
40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5(時下記)	성책0405(시하기)	1	23.5×27.5cm
40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6(陶山書院乙丑春收納原簿)	성책0406(도산서원을축춘수납원부)	1	31.0×21.0cm
40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7(庚申校院祭物臚錄)	성책0407(경신교원제물등록)	1	32.0×29.0cm
40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8(辛巳捧入記)	성책0408(신사봉입기)	1	16.5×28.0cm
40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09(丁丑庫直捧入記)	성책0409(정축고직봉입기)	1	17.0×27.5cm
41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0(庚午陶山書院穀數及錢文推捧冊)	성책0410(경오도산서원곡수급전문추봉책)	1	19.0×16.5cm
41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1(丙戌穀收未捧記)	성책0411(병술곡수미봉기)	1	24.0×28.0cm
41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2(壬午未捧記)	성책0412(임오미봉기)	1	13.0×27.0cm
41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3(辛巳未捧記)	성책0413(신사미봉기)	1	17.0×30.0cm
41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4(辛巳未捧記)	성책0414(신사미봉기)	1	14.0×27.0cm
41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5(甲戌未捧記)	성책0415(갑술미봉기)	1	24.0×27.5cm
41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6(乙亥未捧記)	성책0416(을해미봉기)	1	24.0×27.5cm
41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7(丙子未捧記)	성책0417(병자미봉기)	1	24.0×27.5cm
41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8(丁丑未捧記)	성책0418(정축미봉기)	1	24.0×27.5cm
41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19(辛丑田畓春秋收稅記)	성책0419(신축전답춘추수세기)	1	31.5×28.0cm
42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0(丙子地稅)	성책0420(병자지세)	1	17.0×28.0cm
42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1(乙亥地稅)	성책0421(을해지세)	1	17.0×28.0cm
42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2(甲戌地稅)	성책0422(갑술지세)	1	16.0×27.5cm
42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3(戊寅地稅記)	성책0423(무인지세기)	1	17.0×29.0cm
42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4(壬寅田畓春秋收稅記)	성책0424(임인전답춘추수세기)	1	32.0×28.0cm
42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5(己卯穀用簿)	성책0425(기묘곡용부)	1	25.0×27.5cm
42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6(丁丑穀用簿)	성책0426(정축곡용부)	1	23.5×26.0cm
42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7(甲戌穀用簿)	성책0427(갑술곡용부)	1	24.0×27.0cm
42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8(丙戌穀用簿)	성책0428(병술곡용부)	1	28.0×31.0cm
42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29(甲午穀用簿)	성책0429(갑오곡용부)	1	24.5×28.0cm
43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0(乙巳穀用簿)	성책0430(을사곡용부)	1	23.0×27.0cm
43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1(丁未穀用簿)	성책0431(정미곡용부)	1	22.5×27.0cm
43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2(丙申穀用簿)	성책0432(병신곡용부)	1	31.0×27.5cm
43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3(辛卯穀用簿)	성책0433(신묘곡용부)	1	25.0×28.0cm
43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4(庚戌穀用簿)	성책0434(경술곡용부)	1	22.5×27.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43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5(庚戌穀用簿)	성책0435(경술곡용부)	1	23.0×27.0cm
43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6(辛亥穀用簿)	성책0436(신해곡용부)	1	22.5×27.0cm
43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7(辛亥穀用簿)	성책0437(신해곡용부)	1	22.5×27.0cm
43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8(辛丑~壬寅穀用簿)	성책0438(신축~임인곡용부)	1	24.5×28.0cm
43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39(辛丑~壬寅米用簿)	성책0439(신축~임인미용부)	1	24.5×28.0cm
44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0(辛丑~壬寅錢用簿)	성책0440(신축~임인전용부)	1	24.0×28.0cm
44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1(辛丑~乙酉錢用簿)	성책0441(신축~을유전용부)	1	25.0×27.0cm
44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2(丙戌錢用簿)	성책0442(병술전용부)	1	28.0×32.0cm
44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3(丙申錢用簿)	성책0443(병신전용부)	1	31.0×28.0cm
44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4(己丑錢用簿)	성책0444(기축전용부)	1	24.5×28.0cm
44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5(庚戌~辛亥錢用簿)	성책0445(경술~신해전용부)	1	22.5×27.0cm
44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6(辛亥錢用簿)	성책0446(신해전용부)	1	22.5×27.0cm
44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7(乙巳錢用簿)	성책0447(을사전용부)	1	23.0×27.0cm
44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8(丁未錢用簿)	성책0448(정미전용부)	1	23.0×27.0cm
44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49(壬子錢用簿)	성책0449(임자전용부)	1	22.5×27.0cm
45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0(己丑別庫文簿)	성책0450(기축별고문부)	1	23.0×26.0cm
45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1(別所文簿)	성책0451(별소문부)	1	23.0×27.0cm
45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2(別庫文簿)	성책0452(별고문부)	1	23.5×27.0cm
45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3(戊辰陶山書院本所文簿)	성책0453(무진도산서원본소문부)	1	24.0×27.5cm
45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4(別庫文簿)	성책0454(별고문부)	1	24.0×28.0cm
45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5(壇所文簿)	성책0455(단소문부)	1	21.5×23.0cm
45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6(丁亥別所文簿)	성책0456(정해별소문부)	1	24.0×27.0cm
45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7(陶山書院文簿)	성책0457(도산서원문부)	1	27.0×30.5cm
45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8(戊申院宇保存關係收支簿)	성책0458(무신원우보존관계수지부)	1	22.5×29.0cm
45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59(陶山書院文簿)	성책0459(도산서원문부)	1	16.0×27.0cm
46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0(乙卯岱蕘收納簿)	성책0460(을묘대세수납부)	1	22.5×27.0cm
46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1(甲寅岱蕘收納簿)	성책0461(갑인대세수납부)	1	22.5×27.0cm
46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2(癸丑岱蕘收納簿)	성책0462(계축대세수납부)	1	22.5×27.0cm
46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3(壬子岱蕘收納簿)	성책0463(임자대세수납부)	1	22.5×27.0cm
46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4(辛亥岱蕘收納簿)	성책0464(신해대세수납부)	1	22.5×27.0cm
46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5(庚戌岱蕘收納簿)	성책0465(경술대세수납부)	1	22.5×27.0cm
46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6(壬寅出役簿)	성책0466(임인출역부)	1	22.5×27.0cm
46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7(借用簿)	성책0467(차용부)	1	22.5×26.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46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8(己酉鄕道入金簿)	성책0468(기유향도입금부)	1	22.5×27.0cm
46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69(庚午陶山書院勘簿記)	성책0469(경오도산서원감부기)	1	20.0×26.5cm
47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0(庚午陶山書院勘簿記)	성책0470(경오도산서원감부기)	1	20.0×27.0cm
47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1(丁丑陶山書院勘簿記)	성책0471(정축도산서원감부기)	1	25.0×27.0cm
47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2(癸酉陶山書院勘簿記)	성책0472(계유도산서원감부기)	1	18.0×26.5cm
47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3(丙子陶山書院勘簿記)	성책0473(병자도산서원감부기)	1	20.5×28.0cm
47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4(壬子癸丑派譜時前後勘簿記)	성책0474(임자계축파보시전후감부기)	1	23.0×23.5cm
47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5(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75(도산서원노비안)	1	34.0×22.5cm
47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6(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76(도산서원노비안)	1	29.0×20.0cm
47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7(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77(도산서원노비안)	1	28.5×19.5cm
47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8(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78(도산서원노비안)	1	32.5×22.0cm
47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79(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79(도산서원노비안)	1	33.5×25.0cm
48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0(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80(도산서원노비안)	1	37.0×23.5cm
48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1(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81(도산서원노비안)	1	38.5×24.5cm
48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2(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82(도산서원노비안)	1	32.0×22.0cm
48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3(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83(도산서원노비안)	1	32.0×27.5cm
48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4(陶山書院奴婢案)	성책0484(도산서원노비안)	1	35.5×25.5cm
48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5(壬寅田畝移作成冊)	성책0485(임인전답이작성책)	1	29.0×20.0cm
48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6(師門手簡傳掌案)	성책0486(사문수간전장안)	1	23.0×21.0cm
48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7(甲辰參院錄)	성책0487(갑진참원록)	1	21.0×26.5cm
48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8(丙午參院錄)	성책0488(병오참원록)	1	24.0×27.0cm
48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89(丁未參院錄)	성책0489(정미참원록)	1	24.0×28.0cm
49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0(戊申參院錄)	성책0490(무신참원록)	1	23.0×28.0cm
49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1(乙酉參院錄)	성책0491(을유참원록)	1	23.0×27.5cm
49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2(庚子參院錄)	성책0492(경자참원록)	1	23.5×28.0cm
49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3(癸卯參院錄)	성책0493(계묘참원록)	1	24.5×29.0cm
49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4(食床記)	성책0494(식상기)	1	15.5×27.5cm
49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5(己酉陶山書院修理日記)	성책0495(기유도산서원수리일기)	1	22.5×28.0cm
49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6(藏板閣修理日記)	성책0496(장판각수리일기)	1	26.0×28.5cm
49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7(癸卯尙德祠重建日記)	성책0497(계묘상덕사중건일기)	1	30.0×23.0cm
49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8(辛亥穀用收拂簿)	성책0498(신해곡용수불부)	1	22.5×27.0cm
49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499(壬子收拂簿)	성책0499(임자수불부)	1	22.5×27.0cm
50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0(甲午收捧記)	성책0500(갑오수봉기)	1	16.0×27.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50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1(甲辰隴雲精舍落成時都辨記)	성책0501(갑진농운정사낙성시도변기)	1	21.0×26.5cm
50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2(己亥移安時日記)	성책0502(기해이안시일기)	1	34.5×21.0cm
50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3(己亥日記草)	성책0503(기해일기초)	1	25.0×29.0cm
50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4(丁卯節要言行錄修刻時日記)	성책0504(정묘절요언행록수각시일기)	1	27.5×18.0cm
50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5(辛未日記)	성책0505(신미일기)	1	21.0×24.0cm
50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6(癸巳天淵臺巖石事變時日記)	성책0506(계사천연대암석사변시일기)	1	17.0×28.5cm
50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7(典敎堂前塔改築時日記)	성책0507(전교당전계개축시일기)	1	21.5×29.0cm
50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8(乙亥築塔時用下記)	성책0508(을해축계시용하기)	1	24.0×27.5cm
50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09(丙申米用簿)	성책0509(병신미용부)	1	29.5×27.5cm
51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0(庚戌~辛亥米用簿)	성책0510(경술~신해미용부)	1	22.5×27.0cm
51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1(辛亥米用簿)	성책0511(신해미용부)	1	23.0×27.0cm
51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2(壬子米用簿)	성책0512(임자미용부)	1	23.0×27.0cm
51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3(乙巳米用簿)	성책0513(을사미용부)	1	23.0×27.0cm
51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4(丁未米用簿)	성책0514(정미미용부)	1	23.0×27.0cm
51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5(己亥土地目錄)	성책0515(기해토지목록)	1	22.5×20.5cm
51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6(授賞錄)	성책0516(수상록)	1	30.5×26.5cm
51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7(自作地案)	성책0517(자작지안)	1	26.0×27.0cm
51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8(甲辰陶山門賢家後孫住所錄)	성책0518(갑진도산문현가후손주소록)	1	21.0×22.5cm
51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19(癸卯陶山及門后家住所錄)	성책0519(계묘도산금문후가주소록)	1	23.0×21.0cm
52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0(甲辰陶山門賢家後孫住所錄)	성책0520(갑진도산문현가후손주소록)	1	25.5×20.5cm
52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1(甲辰隴雲精舍修建錄)	성책0521(갑진농운정사수건록)	1	30.5×23.0cm
52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2(例規)	성책0522(예규)	1	31.5×26.0cm
52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3(壬午藏板閣冊板目錄)	성책0523(임오장판각책판목록)	1	24.0×26.5cm
52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4(田畝案)	성책0524(전답안)	1	26.5×19.0cm
52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5(陶山書院田畝案)	성책0525(도산서원전답안)	1	32.0×28.0cm
52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6(陶山書院田畝案)	성책0526(도산서원전답안)	1	39.5×25.0cm
52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7(陶山書院田畝案)	성책0527(도산서원전답안)	1	41.5×30.0cm
52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8(陶山書院田畝案)	성책0528(도산서원전답안)	1	32.5×21.0cm
52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29(陶山書院田畝案)	성책0529(도산서원전답안)	1	41.0×24.5cm
53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0(陶山書院田畝案)	성책0530(도산서원전답안)	1	35.0×24.5cm
53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1(田畝稅收記)	성책0531(전답세수기)	1	32.5×22.5cm
53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2(一應置簿田畝秩)	성책0532(일응치부전답질)	1	38.5×26.5cm
53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3(田畝寄付寶文義塾成冊)	성책0533(전답기부보문의숙성책)	1	33.0×22.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53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4(己酉田畓寄付寶文義塾成冊)	성책0534(기유전답기부보문의숙성책)	1	26.5×22.0cm
53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5(仰役奴私田量統記)	성책0535(양역노사전량통기)	1	33.5×22.0cm
53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6(院田畓結數分錄抄記)	성책0536(원전답결수분록초기)	1	23.0×22.0cm
53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7(辛酉陶山書院地稅分排記)	성책0537(신유도산서원지세분배기)	1	23.5×27.0cm
53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8(土地結數連名簿)	성책0538(토지결수련명부)	1	26.5×19.5cm
53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39(土地結數連名簿)	성책0539(토지결수련명부)	1	26.5×20.0cm
54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0(圖書出納臺帳)	성책0540(도서출납대장)	1	27.5×26.0cm
54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1(卜價捧納記)	성책0541(복가봉납기)	1	14.5×17.5cm
54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2(田畓卜數記)	성책0542(전답복수기)	1	14.5×18.0cm
54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3(庚子量案)	성책0543(경자량안)	1	42.5×25.0cm
54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4(中訓大夫陽城李公[薰]行蹟 等)	성책0544(중훈대부양성이공[훈]행적 등)	1	24.0×19.5cm
54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5(丙戌安東查卞時浮費)	성책0545(병술안동사변시부비)	1	21.5×25.0cm
54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6(癸卯壇所稷案)	성책0546(계묘단소계안)	1	27.5×19.5cm
54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7(邑內面儒生名帖成冊)	성책0547(읍내면유생명첩성책)	1	19.5×18.0cm
54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8(乙卯刊役下記)	성책0548(을묘간역하기)	1	12.0×25.0cm
54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49(契約証)	성책0549(계약증)	1	23.0×15.5cm
55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0(契約証)	성책0550(계약증)	1	23.0×15.5cm
55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1(辛未汾川事變時通文發送錄)	성책0551(신미분천사변시통문발송록)	1	23.5×28.0cm
55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2(置簿冊)	성책0552(치부책)	1	24.5×26.5cm
55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3(寄附記)	성책0553(기부기)	1	23.0×15.5cm
55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4(密陽孫公[起陽]行狀)	성책0554(밀양손공[기양]행장)	1	32.0×20.5cm
55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5(易東書院書冊置簿)	성책0555(역동서원서책치부)	1	24.5×28.0cm
55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6(易東書院書冊置簿)	성책0556(역동서원서책치부)	1	37.0×22.5cm
55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7(陶山書院書冊目錄)	성책0557(도산서원서책목록)	1	37.0×24.0cm
55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8(乙巳東光室書冊目錄)	성책0558(을사동광명실서책목록)	1	24.0×27.5cm
55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59(乙未書冊置簿)	성책0559(을미서책치부)	1	29.5×33.0cm
56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0(書冊目錄)	성책0560(서책목록)	1	24.0×27.5cm
56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1(乙亥光明室書冊目錄)	성책0561(을해광명실서책목록)	1	25.0×27.5cm
56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2(書冊目錄)	성책0562(서책목록)	1	25.0×27.5cm
56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3(書冊目錄)	성책0563(서책목록)	1	32.5×27.5cm
56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4(易東書冊出納記)	성책0564(역동서책출납기)	1	27.5×26.0cm
56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5(易東光明室書史錄)	성책0565(역동광명실서사록)	1	35.0×24.5cm
56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6(門人錄草)	성책0566(문인록초)	1	33.5×22.7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56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7(甲辰收支統計表)	성책0567(갑진수지통계표)	1	28.0×29.0cm
56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8(乙巳統計表)	성책0568(을사통계표)	1	27.5×21.5cm
56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69(乙巳～丙午統計表)	성책0569(을사～병오통계표)	1	28.5×22.0cm
57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0(庚戌統計表)	성책0570(경술통계표)	1	28.0×22.5cm
57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1(禮安辨惑錄)	성책0571(예안변혹록)	1	23.0×25.0cm
57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2(辛未都辦所文記)	성책0572(신미도변소문기)	1	25.0×18.0cm
57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3(訓令, 完文 等)	성책0573(훈령, 완문 등)	1	23.0×27.5cm
57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4(庚午陶山書院完議節目)	성책0574(경오도산서원완의절목)	1	31.0×26.5cm
57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5(壬寅完議)	성책0575(임인완의)	1	40.0×22.5cm
57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6(丁未春秋垓稅)	성책0576(정미춘추대세)	1	16.5×26.5cm
57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7(戊申垓稅)	성책0577(무신대세)	1	25.0×28.0cm
57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8(乙酉垓稅)	성책0578(을유대세)	1	26.0×28.0cm
57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79(辛卯～癸巳未捧記)	성책0579(신묘～계사미봉기)	1	16.0×27.5cm
58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0(丙午未納記)	성책0580(병오미납기)	1	16.0×28.0cm
58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1(癸卯～甲辰未納抄)	성책0581(계묘～갑진미납초)	1	27.5×15.5cm
58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2(辛卯書院春秋未捧記)	성책0582(신묘서원춘추미봉기)	1	23.5×27.5cm
58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3(陳情書)	성책0583(진정서)	1	26.0×18.0cm
58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4(陳情書)	성책0584(진정서)	1	28.0×20.0cm
58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5(陳情書)	성책0585(진정서)	1	26.5×18.5cm
58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6(陳情書)	성책0586(진정서)	1	24.5×28.0cm
58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7(壬申節目)	성책0587(임신절목)	1	29.0×16.5cm
58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8(庚申節目)	성책0588(경신절목)	1	28.0×23.5cm
58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89(己巳院中新規定式)	성책0589(기사원중신규정식)	1	31.5×21.0cm
59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0(癸巳堂會時節目)	성책0590(계사당회시절목)	1	32.5×28.0cm
59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1(癸卯通告錄)	성책0591(계묘통고록)	1	18.0×28.5cm
59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2(甲子通文謄草)	성책0592(갑자통문등초)	1	23.0×27.0cm
59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3(辛未通文)	성책0593(신미통문)	1	22.5×27.5cm
59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4(壬戌通文草)	성책0594(임술통문초)	1	23.0×27.0cm
59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5(辛未通文)	성책0595(신미통문)	1	22.5×27.5cm
59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6(壬寅通文發送錄)	성책0596(임인통문발송록)	1	28.0×25.0cm
59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7(擬辨)	성책0597(의변)	1	25.5×16.5cm
59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8(通文)	성책0598(통문)	1	28.5×21.5cm
59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599(遊院錄)	성책0599(유원록)	1	38.0×28.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60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0	정책0600	1	41.0×25.0cm
60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1(壬辰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01(임진도산서원수호군안)	1	27.5×17.5cm
60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2(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02(도산서원수호군안)	1	27.0×17.0cm
60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3(辛巳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03(신사도산서원수호군안)	1	26.0×18.0cm
60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4(甲辰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04(갑진도산서원수호군안)	1	27.5×18.0cm
60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5(癸亥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05(계해도산서원수호군안)	1	28.0×18.0cm
60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6(丁亥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06(정해도산서원수호군안)	1	28.5×18.0cm
60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7(壬戌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07(임술도산서원수호군안)	1	29.0×19.0cm
60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8(辛卯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08(신묘도산서원수호군안)	1	29.0×18.0cm
60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09(庚子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09(경자도산서원수호군안)	1	27.0×19.0cm
61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0(陶山書院守護軍案)	정책0610(도산서원수호군안)	1	27.5×17.0cm
61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1(丙辰賜祭時日記)	정책0611(병진사제시일기)	1	34.0×20.6cm
61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2(丙辰賜祭時日記)	정책0612(병진사제시일기)	1	36.0×37.0cm
61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3(賜祭文)	정책0613(사제문)	1	40.5×30.5cm
61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4(癸酉廟宇修理時日記)	정책0614(계유묘우수리시일기)	1	21.0×28.0cm
61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5(己亥廟宇重修時日記)	정책0615(기해묘우중수시일기)	1	25.0×28.5cm
61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6(廟階磚石改築時日記)	정책0616(묘계전석개축시일기)	1	24.3×27.0cm
61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7(丙戌雲影臺川防時日記)	정책0617(병술운영대전방시일기)	1	27.5×18.0cm
61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8(修理時下記)	정책0618(수리시하記)	1	20.5×28.5cm
61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19(戊午～丙戌獻官執事錄)	정책0619(무오～병술헌관집사록)	1	34.5×21.0cm
62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0(陶山書院田畵案)	정책0620(도산서원전답안)	1	27.0×20.0cm
62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1(乙亥食堂錄)	정책0621(을해식당록)	1	30.4×22.5cm
62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2(禮安書院鄉賢祠精舍成冊)	정책0622(예안서원향현사정사정책)	1	31.0×22.7cm
62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3(甲子延額時到)	정책0623(甲子延額時到)	1	33.5×24.5cm
62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4(用下記)	정책0624(용하기)	1	33.0×28.0cm
62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5(陶山書院廟變時日記)	정책0625(도산서원묘변시일기)	1	29.0×25.0cm
62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6(辛丑廟變後儀節)	정책0626(신축묘변후의절)	1	30.8×26.0cm
62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7(辛丑陶山書院復室時日記)	정책0627(신축도산서원복주시일기)	1	32.5×24.6cm
62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8(舊位版埋安時日記)	정책0628(구위판매안시일기)	1	29.5×27.5cm
62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29(己巳從祀位改題時日記)	정책0629(기사종사위개제시일기)	1	27.7×26.0cm
63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0(汾李辨誣事變日記)	정책0630(분이변무사변일기)	1	30.0×20.0cm
63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1(汾川往復文字)	정책0631(분천왕복문자)	1	24.0×28.0cm
63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2(壬戌廟宇重修時日記)	정책0632(임술묘우중수시일기)	1	29.0×18.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63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3(及門錄營刊時日記)	성책0633(급문록영간시일기)	1	35.0×23.0cm
63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4(辛亥天淵臺封築時下記)	성책0634(신해천연대봉축시하기)	1	24.5×28.5cm
63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5(辛丑廟宇修理時日記)	성책0635(신축묘우수리시일기)	1	31.2×27.5cm
63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6(乙未廟宇修理時日記)	성책0636(을미묘우수리시일기)	1	33.7×30.5cm
63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7(己巳巖栖軒修理時日記)	성책0637(기사암서헌수리시일기)	1	23.0×26.5cm
63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8(乙未重修事實)	성책0638(을미중수사실)	1	29.5×20.5cm
63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39(甲辰重修唱酬錄)	성책0639(갑진중수창수록)	1	25.0×26.0cm
64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0(屏山通文諸修答卞)	성책0640(병산통문제수답변)	1	31.0×25.5cm
64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1(甲申日記)	성책0641(갑신일기)	1	31.0×27.0cm
64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2(陶山書院庶類事變日記)	성책0642(도산서원서류사변일기)	1	32.0×27.0cm
64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3(乙酉院事顛末)	성책0643(을유원사전말)	1	23.5×27.0cm
64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4(光明室書史傳掌記)	성책0644(광명실서사전장기)	1	32.0×21.5cm
64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5(癸巳貞元契帖)	성책0645(계사정원계첩)	1	24.3×27.5cm
64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6(癸未陶山書院完議)	성책0646(계미도산서원완의)	1	31.0×27.0cm
64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7(己亥尋院錄)	성책0647(기해심원록)	1	24.0×28.5cm
64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8(乙丑尋院錄)	성책0648(을축심원록)	1	29.5×26.0cm
64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49(丙戌尋院錄)	성책0649(병술심원록)	1	27.0×30.5cm
65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0(丙申參院錄)	성책0650(병신참원록)	1	23.5×27.7cm
65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1(丁酉參院錄)	성책0651(정유참원록)	1	23.5×27.5cm
65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2(甲午參院錄)	성책0652(갑오참원록)	1	22.7×27.5cm
65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3(陶山書院參拜錄)	성책0653(도산서원참배록)	1	22.5×29.7cm
65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4(紹修書院入院錄)	성책0654(소수서원입원록)	1	36.0×25.5cm
65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5(丙戌紹修書院院錄謄本)	성책0655(병술소수서원원록등본)	1	35.0×31.5cm
65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6(遊院錄)	성책0656(유원록)	1	38.0×24.4cm
65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7(遊院錄)	성책0657(유원록)	1	34.5×23.7cm
65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8(遊院錄)	성책0658(유원록)	1	32.0×29.0cm
65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59(遊院錄)	성책0659(유원록)	1	37.5×24.5cm
66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0(遊院錄)	성책0660(유원록)	1	34.0×28.5cm
66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1(遊院錄)	성책0661(유원록)	1	30.5×26.5cm
66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2(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62(도산서원노비안)	1	33.5×24.0cm
66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3(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63(도산서원노비안)	1	31.0×22.3cm
66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4(易東書院奴婢案)	성책0664(역동서원노비안)	1	31.0×20.3cm
66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5(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65(도산서원노비안)	1	34.0×22.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66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6(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66(도산서원노비안)	1	33.2×20.5cm
66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7(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67(도산서원노비안)	1	30.3×20.0cm
66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8(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68(도산서원노비안)	1	28.5×19.7cm
66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69(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69(도산서원노비안)	1	33.3×21.5cm
67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0(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70(도산서원노비안)	1	33.5×21.3cm
67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1(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71(도산서원노비안)	1	33.0×21.5cm
67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2(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72(도산서원노비안)	1	32.5×22.0cm
67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3(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73(도산서원노비안)	1	32.5×22.4cm
67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4(易東院規)	성책0674(역동원규)	1	39.5×28.5cm
67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5(丁丑易東書院續臚錄)	성책0675(정축역동서원속등록)	1	31.0×21.5cm
67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6(書院補上臚錄傳掌)	성책0676(서원보상등록전장)	1	27.0×33.5cm
67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7(創建錄)	성책0677(창건록)	1	36.0×22.5cm
67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8(易東書院記)	성책0678(역동서원기)	1	45.0×33.0cm
67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79(陶山書院春秋收臺帳)	성책0679(도산서원춘추수대장)	1	47.0×27.5cm
68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0(陶山書院奴婢案)	성책0680(도산서원노비안)	1	32.0×20.8cm
68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1(書院守護軍案)	성책0681(서원수호군안)	1	32.5×20.0cm
68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2	성책0682	1	31.5×28.5cm
68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3(通文)	성책0683(통문)	1	31.2×19.5cm
68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4	성책0684	1	27.2×19.0cm
68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5(通文)	성책0685(통문)	1	19.0×27.2cm
68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6	성책0686	1	25.8×17.7cm
68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7(通文)	성책0687(통문)	1	29.0×19.8cm
68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8(通文)	성책0688(통문)	1	33.0×22.6cm
68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89(通文)	성책0689(통문)	1	34.4×23.0cm
69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0(通文:蘆石樓三壯士辨)	성책0690(통문:축석루삼장사변)	1	22.2×14.5cm
69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1(名單)	성책0691(명단)	1	19.0×30.5cm
69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2(宜仁名帖)	성책0692(의인명첩)	1	16.8×28.5cm
693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3(名單)	성책0693(명단)	1	24.5×26.5cm
694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4(陶山書院取士時大谷收單)	성책0694(도산서원취사시대곡수단)	1	27.5×22.0cm
695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5(契約書)	성책0695(계약서)	1	15.0×22.5cm
696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6(地稅收納簿)	성책0696(지세수납부)	1	31.5×23.3cm
697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7(未捧傳掌記)	성책0697(미봉전장기)	1	28.5×27.2cm
698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8	성책0698	1	25.6×28.3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699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699	정책0699	1	15.0×39.0cm
700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700(陶院重刊所下記)	정책0700(도원중간소하기)	1	16.0×21.5cm
701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701	정책0701	1	16.7×27.3cm
702	고문서	成冊古文書	成冊	成冊0702(辛未春秋賭稅案)	정책0702(신미춘추도세안)	1	31.0×27.2cm

11. 所志 [43점]

1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01	소지0001	1	31.0×20.0cm
2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02	소지0002	1	41.0×40.0cm
3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03	소지0003	1	112.0×120.0cm
4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04	소지0004	1	20.6×32.0cm
5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05	소지0005	1	87.0×54.5cm
6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06	소지0006	1	50.0×77.5cm
7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07	소지0007	1	34.5×38.5cm
8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08	소지0008	1	109.5×80.5cm
9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09	소지0009	1	80.0×174.0cm
10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0	소지0010	1	131.0×61.0cm
11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1	소지0011	1	43.0×41.0cm
12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2	소지0012	1	46.0×35.0cm
13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3	소지0013	1	41.0×46.5cm
14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4	소지0014	1	42.0×38.5cm
15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5	소지0015	1	59.5×40.0cm
16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6	소지0016	1	56.5×43.0cm
17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7	소지0017	1	45.5×455.0cm
18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8	소지0018	1	57.0×38.0cm
19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19	소지0019	1	40.0×41.0cm
20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0	소지0020	1	46.0×42.5cm
21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1	소지0021	1	39.0×50.0cm
22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2	소지0022	1	58.0×39.0cm
23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3	소지0023	1	47.0×42.5cm
24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4	소지0024	1	98.0×62.0cm
25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5	소지0025	1	110.0×74.5cm
26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6	소지0026	1	115.5×116.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7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7	소지0027	1	111.0×193.5cm
28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8	소지0028	1	111.0×71.0cm
29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29	소지0029	1	116.5×67.0cm
30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0	소지0030	1	64.0×44.0cm
31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1	소지0031	1	115.5×119.0cm
32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2	소지0032	1	50.0×37.5cm
33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3	소지0033	1	49.5×36.5cm
34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4	소지0034	1	105.0×120.0cm
35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5(形止圖)	소지0035(형지도)	1	77.0×51.5cm
36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6	소지0036	1	18.0×25.0cm
37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7	소지0037	1	116.0×118.0cm
38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8	소지0038	1	60.0×63.0cm
39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39	소지0039	1	28.3×27.0cm
40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40(陳情書)	소지0040(진정서)	1	29.0×41.5cm
41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41	소지0041	1	26.0×127.0cm
42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42	소지0042	1	23.0×78.5cm
43	고문서	疏筭狀啓	所志	所志0043	소지0043	1	22.5×71.0cm

12. 手標 [3점]

1	고문서	證憑	手標	手標0001(標記)	수표0001(표기)	1	26.0×36.0cm
2	고문서	證憑	手標	手標0002(標記)	수표0002(표기)	1	33.0×43.0cm
3	고문서	證憑	手標	手標0003(標記)	수표0003(표기)	1	26.0×43.0cm

13. 試券 [14점]

1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01(榜目:享禮時取士都薦紙)	시권0001(방목:향례시취사도천지)	1	48.0×1283.0cm
2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02(榜目:享禮時取士薦紙)	시권0002(방목:향례시취사천지)	1	48.0×917.0cm
3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03(取士榜目)	시권0003(취사방목)	1	56.0×605.0cm
4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04(榜目)	시권0004(방목)	1	64.0×1030.0cm
5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05(榜目)	시권0005(방목)	1	48.0×1416.0cm
6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06(享禮時取士榜目)	시권0006(향례시취사방목)	1	42.0×1207.0cm
7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07(取士榜目)	시권0007(취사방목)	1	47.0×1050.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8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08(享禮時取士榜目)	시권0008(향례시취사방목)	1	34.5×845.0cm
9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09(取士時都薦紙)	시권0009(취사시도천지)	1	55.0×1348.0cm
10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10(榜目)	시권0010(방목)	1	47.7×1110.9cm
11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11(榜目)	시권0011(방목)	1	36.0×783.9cm
12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12(享禮時取士薦紙)	시권0012(향례시취사천지)	1	50.0×755.3cm
13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13(榜目)	(방목)	1	58.3×861.2cm
14	고문서	詩文記錄	試券	試券0014(榜目)	시권0014(방목)	1	60.0×37.0cm

14. 詩文 [9점]

1	고문서	詩文記錄	詩文	詩文0001(試士壇碑閣上樑文)	시문0001(시사단비각상량문)	1	120.5×51.0cm
2	고문서	詩文記錄	詩文	詩文0002	시문0002	1	24.0×21.5cm
3	고문서	詩文記錄	詩文	詩文0003	시문0003	1	30.0×144.0cm
4	고문서	詩文記錄	詩文	詩文0004	시문0004	1	24.2×222.0cm
5	고문서	詩文記錄	詩文	詩文0005	시문0005	1	97.5×55.0cm
6	고문서	詩文記錄	詩文	詩文0006(寄題四樂亭并小敘 等)	시문0006(기제사락정병소서 등)	1	51.5×166.0cm
7	고문서	詩文記錄	詩文	詩文0007	시문0007	1	111.5×77.5cm
8	고문서	詩文記錄	詩文	詩文0008	시문0008	1	111.5×77.7cm
9	고문서	詩文記錄	詩文	詩文0009	시문0009	1	50.0×113.0cm

15. 完文 [5점]

1	고문서	明文完文	完文	完文0001	완문0001	1	45.0×53.0cm
2	고문서	明文完文	完文	完文0002	완문0002	1	36.0×30.0cm
3	고문서	明文完文	完文	完文0003	완문0003	1	37.5×60.5cm
4	고문서	明文完文	完文	完文0004	완문0004	1	60.0×46.0cm
5	고문서	明文完文	完文	完文0005(陶山書院完文)	완문0005(도산서원완문)	1	65.0×60.0cm

16. 完議 [5점]

1	고문서	明文完文	完議	完議0001(庚辰謁廟時完議)	완의0001(경진알묘시완의)	1	38.5×50.0cm
2	고문서	明文完文	完議	完議0002(庚午完議)	완의0002(경오완의)	1	38.5×252.0cm
3	고문서	明文完文	完議	完議0003	완의0003	1	49.0×171.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4	고문서	明文完文	完議	完議0004	완의0004	1	37.5×36.5cm
5	고문서	明文完文	完議	完議0005	완의0005	1	31.0×27.0cm

17. 日記 [1점]

1	고문서	詩文記錄	日記	日記0001	일기0001	1	33.0×532.0cm
---	-----	------	----	--------	--------	---	--------------

18. 立案 [2점]

1	고문서	明文完文	立案	立案0001	입안0001	1	40.5×182.5cm
2	고문서	明文完文	立案	立案0002	입안0002	1	29.0×111.0cm

19. 祭文 [60점]

1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01(告由文)	제문0001(고유문)	1	34.0×21.5cm
2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02(告由文)	제문0002(고유문)	1	37.0×55.5cm
3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03(告由文)	제문0003(고유문)	1	35.0×32.5cm
4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04(告由文)	제문0004(고유문)	1	30.0×28.0cm
5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05(告由文)	제문0005(고유문)	1	22.5×16.5cm
6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06(告由文)	제문0006(고유문)	1	25.5×31.5cm
7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07(告由文)	제문0007(고유문)	1	38.0×26.5cm
8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08(告由文)	제문0008(고유문)	1	33.0×56.0cm
9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09(致祭時前期告由文)	제문0009(치제시전기고유문)	1	36.8×48.5cm
10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0(鄭司成公黜享時告由文)	제문0010(정사성공출향시고유문)	1	19.0×31.4cm
11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1(告由文)	제문0011(고유문)	1	37.2×34.4cm
12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2(告由文)	제문0012(고유문)	1	39.5×23.0cm
13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3(告由文)	제문0013(고유문)	1	35.0×27.0cm
14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4(告由文)	제문0014(고유문)	1	37.0×22.0cm
15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5(告由文)	제문0015(고유문)	1	40.8×25.0cm
16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6(告由文)	제문0016(고유문)	1	28.7×22.8cm
17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7(告由文)	제문0017(고유문)	1	35.7×37.0cm
18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8(告由文)	제문0018(고유문)	1	39.5×20.0cm
19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19(告由文)	제문0019(고유문)	1	29.7×27.2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0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0(告由文)	제문0020(고유문)	1	36.6×33.0cm
21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1(告由文)	제문0021(고유문)	1	30.0×37.0cm
22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2(告由文)	제문0022(고유문)	1	29.7×34.0cm
23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3(告由文)	제문0023(고유문)	1	34.5×25.5cm
24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4(告由文)	제문0024(고유문)	1	33.7×28.5cm
25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5(告由文)	제문0025(고유문)	1	39.4×28.5cm
26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6(告由文)	제문0026(고유문)	1	33.7×21.6cm
27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7(告由文)	제문0027(고유문)	1	31.0×14.2cm
28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8(告由文)	제문0028(고유문)	1	31.5×31.0cm
29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29(告由文)	제문0029(고유문)	1	33.8×21.5cm
30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0(告由文)	제문0030(고유문)	1	31.1×31.2cm
31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1(告由文)	제문0031(고유문)	1	31.2×20.2cm
32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2(告由文)	제문0032(고유문)	1	34.0×22.0cm
33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3(告由文)	제문0033(고유문)	1	39.5×18.0cm
34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4(告由文)	제문0034(고유문)	1	29.4×27.0cm
35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5(告由文)	제문0035(고유문)	1	34.0×22.0cm
36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6(告由文)	제문0036(고유문)	1	35.2×31.3cm
37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7(告由文)	제문0037(고유문)	1	29.8×32.8cm
38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8(告由文)	제문0038(고유문)	1	30.8×28.7cm
39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39(告由文)	제문0039(고유문)	1	34.4×37.4cm
40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0(告由文)	제문0040(고유문)	1	32.7×33.0cm
41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1(告由文)	제문0041(고유문)	1	37.4×26.0cm
42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2(告由文)	제문0042(고유문)	1	31.0×17.4cm
43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3(告由文)	제문0043(고유문)	1	28.0×22.3cm
44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4(告由文)	제문0044(고유문)	1	28.6×45.0cm
45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5(告由文)	제문0045(고유문)	1	35.0×35.0cm
46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6(告由文)	제문0046(고유문)	1	28.6×40.3cm
47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7(告由文)	제문0047(고유문)	1	56.0×53.0cm
48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8(告由文)	제문0048(고유문)	1	27.7×41.0cm
49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49(告由文)	제문0049(고유문)	1	32.3×33.0cm
50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0(告由文)	제문0050(고유문)	1	29.0×20.5cm
51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1(告由文)	제문0051(고유문)	1	38.0×42.5cm
52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2(賜祭文)	제문0052(사제문)	1	55.5×80.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53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3(賜祭文)	제문0053(사제문)	1	31.5×22.2cm
54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4(賜祭文)	제문0054(사제문)	1	58.2×86.0cm
55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5(賜祭文)	제문0055(사제문)	1	50.5×80.5cm
56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6(賜祭文)	제문0056(사제문)	1	61.5×80.3cm
57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7(賜祭文)	제문0057(사제문)	1	56.5×62.7cm
58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8(賜祭文)	제문0058(사제문)	1	50.5×75.0cm
59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59(賜祭文)	제문0059(사제문)	1	67.5×104.0cm
60	고문서	行狀祭文	祭文	祭文0060(告由文)	제문0060(고유문)	1	44.0×64.3cm

20. 座目 [83점]

1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01(丁巳享禮時執事錄)	좌목0001(정사향례시집사록)	1	22.5×84.0cm
2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02(癸巳享禮時執事錄)	좌목0002(계사향례시집사록)	1	18.5×49.0cm
3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03(享禮時執事錄)	좌목0003(향례시집사록)	1	24.0×85.0cm
4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04(丙戌享禮時執事錄)	좌목0004(병술향례시집사록)	1	43.0×47.0cm
5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05(丁未享禮時執事錄)	좌목0005(정미향례시집사록)	1	22.0×80.0cm
6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06(丙午享禮時執事錄)	좌목0006(병오향례시집사록)	1	21.5×81.0cm
7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07(乙巳享禮時執事錄)	좌목0007(을사향례시집사록)	1	21.0×80.5cm
8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08(丙午享禮時執事錄)	좌목0008(병오향례시집사록)	1	22.0×80.0cm
9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09(庚午享禮時執事錄)	좌목0009(경오향례시집사록)	1	21.5×52.0cm
10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0(壬申享禮時執事錄)	좌목0010(임신향례시집사록)	1	39.5×32.0cm
11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1(癸亥藥山吳先生文集刊役時爬錄)	좌목0011(계해약산오선생문집간역시파록)	1	29.5×38.5cm
12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2(甲午退溪先生年譜重刊時爬錄)	좌목0012(갑오퇴계선생연보중간시파록)	1	32.5×235.5cm
13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3(辛丑尙德祠修理時執事)	좌목0013(신축상덕사수리시집사)	1	30.5×453.0cm
14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4(己卯光明室修理時爬錄)	좌목0014(기묘광명실수리시파록)	1	47.5×271.5cm
15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5(陶山書院遺蹟保存會名單)	좌목0015(도산서원유적보존회명단)	1	24.5×34.0cm
16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6	좌목0016	1	25.0×55.0cm
17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7	좌목0017	1	16.5×25.0cm
18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8	좌목0018	1	24.5×49.5cm
19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19	좌목0019	1	20.5×81.0cm
20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0	좌목0020	1	22.5×48.5cm
21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1(丙寅講會各面里訓長錄)	좌목0021(병인강회각면리훈장록)	1	33.5×208.0cm
22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2(戊申門會時各村收集有司錄)	좌목0022(무신문회시각촌수집유사록)	1	25.0×48.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3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3(辛未取士面薦有司錄)	좌목0023(신미취사면천유사록)	1	30.0×108.0cm
24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4(疏任錄)	좌목0024(소임록)	1	12.5×110.0cm
25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5	좌목0025	1	17.0×17.0cm
26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6(公事員名案)	좌목0026(공사원명안)	1	85.2×50.3cm
27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7(曹司名案)	좌목0027(조사명안)	1	84.5×100.0cm
28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8(製通名案)	좌목0028(제통명안)	1	47.3×48.4cm
29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29(陶山書院廚舍重修時爬錄)	좌목0029(도산서원주사중수시파록)	1	47.5×140.9cm
30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0	좌목0030	1	42.5×103.7cm
31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1(隴雲精舍重修時爬錄)	좌목0031(농운정사중수시파록)	1	43.1×389.0cm
32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2(藏板閣重建時爬錄)	좌목0032(장판각중건시파록)	1	47.9×262.4cm
33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3(退溪先生世系圖并附錄重刊時爬錄)	좌목0033(퇴계선생세계도병부록중간시파록)	1	32.2×160.3cm
34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4(尙德祠重修時爬錄)	좌목0034(상덕사중수시파록)	1	49.5×221.8cm
35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5(芝山李公實紀刊役時爬錄)	좌목0035(지산이공실기간역시파록)	1	48.7×196.0cm
36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6(請陶山書院尙德祠復位版疏爬錄)	좌목0036(청도산서원상덕사복위판소파록)	1	44.9×2324.5cm
37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7(尙德祠還安時執事錄)	좌목0037(상덕사환안시집사록)	1	44.9×263.4cm
38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8(尙德祠還安時執事錄)	좌목0038(상덕사환안시집사록)	1	48.1×155.2cm
39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39(尙德祠復位版奉安時執事錄)	좌목0039(상덕사복위판봉안시집사록)	1	44.1×2077.5cm
40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0(尙德祠還安時執事錄)	좌목0040(상덕사환안시집사록)	1	42.3×413.0cm
41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1(陶山諸子錄刊役時爬錄)	좌목0041(도산제자록간역시파록)	1	36.2×362.3cm
42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2(板校名案)	좌목0042(판교명안)	1	43.0×343.3cm
43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3(山雲詩辨破錄刊役時執事錄)	좌목0043(산운시변파록간역시집사록)	1	25.9×66.2cm
44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4(義理闡揮疏任分定錄)	좌목0044(의리천회소임분정록)	1	25.0×234.0cm
45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5(道會時本院爬定執事錄)	좌목0045(도회시본원파정집사록)	1	46.9×308.7cm
46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6(啓賢祠營建時爬錄)	좌목0046(계현사영건시파록)	1	48.7×315.2cm
47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7(隴雲精舍重修時爬錄)	좌목0047(농운정사중수시파록)	1	43.0×210.0cm
48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8(尙德祠還安告由時爬錄)	좌목0048(상덕사환안고유시파록)	1	49.6×152.6cm
49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49(啓賢祠營建都監名案)	좌목0049(계현사영건도감명안)	1	43.3×34.4cm
50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0(製通名案)	좌목0050(제통명안)	1	41.9×53.6cm
51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1(亦樂書齋重修時爬錄)	좌목0051(역락서재중수시파록)	1	32.6×56.7cm
52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2(當番儒生名案)	좌목0052(당번유생명안)	1	48.7×89.0cm
53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3(東西齋重建時爬錄)	좌목0053(동서재중건시파록)	1	47.6×176.2cm
54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4(移安時執事錄)	좌목0054(이안시집사록)	1	48.4×104.0cm
55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5	좌목0055	1	31.9×40.6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56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6(名單)	좌목0056(명단)	1	23.6×29.3cm
57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7(溪南名帖)	좌목0057(계남명첩)	1	26.4×20.6cm
58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8(名單)	좌목0058(명단)	1	27.5×45.9cm
59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59(名單)	좌목0059(명단)	1	27.9×43.4cm
60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0(名單)	좌목0060(명단)	1	25.0×43.8cm
61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1(名單)	좌목0061(명단)	1	28.3×56.0cm
62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2(名單)	좌목0062(명단)	1	27.4×39.8cm
63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3(浮浦名單)	좌목0063(부포명단)	1	24.8×56.2cm
64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4(下溪名帖)	좌목0064(하계명첩)	1	25.8×45.2cm
65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5(名單)	좌목0065(명단)	1	30.5×40.7cm
66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6(名單)	좌목0066(명단)	1	28.0×60.8cm
67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7(陶山書院取士時川前名帖收單)	좌목0067(도산서원취사시천전명첩수단)	1	28.3×33.6cm
68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8(名單)	좌목0068(명단)	1	27.4×38.1cm
69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69(名單)	좌목0069(명단)	1	33.3×33.4cm
70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0(名單)	좌목0070(명단)	1	25.2×50.7cm
71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1(名單)	좌목0071(명단)	1	23.7×74.1cm
72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2(名單)	좌목0072(명단)	1	21.7×72.0cm
73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3(名單)	좌목0073(명단)	1	20.9×71.1cm
74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4(名單)	좌목0074(명단)	1	20.3×67.2cm
75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5(名單)	좌목0075(명단)	1	23.7×72.9cm
76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6(名單)	좌목0076(명단)	1	22.6×69.9cm
77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7(名單)	좌목0077(명단)	1	22.9×71.3cm
78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8(直書名案)	좌목0078(직서명안)	1	24.0×291.0cm
79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79(名單)	좌목0079(명단)	1	16.5×1073.0cm
80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80(名單)	좌목0080(명단)	1	16.0×40.0cm
81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81(名單)	좌목0081(명단)	1	31.7×33.2cm
82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82(名單)	좌목0082(명단)	1	33.0×42.0cm
83	고문서	名簿	座目	座目0083(名單)	좌목0083(명단)	1	19.5×26.7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	----	------	------	-----	-------	----	----

21. 牒呈 [20점]

1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01	첩정0001	1	38.0×531.0cm
2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02	첩정0002	1	26.0×19.0cm
3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03	첩정0003	1	37.0×27.0cm
4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04	첩정0004	1	70.5×41.5cm
5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05	첩정0005	1	49.5×26.0cm
6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06	첩정0006	1	55.0×36.0cm
7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07	첩정0007	1	57.5×27.5cm
8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08	첩정0008	1	55.5×28.5cm
9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09	첩정0009	1	55.5×39.0cm
10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0	첩정0010	1	51.0×35.0cm
11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1	첩정0011	1	54.0×37.5cm
12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2	첩정0012	1	37.0×54.0cm
13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3	첩정0013	1	59.0×33.0cm
14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4	첩정0014	1	70.5×51.0cm
15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5	첩정0015	1	76.5×58.0cm
16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6	첩정0016	1	84.5×49.5cm
17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7	첩정0017	1	72.5×52.5cm
18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8	첩정0018	1	77.5×50.0cm
19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19	첩정0019	1	49.5×40.0cm
20	고문서	牒關通報	牒呈	牒呈0020	첩정0020	1	54.5×35.5cm

22. 置簿記 [105점]

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01(奴婢置簿)	치부기0001(노비치부)	1	11.0×67.0cm
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02(奴婢置簿)	치부기0002(노비치부)	1	30.0×33.0cm
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03	치부기0003	1	31.0×38.0cm
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04(故婢古邑冊)	치부기0004(고비고읍책)	1	14.5×28.0cm
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05(舊位版埋安擇日記)	치부기0005(구위판매안택일기)	1	76.5×39.0cm
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06(擇日記)	치부기0006(택일기)	1	30.0×22.0cm
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07(春秋收未捧)	치부기0007(춘추수미봉)	1	23.0×9.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08	치부기0008	1	18.0×19.5cm
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09	치부기0009	1	17.5×46.0cm
1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0(留宿錄)	치부기0010(유숙록)	1	23.5×11.0cm
1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1(尋院錄)	치부기0011(심원록)	1	31.5×56.5cm
1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2(秋收記)	치부기0012(추수기)	1	19.5×8.5cm
1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3(秋收記)	치부기0013(추수기)	1	9.5×26.0cm
1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4	치부기0014	1	17.0×15.5cm
1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5(秋收記)	치부기0015(추수기)	1	9.0×20.5cm
1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6(己未 正謁時到記)	치부기0016(기미 정알시도기)	1	17.0×23.5cm
1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7	치부기0017	1	23.5×21.0cm
1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8	치부기0018	1	23.5×20.5cm
1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19(戊辰春秋收未捧記)	치부기0019(무진 춘추수미봉기)	1	14.0×61.5cm
2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0(辛丑垚貰未納抄)	치부기0020(신축 대세미납초)	1	20.0×74.0cm
2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1(春秋收未捧記)	치부기0021(춘추수미봉기)	1	23.5×106.0cm
2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2(春秋收未捧記)	치부기0022(춘추수미봉기)	1	21.5×66.5cm
2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3(未捧記)	치부기0023(미봉기)	1	23.0×56.0cm
2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4(地稅未捧記)	치부기0024(지세미봉기)	1	15.0×17.5cm
2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5(地稅未捧記)	치부기0025(지세미봉기)	1	19.5×17.5cm
2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6(地稅未捧記)	치부기0026(지세미봉기)	1	13.5×20.0cm
2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7(春收未捧記)	치부기0027(춘수미봉기)	1	13.0×23.5cm
2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8	치부기0028	1	10.5×24.5cm
2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29	치부기0029	1	21.5×12.0cm
3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0	치부기0030	1	14.5×15.5cm
3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1(支拂記)	치부기0031(지불기)	1	9.0×12.0cm
3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2(陶山書院電氣工事潛入陳情書草)	치부기0032(도산서원전기공사잠입진정서초)	1	21.0×22.5cm
3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3(陳情事項)	치부기0033(진정사항)	1	23.0×62.5cm
3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4(書冊目錄)	치부기0034(서책목록)	1	24.5×56.5cm
3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5(書冊目錄)	치부기0035(서책목록)	1	26.5×56.0cm
3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6(丙午 秋收垚貰)	치부기0036(병오 추수대세)	1	21.0×102.0cm
3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7	치부기0037	1	23.0×101.0cm
3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8(用下記)	치부기0038(용하기)	1	11.5×17.5cm
3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39(陶山書院田畝移作件記)	치부기0039(도산서원전답이작건기)	1	30.0×97.0cm
4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0(己巳地稅分排記)	치부기0040(기사지세분배기)	1	16.0×217.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4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1(壬申地稅分排記)	치부기0041(임신지세분배기)	1	17.0×273.5cm
4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2(戊辰地稅分排記)	치부기0042(무진지세분배기)	1	15.5×218.5cm
4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3(辛未地稅分排記)	치부기0043(신미지세분배기)	1	16.5×179.5cm
4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4(癸酉地稅分排記)	치부기0044(계유지세분배기)	1	19.0×355.0cm
4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5(地稅分排記)	치부기0045(지세분배기)	1	16.0×225.5cm
4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6(分排記)	치부기0046(분배기)	1	19.0×71.0cm
4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7(分排記)	치부기0047(분배기)	1	16.5×48.0cm
4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8(分排記)	치부기0048(분배기)	1	21.0×50.5cm
4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49(癸酉 地稅分排記)	치부기0049(계유 지세분배기)	1	18.0×25.0cm
5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0(分排記)	치부기0050(분배기)	1	19.5×171.0cm
5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1(分排記)	치부기0051(분배기)	1	19.0×100.0cm
5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2(分排記)	치부기0052(분배기)	1	19.0×43.5cm
5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3(分排記)	치부기0053(분배기)	1	19.5×76.0cm
5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4(戊子地稅分排記)	치부기0054(무자지세분배기)	1	12.5×16.5cm
5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5(戊子地稅分排記)	치부기0055(무자지세분배기)	1	12.0×57.5cm
5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6(戊子地稅分排記)	치부기0056(무자지세분배기)	1	16.5×24.0cm
5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7(戊子地稅分排記)	치부기0057(무자지세분배기)	1	12.5×65.5cm
5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8(分排記)	치부기0058(분배기)	1	13.5×27.0cm
5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59(分排記)	치부기0059(분배기)	1	12.0×119.0cm
6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0(分排記)	치부기0060(분배기)	1	12.0×77.5cm
6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1(分排記)	치부기0061(분배기)	1	13.5×105.0cm
6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2(分排記)	치부기0062(분배기)	1	11.5×11.5cm
6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3(分排記)	치부기0063(분배기)	1	11.5×10.5cm
6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4(分排記)	치부기0064(분배기)	1	11.0×16.0cm
6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5(分排記)	치부기0065(분배기)	1	13.0×18.0cm
6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6(分排記)	치부기0066(분배기)	1	12.0×21.0cm
6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7(良坪地稅米捧)	치부기0067(양평지세미봉)	1	14.5×24.0cm
6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8(書堂岱)	치부기0068(서당대)	1	33.0×45.5cm
6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69(地稅)	치부기0069(지세)	1	14.0×12.0cm
7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0(地稅)	치부기0070(지세)	1	13.0×85.5cm
7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1(及門諸賢)	치부기0071(급문제현)	1	19.0×169.0cm
7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2	치부기0072	1	24.0×22.0cm
7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3	치부기0073	1	30.0×19.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7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4	치부기0074	1	11.0×24.0cm
7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5(試土壇重建物財道會時分定)	치부기0075(시사단중건물재도회시분정)	1	37.5×58.0cm
7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6(良坪地稅)	치부기0076(양평지세)	1	12.0×20.0cm
7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7	치부기0077	1	14.5×54.5cm
7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8	치부기0078	1	13.5×80.0cm
7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79	치부기0079	1	16.0×51.1cm
8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0	치부기0080	1	19.5×31.0cm
8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1	치부기0081	1	17.0×30.5cm
8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2	치부기0082	1	18.0×25.0cm
8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3	치부기0083	1	22.5×55.0cm
8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4	치부기0084	1	20.5×45.5cm
8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5	치부기0085	1	22.0×396.5cm
8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6(地稅收納記一括)	치부기0086(지세수납기일괄)	1	24.0×68.5cm
8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7(修理時看役當番)	치부기0087(수리시간역당번)	1	22.5×55.5cm
8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8(刊役所扶助記)	치부기0088(간역소부조기)	1	19.0×12.0cm
8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89	치부기0089	1	23.5×17.0cm
9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0(小作契約書)	치부기0090(소작계약서)	1	17.2×29.2cm
9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1(小作契約書)	치부기0091(소작계약서)	1	15.0×30.5cm
9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2(傳掌記)	치부기0092(전장기)	1	33.0×23.3cm
9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3(尙德祠重修擇日)	치부기0093(상덕사중수택일)	1	27.0×41.0cm
9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4	치부기0094	1	26.9×19.4cm
9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5	치부기0095	1	12.2×22.3cm
96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6	치부기0096	1	16.0×26.0cm
97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7(庚寅未捧)	치부기0097(경인 미봉)	1	20.0×28.0cm
98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8	치부기0098	1	11.6×22.0cm
99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099(地稅未捧記)	치부기0099(지세미봉기)	1	11.5×30.0cm
100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100	치부기0100	1	16.2×22.3cm
101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101	치부기0101	1	15.0×25.8cm
102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102	치부기0102	1	23.3×25.8cm
103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103	치부기0103	1	25.0×34.8cm
104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104(扶助記)	치부기0104(부조기)	1	23.5×26.3cm
105	고문서	置簿記	置簿記	置簿記0105	치부기0105	1	22.5×25.3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	----	------	------	-----	-------	----	----

23. 通文 [357점]

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01	통문0001	1	96.5×58.0cm
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02(回文)	통문0002(회문)	1	100.5×51.0cm
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03(柳村通陶山文)	통문0003(류촌통도산문)	1	53.0×108.0cm
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04(東洛通陶山文)	통문0004(동락통도산문)	1	53.5×32.5cm
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05(泗陽通陶山文)	통문0005(사양통도산문)	1	53.0×46.0cm
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06	통문0006	1	106.0×82.0cm
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07	통문0007	1	86.0×75.0cm
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08(回文)	통문0008(회문)	1	104.0×50.5cm
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09	통문0009	1	119.0×81.0cm
1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0	통문0010	1	95.0×60.0cm
1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1	통문0011	1	97.5×122.0cm
1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2	통문0012	1	63.0×59.0cm
1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3	통문0013	1	98.0×103.0cm
1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4	통문0014	1	84.0×40.0cm
1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5	통문0015	1	98.0×60.0cm
1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6	통문0016	1	131.0×61.0cm
1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7	통문0017	1	40.0×56.0cm
1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8	통문0018	1	24.0×33.0cm
1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19	통문0019	1	27.0×39.0cm
2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0	통문0020	1	29.0×35.0cm
2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1	통문0021	1	24.0×33.0cm
2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2	통문0022	1	24.0×33.5cm
2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3	통문0023	1	28.0×20.0cm
2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4	통문0024	1	48.0×51.5cm
2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5	통문0025	1	48.0×48.5cm
2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6	통문0026	1	27.0×38.0cm
2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7	통문0027	1	43.5×96.5cm
2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8	통문0028	1	70.0×52.0cm
2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29	통문0029	1	64.0×90.0cm
3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0(回文)	통문0030(회문)	1	32.5×54.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1(回文)	통문0031(회문)	1	27.0×39.0cm
3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2(回文)	통문0032(회문)	1	29.5×54.0cm
3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3	통문0033	1	22.0×34.0cm
3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4(回文)	통문0034(회문)	1	29.0×40.0cm
3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5	통문0035	1	23.5×45.0cm
3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6	통문0036	1	31.5×47.5cm
3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7	통문0037	1	22.5×29.5cm
3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8	통문0038	1	49.0×24.0cm
3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39(回文)	통문0039(회문)	1	38.0×24.5cm
4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0	통문0040	1	34.5×43.5cm
4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1	통문0041	1	24.0×21.5cm
4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2	통문0042	1	97.0×56.0cm
4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3	통문0043	1	92.5×53.5cm
4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4	통문0044	1	94.5×54.0cm
4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5	통문0045	1	119.0×66.0cm
4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6	통문0046	1	47.0×33.5cm
4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7	통문0047	1	92.0×56.5cm
4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8	통문0048	1	63.5×93.5cm
4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49	통문0049	1	75.5×52.5cm
5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0	통문0050	1	92.0×70.5cm
5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1	통문0051	1	103.0×60.0cm
5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2	통문0052	1	99.0×54.5cm
5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3	통문0053	1	120.5×90.5cm
5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4	통문0054	1	97.0×93.0cm
5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5	통문0055	1	102.0×79.0cm
5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6	통문0056	1	103.0×59.0cm
5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7	통문0057	1	114.0×69.5cm
5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8	통문0058	1	105.0×63.0cm
5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59	통문0059	1	96.5×57.0cm
6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0	통문0060	1	91.0×54.0cm
6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1	통문0061	1	91.0×51.5cm
6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2	통문0062	1	87.0×49.0cm
6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3	통문0063	1	110.0×82.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6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4	통문0064	1	119.0×64.0cm
6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5	통문0065	1	101.0×59.0cm
6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6	통문0066	1	29.5×54.0cm
6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7	통문0067	1	95.5×59.0cm
6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8	통문0068	1	87.0×50.0cm
6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69	통문0069	1	95.5×60.0cm
7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0	통문0070	1	51.0×54.0cm
7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1	통문0071	1	86.0×50.5cm
7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2	통문0072	1	97.0×54.5cm
7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3	통문0073	1	97.5×55.5cm
7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4(安氏抵德谷書堂通文)	통문0074(안씨저덕곡서당통문)	1	22.5×41.5cm
7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5	통문0075	1	97.0×58.0cm
7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6	통문0076	1	94.5×57.0cm
7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7	통문0077	1	94.0×53.0cm
7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8	통문0078	1	86.0×104.5cm
7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79	통문0079	1	92.0×58.0cm
8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0	통문0080	1	93.0×79.0cm
8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1	통문0081	1	81.5×88.5cm
8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2	통문0082	1	93.5×107.5cm
8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3	통문0083	1	95.5×67.0cm
8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4	통문0084	1	75.0×48.0cm
8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5	통문0085	1	93.0×60.0cm
8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6	통문0086	1	98.0×56.0cm
8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7	통문0087	1	90.0×55.5cm
8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8	통문0088	1	84.5×98.0cm
8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89	통문0089	1	86.0×50.0cm
9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0	통문0090	1	93.0×58.0cm
9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1(姜氏抵德谷書堂道會通文)	통문0091(강씨저덕곡서당도회통문)	1	14.0×64.0cm
9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2	통문0092	1	103.5×60.5cm
9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3	통문0093	1	93.0×54.5cm
9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4	통문0094	1	91.5×54.5cm
9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5(京中章甫回通)	통문0095(경중장부회통)	1	44.0×53.0cm
9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6(回文)	통문0096(회문)	1	23.5×53.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9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7(陶山書院都辦所回文)	통문0097(도산서원도판소회문)	1	31.0×37.0cm
9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8	통문0098	1	24.5×134.0cm
9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099	통문0099	1	34.0×30.0cm
10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0	통문0100	1	70.0×61.0cm
10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1	통문0101	1	28.5×18.5cm
10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2	통문0102	1	28.0×20.0cm
10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3	통문0103	1	27.0×19.5cm
10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4	통문0104	1	65.5×50.0cm
10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5	통문0105	1	44.0×42.0cm
10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6(通告)	통문0106(통고)	1	36.5×25.5cm
10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7(通告)	통문0107(통고)	1	20.0×31.5cm
10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8(通告)	통문0108(통고)	1	27.5×30.5cm
10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09	통문0109	1	31.0×39.7cm
11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0	통문0110	1	22.0×18.3cm
11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1	통문0111	1	34.5×28.5cm
11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2(簡通)	통문0112(간통)	1	39.5×22.0cm
11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3(簡通)	통문0113(간통)	1	41.5×21.5cm
11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4(簡通)	통문0114(간통)	1	48.0×27.5cm
11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5(簡通)	통문0115(간통)	1	41.0×31.0cm
11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6(簡通)	통문0116(간통)	1	45.0×29.0cm
11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7(簡通)	통문0117(간통)	1	44.0×28.0cm
11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8(簡通)	통문0118(간통)	1	60.0×46.0cm
11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19	통문0119	1	81.5×44.5cm
12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0	통문0120	1	35.3×22.3cm
12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1	통문0121	1	33.0×35.3cm
12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2	통문0122	1	36.0×39.5cm
12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3	통문0123	1	32.0×44.0cm
12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4	통문0124	1	43.0×49.0cm
12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5(答通)	통문0125(답통)	1	27.0×62.0cm
12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6	통문0126	1	50.0×50.0cm
12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7	통문0127	1	50.0×59.0cm
12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8	통문0128	1	28.5×35.5cm
12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29	통문0129	1	52.0×35.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3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0	통문0130	1	45.0×50.0cm
13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1	통문0131	1	92.0×53.0cm
13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2	통문0132	1	89.0×51.5cm
13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3	통문0133	1	87.0×46.0cm
13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4	통문0134	1	74.0×45.0cm
13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5	통문0135	1	99.0×55.0cm
13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6	통문0136	1	89.0×51.0cm
13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7	통문0137	1	80.0×50.0cm
13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8	통문0138	1	98.0×110.0cm
13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39	통문0139	1	82.5×54.0cm
14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0	통문0140	1	91.0×53.5cm
14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1	통문0141	1	87.0×55.0cm
14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2	통문0142	1	92.0×57.0cm
14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3(答通)	통문0143(답통)	1	104.0×70.0cm
14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4	통문0144	1	104.0×56.0cm
14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5	통문0145	1	100.0×53.5cm
14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6	통문0146	1	100.0×149.0cm
14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7	통문0147	1	92.0×56.0cm
14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8	통문0148	1	91.0×54.0cm
14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49	통문0149	1	82.0×93.0cm
15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0	통문0150	1	81.5×45.0cm
15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1	통문0151	1	67.5×52.0cm
15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2	통문0152	1	96.0×59.5cm
15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3	통문0153	1	87.5×58.0cm
15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4	통문0154	1	83.5×51.0cm
15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5	통문0155	1	85.5×58.0cm
15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6	통문0156	1	92.0×56.0cm
15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7	통문0157	1	72.0×47.0cm
15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8	통문0158	1	48.0×48.0cm
15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59	통문0159	1	101.0×56.0cm
16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0	통문0160	1	45.0×54.0cm
16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1	통문0161	1	90.5×52.0cm
16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2	통문0162	1	45.0×45.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6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3(答通)	통문0163(답통)	1	77.0×89.0cm
16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4(答通)	통문0164(답통)	1	114.0×71.5cm
16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5	통문0165	1	88.0×54.0cm
16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6	통문0166	1	88.0×54.0cm
16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7	통문0167	1	97.0×54.0cm
16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8	통문0168	1	87.0×46.5cm
16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69	통문0169	1	66.0×40.0cm
17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0	통문0170	1	96.0×53.5cm
17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1	통문0171	1	90.5×53.5cm
17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2	통문0172	1	92.0×77.0cm
17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3	통문0173	1	83.0×60.0cm
17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4	통문0174	1	65.5×49.5cm
17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5(答通)	통문0175(답통)	1	78.0×55.0cm
17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6	통문0176	1	120.0×63.5cm
17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7	통문0177	1	69.5×41.0cm
17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8	통문0178	1	98.0×55.0cm
17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79	통문0179	1	72.5×58.0cm
18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0	통문0180	1	118.0×63.5cm
18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1	통문0181	1	91.0×60.0cm
18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2	통문0182	1	92.0×54.5cm
18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3	통문0183	1	57.0×59.5cm
18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4	통문0184	1	72.0×53.0cm
18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5	통문0185	1	93.0×52.0cm
18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6	통문0186	1	94.0×60.0cm
18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7	통문0187	1	98.0×52.5cm
18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8	통문0188	1	58.0×37.0cm
18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89	통문0189	1	89.0×54.0cm
19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0	통문0190	1	93.0×72.0cm
19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1	통문0191	1	97.0×56.0cm
19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2	통문0192	1	92.0×53.5cm
19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3	통문0193	1	99.0×69.0cm
19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4	통문0194	1	94.0×56.0cm
19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5	통문0195	1	90.0×56.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19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6	통문0196	1	96.5×51.5cm
19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7	통문0197	1	103.0×55.5cm
19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8	통문0198	1	83.0×100.0cm
19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199	통문0199	1	92.0×52.5cm
20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0	통문0200	1	95.5×54.5cm
20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1	통문0201	1	93.0×60.0cm
20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2	통문0202	1	90.0×55.0cm
20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3	통문0203	1	98.0×54.0cm
20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4	통문0204	1	93.5×53.5cm
20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5	통문0205	1	80.0×56.0cm
20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6	통문0206	1	97.0×56.0cm
20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7	통문0207	1	72.0×45.0cm
20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8	통문0208	1	94.5×109.0cm
20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09	통문0209	1	104.0×64.0cm
21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0	통문0210	1	106.0×83.0cm
21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1	통문0211	1	99.0×56.0cm
21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2	통문0212	1	89.0×53.0cm
21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3	통문0213	1	88.0×54.0cm
21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4	통문0214	1	98.0×53.0cm
21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5	통문0215	1	91.0×56.5cm
21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6	통문0216	1	44.0×51.0cm
21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7	통문0217	1	59.0×40.5cm
21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8	통문0218	1	76.5×58.0cm
21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19	통문0219	1	101.5×59.0cm
22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0	통문0220	1	61.0×54.0cm
22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1	통문0221	1	101.0×58.0cm
22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2	통문0222	1	90.0×106.0cm
22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3	통문0223	1	119.0×61.0cm
22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4	통문0224	1	109.0×60.0cm
22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5	통문0225	1	99.0×58.0cm
22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6	통문0226	1	92.0×60.5cm
22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7	통문0227	1	50.0×51.0cm
22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8	통문0228	1	47.5×54.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2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29	통문0229	1	96.0×55.0cm
23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0	통문0230	1	89.0×58.5cm
23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1	통문0231	1	42.0×37.5cm
23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2	통문0232	1	97.0×59.0cm
23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3	통문0233	1	11.0×56.0cm
23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4	통문0234	1	103.0×54.5cm
23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5	통문0235	1	63.0×63.0cm
23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6	통문0236	1	103.0×61.0cm
23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7	통문0237	1	109.0×68.0cm
23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8	통문0238	1	105.0×120.0cm
23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39(答通)	통문0239(답통)	1	92.0×54.0cm
24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0	통문0240	1	93.0×57.0cm
24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1	통문0241	1	86.5×98.0cm
24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2	통문0242	1	94.0×58.0cm
24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3(答通)	통문0243(답통)	1	93.5×55.0cm
24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4	통문0244	1	92.0×52.0cm
24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5	통문0245	1	115.0×58.0cm
24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6	통문0246	1	81.0×53.0cm
24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7	통문0247	1	111.0×65.0cm
24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8	통문0248	1	91.0×56.0cm
24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49	통문0249	1	65.0×50.5cm
25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0(回文)	통문0250(회문)	1	32.0×108.0cm
25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1(回文)	통문0251(회문)	1	42.0×54.5cm
25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2(回文)	통문0252(회문)	1	24.0×119.0cm
25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3(回文)	통문0253(회문)	1	27.0×105.0cm
25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4(回文)	통문0254(회문)	1	27.0×47.0cm
25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5(回文)	통문0255(회문)	1	28.0×49.0cm
25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6(回文)	통문0256(회문)	1	27.0×51.0cm
25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7(回文)	통문0257(회문)	1	25.0×46.0cm
25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8(回文)	통문0258(회문)	1	27.5×45.5cm
25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59(回文)	통문0259(회문)	1	31.0×91.0cm
26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0(回文)	통문0260(회문)	1	29.0×48.0cm
26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1(回文)	통문0261(회문)	1	28.5×50.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6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2(回文)	통문0262(회문)	1	27.0×89.5cm
26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3(回文)	통문0263(회문)	1	27.0×104.0cm
26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4(回文)	통문0264(회문)	1	27.0×81.0cm
26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5(回文)	통문0265(회문)	1	81.0×27.5cm
26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6(回文)	통문0266(회문)	1	23.0×46.0cm
26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7(回文)	통문0267(회문)	1	25.0×122.5cm
26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8(回文)	통문0268(회문)	1	30.5×52.0cm
26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69(回文)	통문0269(회문)	1	32.0×54.0cm
27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0(回文)	통문0270(회문)	1	32.5×33.0cm
27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1(回文)	통문0271(회문)	1	31.5×50.0cm
27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2(回文)	통문0272(회문)	1	28.0×55.5cm
27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3(回文)	통문0273(회문)	1	29.0×54.0cm
27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4(回文)	통문0274(회문)	1	27.0×107.0cm
27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5(回文)	통문0275(회문)	1	29.0×102.0cm
27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6(回文)	통문0276(회문)	1	30.0×109.0cm
27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7(回文)	통문0277(회문)	1	30.5×101.0cm
27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8(回文)	통문0278(회문)	1	32.0×136.0cm
27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79(回文)	통문0279(회문)	1	29.0×56.0cm
28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0(回文)	통문0280(회문)	1	28.0×34.5cm
28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1(回文)	통문0281(회문)	1	30.0×105.0cm
28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2(回文)	통문0282(회문)	1	29.5×54.0cm
28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3(回文)	통문0283(회문)	1	30.0×57.0cm
28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4(回文)	통문0284(회문)	1	30.0×53.0cm
28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5(回文)	통문0285(회문)	1	28.0×52.0cm
28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6(回文)	통문0286(회문)	1	21.0×49.5cm
28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7(回文)	통문0287(회문)	1	28.0×58.0cm
28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8(回文)	통문0288(회문)	1	32.0×53.0cm
28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89(回文)	통문0289(회문)	1	28.5×94.5cm
29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0(回文)	통문0290(회문)	1	33.0×95.5cm
29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1(回文)	통문0291(회문)	1	24.0×86.0cm
29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2(回文)	통문0292(회문)	1	30.0×54.0cm
29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3(回文)	통문0293(회문)	1	24.0×54.0cm
29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4(回文)	통문0294(회문)	1	32.0×115.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29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5(回文)	통문0295(회문)	1	31.5×77.0cm
29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6(回文)	통문0296(회문)	1	29.0×34.5cm
29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7(回文)	통문0297(회문)	1	26.0×158.0cm
29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8	통문0298	1	18.5×22.0cm
29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299	통문0299	1	26.0×37.5cm
30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0	통문0300	1	25.0×45.0cm
30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1	통문0301	1	26.0×37.0cm
30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2	통문0302	1	26.5×38.0cm
30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3	통문0303	1	29.0×61.0cm
30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4	통문0304	1	31.0×46.0cm
30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5	통문0305	1	27.0×39.5cm
30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6	통문0306	1	28.0×54.5cm
30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7	통문0307	1	30.0×47.5cm
30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8	통문0308	1	54.0×39.0cm
30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09	통문0309	1	30.0×46.0cm
31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0	통문0310	1	26.5×26.0cm
31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1	통문0311	1	30.0×48.5cm
31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2	통문0312	1	21.0×39.0cm
31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3	통문0313	1	25.5×35.5cm
31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4	통문0314	1	28.5×17.5cm
31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5	통문0315	1	25.5×36.0cm
31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6	통문0316	1	30.0×39.5cm
31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7	통문0317	1	27.0×33.0cm
31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8	통문0318	1	50.5×50.0cm
31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19	통문0319	1	20.5×26.0cm
32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0	통문0320	1	28.0×38.0cm
32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1	통문0321	1	28.5×27.0cm
32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2	통문0322	1	26.5×67.0cm
32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3	통문0323	1	20.5×65.0cm
32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4	통문0324	1	26.0×38.0cm
32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5	통문0325	1	19.0×33.5cm
32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6	통문0326	1	28.0×31.0cm
32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7	통문0327	1	27.0×38.5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32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8	통문0328	1	25.5×17.5cm
32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29	통문0329	1	28.5×37.0cm
33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0	통문0330	1	26.5×37.5cm
33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1	통문0331	1	22.0×39.0cm
33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2	통문0332	1	27.0×39.0cm
33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3	통문0333	1	26.5×37.5cm
33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4	통문0334	1	25.0×17.0cm
33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5	통문0335	1	26.0×37.0cm
33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6	통문0336	1	27.0×37.0cm
33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7	통문0337	1	27.0×39.0cm
33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8	통문0338	1	28.0×18.0cm
33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39	통문0339	1	30.0×38.5cm
34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0	통문0340	1	30.0×40.0cm
34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1	통문0341	1	35.0×29.0cm
34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2	통문0342	1	18.5×22.0cm
34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3	통문0343	1	19.0×26.5cm
34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4	통문0344	1	23.0×43.0cm
34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5	통문0345	1	29.0×39.5cm
34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6	통문0346	1	26.0×37.0cm
34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7	통문0347	1	30.0×39.0cm
348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8	통문0348	1	28.5×82.0cm
349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49	통문0349	1	33.0×46.0cm
350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50	통문0350	1	24.0×33.0cm
351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51	통문0351	1	27.0×35.5cm
352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52	통문0352	1	26.5×44.5cm
353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53	통문0353	1	97.5×54.0cm
354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54	통문0354	1	91.0×55.7cm
355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55	통문0355	1	32.0×51.5cm
356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56	통문0356	1	27.5×20.0cm
357	고문서	書簡通告	通文	通文0357(河上門中答大坪柳進士文)	통문0357(하상문중답대평류진사문)	1	42.2×48.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	----	------	------	-----	-------	----	----

24. 牌旨 [13점]

1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39(牌旨 1)	명문0039(배지 1)	1	28.0×36.0cm
2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0(牌旨 2)	명문0040(배지 2)	1	31.0×42.0cm
3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1(牌旨 3)	명문0041(배지 3)	1	32.0×36.0cm
4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2(牌旨 4)	명문0042(배지 4)	1	22.5×25.0cm
5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3(牌旨 5)	명문0043(배지 5)	1	19.0×36.0cm
6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4(牌旨 6)	명문0044(배지 6)	1	27.0×19.5cm
7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5(牌旨 7)	명문0045(배지 7)	1	35.0×45.0cm
8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6(牌旨 8)	명문0046(배지 8)	1	38.5×57.0cm
9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7(牌旨 9)	명문0047(배지 9)	1	22.0×34.5cm
10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8(牌旨 10)	명문0048(배지 10)	1	23.0×22.5cm
11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49(牌旨 11)	명문0049(배지 11)	1	26.5×37.0cm
12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50(牌旨 12)	명문0050(배지 12)	1	25.3×31.0cm
13	고문서	明文完文	明文	明文0051(牌旨 13)	명문0051(배지 13)	1	24.5×16.5cm

25. 稟目 [1점]

1	고문서	牒關通報	稟目	稟目0001(進慰諸吏等稟目)	품목0001(진위제리등품목)	1	81.5×80.0cm
---	-----	------	----	-----------------	-----------------	---	-------------

26. 行狀 [4점]

1	고문서	行狀祭文	行狀	行狀0001(行狀草)	행장0001(행장초)	1	34.5×22.0cm
2	고문서	行狀祭文	行狀	行狀0002	행장0002	1	36.8×212.0cm
3	고문서	行狀祭文	行狀	行狀0003	행장0003	1	27.5×67.0cm
4	고문서	行狀祭文	行狀	行狀0004	행장0004	1	23.7×36.8cm

27. 戶籍 [2점]

1	고문서	戶籍	戶籍	戶籍0001(準戶口)	호적0001(준호구)	1	43.0×50.5cm
2	고문서	戶籍	戶籍	戶籍0002(戶籍單子)	호적0002(호적단자)	1	44.0×55.0cm

순	유형	유형분류	하위유형	자료명	한글자료명	건수	크기
---	----	------	------	-----	-------	----	----

28. 笏記 [8점]

1	고문서	事目節目	笏記	笏記0001(癸丑賜祭時笏記)	홀기0001(계축사제시홀기)	1	36.0×78.0cm
2	고문서	事目節目	笏記	笏記0002(陶山書院致祭儀)	홀기0002(도산서원치제의)	1	26.5×67.0cm
3	고문서	事目節目	笏記	笏記0003(享禮笏記)	홀기0003(향례홀기)	1	37.0×127.5cm
4	고문서	事目節目	笏記	笏記0004(鄉飲酒禮笏記)	홀기0004(향음주례홀기))	1	31.0×313.5cm
5	고문서	事目節目	笏記	笏記0005(丙子賜祭時禮曹儀節)	홀기0005(병자사제시예조의절)	1	40.0×65.0cm
6	고문서	事目節目	笏記	笏記0006(文成公廟祭笏記)	홀기0006(문성공묘제홀기)	1	32.0×9.5cm
7	고문서	事目節目	笏記	笏記0007(丹陽禹先生行祀笏記)	홀기0007(단양우선생행사홀기)	1	32.5×11.0cm
8	고문서	事目節目	笏記	笏記0008(乙未還安後行祀時儀節)	홀기0008(을미환안후행사시의절)	1	49.0×48.5cm

필암서원 기록유산의 현황과 가치 : 호남도학의 연수(淵藪)

김소희(한국학중앙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장서와 출판 관련 자료
 - 1. 장서의 전래와 현황 및 관리
 - 2. 기록유산의 간행과 판목의 보관
- III. 서원의 기능 관련 자료
 - 1. 조직·운영 관련 자료
 - 2. 강학 관련 자료
 - 3. 제향 관련 자료
 - 4. 사회관계 관련 자료
 - 5. 경제 관련 자료
- IV. 맺음말

I. 머리말

2019년에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의 하나인 필암서원은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되었던 인물인 河西 金麟厚(1510~1560)을 주벽으로, 그의 문인이자 사위인 鼓巖 梁子澍(1523~1594)을 종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尤菴 宋時烈이 말했듯이 김인후는 도학과 절의와 문장 세 가지를 모두 겸비한 조선을 대표하는 道學者로서, 그의 학문과 사상 및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필암서원은 호남도학의 연수라고 할 수 있다.

1590년(선조 23)에 창건된 필암서원은 復設과 移建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잡았다.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김인후 사후 20년이 지난 1590년에 그의 문인인 奇孝諫(1530~1593), 卞成溫(1540~1614), 邊以中(1546~1611) 등이 長城邑 岐山里에 서원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건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1597년(선조 30)의 정유재란으로 서원이 소실되기에 이르렀다. 에 1624년(인조 2)에 이르러 기산 서쪽으로 500미터 떨어진 甌山에 서원을 복설하였다. 1659년(효종 10)에 孝宗에게 ‘필암’의 額號를 받게 되었고, 1662년에 宣額이 이루어졌다. ‘필암’은 하서 김인후가 출생지인 황룡면 맥호리 맥동 마을 입구에 있는 붓 ‘필’과 바위 ‘암’을 합한 붓바위[筆巖]에서 유래하였다. 김인후는 1668년(현종 9)에 정2품 資憲大夫로 추증되고, 1669년(현종 10)에 文靖의 시호가 내려졌다가 1796년(정조 20)에 文正의 시호로 고쳐 받게 되었다. 사액을 받았던 당시에 필암서원은 증산에 있었는데, 이곳은 홍수에 취약한 저지대였던 탓에 1672년(현조 13)에 현재의 위치인 황룡면 필암리로 이 건하였다. 아울러 사액서원으로서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서원을 정비해나갔다. 1744년(영조 20) 廓然樓의 보수 및 화재로 인한 1752년(영조 28)의 중건, 1786년(정조 10)의 양자징의 追

配 등을 거쳐, 1796년(정조 20)에는 김인후의 文廟 從享이라는 대업을 이뤄냈다.

필암서원의 창건과 복설, 사액과 이건 및 중건, 추배와 종향 등을 거치며 17세기 이후 호남 지역 서인들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서 중앙정계는 물론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들이 거쳐갔고, 이 외에도 수많은 알려지지 못한 인물들이 서원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본고는 필암서원에 일어난 다양한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1차자료로 남겨진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징 및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알려진 필암서원의 기록유산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며, 대표적인 자료로는 보물 제 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 문적일괄 14책 64매’이다.¹⁶³⁾ 1999년에는 ‘하서 선생 문집 책판’ 650여매(제215호)와 ‘하서 유묵 목판’ 56판(제216호)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하서 유묵 목판’ 56매는 1568년(선조 1) 새긴 『百聯抄解』13판, 『遺墨』4판, 仁宗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墨竹圖’를 목판에 새긴 ‘墨竹圖板’으로 1568년(선조 1)과 1770년(영조 46)에 새긴 것이 있다. 이 외에도 1610년(광해군 2년)에 새긴 『草書千字文』 18판과 『楷字武夷九曲』18판이다.¹⁶⁴⁾ 1999년 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 유물전시관인 元眞閣을 개관하였고 4월에 양영재단과 하서학술재단이 유물 29종 3,794점을 기증하게 되었다. 2014년 3월 10일,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고문헌 1,334종 3,760책의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당시 촬영한 사진자료는 현재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검색>을 통해 일부가 제공되고 있다.¹⁶⁵⁾

필암서원에 소장한 기록유산은 상기한 책판을 비롯하여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조직·운영·강학·제향·사회관계·경제 등 다방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으며, 특히 조직·운영 및 경제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II. 장서와 출판 관련 자료

1. 장서의 전래와 현황 및 관리

필암서원 장서와 관련해서는 <표 1>에서와 같이 1802년에 작성한 『筆巖書院院籍』(4)¹⁶⁶⁾, 1949년의 『筆巖書院誌』¹⁶⁷⁾, 1969년의 『李朝書院文庫目錄』, 1975년의 『필암서원지』 중 「장서 목록」(권12)과 「장서각상량문」·「장서각기」(권2), 1996년 『韓國典籍綜合調査目錄』¹⁶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3) 1975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이 해에 필암서원이 대한민국 사적 242호로 함께 지정되었다.

164) 책판의 수량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 및 조사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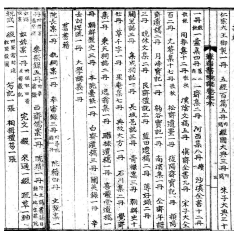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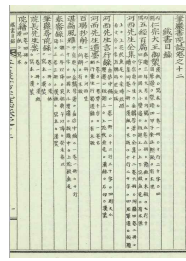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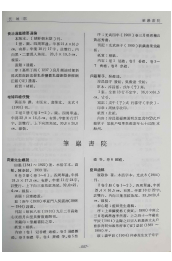
165) 필암서원에 관한 그간의 연구 및 활용성과는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2012. 4. 18. 서울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김희태가 발표한 「필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의 글에서 매우 상세히 정리한 바 있다.

166) 「10. 필암서원원적(4)」이란 자료명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총 4책으로, 제1~2책의 표지서명은 <筆巖院籍>이며, 제3~4책은 <筆巖書院院籍>이다. 제1~3책은 儒生들의 명부이고, 제4책은 서책·전답·책판·노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문헌자료의 전래와 관련해서는 ‘書冊秩’을 참고할 수 있다.

167) 서적 44종 282책, 구서적(고문서) 24건이다. 서적은 일반전적을, 구서적은 필암서원 운영관련 문서를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서적 대부분은 1975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상 김희태, 위의 발표자료집, 2012, 144쪽 참조.

168) 문화재관리국, 『韓國典籍綜合調査目錄』 第6輯 - 광주직할시·전라남도, 1992.

표 1 필암서원 장서 현황 관련 문헌

자료명	필암서원원적(4)	필암서원지 (서적조)	이조서원문고목록	필암서원지 (권12, 장서목록)	한국전적종합조 사목록
작성 연도	1802	1949	1969	1975	1996
장서량	30종 234책	44종 282책	132종 595책	206종 777책 (고문서 포함)	54종 486책
원문					

<표 1>의 장서량에서 볼 수 있듯이 필암서원이 소장했던 서적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종수와 책수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필암서원지』를 살펴보면 1949년도 판에 보이는 44종 292책은 고문서가 제외된 수치이며, 1975년판의 206종 777책 가운데에는 고문서가 포함된 수치이다. 그런데 1975년 판에서 고문서로 포함된 자료는 『奉審錄』 3권 3책, 『筆巖尋院錄』 1권 1책, 『院長先生案』 1권 1책, 『院籍』 4권 4책, 『文契案』 2권 2책, 『奴婢案』 1권 1책, 『奴婢譜』 1권 1책, 『執綱案』 1권 1책, 『參祭錄』, 『西齋儒案』 1권 1책, 『通文抄』 1권 1책, 『常用祝陳設圖』 1권 1책 등 12종 18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필암서원이 당시까지 소장했던 서적은 194종 759책 정도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한국전적종합조사 목록』에서는 수량이 54종 486책으로 축소되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기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필암서원 장서의 추이와 변화양상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1975년도판 『필암서원지』는 ‘내사본/서원간행본/필암서원생산문서/일반전적’의 순으로 서적의 가치와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 서적의 내용에는 미흡하지만 서지적인 전문성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朱子大全』의 경우에 서명 아래에 ‘(舊版)’을 부기한 후 “宋 朱熹 著 ○七十二冊 ○ 十行十八字 ○四周大小雙邊 ○板題中 ○上下花紋魚尾 ○漢紙 ○木板 ○漢裝(七十二冊中只有三十一冊)”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서명(판상태)/저자/책수/항자수/광곽모양/판심제의 위치/어미모양/지질/판종/장정/현전본의 수량’의 원칙에 맞춰 기술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內賜本의 경우에는 “內賜仁宗大王御製 漢紙 ○寫本 ○一卷一冊 ○ 十行二十字 ○四周單邊 ○崇禎四甲子宋正熙跋 ○有木匣”이라고 하여 紙質을 앞에 수록했고, 서문과 발문 등 편찬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목갑 등 보관상태까지 기록해두었다. 『內賜五經百篇』의 경우에는 “嘉慶三年九月日內賜”라고 하여 1798년(정조 22)에 내사받은 기록을 추기하였다. 이러한 기술방식은 미흡하나마 필암서원이 소장한 서적의 판본을 유추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¹⁶⁹⁾

169) 이 외 필암서원 전래 자료는 아니지만, 양영재단과 하서학술재단이 기증한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2016년에 발간한 『필암서원 유물관 소장 고문헌 목록』은 양영재단, 하서학술재단에서 기증한 자료를 대상으로 정리한 간략목록과 세부목록이 함께 있는 목록집이다. 총 기증수량은 양영재단이 660종

1802년 『필암서원원적』을 작성할 당시 30종 234책이었던 필암서원의 장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 운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타 서원에서와 마찬가지로 內賜, 자체 생산 및 수집 등의 방식을 통해 서적을 축적했던 것은 틀림없다. 아울러 누적된 장서를 보관하기 위해 藏書閣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반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사정은 1975년판 『필암서원지』 「藏書閣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기록을 정리하면, 中宗朝와 正祖朝에 『朱子大全』과 『五經百篇』을 하사받았고, 「仁宗御製」를 장서각에 奉藏했으며, 기타 經傳子史와 학자들의 문헌이 천여 권이 넘었기에 장서각의 현판을 걸고 서적을 보관해왔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지붕이 낡고 협소하여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경술년 가을에 재물을 모으도록 하고 관의 협조를 받아 3칸 4동을 典祀廳 좌측에 신축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 준공되자 院儒 邊時淵의 요청으로 金潤東이 장서각기를 지었다. 이상을 통해 필암서원은 1910년에 장서각의 노후화와 천여 권이 넘는 장서량으로 인해 건물이 증축되었으며,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장서각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관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서 관리에 관해서 『필암서원원적(4)』 권두에 수록된 節目에서 “內賜書冊 極爲重大 不可借人 如有願見者 來于院中 以爲奉翫事”라고 기재하여 가치가 남다른 내사본에 대한 관리와 열람 방안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일반 서적의 경우에는 “傳與後 書冊及院中物件 如有所失 則新執綱 推尋以納事”라고 하여 집강이 교체된 이후 서원의 물건 및 서적이 분실될 경우에 신임 집강이 책임지고 찾아내도록 하였으며, “經藏閣開金 執綱次知 如有所考書冊 則親往開給事”라고 하여 경장각의 개폐 또한 집강이 담당하게 하는 한편 서책을 참고하려는 자가 있으며 집강이 직접 가서 열어줄 것을 규정하였다.

끝으로 『필암서원원적(4)』에는 마지막 장에 딸림자료 형태로 <그림 1>과 같은 낱장의 고문서가 삽입되어 있는데, 해당 문서의 앞 부분에 「筆巖書冊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제2행부터 “內賜五經百篇 五卷, 左傳春秋 十卷, 雅訟 二卷, 奎章全韻 一卷” 등 서명과 권수가 기재되어 있고, 권수 아래에 책의 소장현황 및 소장처가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필암서원의 소장 서적의 유통과 관리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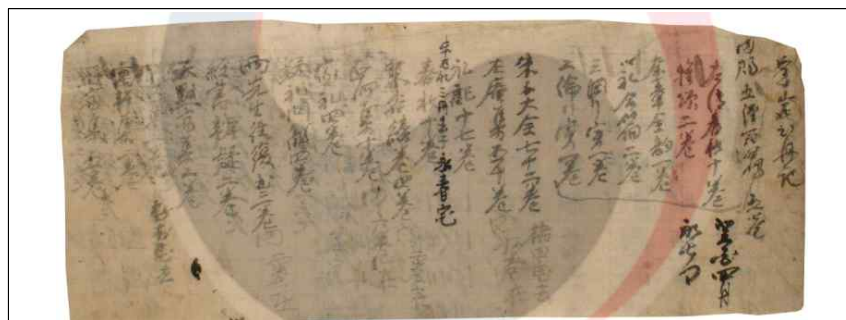


그림 1 「필암서책기」

2,342책을, 하서학술재단이 703종 1,402책 도합 1,363종 3,744책이다. 하서학술재단 자료는 이보다 앞서 1997년에 하서기념회가 2차례에 걸쳐 정리한 후 『필암서원장서』 목록집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해당 목록집의 발간사에 “후손 相萬의 발의와 泳仲의 노고에 힘입어 제1, 2차에 걸쳐 호남 후학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1,382책의 고서적을 수집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출판경위를 알 수 있다. 당시 기증한 1,382책은 이후 2016년에 재정리를 거쳐 1,402책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기록유산의 간행과 판목의 보관

필암서원에서 직접 생산한 서적 즉, 책판의 간행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1796년에 편찬한 『鏤板考』, 『필암서원원적(4)』의 「冊板秩」, 1998년 『전남서원의 목판』, 2017년 『전남지역의 목판자료(1)』를 참고할 수 있다. 먼저 『누판고』에는 『河西集』 14권과 『河西集別集』 9권이 필암서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인출에 소요되는 종이 즉 印紙數로 12牒 9張이 적혀있다.

다음으로 『필암서원지』 권2에는 「刊集時百有司錄」, 「藏板閣上梁文」, 「藏板閣記」 등이 있다. 「장판각기」는 임자년 가을에 權龍鉉이 작성한 것으로, 『하서집』 책판과 『묵죽도』 및 하서유목서판 등의 간행과 보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문정공 하서 김선생의 문집 책판[刊板]이 앞뒤로 여러 本이 있었는데, 하나는 宣祖 때 玉峯 白光勳이 手寫한 것이며, 하나는 正祖 때 돈을 출납하여 內閣의 글자[用內閣字]를 사용한 것이다. 하나는 續集으로 후손인 [金] 倭中이 힘써서 감영에서 간행한 것이다. 또 별도로 仁宗이 하사한 墨竹 印板과 先祖 遺墨 수십 판이 모두 필암서원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별도의 閣이 지어지지 않아서 지난 신해년에 서원의 여러 章甫들이 모두 閣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 각을 건립해서 尊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다.

「간집시백유사록」은 정조연간에 『하서선생문집』을 간행할 때 참여했던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發文 校官 金履禮, 校官 朴民淳, 監役 李晦祥, 傳教附 敎正有司 判書 沈煥之, 判書 閔鍾顯, 判書 趙鎮寬, 判書 金載瓚, 參判 徐龍輔, 參判 李書九, 參判 尹得孚, 參判 韓用龜, 摺紳有司 參判 李祖承, 參判 吳載紹, 承旨 金達淳, 承旨 金祖淳, 承旨 金勉柱, 承旨 魚用謙, 承旨 南公轍, 承旨 李肇源, 承旨 金義淳, 應敎 李翊模, 應敎 沈象奎, 敎理 鄭履綏, 正言 張至冕으로부터 注書 尹命烈, 府使 李舒永, 郡守 趙厚鎮, 判官 李義寅, 參奉 金基彦, 監役 權仲執, 都事 李源明, 別檢 尹慶曾 및 진사, 유학에 이르기까지 참여자의 관직과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문집판본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간행에 협조한 다양한 인물의 현황은 물론 문집간행의 규모와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상기한 필암서원에서 판각한 책판의 수량은 조사자와 자료집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필암서원원적(4)』 <책판질>에 수록된 책판은 6종 625립이다. 1998년 『전남 서원의 목판』에서는 하서전집 목판 258판, 하서선생전집 목판 392판, 초천자문 목판 18판, 무이구곡 목판 13판, 유목 4판, 백련초해 목판 13판, 인종필 묵죽도 목판 3판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지정을 추진하여 1999년에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서선생문집』은 1568년(선조 1)에 처음 간행되어 1686년(숙종 12)에 중간본이, 1797~1802년에 삼간본이 간행되었다. 초간본 목판 1매, 중간본 목판 258매, 삼간본 목판 391매 총 650매이다.¹⁷⁰⁾ 끝으로 2017년 국학진흥원에서 조사한 『전남지역의 목판자료(1)』에서는 1686년의 『하서선생집』 261판, 1802년 『하서선생전집』 324판, 1940년의 『하서선생속집』 67판, 1610년의 『무이구곡』 서판 18판, 1568년의 『백련초해』 13판, 1610년의 『초천자문』 18판, 연도미상의 壽福이 새겨진 繡板과 界線板 2판 총 703판이다. 이 중 2006년에 ‘묵죽도’ 목판 3판을 포함한 34판이 도난당했다가, 최근(2021. 2.) 2021년에 회수되었다.¹⁷¹⁾ 따라서 가장 최근 조사인 703판에 회수한 목판 34판을 포함한 737판이 최종 책판수라고 할 수 있다.

170) 김희태, 앞의 발표자료집, 2012, 151쪽.

17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3680&code=611711111&cp=du>.



그림 2 장판각 및 서판의 모습

필암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으로 문헌 기록 이외에도 현전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809년(純祖 9)에 목활자본으로 인출한 『蔚山金氏族譜』이다. <그림 3>의 우측 도판을 보면, 제1행부터 “大統餘分四己巳 聖上九年八月日 長城筆巖書院印, 修正都有司金晦祖, 校正 金之微 등 4인, 別有司 金元八 등 2인, 監印 金敬弼·金鎮東”이라는 인출기록이 남아있다. 즉 명나라 大統曆을 사용한 나머지의 네번째 기사년(1809, 순조 9) 8월에 장성 필암서원에서 인출했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필암서원에 배향된 김인후의 집안 관련 기록으로 인출기가 남아있는 매우 드문 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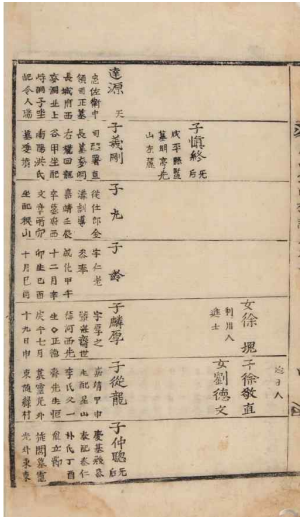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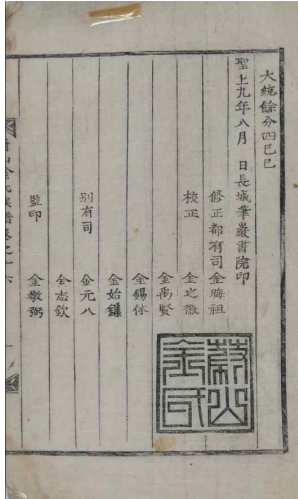
'김인후' 관련 부분	인출기
	

그림 3 1809년에 필암서원에서 목활자로 인출한 『울산김씨족보』

Ⅲ. 서원의 기능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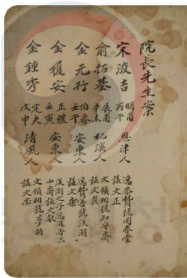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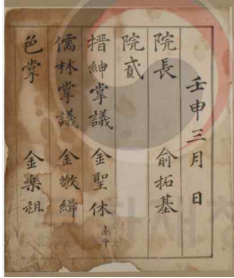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 낱장의 고문서 및 성책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원의 기능 즉, 조직·운영, 강학, 제향, 사회관계, 경제 등의 주제로 분류하여 개별 자료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자료는 ‘필암서원 문적일괄’(14책 64매)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책자료들은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을 통해 해제, 원문이미지, 탈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낱장 고문서는 1985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고문서』 제2책에서 탈초

를 진행하였고, 당시 첩문, 첩정, 완문, 소지, 상서, 품보, 품고, 품목, 재산문서, 간찰 등으로 분류하였다.¹⁷²⁾ 1995년에는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여 문서군에 따라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¹⁷³⁾

1. 조직·운영 관련 자료

이와 관련해서는 ‘원장 및 운영진’ 관련 자료와 ‘유생’ 관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원장 및 운영진과 관련해서는 <표 2>에서와 같이 『院長先生案』<필암서원문적 2>과 『筆巖書院執綱案』<필암서원문적 3>이 있다.

표 2 조직·운영 관련 자료 - 원장 및 운영진 관련

『원장선생안』 <필암서원문적 2>	『필암서원집강안』<필암서원문적 3>
17~19세기	1752~1887
	
58.3cm×34.0cm	四周單邊, 全郭 55.0×32.0cm, 6行 字數不定 ; 41.8cm×32.0cm

첫째 『원장선생안』은 필암서원이 창건되어 초대 원장에 부임한 宋浚吉(1606~1672)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근 200여년 간의 역대 원장 명부이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여 필사되었다. 전반부에는 同春堂 송준길, 知守齋 俞拓基(1691~1767), 漢湖 金元行(1702~1772), 三山齋 金履安(1722~1791), 夢梧 金鍾秀(1728~1799), 晚圃 沈煥之(1730~1802), 梅山 洪直弼(1776~1852), 淵齋 宋秉璿(1836~1905), 丹雲 閔丙承(1863~?) 등 9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였다. 해당 인물의 성명+자/생년/본관/과거/관직/호, 시호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老論의 핵심 인물들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필암서원의 정치적 성격과 위상을 엿볼 수 있다. 후반부는 앞서 나열한 인물들 중 송준길과 민병승을 제외한 7인의 인적 사항을 앞 부분과

172) 전남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조사보고』 제2책, 1984.

173) 전형택, 「필암서원의 고문서」,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광주광역시·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5, 2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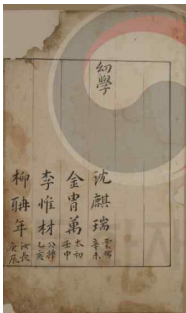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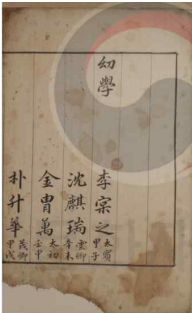


연대	양식	일반문서 (65매)					계
	帖文	牒呈	完文	소지류	稟目	訓令	
순조~철종 1801~1863	1		1				2
고종 1864~1896	1	5	1	1	1		9
대한제국 1897~1909		9	2	9	33	1	54
계	2	14	4	10	34	1	65

동일하게 기록했다.¹⁷⁴⁾

두 번째로 『필암서원집강안』은 서원의 운영진을 기재한 명부로, 院長[山長], 院貳, 摺紳掌議, 摺紳有司, 京掌議, 儒林掌議, 色掌, 直月 등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진신장과의 진신유사는 장성을 비롯하여 인근 고을의 수령이 담당했는데, 그들의 현직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인물의 성명 하단에 고을명을 기재했다. 단 장성의 경우에는 本官 또는 本倅로 기록했다. 기록이 이루어진 날짜는 '壬申年三月日'로 시작하여 '丁亥春 重修'로 끝이 나는 걸로 보아, 1752~1887년임을 알 수 있다. 1975년 『필암서원지』 「執綱案」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상은 원장 및 운영진에 대한 기록이라면, 다음은 유생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筆巖書院院籍(1)』, 『필암서원원적(2)』, 『필암서원원적(3)』 및 『筆巖書院西齋儒案書』가 있다.

표 3 조직·운영 관련 자료 - 유생 관련

『필암서원원적(1)』 <필암서원문적 7>	『필암서원원적(2)』 <필암서원문적 8>	『필암서원원적(3)』 <필암서원문적 9>	『필암서원서재유안서』 <필암서원문적 6>
1708	1717	1742	1846
			
54.3cm×32.0cm	54.3cm×32.0cm	55.8cm×34.9cm	43.7cm×33.5cm

첫째, 『필암서원원적(1)』은 말미에 '戊子八月二十四日 掌議 金聲鶴, 色掌 邊致成·金再賢'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1708년에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유학 沈麒瑞 등 필암서원에 출입한 인물들을 기록한 것으로, 모두 146인이 수록되어 있다. 각 유생은 먼저 유학·생원·참봉·直長·察訪·縣監 등으로 해당 인물의 벼슬 유무를 기록한 다음, 성명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해당 인물의 字나 출생연도 등을 기재했다.

둘째, 『필암서원원적(2)』는 표지에 '兩卷合部'라고 부기되어 있듯이, 서로 다른 필체로 된 2종의 성책이 묶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부는 유학 李實之로부터 朴至華까지, 후반부는 유학 李惟樞로부터 金益煥에 이른다. 모두 378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말미에 "丁酉二月十二日 掌議 奇澍, 色掌 朴孝根·申顯汝"가 쓰여있어, 1717년에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필암서원원적(3)』은 유학 金致瑞 등 306인의 명단으로, 문서 작성시거나 작성자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1975년 『필암서원지』에 따르면 1742년에 掌議 金天民과 色掌 邊宗大·安福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의 첨부자료로 제2장에서 언급했던 「필암서책기」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7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해제 참조. 이하 자료들도 문화재청 해제를 상당 부분 참조하되, 일부 오류를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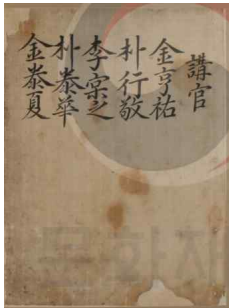

넷째, 『필암서원서재유안서』는 말미에 “丙午十一月 日 執綱 金, 宋”이라고 되어 있어 1846년 11월에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西齋에 소속되었던 幼學 金平雲 등 30인의 서명과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서명과 거주지 사이에 간혹 서재유생에서 제적된 사유를 기록하였다. 수록된 이들의 신분은 모두 유학으로 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8명이 “移居光州”, “以頑拒報官 充丁”, “移居羅州”, “班頃”, “老除頃”, “軍校頃”, “鄉所頃”, “物故頃” 등의 사유로 頃下되었다. 즉 지방으로 이사하여 탈하한 사람 2명, 서재 유생이 될 것을 완강히 거부하여 관에 보고한 뒤 良丁으로 충원된 사람 2명, 양반신분임이 밝혀져 탈하한 사람 1명, 향소의 임원의 되어 탈하한 사람 1명, 사망하여 탈하한 사람 1명 등이다. 신분이 일반적으로 유학을 칭하고 있지만 양반의 하층 내지는 양인의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¹⁷⁵⁾ 상기한 자료들은 18세기 초~19세기 중반까지 필암서원에 소속된 유생들의 현황과 규모 및 변화양상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낱장 고문서 가운데 22점이 조직·운영과 관련되어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853년(철종 4)에 糴弊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진 甘結을 토대로 장성부사가 筆巖書院 執綱에게 내린 下帖를 비롯하여 1873년(고종 10)에 필암서원 집강이 노비안을 수정·성책하여 장성관에 올린 牒呈, 1879년(고종 16)에 淸節堂·廓然樓·敬藏閣 등 서원을 중수하기 위해 고을에 부조를 요청해 달라는 뜻으로 장성관에 올린 上書, 같은 해 필암서원 제향에 불참한 제관에 대해 보고하는 稟目, 1900~1910년 사이에는 관찰사와 장성부사에게 필암서원 院貳·掌議·興學長 등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稟告, 直月·掌議·色掌 등의 임명 및 문제되는 사안을 보고하는 稟目, 掌議가 체직을 요청하는 單子 등이 남아있다.

2. 강학 관련 자료

필암서원 강학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드물게 남아있는데, <표 4>에 볼 수 있듯이 『문계안』 1과 『문계안』 2가 있다.

표 4 강학 관련 자료

『문계안』 1 <필암서원문적 4>	『문계안』 2 <필암서원문적 5>
1678	1746
	
54.0cm×34.3cm	42.3cm×28.8cm

『문계안』 1은 표지에 “戊午五月”이 필사되어 있어, 무오년인 1678년(숙종 4) 5월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맨 앞에 講會 主管者인 金亨祐, 朴行敬, 李案之, 朴泰華, 金泰夏, 朴升華로 구성된 講官 6인의 명단이 나오며, 이어서 ‘講案’ 항목을 설정하여 朴行重 등 58인의 명단과

175) 전형택, 앞의 해제, 1995, 231쪽.

끝을 알리는 ‘際’자가 기재되어 있다. 58인의 명단 가운데 중간에 작은 글씨로 삽입한 경우와 附箋紙를 사용해서 첨부한 경우가 확인된다. 이어 한 장을 비운 상태에서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條約을 초서체로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一. 講官講員 每月朔望 會于筆院講堂 焚香參謁後 因爲設講事
- 一. 講官或有故未參 則呈單會所 而無緣不參 則厚白紙三丈 備納事
- 一. 講員各隨其力 以爲背講事
- 一. 製述之員 詩賦義疑則七首 論策則三首 製■
- 一. 音釋不通則者 甲十介事
- 一. 音釋雖通 而文義不通者 以粗施行事
- 一. 連三續通者 厚白紙五丈賞給 連三粗者十介事
- 一. 製述限數若未備一首 則厚白紙十丈贖■
- 一. 講員 無緣不參 則甲十五介■削籍事
- 一. 散坐失儀 喧嘩爭競者 甲五介事
- 一. 考講時色掌 及直日門知講員事
- 一. 設講後晚到者 罰紙五丈備納事
- 一. 經書則不下一篇 雜又則 不下二十丈■{事}不備此數 則甲七介事

상기한 조약은 講官과 講員의 임무, 강회 불참에 따른 처벌, 강원과 제술원의 시험방식, 평가방식 및 평가에 따른 대우, 강회 자세 등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문계안』 2은 책말에 “丙寅二月十一日 掌議 金承祖 / 色掌 金天德, 金世堧”라고 되어 있어 1746년(영조 22) 2월 11일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처음에 僉知中樞府事 沈壽泰가 나오고, 그를 포함한 311명의 생원·유학 등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문계안은 17~18세기 필암서원의 강회 운영진 및 참여자, 진행 상황과 규모 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3. 제향 관련 자료

제향과 관련한 자료로는 『梁子徵名祝關係稟目』<필암서원 문적 14>이 있다. 이 자료는 1852년(철종 3) 8월 18일에 필암서원 齋會所에서 앞으로 있을 秋享과 관련해서 배향인 양자징의 축문을 주향인 김인후의 축문과 분리해서 각각을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할 지의 여부를 재가해 줄 것을 당시 필암서원 摺紳掌議였던 장성부사에게 청한 내용의 문서이다. 품목을 올린 다음날인 19일에 ‘예전처럼 김인후의 축문 끝에 배향한 뜻을 기록해서 하나로 합해서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내용이 담긴 장성부사의 답신과 수결이 있다. 1975년 『필암서원지』에 의거할 때, 그 뒷부분의 내용이 기록된 한 장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¹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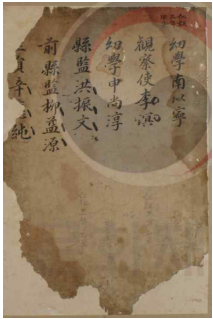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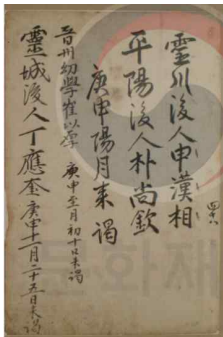
이 외에 낱장의 고문서 가운데 4점이 제향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관문서로, 1832년(순조 32)에 享祀할 때에 필암서원의 속촌인 筆巖·中洞·壯子の 3村이 治道の 역을 담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完文을 비롯하여 1879년(고종 16)에 제향과 관련하여 獻官·諸執事를 備望한 사안에 관해 장성부에 올린 첩정이 있다. 1882년(고종 19)에는 春享의 비용으로 戶奴錢의 일부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 완문, 1904년에 제향하면서 祭官 차출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가 남아있다.

17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해제 참조.

4. 사회관계 관련 자료

필암서원의 사회관계와 관련된 자료로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봉심록』<필암서원문적 13>을 들 수 있다.

표 5 사회관계 관련 자료

봉심록 1-1 <필암서원문적 13>	봉심록 1-2 <필암서원문적 13>
1624~1680	1680~1701
	
47.4cm×30.1cm	47.3cm×30.3cm

『봉심록』은 모두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24년부터 1701년까지 필암서원을 방문한 인물을 기록하였다. 작성방식에 있어서 뒷 부분으로 갈수록, 제2책으로 갈수록 방문일자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후반부는 서체로 보아 방문한 당시에 즉각즉각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1책에는 표지에 ‘仁祖二年’이 필사되어 있어, 1624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624년을 시작으로 ‘幼學 南以寧, 觀察使 李溟, 幼學 申尙淳, 縣監 洪振文, 前縣監 柳益源’ 으로부터 ‘縣監 鄭銓’에 이른다. 이어서 ‘孝宗元年庚寅’에는 ‘進士 房明燁’ 으로부터 ‘前奉事 高斗紀’까지 수록되어 있다. 그 뒤로는 반장의 여백을 두고, ‘幼學 李惟孚’ 등이 기재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성명 하단에 字·생년·본관·방문일시 등이 매우 꼼꼼히 기재되었다. 이후 ‘玄宗元年庚子’부터 마지막에 ‘庚申九月二十七日’에 來往한 인물들까지 수록되어 있다. 즉 1624년부터 경신년인 1680년(숙종 6)까지 필암서원을 찾아온 방문객의 명단이다.

제2책은 ‘庚申陽月[10月]來謁’이라고 쓰인 기록을 통해 『봉심록』 1-1이 끝나는 시점인 1680년 9월 20일에 이어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말미에는 ‘辛巳十月廿七祇謁’의 문구로 끝이 난다. 즉 1680~1701년(숙종 27)까지의 방문객 명단이다. 이들 자료는 17세기 필암서원의 서원의 사회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5. 경제 관련 자료

필암서원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서원전, 서원노비, 서원촌과 원속 등의 방면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⁷⁷⁾ 이 글에서는 서원경제의 지지요소이자 본 서원자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서원노비를 중심으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표 6>의 『長城筆巖書院成冊(노비전답안)』(1680, 숙종 6), 『奴婢譜』(1744~1752, 영조 20~28), 『필암서원원적(4)』(1802, 순조 2), 『奴婢案』(1846) 등 4종이 있다. 시기적으로는 17~20세기에 이르고 있다.

177)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1』, 도서출판 문사철, 2014, 293~297쪽.

표 6 경제 관련 자료

장성필암서원성책 <필암서원문적 11>	노비보 <필암서원문적 1>	필암서원원적(4) <필암서원문적 10>	노비안 <필암서원문적 12>
1680	1745~	1802	1846
			
39.2cm×32.0cm	41.7cm×31.1cm	56.5cm×34.3cm	43.9cm×33.9cm
·표제: 노비전답안(개장) ·내용:奴婢秩 + 保奴秩 + 田畝秩 ·노비질 기재방식 : (매득비+이름+年+生/몸상 태(使喚, 弱)+거주지) /	·거주지 및 방매사유 : 院債許多, 門樓重修時(1744), 門樓創建時(1752), 門樓丹青時(1764), 東西齋重修時(1759), 祭器改備事, 藏書閣成 등등	·구성: 상단奴婢, 하단婢秩/逃奴婢, (逃)婢秩 첨지: 告目-右	·父名, 거주지 (전형택 : 보노안) ¹⁷⁸⁾

『장성필암서원성책』은 표지에 ‘奴婢田畝案’이 기재되어 있으며,奴婢秩/田畝秩/穀物捧上秩/己未用下秩의 네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노비질과 전답질은 1680년(숙종 6) 2월 6일까지의 서원이 소유한 노비와 전답 내역을, 곡물봉상질에는 1679년(숙종 5) 가을의 추수기록, 기미용하질에는 1679년 8월 8일~1680년 2월까지 지출 상황을 기재하였다. 이 당시 필암서의 재정상태는 결코 여유롭지 못하여 경비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노비를 팔아 재원으로 전답을 마련하기도 하고, 재력을 남용하지 말 것, 춘추 향사시에 물력을 남용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¹⁷⁹⁾

『노비보』는 271명에 달하는 노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1745년(영조 21), 1746년(영조 22) 즉 을축·병인 두 해에 작성한 자료를 합철하여 만든 것이라는 견해¹⁸⁰⁾와, 1745년에 처음 작성하여 그 후 수시로 변동 상황을 추가 기입한 것이라는 견해이다.¹⁸¹⁾ 기록 방식은 해당 노비의 출처에 대해 ‘傳來, 買得, 屬公’ 등과

178) 전형택, 앞의 해제, 1995, 230~231쪽에서는 이 문서를 보노안으로 보았다. 그 이유로 “첫째, 이 노비안에는 노 30명만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가 노비안이라면 노만 기록되어 있을 수는 없고 비 또한 마땅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이 노비안에 올라 있는 노들은 모두가 성이 기록되어 있다. 주지 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비들은 일반적으로 성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은 모두 성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이들은 모두 양인신분으로 보노로 책정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문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주지가 실려있는데 한결같이 필암서원 부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없다. 만약 이것이 노비안이라면 필암서원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179)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전남사학회, 1997, 363쪽.

180) 안승준, 「1745·6년의 筆岩書院 奴婢譜」, 『고문서연구』 4, 한국고문서학회, 1993, 125~162쪽.

181) 전형택, 앞의 해제, 1995, 225쪽.

같이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사망 여부, 생년 또는 나이, 배우자 및 그들의 신분, 도망 여부, 거주지 등을 기록했다. 이들 노비보는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족보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계의 파악보다는 가계계승과 관련된 신분 및 소유권의 귀속을 판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¹⁸²⁾ 이 노비보는 18세기 이후 從母從良法 시행 등으로 국가가 노비제의 확장을 제어하려고 했던 점 등과 관련하여 그 시기의 사노비 관리의 일단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료¹⁸³⁾라고 평가하였다.

『필암서원원적(4)』는 1802년(순조 2)에 당시 필암서원 執綱 金定休가 서원 소유 재산 관련 자료를 기록한 것이다. 수록 내용은 立議, 節目, 書冊秩, 祭器秩, 齋服秩, 冊版秩, 畚秩, 田秩, 院邸家垵秩, 奴秩, 婢秩, 逃奴秩, 逃婢秩 등이다. 마지막에는 地記를 첨부했다. 필암서원은 당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서 경제기반을 공고히하여 재정을 튼튼히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절목을 설정하여 규정화하였다.¹⁸⁴⁾

『노비안』은 1846년(헌종 12)에 작성된 것으로, 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 34명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였다. 노의 성명에 이어 父의 이름과 거주지를 기록했고, 物故·逃走·頃 등으로 다른 노가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노의 이름 하단에 ‘사유/代/노 성명/거주지’ 등을 적은 籤紙를 첨부하였다.

상기한 자료들을 보면 필암서원이 소유한 노비수가 1680년에는 48명이 1745년에는 16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1802년에는 2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관해 ‘18세기 노비 수의 폭증은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로 보이며, 이 시기 서원에서 노비안을 작성할 때 이전에 비해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19세기 들어 노비가 대폭 줄어들게 된 이유는 조선후기의 사회변동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노비 인구의 감소라는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⁵⁾라고 보았다. 그러나 1745년에 많은 노비들이 방매가 되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書院債가 許多하다는 이유가 많고, 門樓를 중건하거나 단청을 다시 칠하거나 동재서재 등 강학공간을 중수하거나 제향관련 기물을 다시 구비하거나 등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1802년의 『필암서원원적(4)』의 범례를 보면 “院中奴婢田畓 不得已放賣 則諸執綱及鄉貲院會詳議後 報于本官 稟于縉紳 受題後處決事”라고 하여 서원 소속 노비와 전답을 부득이하게 팔 때에는 여러 집강과 향원이 院會를 열어 회의한 후에 본관에 보고하고 진신들에게 아뢰어 판결을 받은 뒤에 처결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문헌 자료를 토대로 재산이 탕진된 서원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방편으로 원만한 협의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노비 및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날장 고문서 중에서도 경제 관련 문서가 35건으로 단연 우위를 차지한다. 시기적으로 1893년(고종 30)~1909년까지 분포되어 있고, 문서유형별로는 牒呈 11건, 等狀 6건, 稟報 4건, 稟目 12건, 所志 1건, 完文 1건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893년에 茂長에서 기한이 지나도록 扶錢屢을 납부하지 않자 장성관에 색리 金永郁을 장교로 보내 잡아들여 받아줄 것을 요청한 牒呈, 復結·垵結·失農한 토지 등에 대한 면세문제, 院村 村民의 잡역 면제 요청 및 보고, 面任이 例給租 수납 관련 이의 제기, 도조의 책정 및 수납 등의 사안을 담고 있어, 19세기 후반~20세기 초 필암서원의 경제적 상황과 위상 및 서원 유지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182) 안승준, 앞의 논문, 1993, 118쪽.

183) 문숙자, 「조선후기 노비 가계와 婢 - 筆巖書院 奴婢譜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역사』 11, 2009, 한국여성사학회, 138쪽.

184) 전형택, 앞의 논문, 1997, 364쪽.

185) 한국서원연합회, 앞의 책, 2014, 294쪽.

IV. 맺음말

1975년 필암서원 기록유산이 보물로 지정된 이후, 1984년에는 고문서를 대상으로 탈초본이 간행되었고, 이후 고문서 특히 경제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필암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재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필암서원의 기록자료는 전적, 책판, 고문서로 그 중 책판과 고문서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수량이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현황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리목록과 개별 자료에 대한 상세한 해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낱장고문서의 원문 및 탈초본 확보가 쉽지 않으며, 보물로 지정되어 원문이미지가 제공되는 자료들도 자료명과 해제 및 이미지가 서로 부합되지 않고 작성연대에서도 약간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필암서원의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암서원 자료의 목록·해제·원문이미지 등 종합적인 DB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암서원 기록유산, 특히 고문서의 경우 조직·운영 문서 28점, 강학 문서 2점, 제향 문서 5점, 사회관계 문서 1점, 경제 문서 39점으로 서원의 역사적 현장을 들여다보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다른 서원 자료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서원과 서원 자료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단절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본고에서 소개한 몇 종의 도서목록을 토대로 서적이 현황과 관리 및 유통 등을 살펴봄으로써 서원이 지역 사회에 끼친 지식문화사적인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타 서원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서원에 내려진 내사본의 종류와 의미, 서원 도서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문서의 탈초, 번역과 함께 문집, 일기 등 각종 문헌에 산견한 자료들을 망라한 후 각종 인물(원장, 유생, 노비 등)과 장소, 사건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서원의 사회적인 위상과 경제적인 현황 및 다른 서원과의 연계성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개별 서원 문헌 아카이브를 넘어 한국 서원 문헌의 아카이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서원자료의 종합화, 표준화, 목록화, 연표화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개별 단위 서원을 넘어 시대, 지역, 유형, 인물, 자료의 연계성을 찾아내어 연속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¹⁸⁶⁾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표준화된 개별 서원 자료를 축적하여 한국 서원 자료의 통합아카이브 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186) 김희태, 앞의 발표자료집, 2012, 23쪽.

참고문헌

『筆巖書院誌』(1975)

문화재관리국,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6輯-광주직할시·전라남도, 문화재관리국, 1992.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조사보고 제2책), 전남대학교, 1984.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筆巖書院 遺物館 所藏 古文獻 目錄』, 전남대학교, 2016.
장성군,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장성군청, 2015.12.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전남지역의 목판자료(1)』, 한국국학진흥원, 2017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1』, 도서출판 문사철, 2014.

김희태, 「필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2.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 李朝書院文庫目錄考』, 국회도서관, 1969.

문숙자, 「조선후기 노비 가계와婢 - 筆巖書院 奴婢譜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역사』 11, 한국여성사학회, 2009.

안승준, 「1745·6年の 筆岩書院 奴婢譜」, 『고문서연구』 4, 한국고문서학회, 1993.

전형택, 「필암서원의 고문서」,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광주광역시·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5, 217쪽.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전남사학회, 1997.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한국고문헌종합목록(<https://www.nl.go.kr/korcis/index.do>)

※ 부록

● 필암서원 고문서 분류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	-----	----	----	----

1. 조직·운영 문서 [28점]

1	『院長先生案』 <筆巖書院文籍 2>	17~19세기	3	필암서원이 창건되어 초대 원장에 부임한 宋浚吉(1606~1672)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근 200여년간의 역대 원장 명부
2	『筆巖書院執綱案』 <필암서원문적 3>	1752~1887	19	서원의 운영진을 기재한 명부로, 院長[山長], 院貳, 搢紳掌議, 搢紳有司, 京掌議, 儒林掌議, 色掌, 直月 등의 순으로 기록
3	『筆巖書院院籍(1)』 <필암서원문적 7>	1708	30	필암서원에 출입한 幼學 沈麒瑞 등 146인에 대한 명부
4	『筆巖書院院籍(2)』 <필암서원문적 8>	1717	37	필암서원에 출입한 幼學 李實之 등 378인에 대한 명부
5	『筆巖書院院籍(3)』 <필암서원문적 9>	1742	23	필암서원에 출입한 유학 金致瑞 등 306인의 명단
6	『筆巖書院西齋儒案書』 <필암서원문적 6>	1846	6	필암서원 西齋에 소속되었던 幼學 金平雲 등 30인에 대한 명단
7	下帖 1	1853	1	糴弊와 관련한 사항으로, 傳敎 및 비변사의 관문을 담은 甘結을 토대로 장성부사가 筆巖書院 執綱에게 내린 문서
8	牒呈 1	1873	1	필암서원 집강이 필암서원 노비안을 수정·성책하여 보고한다는 뜻으로 올린 문서
9	上書 1	1879	1	淸節堂, 廓然樓, 敬藏閣 등 서원을 修補하면서 본도 열읍에 부조를 요청해달라고 장성관에 올린 문서
10	稟目 1	1879	1	필암서원 제향시 불참한 제관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
11	牒呈 3	1887	1	筆巖書院 院任 등이 장성관 내 金氏門中の 일부가 필암서원의 重修를 청탁하여 부담금을 배정하고 거둬들인 사안에 대해 장성관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
12	下帖 2	1893	1	필암서원 노비의 생사와 사망 등의 변동사항을 보고하라는 뜻에서 장성부사가 필암서원 집강에게 내린 문서
13	稟報 3	1900	1	本孫 金鴻洙가 필암서원 안산에 부친의 묘를 偷葬한 사건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묘의 掘去를 요청하는 문서
14	稟告 1	1900	1	관찰사에게 院貳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15	稟告 2	1900	1	관찰사에게 院貳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16	稟目 4	1901	1	필암서원 搢紳掌議의 선출에 있어서 本孫과의 이견에 관해 보고하는 문서
17	稟告 3	1902	1	관찰사에게 興學長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18	稟目 7	1902	1	필암서원 有司 임명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보고하는 문서
19	稟目 8	1902	1	필암서원 直月 임명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보고하는 문서
20	稟目 10	1903	1	享祀 후 院任을 公議에 따라 고쳐서 付標한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
21	稟告 4	1904	1	관찰사에게 院貳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22	稟目 16	1905	1	필암서원 掌議, 色掌의 임명과 관련하여 원장에게 올린 문서
23	單子 1	1906	1	筆巖書院 掌議 宋龜淳이 체직을 요청하며 원장에게 올린 문서
24	單子 2	1906	1	筆巖書院 掌議 宋龜淳이 체직과 관련하여 성주에게 올린 문서
25	稟目 17	1906	1	필암서원 掌議, 色掌의 임명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26	稟告 5	1908	1	장성부사에게 搢紳掌議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27	簡札	1910	1	士論에 따르지 않고 李鳳求를 掌議에 付標한 사안을 전하는 편지
28	稟目 20	1908	1	독단으로 掌議, 色掌을 付標한 사안에 대해 장성관에 보고하는 문서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	-----	----	----	----

2. 강학 문서 [2점]

1	『문계안』 1 <필암서원문적 4>	1678	7	講會 主管者, 講案 등의 명단과 강회관련 규약 등이 적인 성책자료
2	『문계안』 2 <필암서원문적 5>	1746	24	필암서원 강학관련 311명의 생원, 유학 등이 기재된 명단

3. 제향 문서[5점]

1	梁子徵名祝關係稟目 <필암서원 문적 14>	1852	6	필암서원 齋會所에서 秋享과 관련해서 배향인 양자징의 축문을 주향인 김인후의 축문과 분리해서 각각을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할 지의 여부를 재가해 줄 것을 필암서원 摺紳掌議였던 장성부사에게 요청한 문서
2	完文 1	1832	1	香祀時 필암서원의 속촌인 筆巖, 中洞, 壯子の 3촌이 治道の 역을 담당하라는 문서
3	牒呈 2	1879	1	獻官, 諸執事를 備望한 사안에 관해 장성부에 올린 청정
4	完文 2	1882	1	戶奴錢의 일부를 春享의 비용으로 제공해준다는 문서
5	稟狀 1	1904	1	제향시 祭官 차출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4. 사회관계 문서 [1점]

1	봉심록 <필암서원문적 13>	1624~1701	48	필암서원을 방문한 자들을 기록한 명부 2책으로, 제1책에는 1624~1680년에, 2책에는 1680~1701년에 작성되었다.
---	--------------------	-----------	----	---

5. 경제 문서[39점]

1	장성필암서원성책 <필암서원문적 11>	1680	12	奴婢秩, 保奴秩, 田畚秩로 구성된 성책자료
2	노비보 <필암서원문적 1>	1745~	19	필암서원 노비 관련 성책자료로, 271명의 노비가 수록됨
3	필암서원원적(4) <필암서원문적 10>	1802	21	필암서원 執綱 金定休가 서원 소유 재산 관련 자료를 기록한 성책자료
4	노비안 <필암서원문적 12>	1846	3	필암서원 노비 명부
5	牒呈 4	1893	1	茂長에서 기한이 지나도록 扶錢屢을 납부하지 않자, 장성관에 색리 金永郁을 장교로 보내 잡아들여 받아줄 것을 요청한 문서
6	牒呈 5	1896	1	復結,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7	牒呈 6	1898	1	復結,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8	牒呈 7	1898	1	復結,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9	牒呈 8	1898	1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10	牒呈 9	1899	1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11	牒呈 10	1900	1	麥洞의 도조 납부를 거부하는 作人에게 도조를 받아내기 위해 필암서원 집강이 장성관에 올린 문서
12	等狀 1	1900	1	客舍를 重修할 때에 속촌에 잡역을 면제해 달라고 올린 문서
13	稟報 1	1900	1	도조 납부액과 관련하여 필암서원 집강이 장성관에 올린 문서
14	稟報 2	1900	1	고창 黃山에 있는 舍音에 대한 교체를 요청한다는 뜻으로 장성관에 올린 문서
15	稟目 2	1900	1	관의 협조로 麥洞의 도조를 거부하던 작인으로부터 도조를 받은 사실과 미납한 부분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

순	자료명	연도	수량	내용
16	稟目 3	1901	1	고창 고사면 황산촌에 있는 도조를 수납하는 일로 필암서원 집강이 장성관에 올린 문서
17	牒呈 11	1901	1	高敞에 있는 畚의 도조를 거두기가 여의치 않자, 장성군 西三面 硯村에 있는 租 31石을 받을 수 있는 논으로 移買해달라고 장성관에 올린 문서
18	所志 1	1901	1	西一面 다산촌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소지
19	等狀 2	1901	1	西一面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소지
20	等狀 3	1902	1	西一面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문서
21	等狀 4	1902	1	西一面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문서
22	牒呈 12	1902	1	필암서원의 속촌이 속한 西一面의 面任이 例給租를 거두려하자 필암서원 집강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올린 문서
23	牒呈 13	1902	1	西一面의 面任이 例給租를 거두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며 장성군에 올린 문서
24	完文 3	1902	1	院村民의 잡역을 면제하는 문서
25	稟目 5	1902	1	院村 村民의 잡역 면제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
26	稟目 6	1902	1	院村 村民의 잡역 면제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
27	稟目 9	1902	1	서원 속촌에 대한 面任의 例給租를 혁파한다는 관찰사의 완문을 받았다는 것을 장성관에 보고한 문서
28	稟報 4	1903	1	도조 납부액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29	稟目 11	1903	1	서원 속촌의 부과한 例給租와 관련해 面任 吳以祚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
30	稟目 12	1903	1	서원 속촌의 부과한 例給租와 관련해 面任 吳以祚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
31	稟目 13	1903	1	서원 속촌의 부과한 例給租와 관련해 장성관에 올린 문서
32	牒呈 14	1904	1	西一面의 面任이 例給租를 거두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며 장성군에 올린 문서
33	稟目 14	1904	1	서원 속촌의 부과한 例給租와 관련해 장성관에 올린 문서
34	稟目 15	1904	1	서원 속촌의 免稅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35	等狀 5	1907	1	西一面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문서
36	等狀 6	1907	1	免稅 요청 문서
37	稟目 18	1907	1	서원의 財穀을 犯用한 사안에 대해 督捧해 달라고 장성관에 요청하는 문서
38	稟目 19	1908	1	院村民의 잡역 면제를 요청하는 문서
39	稟報 5	1909	1	필암서원 執綱 李鳳求와 朴來鉉이 도조 납부를 거부하는 본손과 양반 작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품보

● 날장고문서 61매의 문서별 분류¹⁸⁷⁾

순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내용	비고
1	下帖 1	철종 4	1853	35.1 x 141.2	糶弊와 관련한 사항으로, 傳敎 및 비변사의 관문을 담은 甘結을 토대로 장성부사가 筆巖書院 執綱에게 내린 문서	조직·운영
2	下帖 2	고종 3	1893	37.0 x 81.5	필암서원 노비의 생사와 사망 등의 변동사항을 보고하라는 뜻에서 장성부사가 필암서원 집강에게 내린 문서	조직·운영
3	牒呈 1	고종 10	1873	53.6 x 53.8	필암서원 집강이 필암서원 노비안을 수정·성책하여 보고한다는 뜻으로 올린 문서	조직·운영
4	牒呈 2	고종 16	1879	86.4 x 44.7	獻官, 諸執事를 備望한 사안에 관해 장성부에 올린 첩정	제향문서
5	牒呈 3	고종 24	1887	52.2 x 43.5	筆巖書院 院任 등이 장성관 내 金氏門中の 일부가 필암서원의 重修를 청탁하여 부담금을 배정하고 거둬들인 사안에 대해 장성관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	조직·운영
6	牒呈 4	고종 30	1893	66.6 x 39.9	茂長에서 기한이 지나도록 扶錢屢을 납부하지 않자, 장성관에 색리 金永郁을 장교로 보내 잡아들여 받아줄 것을 요청한 문서	경제 문서
7	牒呈 5	고종 33	1896	67.5 x 37.2	復結,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8	牒呈 6	고종 35	1898	88.3 x 51.2	復結,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9	牒呈 7	고종 35	1898	88.3 x 51.0	復結,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10	牒呈 8	고종 35	1898	87.2 x 53.5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11	牒呈 9	고종 36	1899	86.8 x 51.6	兪結의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12	牒呈 10	고종 37	1900	66.6 x 39.0	麥洞의 도조 납부를 거부하는 作人에게 도조를 받아내기 위해 필암서원 집강이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13	牒呈 11	고종 38	1901	61.2 x 38.5	高敝에 있는 畚의 도조를 거두기가 여의치 않자, 장성군 西三面 硯村에 있는 租 31石을 받을 수 있는 논으로 移買해달라고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14	牒呈 12	고종 39	1902	61.8 x 35.2	필암서원의 속촌이 속한 西一面의 面任이 例給租를 거두려하자 필암서원 집강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올린 문서	경제 문서
15	牒呈 13	고종 39	1902	59.3 x 39.4	西一面의 面任이 例給租를 거두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며 장성군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16	牒呈 14	고종 41	1904	60.6 x 36.8	西一面의 面任이 例給租를 거두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며 장성군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17	完文 1	순조 32	1832	30.8 x 57.0	香祀時 필암서원의 속촌인 筆巖, 中洞, 壯子의 3촌이 治道の 역을 담당하라는 문서	제향 문서
18	完文 2	고종 19	1882	31.5 x 54.5	戶奴錢의 일부를 春享의 비용으로 제공해준다는 문서	제향 문서
19	完文 3	고종 39	1902	20.0 x 36.4	院村民의 잡역을 면제하는 문서	경제 문서
20	所志 1	고종 38	1901	33.2 x 40.0	西一面 다산촌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소지	경제 문서
21	單子 1	고종 34	1906	69.5 x 38.5	筆巖書院 掌議 宋龜淳이 체직을 요청하며 원장에게 올린 문서	조직·운영
22	單子 2	고종 34	1906	64.4 x 37.6	筆巖書院 掌議 宋龜淳이 체직과 관련하여 성주에게 올린 문서	조직·운영
23	等狀 1	고종 37	1900	73.4 x 46.4	客舍를 重修할 때에 속촌에 잡역을 면제해 달라고 올린 문서	경제 문서
24	等狀 2	고종 38	1901	30.4 x 35.8	西一面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소지	경제 문서
25	等狀 3	고종 39	1902	30.3 x 35.1	西一面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문서	경제 문서

187) 원문은 전남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조사보고』 제2책, 1984, 51~147쪽 탈초본 참조; 재산문서 4건을 제외한 날장 고문서는 61매이다.

순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내용	비고
26	等狀 4	고종 39	1902	66.0 x 39.8	西一面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문서	경제 문서
27	等狀 5	고종 44	1907	62.6 x 37.2	西一面에 거주하는 民人들이 水災로 失農한 토지에 대해 결세를 부과하려하자 免稅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문서	경제 문서
28	等狀 6	고종 44	1907	35.6 x 28.1	免稅 요청 문서	경제 문서
29	上書 1	고종 16	1879	92.2 x 52.9	淸節堂, 廓然樓, 敬藏閣 등 서원을 修補하면서 본도 열읍에 부조를 요청해달라고 장성관에 올린 문서	조직·운영
30	稟報 1	고종 37	1900	67.4 x 38.8	도조 납부액과 관련하여 필암서원 집강이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31	稟報 2	고종 37	1900	47.8 x 39.0	고창 黃山에 있는 송읍에 대한 교체를 요청한다는 뜻으로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32	稟報 3	고종 37	1900	87.5 x 52.0	本孫 金鴻洙가 필암서원 안산에 부친의 묘를 偷葬한 사건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묘의 掘去를 요청하는 문서	조직 운영
33	稟報 4	고종 40	1903	44.0 x 35.2	도조 납부액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34	稟報 5	순종 2	1909	61.7 x 36.0	필암서원 執綱 李鳳求와 朴來鉉이 도조 납부를 거부하는 본손과 양반 작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품보	경제 문서
35	稟狀 1	고종 41	1904	52.2 x 43.5	제향시 祭官 차출에 관한 내용	
36	稟告 1	고종 37	1900	87.3 x 51.5	관찰사에게 院貳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조직 운영
37	稟告 2	고종 37	1900	88.0 x 51.8	관찰사에게 院貳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조직 운영
38	稟告 3	고종 39	1902	88.2 x 54.8	관찰사에게 興學長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조직 운영
39	稟告 4	고종 41	1904	82.3 x 51.1	관찰사에게 院貳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조직 운영
40	稟告 5	순종 2	1908	90.4 x 50.1	장성부사에게 摺紳掌議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조직 운영
41	稟目 1	고종 16	1879	76.0 x 50.0	필암서원 제향시 불참한 제관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	조직 운영
42	稟目 2	고종 37	1900	47.3 x 39.9	관의 협조로 麥洞의 도조를 거부하던 작인으로부터 도조를 받은 사실과 미납한 부분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	경제 문서
43	稟目 3	고종 38	1901	65.2 x 39.0	고창 고사면 황산촌에 있는 도조를 수납하는 일로 필암서원 집강이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44	稟目 4	고종 38	1901	70.4 x 41.5	필암서원 摺紳掌議의 선출에 있어서 本孫과의 이견에 관해 보고하는 문서	조직 운영
45	稟目 5	고종 39	1902	64.6 x 37.0	院村 村民의 잡역 면제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	경제 문서
46	稟目 6	고종 39	1902	64.2 x 34.3	院村 村民의 잡역 면제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	경제 문서
47	稟目 7	고종 39	1902	70.4 x 36.3	필암서원 有司 임명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보고하는 문서	조직 운영
48	稟目 8	고종 39	1902	65.8 x 31.2	필암서원 直月 임명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보고하는 문서	조직 운영
49	稟目 9	고종 39	1902	70.4 x 37.0	서원 속촌에 대한 面任의 例給租를 혁파한다는 관찰사의 완문을 받았다는 것을 장성관에 보고한 문서	경제 문서
50	稟目 10	고종 40	1903	88.8 x 50.5	享祀 후 院任을 公議에 따라 고쳐서 付標한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	조직 운영
51	稟目 11	고종 40	1903	28.2 x 78.0	서원 속촌의 부과한 例給租와 관련해 面任 吳以祚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	경제 문서
52	稟目 12	고종 40	1903	28.2 x 62.2	서원 속촌의 부과한 例給租와 관련해 面任 吳以祚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	경제 문서
53	稟目 13	고종 40	1903	88.4 x 50.9	서원 속촌의 부과한 例給租와 관련해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54	稟目 14	고종 41	1904	64.2 x 34.2	서원 속촌의 부과한 例給租와 관련해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55	稟目 15	고종 41	1904	75.3 x 43.1	서원 속촌의 免稅와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경제 문서
56	稟目 16	고종 42	1905	84.0 x 54.2	필암서원 掌議, 色掌의 임명과 관련하여 원장에게 올린 문서	조직·운영

순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내용	비고
57	稟目 17	고종 43	1906	50.1 x 51.3	필암서원 掌議, 色掌의 임명과 관련하여 장성관에 올린 문서	조직·운영
58	稟目 18	고종 44	1907	57.6 x 36.7	서원의 財穀을 犯用한 사안에 대해 督捧해 달라고 장성관에 요청하는 문서	경제 문서
59	稟目 19	순종 1	1908	88.8 x 49.2	院村民의 잡역 면제를 요청하는 문서	경제 문서
60	稟目 20	순종 1	1908	61.0 x 47.3	독단으로 掌議, 色掌을 付標한 사안에 대해 장성관에 보고하는 문서	조직·운영
61	簡札		1910	24.0 x 95.2	士論에 따르지 않고 李鳳求를 掌議에 付標한 사안을 전하는 편지	조직·운영

지식의 자유를 향한 여정,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 道東書院

김정운(경북대학교)

목차

- I. 도동서원의 기록물
 - 1. 소장 자료의 조사현황
 - 2. 소장 자료
- II. 도동서원이 담은 지식
 - 1. 도서
 - 2. 책판
- III.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도동서원
 - 1. 도서 대출
 - 2. 藏書 경위

I. 도동서원의 기록물

서원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교육·교화 및 공론형성의 중심지이자, 출판과 도서관 역할을 수행한 문화 공간이다. 지금까지 서원 관련 자료의 정리와 연구는 건축, 제향인물, 제향의례, 서원 소장 기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조선시대 서원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고려할 때 서원에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조사·수집·정리하여야 한다. 선행 자료 조사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서원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자료 정리의 방향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1. 소장 자료의 조사현황

도동서원은 동방오현의 首賢으로 문묘에 배향된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향사하는 대표 서원이다. 현재 소수·남계·옥산·도산·병산·돈암·무성·필암서원 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도동서원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는 196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정부기관 및 대학연구소, 지자체, 연구자 등에 의해 여러차례 이루어졌다. 자료조사에서는 서원 소장 자료와 건축, 제향 의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도동서원의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도동서원 소장자료 조사 현황

현전 자료의 수량	정리현황
1. 전적 : 경현록景賢錄 외 7종 23책. 2. 성책 고문서 : 도동서원중창사적 외 105종 215건.	1. 『이조서원문고목록』(이춘희 편, 1969), 2. 『도동서원지』(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7)

3. 책판 : 경현록 외 8종 71판. 4. 기타 : 제기 30점, 현판·기문 17점.	3.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달성군, 2005) 고서, 책판, 기타유물 4. 『경북지역의 목판현황』(한국국학진흥원, 2006)
---	--

도동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69년 국회도서관에서 시행하였다. 당시에는 고종시대에 훼손되지 않은 원사 47개소 가운데 당시에 존속하고 있던 3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현지를 답사하여 장서(藏書)를 확인한 곳이 17개소이고 서신(書信)을 통해 확인한 곳이 4개소였다. 도동서원은 서신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당시 총 95종 529책의 장서가 있었다.¹⁸⁸⁾ 이때의 조사는 고문서, 책판 등은 제외하였다.

1997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도동서원 소장 고문서 105종 215건을 전수 조사하여 『道東書院誌』를 발간하였다. 조사한 모든 자료를 수록하지 못하고 선별하여 37종 42건을 수록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도동서원의 창건사실 및 사회·경제적 기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20세기 이래로 생성된 서원자료와 전적·책판 등의 기타 자료는 수록하지 않았다.¹⁸⁹⁾

2005년에는 달성군에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조사는 도동서원에 소장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수량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책판, 제기, 현판·기문 등과 고문서, 전적을 포괄하는 종합적 조사였다.¹⁹⁰⁾ 2006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도동서원 소장 목판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8종 71매의 목판에 대한 결판 여부 및 도동서원의 출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¹⁹¹⁾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도동서원 향사(享祀)를 밀착 조사하여 서원향사의 절차에 대한 체계적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⁹²⁾ 제향 의례라는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서원문화의 원형을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 서원 문화의 전승을 조사·정리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¹⁹³⁾

2. 소장 자료

도동서원 소장 자료는 고문서와 전적, 책판 및 현판·기문 등이 있다. 고문서류는 105종 215건이 있다. 서원의 창건 사실과 조직 및 운영, 경제적 기반, 향촌사회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별한 자료는 도동서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송담서원(松潭書院) 관련 자료 7종 16건과 『鄉案』 2책, 1786년 등서한 「향안설립초정규등초」 1건이다. 도동서원과 송담서원 그리고 향교와 관계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전적과 책판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과 출판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전적은 총 7종 23책이고, 책판은 8종 71장이다. 전적은 1969년 당시 95종 529책이 확인되었으며, 책

188)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 -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의 해제 참조.

18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道東書院誌』, 영남대 출판부, 1997의 해제 및 일러두기 참조.

190)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도동·인흥서원->, 2005.

191)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2)』, 2006.

192)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193) 현재에는 도동서원뿐만 아니라 여타 서원 자료들을 활용하여 잊혀진 문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달성문화재단에서는 2013년 9월 7일 <도동서원 사액봉행 행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도동서원 자료 및 여타 서원자료를 종합하여 『도동서원 사액봉행 학술연구』라는 보고서를 2013년 7월에 발간하였다.

판도 완본과 비교하여 결락된 판목이 100장에 이른다. 그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서원 부속 건물에 있는 현판과 기문은 총 17점이다. 이중 서원 운영 및 중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傳教」, 「書道東書院額板下」, 「書院規目」, 水月樓 관련 기문 4점이 있다.

고문서 자료들을 서원창건(중건)자료, 인적구성 및 운영 자료, 재정 자료, 교육 및 출판 자료, 지역 자료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자료의 특징을 본다.

① 건립 창건(중건) 및 중수 자료

서원 중건을 전후한 상황은 상서·소지·통문 등을 모은 『道東重勦事蹟』(1책)에서 볼 수 있다¹⁹⁴⁾ 『도동중창사적』은 1604년의 서원 중건 당시부터 1720년까지 서원 유생들이 감사·지방관·각처 교원 등에 보낸 상서·소지·통문과 봉안시 제문, 초대 원장 薦案 등을 모은 것이다. 서원 중건 초기의 문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자 이를 수합하여 戊戌年(1738년으로 추정)에 정서한 것이다.

수록된 내용은 한강 정구가 작성한 1610년 한훤당 김굉필의 위패를 봉안할 당시의 치제문, 1604년 3월 郭昶을 한훤당 서원의 원장으로 천거하는 薦首 정구 외 4인의 연명 천안이 있다. 이후 1604년(선조 37)부터 1620년(광해군 12)까지 약 17년간 초대 원장을 역임한 광근의 單字가 있다. 단자는 원임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가 그 사유를 적어서 보내온 것인데,¹⁹⁵⁾ 광근은 1606년, 1608년, 1609년에 단자를 보내어 원장의 중임을 맡기 어려우니 다른 자를 찾아보길 청하였다. 1646년에는 郭衛國이 원장의 重任을 맡기 어렵다는 내용의 단자를 보내왔다. 광위국은 1630년(인조 8)에 부임하여 이후 6년간 원장을 역임하였는데, 처음 부임하기 전년도인 1629년(인조 7) 3월에 원장으로 천망되어 이를 정중히 거절하는 단자를 보내왔었다. 이처럼 원장의 천망과 같이 인사와 관련된 것 외에도 『도동중창사적』에는 서원 중건 당시의 실정을 알려주는 통문과 이후 서원의 재정 운영 및 한훤당 묘소 수리와 관련한 상서, 묘우 중건과 관련한 통문 등이 謄書되어 있다.

도동서원은 중건(1604년, 선조 37)되던 7월 광근, 裴禧, 郭三吉, 金大振 등이 도동서원 전신인 쌍계서원의 사례를 들어 관찰사 겸 순찰사에게 중건에 필요한 물력을 협조해 달라는 請助呈書를 올렸다. 이에 관찰사는 題音에서 본현과 고령 등에서 匠人과 糧米, 鐵物, 목재, 소금 등을 조력하고, 이의 운송에 배를 내주어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1607년(선조 40) 10월의 통문은 안동대도호부사 정구, 대구도호부사 鄭經世, 합천군수 呂大老가 함께 도동서원 중건에 필요한 물력을 순찰사의 당부처럼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길 열읍 수령들에게 요청하는 글이다.

도동서원은 중건이후 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속 및 원위전에 대한 면역과 면세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1606년(선조 39) 원생 광근 등은 관찰사에게 서원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錢穀有司의 군역을 면제해주길 요청하는 상서를 올려 면역 받는 한편, 1622년(광해군 14)에도 유생 광근 등이 관찰사에게 원속의 군역을 면제하여 逃散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상서를 올렸다. 하지만, 원속에 대한 면역권은 해당 고을의 지방관의 권한이었기에 도동서원측은 수령이 바뀔 때 마다 상서를 통해 면역을 요구한 것으로 보

194)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서원 중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정구의 『寒岡集』이 참고가 된다. 여기에는 서원 중건 후 재사액과 관련한 당시 감사와의 문답 서신, 봉안제문, 도동서원 내 한강수서원문, 도동서원 원규 등 중건초의 사실이 많이 남아있다.

195) 도동서원 『원규』 「존원장」조에는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글로 갖추어 원중에 고한다’고 하였다. 광근 역시 이에 따라 單字를 갖춰 원장직의 중임을 거부한 것이다.

인다. 1640년(인조 18) 원생 前參奉 郭以昌 등의 상서에는 祠直, 齋直, 庫直, 書員, 使喚 등의 원속 10여 인들 중 6-7인이 城軍으로 차출되어 서원의 유지가 어려워지니 이들의 차출을 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644년(인조 22)에는 생원 郭弘裁 등이 고령현감에게 도동서원 건립 초에 고령의 원위전 5결을 復戶토록 영구히 정한 것을 지켜 이에 대한 免稅와 서원 소속 紙匠의 免役을 요청하는 상서를 올렸다.

도동서원은 서원 중건이후 서원수호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관에게 면역과 면세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한편, 도동서원 중건에 큰 역할을 한 한강 정구와 현풍지역 유현의 도동서원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1664년(현종 5) 裴繼緒 등은 예조에 한강 정구의 종향을 요청하는 상서를 올렸지만 전례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후 1677년(숙종 3)에 郭壽厦 등이 정구와 배신, 朴愷의 배향을 청하였다. 그리고 1678년(숙종 4) 3월 26일에 정구를 봉안하였다.¹⁹⁶⁾ 현풍 유학 金處中 등은 1678년(숙종 4) 洛川 裴紳의 도동서원 종향이 무산된 후 그의 학덕을 기려 별도의 사우를 짓기로 하고, 사우 건립에 필요한 물력을 순찰사가 도와주길 요청하는 상서를 올렸다.¹⁹⁷⁾

도동서원 중건 초기 정구는 한훤당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山直 10인을 획급 받았으며, 춘추로 墓祀를 설행하도록 정하였다. 그 결과 도동서원은 중건이후 원내의 건물뿐만 아니라 묘소도 관리를 해왔다. 1647년(인조 25) 현풍 유생 郭壽星 등이 예조에 보낸 상서를 보면, 한훤당의 묘소가 조성된 후 경향이 없어 柱石·床石·抄臺石·階熱石 등의 儀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오랜 세월 풍우로 封築이 붕괴되고, 주석이 부서져서 사람이 이를 증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래서 1643년(인조 21) 봄에 무덤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伐石하고, 인근 고을의 軍丁을 동원하여 돌을 옮기기 위해 수령과 관찰사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정의 禁畵이 있어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예조에서 돌을 운반하지 못한다는 금령은 매우 의아한 일이라며, 제음을 수령과 관찰사에게 보여 사람의 뜻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이 일은 그 후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였다. 1709년(숙종 35) 10월 郭斗壽 등이 순찰사에 올린 상서에는 농사철과 饑饉, 관찰사의 체임, 재력의 부족 등으로 재가를 받지 못하여 40여 개에 이르는 벌석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예조의 제사에 나오는 것처럼 부근의 龍淵·湧泉·瑜伽·渚災·龍興寺의 승도와 본현의 군정을 정도에 맞게 내어주고, 또한 錢이나 布 혹은 穀粟 등으로 부족한 재력을 해결해 주길 요청하였다. 그러나 순찰사는 흉년으로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1720년(숙종 46) 도동서원 유생 嚴大厦 등 통문에는 묘우가 건립된 지 오래되어 풍우에 주춧돌이 상하고, 용마루가 기울어 당기는 형세가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5월 상정에 위패를 강당에 봉안하고, 묘우를 증수한 후에 환안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어 증수를 급히 서둘러야 하고, 수리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통문은 고령·합천·거창·안음·함양·산음·삼가·초계·의령·단성·진주·하동·곤양·사천·고성·진해·함안·칠원·창원·김해·웅천 등 경상우도의 校院에 발송하였다.

이렇게 『도동중창사적』은 도동서원의 前身인 雙溪書院의 창건과 임란이후의 중건 때에도

196) 『숙종실록』 권6, 3년 11월 6일(기묘). ; 『奉安時執事分定記』 「玄風生員 郭壽厦 等 上書」, 여기에는 약 70여 명의 유생이 참여하였다.

197) 현풍 사림은 1695년(숙종 21)에 도동서원 옆에 別祠를 건립하여 郭承華, 곽을(郭走+日)과 함께 배신을 병향 하였다가, 1706년(숙종 32)에 元槩를 추향하였다.(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도동서원지』, 1997, p.8) 박성은 1642년(인조 20)에 여현 장현광이 중심이 되어 현풍현 쌍계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였지만, 봉안하기 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1693년(숙종 19)에 박성의 묘소 근처에 송담서원을 건립하여 봉안하였다.(『경남일보』, 1997. 9. 5)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공론으로 김굉필의 내·외손과 고을 사족의 협력으로 건립되고, 그 과정에서 감사를 비롯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서원 중건, 重修에 필요한 물력의 보조와 典僕·山直 등 서원 운영에 필요한 원속의 획급 및 勿侵, 원위전의 免稅를 요청한 과정과 결과가 상세히 남아있어서 도동서원의 중건 초기의 역사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② 인적구성 및 운영 자료

도동서원의 운영을 책임지던 院長·有司의 명단인 『院任案』(1책)과 院生의 명단인 『入院錄』(2책)이 있다. 이 두 책은 도동서원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보관해서 별도의 궤에 두었다.¹⁹⁸⁾

『원임안』은 1604년 중건 이래 1965년까지의 원장·유사의 명단이 수록하였는데 1690년에 만들었다. 원장이 서원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서원을 대표하는 책임자라면, 원중 대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담당자는 유사였다. 원장의 임기는 院規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1·2년이고, 重任·再任할 수 있었다. 도동서원 원장은 중건 초기에는 몇몇 사람이 중임과 재임을 반복하면서 서원 운영을 주도하였다. 초대 원장 곽근은 1604년부터 1620년까지 약 17년간 재임하였다.¹⁹⁹⁾ 원장은 본읍 수령과 타향 출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를 역임한 자들이었다.

원장의 신분은 현직 관료는 많지 않고 生員·進士·參奉·幼學 및 전직 하급관료 출신으로 향내에 명망있는 인사가 선출되었는데, 유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1621년부터 1623년까지 원장을 지낸 郭崦은 승문원 박사를 지냈으며, 의금부도사를 지낸 東湖 이서(李竹+舒)는 1623년부터 1625년까지 역임하였다. 이들 외에도 1636년에는 고령현감 竹圃 李見龍, 1637년에는 典籍을 역임한 金致信, 1650년 지평을 지낸 郭弘址, 1658년 부사 金善英, 1663년 참봉 金元龜, 1677년 참봉 李元祉, 1688년과 1705년에 좌랑을 지낸 禮圃 郭壽龜 등이 있다.

원장은 18세기 초반까지는 대체로 현풍곽씨와 서흥김씨 및 기타 사족의 연합에 의해 운영되다가 18세기 중반부터 본읍 수령이 원장에 임명되고 있었다. 수령이 처음 원장을 역임한 것은 1695년 현풍현감 具文游의 사례가 있었지만, 18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오면 본읍 수령은 대부분이 원장을 역임하여 이 시기까지 총 36번이나 나타난다. 이러한 원장 겸임은 서원 측의 圈請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장의 지역적 범위도 18세기 초반까지는 현풍을 중심으로 성주(이서)·칠곡(이원지)·고령(이현룡)·창녕(운동로) 등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정종로(상주), 류태좌·류치명(안동)·이언순(예안), 이진상·이종상(경주), 최흥원·허전(대구), 장인원(인동) 등의 유력 인사들이 임명되는 등 경상좌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시기 원장 선출도 ‘圈出’이 아닌 ‘道儒圈出’, ‘圈請’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임하지 않는 경우도 12번이 있다.²⁰⁰⁾

유사는 원장과 院中이 상의하여 선발하고, 斯文統檢 및 유생공궤, 원곡분급, 문서검열, 세입

198) 『雜物傳掌記』(1693-1752), 도동서원 원규 ‘준원장’조에는 원장록을 비치하여 그 임기를 기록하고, 다음에 맡는 사람이 열람하기 쉽게 하고 또 欽戒토록 한다. 유사 또한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한강속집』 권4, 잡저, 「원규조」) 이에 의거하여 도동서원은 원임안을 작성하여 별도의 궤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99) 1630년부터 6년간 원장을 역임한 洛叟 郭衡國은 1646년과 1653년에 重任되었다. 또한 찰방을 역임한 郭灝은 1637년 원장에 未察任하였다가, 1652년과 1654년에 重任되었다. 郭弘裁는 1656년, 1659년, 1661년에 중임하였다.

200) 1990년대부터 원장을 초빙하기 어려워져서, 현재는 초헌관이 원장을 겸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264쪽).

세출 등의 문제를 담당하였다. 도동서원은 보통 2명의 유사가 임명되었는데, 18세기 말부터 4-8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원장의 거주지가 서울, 안동, 상주 등지와 같이 멀리 있을수록 유사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적 문제를 담당하는 典穀有司를 두었는데 이는 주로 良人院生이 담당하였다. 도동서원은 1794년부터 1811년까지 일시적으로 上有司가 나타나는데 원장으로 임명된 수령을 대신하여 서원 내부의 여러 일을 주관하였다.²⁰¹⁾

『입원록』(2책)은 도동서원 원생들의 명단으로 1610년부터 1906년까지의 1책과 1910년부터 1966년까지 1책 등 모두 2책이 있다. 입원록에 수록된 성씨는 모두 24성으로 宋·辛·柳·閔·韓·洪氏 등은 1778년 이후 나타나고 있다. 입록된 원생은 총 1,124명이며, 이중 현풍곽씨가 563명, 瑞興金氏가 305명, 朴氏 72명, 嚴氏 47명, 成씨 35명, 李氏 30명, 裴氏 19명, 羅氏 12명, 鄭·蔡씨 각 7명, 柳氏 5명, 崔氏 4명, 吳·尹·趙·張·辛·洪氏 각 2명, 宋·河·許·盧·閔·韓氏 각 1명씩이다. 여기에는 입원생의 성명과 薦主만 기재되어 있어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성씨를 통해 볼 때 대부분 현풍 향내인사들이었다.

원규에는 이들 원생을 선발할 때, 20세 이상의 儒生들 중 춘추향사에 薦主의 천거로 入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입록 시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사정에 따라 한 해에 2번 입록 하거나, 10년 이상 입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부정기적으로 입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사뿐만 아니라 墓祭시에도 입록이 이루어졌다. 천거는 1명의 천주가 1명을 천거하거나 3-5명의 천주가 公薦하기도 했다. 또한 1명의 천주가 여러 명의 유생을 천거하거나, 당중의 논의로 일괄 천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로 가면서 取士制는 거치지 않고 공의에 의해 직서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며, 20세 미만이라도 入格薦과 같이 이미 司馬에 입격하거나 才行이 뛰어난 자는 허락하였다. 천주는 원규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사원 및 원임·현관을 역임한 院儒들로 구성되는데 당중에서 薦望하였다.

원장·유사 이외에 도동서원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執事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도동서원에는 『奉安時諸執事分定記』(1610~1803)와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1695~1810)가 있다. 『봉안시제집사분정기』는 1610년 한훤당 김굉필 위판 봉안시에 초헌 都事 裴大維, 아헌 宜寧縣監 李涵, 종헌 玄風縣監 權養, 掌議 곽근, 祝 校書正字 孫遜 등의 제관과 11명의 집사 및 현풍과 26개 고을에서 약 70여 명의 유생이 제사에 참여하였다.²⁰²⁾ 1678년 한강 정구를 봉안할 때는 초헌 幼學 金處中, 아헌 유학 郭希天, 종헌 유학 郭鉞, 장의 生員 郭壽夏, 축 進士 朴世杰·생원 郭壽星 등의 제관과 27명의 집사 및 현풍, 영산, 자인, 창녕, 의성, 칠원 등지에서 49명의 유생이 제사에 참여하였다.²⁰³⁾ 『별사봉안시제집사분정기』에는 1695년 郭承華·배신·곽을(郭走+日)을 별사에 봉안할 때 참여한 초헌관 유학 郭宗之 이하 33명의 제관·집사와 현풍을 비롯한 성주, 인동, 칠곡, 영산, 고령, 함양, 창녕, 칠원 등에서 59

201) 퇴계가 작성한 「이산원규」에서 원장에 대한 규정없이 상유사, 하유사만을 둔다고 규정한 후 원장없이 유사만 규정하는 원규가 여러 서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병산서원 원규」에서와 같이 상유사는 서원안의 여러 일을 주관하고, 하유사는 米布의 출납, 공궐, 타작 등의 일을 주관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원장에게 아뢰고 시행한다고 했다. 결국, 서원의 원임 구성은 점차 서원의 활동이 다양해지자 유사가 분화하여 원장-상유사(별유사·재유사)-하유사(유사, 庫有司)의 삼층 구성이 일반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188-190쪽)

202) 창녕, 영산, 영천, 하양, 경주, 고령, 성주, 선산, 예천, 청도, 대구, 청송, 초계, 의령, 개령, 함창, 칠원, 삼가, 인동, 거창, 고성, 합천, 영해, 김해, 상주, 안동

203) 이외에도 1618년 立碑시 題名錄, 1677년 한강의 도동서원 종향을 청원하는 郭壽夏 이하 70여 명의 명단과 예조의 啓目, 봉안시 祭文, 1698년 祠宇 중건, 1720년 묘우 개수, 1721년 별사 중수, 1743년 묘우 중수시의 移·還安祭때 작성된 告由文, 집사분정기, 祝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명의 유생이 제사에 참여하였다. 1706년에 원개를 봉안할 때는 초헌관 유학 郭壽漢 이하 29명의 제관·집사와 70명의 현풍지역 유생들이 제사에 참여하였다.²⁰⁴⁾

이외에도 서원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參祭錄』(8책), 『謁祠錄』(24책), 『焚香錄』(1책), 『敦事錄』(2책) 등이 있다. 이들 자료에 등재된 인사들은 대부분 지역 사람들이었고, 성주·창녕·고령·대구·칠곡·합천·인동 등 인근 고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참제록』은 원생들이 춘·추 향사와 墓祭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기록한 것으로 봉안식이 있었던 이듬해 1611년부터 1862년까지 모두 8책이 남아있다. 도동서원 원규 「勤享祀」조에는 “...본원의 향사에...만일 불참자가 있을 때는 문서에 그 성명을 쓰되 有故와 無故의 사정을 아울러 기록하여 나중에 모였을 때 면전에서 책망한다. 일곱 번까지 불참한 자는 명단에서 축출하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한 자는 다섯 번째에 축출한다. 만일 병이 들어 그 사실을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자이거나 혹은 먼 지방에 나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자의 경우는 모두 이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유사가 매 제사 때마다 참석한 자들을 점검하여 참석 여부와 불참시 그 연유를 기록하였다. 불참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 ‘無緣’, 사유가 분명한 자들은 單刺, 疾病, 遠出, 遠行, 出他, 有故 등으로 표기하였다. 특이한 것은 1625년(인조 3)에 ‘狀’, ‘京’이라 표기한 것으로서 당시 한강의 諡號를 상소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보인다. 1636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입원생 전원을 기재한 후 참석여부를 각 인명 아래에 표기하다가, 이후부터 참석자와 불참 이유가 명확한 자들만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참제록』과 비슷한 용도로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작성한 『焚香錄』(1책)이 있다.

『알사록』은 1692년부터 1870년까지 모두 24책이 있는데, 매월 朔望禮뿐만 아니라 춘·추 향사와 묘제에 참석코자 內院한 유림들이 묘우에 참배한 기록이다. 謁廟와 참석자의 기록은 2명의 유사가 분담하였으며, 매월 실시되었던 삭망례의 경우 유사의 有故, 出他, 私祀, 疾病 및 雨天 등의 사유로 알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기재된 인물들은 대체로 원생들로서 새로이 院錄에 입록한 자들은 ‘新進’, ‘新院錄’이라고 부쳐하였다. 이들 외에도 부정기적으로 院會 등에 참석하기 위해 入院하거나, 지방관 및 타읍의 유력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묘우에 참배한 후 알사록을 작성하였다. 이 중 지방관 및 타읍 인사들은 『심원록』에도 기록하였다.

『돈사록』은 서원 건물의 중수·중건·수축·수리 등의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감독·격려하였던 인물들을 기록한 것으로 1720년부터 1730년까지 작성된 것과 1791년부터 1848년까지 작성한 것 등 총 2책이 있다. 이 자료는 1720년 이래로 도동서원에서 시행되었던 각 종 工役들의 종류와 都監, 작업과정, 작업일, 매일 동원되는 군정의 수와 동원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동서원의 중수·수리 내역 및 작업일과 동원된 전체 인력의 수를 통해서 공사의 규모도 짐작할 수 있다. 『돈사록』에서 확인되는 각종 수리·수축·중건 내역을 보면 1720년 묘우 중수, 1730년 서재 중수, 1785년 담장 수리, 1791년 묘우·강당·神門 수리·층계개축·대문改瓦·대문박 계단개축·강당窓戶改造·도배, 1796년 담장수리, 1797년 강당수리, 1800년 神廚始役, 1808년 主一門중수, 1810년 杏壇創築, 1811년 강당중수, 1812년 담장수리·祠門개조·祠宇始役, 1829년 담장수리, 1831년 9월-1832년 3월 강당중수, 1842년 立碑, 1845년 묘문·협문·庫舍수리, 1848년 묘도비 移豎 등이다.

204) 이외에 1676년 10월 10일의 傳敎와 1721년 別祠 改修, 1743 묘우 重修, 을묘년 별사 移建時에 작성된 이·환안 집사분정기, 고유문이 있으며, 말미에 정종로가 지은 「享祀時 別祠用祝告由文」이 있다. 또한 원묘와 별사에 봉안할 때와 각 종 중수·수리로 인해 위패를 이·환안할 때 작성된 고유문, 축문 및 墓祭시의 축문 등을 1책으로 엮은 『祭文』(1605-1720)이 있어 참고가 된다.

도동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곽 사람세력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로 『尋院錄』 22책이 있다. 이 책은 도동서원을 내방한 인사가 자필 서명한 일종의 방명록으로 비록 5-6책의 결본이 있으나, 1606년부터 1988년까지 기재되어 있다. 『심원록』은 『원임록』과 함께 각 서원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책으로 그 등재여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등재된 인사는 당시 서원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도동서원의 인적교류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기재순서는 직위(본관), 성명, 字·號, 거주지, 방문일 순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率奴·率馬가 기재되어 있어 주목된다. 17세기 이후에는 거주지가 기재되지 않고 본관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동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부 사람세력을 파악하는데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하다. 확인되는 방문인들의 거주지를 보면 대체로 현풍·성주·고령·창녕·칠곡·합천·대구 등의 경상도 중앙부의 성주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도동서원의 중건에 정구의 역할이 컸고 또한 종향되었다는 점에서 성주를 중심으로 한 한강문인들의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16년부터 『심원록』의 기재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 즉, 本縣人의 경우 1692년부터 작성되어 온 『알사록』이 있으므로, 1716년부터는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초반이후부터 모두 타지역 인사들만이 기록되고 있다. 방문인들을 보면 정구 이후로 張顯光·李潤雨·許穆·柳永詢(巡察使)·李好閑을 비롯해 羅世謙·郭再謙·郭澍·郭再鳴(현풍), 朴廷璠·朴廷琬(고령), 裴尙龍·李舒·李天封, 李彦英(성주), 文景虎·曹挺生(합천), 徐思遠·孫處訥(대구), 成安義·成安仁(창녕), 李大期(초계), 李宜活·李宜潛(경주), 金光繼·金光岳·琴愷·李有道(예안), 成汝信(진주), 鄭四勿·鄭四象(영천), 裴大維(영산), 趙翊(상주) 등 당시 한강문인을 비롯한 경상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방문하였다. 이외에도 현풍현감을 비롯한 인근의 지방관들도 관심도에 따라 서원을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도동서원의 사회적 활동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부 통문을 1책으로 엮은 『各處通文騰草』가 있다. 여기에 수록된 통문은 각종 시비(是非)·문집 간행·원사 복설 등의 사안과 직접 관련된 서원·향교·문중·개인·유계(儒契) 등에서 보내온 것으로 19세기 중반 이후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별로는 안동·경주·대구·밀양·초계·합천·성주·고령·상주·예안·청도·경산 등과 같이 주로 영남 중남부권을 아우르고 있다. 이는 도동서원이 이 일대에서 가지는 위상을 짐작케 한다. 이외에 대전 향회에서 보내온 것도 있다. 경주의 玉山書院, 양동 유림 및 안동의 屏山書院·하회, 虎溪書院, 예안 陶山書院 등에서는 孫李·屏虎是非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상주 愚山書院과 청도 紫溪書院, 밀양 儒會에서는 『愚伏集』, 『濯纓集』, 『佔畢齋集』重刊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외에는 대원군 당시 휩쓸린 원사를 復設하면서 위패를 다시 봉안하는데 동참해 주길 요청하는 내용들이다.

③ 재정 자료

서원의 재정 관련 자료는 『土地案』, 『奴婢案』, 『院屬案』 등이 있다. 도동서원은 중건 초기부터 1702년까지의 『노비안』(1책)이 있다. 16세기말부터 1702년까지 모두 710구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기재방식은 각 노비의 부모의 신분과 성명, 所生 순서, 이름, 나이 순서이며, 혼인했을 경우 夫妻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도망·사망한 자는 확인되는 경우 연도를 함께 기록하였다. 이외에 드물지만 保·軍과 같이 군역 여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16세기 말로 추정되는 「本奴婢秩」에는 노비의 구분없이 도망 8, 사망 11, 나이 미상 7 등 모두 26구가 확인된다. 도망과 故가 많은 것은 이 노비안이 제작성될 때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66년까지 대체로 20~40구 정도였다가 1681년에 110구로 증가하고, 1702년에는 다시

227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²⁰⁵⁾ 이는 生産에 의한 자연증가의 결과이지만, 1681년 이후 노비안에 원노비를 상세히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632년에 노2, 비1, 1647년에 비 2구가 향교에서 서원으로 이속되었으며, 이후 1693년에 노 8, 비 6구가 다시 향교로 환송되었다. 이외에도 1681년 이후의 노비안에 타관노비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도망노비 중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였다. 이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성주·고령·창녕·의령·선산 등의 지역으로 나타난다.

도동서원의 院屬 관련 자료는 『院生案』(7책), 『募入案』(3책), 『資費案』(2책), 『儒生案』(1책)이 있다.²⁰⁶⁾ 대체로 18세기 중반 내지 19세기의 것으로 보이며, 모두 관의 手決이 있는 것으로 보아 私募案은 아니고 관에서 인정한 안이었다. 『원생안』(7책)에 나타난 원생수는 18~35명, 『모입안』(3책)에는 각 15명과 碑閣直 2명, 『자비안』(2책)에는 10명과 비각직 2명이 등재되어 45~62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관에서 인정한 수이기에 사망·도망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充定하였다. 이들 모입자는 대부분 牟老·山田·津村·烏舌·瑜伽·縣下 등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양인들이다. 이들은 서원내 각종 수직을 담당했지만 대부분이 피역의 대가로 일정량의 禮錢을 납부하였다. 『유생안』은 19세기 이후의 것으로 『원생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²⁰⁷⁾

이외에 『月次鐵物錄』(1책)은 1616년부터 1675년까지 도동서원 소속 산직의 서원에 대한 철물 납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산직이 매달 서원측에 捧上한 낫·도끼의 철물 수량과 그것을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였다. 도동서원은 중건 당시 조정으로부터 封塋을 수호할 산직 10명을 받았는데, 이들은 피역을 대가로 서원 측에 노비신공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하였다. 산직 10명 중 1명은 都山直이고, 9명 중 兒弱 1명을 제외하고 8명이 매월 鎌과 斧를 봉상하였다. 이외에도 건물수리·중창 등이 있을 시에는 필요한 鐵釘을 봉상하기도 했다. 낫은 매명이 1월에 1柄씩, 도끼는 6월에만 3명에 1자루씩 봉상하고, 단 5월과 9월의 方農시에는 停捧하도록 규정하였다. 도끼의 경우 현물 대신 錢으로 봉상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들 산직의 봉상이 노비신공에 상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들 산직이 매년 서원 측에 봉상한 내용은 규정과는 조금씩 달랐다. 兒弱이 봉상하

205) ‘본노비질’ 이후에 수록된 노비수는 시기별로 1628년 12구[노3(사망2·미상1), 비9(사망6·미상3)], 1632년 18구[노11(도망3·사망1·미상7), 비7(사망1·미상6)], 1647년 8구[노3(도망2·미상1), 비5(미상5)], 1634년 21구[노11(壯3·사망4·미상4), 비10(老2·사망3·미상5)], 1638년 33구[노13(壯4·弱1·미상8), 비18(老1·壯7·弱9·사망1)], 1647년 24구[노13(壯3·弱6·도망1·미상3), 비8(壯3·弱2·미상3)], 1652년 39구[노19(壯7·弱12), 비20(壯12·弱8)], 1666년 29구[노17(도망6·사망4·미상7), 비12(도망1·사망3·미상8)], 1681년 110구[노55(老1·壯21·弱18·도망11·사망4), 비55(老3·壯28·弱17·도망6·사망2)], 1693년 163구[노83(壯23·弱30·도망9·사망21), 비80(老3·壯39·弱21·도망7·사망10)], 1702년 227구[노118(老3·壯37·弱31·도망13·미상4), 비109(老4·壯40·弱30·도망13·사망20·미상2)]이다.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미상으로 표기하였다.

206) 서원은 노비뿐만 아니라 募入·投託·仰屬人으로 표현되는 避役을 목적으로 한 원생·양인·下典·守直·軍·匠人 등 광범위한 원속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17세기 중반이후부터 노비를 대신하는 서원 경제적 확대를 위한 한 방안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도동서원 강당에도 걸려 있던인 1676년(숙종 2) 10월의 전교에서 도산·옥산·도동서원 등 문묘종사제현을 봉상하는 서원에는 다소 폐단이 있더라도 모입자, 즉 원속을 勿侵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이 서원 원속 증가의 한 요인이 되었다. 피역인들의 서원 투속은 대체로 保奴·守直 등 賤役으로 투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7세기 중반이후부터 경제적 부를 매개로 면역 또는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한 원생으로의 투속도 많았다. 서원측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을 원생으로 모입하였지만, 기존의 양반 입원생과는 엄격히 구별하였다(이수환, 앞의 논문, 2000, 150쪽).

207) 『유생안』에 입록한 자들은 서얼과 양인으로서 신분을 상승하여 새롭게 양반에 편입한 新鄕들로 짐작 된다. 이들은 19세기 이래로 서원내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19세기 말에는 院任의 소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양반유생(舊鄕)들과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었으며, 이 문제가 조정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고종실록』 권36, 고종 34년(1897, 광무1) 8월 16일 ;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광무1) 8월 16일, 고종 35년(1898, 광무2) 1월 25일, 2월 21일).

기도 하고, 5·9월뿐만 아니라 6·7월에도 停捧하기도 하고, 12월에는 雪때문에 정봉하기도 하였다. 실제로는 산직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에 따라 未捧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봉상된 낮·도끼도 인근 서원·서당 또는 유림덕에서 추거(推去)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서원전과 관련해서는 신축·경자년의 『田畓案』(2책)과 『田庫收稅成冊』(1책), 『院田收稅記』(1책)가 있는데 이를 통해 도동서원의 전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道東書院田畓大帳』은 1661년(신축) 2월에 현풍의 21개 고을과 고령의 3개 고을에 산재한 도동서원 소유 전답 총 10결 43부 4속을 기록한 것이다. 전답은 현풍에 9결 82부 6속, 고령에 60부 8속이 있었는데, 이 중 院基·位田畓, 寺基·寺位, 陳田 등은 면세의 혜택이 주어졌다. 1678년에 작성된 『道東書院田畓修正記』와 더불어 17세기 중·후반 도동서원 전답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院田收稅記』는 임오년(1762년으로 추정)에 도동서원 원전에서 收稅한 기록이다. 도동서원은 가뭄과 도망, 은닉 등의 병폐가 막대하여 田結에서의 出稅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자, 매년 10월 향사 때에 원전의 결부수와 토지의 척박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收稅하도록 영원히 定式으로 하였다. 즉, 토질의 등급에 따라 일등은 2전 5푼, 이등 2전, 삼등 1전 5푼, 사등 1전, 오등 7푼, 육등 5푼을 分定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西部城底田, 水所也員, 縣內鳳山員, 烏舌, 山田 등지의 作人 30인에게서 11냥 6푼을 수세하였다. 기재 방식은 원전 소재지, 소작인 성명, 전결수, 원전 등급, 납세금액 등의 순이다. 말미의 無稅秩에는 放賣·秋納·公需價·碑閣·舊基 등과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에는 수세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도동서원에는 『正案』(17책), 『別補正案』(11책), 『屯租記』(7책), 『賭地冊』(5책) 등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19세기 말의 몇 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이다.

④ 교육 및 출판 자료

교육과 관련한 자료로 『육영재완의절목育英齋完議節目』과 『학계안學稷案』 등이 있다. 『육영재완의절목』은 1787년(정조 11) 겨울에 현감으로 부임한 조정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거점시의 규정과 내용 및 경제적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학계안』 1책은 1854년(철종 5)부터 1867년(고종 4)까지 학계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이다.

『경현록중간시하기景賢錄重刊時下記』, 『경현록본원보유급반질기景賢錄本院保有及頒帙記』, 『필재김선생문인록분책기畢齋金先生門人錄分冊記』, 『필재문인록畢齋門人錄…하기정안책下記正案冊』 등이 있다.

⑤ 지역 자료

특별한 자료는 현풍현 『향록』 2책과 1621년(광해 13)의 향록 작성 당시에 제정된 규정과 계축년에 일부 고친 규정을 1786년(정조 10)에 등서한 「향안설립초정규등초鄉案設立初定規臚草」가 소장되어 있다. 『향록』은 1621년(광해 13)부터 1791년(정조 15)까지의 상권과 1814년(순조 14)부터 1851년(철종 2)까지의 하권으로 되어 있다. 이 향록을 통해 당시 현풍지역 가족의 분포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는 박성朴惺(1549~1605)을 제향한 송담서원松潭書院의 자료가 있다.²⁰⁸⁾ 이 자료는

208) 송담서원은 1694년(숙종 20)에 박성을 제향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처음에는 장현광에 의해 1634년(인조 12) 현풍 쌍계에 서원이 건립되었지만, 화재로 봉안하지 못하였다. 1677년(숙종 3)에는 정구, 배신과 더불어 도동서원에 종향을 추진했지만, 윤후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향중 사람이 발의하여 박

대원군 휘철 시에 이관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임안록任案錄』(1책), 『원임안』(1책), 『알사록』(8책), 『심원록』(3책), 『원생안』(1책), 『유전수합기儒錢收合記』(1책), 명문 1건 등이다. 특히 『알사록』은 서원건립 당시부터 19세기 초까지의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다.

II. 도동서원이 담은 지식

1. 도서

도동서원 장서는 총 95종 중 문집류가 63종으로 가장 많다. 經書 13종, 性理書 8종, 史書 7종, 기타 3종이다. 제작 시기는 연대추정이 어려운 21종을 제외하면 19~20세기 초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19세기 이전의 것으로는 『景賢錄』·『書傳大文』·『御定奎章全韻』·『易學圖說』·『朱子書節要』·『麟經(春秋)』·『二倫行實圖』·『大學衍義』 등 총 18종이 있다.²⁰⁹⁾ 2005년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전적이 망실된 상태로 『景賢錄』·『司馬榜目』·『全韻玉篇』·『어정규장전운』·『춘추』 등 5종과 1969년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景賢續錄補遺』(1719년 이전, 1책)와 『五經百篇』(1798, 內賜本, 5권 5책)이 있다.²¹⁰⁾

도동서원에는 도산·옥산서원과 같이 원규로서 도서의 열람과 대여를 제한한 규정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²¹¹⁾ 다만 정구가 도동서원 원규를 제정하면서 강습을 장려한 내용이 있어서 당시 서원 내 학습 내용을 알 수 있다. 즉, ‘겨울과 봄에는 五經과 四書 및 伊洛의 여러 성리서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子書, 문집을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대로 읽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養蒙齋의 학생에게는 김굉필이 특히 강조하였던 성리학의 실천 윤리서인 『小學』을 강독하도록 명하되, 그 과정을 엄하게 세워 훈계하였다. 이외에도 『莊子』, 『列子』, 『老子』 등과 같은 도교의 책과 불교의 서책을 서원에 들이지 못하도록 엄히 금하였다.²¹²⁾

실제 위의 목록에서도 『소학』을 비롯한 경서와 성리서가 21종, 역사서와 자서가 10종, 문집류는 19세기 초반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약 7종이 확인된다. 이는 도동서원에서 경서와 성리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서원은 향촌 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문고(도서관)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문화를 만드는 공간으로 기여하였다.

사액서원은 일반적으로 사액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전답, 노비와 함께 서적을 하사받았으며, 자비로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후 국가에서 원생들의 공부를 분발시킨다는 의미로 서적을 인출할 때마다 서원에 頒賜를 거듭하였다. 도동서원에 남아있는 내사본이 이러한 서적들이다. 또한 각 가문내지 院祠에서 印刊된 문집 등이 頒帙되어 옴으로써 향촌사회 유생들을 위한 도서관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문집은 해당 인물을 제향하는 원사나 후손들이 간행하여 보내온 것들이었다.

성의 묘소가 있는 대니산 기슭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209) 특히, 한강 정구가 편찬한 『五先生禮說分類』(1629, 12권 7책)와 퇴계가 찬한 『朱子書節要』(1611, 20권 10책) 및 학습서였던 『書傳大文』(16세기 중엽, 2권 2책)은 도동서원의 중건 시기를 전후하여 제작된 완질본으로서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모두 망실된 상태이다.

210)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도동서원·인흥서원-』, 2005.

211) 도산서원은 서책과 문서를 보관한 (동·서)광명실의 출입과 열람시에는 원임 3인의 입회하에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대여는 불가하였다. 옥산서원 역시 도산서원과 마찬가지로 서책의 원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었다(이수환, 앞의 논문, 2012, 427-430쪽).

212) 『도동서원 원규』 「勤講習」, 「嚴禁防」 조 참조.

2. 책판

서원은 서적을 직접 출판하여 지방출판 문화의 중심지로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에서 출판된 서적은 대부분 주향인 내지 배향인의 문집과 그 후손내지 문인들의 문집 및 그들의 행적을 엮은 傳記類였다.

도서를 간행하는 일은 구입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일이기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원에서는 간행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초기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이 많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¹³⁾ 이러한 서적출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서원의 기금으로 충당하지만 때로는 문중이나 제자들이 거출한 비용으로 印出되기도 하고, 특정 有志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손들이나 문인들이 契를 조직하여 그 자금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²¹⁴⁾

1778년 徐有渠가 편찬한 『鏤板考』²¹⁵⁾에 나오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들의 출판현황을 보면 도산서원 17종²¹⁶⁾, 병산서원 3종²¹⁷⁾, 옥산서원 7종²¹⁸⁾, 돈암서원 3종²¹⁹⁾, 필암서원 1종²²⁰⁾이 확인되며, 소수서원·남계서원·무성서원·도동서원 등은 출판한 서적이 없었다. 그러나 현전하는 판본을 보면 소수서원은 『追遠錄』 등 10종을 간행하였고,²²¹⁾ 남계서원은 『文獻公實記』(鄭汝昌)의 초·중간본과 『介庵先生文集』(姜翼)을 간행하였다.

도동서원은 『景賢錄』新·舊板과 『景賢續錄』 구판, 『景賢續錄補遺』 신·구판,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佔畢齋先生門人錄』 등 총 8종이 확인된다.

213) 평양 청량서원(淸涼書院)에서 1566년 『近思錄集解』, 『漢書傳抄』와 1568년에 『古史通略』이 간행되었고, 성주 천곡서원(川谷書院)이 1574~1575년에 『薛文清公讀書錄要語』, 『朱子書節要』를 간행하고, 서천 명곡서원(鳴谷書院)에서 1581년에 『표제구해공자가어』, 『신간소왕사기』가 간행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2006, 592~593쪽.) 이처럼 초창기에 설립된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흔치 않았으며, 주로 감영이나 지방 관아에서 출간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214) 이수환, 「영남지역 서원의 특징과 교육활동」,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국학자료원, 2002, 84~86쪽.

215) 『누판고』는 정조가 즉위한 다음 해(1778)에 각도에 유시를 내려 조사케 하여 정조 20년(1796)에 완성된 것이므로 자세히 조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당대의 누락된 도서는 물론 그 후에 간행된 도서가 포함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308쪽).

216) 『嶠南賓興錄』, 『經書釋義』, 『啓蒙傳疑』, 『退溪言行錄』, 『古鏡重磨方』, 『理學通錄』, 『朱子書節要』, 『松齋集』, 『聾巖文集』, 『雲巖逸稿』, 『溫溪逸稿』, 『退溪文集·續集·年譜』, 『退溪自省錄』, 『耻齋遺稿』, 『月川文集』, 『近始齋文集』, 『溪巖文集』 등의 17종이다(徐有渠, 『鏤板考』(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 20338) 참조).

217) 『懲毖錄』(전16권), 『西崖文集』(전21권 : 별집9권, 연보3권), 『梧里文集』(전6권 : 부록4권, 속집2권, 별집2권, 부록2권) 등이다(徐有渠, 『鏤板考』 참조).

218) 『求仁錄』, 『近思錄』, 『大學章句補遺』, 『奉先雜儀』, 『中庸九經衍義』, 『太極問辨』, 『晦齋集』 등 7종이다(徐有渠, 『鏤板考』 참조).

219) 『沙溪遺稿』(전 14권), 『愼獨齋遺稿』(전15권), 『沙溪年譜』(전1권) 등이다(徐有渠, 『鏤板考』 참조).

220) 『河西集』(전 14권, 별집 9권)이다(徐有渠, 『鏤板考』 참조).

221) 『紹修書院冊錄』(1762)에는 수량을 밝히지 않은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데 『竹溪誌』, 『六先生遺稿』, 『追遠錄』,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籍』, 『鳶飛魚躍』, 『學求聖賢』 등과 沙州에 있어서 찾아오지 못했다고 기록된 『漁溪集』과 『朱書刊補』가 있다.

표 2 도동서원 소장 책판 목록

번호	서명	완본수	현존수	결락수	비고
1	경현록(구판)	26	16	10	기탁
2	경현록(신판)	23	2	21	〃
3	경현속록景賢續錄	31	9	22	〃
4	경현속록보유景賢續錄補遺(구판)	28	10	18	〃
5	경현속록보유(신판)	26	12	14	〃
6	성화십육년경자삼월초삼일사마방목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11	10	1	〃
7	점필재김선생문도록첨간변파록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16	7	9	〃
8	점필재선생문인록佔畢齋先生門人錄	10	5	5	〃
총 계		171	71	100	

『경현록』(6권 3책)은 1719년 도동서원에서 신판으로 간행한 것으로서 김굉필의 8대손 졸재 拙齋 김하석金夏錫(1638~1687)이 편집하였다. 처음 3책 모두 『경현록』으로 표제 하였지만, 그 내용은 책에 따라 상책은 『경현록』(상.하권), 중책은 『경현속록』(상.하권), 하책은 『경현속록 보유』(상.하권)로 되어 있다.²²²⁾

『성화십육년경자삼월초삼일사마방목』 판목은 1480년(성화 16) 김굉필이 생원시에 입격한 후 당시 함께 입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긴 것이다. 『사마방목』 원본은 한훤당의 종가에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유실되었다. 이후 1676년(숙종 2)에 성균관에 있는 『국조방목』을 열람 후 2권을 필사하여 본손가와 도동서원에 보관하였다. 그 뒤 김계갑金繼甲이 여러 가문의 족보와 방목을 고증하여, 그의 조부가 필사해 놓은 방목의 내용을 증보增補한 후 1737년(영조 13) 목판으로 간행하였다.²²³⁾ 또 『점필재김선생문도록첨간변파록』과 『점필재선생문인록』 판목이 있다.

Ⅲ.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도동서원

1. 도서 대출

서원에서 소장한 서책은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지금 대학의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지역 사회의 공공도서관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분명 서원은 사립 기관이었고,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구성원 이 외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222) 『경현록』은 6권 3책(상.중.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1565년 李楨(1512-1571)이 순천부사 시절 이곳에 귀양살이했던 한훤당 김굉필과 梅溪 曹偉의 事蹟을 수집하여 처음 간행한 『경현록』은 퇴계의 자문을 구하여 작성하였다. 당시 이정이 작성한 것이 1719년 『경현록』 상책의 상권이며, 추후 조식이 추가한 사적과 李浚慶이 추가한 사실을 추가하여 『경현록』 상책의 하권을 이룬다. 이후에 정구가 조위의 사적을 빼고 김굉필의 사적만을 모아 여기에 자료를 더하여 『경현속록』 상.하권을 만들었다. 그 뒤 김하석이 『경현속록보유』 상.하권을 더하여 간행하였다. 1719년 도동서원에서 『경현록』을 중판하면서 『경현속록』과 『경현속록보유』를 포함하여 3책으로 엮고 각기 중.하책으로 하였다(黃義洙, 「<景賢錄>解題」, 『남명학연구』 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0, 427-429쪽).

223) 「金繼甲 後書」,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듯하다. 서원에 소장된 책은 누가 어떻게 활용하였을까.

대체로 서원에서는 소장된 도서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서원의 원규에 도서 대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간혹 도서의 외부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있기도 하였다. 책을 서고에만 보관하거나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개한다면 책의 활용은 매우 저조할 것이다. 도동서원의 경우 책을 활용하기를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동서원에 소장된 문서 가운데 도서대출 현황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동서원은 서원을 출입하는 이들이 원한다면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도동서원의 책 가운데 지역의 사대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 서원을 세우고 강학하는 기반을 마련했던 선배학자들의 학문이 후배들에게 얼마나 전해질 수 있었을까. 도동서원에 출입하는 이들은 어떤 책을 빌려다 보았고, 자주 읽히는 책은 무엇일까.

도동서원의 『서책출납치부(書冊出納置簿)』를 통해서 소장 도서 가운데 대출 빈도가 높은 책을 살펴보자. 도서목록에는 책의 제목과 수량을 기재 하였고, 대출된 책은 누가 얼마나 빌려갔는지 언제 반납하였는지 꼼꼼하게 기재하였다. 『서책출납치부』는 모두 14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면은 10행으로 기재하였고 모두 40여 개의 서로 다른 간지가 나열되어 있다. 대략 40여 년 동안 서원의 도서 대출 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한 해에 최소 1건에서 많은 경우에도 5건을 넘기지 않은 정도의 대출 혹은 반납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요즈음 공공도서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었고, 대출은 매우 제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도동서원의 유생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역시 경서인데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책을 빌렸다. 책을 대출하는 경우 당일에 바로 반납한 경우도 있으며, 6개월이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책은 3주에서 5주 사이 약 1개월 남짓해서 반납하였다. 생각해보면, 도동서원의 유생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이 서경, 논어, 맹자 등과 같이 지금 들어도 익숙한 경서들을 도서관에서 빌려 보았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다.

그렇다면 서원이 보유한 서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문집은 어떻게 활용되었나. 대출 대상에 이름을 올린 문집은 『퇴계집(退溪集)』, 『서애집(西厓集)』, 『한강집(寒岡集)』, 『학봉집(鶴峯集)』 매우 제한된 선배 학자들의 문집이었다. 정구(鄭逋)는 도동서원에서는 특별한 존재였다. 도동서원을 중건하고 운영을 주도하였으며,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한 정구의 『한강집』은 문집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다. 정구의 문집을 비롯해서 이황과 류성룡 등 영남학파의 사상적 연원이라고 할 이들의 문집 역시 도동서원에서는 인기 도서였다. 다만 경서와 비교하면 소장된 문집의 양에 비교해서 거의 대출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문집의 대출은 소수였다.

그러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소장 도서를 대출한 사람은 누구일까. 개인과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출 대상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 대출이 월등하게 빈번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동서원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은 서원 도서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대출자들의 면면을 보면 개인 대출자는 서원의 전현직 임원과 그들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인물로 제한되었다. 책을 대출한 개인은 한두 건을 제외하면 모두 전현직 임원이었다. 서원에서 구축된 지식 체계는 위계를 가지고 주변으로 확산 되어 갔던 것이다.

서원은 지식을 담고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그 과정과 방법은 지역사회에서 제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 문화에 접근하게 하였던 것이다. 서원을 장악한 이들은 바로 지역사회에서 지식을 장악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식을 담아내고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가는데 서원을 장악한 이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끔은 좀 특별한 대출자도 있었는데, 바로 향교(鄕校)와 관가(官家)였다. 을미년(乙未年) 6월에 관가에서 『한강집(寒岡集)』과 『시전(詩傳)』 그리고 『주문작해(朱文酌海)』를 대출하였고, 계묘년(癸卯年)에는 『소학언해(小學諺解)』, 을사년(乙巳年)에는 『주역언해(周易諺解)』를 대출하였다. 관가에서는 을미년 6월에도 『한강집』과 『시전』을 대출하였고, 4개월 후인 10월에 책을 반납하였다. 개인 대출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출 기간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향교에서도 책을 대출하였는데, 을해년(乙亥年)에는 『근사록(近思錄)』을 대출하였고, 병자년(丙子年)에는 『독서록(讀書錄)』을 대출하였다. 관가나 향교에서 책을 대출한 목적은 단정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각 지역에서 관아와 향교, 서원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만들어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2. 藏書 경위

이렇게 서원을 가득 채운 도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였을까. 지금까지 서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서원이 책을 소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혀져 있다. 도동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선행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서적의 소장 경위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었다.

첫째, 도동서원이 사액될 때 나라에서 내린 ‘內賜本’이다. 『도동중창사적』에 의하면 도동서원의 전신인 雙溪書院에는 1573년 사액 당시에 국왕이 내려준 서적을 포함하여 수천 권의 藏書가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건물과 함께 모두 燒失되었다.²²⁴⁾ 그러나 1605년 서원을 중건한 후 1607년에 ‘道東’으로 사액이 되고 1610년에 奉安을 하였는데, 같은 해에 김굉필이 文廟에 종사되면서 도동서원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서적의 頒賜는 문묘종사 대현서원을 중심으로 명조, 선조, 영조, 정조대에 총 29종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정조대에 많은 도서가 반사되었다. 내사본은 주로 四書五經 위주의 經學이 16종으로 대부분을 이루며, 이외에 성리서와 類書, 사서와 傳記書, 주자의 문집이 있다.²²⁵⁾ 결국, 도동서원에도 이처럼 다수의 내사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²²⁶⁾ 2005년 조사에서는 『五經百編』(5권 5책)과 『春秋』(27권 10책), 『御定奎章全韻』(1책) 등 3종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내사본과 제향인의 手澤本 등은 서원 측에서도 중요시 여겨 별도의 책함을 만들어 특별히 보관해 왔는데, 도동서원에서는 내사본인 『五經百編』과 『春秋』가 그것이다.

둘째, 지방관아와 감영에서 도서를 간행하여 보낸 경우로서 관아에서 간행했거나 비축하고 있던 도서를 보낸 경우이다. 일례로 옥산서원의 경우 경주부에서 『東萊先生音註唐鑑』을, 慶尙監營에서 『書傳大全』, 『二倫行實圖』, 『孟子諺解』, 『孟子集註大全』 등을 주었다. 도동서원 역시 지방관의 흥학책에 편성하여 이들 서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1969년 장서 목록에서도 확인이 된다.

224) 『선조실록』 권7, 6년(1573) 11월 28일(갑진)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萬曆三十二年(1604) 請助呈書」 『道東書院誌』, 1997, 16쪽.

225) 김윤식,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303-306쪽.

226) 도동서원은 경주 옥산서원과 더불어 1573년 경상감사의 계청으로 사액되어 서적이 頒賜되었다. 옥산서원은 사액 이후에도 1577년과 1590년에 걸쳐 서적이 내사되었는데, 도동서원에도 동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에도 옥산서원에는 수시로 서적이 내사되었는데, 『書冊都錄』과 『傳與記』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사본은 『周易』, 『詩傳』, 『書傳』, 『春秋』, 『禮記』, 『論語』, 『御定春秋四傳』, 『論語諺解』, 『孟子大文』, 『孟子俱解』, 『中庸俱解』, 『性理大全』, 『朱子大全』, 『鄉禮合編』, 『國朝儒先錄』, 『御定朱書百選』, 『朱子語類』, 『御定奎章全韻』, 『御定五經百編』, 『御製雅頌』, 『御製大學續或問』 등이 있다. 도동서원 역시 옥산서원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인근의 서원이나 문중에서 서적을 간행하여 보내오거나, 자신들의 장서를 기증한 경우이다. 1969년의 조사에서는 도동서원 소장 서적의 약 70%가 개인 文集이었다. 이는 문집 저자의 후손내지 그를 제향하는 院祠에서 간행하여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藏書를 기증하는 경우로는 1868년 易東書院이 毀撤된 후 그 장서가 도산서원으로 이관된 사례가 있다. 대원군의 원사 淸철시에는 淸철 대상 원사의 재산과 기물은 일반적으로 향교로 이관하였지만, 특별히 緣故가 있는 미淸철 서원으로 이관되기도 했던 것이다. 도동서원 역시 인근의 송담서원에서 대원군 淸철시에 운영 자료의 일부가 이관되었는데, 확인은 어렵지만 이때 송담서원 藏書 중 일부도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는 서원 자체의 판단에 의해 간행하거나 구입한 전적들이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의 도서 구입은 원생 교육에 필요한 小學, 四書五經 등의 經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史書와 詩文類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도동서원의 자체 간행본으로는 제향자인 김굉필의 문집인 『景賢錄』과 『寒暄先生司馬榜目』이 있다. 여기에 한훤당의 스승인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록이 있었다. 『점필재문인록』은 19세기 말 加筆·冒錄한 사건이 발생하자, 公議에 따라 도동서원에서 이를 수정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藏書를 보유한 도동서원은 여타 서원이 그러하듯, 서적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향내의 도서관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유생들이 책을 열람하면서 파손과 분실 등이 빈번해지자 일부 서원에서는 별도의 서적 관리 규정을 만들거나, 院規로서 열람과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였다.²²⁷⁾ 이처럼 서책 관리를 철저히 해온 곳이라도 전쟁과 일제강점기,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원 건립 초기에 자체 구입하거나 개인 및 관청으로부터 기증받은 전적은 오늘날 거의 남아있지 않다.²²⁸⁾

현재 도동서원에서는 19세기 이래로 『書冊目錄』을 작성하여, 서적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그 사이에 다수의 전적을 亡失하여 2005년 일반동산문화재 조사에서는 내사본을 포함하여 총 7종 23책만이 확인되었다.²²⁹⁾ 뿐만 아니라 도동서원 藏書를 기록한 자료들도 망실되어 2005년 조사 이전의 도동서원 藏書의 종류와 규모를 유추할 만한 자료는 1969년 국회도서관에서 조사한 것뿐이다.²³⁰⁾ 당시에 조사된 도동서원 장서는 총 95종 529책으로 이중 66%가 19~20세기에 간행된 것이었다.

227) 옥산서원에 소장된 『書冊現在都錄』의 1862년 5월 完文에는 서원 서책을 ‘院門外不出’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서 퇴계가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1862)에 이르러 도서의 분실이 잦은 까닭에 이 완문의 내용을 판각하여 經閣의 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고, 任司가 열람한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 직접 돌려받고 혹 그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丙午 4月 書冊借去錄』 1책이 옥산서원에 남아있다. 도산서원 역시 소장 도서의 반출과 일반인들의 광명실 출입을 院規로서 금지하는 등 그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228) 1969년 이춘희의 조사에서 확인되는 각 지역 대표 서원의 장서 현황은 영주 소수서원 141종 563책, 함안 남계서원 59종 317책, 경주 옥산서원 866종 4,111책, 안동 도산서원 907종 4,338책, 안동 병산서원 1,071종 3,039책, 장성 필암서원 132종 595책, 논산 돈암서원 78종 245책 이었다. 이중 소수·옥산·도산서원에는 임란 이전에 간행된 서책이 다수 확인되지만, 절대 다수는 도동서원처럼 19-20세기에 집적된 것이었다(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 -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

229)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도동서원·인흥서원-』, 2005.

230) 도동서원에는 19세기 초·중반에 새롭게 작성한 『道東書院書冊目錄』과 『…附物件目錄·書冊目錄·財産收入簿』가 있었지만, 현재 분실된 상태이다. 그렇기에 도동서원 2005년 조사 이전의 장서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69년에 국회도서관에서 실시한 서면 조사시 작성한 목록이 유일하다.

참고문헌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실 기획,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道, 東에서 꽃피다』, 2013.
- 달성문화재단, 『도동서원 이야기』, 2014.
- 김기주, 「道東書院과 寒岡學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 김운식,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 김훈식, 「'道東刊本' 『景賢錄』의 편찬과 내용」, 『지역과 역사』 32, 부경역사연구소, 2013.
-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1.
-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문사철, 2014.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 「道東書院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이수환, 「도동서원의 연혁과 소장자료의 검토」, 『도동서원지』, 1997.
- , 「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한국사학회, 2000.
- , 「영남지역 서원의 특징과 교육활동」,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
- 정수환, 「18세기 玄風 道東書院 院位田 경영의 '中正'한 가치추구: 학문적 가치의 경영원리 적용」,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 黃義洙, 「<景賢錄>解題」, 『남명학연구』 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0.

※ 부록

● 도동서원 고서²³¹⁾ 목록

번호	서명	저(편)자	연도	수량	비고
1	강호선생실기江湖先生實記	김진식金鎭植	1934	5권 2책	석판본石版本
2	경암선생문집敬菴先生文集	오여벌吳汝撥	1898	1책(영본零本)	활자본活字本
3	경현록景賢錄	김하석金夏錫	1719	6권 3책	목판본木板本
4	고금당집古今堂集	노덕규盧德奎	1908	4권 3책	목판본
5	공자실기孔子實記	원영의元泳義	1921	4권 1책	현대활자본
6	괴헌선생문집槐軒先生文集	곽재겸郭再謙	1845	4권 2책	목판본
7	구거당선생일집九居堂先生逸集	정경흥鄭慶興	1933	2권 1책	목활자본木活字本
8	귀봉선생유집龜峰先生遺集	권덕린權德麟	-	2권 1책	목판본
9	귀암선생문집歸巖先生文集	이원정李元禎	1937	12권 6책	목판본
10	근사록近思錄	주희·여조검朱熹·呂祖謙	-	2책(영본)	목판본
11	낙천선생문집洛川先生文集	배신裵紳	1862	2권 2책	목활자본
12	남고문집南臯文集	송규필宋奎弼	1918	6권 3책	고활자본古活字本
13	농암선생문집聾巖先生文集	이현보李賢輔	1935	5권 2책	목판본
14	대계선생문집大溪先生文集	이승희李承熙	1927	36권 20책	신연활자본 新鉛活字本
15	대봉선생문집大峯先生文集	양희지楊熙止	1935	4권 2책	목판본
16	독서요어讀書要語	설선薛瑄(명명)	-	1책	필사본筆寫本
17	동강선생문집東岡先生文集	김우옹金宇顙	-	4책	필사본
18	동거집東渠集	송정환宋鼎銓	1926	4권 2책	목판본
19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이규보李奎報	1913	5책(영본)	활자본
20	동명선생집東溟先生集	김세렴金世濂	1737	6권3책(영본)	도활자본陶活字本
21	동소선생유고桐巢先生遺稿	남하정南夏正	1927	7권 4책	석판본石版本
22	동호선생문집東湖先生文集	문덕교文德教	-	2권 1책	목판본
23	망우선생문집忘憂先生文集	곽재우郭再祐	1629(?)	2권 1책	목판본
24	모계선생문집茅溪先生文集	이명배李命培	1907	2책(영본)	목판본
25	무릉잡고武陵雜稿	주세붕周世鵬	1859	2책(영본)	목판본
26	문헌록文獻錄	-	-	1책	-
27	미산문집眉山文集	정도휴鄭道休	1929	4권 2책	목판본
28	방촌선생실기龐村先生實紀	황원철黃源轍	1925	2권 2책	석판본
29	벽계문집碧桂文集	김호구金浩龜	1931	4권 2책	목판본
30	북애선생문집北厓先生文集	김기金圻	1897	4권 2책	목판본

231) 이 표는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 -李朝書院文庫考-』(국회도서관, 1969)를 저본으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고전번역원 등의 DB와 『영남문집해제』(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8)를 참고하여 편집하였다.

번호	서명	저(편)자	연도	수량	비고
31	사서해四書解	-	-	1책	
32	사현행록四賢行錄	곽승화郭承華.배신裴紳.원개元 槃.곽을郭[走日]	1898	1책	필사본
33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세종世宗 명편命編	-	1책	목판본
34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류성용柳成龍	1894	4책(영본)	목판본
35	서전대문書傳大文	-	16세기 중엽	2권 2책	을해자본乙亥字本
36	설천선생문집雪川先生文集	이봉상李鳳祥	20세기 초	4권 2책	-
37	성학집요聖學輯要	이이李珣	-	7권 4책	목판본
38	소산선생문집素山先生文集	이호우李浩祐	1959	5권2책(영본)	석인본
39	소재선생문집蘇齋先生文集	노수신盧守愼	1652	10권 8책	목판본
40	소학小學	-	-	2책	목판본
41	송강집松岡集	김성하金聲夏	1923	8권 4책	목판본
42	수구재선생문집守口齋先生文集	주맹헌周孟獻	1907	4권 2책	목판본
43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	임화세任華世	1809	4권 2책	목판본
44	안자대전顔子大全	최종한 편	1931	5권 2책	석인본
45	암거선생문집巖居先生文集	박영로朴永魯	1931	6권 3책	석판본
46	야은선생집治隱先生集	길재吉再	1858	6권 2책	목활자본
47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정조正朝 명편命編	1796	1책(상.하)	목판본
48	여헌선생문집旅軒先生文集	장현광張顯光	19세기 말	4책(영본)	목판본
49	여헌선생성리설旅軒先生性理說	장현광	18세기	8권 6책	목판본
50	역학도설易學圖說	장현광	17세기	8권 8책	목판본
51	염락풍아濂洛風雅	김이상(원元)편	-	1책	필사본
52	영수전집潁水全集	서수석徐壽錫	1927	35권 17책	목판본
53	예기禮記	호광胡廣	-	13책	목판본
54	예의답문禮疑答問	-	-	6책	필사본
55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정구 편	1629	12권 7책	목판본
56	오한선생문집鰲漢先生文集	손기양孫起陽	1825	4권 3책	목판본
57	전운옥편全韻玉篇	춘방春坊	19세기	2권 2책	목판본
58	외재선생문집畏齋先生文集	이후경李厚慶	1744	4권 3책	목판본
59	우재집愚齋集	손중돈孫仲墩	1935	1책(零本)	목판본
60	오졸재선생실기迂拙齋先生實記	박한주朴漢柱	20세기	2권 1책	목판본
61	음애선생집陰崖先生集	이운李耘	1754	4권 2책	목판본
62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김안국金安國	1730	1책	목판본
63	이산문집伊山文集	심상길沈相吉	1932	4권 2책	목판본
64	이정전서二程全書	주희 편	-	11책(영본)	목판본

번호	서명	저(편)자	연도	수량	비고
65	인경麟經(춘추春秋)	호안국胡安國(송宋)찬撰	1798	27권 10책	목판본 (정유자번각)
66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주희	-	81책(영본)	목판본
67	자치통감강목	주희	-	13책(영본)	목판본
68	잠와선생실기潛窩先生實紀	최진립崔震立/ 최종검 편	1775	4권 2책	목판본
69	점필재집佔畢齋集	김종직金宗直	1917	8책(영본)	목판본
70	정암선생문집靜庵先生文集	조광조趙光祖	1892	5권, 부록6권, 속집4권: 5책	목판본
71	정안선생일고定庵先生逸稿	곽월郭越	1925	2권 1책	석판본
72	정재선생문집靜齋先生文集	이담명李聃命	1937	8권 4책	목판본
73	존재선생문집存齋先生文集	이휘일李徽逸	1694	2책(영본)	목판본
74	좌전左傳	-	-	7책(영본)	-
75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호광胡廣	-	10책(영본)	목판본
76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이항李滉	1611	20권 10책	목판본
77	주자어류朱子語類	여정덕 편	-	49책(영본)	목판본
78	진서산독서기을집상대학언의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	진덕수眞德秀	18세기 초	43권 12책	고활자본(무신자)
79	진양세고晉陽世稿	추원재追遠齋	1906	4권 2책	목판본
80	창주선생문집滄洲先生文集	하징河愷	1897	5권 2책	목판본
81	춘추집전대전春秋集傳大全	호광胡廣	18세기 말	4책(영본)	임진자본壬辰字本
82	탁청헌선생실기濯淸軒先生實紀	곽황郭躋	1900	2권 1책	목판본
83	택와문집擇窩文集	우진환禹震煥	1929	9권 4책	석판본
84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이항	-	32책(영본)	목판본
85	한강선생문집寒岡先生文集	정구	1841	24권 9책	목판본
86	한사계변韓史繫辨	이병선李炳善	1924	1권 1책	현대활자본
87	한음선생문고漢陰先生文稿	이덕형李德馨	1935	12권 5책	목판본
88	한재집寒齋集	이목李穆	1914	4권 2책	고활자본
89	한훤선생방목寒暄先生榜目	-	1737	1책	목판본
90	한훤선생사마방목 寒暄先生司馬榜目	-	1676	1책	필사본
91	해동삼강록海東三綱錄	김성은 편	1805	6책(영본)	목판본
92	회당선생문집晦堂先生文集	장석영張錫英	1932	45권 22책	목판본
93	회재선생문집晦齋先生文集	이언적李彦迪	1926	2권, 별집2권 4책	목판본
94	훈지양선생속집埶旻兩先生續集	정만양鄭萬陽.정규양鄭葵陽	1967	6권 3책	목판본
95	훈지양선생어록埶旻兩先生語錄	정만양.정규양	1966	4권 2책	목판본

● 도동서원 고문서 목록

순	자료명	연도	내용
1	도동서원창건사적道東書院創建事蹟	1604~1720	중건 당시 서원유생들의 상서.소지.통문 모음. 1책.
2	원임안院任案	1604~1965	원장, 유사 명부
3	입원록入院錄	1610~1907	입원생 1128명 명부
4	입원록	1910~1966	입원생 명부
5	천안薦案	1940 前後	서원 임원 선출 시 천거인 명부
6	향록(상)鄉錄(上)	1621~1791	현풍 향안
7	향록(하)鄉錄(下)	1814~1851	현풍 향안
8	향안설립초정규등초 鄉案設立初定規臚草	1786	1621년 향록 작성 당시 제정된 규정과 계축년 고친 규정을 등서한 것
9	봉안시제집사분정기 奉安時諸執事分定記	1610~1803	김굉필과 정구를 봉안할 때 헌관과 제관 및 참석유생 명부
10	별사봉안시제집사분정기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	1695~1810	곽승화와 배신, 곽을을 별사 봉안한 1695년 봉안식과 원개를 봉안한 1706년 봉안식에 참석한 유생 명부
11	돈사록敦事錄	1720~1730	서원 중수 중건 수리 등에 격려차 현장 방문자 명부
12	돈사록	1791~1848	서원 중수 중건 수리 등에 격려차 현장 방문자 명부
13	참제록參祭錄(만력39~신묘 3월)	1611~1651	춘추 향사 참석자 명부
14	참제록(경진2월~기해8월)	1700~1719	춘추 향사 참석자 명부
15	참제록(기해10월~기미8월)	1719~1739	춘추 향사 참석자 명부
16	참제록(갑술12월~임신2월)	1694~1752	춘추 향사 참석자 명부
17	참제록(갑오8월~병오3월)	1774~1786	춘추 향사 참석자 명부
18	참제록(병오10월~병인2월)	1786~1806	춘추 향사 참석자 명부
19	참제록(계미3월~임진3월)	1823~1831	춘추 향사 참석자 명부
20	참제록(신묘10월~임술3월)	1831~1862	춘추 향사 참석자 명부
21	분향록焚香錄(정미8월~을묘6월)	1907~1915	향사 참석자 명부
22	알사록謁祠錄(임신정월~무인12월)	1692~1698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23	알사록(기묘정월~계미12월)	1699~1703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24	알사록(갑신2월~정해3월)	1704~1707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25	알사록(정해2월~신묘12월)	1707~1711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26	알사록(신묘정월~갑오4월)	1711~1714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27	알사록(갑오5월~정유2월)	1714~1717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28	알사록(무술정월~계묘2월)	1718~1723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29	알사록(갑진3월~무신2월)	1724~1728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30	알사록(무신3월~정사1월)	1728~1737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순	자료명	연도	내용
31	알사록(정사2월~신유8월)	1737~1741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32	알사록(신유2월~경오8월)	1741~1750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33	알사록(병자정월~임오)	1758~1762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34	알사록(임오윤5월~계미8월)	1762~1763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35	알사록(갑신9월~계사7월)	1764~1773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36	알사록(계사8월~정유9월)	1773~1777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37	알사록(정유10월~임인정월)	1777~1782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38	알사록(임인2월~임자2월)	1782~1792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39	알사록(임자2월~경신6월)	1792~1800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40	알사록(경신6월~경오2월)	1800~1810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41	알사록(병술정월~병신10월)	1826~1835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42	알사록(정유2월~무진2월)	1837~1868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43	알사록(정축2월~신묘8월)	1817~1831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44	알사록(임신정월~신축12월)	1832~1841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45	알사록(임술윤8월~경오6월)	1862~1870	매월 삭망례 및 춘추향사와 묘제 방문자 명부
46	심원록 尋院錄(병오~계해)	1606~1623	서원 방문 인사 명부
47	심원록(정해2월~기해10월)	1647~1659	서원 방문 인사 명부
48	심원록(경자정월~병진2월)	1660~1676	서원 방문 인사 명부
49	심원록(병진3월~을해4월)	1676~1695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0	심원록(을해7월~경진12월)	1695~1700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1	심원록(경진12월~정해2월)	1700~1707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2	심원록(정해3월~임진3월)	1707~1712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3	심원록(임진4월~병신3월)	1712~1716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4	심원록(병신윤3월~갑진중동)	1716~1724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5	심원록(무신2월~정사2월)	1728~1737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6	심원록(정사5월~경오9월)	1737~1750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7	심원록(경오10월~계미2월)	1750~1763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8	심원록(계미3월~기축10월)	1763~1769	서원 방문 인사 명부
59	심원록(신해3월~정묘4월)	1791~1807	서원 방문 인사 명부
60	심원록(정묘4월~갑술윤2월)	1807~1814	서원 방문 인사 명부
61	심원록(갑술2월~계미9월)	1814~1823	서원 방문 인사 명부
62	심원록(계미9월~기축12월)	1823~1829	서원 방문 인사 명부
63	심원록(경인3월~계묘3월)	1830~1843	서원 방문 인사 명부
64	심원록(기미3월~계해3월)	1859~1863	서원 방문 인사 명부
65	심원록(신묘3월~갑진2월)	1891~1904	서원 방문 인사 명부
66	심원록(무인3월~경술10월)	1938~1970	서원 방문 인사 명부

순	자료명	연도	내용
67	심원록(신해8월~무진)	1971~1988	서원 방문 인사 명부
68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19세기 중 ~20세기 초	서원 향교 문중 등에서 보내온 통문 등록
69	묘실이건시도기廟室移建時到記	1840	
70	육영재완의절목育英齋完議節目	1787~1789	1787년 현감 조정현이 작성한 거접 시 규정과 내용 및 재정 자료
71	학계안學契案	1854~1867	학계 참여자 명부
72	보원계안補院契案	기해(1899)2.1	현풍 사족들이 조직한 보원계 명부
73	보원계안	1899~1968	현풍 사족들이 조직한 보원계 명부
74	보원계補院契(수전록收錢錄)	기해(1899)~1939	현풍 사족들이 조직한 보원계 재정 자료
75	보원계전식본안補院契錢植本案	신유(1921)3.10	현풍 사족들이 조직한 보원계 자료
76	보원계전수봉기補院契錢收捧記	무진(1928)2.27	현풍 사족들이 조직한 보원계 재정 자료
77	보원계속안補院契續案	을유(1945)3.26	현풍 사족들이 조직한 보원계 자료
78	문루계안門樓契案	갑진(1904)~을사(1905) 12월	문루계 자료
79	본원수리안本院修理案	무인(1938)2월	서원 수리 관련 자료
80	중수물력도총重修物力都摠	1803(순조3)	1803년 서원 전체 중수 시 소요 비용 및 총당 내역 기록
81	중수물력도총책重修物力都摠冊	1858(철종9)	중수 시 소요 비용
82	중수시집사분정책重修時執事分定冊	1858(철종9)	건물 중수 시 위패 이안 및 환안의 집사 분정
83	도동서원중수찬조금방명록 道東書院重修贊助金芳名錄	1958	중수 시 방문 및 찬조
84	도동서원보수찬조금방명록 道東書院補修贊助金芳名錄	1974	중수 시 방문 및 찬조
85	도동서원중수환안기념시첩 道東書院重修還安記念詩帖	1967	서원 중수 시 환안 기념 시첩
86	창고중수기倉庫重修記	무진2월	창고 중수 관련 기록
87	고실중수庫室重修	무진 윤2월13일	창고 중수 기록
88	노비안奴婢案	17세기초~1702(숙종28)	서원 소속 노비 명부
89	월차철물목록月次鐵物錄	병진~을묘	1616년부터 1675년까지 서원 소속 산직의 철물 납부 상황
90	노비매매문서奴婢賣買文書	1729(정조3)	노비 매매 문서
91	도동서원원생안道東書院院生案	무진 2월	院屬 명부
92	도동서원원생안	계유 2월	院屬 명부
93	도동서원원생안	무인 정월	院屬 명부
94	도동서원원생안	을축 12월	院屬 명부
95	도동서원원생안	병인 10월	院屬 명부

순	자료명	연도	내용
96	도동서원원생안	기축 11월	院屬 명부
97	도동서원원생안	병술 10월	院屬 명부
98	도동서원모입안道東書院募入案	무오 2월	院屬 명부
99	도동서원모입안	임술 4월	院屬 명부
100	도동서원모입안	갑자 9월	院屬 명부
101	도동서원자비안道東書院資費案	무오 2월	院屬 명부
102	도동서원자비안	계해 7월	院屬 명부
103	도동유생안道東儒生案	정묘 8월	院屬 명부
104	도동서원전답대장道東書院田畓大帳	1661년(신축) 2월	1661년 현풍과 고령 일대의 서원 소유 전답 10결43부4속 기록
105	경자양전답안庚子量田畓案	무오	書院田 자료
106	원전수세기院田收稅記	임오 정월	1762년(추정) 도동서원의 수세 기록
107	전답성책田畓成冊	을축·정묘·무진	書院田 자료
108	도동서원토지대장道東書院土地臺帳	1932(임신)2월	書院田 자료
109	본원토지대장本院土地臺帳	을사~정묘	書院田 자료
110	도동서원대지실측평수대장 道東書院垓地實測坪數臺帳	계해 12월~병자 12월	書院田 자료
111	도동서원전답결부대장道東書院田畓結卜大帳	계미 10월	書院田 자료
112	읍서부원수평답척매책邑西部員藪坪畓斥賣冊	정유 3월	書院田 자료
113	도동서원결부구별성책道東書院結卜區別成冊	을미 2월	書院田 자료
114	도동서원결부구별성책	을미 4월	書院田 자료
115	도동서원토지도조대금기 道東書院土地賭租代金記	신사 3월	書院田 자료
116	본원양미도지산채합채구분기 本院糧米賭地散賣合賣區分記	경진 정월	書院田 자료
117	도동서원토지도조매책 道東書院土地賭租賣買冊	기묘 9월	書院田 자료
118	기지세대정식基地稅太定式	무진 8월	書院田 자료
119	서원토지계약서안書院土地契約書案	신묘 3월	書院田 자료
120	도동서원입금기道東書院入金記	기축 7월	書院田 자료
121	본원도지책本院賭地冊	임인 3월	書院田 자료
122	마산도지책馬山賭地冊	무술 3월	書院田 자료
123	마산도지책	경자 정월	書院田 자료
124	마산도지책	신축 정월	書院田 자료
125	마산도지책	기해 정월	書院田 자료
126	(본원)정안(本院)正案	정미정월~무신6월	書院田 자료
127	(본원)정안	병인5월~무진	書院田 자료

순	자료명	연도	내용
128	(본원)정안	무인 2월	書院田 자료
129	(본원)정안	갑진2월~을사	書院田 자료
130	(본원)정안	병신12월~정유	書院田 자료
131	(본원)정안	정미2월~무신	書院田 자료
132	(본원)정안	갑인2월~병진	書院田 자료
133	(본원)정안	을미 3월	書院田 자료
134	(본원)정안	기해12월~경자	書院田 자료
135	(본원)정안	정해3월~기축	書院田 자료
136	(본원)정안	임오10월~갑신	書院田 자료
137	(본원)정안	기미정월~갑자	書院田 자료
138	(본원)정안	갑자8월~정묘	書院田 자료
139	(본원)정안	갑자 8월	書院田 자료
140	(본원)정안	갑신4월~정해	書院田 자료
141	(본원)정안	갑오4월~경자	書院田 자료
142	(본원)정안	갑인정월~무오	書院田 자료
143	둔조기屯租記	갑신 10월	書院田 자료
144	둔조기	을유 9월	書院田 자료
145	둔조기	병술 9월	書院田 자료
146	둔조기	무자 11월	書院田 자료
147	둔조기	신묘 3월	書院田 자료
148	둔조급식상기屯租及食狀記	갑오 4월	書院田 자료
149	둔조급식상기	경자 3월	書院田 자료
150	수곡급현수지기穗穀及現收支記	신해 10월	書院田 자료
151	별보別補	무오2월~계해12월	書院田 자료
152	별보	신해 2월	書院田 자료
153	별보	무인 10월~기묘	書院田 자료
154	별보	갑인12월~을묘	書院田 자료
155	별보	임신10월~정축12월	書院田 자료
156	별보	병진12월~정사12월	書院田 자료
157	별보	경술 12월	書院田 자료
158	별보(정안책)別補(正案冊)	갑오 12월	書院田 자료
159	별보(정안책)	병술 11월	書院田 자료
160	별보(정안책)	병신 12월	書院田 자료
161	별보(정안책)	을미 12월	書院田 자료
162	(본원)춘정책(本院)春正冊	무오6월~갑자정월	書院田 자료
163	(본원)춘정책	병진12월~정사12월	書院田 자료

순	자료명	연도	내용
164	(본원)춘정책	경진 5월	書院田 자료
165	(본원)춘정책	갑자 정월~병자	書院田 자료
166	간수기看穗記	갑자 9월	書院田 자료
167	간수기	경인 9월	書院田 자료
168	간수기	무인 10월	書院田 자료
169	간수기	병인 9월	書院田 자료
170	도동서원정수기 道東書院定穗記	무신 3월	書院田 자료
171	전장기傳掌記	기미 2월	서원 소장 각종 제기, 식기 및 잡물, 서책 목록
172	전장기	갑술4월~계사3월	서원 소장 각종 제기, 식기 및 잡물, 서책 목록
173	잡물전장기雜物傳掌記	계유(1693)8월8일~임신(1752)5월	서원 소장 각종 제기, 식기 및 잡물, 서책 목록
174	도동서원서책목록道東書院書冊目錄	정해4월~최근	서원 소장 서책 목록
175	원중물건기院中物件記	갑자 4월	서원 소장 각종 제기, 식기 및 잡물, 서책 목록
176	원중물건기	갑진5월~경진	서원 소장 각종 제기, 식기 및 잡물, 서책 목록
177	서원물건목록書院物件目錄	정해3월	서원 소장 각종 제기, 식기 및 잡물, 서책 목록
178	…부물건목록.서책목록.재산수입부 …付物件目錄.書冊目錄.財産收入簿	신사4월~임오	서원 소장 각종 제기, 식기 및 잡물, 서책 목록
179	경자이안원회하기庚子移安院會下記		경자년 이안 시 수입 및 지출 내역
180	도동서원용하기道東書院用下記	기축7월~신묘	서원 수입 및 지출 내역
181	고사문간중건하기책庫舍門間重建下記冊	임자 2월	고사문 중건 시 수입 및 지출 내역
182	경현록중간시하기景賢錄重刊時下記	기해 2월	경현록 중간 시 수입 및 지출 내역
183	하기장부下記帳簿	정미 9월	수입 및 지출 내역
184	문경공종가제수절목文敬公宗家祭需節目	정유정월4일	김굉필 종가 제수 내역
185	도동서원전물단자道東書院奠物單子	1892(고종29)	서원 제향시 전물 단자
186	회문回文	기묘 2월	통문
187	회문	기묘 9월	통문
188	제문祭文	1605(선조38)~1720(숙종46)	제문
189	경상좌도현풍현유생배계서등근재목재배상서 慶尙左道玄風縣儒生裴繼緒等謹齋沐再拜上書	1664(현종 5)	상서
190	명문明文	신해 10월	매매 문서
191	정읍례庭揖禮	(최근)	
192	초록抄錄	정해(1947) 3월	
193	경현록본원보유급반질기 景賢錄本院保有及頒帙記	경진 4월	경현록 반질 자료
194	필재김선생문인록분책기 畢齋金先生門人錄分冊記	을해12월	점필재문인록 반질 자료

순	자료명	연도	내용
195	필재문인록·하기정안책 畢齋門人錄·下記正案冊	갑술 9월	점필재문인록 간행 시 수입 및 지출 내역
196	본원방채책本院放債冊	기유~정사	
197	통문通文		통문
198	명문明文	1779(정조3)	매매 문서
199	간찰簡札	임오 9월 2일	서신
200	임안록(송담)任案錄(松潭)	임자(1852) 8월 ~정묘(1857) 2월	송담서원 자료
201	원임안(송담)院任案(松潭)		송담서원 자료
202	송담서원알사록 松潭書院謁祠錄(갑술12월~계미9월)	1694~1703	송담서원 자료
203	송담서원알사록(계미8월~정해2월)	1703~1707	송담서원 자료
204	송담서원알사록(임진정월~을미2월)	1712~1715	송담서원 자료
205	송담서원알사록(병진2월~신유2월)	1736~1741	송담서원 자료
206	송담서원알사록(임신8월~갑신7월)	1753~1764	송담서원 자료
207	송담서원알사록(계사8월~경자8월)	1773~1780	송담서원 자료
208	송담서원알사록(경자8월~신해2월)	1780~1791	송담서원 자료
209	송담서원알사록(신해2월~병인10월)	1791~1806	송담서원 자료
210	송담서원심원록(정해~임오3월)	1767~1801	송담서원 자료
211	송담서원심원록(신유4월~임오2월)	1801~1822	송담서원 자료
212	송담서원심원록(을묘7월~무진9월)	1855~1868	송담서원 자료
213	송담서원원생안松潭書院院生案	무신 2월	송담서원 자료
214	송원유전수합기松院儒錢收合記		송담서원 자료
215	송담서원별유사전명문松潭書院別有司前明文	갑신(1824) 12월	송담서원 자료

병산서원 소장 고문헌 기초 연구 : 서애학(西厓學)의 지식문화적 자취

강문식(송실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병산서원의 운영
- III. 서애가(西厓家)의 역사
- IV. 안동의 사회와 문화
- V. 맺음말

I. 머리말

병산서원(屏山書院)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과 그의 셋째 아들 류진(柳軫)의 위패를 봉안한 서원으로, 조선후기에 지역 유림들의 강학(講學)과 교류 및 공론 형성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병산서원의 전신인 풍악서당(豐嶽書堂)은 당초 풍산현에 있었는데, 이곳이 학자들의 강학 장소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류성룡의 권유에 따라 1572년(선조 5)에 현재의 위치로 서당을 옮겼다. 이후 풍악서당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소실되었다가 1605년(선조 38)에 중건되었다.

1607년 류성룡이 서거하자 그의 문인들 사이에서 류성룡을 추모하는 서원 건립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1610년(광해군 2)에 풍악서당 뒤편에 존덕사(尊德祠)를 건립하고 1614년 류성룡에 위패를 존덕사에 봉안하면서 풍악서당은 서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원 건립 후 약 250년이 지난 1863년(철종 14)에야 비로소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어 ‘병산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대원군 집권기 서원철폐령이 내려졌을 때, 병산서원은 존속된 47개 서원의 하나에 포함되었다. 이는 비록 사액은 늦었지만 병산서원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컸음을 잘 보여준다.²³²⁾

이 글은 병산서원의 운영과 활동의 실상을 담고 있는 고문서들을 분류하고 각 문서의 대략적인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검토 대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발간한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제20집에 수록된 병산서원 문서들이다.²³³⁾ 기존에서 문서의 형식적인 면을 기준으로 병산서원 고문서를 분류·정리하였지만,²³⁴⁾ 이 글에서는 문서 형식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문서들을 분류하였다. 즉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1) 병산서원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 (2) 서애가(西厓家)의 역사에 관한 문서, (3)

232) 이상 병산서원의 연혁에 관한 내용은 심재우, 「병산서원의 역사와 류성룡·류진 부자의 발자취」, 『소수서원 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243~247쪽에서 인용하였음.

233) 이 글에서는 한국고문서자료관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고문서집성』 20 수록 병산서원 고문서의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https://archive.aks.ac.kr/jipsung/item.do#list.do?itemId=jipsung&gubun=booknum&depth=1&upPath=&dataId=20>)

234) 한국고문서자료관 사이트에서는 『고문서집성』 20의 병산서원 고문서를 소차계장류, 증빙류, 서간통고류, 치부류, 시문류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치부류는 다시 내용에 따라 17가지로 세부 분류하였다.

안동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문서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세 범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산서원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는 다시 ① 조직·운영 문서, ② 강학(講學) 문서, ③ 제향 문서, ④ 경제 문서 등의 세부 항목으로 다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분류 항목별로 문서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정리한 표는 이 글의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II. 병산서원의 운영

『고문서집성』 20에 수록된 병산서원 고문서는 총 57건인데, 이 중에서 병산서원 운영에 관한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37건이다. 이를 세부 분류하면 조직·운영 문서 15건, 강학 문서 4건, 제향 문서 10건, 경제 문서 8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조직·운영 문서[15건]

병산서원의 조직·운영 관련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로는 『원안요람(院案要覽)』(3건),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 『병산서원 원임록(屏山書院院任錄)』(8건), 『1851년 이계로 상소(李啓魯上疏)』, 『갑오년 풍산서당 통문(豐山書堂通文)』, 『호계서원묘내척량도(虎溪書院廟內尺量圖)』 등이 있다.

『원안요람』은 서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건으로, 모두 3건이 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작된 『1841년 이정모 원안요람(李貞模院案要覽)』은 1841년(헌종 7) 당시 병산서원 원장(院長)이었던 이정모(李貞模)가 주도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정모는 서애파(西厓派) 종손인 류운(柳漣)의 외종손이다. 요람의 말미에 수록된 「지문(識文)」에서 이정모는 서원이 건립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원의 문서와 고적(古蹟)들이 훼손되고 멸실되어 임원들이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잘못된 내용이 계속 전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원 관련 문적들을 수집·고열(考閱)하여 하나의 책자를 만들고 ‘원안요람’으로 명명했음을 밝혔다. 이정모는 ‘김사문 이숙(金斯文彝叔)’, ‘류사문 경협(柳斯文景協)’과 함께 요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정모가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유사(齋有司)였던 김도재(金道在)와 류양목(柳養睦)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요람에는 병산서원 소유의 제기(祭器) 및 각종 잡물(雜物)과 서적의 관리, 전답과 노비에 대한 수세(收稅)·수공(收貢)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853년 병산서원 원안요람』은 1853년(철종 4)에 병산서원 재유사(齋有司) 김정흠(金正欽)·류우목(柳宇睦)의 주도로 개안(改案)된 것으로, 이정모의 요람에 이후 변동된 내용들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지문은 류우목이 썼다. 『1883·1896년 병산서원 원안요람』은 1883년(고종 20)에 개안된 요람을 1896년에 한 차례 더 수정한 것으로, 1883년의 개안은 당시 재유사였던 류도진(柳道鎭)이 주관하였고, 1896년의 수정은 역시 재유사였던 류도경(柳道敬)이 담당하였다.

『병산서원기사』는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 「묘내의절(廟內儀節)」, 「제축변통완의(祭燭變通完議)」, 「원사절목(院事節目)」 등 병산서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절·절목 등을 수록한 문건이다. 문건의 내용을 볼 때 작성자는 1717~1718년에 병산서원 원장을 맡았던 이협(李浹)으로 보인다. 또 문건 중에 정유(丁酉: 1717)·무술(戊戌: 1718) 등의 간지가 확인되므로, 이를 통해 본서의 작성 시기는 1717~1718년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원안요람』과 더불어 병산서원 운영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원임록』은 원장과 재유사 등 병산서원의 운영을 담당했던 임원들의 명단이다. 현재 병산서원의 『원임록』은 모두 8건이 전하고 있는데, 제작 과정이나 내용을 볼 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① 『1592년 이전~1640년 병산서원 원임록』, ② 『1652~1672년 병산서원 원임록』, ③ 『1592년 이전~1807년 병산서원 원임록』 등 3종이다. 이들 3종은 여러 가지 필체가 섞여 있는 것을 볼 때 최초 작성 이후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역을 계속 추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로 원장과 재유사·고유사(庫有司)·유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④ 『1592년 이전~1716년 병산서원 원임록』, ⑤ 『1717~1806년 병산서원 원임록』, ⑥ 『1807~1885년 병산서원 원임록』, ⑦ 『1887~1918년 병산서원 원임록』, ⑧ 『1955~1972년 병산서원 원임록』 등 5종이다. 이 중에서 ④와 ⑤는 1806~1807년경에 함께 만들어진 목록으로, 앞서 본 ①~③ 등의 기존 원임록을 바탕으로 1592년 이전부터 1806년까지의 원임록을 일괄 정리하여 ④·⑤의 2책으로 편집한 것이다. 또 내용 면에서도 ④·⑤의 원임록은 원장과 재유사만 기록했을 뿐 고유사나 유사는 제외되어 있어서 재유사 외의 다른 유사도 포함되어 있는 ①~③의 기록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⑥~⑧은 ④·⑤의 체제를 따라서 1807년 이후 시기의 원장과 재유사 명단을 정리한 목록으로, 연도별로 임원 변동 사항을 계속 추록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⑧에 실린 서문에 따르면, 원래는 1919~1954년의 임원 명단을 정리한 원임록 1책이 더 있었으나 ‘경인년 병화(庚寅年兵禍)’, 즉 1950년 한국전쟁 과정에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1863년 이계로 상소』²³⁵⁾는 이계로가 올린, 병산서원의 사액(賜額)을 요청하는 내용의 상소로, 표제는 ‘병산서원 연액 시 사실(屏山書院延額時事實)’이다. 상소의 뒤에는 상소를 받은 철종이 의정부에 논의를 지시하고, 조두순(趙斗淳)이 의정부의 의견을 수합하여 철종에게 병산서원 사액을 건의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갑오년 풍산서당 통문』은 풍산서당 회중(會中)에서 병산장무(屏山掌務)에게 발급한 통문으로, 병산장무가 임안(任案)을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실려 있다.

『호계서원묘내척량도』는 호계서원(虎溪書院) 사당의 규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문건이다. 제목은 ‘척량도(尺量圖)’이지만 사당의 모습을 그린 도면이 실려 있는 것은 아니고, 사당의 동·서, 남·북 간 길이와 사당 안 각종 기물의 배치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1620년(광해군 12)에 류성룡을 호계서원에 배향하는 과정에서 사당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내용을 보면, 먼저 호계서원 사당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동·서가 2칸에 길이 15척 8촌, 남·북이 3칸에 길이 3칸 23척 7촌이다. 이어 사당 내부의 상황으로는 정위(正位)의 교의(交椅)·상(床)·향상(香床)·축상(祝床)의 규격, 동·서 배위(配位)의 교의·상·향상의 규격, 그리고 각 기물 간의 거리 및 기물과 건물 벽과의 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배위의 기물을 보면 교의와 상의 규격은 두 배위가 동일하지만, 향상의 경우에는 동배위가 길이 2척 8촌, 너비 1척 2푼이고, 서배위가 길이 1척 9촌 3푼, 너비 1척 1촌 4푼으로 동배위의 향상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측량의 기준이 된 자의 모양을 그린 ‘반

235) 한국고문서자료관 『고문서집성』 20에서는 본 문서의 이름을 ‘1851년 이계로 상소’라고 하였다(https://archive.aks.ac.kr/jipsung/item.do#view.do?itemId=jipsung&gubun=booknum&depth=4&upPath=20%5E2002%5E200201&dataId=G002%2BAKS%2BKSM-XB.1851.4717-20101008.B011a_020_00006_YYY), 하지만 문서 원문을 보면 첫 머리에 “癸亥 十一月 日 屏山書院延額時事實”이라고 쓰여 있는데, ‘계해’년은 1863년이며 바로 이해에 병산서원의 사액이 이루어졌다. 또 1851년은 신해년(辛亥年)이므로 문서에 기록된 간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서명을 ‘1863년 이계로 상소’로 수정하였다.

척양(半尺樣)’이 실려 있다.

2. 강학(講學) 문서[4건]

병산서원의 강학 활동 관련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1718년 병산서원 입원록(屏山書院入院錄)』, 『1781·1782년 병산서원 거재안(屏山書院居齋案)』, 『1789년 병산서원 강안(屏山書院講案)』, 『용정대책(龍庭對策)』 등 4종이 전하고 있다.

『1718년 병산서원 입원록』은 병산서원에 들어와서 공부한 원생의 명단을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문건으로, 서원 건립 이전인 풍악서당 시절의 원생부터 소급해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에 기록된 마지막 입원 시기는 ‘무술년(戊戌年) 9월’인데, 이때 서원에 들어온 유생 중 류성천(柳聖天, 1690~1746)의 생몰년을 고려해 볼 때, 이 무술년은 1718년(숙종 44)임을 알 수 있다.²³⁶⁾ 이를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본서의 기록 중 입원 시기가 확인되는 상한은 1638년(인조 16) 3월부터이며, 이보다 앞선 시기의 원생들은 정확한 입원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본서의 기록을 보면 원생의 입학은 3월이나 9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661년과 1675년에는 1월에 입원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원생의 인적 사항으로는 관직, 생원·진사시 및 문과(文科) 급제 여부, 거주지, 생사(生死)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병산서원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실상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781~1782년 병산서원 거재안』²³⁷⁾은 병산서원에 기거하면서 공부했던 유생들의 명단과 공부한 서적 등을 기록해 놓은 문건이다. 본서는 「신축년 통독안(辛丑年通讀案)」, 「신축 10월 거재안(辛丑十月居齋案)」, 「임인 10월 거재안(壬寅十月居齋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축년 통독안」은 1781년(정조 5)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병산서원에서 개최된 『대학(大學)』 통독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첫부분에 당시 병산서원 원장이었던 류종춘(柳宗春, 1720~1795)이 지은 〈병산서원통독안서(屏山書院通讀案序)〉가 있고, 이어 통독회에 참여한 유생들의 명단인 〈통독시회안(通讀時會案)〉이 실려있다. 「신축 10월 거재안」은 1781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임인 10월 거재안」은 1782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병산서원에서 개최된 강학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다. 1781·1782년의 강학은 각각 4개 순(巡)으로 나누어졌으며, 매 순은 15일간 진행되었다. 각 거재안에는 강학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명과 자(字), 출생연도, 강학 서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강학 서적은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심경(心經)』,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²³⁸⁾

『1789년 병산서원 강안』은 병산서원에서 개최된 경서 강론(講論)에 참여한 유생들에 관한 문건이다. 서두의 “기유 2월 초1일 설강강생(己酉二月初一日設講講生)”이라는 내용을 통해 이 강안이 기유년의 강론 기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론에 참여한 유생의 한 명인 류성조(柳

236) 鄭求福, 「屏山書院 古文書 解題」, 『古文書集成』 20,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s://archive.aks.ac.kr/heje/heje.do?booknum=20>)

237) 기존 해제에서는 본서에 신축년과 임자년(壬子年, 1792)의 거재안이 실려있다고 하였다(정구복, 위의 해제). 현재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서비스되는 『고문서집성』 20에서 본서의 표제로 삼고 있는 ‘1781~1792년 병산서원 거재안’이라는 서명도 이 해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https://archive.aks.ac.kr/jipsung/item.do#view.do?itemId=jipsung&gubun=booknum&depth=5&upPath=20%5E2002%5E200204%5E20020402&dataId=G002%2BAKS%2BKSM-XG.1781.4717-20101008.B011a_020_00023_YYY). 하지만 원문을 확인한 결과 본서에 실린 거재안은 임자년이 아니라 임인년(壬寅年)의 거재안이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본서의 서명을 ‘1781·1782년 병산서원 거재안’으로 수정하였다.

238) 본 거재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2), 교육사학회, 2008을 참조.

晟祚, 1769~1834)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이 기유년은 1789년(정조 13)이다. 본서에는 2건의 강안이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1789년 2월 1일에 실시된 강론의 기록이고, 두 번째 것은 같은 해 4월 2일에 개최된 강론의 기록이다. 두 강안에는 강론에 참여한 유생들의 이름과 자(字), 출생연도, 강론한 경서(經書) 이름[편명(篇名) 포함], 강론 성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강론 성적은 순통(純通), 통(通), 약(略), 조(粗)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또 유생들과 별도로 강론에 참여했던 동몽(童蒙)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는데, 2월 강안에는 동몽의 성명과 출생연도만 실려 있는 반면, 4월 강안에는 동몽의 성명과 강론한 경서명, 성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²³⁹⁾

『용정대책』은 과거(科擧)에서 제출된 대책문(對策文) 및 기타 자료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작성자는 미상이며 초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개인적인 학습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합격한 대책문들을 등서(謄書)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병산서원의 공식적인 강학 활동에 관한 문건은 아니지만, 학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학 문서로 분류하였다. 본서에는 13건의 대책문과 1건의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다. 대책문 중 앞의 9건은 책문(策問) 부분이 ‘왕약왈(王若曰)’로 시작되고 대책문의 첫 부분에도 ‘신대(臣對)’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전시(殿試)에서 제출된 대책문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4건의 대책문은 ‘왕약왈’·‘신대’ 등의 표현이 없고, 특히 10번째 대책에는 ‘한성이소(漢城二所)’, 즉 ‘한성의 제2 시험장소’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볼 때, 전시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의 시험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 방식을 보면, 먼저 책문 내용을 제시한 다음 그에 대한 대책문을 수록하였는데, 책문의 경우 대부분은 ‘변통(變通)’·‘체천(體天)’·‘수신안민제적(修身安民制敵)’·‘성지(城池)’·‘순민심(順民心)’ 등과 같이 책문의 주제를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일부에서는 책문 내용 전체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책문 다음에는 시험이 실시된 해의 간지, 시험의 종류, 성적, 대책문 작성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간지·성적·시험 종류 등은 누락된 경우도 많다. 대책문은 전문을 모두 기록하였다. 한편, 마지막에 수록된 상소문은 「대제학 조경 소(大提學趙綱疏)」로, 1647년(인조 25) 4월 5일에 조경이 올린 상소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조경의 관직이 형조판서로 기록되어 있다. 상소에서 조경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폐단을 개혁할 방안으로 죽은 자나 도망한 자의 역(役)을 이웃이나 친척에게 부과하는 것을 금할 것, 지역별 공물(貢物) 분정을 공정하게 재조정할 것, 전선(戰船)을 늘려 수군을 강화하고 변장(邊將)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탐오한 자들을 파직할 것, 재변(災變) 극복을 위해 구언(求言)을 실시하고 왕[인조]이 신하들의 간언을 적극 수용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을 형조판서에서 면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제향 문서[10건]

병산서원의 제향과 관련된 자료로는 『1610~1614년 병산서원 봉안록(屏山書院奉安錄)』, 『1614~1639년 병산서원 춘추향사 집사분정기(屏山書院春秋享祀執事分定記)』, 『1658~1664년 병산서원 향사집사분정(屏山書院享祀執事分定)』, 『1666~1698년 병산서원 집사록(屏山書院執事錄)』, 『1723~1735년 병산서원 집사록(屏山書院執事錄)』, 『1823~1826년 병산서원 분향록(屏山書院焚香錄)』, 『1615~1617년 병산서원 제기(屏山書院祭器)』, 『병산서원 제수물목(屏山書院祭需物目)』, 『1629년 정경세 제문(鄭經世祭文)』, 『1719년 병산서원 제문(屏山書院祭文)』 등이 있다.

239) 본 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종배, 위의 논문, 2008을 참조.

『1610~1614년 병산서원 봉안록』은 1610년부터 1614년까지 류성룡(柳成龍)을 병산서원에 봉안한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먼저 1610년과 1612년에 류성룡의 봉안을 추진하고 준비한 각종 유사(有司)들의 명단을 정리한 「묘유사록(廟有司錄)」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1614년에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할 때의 제문인 「서애류선생 봉안제문(西厓柳先生奉安祭文)」이 실려있는데, 찬자는 당시 강릉부사(江陵府使)였던 정경세(鄭經世)이다. 제문 뒤에는 1614년 류성룡 위패 봉안 의례에서 헌관(獻官)·대축(大祝)·찬자(贊者)·알자(謁者)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인 「집사록(執事錄)」이 있다.

『1614~1639년 병산서원 춘추향사 집사분정기』, 『1658~1664년 병산서원 향사집사분정』, 『1666~1698년 병산서원 집사록』, 『1723~1735년 병산서원 집사록』 등은 각 시기에 병산서원에서 봄과 가을에 거행된 향사(享祀)에서 헌관·전사(奠司)·진설(陳設)·대축 등 집사관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다.

『1823~1826년 병산서원 분향록』은 1823년 7월부터 1826년 11월까지 병산서원에서 분향(焚香)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직역이나 관직은 쓰지 않고 분향자의 이름만 기록하였다. 분향은 기본적으로 매달 1일과 15일에 거행되었으며, 정월(正月)에는 1일 대신 4일 또는 7일에 정알(正謁)을 할 때 분향도 함께 시행하였다. 또 춘추향사가 있는 3월과 9월에는 1일·15일뿐만 아니라 향사일에도 분향을 거행하였다.

『1615·1617년 병산서원 제기』는 병산서원 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원에 소장된 각종 제기들을 인수인계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로, 1615년과 1617년의 인수인계 문서가 한 책으로 합해져 있다. 제기의 종류와 수량, 전여한 전임 도유사와 전수한 신임 도유사의 성(姓)과 수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뒤에 경제 문서에서 검토할 『전여기(傳與記)』와 함께 병산서원 소장 물품의 현황과 인수인계 과정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병산서원 제수물목』은 병산서원에서 류성룡[정위(正位)]과 류진[종사위(從祀位)]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한 제수물품의 내역을 기록한 목록이다. 「정위 제수물목(正位祭需物目)」과 「종사위 제수물목(從祀位祭需物目)」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수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였다. 또 물품 내역 아래에 개별 향사에서 발생했던 제수 변동 내역을 기록해 놓은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녹해(鹿醢)를 어해(魚醢)로 대체한 경우 녹해 항목 아래에 “기해년 가을 향사에서 어해로 대신하였다[己亥秋享時 代以魚醢]”라는 식으로 기재하였다.

『1629년 정경세 제문』은 1629년(인조 7)에 류성룡의 위패를 병산서원으로 환안(還安)할 때에 정경세가 지은 제문으로, 원제목은 ‘숭정 2년 기사 3월 1일 문충공 서애 류선생 환안제문(崇禎二年己巳三月一日 文忠公西厓柳先生還安祭文)’이다. 제문 다음에는 환안 제례를 주관한 집사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1719년 병산서원 제문』²⁴⁰⁾은 류성룡의 셋째 아들 류진이 병산서원에 종향된 후 작성된 제문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정위제문(正位祭文)」, 「종향제문(從享祭文)」, 「병산종향 고사유문(屏山從享告事由文)」 등 여러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책의 말미에 “기해년 9월 상순에 첩(帖)을 만들었다[己亥九月上浣作帖]”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류진이 병산서원에 종향된 것이 1662년(현종 3)이고 그 이후 첫 번째 기해년이 1719년(숙종 45)이므로, 아마도 이때에 본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40) 한국고문서자료관 『고문서집성』 20에서는 본 문서의 이름을 ‘1659년 병산서원 제문’이라고 하였다(https://archive.aks.ac.kr/jipsung/item.do#view.do?itemId=jipsung&gubun=booknum&depth=4&upPath=20%5E2002%5E200205&dataId=G002%2BAKS%2BKSM-XI.1629.4717-20101008.B011a_020_00034_YYY), 하지만 1659년은 류진이 병산서원에 종향되기 전이므로 문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서명을 ‘1719년 병산서원 제문’으로 수정하였다.

4. 경제 문서[8건]

병산서원의 경제 상황에 관한 문서로는 『정해년 병산서원 전여기(丁亥年屏山書院傳與記)』, 『원노비안(院奴婢案)』(4건), 『원노비추쇄안(院奴婢推刷案)』(3건) 등이 있다.

『정해년 병산서원 전여기』는 병산서원의 임원이 교체될 때 신·구 임원 간에 주고받은 인수인계 문서이다. 본 문건에는 정해년(丁亥年)부터 무신년(戊申年) 사이에 작성된 15건의 인수인계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문서 작성 연도가 간지로서만 기록되어 있다. 이중 첫 번째 것인 정해년 인수인계 문서에 『징비록(懲毖錄)』 103권에 51석(石) 8두(斗)의 곡식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징비록』이 간행된 것이 1647년(인조 25) 정해년이다. 또 병산서원 『원임록』에서 1646~1647년의 원장과 유사 명단을 확인한 결과 정해년 인수인계 문서에 수결을 한 전·현직 도유사(都有司: 원장)·고유사(庫有司)들과 성씨가 일치하였다. 이상을 고려할 때 본 『전여기』의 ‘정해년’은 1647년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서에는 1647년부터 1668년(현종 9, 무신년) 사이에 작성된 15건의 인수인계 문서가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 문서에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날짜, 곡식·면포 등 인수인계 물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 내역, 그리고 전여(傳與)한 전임 도유사·고유사와 전수(傳受)한 신임 도유사·고유사의 성(姓)과 수결이 기록되어 있다.

『원노비안』과 『원노비추쇄안』은 병산서원 운영의 경제적 기반의 하나인 서원 소속 노비에 관한 문건으로, 『원노비안』 4건, 『원노비추쇄안』 3건 등 모두 7건이 전해지고 있다. 『원노비안』으로는 『1663년 병산서원 노비안』, 『1666~1669년 병산서원 노비안』, 『1738년 병산서원 노비안』, 『1762년 병산서원 노비안』 등이 있다.²⁴¹⁾ 또 『원노비추쇄안』으로는 『1739년 병산서원 원노비추쇄안』,²⁴²⁾ 『1750년 병산서원 원노비추쇄안』, 『1756년 병산서원 원노비추쇄안』 등이 있다. 『원노비안』과 『원노비추쇄안』은 서명은 차이가 있지만, 서원 소속 노비의 이름과 출생연도, 노비 자녀의 이름과 출생연도(또는 나이), 거주지역 등의 기록 내용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또 도망간 노비나 사망한 노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아래에 작은 글씨로 ‘도망(逃亡)’, ‘고(故)’라고 표시했으며, ‘노(老)’·‘약(弱)’·‘장(壯)’ 등으로 노비의 신체적 상태를 기록해 놓기도 하였다. 병산서원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Ⅲ. 서애가(西厓家)의 역사

『고문서집성』 20에는 풍산류씨 서애 류성룡가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598~1674년 병산서원 제물의식(屏山書院祭物儀式)』, 1634년의 『상대계첩(霜臺契帖)』 3건, 1674년 『상대계첩』 1건, 1731년 『상대계첩』 2건, 1691년 정무서(鄭武瑞) 등이 작성한 『변무록(辨誣錄)』과 17세기 중반 김응조(金應祖)가 작성한 『변무록(辨誣錄)』, 『1771년 류규 상량문(柳규[?+奎]上樑文)』, 『시문(詩文)』 등 총 11건이다.

『1598~1674년 병산서원 제물의식』은 내용 중에 ‘고조고 찬성부군(高祖考贊成府君)’·‘조고

241) 1738년 이후의 『원노비안』, 『원노비추쇄안』에는 중국 연호(年號)가 기록되어 있어 작성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663년과 1666~1669년의 『원노비안』에는 작성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문건에 주기되어 있는 연도 표시 및 수록된 노비들의 친족 관계, 나이 등을 검토하여 작성연대를 확인하였다[정구복, 앞의 해제].

242) 김영나는 최근 연구에서 『1739년 병산서원 원노비추쇄안』의 작성 연대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노비안을 『1738년 병산서원 노비안』과 연결된다고 보아 173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정구복, 앞의 해제]. 반면 김영나는 1669년 노비안에 53세와 30세로 기록되어 있는 원비(院婢) 애환(愛還)과 원보(院奴) 풍금(豐金)이 이 노비안에는 63세와 40세로 기록된 점을 근거로, 이 노비안이 1739년이 아니라 167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영나, 「17~19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존재양상」,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152쪽].

영의정부군(祖考領議政府君)·‘종가(宗家)’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서애 종가의 제사에 관한 기록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병산서원 제물의식’이라는 서명은 수정이 필요하다. 또 ‘조고 영의정부군’은 류성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문건의 찬자는 류성룡의 손자 류원지(柳元之)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霜臺)는 사헌부(司憲府)의 별칭이며, 『상대계첩』은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낸 인물들이 조직한 계회(契會)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계회에서 주고받은 시문, 계회 장면을 그린 계회도(契會圖) 등을 수록한 문건이다. 병산서원 소장 『상대계첩』 7건은 풍산유씨 서애가의 일원인 류원지(柳元之, 1598~1648), 류성화(柳聖和, 1668~1748) 등이 사헌부 감찰로 재직했기 때문에 제작된 것이므로 서애가의 역사에 관한 기록으로 분류하였다. 1634년과 1674년 『상대계첩』에 류원지가, 1731년 『상대계첩』에 류성화가 기록되어 있다.

2건의 『변무록(辨誣錄)』은 모두 류성룡의 행적에 대해 변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원 기록이라기보다는 서애가에 관련된 문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먼저 『1691년 정무서(鄭武瑞) 등 변무록(辨誣錄)』은 1691년(숙종 17) 11월에 전라도 유학(儒學) 정무서 등이 올린 상소 및 이후 이 상소 내용과 관련하여 이현일(李玄逸)·유후상(柳後常)과 대간에서 올린 계문·상소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정무서는 위 상소에서 기축옥사(己丑獄事)를 비롯한 여러 옥사 사건의 주범이 정철(鄭澈)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철의 관작을 추탈할 것을 요청하였고, 또 안방준(安邦俊)을 정철의 당여(黨與)로 지목하며 그의 사당을 철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정무서의 상소 중에는 기축옥사 당시 이발(李潑) 모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류성룡이 정철에게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변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무서의 상소에 대해 숙종은 정무서의 상소 중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주장한 점은 매우 명쾌하지만 관작의 추삭(追削)은 너무 심하다는 비답을 내렸다. 정무서 상소 다음에는 정철의 관작 추탈을 주장한 이현일의 계문, 안방준의 추탈을 주장한 유후상의 상소, 정철의 추삭을 촉구한 사간(司諫) 박권(朴權)과 정언(正言) 박징(朴澄)의 상소 등 모두 8편의 글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당초 정철의 관작 추탈에 부정적이었던 숙종도 이현일과 대간의 추삭 요구가 계속되자 결국 이를 수락하였고, 안방준의 사당도 유후상의 상소 이후 묘당(廟堂)의 논의를 거쳐 철거했다고 한다.²⁴³⁾

『17세기 중반 김응조(金應祖) 변무록(辨誣錄)』은 류성룡·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인 김응조(1587~1667)가 류성룡의 ‘주화오국(主和誤國)’ 문제에 대해 변무한 글이다. 본서에는 필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김응조의 문집 『학사집(鶴沙集)』의 제5권 잡저(雜著) 부분에 동일한 글이 「서애 류선생 변무록(西厓柳先生辨誣錄)」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서 저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김응조는 임진왜란 이후 류성룡의 행적과 언설을 연도별로 단락을 나누어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안설(按說)’로 제시하여 류성룡에 대해 ‘주화오국’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특히 조목(趙穆)이 류성룡을 비판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류성룡의 형 류운룡(柳雲龍)이 류성룡에게 보낸 편지 1편과, 류운룡이 조목에게 보내려고 썼다가 최종적으로는 보내지 않았던 편지 1편의 내용도 함께 수록하였다.²⁴⁴⁾

243)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11월 22일.

244) 류성룡에 대한 ‘주화오국(主和誤國)’의 비판이 형성된 과정과 당대인들의 인식 및 그에 대한 류성룡의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은 김한신, 「1598년 유성룡 실각과 主和誤國論 인식 분석」, 『역사와 담론』 95, 호서사학회, 2020을 참조.

『1771년 류규 상량문』은 류성룡의 6대손인 류규(柳圭[圭+奎])가 지은 상량문이다. “상(上)의 재위 47년 신묘년 5월 초2일 임인일 오시의 상량문[上之四十七年辛卯 五月初二日壬寅 午時上樑文] 승정(崇禎) 기원 후 세 번째 신묘년, 건륭(乾隆) 36년에 중수[崇禎紀元後三辛卯 乾隆三十六年 重修]”라는 내용을 통해 이 상량문이 1771년(영조 47)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내용에는 어느 건물의 상량문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류규의 문집인 『임여재집(臨汝齋集)』 문집 제4권에 실린 같은 내용의 상량문에는 제목이 「충효당 중건 상량문(忠孝堂重建上樑文)」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 글이 충효당의 상량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충효당은 류성룡 가의 종택으로, 경북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69(하회리)에 있으며 1964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충효당의 사랑채와 안채는 류성룡의 손자 류원지(柳元之, 1598~1674)가 짓고, 증손자 류의하(柳宜河, 1616~1698)가 확장·수리했으며, 행랑채는 8대손 류상조(柳相祚, 1763~1838)가 지었다. 본 상량문은 충효당이 류의하의 확장·수리 이후 1771년에도 중건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시문』은 3편의 시문이 필사되어 있는 낱장 종이(2장)로, 필사자는 미상이다. 첫 번째 장에는 김성탁(金聖鐸, 1684~1747)이 지은 「아유가(我有歌)」가 기록되어 있다. 김성탁은 본관이 의성(義城). 자는 진백(振伯). 호는 제산(霽山)이다. 이현일(李玄逸)의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나 주목을 받았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에는 의병을 일으키고 창의소(倡義所)에서 토역문(討逆文)을 지어 각 지역 유생들에게 의병에 가담할 것을 적극 권하였다. 감진어사(監賑御史) 이종백(李宗白)의 추천으로 관직에 나갔으며, 1735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한 후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 홍문관 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1737년 이현일의 신원소(伸冤疏)를 올렸다가 제주도 정의(旌義)에 유배되었고,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아유가」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12구(句)이다. 각 장의 첫 부분이 “나에게는 ○○이 있다[我有○○]”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유가’라는 제목을 붙였다. 1~6장은 노모, 선친의 묘소, 세 명의 동생, 병든 아내, 두 아들, 조카 등을 주제로 하였고, 마지막 7장은 김성탁 본인의 일생을 주제로 시를 지었다. 이 시는 김성탁의 문집인 『제산집(霽山集)』 제1권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장에는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시 1편과 발문 1편이 실려 있는데, 모두 류성룡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시는 「단양 절구(丹陽絕句)」 5수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시집 제1권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제1수에 “승상이 거문고 타던 바위 아니 잠기었네[丞相彈琴石不沈]”라는 시구가 있는데, 『여유당전서』에 실린 주석에는 시구에 등장하는 승상이 류성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제2수의 “철사줄 은갈구리 마모되지 아니한 곳 나무꾼들 너나없이 수운정을 가리키네[鐵索銀鉤磨不得 樵蘇皆指水雲亭]”라는 구절에는 “수운정(水雲亭) 세 글자는 곧 서애의 친필이다.”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한편, 「단양 절구」의 제목 아래 부분에는 류성룡이 지은 시 한 수가 부기되어 있다. 이 시는 『서애집(西厓集)』에는 없는 것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 의흥현(義興縣) 읍지의 「제영(題詠)」조에 실려 있으며, 류성룡의 작품임이 명시되어 있다. 발문은 「발수운정첩(跋水雲亭帖)」으로, 이 글에서도 정약용은 수운정의 현판이 류성룡의 친필임을 언급하였다. 이어 정약용은 류성룡의 경술(經術)과 훈벌(勳閥)의 위대함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서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수운정 현판은 류성룡 글씨의 곧고 힘찬 정채(精采)를 잘 보여주며, 이 글씨를 통해 류성룡이 대사(大事)에 임하여 대의(大議)를 결정했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IV. 안동의 사회와 문화

병산서원 고문서 중에서 안동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류중하 상소(柳重河上疏)』, 『1598~1607년 동안(洞案)』, 『1589년 풍산현 향록(豊山縣鄉錄)』, 『1639·1642·1646년 계약(契約)』, 『계약(契約)』, 『1804~1811년 병산서원 경로회안(屏山書院慶老會案)』, 『1897년 망기(望記)』, 『임술년 재사동완문(齋舍洞完文)』, 『무오년 각방잡물미수도중기(戊午年各房雜物未收都重記)』 등 총 9건이 있다.

『류중하 상소』는 조정에서 추진하던 향교 액외유생(額外儒生)의 충군(充軍) 조치에 대해 일률적인 충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책을 제시한 상소이다. 본 문건은 결락된 부분이 많아 류중하가 제시한 대책이 무엇인지 잘 확인되지 않는데, 『광해군일기』의 기사를 보면, 당시 안동에서 올린 상소에는 액내·액외유생 모두를 대상으로 고강(考講)을 실시하여 낙강(落講)한 유생을 충군하는 방안이 기록되어 있다.²⁴⁵⁾ 『광해군일기』 기사를 통해 류중하가 상소를 올린 것이 1619년(광해군 11)인 것도 확인하였다.

『1598~1607년 동안』은 안동 지역에 거주하던 양반들의 동안(洞案)이다. 동안에 수록된 인물들의 인적사항을 고려할 때 본 동안은 1584년 이후 1618년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모두 5차례의 추록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안동 지역의 동계(洞契) 운영 사례와 양반들의 교유관계를 알 수 있다.²⁴⁶⁾

『1589년 풍산현 향록』은 1589년에 작성된 안동 풍산현의 향안을 후대에 필사해 놓은 문건이다. 지문에 따르면 1589년에 제작된 향안이 병화로 손상을 입어 후대에 전하기 어렵게 되자 전 향소(前鄉所)가 이를 개서(改書)했는데, 원래 향안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정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서한 문건을 파기하고 한결같이 기존 문건에 근거하여 다시 개록(改錄)하였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본 향록이다.

『1639·1642·1646년 계약』은 17세기 중반 안동 지역에서 결성된 동계(洞契)의 관련 문서를 모아 놓은 것이다. 계의 목적과 계원의 의무, 규약 등을 정리한 「계약」, 계의 조직 체계를 대계(大契)와 소계(小契)로 나누어 설명한 「작계(作契)」 초상이 났을 때의 규정인 「사상상조(死喪相助)」, 규약을 어긴 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인 「정벌(定罰)」, 유사를 뽑는 방식과 임기, 담당 업무를 정리한 「장계유사(掌契有司)」, 재해를 입은 계원을 도와주는 방법을 서술한 「환란상구(患亂相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7세기 중반 향촌에서의 계 운영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계약』은 17세기 후반에 안동 지역에서 결성된 동계(洞契)의 관련 문서를 모아 놓은 책이다. 항목의 구성은 위의 『1639·1642·1646년 계약』과 대동소이하며, 전후 맥락으로 볼 때 1646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804~1811년 병산서원 경로회안』은 안동의 속현인 풍산현 경로회(慶老會)에 입록(入錄)된 사람들의 명단으로, 1804년과 1807년부터 1811년까지의 경로회 입록자 명단이 실려있다. 풍산현의 『경로회안』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병산서원 소장본은 그중 제2책이다.

『1897년 망기』는 경광단소(鏡光壇所)의 도유사(都有司)로 유학(幼學) 유승우(柳承佑)를 추천한 내용이 실려있다. 경광단소의 전신인 경광서원은 경북 안동시 서후면에 있었던 서원으로,

245) 『광해군일기』 권147, 광해군 11년 12월 10일.

246) 김정철, 「1598~1607년 동안(洞案) 해제」, 『고문서집성』 20,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jipsung/item.do?view.do?itemId=jipsung&gubun=booknum&depth=4&uPath=20%5E2002%5E200204&dataId=G002%2BAKS%2BKSM-XG.1598.4717-20101008.B011a_020_00040_YYY)

1868년에 철폐된 후 1873년에 단소가 설립되어 향사 여행을 담당하였다.

『임술년 재사동완문』은 안동부사가 발급하고 재사동에서 수취한 완문(完文)으로, 류성룡의 분묘(墳墓)와 재사(齋舍)가 있는 지역을 상동(上同)에서 분리하여 재사동으로 독립시키고, 분묘 관리를 위해 상동의 미포(米布) 일부를 재사동에 분정(分定)하며 재사 노비들을 다른 역사(役事)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오년 각방잡물미수도중기』은 지방 관청 및 역(驛)에서 거두지 못한 각종 잡물(雜物)의 목록을 정리해 놓은 문건이다. 표제(表題)는 ‘무오시월일 각방잡물미수도중기(戊午十月日各房雜物未收都重記)’이고, 내제(內題)는 ‘무오시월일 미수도중기(戊午十月日未收都重記)’이다. 중기(重記)는 호조에서 각 관청의 회계를 감독하고 관청이 보유한 국가 재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회계 장부, 또는 물품조사서를 말한다. 본 중기가 어느 지역에서 작성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본서에 등장하는 병곡역(柄谷驛)·주등역(酒登驛)·남역(南驛)·망창역(望昌驛)·대송역(大松驛)·봉산역(峯山驛) 등이 모두 경상도 청하(淸河)·영덕(盈德)·영해(寧海)·경주(慶州)·흥해(興海)·영일(迎日) 등지에 있었던, 송라도(松羅道)에 소속된 속역(屬驛)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아마도 송라도를 관할하는 군현 또는 기관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에는 무오년 및 그보다 1~2년 앞인 병진년, 정사년의 미수납 잡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오년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품목별 및 역별로 구분하여 미납한 사람의 성명과 미납 물품, 미납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된 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문서집성』 20에 수록된 병산서원 고문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병산서원 고문서는 조선 후기 병산서원 운영의 실상과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 및 위상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 현재 병산서원 고문서는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 등 기본적인 DB가 구축되어 한국고문서자료관 사이트 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병산서원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료 가공의 수준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고문서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명이나 지명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해서 주석을 달아준다면 자료의 활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현재도 인명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간혹 동명이인이 잘못 연결된 사례도 발견되므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고문서 중에는 결락으로 인해 글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 또한 여타 자료들과의 비교·교감을 통해 최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문서들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개인 문집 등에서 관련된 글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누락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문서 원문 이미지의 경우 일부 컬러 이미지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흑백 이미지여서 문서의 내용이나 형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지의 편집 및 보정도 좀더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DB의 보완이 이루어져서 아카이브로 구축된다면 병산서원 고문서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병산서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화 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광해군일기』, 『숙종실록』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20-병산서원편』, 1994.

김명자, 「조선후기 병산서원 원장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김영나, 「17~19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존재양상」,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김한신, 「1598년 유성룡 실각과 主和誤國論 인식 분석」, 『역사와 담론』 95, 호서사학회, 2020.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2, 교육사학회, 2008.

-----, 「18세기 말 병산서원의 강학 활동과 그 의의」,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박현규, 「屏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서지학보』 14, 한국서지학회, 1994.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심재우, 「병산서원의 역사와 류성룡·류진 부자의 발자취」, 『소수서원 병산서원』, 정수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임근실, 「16세기 嶺南地域 書院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최종호, 「屏山書院의 역할과 위상」,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한국고문서자료관(<https://archive.aks.ac.kr>)

-정구복, 「屏山書院 古文書 解題」, 『고문서집성』 20, 한국고문서자료관.

-김정철, 「1598~1607년 동안(洞案) 해제」, 『고문서집성』 20, 한국고문서자료관.

※ 부록

● 병산서원 고문서 분류

○ 병산서원의 운영 [37건]

순	자료명	연도	책수 (장/면수)	내용
---	-----	----	--------------	----

1. 조직·운영 문서 [15건]

1	1841년 이정모(李貞模) 원안요람(院案要覽)	1841년	1책(109면)	1841년에 작성된, 병산서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건
2	1853년 병산서원 원안요람(院案要覽)	1853년	1책(103면)	1853년에 작성된 병산서원 원안요람
3	1883·1896년 병산서원 원안요람(院案要覽)	1883년 1896년	1책(116면)	병산서원 원안요람으로, 1883년에 작성된 후 1896년에 수정됨
4	1718년 병산서원 기사(屏山書院記事)	1718년	1책(12면)	병산서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절·절목 등을 수록한 문건
5	1592년 이전 ~ 1640년 병산서원 원임록(院任錄)	1592~ 1640년	1책(25면)	원장과 재유사 등 병산서원의 운영을 담당했던 임원들의 명단. 1592년 이전부터 1640년까지 임원 명단 수록.
6	1652~1672년 병산서원 원임록(院任錄)	1652~ 1672년	1책(30면)	1652년부터 1672년까지 병산서원 임원 명단
7	1592년 이전 ~ 1807년 병산서원 원임록(院任錄)	1592~ 1807년	1책(238면)	1592년 이전부터 1807년까지 병산서원 임원 명단
8	1592년 이전 ~ 1716년 병산서원 원임록(院任錄)	1806년	1책(78면)	1592년 이전부터 1716년까지 병산서원 임원 명단
9	1717~1806년 병산서원 원임록(院任錄)	1806년	1책(89면)	1717년부터 1806년까지 병산서원 임원 명단
10	1807~1885년 병산서원 원임록(院任錄)	1807~ 1885년	1책(76면)	1807년부터 1885년까지 병산서원 임원 명단
11	1887~1918년 병산서원 원임록(院任錄)	1887~ 1918년	1책(67면)	1887년부터 1918년까지 병산서원 임원 명단
12	1955~1972년 병산서원 원임록(院任錄)	1955~ 1972년	1책(78면)	1955년부터 1972년까지 병산서원 임원 명단
13	1863년 이계로(李啓魯) 상소(上疏)	1863년	1책(9면)	이계로가 병산서원의 사액을 요청한 상소
14	갑오년 풍산서당(豊山書堂) 통문(通文)	미상	1장(날장)	풍산서당 회중(會中)에서 병산장무(屏山掌務)에게 발급한 통문
15	호계서원(虎溪書院) 묘내척량도(廟內尺量圖)	미상 (1620년경)	1장(날장)	호계서원(虎溪書院) 사당의 규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문건

순	자료명	연도	책수 (장/면수)	내용
---	-----	----	--------------	----

2. 강학 문서 [4건]

1	1718년 병산서원 입원록(入院錄)	1718년	1책 (248면)	병산서원에 들어와서 공부한 원생의 명단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수록
2	1781~1782년 병산서원 거재안(居齋案)	1781~ 1782년	1책(51면)	1781~1782년에 병산서원에서 거행된 강학회에 관한 내용 수록
3	1789년 병산서원 강안(講案)	1789년	1책(16면)	1789년 2월과 4월에 병산서원에서 거행된 강학회에 관한 내용 수록
4	용정대책(龍庭對策)	미상	1책(52면)	과거시험에 합격한 대책문들과 조경의 상소문을 베껴 놓은 문건

3. 제향 문서 [10건]

1	1610~1614년 병산서원 봉안록(奉安錄)	1610 ~1614년	1책(44면)	1610년부터 1614년까지 류성룡의 위패를 병산서원에 봉안한 과정에 관한 내용 수록
2	1614~1639년 병산서원 춘추향사 집사분정기(春秋享祀執事分定記)	1610 ~1614년	1책(65면)	1614~1639년에 병산서원에서 거행된 향사에서 집사관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
3	1658~1664년 병산서원 향사집사 분정(享祀執事分定)	1658 ~1664년	1책(46면)	1658~1664년에 병산서원에서 거행된 향사에서 집사관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
4	1666~1698년 병산서원 집사록(執事錄)	1666 ~1698년	1책(153면)	1666~1698년에 병산서원에서 거행된 향사에서 집사관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
5	1723~1735년 병산서원 집사록(執事錄)	1723~ 1735년	1책(90면)	1723~1735년에 병산서원에서 거행된 향사에서 집사관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
6	1823~1826년 병산서원 분향록(焚香錄)	1823~ 1826년	1책(86면)	1823~1826년에 병산서원에서 분향한 사람들의 명단
7	1615·1617년 병산서원 제기(祭器)	1615년 1617년	1책(6면)	1615년과 1617년에 병산서원 소장 제기를 인수인계하면서 작성한 문건
8	병산서원 제수물목(祭需物目)	미상 (1662년 이후)	1책(6면)	병산서원 제향에서 사용한 제수물품 내역을 기록한 목록
9	1629년 정경세(鄭經世) 제문(祭文)	1629년	1책(16면)	1629년 류성룡의 위패를 병산서원으로 환안할 때의 제문
10	1719년 병산서원 제문(祭文)	1719년	1책(17면)	병산서원에 제향된 류성룡과 류진에게 올린 제문을 기록해 놓은 문건

순	자료명	연도	책수 (장/면수)	내용
---	-----	----	--------------	----

4. 경제 문서[8건]

1	정해년 병산서원 전여기(傳與記)	1647~1668년	1책(27면)	1647년부터 1668년 사이에 병산서원의 신·구 임원들이 주고받은 인수인계 문서 15건 수록
2	1663년 병산서원 노비안(奴婢案)	1663년	1책(12면)	1663년 병산서원 소속 노비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
3	1666~1669년 병산서원 노비안(奴婢案)	1666~1669년	1책(38면)	1666~1669년 병산서원 소속 노비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
4	1738년 병산서원 노비안(奴婢案)	1738년	1책(29면)	1738년 병산서원 소속 노비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
5	1739년 병산서원 원노비 추쇄안(院奴婢推刷案)	1739년	1책(19면)	1739년 병산서원 소속 노비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 1679년 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6	1750년 병산서원 원노비 추쇄안(院奴婢推刷案)	1750년	1책(25면)	1750년 병산서원 소속 노비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
7	1756년 병산서원 원노비 추쇄안(院奴婢推刷案)	1756년	1책(26면)	1756년 병산서원 소속 노비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
8	1762년 병산서원 노비안(奴婢案)	1762년	1책(16면)	1762년 병산서원 소속 노비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

○ 서애가(西厓家)의 역사 [11건]

1	1598~1674년 병산서원 제물 의식(祭物儀式)	1598~1674년	1책(16면)	서애 종가의 제향 의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문건. 서명은 ‘병산서원’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서애가 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1634년 상대계첩(霜臺契帖)	1634년	1책(6면)	1634년에 거행된, 사헌부 감찰 역임자들의 계회(契會)에 관한 기록. 참석자 중에 류원지가 포함되어 있음.
3	1634년 상대계첩(霜臺契帖)	1634년	1책(6면)	
4	1634년 상대계첩도(霜臺契貼圖)	1634년	1책(6면)	
5	1674년 상대계첩(霜臺契帖)	1674년	1책(6면)	1674년에 거행된, 사헌부 감찰 역임자들의 계회(契會)에 관한 기록. 참석자 중에 류원지가 포함되어 있음.
6	1731년 상대계첩(霜臺契帖)	1731년	1책(5면)	1731년에 거행된, 사헌부 감찰 역임자들의 계회(契會)에 관한 기록. 참석자 중에 류성화가 포함되어 있음.
7	1731년 상대계첩(霜臺契帖)	1731년	1책(5면)	
8	1691년 정무서(鄭武瑞) 등 변무록(辨誣錄)	1731년	1책(58면)	1691년에 전라도 유생 정무서가 올린 상소 및 관련 기록들을 수록한 문건. 류성룡이 기축옥사 당시 이발 모자의 죽음에 동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무하는 내용 포함되어 있음.
9	17세기 중반 김응조(金應祖) 변무록(辨誣錄)	미상 (17세기 중반)	1책(26면)	김응조가, 류성룡에 대한 ‘주화오국(主和誤國)’ 비판에 대해 변무한 글
10	1771년 류규(柳[?+奎]) 상량문(上樑文)	1771년	1장(날장)	류규가 지은 충효당의 상량문
11	시문(詩文)	미상	2장(날장)	김성탁의 「아유가(我有歌)」 및 류성룡과 관련이 있는 정약용의 시문 2편을 베껴 놓은 문건

순	자료명	연도	책수 (장/면수)	내용
---	-----	----	--------------	----

○ 안동의 사회와 문화 [9건]

1	유중하(柳重河) 상소(上疏)	1619년	1장(날장)	조정에서 추진하는 액외 유생(額外儒生) 충군(充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상소
2	1589년 풍산현(豊山縣) 향록(鄉錄)	1589년	1책(33면)	1589년 안동 풍산현의 향안을 후대에 필사한 것. 필사연대는 미상.
3	1598~1607년 동안(洞案)	1598~ 1607년	1책(9면)	안동 지역에 거주하던 양반들의 동안
4	1639·1642·1646년 계약(契約)	1639·1642· 1646년	1책(15면)	17세기 중반 안동 지역에서 결성된 동계(洞契) 관련 문서 수록
5	계약(契約)	미상 (17세기 후반)	1책(10면)	17세기 후반 안동 지역에서 결성된 동계(洞契) 관련 문서 수록
6	1804~1811년 병산서원 경로회안(慶老會案)	1804년, 1807~ 1811년	1책(68면)	안동의 속현인 풍산현의 경로회(慶老會)에 입록된 사람들의 명단
7	1897년 망기(望記)	1897년	1장(날장)	경광단소(鏡光壇所) 도유사(都有司)를 추천한 내용 수록
8	임술년 재사동완문(齋舍洞完文)	미상	1책(11면)	안동부사가 발급하고 재사동에서 수취한 완문. 류성룡의 분묘(墳墓)와 재사(齋舍)가 있는 지역을 재사동으로 독립시킨다는 내용 수록
9	무오년 각방잡물미수도중기(各房雜物未收都重記)	미상	1책(23면)	경상도의 송라도(松羅道)를 관할하던 지역에서 거두지 못한 각종 잡물의 내역을 정리해 놓은 문건

남겨진 문헌과 서원의 위상
기호예학의 산실 遯巖書院과 호남 유림의 거점 武城書院

이선아(전북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기호예학의 산실, 돈암서원
- III. 호남 유림의 거점, 무성서원
- IV. 맺음말

I. 머리말

2012년 우리나라의 서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발족되어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9개 서원을 신청하였다. 2019년에 이르러 9개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한국의 서원은 보편적, 세계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었다.²⁴⁷⁾ 이후 9개 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국의 서원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원 ‘기록물’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각지에 있는 서원 자료는 차치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문헌 자료도 여러 지역의 유관 기관 등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을 대상으로 서원 문헌 ‘아카이빙(archiving)’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카이빙’은 기록물을 파악, 수집, 분류, 관리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과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아카이빙은 기록화 사업의 고정된 결과물인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그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의 자산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아우른다.²⁴⁸⁾ 아카이빙의 사전적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장서각,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지방 문화원 등 유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서원 자료를 집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⁴⁹⁾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별 서원의 문헌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였다. 『돈암서원 고문서기록화사업 보고서』(충남 역사문화연구원, 2015)와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전북연구원, 2020),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247)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은 경상북도의 영주 소수서원·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경주 옥산서원·대구광역시 달성 도동서원, 경상남도의 함양 남계서원, 전라남도의 장성 필암서원, 전라북도의 정읍 무성서원, 충청남도의 논산 돈암서원이다.

248)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매뉴얼』, 2021.

249) 본고에서 검토할 돈암서원의 자료는 최근에 설립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집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성서원의 자료는 정읍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보고서』(전주대학교, 2020)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당 서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출간하였다.²⁵⁰⁾ 본고에서는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기초 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돈암서원과 무성서원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국정(國政)을 쇄신하며 서원을 궤멸할 때 충청도에서는 돈암서원과 노강서원(魯岡書院), 전라도에서는 무성서원과 필암서원(筆巖書院)이 존치되었다. 대대적으로 서원이 철폐되는 상황에서 존치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로 이해되었고, 그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존치된 서원의 문헌을 통해 서원의 위상과 그 현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기호예학의 산실, 돈암서원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은 서원과 사위의 철폐를 단행하여 47개소만 남기고 궤멸하였다. 충청도에는 돈암서원과 노강서원, 충주 충렬사(忠烈祠), 청주 표충사(表忠祠), 부여 창열사(彰烈祠)가 존치되었다. 이 가운데 돈암서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 되었다.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에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강학(講學)하던 양성당(養性堂)에 그의 제자들이 건립하였다. 1658년(효종 9)에 김장생의 아들이자 수제자 김집(金集; 1574~1656)이 추배되었고, 1660년(현종 원년)에 송준길(宋浚吉; 1606~1672)과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 호서 사림의 노력으로 사액(賜額)되었다. 1688년(숙종 14)에 송준길이 추향되었고, 1695년(숙종 21)에 송시열이 추향되었다. 1696년(숙종 22)에 화양서원(華陽書院)이 건립되기 전까지 호서를 대표하는 서원으로²⁵¹⁾ 경기의 석실서원(石室書院)과 호남의 고암서원(考巖書院)과 함께 노론 서원으로서 위상을 지켰다.

돈암서원 관련 문헌은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사업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돈암서원 소장 문헌뿐만 아니라 김장생과 김집 등 광산김씨 소장 문헌도 정리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책판으로 고서와 고문서 등 문헌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²⁵²⁾ 이러한 기존의 조사내용과 유관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돈암서원의 성격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²⁵³⁾

□ 정회당과 양성당 관련 문헌

돈암서원의 연원을 조명할 수 있는 정회당(靜會堂)과 양성당(養成堂)에 대한 문헌이 남아 있다. 정회당은 김국광(金國光; 1415~1480)의 5대손이자 김장생의 부친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세웠다.²⁵⁴⁾ 김계휘는 1549년(명종 4)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正

250)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아카이브에서 『돈암서원 고문서기록화 사업 보고서』(충남 역사문화연구원, 2015)와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보고서』(전주대학교, 2020)를 참고할 수 있다.

251) 이연숙, 「돈암서원의 건립과 성격」, 『민족문화의 제문제』,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1994 참고.

252) 돈암서원에 현존하는 책판은 1,839점으로 고서 11점, 고문서 76점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편이다.

김소희, 「논산 돈암서원 책판의 현황과 활용방안」, 『서지학연구』 87, 한국서지학회, 2021 참고.

253) 기존의 조사 내용과 유관기관의 자료를 검토하여 돈암서원과 관련된 문헌을 정리하였다. 총 167점의 문헌 가운데 강학 관련 문헌은 4점, 조직·운영 관련 문헌은 74점, 사회관계 문헌은 26점, 시문류 문헌은 9점, 장서·출판 문헌은 15점, 제향 문헌은 11점, 경제 문헌은 28점으로 확인되었다.<부록 1 참조> 이 가운데 돈암서원의 성격과 위상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에 초점을 맞춰 본고를 작성하였다.

字), 사관(史官), 부수찬(副修撰), 이조좌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1557년(명종 12)에 옥사에 연루되어 삭탈관직(削奪官職)과 문외출송(門外黜送)의 처벌을 받아 연산으로 낙향하여 대둔산(大屯山)에 있는 고운사(孤雲寺) 경내에 1560년(명종 15) 즈음에 서당을 건립하고²⁵⁵⁾ 정회당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후학양성과 향촌교화의 뜻을 세웠다. 김계휘는 1562년(명종 21)에 이조 정랑에 복직되었으나 부친의 상중이어서 출사하지 않고 연산에 머물면서 삼년상을 마쳤다. 낙향 후 다시 관직에 나가기까지 정회당에서 강학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회당과 관련된 자료는 「정회당 문회계안(文會契案)」, 『정회당지(靜會堂誌)』(1988), 「정회당 사적비 개요」(1988)가 있다. 『정회당지』에는 강규(講規)와 입의(立議)가 수록되어 있다. 강규는 「정회당 문회계안」에도 수록되어 있다. 『돈암서원지』(1958)에 「정회당 유안(儒案)」, 「정회당 유적(遺蹟)」이 수록되어 있다. 흩어져 있던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정회당지』(1988)를 편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정회당 관련 문헌

출처	제목
遯巖書院誌(1958)	靜會堂 儒案
	靜會堂 遺蹟
靜會堂 事蹟碑 概要(1988)	靜會堂 遺墟碑文
	靜會堂 事蹟碑文
	靜會堂 事蹟碑 建立 趣旨文
靜會堂誌(1988)	講規(今蹟)
	立議(今蹟)
	儒狀(古蹟)
	立議(古蹟)
	上樑文(今蹟)
	堂制(今蹟)
	靜會堂 契帖跋(今蹟)
	靜會堂 契帖序(今蹟)
	靜會堂 契案(今蹟)
	儒案(古蹟)
	重建記(今蹟)
靜會堂 文會契案	靜會堂 契案序
	講規
	立議
	座目

김장생은 서울 출신으로 1596년(선조 29)에 정산 군수를 마치고 연산으로 낙향하였다. 그는 정유재란 때 소실된 아한정(雅閑亭) 자리에 1602년(선조 35)에 초가(草家)를 짓고 당호를 ‘양성당(養性堂)’이라고 지었다. 양성당은 원래 최청강(崔淸江)이 소유한 아한정을 김장생의 큰할아버지 김석(金錫; 1499~1558)이 사들인 후 연산 광산김씨 소유의 정자가 되었다. 김석에게

254) 김장생의 집안에 대해서는 지두환, 「조선전기 사족세력의 형성과 변천-사계 김장생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9,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189~193쪽 참고.

255) 『정회당사적비개요』에 창건 428년에 편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560년에 건립하였다.

아들이 없어서 김장생의 작은 아버지 김은휘(金殷輝; 1541~1611)가 양자로 들어갔는데 역시 후사를 두지 못하여 그의 동생 김입휘(金立輝)의 아들 김선생(金善生; 1583~1623)이 입적하여 후사를 이었다. 이러한 혈연으로 김장생은 아한정에 출입하였을 것이다. 이곳에서 김장생은 1631년(인조 9) 84세에 영면하기 전까지 제자들을 양성(養成)하였다.²⁵⁶⁾ 양성당에 대해서는 『돈암서원지』에 「양성당후기」, 「양성당십영」, 「양성당기」, 「양성당중수기」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김장생의 문집 『사계전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 창건과 사액 관련 문헌

김장생의 제자들은 1632년(인조 10) 스승을 배향하는 사우를 건립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출문 유사(出門有司)와 열읍 유사(列邑有司)의 발의에 송준길과 송시열 등이 앞장섰다. 사우 건립을 위해 발송한 통문(通文)은 당시 27세의 청년 송준길이 작성하였다. 1633년(인조 11)에 사우를 건립하였는데,²⁵⁷⁾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상량문(上樑文)을 지었고, 봉안문(奉安文)은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이 지었다. 위패를 사당에 봉안할 때 작성한 유생도기(儒生到記)에는 유생 155명이 기재되어 있다. 1634년(인조 12) 8월에 문인인 장유(張維)가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완성했고, 이듬해에 김상헌이 묘지명(墓誌銘)을 지었다.

돈암서원 창건 당시에 생성된 통문, 상량문, 봉안문, 신도비명 등은 해당 문헌을 작성한 이들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958년에 편찬한 『돈암서원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표 2 돈암서원 창건과 사액 관련 문헌 목록

문서명칭	작성 시기	출처	작성자	비고
遯巖書院 創建通文	1632	『동춘당선생문집』 권16	송준길	한국고전번역원
創建 通文	"	『돈암서원지』(1958)	"	국립중앙도서관
上樑文	1634	『청음집』 제14권	김상헌	한국고전번역원
上樑文	"	『돈암서원지』(1958)	"	국립중앙도서관
神道碑銘	1634	『사계전서』 49권	장유	한국고전번역원
沙溪金先生神道碑銘	"	『계곡선생집』 제14권	"	"
遯巖書院講堂上樑文		『노서유고』 권16	윤선거	"
遯巖書院碑	1669	『사계전서』 권49부록	송시열	"
遯巖書院廟庭碑	"	『송자대전』 제171권	"	"
移建廟庭碑	1903	『연재선생문집』 권32 신도비	송병선	"
移建碑文	"	『돈암서원지』(1958)	"	국립중앙박물관

김장생 사후에 그의 아들 김집이 유지(遺志)를 받들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1656년(효종 7) 김집이 83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의 제자들은 1658년(효종 9)에 김집을 추배하였다. 이후 사액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는 송시열이 지었고, 예조에서 1658년 10월에 사액을 요청하는 계문을 올렸다.²⁵⁸⁾ 효종이 1659년 5월에 갑자기 승하하여 이듬해 1660년(현종 원년)에 사액되었다. 이때 사액의 제문은 조복양(趙復陽)이 지었다.

256) 임선빈, 「돈암서원의 건립배경과 사액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156~157쪽.

257) 1634년(인조 12)에 문인 이항길(李恒吉) 등이 원근에 사는 선비들과 함께 창립하여 완성되었다. 5월 정해일에 위패(位牌)모셨다.

258) 『서원등록』 효종 9년(1658) 10월 27일

이후 돈암서원에는 김장생과 김집의 학통을 계승한 송준길과 송시열이 추향되었다. 송준길은 사후 16년이 지난 1688년(숙종 14)에 추향되었고, 1689년(숙종 15)에 사망한 송시열은 1695년(숙종 21)에 추향되었다. 송준길과 송시열의 추향은 돈암서원의 성격과 위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표 3 돈암서원 추향 관련 문헌

문서명칭	작성연대	소장처	내용
奉安時儒生案	1658	돈암서원 소장	김집 추향 참석자 명단/ 332명 수록
院中舊蹟	1688	돈암서원 소장	송준길 추향 참석자 명단/ 180명 수록

□ 제향과 강학 관련 문헌

서원의 주요 기능은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이다. 돈암서원의 제향에 대한 자료는 주로 김장생의 문하, 송준길·송시열·이유태·조복양·유계를 비롯한 산림과 그의 후손과 후학이 남긴 자료가 많다. 주요 인물이 남긴 자료는 『돈암서원지』에 수록되었고, 『사계전서』와 개인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돈암서원 강학과 관련하여, 1646년(인조 24) 6월에 송시열·이유태·윤원거·윤선거 등이 돈암서원에 모여 10일간 강론하였으며, 김집은 1647년(인조 25)에 의례도(儀禮圖)를 강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강학을 하였다는 것은 확인되는데 원규(院規)나 학규(學規)는 전해지지 않는다. 당시 서인계 서원은 이이가 지은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와 「문헌서원학규(文獻書院學規)」를 기본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돈암서원의 규정도 비슷하였을 것이며, 『정회당지』에 수록된 「입의(立議)」, 「강규(講規)」, 「절목」도 유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⁵⁹⁾

서원의 조직은 원장(院長), 장의(掌議), 유사(有司), 직월(直月)로 구성되었다. 원장은 당대에 학덕으로 칭송받는 인물을 추대하였고, 장의·유사·직월은 원생(院生) 중에서 선출하였다. 『돈암서원지』에 수록된 「원장록」을 통해 송준길, 이재(李穡), 박필주(朴弼周), 이기진(李箕鎭), 민우수(閔遇洙), 유척기(兪拓基), 송환기(宋煥箕) 등이 원장을 역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대 원장은 송시열의 학파에서 배출되었고, 돈암서원 원장과 화양서원 원장을 겸임한 인물도 4명이 겹친다. 또한 송시열의 문인 가운데 김창협(金昌協)의 학맥이 운영했던 석실서원(石室書院)에서 배출한 인물이 많다.²⁶⁰⁾

표 4 돈암서원 재임안 목록

문서명칭	작성연대	소장처	내용
遯巖書院 齋任案	1738~1846	돈암서원 소장	1738~1846 돈암서원 재임 명단
遯巖書院 齋任案	미상	돈암서원 소장	장의·유사·직월 명단 일부 확인
遯巖書院 學契案	1886	돈암서원 소장	學契 운영 규칙/ 6개조 절목
遯巖書院 齋任錄	1990	돈암서원 소장	

259)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9 참고.

260) 김문준, 「돈암서원의 강학 활동」,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171쪽.

돈암서원 창건 직후 원장으로 재임한 송시열은 돈암서원 유생에게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하였다. 송시열의 문집 『송자대전』에 ‘답돈암원유(答遯巖院儒)’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표 5 돈암서원 운영 관련 문헌

문서명칭	출처	작성연대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67년 정미 4월 26일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69년 기유 1월 23일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72년 임자 6월 6일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72년 임자 10월16일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84년 갑자 2월 9일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86년병인 8월 16일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88년무진 3월 23일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미상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미상
書示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35	미상

돈암서원에서의 강회(講會) 기록은 1708년에 한 차례 나온다. 송시열·박세채의 문인 김간(金幹, 1646~1732)이 1708년에 연산현감으로 부임하여 수 차례 강회를 열었다. 김간은 자신이 강주(講主)가 되었고 강회에서 경사(經史)를 강독하였다. 강회 참석자는 연산 현내의 유생 뿐 아니라 연산 인근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때 김간은 매월 삭망(朔望)에 강당에 나아가 제생들과 읍례를 행하고 책을 주었으며 원규(院規)도 제정하였다. 이 원규도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²⁶¹⁾

□ 예학 관련 문헌

김장생은 송익필(宋翼弼; 1534~1599)과 이이(李珥; 1536~1584)에게 성리학과 예학을 배우고 계승한 조선 예학의 대가이다. 저서로는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집람(家禮輯覽)』, 『전례문답(典禮問答)』, 『의례문답(疑禮問答)』 등 예에 관한 것과,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경서변의(經書辨疑)』와 시문집을 모은 『사계선생전서(沙溪先生全書)』가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론서는 1583년(선조 16) 그의 나이 36세에 편찬한 『상례비요』이다. 『상례비요』는 신의경(申義慶)이 『가례』의 상례편(喪禮篇)을 보완하여 편찬하였는데 김장생이 여러 부분을 증보하고, 참고하기 편하게 재편집하였고, 김집이 다시 교정하여 간행하였다.

『가례집람』은 1599년(선조 32) 52세에 완성된 예서이다. ‘집람’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가(諸家)의 설을 모아 조목별로 해석을 붙이면서 장구(章句)를 구분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해 넣어 편찬하였다. 김장생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어 붙여서 마침내 완성된 책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경서변의』는 1618년(광해 10) 그의 나이 71세에 편찬하였다.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서전』, 『주역』, 『예기』 순서로 엮어져 있는데 경서를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경전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학설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을 메모하여 연구 자료로 삼았던 것을 책으로 엮었다.

261) 김문준, 위의 논문, 2018, 195쪽.

김장생의 저술은 경신환국 이후 서인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1685년(숙종 11)부터 본격적으로 간행되었다. 숙종이 교서관(校書館)에 명령하여 『경서변의』, 『가례집람』, 『의례문해』 등이 차례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김장생의 예서는 돈암서원의 주요한 자산이었다. 돈암서원에 서도 자체적으로 책판을 제작하였고, 책판을 보관하기 위한 장판각을 지었다.²⁶²⁾

표 6 돈암서원 책판 목록²⁶³⁾

관련인물	책명	간행시기	분량
김장생	『經書辨疑』	1666	7권 3책
	『家禮輯覽』	1685	10권 6책(圖 1책 포함)
	『喪禮備要』	1685	1책
	『사계유고』	1688	13권 5책
	『沙溪先生年譜』	1792	1책
	沙溪全書	1922	51권 7책
	『沙溪全書續』	20세기초	5권 2책
김집	疑禮問解 三	未詳	4권 4책
	『愼獨齋遺稿』	1710	15권 7책
	『愼獨齋年譜』	1871	2권 1책
	『愼獨齋全書』	1922	20권 9책
김계휘	『황강실기』	1734	5권 1책

1796년(정조 20) 왕명에 따라 서유구(徐有渠)가 편찬한 『누판고』에는 전국 82개 서원에 소장된 184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는데, 돈암서원은 예산 도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성주 호연서원, 니성(尼城) 노강서원 다음으로 많은 책판을 보유하고 있다.

□ 재정과 운영 관련 문헌

19세기말 돈암서원의 재정에 관한 자료로 「학계절목(學契節目)」, 「구재절목<鳩財節目>」이 있다. 「학계절목」은 1886년 충청관찰사로 부임한 심상훈(沈相薰)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를 설치하며 작성한 절목이며, 「구재절목」은 1903년 연산 군수로 부임한 이중익(李重翼)이 추향에 참여하고 강학한 뒤, 강학 비용을 마련해 주면서 작성한 절목. 이에 대한 전말을 기록한 ‘제응도당벽우(題凝道堂壁右)’가 응도당에 걸려 있다.

이외에 『돈암서원전답양안(遡巖書院田畝量案)』, 『원중도지기(院中賭地記)』 등이 남아 있어 1880년대 돈암서원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²⁶⁴⁾

262) 돈암서원의 장판각은 통풍이 잘 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구조적으로 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닥을 기초면에서 이격시켜 마루를 처리되어 있다. 건물내 창은 통풍을 고려하여 설치하지만 이 건물에는 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장판각은 1974년과 1988년에 작은 보수가 있었으며 1998년 국비와 도시비를 통해 해체·보수하였다. 규모와 양식은 이전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으며 실내에 수납을 위해 철제 수납기재가 설치되어 있다.

263) 김소희, 앞의 논문, 2021, 133~134쪽 재인용.

264) 이철성, 「1880년 논산 돈암서원의 이건과 재원확보」, 『역사와 담론』 88, 호서사학회, 43~48쪽.

표7 돈암서원 경제 관련 문헌 목록

문서명칭	작성연대	내용	소장처
備品簿 遯巖書院	미상	備品原簿	
賭租記	미상	무인년 賭租記	
齋中記簿	무오 3월	돈암서원 보관 서책, 제기 목록	돈암서원 소장
節目	1892.02	제향과 강학 기반 재정비	돈암서원 소장
遯巖書院 田畝改量案	1781/1798	서원 전답 현황 총록	돈암서원 소장
院中賭支記	미상	무오년 賭支	돈암서원 소장

Ⅲ. 호남 유림의 거점, 무성서원

조선시대 무성서원은 태인현에 위치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정읍에 편제되어 현재는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해 있다. 신라 말에 태산 태수에 부임한 최치원(崔致遠; 857~?)과 조선 명종대 태인현감에 제수된 신잠(申潛; 1491~1554)을 비롯하여 정극인(丁克仁), 송세림(宋世琳; 1479~), 정언충(鄭彦忠; 1491~1557), 김약묵(金若默; 1500~1558), 김관(金灌; 1549~1622)을 배향한 서원이다. 무성서원은 1968년에 사적 제166호에 지정되었고, 201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9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전국 47개소 원우(院宇)를 제외하고 훼철되었으나, 무성서원은 유종(儒宗)을 배향한 서원으로 존치되었다. 거국적인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무성서원이 존치되었다는 사실(史實)에 기인하여 무성서원의 역사적 비중과 무게는 달라졌다. 서원철폐 이후 1872년부터 20여 차례 강습례(講習禮)를 실시하여 호남의 유림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의 여론을 모아 공론화하는 장으로서 무성서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사변 이후 의병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무성서원의 유림의 거점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점차 호남의 수원(首院)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러한 무성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자료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었다. 무성서원 관련 자료에 대해서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태인지역 역사문화유산 조사’와 2009년 ‘문화재청의 비지정동산문화재 조사사업’을 비롯하여 공주대산학협력단과 전북대박물관 등에서 조사하였다. 2020년 전북연구원에서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여 무성서원의 유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통계적 분석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에 전주대학교에서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무성서원에 소장된 자료 및 관련 자료가 정리되었다.²⁶⁵⁾

265) 기존의 조사 내용과 유관기관의 자료를 검토하여 무성서원과 관련된 문헌을 정리하였다. 총 197점의 문헌 가운데 조직·운영 관련 문헌은 58점, 사회관계 문헌은 95점, 제향 관련 문헌 5점, 경제 관련 문헌 13점, 시문류 문헌은 25점, 기타 1점으로 확인되었다. 무성서원과 관련된 문헌은 대부분 서원철폐 이후에 호남 유림의 거점으로 공적 논의를 위한 통문(通文)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부록 2 참조> 이 가운데 무성서원의 성격과 위상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에 초점을 맞춰 본고를 작성하였다.

□ 창건과 사액 관련 문헌

무성서원에 배향된 최치원은 경주 출신으로 12세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遊學)하여 빈공시(賓貢試)에 장원급제하여 관리로 복무하다가 885년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신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폐쇄적인 골품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외직(外職)에 전전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 34세되던 890년에 태산군(太山郡) 태수(太守)로 부임하였다. 태산군은 백제의 대산군(大尸山郡)이었는데 신라 통일 이후에 개칭하였다. 태수로 부임하였던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고려시대에 태산 사람들은 최치원을 모시는 사우를 성황산 서쪽 능선에 있는 월연대(月延臺) 아래에 세우고 태산사(泰山祠)라고 이름짓고, 그를 고을의 성황신으로 모셨다.

태산사가 서원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1615년(광해 7)에 태산사에 모셔져 있던 최치원과 신잠(申潛, 1491~1554)을 합향하는 태산서원(泰山書院)에서 비롯되었다. 신잠의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신숙주의 증손자이며 조광조의 문인이었다. 1513년(중종 8)에 진사사에서 장원으로 입격하였고, 1519년(중종 14)에는 현량과에 천거되어 예문관 검열에 보임되었다. 그러다가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신잠은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운산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장흥부로 이배되어 17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1537년(중종 32)에 조정에서 경기도 양주에 옮겨 살도록 허락하여 아차산 아래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되었다. 1543년(중종 38)에 천거로 사옹원(司饔院) 주부(主簿)에 임명하였다가 다시 고을 수령에 제수되어 태인 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유배에서 풀려나 지방관에 임명된 신잠은 향약(鄉約)을 실시하고 향학당(鄉學堂)을 건립하는 등 태인의 유학을 진작(振作)하였다. 크게 감화된 태인현 사람들은 그의 유임(留任)을 탄원하였고, 신잠은 6년 동안이나 태인 현감으로 재임하며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태인 사람들은 태수와 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 최치원과 신잠을 합향하는 태산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러다가 1630년(인조 8)에 정극인·송세림·정언충·김약목을 추향하였고, 1675년(숙종 원년) 김관을 추향하였다.

서원이 건립된 지 80여 년이 지나고, 현종대에 예송을 거치면서 서인이 갑술환국으로 정치권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1695년(숙종 21)에 전라도 유생 202명이 참여하여 청액을 위한 상소를 올리기로 발의하고, 1696년(숙종 22)에 청액 상소를 올렸다. 사액 상소의 소두는 광주 출신의 생원 유지춘(柳之春)이었다. 그해 2월에 ‘무성(武城)’이라는 액호가 내려졌다. 무성과 함께 태산(泰山), 남천(藍川)이 거론되었는데 태인의 옛 지명이 무성이었고, 공자가 정치의 본령을 밝혔다는 제자 자유(子游)의 ‘무성 일화’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액을 받은 무성서원에는 복호(復戶) 3결과 보노(保奴) 30명이 지급되었다. 또한 서원의 원생은 30명으로 정해졌다. 사액서원 20명, 비사액서원 15명과는 달리 무성서원은 단순한 사액서원이 아니고,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된 유현(儒賢)을 배향한 서원이었기에 사액서원보다 더 많은 30명이 원생의 정원으로 정해졌다.²⁶⁶⁾

표 8 무성서원 창건과 사액 관련 문헌

문서명	출처	작성자	소장처	비고
請額疏	무성서원지(卷之一上)	송명연(宋明淵)	국립중앙도서관	소두 柳之春 글씨 金鼎三 (198명 연명)
請額事蹟	무성서원지(卷之一上)			

266)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 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참고.

□ 제향과 강학 관련 문헌

창건과 사액 이후 무성서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무성서원지』에 수록된 「갑을기사(甲乙記事)」, 「강습례절목(講習禮節目)」, 「강습례집사(講習禮執事)」, 「홀기(笏記)」, 「강습례도(講習禮圖)」 등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무성서원 강습과 관련하여 「갑을기사」에는 1872년 원장이었던 현감 조중식(趙中植)이 3월 3일과 9월 9일에 강습례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1873년부터 1880년까지 개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881년부터 중지되었다가 1891년과 1896년에 재개되어 총 20회의 강습례가 개최되었다.²⁶⁷⁾

무성서원이 사액된 시기는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 무성서원이 서인 노론의 지원 아래 사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무성서원의 운영과 강학 역시 서인 서원의 예를 준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표적인 서인 서원의 원규는 이이의 은병정사학규와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석실서원학규(石室書院學規) 등이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을 것이다.

□ 통문과 교유 관련 문헌

무성서원 소장 자료 가운데 『심원록』과 『봉심록』 등에는 전현직 관리와 배향인물의 후손 등 방문 명단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심원록』 5종, 『봉심록/안』 3종이 남아있다. 서원철폐 이전에는 『심원록』으로 작성하고 이후에는 『봉심록/안』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표 9 무성서원 심원록과 봉심록 목록

문서명칭	작성연대(추정)	소장처	비고
尋院錄	1612~1658	무성서원	태산서원
尋院錄	1738~1771	무성서원	
尋院錄	1780~1813	무성서원	1821/1828
尋院錄	1813~1831	무성서원	
尋院錄	1831~1879	무성서원	
奉審錄	1875~1915	무성서원	무성서원 참배자 명단
奉審錄	1933~1967	무성서원	
奉審案	1962~1974	무성서원	

『심원록』은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작성한 ‘방명록’이다. 방명록에는 거주지, 본관, 성명, 자(字), 생년간지, 방문날짜, 방문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무성서원의 『심원록』에 수록된 방문자는 1696년(숙종 22) 사액을 기점으로 평균 방문인원이 크게 늘고 1784년(정조 8) 최치원 영정을 쌍계사로부터 가져올 시기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확인이 되며 다른 시기에는 서원의 대소사에 따라 조금씩의 증감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²⁶⁸⁾ 서원철폐령 이후에는 『봉심록/안』이라는 이름으로 방문객의 기록을 남겼다.

서원철폐 이후 무성서원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치된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 위상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무성서원 관련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다.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에 따르면, 무성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89건의 문서 가운데

267) 박종배,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일고찰」,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28~129쪽,

268) 한종수, 「18~19세기 영광 정씨(靈光丁氏) 문중활동 연구 -무성서원 『심원록(尋院錄)』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5(1), 역사문화학회, 2022, 225~226쪽.

19세기 후반 이후에 작성된 문서는 111건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²⁶⁹⁾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효자와 열부(烈婦) 표창과 관련한 통문(通文)이 80여 점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이외에 19세기 이후에 생성된 절목(節目)과 완문(完文) 등이 남아 있다. 서원철폐 이후 1876년 개항,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구체제의 균열과 붕괴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대에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호남의 유림이 지향한 가치와 이념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운영과 재정 관련 문헌

서원철폐령 이전의 무성서원의 운영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적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존하는 무성서원 자료는 대부분 서원철폐 이후에 작성되었다. 사액되기 이전에 태산서원의 『원생안(院生案)』(1618)과 『원유안(院儒案)』(1620), 『유생안(儒生案)』(1622), 『원생안』(1639), 『원생안』(1659) 등이 현존한다.²⁷⁰⁾ 18세기에 작성된 무성서원 『원생안』(1740)과 『원생안』(1773)도 남아 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1825년(순조 25)에 화재로 강당이 불탔으나 1828년(순조 28) 현감 서호순(徐灝淳)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을 했으며, 1834년(헌종 1) 최치원의 문집인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이 다시 간행되었을 때에는 일부를 보관하기도 했다.

재정과 관련해서 일제 강점기에 서원운영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무성서원 모현계안(慕賢稷案)』(1932·1933)과 『무성서원 수지부(收支簿)』, 『무성서원 향수전식본기(享需錢殖本紀)』, 『추감기(秋監記)』(1922), 『무성서원 향수계안서(享需稷案序)』 등이 남아 있다.

표 10 무성서원 경제·치부 관련 목록

문서명칭	출처
本院所有田畝案	무성서원지(卷之一下)
各邑例賻記	무성서원지(卷之一上)
學田事實	무성서원지(卷之一上)
復戶保奴事實	무성서원지(卷之一中)
復戶保奴還復記	무성서원지(卷之一中)
偷塚掘移事實	무성서원지(卷之一中)
作脯事實	무성서원지(卷之一中)

IV. 맺음말

2012년 우리나라의 서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발족되어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9개 서원을 신청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 9개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후 9개 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국의 서원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원 ‘기록물’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장서각,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지방 문화원 등 유관기관 등에 흩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관

269) 전북연구원,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82쪽.

270) 조사 보고서에 따라 그 명칭이 원유안, 원생록, 유생록 등으로 혼용되거나 작성 시기에 차이가 있다.

기관에 산재한 문헌과 기존의 기초적인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돈암서원과 무성서원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은 서원과 사우의 철폐를 단행하여 47개소만 남기고 훼철하였다. 충청도에는 돈암서원과 노강서원, 충주 충렬사(忠烈祠), 청주 표충사(表忠祠), 부여 창열사(彰烈祠)가 존치되었다. 이 가운데 돈암서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 되었다.

돈암서원은 김장생이 강학하던 양성당과 그의 부친 김계희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건립한 정회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회당과 관련된 자료는 「정회당 문회계안(文會契案)」, 『정회당지(靜會堂誌)』(1988), 「정회당 사적비 개요」(1988)가 있다. 『정회당지』에는 강규(講規)와 입의(立議)가 수록되어 있다. 강규는 「정회당 문회계안」에도 수록되어 있다. 『돈암서원지』(1958)에 「정회당 유안(儒案)」, 「정회당 유적(遺蹟)」이 수록되어 있다. 흩어져 있던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정회당지』(1988)를 편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돈암서원 창건과 사액 과정에서 생성된 통문, 상량문, 봉안문, 신도비명 등은 해당 문헌을 작성한 이들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돈암서원의 제향에 대한 자료는 주로 김장생의 문하, 송준길·송시열·이유태·조복양·유계를 비롯한 산림과 그의 후손과 후학이 남긴 자료가 많다. 특히 돈암서원 창건 직후 원장으로 재임한 송시열은 돈암서원 유생에게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하였다. 송시열의 문집 『송자대전』에 ‘답돈암원유(答遯巖院儒)’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개인 문집 등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전국 47개소 원우(院宇)를 제외하고 훼철되었으나, 무성서원은 유종(儒宗)을 배향한 서원으로 존치되었다. 거국적인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무성서원이 존치되었다는 사실(史實)에 기인하여 무성서원의 역사적 비중과 무게는 달라졌다. 서원철폐 이후 1872년부터 20여 차례 강습례(講習禮)를 실시하여 호남의 유림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의 여론을 모아 공론화하는 장으로서 무성서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사변 이후 의병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무성서원의 유림의 거점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점차 호남의 수원(首院)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서원철폐 이후 무성서원의 위상이 변화하였다는 것은 현존하는 문헌 대부분이 19세기 후반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짐작된다. 특히 효자와 열부(烈婦) 표창과 관련한 통문(通文)이 80여 점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서원철폐 이후 1876년 개항,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구체제의 균열과 붕괴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대에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호남의 유림이 지향한 가치와 이념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영진, 「16~17세기 예학의 지역적 분화과정과 그 특징」, 『국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2008.
- 권이선·박정민, 「무성서원지의 체제와 특징 - 1884년본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37, 2021.
- 김명자, 「『심원록(尋院錄)』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방문과 그 의미」,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김문준, 「기호예학의 특성과 방향」 『동양철학연구회』 39, 동양철학연구회, 2004.
- , 「돈암서원의 강학 활동」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 김상기, 「崔益鉉의 定山 移住와 泰仁義兵」, 『충청문화연구』 7,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1.
- 김소희, 「논산 돈암서원 책판의 현황과 활용방안」 『서지학연구』 87, 한국서지학회, 2021.
-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 김현수, 「기호예학의 형성과 학풍 - 율곡, 구봉의 특징과 전승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2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1.
- 도민재, 「기호학파의 『주자가례』 수용양상」, 『국학연구』 16, 한국국학진흥원, 2010.
- 박정민,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박종배,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일고찰」,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2), 교육사학회, 2009.
- 배상현, 「기호예학의 성립과 발전」, 『유학연구』 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4.
- 안다미, 「『私設』 논의를 통해 본 서원철폐령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7, 조선시대사학회, 2021.
- 유철노, 「기호학의 특성과 전망」, 『동양철학연구』 39, 동양철학연구회, 2004.
- 윤희면,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0,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 , 「조선시대 서원 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181, 역사학회, 2004.
- 이경동,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 遯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이연숙, 「조선시대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서원건립」, 『민족문화논총』 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 이철성, 「1880년 論山 遯巖書院의 移建과 재원확보」, 『역사와 담론』 88, 호서사학회, 2018.
- 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한국서원연합회.
- ,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 - 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 「遯巖書院의 건립배경과 賜額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 진성수,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원규」, 『유학연구』 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 한문종, 「전북 지방의 서원·사우에 대한 試考 -『전북원우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5, 전라문화연구소, 1992.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 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 , 「조선시대 예학의 난제들과 학파간 교섭을 통한 예학의 생태계 형성」, 『동방학지』 19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 한종수, 「18~19세기 영광 정씨(靈光丁氏) 문중활동 연구 -무성서원 『심원록(尋院錄)』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5(1), 역사문화학회, 2022.
- 황의동, 「기호유학에서 金長生, 金集의 성리학적 위상」, 『대동철학』 53, 대동철학회, 2010.

※ 부록

● 돈암서원 관련 문헌 목록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1	강학	養性堂記	1602	1602년 김장생이 연산 임리에 건립한 양성당을 기념하여 지은 기문, 『사계전서』 권5 수록
2	강학	養性堂記	1603	정엽이 지은 기문, 『수몽집』 권3 수록
3	강학	養性堂後記	1883	김장생의 9대손 김상현이 지은 기문
4	강학	養性堂移建記	1978	1969년에 양성당을 이건하고 그 내력 등에 대해 기록
5	조직·운영	創建通文	1632	동춘당선생문집 권16
6	조직·운영	院規	미상	돈암서원 원규 기재, 『돈암서원지』(1958) 수록
7	조직·운영	院長錄	미상	돈암서원 원장 명단 기재, 『돈암서원지』(1958)
8	조직·운영	院中舊蹟	戊辰(1688)	돈암서원에 송준길을 봉안할 때 참석한 유생 명단 총 180명의 관직, 이름, 자와 생년, 출신지 수록
9	조직·운영	遯巖書院 可考續錄	壬戌	서원 창건 의미와 서적·판본의 관리, 유생 관련 규정
10	조직·운영	遯巖書院 齋任案	1738~1846	1738년부터 1846년까지 108년 동안 돈암서원 재임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
11	조직·운영	遯巖書院 重修記	1955	돈암서원 중수 연혁과 방명록 기록
12	조직·운영	遯巖書院 奉審錄	乙亥年(1995)	遯巖書院 방문자 명단(성명, 본관, 생년, 주소 등 기록)
13	조직·운영	遯巖書院 崇慕禊案	未詳	禊案(道知事 金寬鉉~崔益求를 비롯하여 忠淸道와 全羅道 등 全國各地記錄 명단)
14	조직·운영	遯巖書院 齋任案	丁酉	정유년 춘향시 명부(掌議 金琦淳, 有司 金箕杓 趙秉學)
15	조직·운영	遯巖書院 學契案	丙戌(1886)	돈암서원 학계 조직 및 운영규칙 6개조 절목. 매년 1회 향음주례후 강회 개최, 운영비용, 임원선발, 서책관리 등에 관한 항목 정리.
16	조직·운영	營建時 上方伯書		유즙(柳楫)이 영건 관련하여 관찰사에 올린 상서, 『백석유고』 권2 수록
17	조직·운영	連山遯巖書院	1633	돈암서원 건립 당시 대들보를 올리면서 쓴 글로, 이 서원이 유학의 전통을 잇고 수 많은 학자와 선비들을 배출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18	조직·운영	奉安時 儒生案	戊戌(1658)	愼獨齋 金集을 추배할 당시 참석한 유생 명단 총 323명의 官職과 이름, 生年과 字, 출신지 수록
19	조직·운영	連山縣 齋任錄	未詳	
20	조직·운영	連山縣 儒案	1654(순치 11)	連山縣의 유생 명단[儒案]/ 『돈암서원지』(1958)
21	조직·운영	連山縣 靑衿錄	1656(순치13)	順治 13년에 작성한 連山縣 靑衿錄/ 총88 명 수록
22	조직·운영	奉審錄	未詳	1책 丙辰 12월. 文敬公 9代孫 金永宗부터 文元公外 10世孫 李春淵 奉審 2책 丁未 4월부터 경술 12월까지 기록
23	조직·운영	芳名錄(乙亥月日)	乙亥(1995)	1995년 5월 24일 ~ 1997년 2월 1일까지 기재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24	조직·운영	芳名錄(戊寅月日)	戊寅(1998)	1998년 5월일 ~ 1999년 8월 11일까지 기재 唐津郡 宗親會長 金鍾洙 外 39名 기재
25	조직·운영	山仰樓重建上探文	2006	외삼문 박 산양루 중건 기문
26	조직·운영	崇慕禊案	1957(단기4290)	崇慕禊復設 序文과 楔案
27	조직·운영	崇慕契員名單(一)	20세기	돈암서원 송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 기재/연산, 논산, 공주 등에 거주하는 계원
28	조직·운영	崇慕契員名單(二)	20세기	돈암서원 송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 기재/ 연산에 사는 광산김씨
29	조직·운영	崇慕契員名單(三)	20세기	돈암서원 송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 기재/ 논산, 공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계원
30	조직·운영	崇慕契員名單(四)	20세기	돈암서원 송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 기재/ 서울, 대전 등에 거주하는 계원
31	조직·운영	十六代孫[置簿記]		참석자 명부(17代孫 金友鉉 ~ 22代孫 金善學까지 기록)
32	조직·운영	孔孟程朱之道	1988	후손 金永玩이 돈암서원의 연혁과 의미, 사계 김장생의 행적 등 기록
33	조직·운영	遯巖書院 到記	癸丑~癸亥	齋任會, 院長, 有司, 掌議, 直月, 儒林 등 명단 기재
34	조직·운영	遯巖書院 到記	甲戌~壬子	春享 참여 명단 기재
35	조직·운영	到記 壬寅十月四日	壬寅	참석자 명부(16代孫 金在格 ~ 22代孫 金善景까지 기재)
36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檀享 庚戌十月初四日	庚戌	참석자 명부(15代孫 金箕東 ~22代孫 金善文까지 기재)
37	조직·운영	到記 乙卯十月四日	乙卯	참석자 명부(7代孫 金貴鉉 ~ 21代孫 金洛中까지 기재)
38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檀享 丙辰十月四日	丙辰	참석자 명부(17代孫 金琦鉉 ~ 22代孫 金善俊까지 기재)
39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宗中 丁巳十月初四日	丁巳	참석자 명부(17대손 金樞鉉 ~ 22대 金善學까지 기재)
40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宗中 己未十月初四日	己未	참석자 명부(17代孫 金瑞鉉 ~ 22代孫 金善德까지 기록)
41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宗中 庚申十月初四日	庚申	참석자 명부(16代孫 金在坤 ~ 22代孫 金善景까지 기재)
42	조직·운영	到記 癸亥十月初四日	癸亥	참석자 명부(16代孫 金在甲 ~ 22代孫 金善景까지 기재)
43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檀享 甲子十月初四日	甲子	참석자 명부(17代孫 執禮 金英鉉 ~ 22代孫 初廩 金善景, 子孫外)
44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宗中 乙丑十月初四日	乙丑	참석자 명부(17代孫 金其鉉 ~ 22代孫 金善五까지 기재)
45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檀享 丙寅十月初四日	丙寅	참석자 명부(16代孫 17代孫 金琪鉉 ~ 22代孫 宗孫 金善景까지 기재)
46	조직·운영	到記 己巳十月四日	己巳	참석자 명부(16代孫 金在華 ~ 23代孫 金錫淳까지 기재)
47	조직·운영	到記 庚午二月以降	庚午	春享 참석자 명부(경오에서 병자년 2월 13일까지 기재)
48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宗中 庚午十月初四日	庚午	참석자 명부(16代孫 金在華 ~ 22代孫 金永元까지 기재)
49	조직·운영	到記 自辛未 二月十三日	辛未	辛未 2월 13일부터 己卯年 2월 19일까지 기재[院長 명단]
50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宗中 乙亥十月初四日 초4일	壬申	참석자 명부(16代孫 金在華 ~ 21代孫 金允中까지 기재)
51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檀享 癸酉十月初四日	癸酉	참석자 명부(16代孫 金在華 ~ 23代孫 金大淳까지 기재)
52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宗中 丙子十月初四日	丙子	참석자 명부(金允中 ~ 金鍾洙까지 기재)
53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派宗中 丁丑十月初四日	丁丑	참석자 명부(都有司 金永元 ~ 金允中까지 기재)
54	조직·운영	到記 戊寅十月初四日	戊寅	참석자 명부(金重鉉~金錫, 文元公十三代孫 金完中까지 기재)
55	조직·운영	到記 己卯二月十九日起	己卯	기묘 春享·秋享 참석자 명부 기재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56	조직·운영	到記 觀察使公宗中 辛未十月初四日	辛未	참석자 명부(16代孫 金在華 ~ 23代孫 金大淳까지 기재) 誠金錄 付記
57	조직·운영	到記 酌獻禮 壬午六月八日 獻誠錄	壬午	참석자 명부(崔根德 ~ 金永元까지 기재)
58	조직·운영	到記	未詳	金永元~金容槿까지 기록. 姓名, 居住地 기재
59	조직·운영	院誌創刊趣旨書		『돈암서원지(1958)』 수록
60	조직·운영	儒生到記		돈암서원지(1958)
61	조직·운영	壬戌八月七日 到記	壬戌~己巳	齋任會, 院長, 有司, 掌議, 直月, 유림 등 명단 기록
62	조직·운영	入禊抄錄 崇慕禊 丁酉 正月 日	丁酉	姓名, 本貴, 住所, 禊金, 年月日順으로 기재
63	조직·운영	齋任錄 遯巖書院	단기4323(1990)	遯巖書院 規約 및 齋任名簿
64	조직·운영	節目	1862	『정회당지』에 수록된 절목
65	조직·운영	節目	丁酉(1892)	돈암서원 운영 관련 절목/ 제향과 강학 기반 재정비
66	조직·운영	靜會堂文會契案	未詳	內題:靜會堂契帖 金題鉉 ~ 金在五까지 77명 기재
67	조직·운영	靜會堂儒案	未詳	儒案에 金殷輝~金振榮 등 105명 명단 수록
68	조직·운영	靜會堂遺蹟	未詳	金志洙 書
69	조직·운영	重修記	미상	『돈암서원지』(1958) 수록, 본군수 朴有鎭 찬
70	조직·운영	重要日誌 遯巖書院 辛卯正月日始	辛卯	辛卯 1월 4일부터 1993년 9월까지 기록
71	조직·운영	靑衿錄	辛卯(1891)	내제: 在任案 辛卯春享 崇禎五辛卯에서 癸未까지 春享 기록
72	조직·운영	請額疏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 『돈암서원지(1958)』 수록
73	조직·운영	請額疏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 『송자대전』 권21 수록
74	조직·운영	請額疏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 『사계전서』 권51 수록
75	조직·운영	通諭遯巖象賢滄洲竹林文		
76	조직·운영	獻誠錄 觀察使公宗中 壬申十月初四日以降	壬申	참석자 명부(金容舊 ~ 慕遠齋 宗中 기록)
77	조직·운영	獻誠錄 辛巳七月四日	辛巳	참석자 명부(光山金氏 宗親會 등)와 各派別로 낸 돈을 記錄함.
78	조직·운영	會議錄 壬戌六月一日	壬戌	齋任 會議錄(舊院長 金영원 ~ 奠爵 金容琬 奉燭)
79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미상	송시열에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송자대전』 권120 수록
80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1688	1688년 3월에 송시열이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송자대전』 권120 수록
81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1669	1669년 1월 송시열이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송자대전』 권120 수록
82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1667	1667년 4월에 송시열이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송자대전』 권120 수록
83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서원 이건 이후	서원 이건 이후에 송시열이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송자대전』 권120 수록
84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1672	1672년 10월에 송시열이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송자대전』 권120 수록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85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1672	1672년 6월에 송시열이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송자대전』 권120 수록
86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1720	1720년 8월에 권상하가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87	사회관계	答遯巖院生	1694	1694년 8월에 박세채가 돈암서원 원생에게 보낸 편지, 『남계선생박문순공속집』 권12 수록
89	사회관계	答遯巖院生	미상	10월 18일에 박세채가 돈암서원 원생에게 보낸 편지, 『남계선생박문순공속집』 권12 수록
90	사회관계	答遯巖院生	미상	10월 19일에 박세채가 돈암서원 원생에게 보낸 편지, 『남계선생박문순공속집』 권12 수록
91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1686	1686년 8월 송시열이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송자대전』 권120 수록
92	사회관계	答遯巖書院儒生書	1675	1675년 11월 이유태가 돈암서원 원생에게 보낸 편지, 『초려선생문집』 권20 수록
93	사회관계	答遯巖院儒	1684	1684년 2월에 송시열이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편지, 『송자대전』 권120 수록
94	사회관계	乙卯年光山金氏宗中簡札	乙卯	돈암서원 유생 유태환 등 14명이 김씨종중으로 보낸 간찰
95	사회관계	答李德善	未詳	덕선 李尙馨에게 보낸 답신을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
96	사회관계	洪友周 等狀	癸丑 1673	돈암서원 유생 홍우주 등 14인이 관찰사에게 보낸 등장
97	사회관계	都會所儒簡札	癸亥 1863	돈암서원 유생 金箕旭 등 11명이 광산김씨 종중으로 보낸 간찰
98	사회관계	遯巖書院齋儒簡札	癸亥 1863	돈암서원 齋儒 李濟元 등 24명이 광산김씨 종중으로 보낸 간찰
99	사회관계	遯巖書院簡札	계해 1863	돈암서원 金箕煒 등15명이 金碩士에게 보낸 간찰
100	사회관계	旌閭建立請願通文	갑자 1864	김재경 효자 정려 건립을 요청하는 통문으로 돈암서원에서 영의정에게 보내는 문서 피봉
101	사회관계	돈암서원에서 고산향교에 보낸 통문	1848	돈암서원에서 고산현의 국환성과 국송만 사우 중창 관련 고산향교에 보낸 통문
102	사회관계	돈암서원에서 정읍향교에 보낸 통문	1928	돈암서원에서 밀양박씨의 효열 闡揚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읍향교에 보낸 통문
103	사회관계	돈암서원에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928	돈암서원에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04	사회관계	憶沙溪先生有感	未詳	『돈암서원지』(1958) 수록
105	사회관계	書示遯巖院儒	未詳	송시열이 돈암서원 원유에게 보낸 서한, 『송자대전』 권135 수록
106	시문류	廟庭碑		송시열이 지은 묘정비문, 『송자대전』 권171 수록
107	시문류	書院碑		송시열이 지은 서원비문, 『사계선생유고』 권13 부록 수록
108	시문류	神道碑銘	미상	장유가 지은 신도비문, 『사계전서』 권49 수록
109	시문류	雅閑亭題詠	1881	아한정에 관한 김국광, 신숙주, 송익필 등의 시 수록, 『돈암서원지』(1958) 수록
110	시문류	養性堂十詠	未詳	松岡 李端夏, 黃赫, 張維, 梁慶遇의 글 수록
111	시문류	養性堂題詠	未詳	돈암서원의 연혁과 양성당 창건기록, 국내 명사들의 시문 수록
112	시문류	癡道堂柱聯	未詳	범준(范浚)이 지은 심잠(心箴)의 일부분
113	시문류	山仰樓柱聯	현대	소강절의 세한과 청야음 발췌 내용
114	시문류	移建碑		송병선이 지은 이건비문, 『사계전서』 권49 부록 수록 / 『연재선생문집』 권32 수록
115	장서·출판	『經書辨疑』	1666	책판, 7권 3책
116	장서·출판	『家禮輯覽』	1685	책판, 10권 6책(圖 1책 포함)
117	장서·출판	『喪禮備要』	1685	책판, 1책
118	장서·출판	『沙溪유고』	1688	책판, 13권 5책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119	장서·출판	『沙溪先生年譜』	1792	책판, 1책
120	장서·출판	沙溪全書	1922	책판 51권 7책
121	장서·출판	『沙溪全書續』	20세기초	책판, 5권 2책
122	장서·출판	疑禮問解 三	未詳	책판, 4권 4책
123	장서·출판	『愼獨齋遺稿』	1710	책판, 15권 7책
124	장서·출판	『愼獨齋年譜』	1871	책판, 2권 1책
125	장서·출판	『愼獨齋全書』	1922	책판, 20권 9책
126	장서·출판	『황강실기』	1734	책판, 5권 1책
127	장서·출판	遯巖書院誌 全	1958	
128	장서·출판	遯院藏書錄	未詳	99종의 서책, 고문서 등 목록 기재
129	장서·출판	藏板閣記	未詳	『돈암서원지』(1958) 수록
130	제향	本院察官錄庚申春享時	庚申~己巳	初獻, 亞獻, 終獻, 執禮 등 명단 기록
131	제향	遯巖書院 到記	丙申	春享 참석 명단 기록
132	제향	遯巖書院 用下記 附秋收記	己卯	有司 宋廷憲과 新任有司 李重奉鳳의 文簿引繼時 종이, 향, 복어, 석어 등 물품 기록
133	제향	遯巖書院 靑衿錄	癸卯	春享 참석 명단 기록.
134	제향	獻官錄 辛未二月十三日	辛未	춘향 참석자 명부(신미에서 갑오년 2월 17일까지 기록)
135	제향	鄉飲酒禮 笏記	未詳	향음주례 절차 기록. 設席陳器圖, 狗牲右體圖
136	제향	獻誠錄 己卯二月十九日	己卯	기묘 춘향 참석자 명부
137	제향	笏記	未詳	홀기, 춘추향사 축문, 方簾圓簾 등 기재
138	제향	望記	未詳	박해창을 석전제 헌관으로 천거하는 망기
139	제향	獻誠錄 乙丑八月十一日秋享	乙丑	秋享 참석자 명부(을축에서 무인년 8월 18일까지 기록)
140	제향	金長生文廟配享教旨	미상	『돈암서원지』(1958) 수록
141	경제	養性堂重修補助	1927	논산군 채운면 하리에 거주하는 申錫順이 양성당 중수시 보조한 기록
142	경제	養性堂重修補助	1927	양성당 중수시 기금을 낸 사람들의 성명, 거주지, 금액 기록
143	경제	養性堂重修記	1956	양성당 중수 기금 조성 내역과 관련 사실 기록
144	경제	救弊節目	미상	『돈암서원지』(1958) 수록
145	경제	學稷節目	1886	『돈암서원지』(1958) 수록
146	경제	鳩財節目	미상	『돈암서원지』(1958) 수록
147	경제	(무제)本院扶助記	20세기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연산을 비롯하여 익산, 정읍, 부여, 영암 등지]
148	경제	(무제)遯巖書院扶助錄	20세기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연산을 비롯하여 부여, 공주, 사천, 함양, 순창, 담양 등지]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149	경제	院中賭地記	1858년	돈암서원 賭地 관련 기재
150	경제	遯巖書院 戊戌 二月	戊戌年~	돈암서원 사용 물품과 지출 내역 기록 會計簿
151	경제	貿易記 觀察使公檀享 甲辰十月四日	甲辰	생밤, 은행, 배 등 물품목록
152	경제	本院扶助記	1925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남원, 나주, 익산, 강진 등지]
153	경제	本院扶助記	1923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남원, 나주, 익산, 강진 등지]
154	경제	本院扶助記	1924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나주, 익산, 강진 등지]
155	경제	題凝道堂壁右	1903	서원 운영에 관한 기금 등을 모으는 절목 기록
156	경제	祭需貿易記 觀察使公宗中 壬子十月初四日 貿易記 己酉十月四日 觀察使公檀享 貿易記 癸卯十月四日	壬子 己酉 癸卯	各派別로 納入한 記錄 및 享祀에 쓴 物件, 物品, 費用 기록
157	경제	祭需貿易記 觀察使公宗中 癸丑十月初四日	癸丑	祭需米 納入記. 各派別로 낸 쌀의 양을 적음
158	경제	遯巖書院 田畝改量案	辛丑(1781)	돈암서원의 서원 전답의 현황 총록[戊午仲春上澣 改O新舊書/1798년 표지개정]
159	경제	田畝量案	1781년 추정	
160	경제	田畝改量案	미상	돈암서원 관리 전답 내역
161	경제	齋中記簿	戊午	돈암서원에 보관된 書冊과 祭器 각종 기물의 목록과 수량 정리/ 유실된 책의 현황과 사유 첨부
162	경제	院中賭支記	戊午	내제: 院中賭支記簿 표지뒷면: 戊午仲春上澣. 표지 포함 24면. 습죽:6석 2두락, 5석2두락, 元賭 55斗落
163	경제	賭租記	未詳	戊寅年(1997) 이후 賭租記와 秋收記 합본
164	경제	扶安郡儒林	20세기	전라북도 부안군내 유림들의 부조록
165	경제	備品簿 遯巖書院	壬戌	備品原簿 범례 및 각종 기구 목록
166	경제	遯巖書院禮幣單子	未詳	돈암서원에서 幣布 2필과 壯紙 2속을 주었다는 내용의 예폐단자
167	경제	甲子年致祭時 膳錄	未詳	갑자년 치제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한 장부
168	경제	遯院修設時 分定記	未詳	돈암서원을 개수할 때 기부금 명단

● 무성서원 관련 문헌 목록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1	조직·운영	武城書院院誌	1884	무성서원에 관한 기록
2	조직·운영	武城書院院誌	1930	무성서원에 관한 기록으로 상·하권 합본으로 구성 *1884년 발간된 무성서원지와 내용이 다름
3	조직·운영	武城書院 院規	1924	무성서원의 원장과 임원의 임용 기준, 수세(收稅)의 사용 등 11개의 규칙 기록 전라남북도 유생 139명의 명단 기재
4	조직·운영	延額記事	1636 ~ 1794	1636년(인조 14) 이후, 무성서원에 대한 사액을 신청할 때부터 1794년까지 건물의 수리, 위패의 봉안, 이안 등에 관한 사항 정리
5	조직·운영	泰山書院 尋院錄	1607 ~ 1658	1607년부터 1658년까지 태산서원 참배자 명단 * 태산서원은 사액되기 이전의 무성서원의 명칭
6	조직·운영	尋院錄	1780 ~ 1813	1780년부터 1813년까지 무성서원 참배자 명부
7	조직·운영	尋院錄	1609 ~ 1778	1609년부터 1778년까지 무성서원 참배자 명부
8	조직·운영	尋院錄	1813 ~ 1831	1813년부터 1831년까지 무성서원 참배자 명부
9	조직·운영	尋院錄	1858 ~ 1879	1858년부터 1879년까지 무성서원 참배자 명단
0	조직·운영	奉審錄	1875 ~ 1915	1875년부터 1915년까지 무성서원을 찾아와 참배한 사람들의 명단
10	조직·운영	奉審錄	1933 ~ 1957	무성서원 제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12	조직·운영	奉審案	1962	무성서원 제례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
13	조직·운영	泰山書院 儒生案	1618	태산서원에서 작성한 유생안 * 태산서원은 사액되기 이전의 무성서원의 명칭
14	조직·운영	泰山書院 儒生案	1622	태산서원에서 작성한 유생안 * 태산서원은 사액되기 이전의 무성서원의 명칭
15	조직·운영	武城書院 院生案	1740	1740년에 작성한 원생명단
16	조직·운영	武城書院 院生案	1773	1773년에 작성한 원생명단
17	조직·운영	武城書院 院生案	1800	1800년에 작성한 원생명단
18	조직·운영	武城書院案	1946 ~ 1992	무성서원 임원 명부
19	조직·운영	武城書院案	1961	무성서원 임원 명부
20	조직·운영	武城書院案<제2호>	1987 ~ 2004	무성서원 임원 명부
21	조직·운영	武城書院 重修日記	1783	1783년에 하동 쌍계사의 최치원의 영정을 무성서원에 봉안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
22	조직·운영	武城書院 稟目	1856(병진)	무성서원 齋任이 金珽欽과 李啓鳳의 偷塚에 대해 태인현감에게 올린 품목
23	조직·운영	任公夔 望記	1899(기해)	집강 최한효 등이 무성서원 장의로 임공기, 김기화, 최학권 등 3인을 천거하여 정읍군수에게 보낸 망기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24	조직·운영	任基仁 望記	1900(경자)	무성서원의 有司로 임기인 등 3인을 천거하며 정읍군수에게 보낸 망기
25	조직·운영	金相浩 등 所志	1903(계묘)	전라도의 儒生 김상호 등이 무성서원에 올린 소지
26	조직·운영	朴魯錫 武城書院 道內色掌 望記	1904(갑진)	무성서원의 도내색장으로 박노석을 추천하면서 작성한 망기
27	조직·운영	任公夔 望記	1917(정사)	무성서원에서 道內訓長으로 임공기를 천거하는 망기
28	조직·운영	長致福 등 告目	1917(정사)	무성서원 장치복 등 3인이 무성서원의 도내 훈장으로 천거되었다는 내용으로 임공기에게 보낸 문서
29	조직·운영	金顯炯 望記	1920(경오)	무성서원 유희소에서 태인면에 사는 前 參奉 金顯炯을 무성서원 道內儒林掌議로 추천하는 망기
30	조직·운영	朴奉圭 望記	1924(갑자)	무성서원 道內色掌으로 박봉규를 추천하면서 작성한 망기
31	조직·운영	溫聖河 崔致遠 影幀 奉安 陪從員 望記	1925(을축)	무성서원에서 溫聖河를 문창후 최치원의 영정 봉안 배종원으로 천거하는 망기
32	조직·운영	武城書院 都會所 任命狀	1925(을축)	무성서원 도회소에서 溫聖河를 최치원의 영정 봉안 배종원으로 천거하면서 작성한 망기
33	조직·운영	金顯炯 望記	1927(정묘)	무성서원 유희소에서 태인면에 사는 前參奉 김현형을 무성서원 道內訓長으로 추천하는 망기
34	조직·운영	張大榮 등 告目	1927(정묘)	무성서원의 장대영 등이 金 承攄에게 올린 고목
35	조직·운영	金溶惠 武城書院 掌議 望記	1927(정묘)	김용덕을 무성서원 장의에 추천하는 망기
36	조직·운영	金顯炯 望記	1928(무진)	무성서원 유희소에서 前參奉 김현형을 春享祭典祀官으로 추천하는 망기
37	조직·운영	崔珞均 武城書院 掌議 望記	1928(무진)	무성서원 유희소에서 고창군에 살고있는 參奉 崔珞均을 장의로 추천하는 망기
38	조직·운영	姜大鴻 望記	1929(기사)	儒林道會所에서 강대홍을 무성서원 道內儒林掌議로 추천하는 망기
39	조직·운영	姜大鴻 告目	1929(기사)	강대홍에게 무성서원의 道內儒林掌議로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문서
40	조직·운영	姜大鴻 望記	1931(신미)	유희소에서 강대홍을 무성서원 道內訓長으로 추천하는 망기
41	조직·운영	武城書院 通告	1931(신미)	무성서원에서 박민교에게 면암 최익현선생 영정을 봉안하는 祭官으로 임명하였다고 통고하는 문서
42	조직·운영	武城書院 慕賢稷 武城書院慕 賢稷案	1932(임신)	무성서원 모현계를 조직하기 위해서 발기인들이 각 지역의 유림들에게 보낸 편지와 규례가 수록된 문서
43	조직·운영	武城書院 慕賢稷 武城書院慕 賢稷案	1933(계유)	무성서원에 배향된 선현의 자손과 도내 유생 83인이 무성서원의 보수 유지를 위해 계를 조직하고 비용을 추렴하였는데 이 문서는 계원명단과 추렴액수 기재
44	조직·운영	武城書院 都會所 任命狀	1933(계유)	무성서원도회소에서 前掌議 溫聖河를 도내 진신재장으로 천거하면서 작성한 망기
45	조직·운영	溫聖河 摺紳齋長 望記	1933(계유)	무성서원 도회소에서 前掌議 溫聖河를 도내 진신재장으로 천거하면서 작성한 망기
46	조직·운영	安淳恒 武城書院 享祭官 望記	1934(갑술)	유희소에서 都執禮 安淳恒에게 발급한 망기
47	조직·운영	崔圭華 訓長 望記	1934(갑술)	무성서원의 도내유림의 訓長으로 幼學 崔圭華를 추천하면서 작성한 망기
48	조직·운영	姜炳先 등 告目	1934(甲戌)	무성서원 西齋의 姜炳先 등이 崔生員에게 보낸 告目
49	조직·운영	甲戌年 告目	1934(갑술)	武城書院西齋에서 掌議를 선정하는 문제로 魯堂議主에게 보낸 告目
50	조직·운영	金顯炯 望記	1934(갑술)	무성서원 도회소에서 前 參奉 김현형을 무성서원 重修贊成長으로 추천하는 망기
51	조직·운영	金在秀 望記	1935(을해)	김재수를 무성서원 道內掌議로 천망하는 문서
52	조직·운영	金時中 望記	1936(병자)	김시중을 무성서원 道內儒林掌議로 천망하는 문서
53	조직·운영	白性鉉 望記	1937(정축)	장의 백성구가 무성서원 유사로 후보 3인을 천거하여 정읍군수에게 올린 망기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54	조직·운영	金允坤 武城書院 齋長 望記	1942(임오)	도회소에서 김윤곤을 무성서원의 齋長으로 임명하는 망기
55	조직·운영	趙泳愚 武城書院 道內掌議 望記	1942(임오)	도회소에서 幼學 趙泳愚을 무성서원의 도내장으로 임명하는 망기
56	조직·운영	時到記	1974(갑인) ~ 1979(기미)	제례 참석자 명단 기재
57	조직·운영	時到記	1979(기미) ~ 1980(경신)	추향제 참석자 명단 기재
58	조직·운영	時到記	1982(임술)	제례 참석자 명단 기재
59	사회관계	金憲泰 등 山訟 上書	1830(경인)	金憲泰외 23인이 무성서원 근처에 투장한 이민현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태인현감에게 올린 상서
60	사회관계	金憲泰 등 山訟 上書	1830(경인)	金憲泰외 98인이 무성서원 근처에 偷葬한 李民憲을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전라도 관찰 사에게 올린 상서
61	사회관계	金憲一 등 山訟 上書	1830(경인)	金憲一외 71인이 무성서원 근처에 투장한 李民憲과 金正欽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태인 현감에게 올린 상서
62	사회관계	송치덕 등 山訟 上書	1844(갑진)	송치덕외 17인이 연명으로 무성서원 근처 偷葬을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태인현감에게 올린 상서
63	사회관계	金玟 등 山訟 上書	1845(을사)	金玟외 24인이 연명으로 무성서원 근처에 偷葬한 金石斗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상서
64	사회관계	武城書院 都會所 孝行旌閭 通文	1892(임진)	무성서원 도회소에서 權鍾豐 등이 김제군의 선비 宣邦學의 孝行을 표창하기 위해 김제향교에 보낸 통문
65	사회관계	武城書院 齋會 通文	1900(경자)	二東面 長興高氏宅 江陵劉氏의 孝烈을 다스려 주도록 권하는 내용
66	사회관계	武城書院 金箕東 通文	1900(경자)	무성서원의 김기동, 이효춘, 박정규 등이 강진군에 거주했던 진주강씨 3현자, 즉 강창회와 그의 손자 강진수, 그리고 강진수의 아들 강대홍의 효행과 학행의 뛰어남을 찬양하고 이들이 행적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강진향교에 보낸 통문
67	사회관계	康津鄉校 通文	1900(경자)	강진향교 전교 조규영과 장의 최상구 등이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에 거주했던 진주강씨 강창회와 그의 손자 강진수, 그리고 강진수의 아들인 강대홍의 효행과 학행을 천양하고자 무성서원에 보낸 문서
68	사회관계	金光欽 등 通文	1902(임인)	무성서원의 유학 김광흠 등 25명이 연명하여 임피면의 고 이기동의 처 남평문씨의 효열과 그 아들 이재선의 효행에 대한 褒彰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임피향교에 보낸 통문
69	사회관계	武城書院 都會所 通文	1902(임인)	諸葛先生の 影堂과 講堂을 세우는 일을 도와줄 것을 청하는 내용
70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03(계묘)	무성서원에서 金七聲의 효행을 표창하기 위해 금구향교에 보낸 통문
71	사회관계	柳德根 등 上書	1903(계묘)	무성서원의 유학 류덕근 등 35명이 연명으로 이기동의 처 문씨의 효열에 대한 褒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무성서원의 강장에게 올린 상서
72	사회관계	白益洙 등 上書	1903(계묘)	무성서원의 유학 백익수 등 34명이 연명하여 고 이기동의 처 남평문씨의 효열에 대한 포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함열군수에게 올린 상서
73	사회관계	武城書院 都會所 通文	1903(계묘)	무성서원 道會所에서 柳鼎三의 효행과 학식에 대해 전주향교에 보낸 통문
74	사회관계	武城書院 南北道儒會 私諡 要請 通文	1903(계묘)	무성서원 南北道儒會에서 故安圭容의 私諡를 받기 위해 성균관에 보낸 통문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75	사회관계	金慶述 등 上書	1903(계묘)	전라북도의 유생 김경술 등 32명이 임피군의 이창영의 효행과 그의 처 남평문씨의 효열에 대한 褒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내부대신에게 올린 상서
76	사회관계	白益洙 등 上書	1903(계묘)	무성서원의 유학 백익수 등 29명이 연명으로 고 이기동의 처 남평문씨의 효열에 대한 褒彰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무성서원 부원장에게 올린 상서
77	사회관계	武城書院 金孔述 등 通文	1905(을사)	무성서원 김공술 등이 보내 통문
78	사회관계	武城書院 閔永元 등 上書	1905(을사)	민영원, 유종규, 고상규 등 24명이 임피군의 이창영의 효행과 그의 처 南平文氏의 효열에 대한 褒彰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무성서원 원장에게 올린 상서
79	사회관계	武城書院 蘇輝植 등 上書	1905(을사)	무성서원에서 전라도 유생 진사 소희식, 조병선, 김택 등 36명이 이창영과 그의 처 남평문씨의 효열에 대한 褒彰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만경군의 집강에게 올린 상서
80	사회관계	武城書院 만성보간소 通文	1914(갑인)	만성보 중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가로 하여금 수단을 올릴 것을 알림
81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14(갑인)	武城書院 儒會 金邦勳 외 6인이 齋閣 건립 관련하여 道康金氏 大門中에 보낸 通文
82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15(을묘)	무성서원 김직술 등이 한동수의 처 순흥안씨 효행을 표창하기 위해 임실향교에 보낸 통문
83	사회관계	武城書院 만성보간소 通文	1915(을묘)	각 가문의 계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만성보 중간을 잘 할 수 있도록 수단을 조속히 올려줄 것을 당부
84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22(임술)	1922년에 무성향교 유회소의 김기술 등 17명이 효자 張益善의 표창을 위해 전주향교 유생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통문.
85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23(계해)	무성서원에서 태인군의 金頊의 처 金海金氏의 열행을 褒揚하기 위해 공부자성적도오륜행실중간소(孔夫子聖蹟圖五倫行實重刊所)에 보낸 통문
86	사회관계	通文	1923(계해)	태산사 중건소에서 최익현 영정 봉안 관련 발송 통문
87	사회관계	『琬休齋先生實紀』 武城書院 答通	1924(갑자)	『琬休齋先生實紀』에 대한 무성서원 답통
88	사회관계	武城書院 都會所 通文	1924(갑자)	무성서원 道會所에서 故林永述의 아내의 효열에 대해 익산향교에 보낸 통문
89	사회관계	武城書院 儒會所 孝烈表彰 通文	1924(갑자)	무성서원 유회소에서 故林永述과 그의 妻 波平廉氏의 孝烈을 표창하기 위해 益山鄉校에 보낸 통문
90	사회관계	武城書院 敬通	1925(을축)	高麟相 褒狀과 관련한 통문
91	사회관계	武城書院 敬通	1925(을축)	各校院儒林에게萬化書院建祀
92	사회관계	慕聖公會 通文	1925(대정 14)	모성공회에서 무성서원 유림들에게 忠肅公 朴瑾의 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보낸 통장
93	사회관계	武城書院 上書	1926(병인)	洪彦博의 후손 闡揚에 관한 일
94	사회관계	泰仁鄉校 通文	1926(병인)	태인향교의 유생들이 前議官 金文植)의 아내 密陽朴氏의 孝烈을 闡揚하는 일르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95	사회관계	閔珣鎬 通文	1927(정묘)	태인향교의 유생 閔珣鎬 등 13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행 등을 褒揚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96	사회관계	閔在鎬 通文	1927(정묘)	무성서원의 유생 閔在鎬 등 10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 등을 褒揚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전주향교에 보낸 통문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97	사회관계	武城書院 金箕述 通文	1927(정묘)	무성서원의 김기술 등이 강진군에 거주했던 고 강진수의 효행과 학생을 알리기 위해 강진향교에 보낸 통문
98	사회관계	武城書院 金箕述 등 通文	1927(정묘)	무성서원 유림 金箕述 閔在鎬 朴齊大 金澤 등이 임피군에 사는 前兵曹參議 朱鎭國의 처 淑夫人 金氏의 효열을 표창하기 위해 임피향교에 보낸 통문
99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27(정묘)	1927년 11월에 무성서원의 여러 선비들이 하의도에 사는 김석련의 행적을 무안향교에서도 널리 알려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보낸 통문
100	사회관계	全州鄉校 通文	1927(정묘)	전주향교의 유생들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 등을 褒揚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101	사회관계	泰仁鄉校 通文	1927(정묘)	태인향교의 유생 閔珣鎬 등 13명이 태인의 金顯炯의 효성과 덕행을 알리는데 적극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102	사회관계	기타 자료	1927(정묘)	김택이 무성서원에 보낸 자료
103	사회관계	全州鄉校 通文	1927(정묘)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행적을 闡揚하는 일에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104	사회관계	羅台均 通文	1928(무진)	나주향교의 유생 羅台均 등 13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 등을 褒揚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05	사회관계	尹滋均 通文	1928(무진)	遯巖書院의 유생 尹滋均 등 15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 등을 褒揚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정읍향교에 보낸 통문
106	사회관계	通文	1928(무진)	광주향교에서 장익선의 효행을 천양하기 위해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107	사회관계	武城書院 金箕述 通文	1928(무진)	무성서원의 김기술 등이 고 강진수의 효행과 학생을 알리기 위해 모현공회에 보낸 통문
108	사회관계	武城書院 金澤 등 通文	1928(무진)	무성서원 金澤 등이 옥구군의 前參議 朱鎭國의 처 淑夫人 金氏의 효열과 그 아들 秘書丞 朱化英의 효행을 찬양하기 위하여 慕聖公會에 올린 통문
109	사회관계	朴魯豐 通文	1928(무진)	남고서원의 유생 朴魯豐 등 17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 등을 褒揚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정읍향교에 보낸 통문
110	사회관계	奇世哲 通文	1928(무진)	광주향교의 유생 奇世哲 등 13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 등을 褒揚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여러 향교에 보낸 통문
111	사회관계	書信	1928(무진)	林顯周가 주자의 영정 鳳山祠 이안과 최익현 종향에 대해 무성서원에서 논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읍군 칠보면 무성리 金伯基에게 보낸 편지
112	사회관계	羅州鄉校 通文	1928(무진)	나주향교의 유생 임세규 등 15명이 효자 장익선의 효행 표창에 동참하는 내용으로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113	사회관계	全州鄉校 通文	1928(무진)	전주향교의 직원 유창근 등 23명이 張益善의 효행에 대한 褒彰을 요청하는데 적극 동참하자는 내용을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114	사회관계	南康書院 通文	1928(무진)	강진의 남강서원 유향소 집강 김기술 등이 강진군 옥천면 봉림리에 거주했던 고 강진수의 사우를 건립하기 위해 무성서원에 보낸 문서
115	사회관계	韓宗孝 孝行 讚揚文	1928(무진)	무성서원 유림 申鉉台 등 24명이 연명하여 한종효의 효행을 찬양하자는 내용으로 작성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116	사회관계	洪淳柄 通文	1928(무진)	필암서원의 유생 洪淳柄 등 15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 등을褒揚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17	사회관계	黃瑜 通文	1928(무진)	남원향교의 유생 黃瑜 등 13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 등을褒揚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여러 향교에 보낸 통문
118	사회관계	金孔述 등 上書	1928(무진)	무성서원 유생 김공술 등이 강진군의 고 강창회의 행적에 대한褒彰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모성공회에 보낸 상서
119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29(기사)	무성서원에서 조의곤의 문집을 간행하자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고산서원에 보낸 통문
120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29(기사)	무성서원의 유생 박제대, 민재호 등 28명이 연명하여 한재홍의 처 김해김씨의 효열 표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慕聖公會에 보낸 소지
121	사회관계	羅州鄉校 通文	1934(갑술)	나주향교의 유생들이 정교백의 처 파평윤씨의 효열에 대한褒彰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22	사회관계	光州鄉校 通文	1934(갑술)	광주향교의 유생들이 정교백의 처 파평윤씨의 효열에 대한褒彰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23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34(갑술)	무성서원의 유생들이 경성부의 모성공회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으로 태인군 감곡면 통석리에 사는 고 士人 鄭敎栢의 처 파평윤씨의 효열을 천거하는데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124	사회관계	南原鄉校 通文	1934(갑술)	남원향교의 유생들이 정교백의 처 파평윤씨의 효열에 대한褒彰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25	사회관계	全州鄉校 通文	1934(갑술)	전주향교의 유생들이 정교백의 처 파평윤씨의 효열에 대한褒彰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26	사회관계	『孤山先生實紀』 武城書院 通文	1936(병자)	『孤山先生實紀』에 대한 무성서원 통문
127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38(무인)	무성서원에서 한석렴의 처 하동 정씨의 효열을 표창하기 위해 보낸 각 향교에 통문
128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38(무인)	1933년 무성서원에서 장수향교로 보낸 통문으로 장수군 계북면에 사는 주병국이 사족의 후예이고, 학문과 덕이 뛰어나 유계(儒契)에 들어가기 충분하다는 내용
129	사회관계	通文	1939(기묘)	강진향교에서 한석렴의 처 하동정씨의 효열을 표창하기 위해 보낸 통문
130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39(기묘)	무성서원에서 한석렴의 처 하동 정씨의 효열을 표창하기 위해 보낸 각 향교에 통문
131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1942(임오)	무성서원에서 溫聖河의 효행을 금구향교에 보낸 통문.
132	사회관계	高敞鄉校 通文	1943(계미)	고창향교에서 무성서원으로 보낸 통문
133	사회관계	宋榮昌 등 金懷鍊 追慕 祠堂 關聯 通文	1945(을유)	태인향교 宋榮昌외 48인이 忠敏公 金懷鍊 사당 건립에 대해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134	사회관계	宋榮昌 등 金懷鍊 追慕 祠堂 關聯 通文	1946(병술)	古縣洞約所 宋榮昌외 12인이 忠敏公 金懷鍊 사당 건립에 대해 무성서원 유림들에게 보낸 통문
135	사회관계	閔丙承 등 金懷鍊 追慕 祠堂 關聯 通文	1946(병술)	筆巖書院 閔丙承외 24인이 忠敏公 金懷鍊 사당 건립에 대해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136	사회관계	萬化書院 建祀 通文	1949(기축)	흥덕향교에서 무성서원에 보낸 만화서원 건립에 대한 통문
137	사회관계	通文	1957	면암 최익현을 배향한 태산사 복설에 대한 통문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138	사회관계	泰山祠復設推進會 通文	1957	면암 최익현을 모신 태산사 복설 관련하여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
139	사회관계	龍山祠 配享 關聯 通文	1959	무성서원에서 鄭 先生 부자의 배향에 관해 용산사에 보낸 통문
140	사회관계	武城書院 西齋 姜炳善 등 通文	20세기	무성서원 서재의 강병선 등이 보낸 통문
141	사회관계	武城書院 儒林 通文	갑술	무성서원 유림들이 金堤郡의 前訓導 郭獎烈의 부친에 대한 효성을 포양하기 위해 慕聖公會에 보낸 통문
142	사회관계	武城書院 儒林 通文	갑술	무성서원 유림들이 處士 權溫錫의 孝行을 표창하기 위해 금구향교에 보낸 통문
143	사회관계	武城書院 儒林 通文	갑술	무성서원 유림들이 김제군의 前訓導 郭獎烈 孝行 관련하여 김제향교에 보낸 통문
144	사회관계	武城書院 儒林 通文	무신	무성서원 유림들이 태인군의 士人 金采燮의 妻 韓山李氏의 효열을 표창하기 위해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45	사회관계	武城書院 儒林 通文	무신	무성서원 유림들이 태인군의 士人 朴權鎭의 妻 慶州金氏의 효열을 표창하기 위해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
146	사회관계	武城書院 都會所 上書	미상	무성서원 도회소에서 작성한 상서
147	사회관계	武城書院 都會所 通文	병진	무성서원 도회소에서 故柳興奎의 아내인 김해김씨의 효열에 대해 김제향교로 보낸 통문
148	사회관계	武城書院 都會所 通文	병진	무성서원 도회소에서 柳寅聖의 효행에 대하여 김제향교로 보낸 통문
149	사회관계	武城書院 通文	신사	신사년 7월에 무성서원 유림들이 오도에 사는 남평문씨 문익수의 효행을 칭찬하고 장려하기 위해 나주향교 유림들에게 보낸 통문
150	사회관계	道康金氏 大門中 山訟 山圖	을묘	道康金氏 大門中에서 작성하여 무성서원 근처 도강김씨 先山의 형태와 偷塚處 표시한 산도
151	사회관계	武城書院 儒林 通文	임신	무성서원 유림이 故金箕稷의 아내 昌寧成氏의 효열을 표창하기 위해 함평향교에 보낸 통문
152	사회관계	武城書院 儒林 通文	임인	무성서원 유림들이 溫聖河의 효행을 표창하기 위해 금구향교에 보낸 통문
153	사회관계	武城書院 都會所 孝行 表彰 通文	임진	무성서원 道會所에서 金國龜의 효행을 표창하기 위해 김제향교에 보낸 통문
154	제향	各書院禮式	19세기	각 서원(書院) 예식(禮式)에 대한 필사본
155	제향	武城書院 享需契案	1906	제향 절목, 규칙
156	제향	武城書院 春秋癸官錄 <제1호>	1962 ~ 1973	1962년에서 1973년까지 춘하 무성서원 제관 명단
157	제향	武城書院 春秋祭官錄<제2호>	1973 ~ 1981	1973 ~ 1981 무성서원 제관 명부
158	제향	祭文	미상	
159	경제·치부	武城書院 復戶保奴還復記	1882(임오)	金稷欽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復戶와 保奴 관련 기록
160	경제·치부	武城書院廟廷碑 創建義捐芳名錄	1898(무술)	무성서원 묘정비 창건 당시에 出捐 명단
161	경제·치부	武城書院 寄附領收證	1930(경오)	이경희, 이영두, 신자현이 무성서원에 희사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162	경제·치부	武城書院 收支簿	1933 ~ 1953	1933년에서 1953년까지 무성서원 수입지출 장부
163	경제·치부	계산서	1938(소화13)	무성서원 대표자 김백년에게 정읍군 司法書士 日高金市가 발행한 계산서
164	경제·치부	武城書院 土稅未收記	1952 ~ 1965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오년 무성서원 수입, 지출 장부
165	경제·치부	武城書院 慕賢契案	1968 ~ 1969	의연금 명부와 액수

순	분류	문서명	연도	내용 및 출처
166	경제·치부	武城書院 收支簿<제3호>	1972 ~ 2003	무성서원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것
167	경제·치부	武城書院 庫舍 建築關係書類	1979	무성서원의 창고를 건립하면서 받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168	경제·치부	祭需記	1981 ~ 1985	제수 용품 관련 내용
169	경제·치부	戊戌年 完文	무술	서원재산에 대하여 관으로부터 받은 확답 기록[절목부기]
170	경제·치부	乙巳年 完文	을사	서원재산에 대하여 관으로부터 받은 확답 기록[절목부기]
171	경제·치부	壬戌年 秋監記	임술	무성서원 소유전답 경작자 징수 장부.
172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記	1879(기묘)	宋程淳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73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記	1886(병술)	金永朝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74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記	1888(무자)	金光欽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75	시문류	絃歌樓 創建記	1891(신묘)	閔正植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76	시문류	絃歌樓記	1891(신묘)	金奎弘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77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記	1892(임진)	尹濟翼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78	시문류	武城書院廟廷碑	1898(무술)	미상
179	시문류	武城書院記	1902(임인)	金直述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80	시문류	絃歌樓 重修記	1903(계묘)	鄭寬求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81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記	1904(갑진)	權直相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82	시문류	講修齋 重修記	1905(을사)	金麟基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83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記	1906(병오)	金秉述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84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記	1917(정사)	李在宇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85	시문류	興學齋 創建碑	1921(신유)	미상
186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記	1927(정묘)	金煥一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87	시문류	武城書院 墻垣重修記	1928(무진)	金煥豐의 무성서원 墻垣 중수에 대한 기문
188	시문류	賢宇重修及典祀所 創建記	1930(경오)	金煥豐의 현우 중수와 전사소 창건에 대한 기문
189	시문류	武城書院 埼盤 重修記	1932(임신)	金澤의 무성서원 기반 중수에 대한 기문
190	시문류	絃歌樓 重修記	1936(병자)	高元勳의 현가루 중수에 대한 기문
191	시문류	武城書院 院址復舊記	1937(정축)	金煥豐의 서원터 복구에 대한 기문
192	시문류	武城書院 講堂重創記	1948(무자)	金棼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93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記	1955(을미)	尹秉이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문
194	시문류	武城書院 賢宇重修記	1961(신축)	閔申鎬의 무성서원 賢宇 중수에 대한 기념비
195	시문류	武城書院 重修紀念碑	1968(무신)	金麟基의 무성서원 중수에 대한 기념비
196	시문류	武城書院 事蹟紀念碑	1968(무신)	무성서원 사적에 대한 기념비
197	기타	倡義日記	1906	무성서원에서 창의한 최익현에 대한 기록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기초 연구

김하영(한국학중앙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에 적용할 아카이브의 개념
- III.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현 목표
- IV.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 동향 및 국내 사례 분석
- V.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로드맵
- VI.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운영 방안
- VII. 맺음말
- ※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참고 자료

I. 머리말

이 연구는 향후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2024년 구축 목표)’가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에게 ‘서원 문헌’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원 문헌 아카이브’를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지식 정보를 어떠한 형식으로 축적하고 서비스할 것인가의 문제를 탐구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표준적인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 이름을 사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의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곧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이름만으로 일정한 모양의 온라인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여러 장소에 산재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관련 문헌을 아울러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중 콘텐츠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및 학술포럼’의 과업 목표와 위상 정립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지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모색하고, 그 구상에 따라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가 인력·자원·시간·예산 측면에서 시행 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현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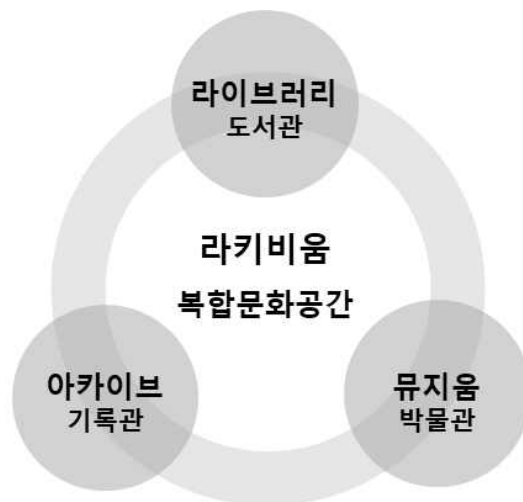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해 중점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과제는 향후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가 담당하게 될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서원 문헌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어떠한 기술적 환경 위에서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기술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 문헌 주제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안정적,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범국가적으로 소통, 활용되어 ‘한국의 서원에 관한 지식 정보 아카이브’로 확산,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II.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에 적용할 아카이브의 개념

1. 라키비움

■ 전통적 의미의 아카이브(archive)와 라키비움

아카이브(archive)는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을 의미하는데 기록물은 사본이 존재하는 책이나 잡지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출판되지 않으며 거의 늘 고유성을 지닌다. 동시에 이러한 기록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시설, 기관 등을 의미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카이브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 ‘기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과 일반 사회에서는 ‘기록(물) 보관소’, ‘기록(물) 보존소’, ‘공문서관’,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라키비움(lachivium)²⁷¹⁾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도서관과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라키비움은 도서·기록물·예술작품 등 각 자료를 개별적으로 유지·운영해 오던 공간을 하나의 기관으로 집약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통합형 수집기관이다.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한 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다양한 정보 자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상 관람부터 커뮤니티 모임, 게임, 휴게 공간에 이르기까지 문화 복합기능도 가지고 있다.

271) 2008년 미국 텍사스 대학의 메건 윈젯(Megan Winget) 교수가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제안한 융합적 수집기관의 한 모델.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보 제공의 통합을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2.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디지털 박물관(Digital Museum),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 우리가 먼저 넘어서야 할 것은 그것을 전통적인 Archives 개념의 연장으로만 보려는 시각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²⁷²⁾, 박물관²⁷³⁾, 기록관²⁷⁴⁾은 각기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주로 출판물을 소장하며, 박물관은 역사성이 있는 유물을, 기록관은 사건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의 원본을 보존한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 또한 도서관은 대출, 박물관은 전시, 기록관은 열람의 방법을 위주로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은 그 기능이 확대되면서 상호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져 가고 있으며, 그 융합적인 기능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²⁷⁵⁾까지 등장하였다. 그 기능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 놓은 곳에서는 융합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어떤 주제의 디지털 정보시스템 상에서, 그 원시 콘텐츠가 도서관의 장서일 경우에는 Digital Library, 박물관의 소장품일 경우 Digital Museum, 기록관의 자료일 경우 Digital Archives라고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구분법이 아니다. 현실 세계의 사물과 달리 디지털 콘텐츠는 어느 한 공간에 귀속될 필요가 없다.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그 소스가 유물이나, 책이나, 기록물 원본이나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의 스토리를 갖는 지식

272) 도서관(Library): 도서관은 체계화된 정보 자료를 고객이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곳이다.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자료를 열람(physical access)하거나 디지털화된 자료를 열람(digital access)할 수 있고, 열람 장소는 빌딩 또는 방(room), 또는 가상공간(virtual space), 또는 두 장소 모두가 될 수 있다. 도서관에 축적된 자료로는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수고본, 영화, 지도, 유인물, 문서, 마이크로폼, CD,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DVD, 블루레이 디스크, 전자책, 오디오북,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기타 자료들이 포함된다. A library is an organized collec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made accessible to a defined community for reference or borrowing. It provides physical or digital access to material, and may be a physical building or room, or a virtual space, or both. A library's collection can include books, periodicals, newspapers, manuscripts, films, maps, prints, documents, microform, CDs, cassettes, videotapes, DVDs, Blu-ray Discs, e-books, audiobooks, databases, and other formats. (Library,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Library>)

273) 박물관(Museum): 인류와 그들의 환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교육, 연구, 오락의 목적으로 획득, 보존, 연구, 소통, 전시하는 곳. 사회 봉사 및 발전을 위해 비영리적, 영속적, 개방적으로 존재. A museum is a non-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 open to the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study and enjoyment. (Museum Definition, The World Museum Community. <http://icom.museum/the-vision/museum-definition/>)

274) 기록관(Archives): 편지, 보고서, 메모(notes), 사진, 또는 그 밖의 원시 자료로부터 일차적인 사실(facts), 데이터, 증거 등을 얻을 수 있는 장소. An archives is a place where people can go to gather firsthand facts, data, and evidence from letters, reports, notes, memos, photographs, and other primary sources. (What's an Archives,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http://www.archives.gov/about/info/whats-an-archives.html>)

275) Larchiveum: Library, Archive, Museum의 합성어. 2008년 미국 텍사스 대학의 Megan Winget 교수가 복합 수집기관(multidisciplinary collecting institution)의 새로운 모델로 제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이 2013년 12월 「라키비움(Larchiveum)」이라고 명명한 복합문화공간을 개관하였으며, 안동시에서 건립 중인 ‘세계유교문화박물관’도 라키비움(Larchiveum)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정보로 연결 지을 수 있다.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전통적인 기록관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기보다, 디지털 도서관 또는 디지털 박물관과 통용되는 융합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과제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종합해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① 1차 자료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정리, 축적한 데이터베이스 -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박물관 등)를 표방하는 국내의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카이브 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의 하나.

②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상의 아카이브 - 디지털 자원을 개방적으로 교환, 재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대상이 하나의 아카이브에 수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Open Archives’.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는 ‘디지털’과 결부된 영역에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이 두 가지 기능과 모두 관련이 있다. 그것은 또한 넓은 의미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업을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하나의 수행 과제로 묶기보다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환경과 현안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추진 전략일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 아카이브의 첫 번째 함의인 ‘소장 유물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온라인 서비스’는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가 개관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구현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함의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상의 아카이브’는 시스템 운영 방안 제시 및 연구 사업의 필요성 제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관한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가 담당해야 할 기능과 그 대응 방안, 다룰 내용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함의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관련 기능	대응 방안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
① 1차 자료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정리·축적한 데이터베이스	소장 유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및 소장 유물에 관한 정보와 실물의 모양·내용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기능	참조 모델 및 구현 요건 파악	본 연구의 중점 탐구 과제
②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상의 아카이브	‘서원 문헌’에 관한 지식 수요(범국가적, 범세계적)에 응대하는 지식 정보 서비스 ※ 서원 문헌에 관한 대표 기관에 기대하는 역할	서원 문헌 지식 정보 네트워크 설계·구현·운영	-단계적 구현 -중장기 로드맵

Ⅲ.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현 목표

1.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보편성과 특수성

- 보편성: 문헌 대상 아카이브
- 특수성: 서원 주제 아카이브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는 ‘문헌’ 아카이브라는 보편성과 ‘서원’ 아카이브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이브’라는 ‘보편적 아카이브’로서의 참조 모델로는 국내 고문헌 아카이브를 대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고문서자료관(archive. aks.ac.kr)>이 적합하다.

2011년 <한국고문서자료관> 정보시스템은 개발 당시 10개 서원 문서를 포함, 30여 년간 장서각에서 수집해 온 약 6만여 점의 문서에 대해 목록정리·영인·정서하여 간행한 102책의 『고문서집성』을 근간으로 하였는데, 6만여 점의 多種小量 고문서에 대한 데이터 구조 분석 및 설계가 수행되었다.

<한국고문서자료관>은 10년 동안 수행된 <한국학자료센터(kostma. aks.ac.kr)> 구축사업²⁷⁶⁾의 한 갈래로 구축되었으므로 한국학자료센터 산하 권역별 자료센터²⁷⁷⁾ DB와의 연계·확장성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시 <한국고문서자료관>의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메타정보 구축 지침을 준용함으로써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리라 전망된다.

<한국고문서자료관>의 성과는 ① 다종소량, 난이도 높은 자료에 대한 DB 설계의 전범이 된 XML설계, ② 배면을 트리밍하지 않는 형태의 고화질(당시 기준) 스트리밍 방식의 원문이미지 서비스 포맷 확정을 들 수 있고 그 한계로는 데이터 생성방식이 근원적으로 다른 고문서집성(출판물)을 그대로 웹에 구현했다는 점이다.

<한국고문서자료관>의 문헌자료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문헌분류_대분류
소장처 유형별	문중, 서원향교, 박물관도서관, 공공기관, 사찰, 개인, 촌락, 기타
	※ 서원향교(중분류) 경상북도-안동 구계서원, 안동 병산서원, 울진 월계서원 경상남도-거창 거창향교, 김해 김해향교, 산청 단성향교, 산청 덕천서원, 함양 남계서원, 합천 용연서원, 합천 합천향교
소장처 지역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함경남도

276) <한국학자료센터> 연구사업의 개요는 “고문서, 고서 등 국내외에 산재한 각종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가공·집적하여 한국학 지식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다.

277) 한국학자료센터의 권역별 자료센터는 규장각·장서각 국가전적자료센터, 강원권역·영남권역(한국국학진흥원)·충청권역·호남권역·해외권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료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부분이 고유 정보시스템에도 <한국학자료센터>의 데이터 구조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분	문헌분류-대분류
자료 유형별	고서-경부, 사부, 자부, 집부 고문서-교령류, 소차계장류, 첩관통보류, 증빙류, 명문문기류, 서간통고류, 치부기록류, 시문류, 외교문서류, 기타
자료 주제별	국왕·왕실, 정치·행정, 법제, 경제, 사회, 교육·문화, 종교·풍속, 개인
생산 지역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서울시, 함경북도, 평양직할시, 경상도, 황해도, 함경도, 전라도, 평안남도, 충청도, 경남, 평안도, 일본, 함경남도, 예안현, 평양시, 일본동경, 개성시, 안동시
생산 시기별	고려, 조선, 근현대

‘서원’ 주제에 특정된 아카이브라는 특수성은 서원의 구성요소적 측면과 서원의 기능 측면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구분	문헌분류-대분류	문헌분류-중분류
서원 구성요소별	인간人間	서원 관련 인물(예. 경임안, 원임록)
	공간空間	건축물(예. 서원건치도, 중수기)
	자산資産	문헌文獻(예. 고신, 묘갈문)
		서원전書院田, 원노비院奴婢 등 경제기반(예. 추수기, 토지매매명문, 소작계약서)
서원 목적·기능별	교육	강학(예. 사마방목)
	교화	제향(예. 심원록, 제수물목, 향사헌관제집사성책)
	향촌 자치운영	교류와 유식遊息(예. 통문)
	서원운영	실무(예. 원규)

IV.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 동향 및 국내 사례 분석

1. <디지털장서각(jsg.aks.ac.kr)>

: 라키비움형 연구기관인 장서각의 대표 DB서비스 사이트인 <디지털장서각>은 최신의 세계 표준 기술을 도입,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미지 DB구축 프로세스를 정립해 경제적·효율적으로 초고화질 원문이미지DB를 구축,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메타정보 DB구축 포맷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화 역사 상 가장 중요한 레거시를 채택함으로써, 다품종 소량의 고문헌 서비스에 강점을 갖고 있다.

가. 장서각의 기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라키비움(Larchiveum)형 연구기관으로

- 아카이브 기능-국가전적+민간수집고문헌 아카이브로 자료수집 및 보존
- 라이브러리 기능-자료관리 및 열람제공 등 이용지원
- 연구 기능-목록 · 해제 · 탈초 등 기초연구 및 다양한 심화연구

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기능들은 그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디지털 기술 기반 시스템을 차례로 구축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다.

1) 아카이브 기능

→ JARMS(Jangseogak Arch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

<JARMS> 시스템은 장서각 소장 자료에 개인의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ID를 부여하고 업무단 계별로 생성되는 자료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에 새로운 이력을 생성시키는 업무정보 역시 업무흐름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관리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1] <JARMS> 시스템

- JARMS의 정의: 장서각 소장자료 관리시스템
- JARMS의 기능: 자료관리시스템이자 업무관리시스템
- JARMS 시스템 업무흐름도
: 조사·수집 → 기증·기탁·구입 → 서지관리 → 자료검색 → 열람대여
→ 보존처리 → 촬영관리 → 연구성과물 → 통계

장서각의 고서·고문헌 자료 및 업무 관리시스템인 <JARMS>의 구축·운영 사례는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소장유물관리시스템의 좋은 선행사례로 삼을 수 있다. <JARMS>는 현재 활발히 고도화 진행 중이다.

2) 라이브러리 기능

장서각의 전통적인 원문자료 열람과 이용지원 기능은 <디지털장서각(jsg.aks.ac.kr)>을 통해 대체해 나가고 있다.

2017년 <디지털장서각> 기획 시 가장 큰 현안은 연구원 내 총 7개 사이트에 산재되어 서비스되고 있던 디지털로 구축된(digitized) 장서각 자료(이하 장서각 디지털 자료)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원화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사업 추진 주체(연구원 내 사업수행 부서), 사업 추진 예산, 서비스 기획에 따라

- 장서각 홈페이지
-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
-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 고문서자료관
- 장서각 기록유산 DB
-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 한국학전자도서관

의 총 7개 사이트에 산재되어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기획의 지향점이 다른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는 논외로 두고 동일한 장서각 자료를 DB구축 후 사업 추진 주체별로 별도로 웹서비스 하게 된 원인은 장서각 정보화의 뒤늦은 스타트와 더불어 사일로 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에 기인한 바 크다.

<디지털장서각>은 7개 사이트에 분산된 장서각 디지털 자료의 메타정보 통합하고 DB 오류 수정을 통한 품질 업그레이드, MF 스캔 흑백 이미지를 디지털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대체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7개 사이트 데이터 정확도의 다양한 층위 문제, 다양한 구조의 DB를 완전히 통합하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데이터는 정확성이 생명으로 데이터의 순도가 낮고 오류가 많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검색엔진 SW를 도입한다 해도 필요한 자료를 찾아낼 방법이 없다.

<디지털장서각>의 7개 시스템 메타정보 정리·통합 사례는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고도화 추진 시, 9개 서원을 비롯한 다종(多種)의 서원 관련 문헌 기구축 DB를 연계할 경우 참조하기 좋은 사례이다.

3) 연구 기능-목록·해제·탈초 등 기초연구 및 다양한 심화연구

디지털 기반의 <JARMS>와 <디지털장서각> 시스템으로 수렴된 장서각의 전통적인 아카이브 기능과 라이브러리 기능은 디지털적 전환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서각의 연구 기능은 얼마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을까.

장서각의 외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지만 그 시도들이 활발한 만큼 조만간 ‘디지털 기반의 인문학 연구’의 프로토타입이 정립되거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연구방법론’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디지털장서각>의 특징

<디지털장서각>은 장서각 디지털 자료의 포털시스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기간(基幹) 정보시스템으로서 기록문화재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림 4-2] <디지털장서각> 시스템

- 교육부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대체하는 시스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집현전>-全 분야를 망라하여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하는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및 <기록문화유산 디지털화 지원사업>

2019년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장서각>은 후발 주자인 만큼 정보시스템 외적인 난관도 많았으나 그와는 반대로 확실하게 검증된 데이터구조와 가장 최신의 기술 요소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었다.

1) 한국학자료센터 성과의 수용

당연한 이야기지만 데이터구조 설계 시, 마치 논문을 쓸 때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선행사업의 결과물을 조사·분석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용해 나가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발전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디지털장서각>은 ‘한국학자료센터’ 사업²⁷⁸⁾의 성과를 수용했는데 그것은

- DB 표준화 방안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전자문서 도입
 - 자료 특성에 최적화된 DB구조 설계
 - DB의 추가 · 변경이 가능한 유연성 확보
- 디렉토리 분류
 - 자료 분류체계 정비 및 이해도 제고
 - 자료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 가능

등 이다.

‘DB 표준화 방안’은 원문텍스트·고유명사 태깅 등 DB구축 지침으로 한국학자료센터 권역별 시스템 간 호환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고안됐는데 장서각 역시 한국학자료센터에 장서각 국가 전적자료센터²⁷⁹⁾로 참여하였고, <디지털장서각>은 한국학자료센터와 무관하게 장서각에서 독자적으로 고안하여 개발한 시스템이나 후술하듯이 한국학자료센터의 데이터구조 정의를 일부 수정을 거쳐 적용하고 있으므로 DB구축 지침 역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한국학자료센터 디렉토리 분류의 시사점은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분류가 추가되어 복수의 분류가 적용된 점이다. 여기에 영감을 얻어 <디지털장서각>은 소장 자료군에 대한 연구성과를

278) 2008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10년 동안 고문서, 고서 등 국내외에 산재한 각종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가공·집적하여 한국학 지식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사업.

279) 도입을 결정한 2014년 당시 자료센터는 국가전적자료센터인 규장각과 장서각, 영남권역(한국국학진흥원), 호남권역(전북대·목포대·조선대·제주대학교 컨소시엄), 해외권역(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등으로 구성됨.

반영한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여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적용하는 복수의 분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다.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 데이터구조

<디지털장서각>의 데이터구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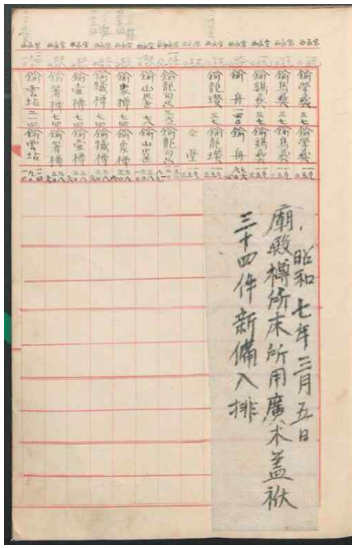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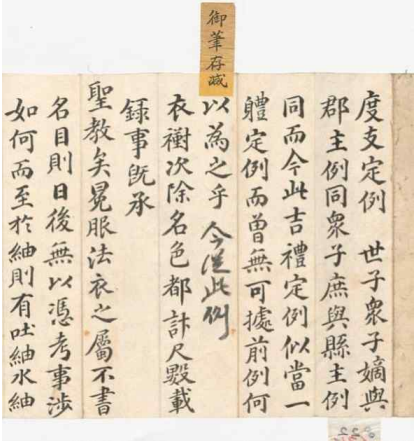
[그림 4-2] <디지털장서각> 시스템

- 한국학자료 문헌정보 서술규칙
- 한국학자료 XML문서 스키마(문헌정보)교육부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을 대체하는 시스템

를 채택하여 표준화하고 있다.

<디지털장서각>의 데이터구조 설계에 ‘한국학자료 XML문서 스키마’를 도입한 이유는 해당 스키마가 한국학자료센터 사업을 시작하던 2009년에 제정된 후 한국학자료센터 각 권역별 센터의 다양한 자료의 특징을 수용하면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된 만큼 고문헌자료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구조 설계’ 가운데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학자료센터의 XML 전자문서에 기반한 데이터구조의 설계는 기존 표 구조의 DB와 비교할 때 확장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예시1> XML 전자문서의 유연성

일반적 부전(附箋)	御筆存減임을 표시한 부전(附箋)	구분
		
<부전>昭和七年(1932)三月五日 廟殿樽所床所用廣木盖袱三十四 件新備入排</부전>	以爲之乎<부전>今從此例</부전>	첨부된 종이는 전부 부전으로 처리

<부전>昭和七年(1932)三月五日 廟殿樽所床所用廣木盖袱三十四 件新備入排</부전>	以爲之乎<어필존감>今從此例</어필존감>	어필존감만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
<부전 내용=“보충”>昭和七年三月五日 廟殿樽所床所用廣木盖袱三十四 件新備入排</부전>	以爲之乎<부전 내용=“어필존감”>今從此例 </부전>	첨부된 종이라는 원자료 형식은 동일하나 작성주체 및 작성취지가 각각 상이하므로 부전과 어필존감 구분

<예시2> XML 전자문서의 확장성과 유연성

	기본	응용1	응용2
XML	<p><제 목>訓局謄錄(乙卯十一月)</제 목> <기사 일자=“乙卯十一月初十日”> 都監 啓曰前司右哨官李先立今十一月初六日入直內後苑時內禁衛崔萬壽……</기사></p>	<p><제 목>華城奉壽堂進饌廣載軸</제 목> <종류=“문집”> <기사제목>御製○慈宮臨華城行宮進饌樂章</기사제목> <기사 일자=“null”>嘉會屬昇平昇平今有象厥象問如何老人中天朗宮 含飴駐我長樂春祝聖徠女華封人 商 春長長樂</기사></p>	<p><제 목>大俄羅斯照會文</제 목> <종류=“왕실고문서”> <기사제목>null</기사제목> <기사 일자=“null”>大俄羅斯大皇帝阿泐格三多詔曰朕現有與 大朝鮮國敦厚交涉之意乃特派素 日親信之從二品官駐箭天津領 事珮帶安訥二等寶星章貝作爲 朕全權大臣同</기사></p>
WEB	<p>乙卯十一月初十日 都監 啓曰前司右哨官李先立今十一月初六日入直內後苑時內禁衛崔萬壽……</p>	<p>御製○慈宮臨華城行宮進饌樂章 嘉會屬昇平昇平今有象厥象問如何老人中天朗宮 含飴駐我長樂春祝聖徠女華封人 商 春長長樂</p>	<p>大俄羅斯 大皇帝阿泐格三多詔曰朕現有與 大朝鮮國敦厚交涉之意乃特派素 日親信之從二品官駐箭天津領 事珮帶安訥二等寶星章貝作爲 朕全權大臣同</p>

<예시3> XML 전자문서의 확장성

자료의 해제가 1건인 경우(자료:해제=1:1)	
XML 예시	<p><원자료> <장서각자료> <기본정보 UCI="..."> <자료명>병와전서정원일기초(瓶瓦全書政院日記艸)</자료명> <작성주체> <저자>이형상(李衡祥) 저(著)</저자> </작성주체> </기본정보> <상세정보 UCI="..."> <정의>1681년 신사년간에 병와 이형상이 승정원 사직으로 근무하면서 기록하였던 승정원 일기의 초고본.</정의> <원자료제목> ① <제목 정보원="권수제">정원일기초(政院日記艸)</제목> </원자료제목> <상세내용/> </원자료> </장서각자료></p>
	1종의 자료에 책마다 별도의 해제가 있어 해제가 여러 건 존재하는 경우(자료:해제=1:n)
	<p><원자료> <장서각자료> <기본정보 UCI="..."> <자료명>병와전서정원일기초(瓶瓦全書政院日記艸)</자료명> ○ <작성주체> <저자>이형상(李衡祥) 저(著)</저자> </작성주체> </기본정보> <상세정보 UCI="..."> <정의>1681년 신사년간에 병와 이형상이 승정원 사직으로 근무하면서 기록하였던 승정원 일기의 초고본.</정의> ①<원자료제목> <제목 정보원="권수제">정원일기초(政院日記艸)</제목> </원자료제목> <상세내용/> ②<원자료제목> <제목 정보원="권수제">남사록(南廌錄)</제목> </원자료제목> <상세내용> 조선 후기의 문신인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66세 때에 남긴 저서. 고본(稿本) 1책. 이형상은 48세(숙종 26) 때 경주부윤(慶州府尹)… </상세내용> ③<원자료제목> <제목 정보원="표제">성여록(聖與錄)</제목> </원자료제목></p>

	<p><상세내용> 조선 후기의 문신인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55세 때에 남긴 저서. 고본(稿本) 1책. 영본(零本). 이형상은 평소 습증(濕症)이 있는…</p> <p></상세내용> </상세정보> </장서각자료> </원자료></p>
--	--

위에 예시로 든 ‘해제정보’ 뿐만 아니라 복수의 ‘메타정보’(한 종의 자료이면서 책마다 크기가 다른 경우) 역시 XML 문서에 수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XML의 확장성과 유연성은 ‘다종소량(多種小量)’이라는 특징을 가진 고문헌자료의 메타정보를 정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성이다.

그렇다면 XML과 달리 경직적 구조로 인해 데이터 확장성의 한계를 갖는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자료서비스시스템들은 현황은 어떨까.

최근 장서각과 자료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문건을 보면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국가기록문화유산 디지털화 협의체>

붙임	기록문화유산 디지털화 지원 계획(안)
<input type="checkbox"/> 디지털화 지원 추진(안)	
메타데이터 구축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MODS 포맷 적용·입력 - 국립중앙도서관 작업지침 적용 목차(TOC) 구축 - 메타데이터 입력의 정확성, 오타자 점검 - 목차(TOC) 오·탈자 및 파일 링크 점검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등 연동 점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재구축 사업>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재구축 사업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한자일치 검색 및 데이터의 형식에 맞는 효율적인 검색시스템 개발 - 한자일치, 내용 검색 등 다양한 검색 및 색인 시스템 도입 - Marc데이터를 Xml데이터로 자동변환·서비스, Marc기반 검색의 한계 보완 및 검색성능 향상

두 문건에 Marc를 대신하는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와 XML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지원 서비스 > 한국서지표준 > MODS소개’를 보면

○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소개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는 메타데이터 객체 기술 스키마로써, 디지털 자원에 특화된 표준 목록형식이다.

○ MODS의 개발배경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MARC 데이터 요소의 개수 및 복잡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왔고, 이 때문에 일부는 더블린 코어(DC)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의 사용을 제안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도서관(LC)은 MARC 21에서 파생된 데이터 요소의 하위 집합을 포함하고, 언어 기반의 태그와 XML 스키마를 가지는 MODS를 개발하게 되었다.

MODS 역시 디지털 자원을 다루기 위해 XML의 특성을 수용한 ‘메타데이터 객체 기술 스키마’로, Marc를 기반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도서관 역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Marc를 극복하고 ‘데이터의 확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데이터셋의 미덕은 물리적 한계에 구애되지 않는 유연성과 확장성이라 하겠는데 이는 곧 ‘디지털’의 특성이기도 하다.

다. <디지털장서각>의 서브시스템으로서의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

디지털 기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보의 특성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그 이용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하드웨어나 인프라(infrastructure)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 인프라 등 디지털 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나 시스템의 스펙을 결정할 때 미래의 발전 수준을 감안한 결정이 필요하다.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는 데이터 품질과 관련해 2015년 기획 당시 오버스펙(over-spec)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에도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서비스의 최종 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수준에 부합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1)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 이미지뷰어의 특징

스트리밍 방식의 뷰어는 이미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 서비스에서 최초로 도입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고문서 중에는 크기가 큰 자료가 많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여러 장의 문서가 점련된 고문서의 경우 그 크기가 큰 만큼 고화질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 용량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큰 크기의 이미지 파일은 PC나 네트워크의 처리능력을 고려 시 과부하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일을 분할하여 로딩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뷰어가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한국고문서자료관의 이미지 서비스는 2010년 당시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스펙에 맞춘 이미지 데이터의 품질 자체가 낮아 스트리밍 뷰어에서 최대 크기로 확대 시 글씨가 선명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는 기록문화재 원본 열람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복제본을 제작,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기록문화재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원본 열람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뷰어로 볼 때 실물보다

더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을 정도의 품질 수준이 요구되었고 여기에 예상되는 하드웨어 및 인프라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서비스용 이미지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결정했다.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 시스템은 이후 몇몇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되었고 <디지털장서각>과 <JARMS> 양 시스템에 고품질의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시스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는 많은 원본 열람 수요를 대체하면서 자료 이용의 활성화와 원본 자료의 보존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디지털장서각>의 이미지 뷰어를 통해 이미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책 단위로 다운로드 시 파일 포맷은 PDF인데 이는 낱장 이미지 파일(JPG)을 미리 PDF 파일로 적재해 놓고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시 1책을 구성하는 낱장 이미지 파일들(JPG)이 자동으로 PDF파일로 묶이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서 비로소 개별 서비스용 PDF 파일을 일일이 생성하고 적재해 두는 방식의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노동집약적 방식의 DB구축 패러다임과 결별을 고했다.

2)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 이미지 데이터 품질 기준

<장서각 원문이미지 서비스> 이미지 데이터의 품질 기준은

[그림 4-2] <디지털장서각> 시스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면 촬영 ○ 가독성 최우선 ○ 후보정 금지 |
|--|

이다.

크기가 비교적 일률적인 기록문화재 고서류는 양면을 펼쳐서 사방에 약간의 여분을 두어 스캔하고 그대로 서비스하는데, 책을 읽기 위해 펼친 모습과 동일한 상태로 책배의 정보도 고스란히 유지되어 맥락정보 유실로 인해 앞뒷장의 순서가 뒤바뀔 우려가 없고 이미지 파일명에 a/b의 구분정보를 넣어 앞뒷면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책이나 문서의 형태를 가진 기록문화재는 지식 전달 매체이며 책과 문서는 그 지위의 절대성이 예전같지 않더라도 여전히 지식 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따라서 기록문화재의 디지털 복제본 이미지 품질의 최우선 기준은 가독성이다. 양지(洋紙) 등 뒷면이 비쳐 글자간 간섭이 일어나거나 마모로 앞뒷장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어느 면의 글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촬영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배지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문화재의 색 구현 외에 후보정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꺼운 책을 양면으로 펼쳐 투명 평판으로 누르지 않고 촬영 시 발생하는 굴곡과 휘어진 광
 광은 일자로 펴줘야 하는가.

기록문화재의 디지털 복제본은 영화로 치면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디지털 복제본의 촬영 구도는 책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담아낼 수 있게 고정되어 있다.

고품질의 이미지 데이터와 스트리밍 방식의 뷰어 덕분에 자료 확대 후 선명도가 높아지면서
 인장정보나 부전 등 일부 정보에 대한 클로즈업 부분 촬영도 불필요하다. 별도의 인장정보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추출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E-book이 아닌 만큼 예쁘게 보일 필요가 없으므로 후보정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다.

때로 병합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부분 컷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데이터의 전체 구성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큰 사이즈의 탁본이나 지도 등의 경우 부분 이미지와 병합한 전체 이미
 지를 함께 서비스하면서 병합한 자료임을 명기해 주고 있다.

V.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로드맵

1.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과제

실제로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할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표 6-1]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현 로드맵

	시스템	DB	연구사업	목표
1차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ISP(정보화 전략계획) 시행 운영 환경·투입 자원 파악 TO-BE 모델 실현 계획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및 시스템 설계 9개 서원 소장/위탁 자료 목록 분석 및 메타데이터 설계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착오 최소화
2차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및 관리자 서비스 개발 다중분류 디렉토리, 검색엔진 이미지뷰어 고도화(연구성과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문이미지 촬영 9개 서원 소장/위탁 자료 촬영 디지털 복제본 역할에 적합한 고화질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도출 서지/내용 해제 작성 정서 및 번역 대상 자료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록 기반 메타정보 생성 완료 원문이미지 업로드 완료
3차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기능 개발(모듈식) 원문이미지 열람 및 관리 기능 해제, 원문텍스트, 번역 등 편찬지원 및 관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문이미지 촬영 9개 서원 소장/위탁 자료 촬영 디지털 복제본 역할에 적합한 고화질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도출 서지/내용 해제 작성 정서 및 번역 대상 자료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웹서비스 시작 특별전 및 기획전 등 콘텐츠 기획 준비

4차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전시 서비스 개발 - 디지털 전시 프레임워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고도화 - 해제/원문텍스트 지식정보 추출 - 편찬시스템을 이용한 원문텍스트/번역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전시(특별전·기획전) 콘텐츠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웹서비스 본격화
5차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도입을 위한 검토·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자원 발굴 - 연계 및 확장을 위한 메타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자원 발굴 - 신규 연계 대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점검 및 2단계 기획

가.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란 조직의 경영 목표 및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기관 전체 차원의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기초 연구)도 그 취지와 성격에 있어 이러한 ISP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디지털 아카이브’로서의 비전과 요건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향후 아카이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조직과 역할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에서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의 위상과 기능이 다시 정립되어야 필요가 있다.

ISP 사업의 출발점은 조직의 경영 목표, 경영 전략 및 그 조직의 경영 환경에 의한 제약 조건이다. 예를 들어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이상적인 ‘목표’와 ‘인력과 예산’이라는 환경의 제약 범위 역시 조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계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한편으로 인력, 예산, 타 기관과의 실제적인 업무 협력 체계 등 환경적 요인들은 현재의 상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노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역시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초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상을 언제까지 어떠한 수준으로 구현할 것인가 역시 ISP 사업을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예산 및 인력, 정부 시책 등 외부 환경 고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할 정보시스템은 본 연구에서 다룬 ‘디지털 아카이브’의 주된 기능 외에도 연구, 출판 전시·교육 등 행사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 인적 자원의 관리, 관련 9개 서원 정보(건축물, 행사일정)의 관리 등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 또는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중장기 발전 전략이 ISP 사업을 통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스템 개발 사업

ISP 사업을 통해 전사적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상과 단계별 구현 전략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부문별 시스템 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경우, 이 시스템 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서원 문헌'에 관한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서비스하는, 이른바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시스템이며, 다른 하나는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라는 기관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는 전자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기로 한다.

1) 한국의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사업은 2건의 선행 사업(기초 연구 및 ISP)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에서 실제로 운영할 시스템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기본 구상'이 제안하고 있는 바대로 라키비움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할 것을 결정하고, ISP 사업을 통해 그 단계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콘텐츠의 축적 및 연계,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v. 1.0)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일정 부분 적용, 검증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조사, 연구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 시스템의 개발을 모두 완료하기보다는 모듈별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한 개발 전략일 수 있다. (개발 일정은 ISP 사업을 통해 구체화) 이 경우 '서원 문헌 지식 정보' 클래스와 '서원 문헌 소장 정보' 처리 모듈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① '지식 정보시스템'과 '유물 관리 시스템'의 연동

- 이 아카이브 시스템은 관리 시스템과 지식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중 관리 시스템은 9개 서원의 개별 유물 관리 시스템 또는 위탁 기관의 관리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지식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위주로 하되, 유물 관리 시스템과 지식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부가하는 과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식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모듈

- 데이터의 입력은 1건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다 많은 경우 위탁연구의 결과물을 일괄 처리로 입력할 것이 예상되므로 XML 반입 기능에 비중을 두어 개발해야 한다.

- XML 데이터 적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을 준수하여 구현한다.

- 단위 노드의 XML 문서는 더 이상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XML 칼럼(데이터 테이블이 XML 문서)에 적재한다.
- 주요 메타데이터 요소는 별도 테이블의 독립 칼럼 데이터로 관리한다.
- XML 본문 칼럼과 메타데이터 칼럼의 데이터는 항상 일치되도록 한다.

- 지식 정보 관리 시스템의 콘텐츠는 XML 반입, 또는 개별 입력 시에 관계 링크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리포팅하는 기능이 부가되어야 한다.

③ 지식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모듈

- 지식 정보시스템의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종합적인 지식의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구현한다.

- 외부 자원 속성(isShownAt, isShownBy)을 통해 타 기관의 유관 자원을 연계 서비스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 공간(Place), 시간(TimeSpan)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 지도, 전자 연표 서비스 기능을 구현한다.

- 웹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함께 동일한 콘텐츠를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 3차원 공간 형태로 시각화한 플랫폼 상에서 지식 정보 데이터를 탐색, 열람할 수 있게 하는 3D 가상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디지털 전시 프레임워크

-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오프라인 전시 콘텐츠를 시각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재현하여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 디지털 전시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기획 전시 콘텐츠를 용이하게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는 표준화된 틀이다. 오프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때마다 이에 대한 디지털 전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다.

- 그러나 개별 기획전의 전시물품 영상(Still Image, Panoramic View, Object Model 등)과 안내 텍스트만을 끼워 넣으면 즉각적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전시 프레임워크를 운영할 경우,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온라인 전시관>의 모든 전시 행사를 용이하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아감으로써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3) 공공 데이터 제공 API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7.]」의 취지에 따라 공공 데이터 제공 모듈을 개발한다. 여기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의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외부 이용자가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데이터에 기계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제공되어야 한다.

- 지식 정보시스템 및 유물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가 모두 제공 대상이므로, 외부 이용자가 두 시스템에서 XML 문서 형태의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판독·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 콘텐츠 개발 사업

콘텐츠 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두 가지 수행 전략이 필요하다. (ISP를 통해 수립)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콘텐츠는 궁극적으로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내의 전문 연구자들이 조사, 연구, 편찬해야 할 지식 정보이지만(중장기 계획), 시스템 운영 초기부터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보 양적 규모를 갖춘 콘텐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 조직의 조력에 의한 콘텐츠 생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 계획)

1) 서원 문헌 지식 정보 콘텐츠

서원 문헌 지식 정보 콘텐츠 또는 서원 지식 정보 콘텐츠 개발은 지식 정보시스템의 콘텐츠를 조사, 집적, 편찬하는 과제이다.

콘텐츠 편찬 개발의 첫 단계는 대상 항목을 확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연구진이 주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부분이다.

① 지식 정보 콘텐츠의 범위

- 서원 문헌 지식 정보는 궁극적으로 서원 문헌 전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망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 있는 단기 계획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를 편찬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료의 중요도뿐 아니라, 편찬의 용이성,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비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기존 디지털 자원의 재활용(Reuse) 방안

- 서원 문헌 지식 정보 콘텐츠의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존 자원을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문맥 정보

- 지식 정보 콘텐츠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이른바 ‘문맥 정보’(Contextual Information)²⁸⁰⁾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Agent, 기관·단체 포함), 장소(Place), 시대(TimeSpan), 용어(Concept)를 텍스트 상에서 드러나게 하고 그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문맥 정보 콘텐츠’로 가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지식 정보 콘텐츠 개발을 외주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첫 단계에서는 문맥 정보 콘텐츠를 새로 편찬하기보다는 월드 와이드 웹상에서 접근 가능한 외부 자원을 발굴하여 그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서원 문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맥 정보의 상당 부분은 이미 여러 고문헌 소장 기관에서 편찬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상에서 발굴할 수 있다²⁸¹⁾.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는 이를 참조 데이터로 재활용(Reuse)하고, 향후 2단계 사업에서 이러한 자원을 집적하고 가공하여 구조화한다.

2) 타 기관 소장 정보 연계 서비스 콘텐츠

서원 문헌 지식 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은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이외의 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원 문헌’의 소재지 정보(소장 정보)를 조사하여 그 소재에 관한 데이터를 지식 정보 콘텐츠에 포함시키는 과업을 포함한다. (웹상에서의 Link를 위한 URL 및 최소한의 메타데이터)

단기 계획에서는 초기 데이터베이스 등재 지식 정보 데이터 중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소장품 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삼아 그 유물의 소재지를 조사하고, 타 기관에 디지털화된 소장 정보가 있는 경우 Linked Data를 추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중장기 계획에서는 지속적인 조사 연구 업무의 일환으로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에서 모든 서원 문헌의 소재지 정보를 확보해 나아간다.

라. 연구 사업

서원 문헌 지식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제작은 범국가적, 범세계적인 서원 문헌 지식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비전과 의지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실천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강구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280) Information we know that is relevant to an understanding of the text: •The identity of things named in the text: people, places, books, etc. •Information about things named in the text: birth dates, geographical locations, date published, etc. •Interpretive information: themes, keywords •Normalization of measurements, dates, etc. (What is contextual information?, Brown University, http://www.wwp.brown.edu/outreach/seminars/_current/presentations/metadata/metadata_03.xhtml)

281)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고문서자료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등

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가 주체적으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성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제작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서원 문헌 식별자 제정

장기적으로 볼 때, 서원 문헌 지식망을 형성하는 중심 노드는 월드 와이드 웹상에서 서원 문헌 하나하나를 명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다. 국민들에게 지식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서원 문헌의 망라적인 목록을 만들어 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운영 팀의 중요한 업무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업무는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콘텐츠 제작 사업을 발주하기에 앞서 정보기술전문가 및 서원 문헌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초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서원 문헌 문화재의 목록과 식별자 명명 규칙을 확정해야 한다.

2) 서원 문헌 분류 체계 개발 연구

LIDO, Europeana 등 문화유산 데이터의 재이용 및 교환에 관한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서원 문헌의 다양한 속성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형식에 따라 기입해야 할 데이터 값의 내용,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의 성격 및 유형에 대한 분류는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서원 문헌을 대상으로 한 내용 분류의 사례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문서자료관>의 ‘형식분류·내용분류’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다. 매우 소략한 분류 체계이기는 하나,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 중에는 이보다 상세한 내용 분류 연구를 한 이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반영한 내용 분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6-2] <한국고문서자료관>의 서원·향교 자료군 형태분류 및 내용분류

순서	형태분류	내용분류
1	고서-역사서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2	고문서-치부기록류-역사기록	교육·문화-서원·향교-서원지
3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4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교육·문화-서원·향교-망기
5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교육·문화-서원·향교-서목
6	고문서-치부기록류-서목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7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홀기
8	고문서-치부기록류-홀기	교육·문화-서원·향교-시도기
9	고문서-치부기록류-시도기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10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교육·문화-서원·향교-심원록
11	고문서-치부기록류-참사록	교육·문화-서원·향교-재임안
12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교육·문화-서원·향교-의연록
13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14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15	고문서-치부기록류-중수기	
16	고서-기타	

[표 6-3] <한국고문서자료관>의 서원·향교 자료군 분류 예시

순서	자료 예시	형태분류	내용분류
1	원임록(院任錄)	고서-역사서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2	1935년 남계서원지(藍溪書院誌)	고서-역사서	교육·문화-서원·향교-서원지
3	1985년 덕천서원지(德川書院誌)	고문서-치부기록류-역사기록	교육·문화-서원·향교-서원지
4	고산서원(高山書院) 고산서원절목(高山書院節目)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5	직각회권(直閣會圈)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교육·문화-서원·향교-망기
6	신유년 서책목록(書冊目錄)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교육·문화-서원·향교-서목
7	기타(其他)	고문서-치부기록류-서목	교육·문화-서원·향교-서목
8	능동석역시파록(陵洞石役時爬錄)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9	홀기(笏記)	고문서-치부기록류-홀기	교육·문화-서원·향교-홀기
10	도회시도기(道會時到記)	고문서-치부기록류-시도기	교육·문화-서원·향교-시도기
11	용산서원일지(와역도감) (龍山書院日誌(瓦役都監))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12	용산서원(龍山書院) 기타잡기(심원록)(其他雜記(尋院錄))	고문서-치부기록류-시도기	교육·문화-서원·향교-심원록
13	심원록(이장익 ~ 정유표) (尋院錄(李章翊 ~ 鄭裕杓))	고문서-치부기록류-참사록	교육·문화-서원·향교-심원록
14	거접록(임인월 초일) (居接錄(壬寅月 初日))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15	1592년 이전 ~ 1640년 병산서원(屏山書院) 원임록(院任錄)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교육·문화-서원·향교-재임안
16	임진년 김해향교(金海鄉校) 청금록(靑衿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17	1552년경~1705년 경임안(經任案)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교육·문화-서원·향교-서원지
18	1615~1814년 남명선생청무소본초 (南冥先生請無疏本抄)	고문서-치부기록류-역사기록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19	1804~1811년 병산서원(屏山書院) 경로회안(慶老會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20	1864년 재임(齎任) 이(李) 구강서원량하전안(龜岡書院良下典案)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교육·문화-서원·향교-재임안
21	1925년 교궁중수의연록(校宮重修義捐錄)	고문서-치부기록류-중수기	교육·문화-서원·향교-의연록
22	홀기(笏記)	고서-기타	교육·문화-서원·향교-홀기
23	심원록(尋院錄)	고서-기타	교육·문화-서원·향교-심원록
24	집강안(執綱案)	고서-기타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25	월암서원지(月巖書院誌)	고서-기타	교육·문화-서원·향교-서원지

2.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과제

1단계(4개년): 효율적 아카이브 구축과 안정적 운영.

2단계(3개년) : 아카이브 확충 • 확산 전략.

(2단계) 1차년도

- 아카이빙 문헌의 양적 확충
- 서원별 장서목록 기반 미소장 문헌의 디지털 정보 수집 • 연계
- 타처 • 타기관 소장 문헌의 디지털 정보 수집 • 연계

(2단계) 2차년도

- 아카이빙 문헌의 질적 확충
- 아카이빙 문헌의 내용 관련 문헌자료 수집 • 연계
예시. 정약용, 『목민심서(牧民心書)』, 예전(禮典), 과예(課藝).
- 「한국의 서원」 관련 연구자료, 논문정보를 수집 • 연계
- 서원 연구의 기반 제공

(2단계) 3차년도

- 아카이브 확산, 세계화
- 대표적인 국내외 아카이브 및 고문헌 아카이브 연계

지식정보 아카이브 & 연구지원 플랫폼.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연구방법론.

- 안정적인 아카이브 플랫폼 운영을 근간으로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방법론을 적용, 지식정보 연계 확장.
- 서원 구성요소인 인간 • 공간 • 문헌에서 전근대 • 근대, 인물 • 학파 • 정파, 인문지리 • 역사적 사건 등 분야를 망라하는 지식정보 연계
- 지식정보 아카이브이자 연구지원 플랫폼으로 기능.

아카이브의 세계화.

세계화를 통한 UNESCO 문화유산의 가치 구현

- 세계 문헌 아카이브와의 연계 추진
- 비교연구 활성화의 장場 제공
- 동종同種 UNESCO 문화유산과 협력을 통한 홍보

UNESCO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전범典範 목표

VI.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운영 방안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운영은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수행해야 할 주 기능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직 구성과 사업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한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주무부서의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된 현안 몇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디지털 아카이브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디지털 아카이브의 운영은 3가지 업무 영역(조사연구, 자료수집관리, 자료정보)에 모두 관련된다. ① 디지털 아카이빙 대상 자료의 선정과 식별자 부여, 지식 정보 콘텐츠의 편찬 또는 외주 사업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품질 관리는 조사연구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유물 관리 시스템의 운영은 자료수집관리 담당자들의 임무이며, ③ 서원 문헌 지식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속에 담을 콘텐츠 제작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은 자료 정보 담당자가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조직은 서원 문헌 지식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 사업 관리 이외에 ④ 정부의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따르는 데이터 공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⑤ 타 기관의 공개 데이터를 적정한 방법으로 반입하여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지식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래적인 의미의 아카이브 관리(기록물 관리)는 조사연구 팀의 업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⑥ 이 아카이브(기록물 관리)를 운영,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은 자료 정보 팀의 임무가 될 것이다.

2. 서원 문헌 소장 정보 연계망 구축

1) 장기적 목표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는 ‘서원 문헌’ 관련 가치 있는 데이터를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소장 여부와 무관하게 수집, 정리, 축적(지식 정보의 아카이빙)하고 이를 서비스하며,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소장 유물 정보는 이 지식 아카이브의 콘텐츠(Knowledge Objects)에 대응하는 실물(유물)의 소재 정보 차원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때, 실물의 소재 정보는 9개 서원을 비롯한 국내 서원의 소장품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나아가 외국의 다른 아카이브(박물관, 도서관)에 소장된 유물의 소재지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시스템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2) 소장 정보 연계를 위한 단기 계획

따라서 소장 정보 연계를 위한 단기 계획은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측에서 직접 서원 문헌에 관한 외부 소장 정보를 조사하여 그 데이터(웹상에서의 Link를 위한 URL 및 최소한의 메타데이터)를 지식 정보시스템에 적재하는 것이다.

문화유산을 소장하거나 그에 관한 지식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있는 국내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그 동안 적지 않은 공공 예산을 투입하여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서원 문헌의 소장 정보를 탐색하여 추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

3) <공공데이터 포털> 및 <디지털 집현전>의 적극적 활용

외부 데이터 연계는 서원 문헌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등재된 자원과 「디지털 집현전법」에 기반한 국가지식정보 검색 포털 <디지털 집현전(k-knowledge.kr)>에서 검색 가능한 자원이다.

현재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API를 통해 기계적으로 판독·취득할 수 있는 방식과 단순히 개별 자료의 URL만을 제공하는 방식 두 가지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향후 API를 통한 데이터 취득 방식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가 타 기관에서 얻고자 하는 서원 문헌의 소장 정보의 상당 부분을 이 공동 데이터 포털에서 기계적으로 탐색,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한 연계 정보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림 7-1] <공공데이터> ‘서원’ 검색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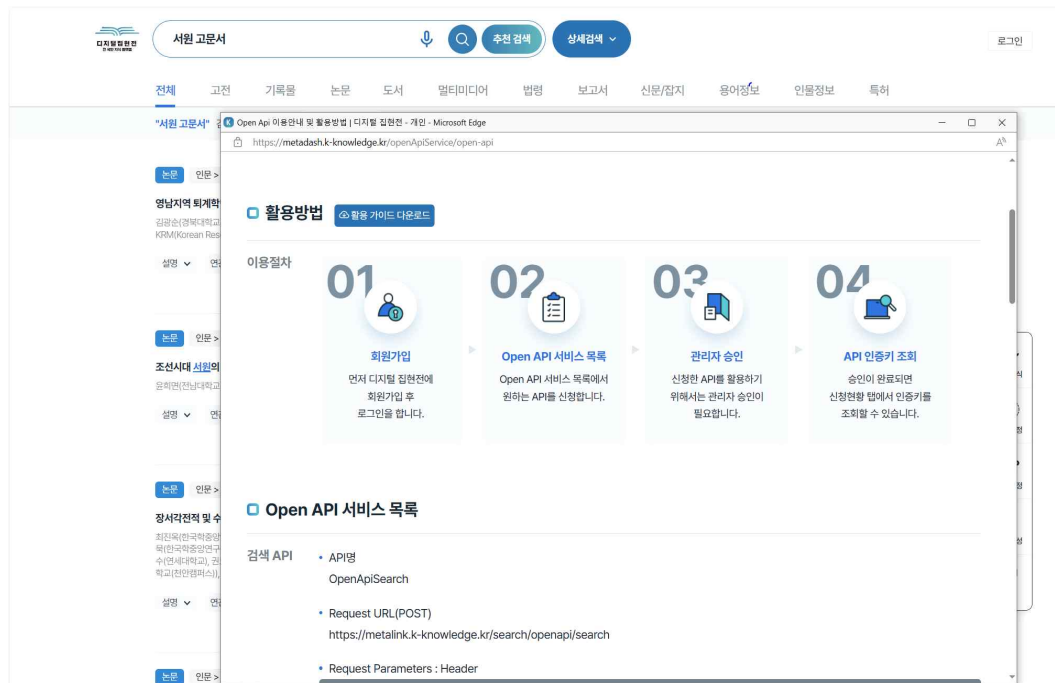


국가지식정보의 검색 포털을 표방하는 <디지털 집현전>²⁸²⁾은 분산된 국가지식정보를 <디지털 집현전>으로 연결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한 번의 검색으로 과학·기술·인문·사회·교육·의료·문화 분야에 아우르는 국가지식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지식 서비스 플랫폼이다.

<디지털 집현전>의 국가지식정보의 통합은 연계 대상 시스템의 지식을 복사 또는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 대상 시스템에서 생산 및 보유·관리되는 지식을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을 위해 표준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집현전 분류를 정의하고 연계 시스템과 메타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연결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82) <디지털 집현전>은 '23년 12월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그림 7-3] <디지털집현전>의 API 방식의 정보공개 서비스



VII. 맺음말

‘디지털 아카이브’의 함의가 매우 다양하므로, 그것의 목표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에<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방 및 공유를 통해 소통과 확산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선진적인 표준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에 있어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국내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이곳에서 그 유효성을 입증한 표준 규약 및 응용 기술을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에 도입·적용하는 데 있어 시행 착오를 겪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성과로 단계별 추진 과제로서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은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서원 문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전략 이외에도 ‘서원 문헌’과 ‘디지털 정보 기술’의 융합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서원 문헌의 정보화를 위한 콘텐츠 분류 체계 및 용어의 표준화, 태생적인 디지털 서원 문헌의 보존과 관리 방안을 찾는 일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이러한 과제들은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의 연구진과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전문가들이 걱정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성과에 기반하여 ‘서원 문헌 아카이브’를 넘어 ‘세계유산 서원 아카이브’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록

● <한국고문서자료관> DB설계

가. 테이블 목록

번호	테이블 이름	테이블 설명
1	형식분류	고문서자료의 형식분류 목록
2	내용분류	고문서자료의 내용분류 목록
3	소장처분류	고문서자료의 소장처분류 목록
4	지역분류	고문서자료의 지역분류 목록
5	시기분류	고문서자료의 시기분류 목록
6	한국학자료	고문서자료 XML자료
7	자료요약정보	고문서자료 XML의 웹서비스를 위한 개별항목
8	지역정보	고문서자료 XML의 지역정보 추출
10	인물지도	고문서자료 XML의 인물정보 추출
11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 XML의 이미지정보 추출
13	연대기연표	고문서자료 XML의 시기정보 추출
14	콘텐츠색인	고문서자료 XML의 내용색인정보 추출
16	안내정보	고문서자료 XML의 안내정보 추출
17	원문텍스트	고문서자료 원문텍스트 XML
18	동양연표	동양연표 자료목록
19	검색_고문서자료관	검색_고문서자료관
20	문서이미지	문서이미지
21	소장처_고문서보기	소장처_고문서보기
22	소장처_남긴사람들	소장처_남긴사람들
23	소장처_댓글게시판	소장처_댓글게시판
24	소장처_메인화면	소장처_메인화면
25	소장처_문중이야기	소장처_문중이야기
26	소장처_유물유적	소장처_유물유적
27	소장처_이용자참여	소장처_이용자참여
28	소장처_지킨사람들	소장처_지킨사람들
29	소장처_회원정보	소장처_회원정보
30	인기검색어	고문서자료의 인기검색어 목록 관리
31	인기검색어_로그	고문서자료의 인기검색어 전체목록
32	한국학자료표준사례	한국학자료표준사례
33	묶음해제	관련문서군 서비스

나. ER-Diagram

형식분류

코드: nvarchar(6)
단계: int
순서: int
상위코드: nvarchar(4)
한글이름: nvarchar(255)
한자이름: nvarchar(255)
영문이름: nvarchar(255)
중문이름: nvarchar(255)
일문이름: nvarchar(255)
설명: nvarchar(1000)
영문설명: nvarchar(1000)
중문설명: nvarchar(1000)
일문설명: nvarchar(1000)
건수: int

내용분류

코드: nvarchar(6)
단계: int
순서: int
상위코드: nvarchar(4)
한글이름: nvarchar(255)
한자이름: nvarchar(255)
영문이름: nvarchar(255)
중문이름: nvarchar(255)
일문이름: nvarchar(255)
설명: nvarchar(1000)
영문설명: nvarchar(1000)
중문설명: nvarchar(1000)
일문설명: nvarchar(1000)
건수: int

소장처분류

코드: nvarchar(6)
단계: int
순서: int
상위코드: nvarchar(4)
한글이름: nvarchar(255)
한자이름: nvarchar(255)
영문이름: nvarchar(255)
중문이름: nvarchar(255)
일문이름: nvarchar(255)
건수: int
자료센터: nchar(1)
고문서집성: nchar(1)

지역분류

코드: nvarchar(6)
단계: int
순서: int
상위코드: nvarchar(4)
한글이름: nvarchar(255)
한자이름: nvarchar(255)
영문이름: nvarchar(255)
중문이름: nvarchar(255)
일문이름: nvarchar(255)
건수: int

시기분류

코드: nvarchar(4)
단계: int
순서: int
상위코드: nvarchar(4)
한글이름: nvarchar(255)
한자이름: nvarchar(255)
영문이름: nvarchar(255)
중문이름: nvarchar(255)
일문이름: nvarchar(255)
시작년도: int
종료년도: int
건수: int

자료요약정보

자료UCI: nvarchar(255) (FK)
형식분류: nvarchar(255)
형식분류코드: nchar(6)
내용분류: nvarchar(255)
내용분류코드: nchar(6)
자료명: nvarchar(1000)
작성주체_구분: nvarchar(100)
작성주체_1_이름: nvarchar(255)
작성주체_2_구분: nvarchar(100)
작성주체_2_이름: nvarchar(255)
작성주체_전체: nvarchar(1024)
작성지역: nvarchar(255)
작성시기: int
작성시기_정보원: nvarchar(100)
시기분류코드: nchar(4)
생산시기: int
형태사할_가로: nvarchar(100)
형태사할_세로: nvarchar(100)
형태사할_판본: nvarchar(255)
형태사할_장정: nvarchar(255)
형태사할_재질: nvarchar(255)
형태사할_표기문자: nvarchar(255)
연결자료UCI: nvarchar(255)
연결순서: int
원소장처: nvarchar(255)
원소장처분류코드: nchar(6)
현소장처: nvarchar(255)
소장처분류코드: nchar(6)
상세정보정의: nvarchar(2000)
상세정보내용: nvarchar(max)
안내정보표제어: nvarchar(2000)
안내정보내용: nvarchar(max)
원문텍스트UCI: nvarchar(255)
원문텍스트자료형식: nvarchar(255)
원문이미지UCI: nvarchar(255)
원문이미지자료형식: nvarchar(255)
썸네일이미지: nvarchar(255)
건수_작성지역POI: int
건수_원소장처POI: int
건수_현소장처POI: int
건수_관련지역POI: int
등록POI: int
번역구분: nvarchar(1)
자료명_영문: nvarchar(1000)
발급자_영문: nvarchar(1000)
수취자_영문: nvarchar(1000)
작성지역_영문: nvarchar(1000)
소장정보_영문: nvarchar(1000)
비고_영문: nvarchar(1000)
상세정보정의_영문: nvarchar(2000)
상세정보내용_영문: nvarchar(max)
안내정보표제어_영문: nvarchar(2000)
안내정보내용_영문: nvarchar(max)
자료명_중문: nvarchar(1000)
안내정보내용_중문: nvarchar(max)
자료명_일문: nvarchar(1000)
안내정보내용_일문: nvarchar(max)
연계번호: int
작성주체_전체_영문: nvarchar(2000)
외부연계정보: nvarchar(1000)
썸네일데이터: image

지역정보

자료UCI: nvarchar(255) (FK)
구분: nvarchar(10)
지역분류코드: nchar(6)
종류: nvarchar(64)
표기명: nvarchar(255)
행정주소: nvarchar(255)

고지역정보

자료UCI: nvarchar(255) (FK)
구분: nvarchar(10)
고지명코드: nvarchar(20)
종류: nvarchar(64)
표기명: nvarchar(255)
행정주소: nvarchar(255)

인물지도

자료UCI: nvarchar(255) (FK)
이름: nvarchar(255)
인물UCI: nvarchar(255)
인물관계ID: nvarchar(255)
인물속성: nvarchar(100)
인물서속성: nvarchar(100)

한국학자료

자료UCI: nvarchar(255)
자료명: nvarchar(1024)
자료XML: xml
등록일: datetime
수정일: datetime

원문이미지

자료UCI: nvarchar(255) (FK)
순서: int
레벨: int
이미지제목: nvarchar(1024)
이미지파일: nvarchar(1024)
이미지좌표_X: nvarchar(256)
이미지좌표_Y: nvarchar(256)
보기모드: nvarchar(50)
가로세로비율: nvarchar(50)
원문텍스트위치: nvarchar(50)
참조자료UCI: nvarchar(1024)

문헌연표

자료UCI: nvarchar(255) (FK)
작성시기: int
자료명: nvarchar(1000)
출처: nvarchar(1000)
URL: nvarchar(1000)

연대기연표

자료UCI: nvarchar(255) (FK)
순서: int
자료명: nvarchar(1000)
시작시점: int
종료시점: int
사건: nvarchar(2000)
내용분류코드: nchar(6)

콘텐츠색인

자료UCI: nvarchar(255) (FK)
분류: nvarchar(10)
표제어: nvarchar(100)
색인어: nvarchar(100)

안내정보

자료UCI: nvarchar(255) (FK)
안내정보UCI: nvarchar(255)
참조안내정보UCI: nvarchar(255)
안내정보구분: nvarchar(255)
안내정보표제어: nvarchar(1000)
안내정보내용: xml

원문텍스트

원문UCI: nvarchar(255)
자료명: nvarchar(1024)
자료: xml
등록일: datetime
수정일: datetime

콘텐츠색인서비스

자료UCI: nvarchar(200)
분류: nvarchar(10)
표제어: nvarchar(100)
색인어: nvarchar(100)

동양연표

서기년: nvarchar(256)
단기년: nvarchar(256)
간지_한글: nvarchar(256)
간지_한자: nvarchar(256)
한국국명_한글: nvarchar(256)
한국국명_한자: nvarchar(256)
한국왕명_한글: nvarchar(256)
한국왕명_한자: nvarchar(256)
한국왕_재위년: nvarchar(256)
영국국명_한글: nvarchar(256)
영국국명_한자: nvarchar(256)
영국왕명_한글: nvarchar(256)
영국왕명_한자: nvarchar(256)
영국왕_연호_한글: nvarchar(256)
영국왕_연호_한자: nvarchar(256)
영국왕_재위년: nvarchar(256)

인기검색어

검색어: nvarchar(255)
검색일: datetime
갯수: int

인기검색어_로그_인물관계

seq: int
검색어: nvarchar(255)
검색일: datetime
갯수: int

인기검색어_로그

seq: int
검색어: nvarchar(255)
검색일: datetime
갯수: int

소장처_회원정보

회원아이디: nvarchar(50)
소장처ID: nvarchar(255)
비밀번호: nvarchar(50)
일반전화: nvarchar(50)
회원이름: nvarchar(50)
주민번호: nvarchar(50)
주소: nvarchar(255)
팩스: nvarchar(50)
이메일: nvarchar(50)
휴대전화: nvarchar(50)
회원구분: nchar(1)
회원상태: nchar(1)

소장처_지킨사람들

소장처ID: nvarchar(255)
자료번호: nvarchar(10)
제목: nvarchar(1000)
썸네일: nvarchar(255)
자료구분: nvarchar(255)
주소: nvarchar(1000)
설명: nvarchar(MAX)
자료파일: nvarchar(255)
사진가로크기: nvarchar(50)
사진세로크기: nvarchar(50)
자료순서: int

소장처_이용자참여

아이디: int
분류: nvarchar(20)
소장처ID: nvarchar(256)
제목: nvarchar(256)
내용: nvarchar(MAX)
조회수: int
작성자: nvarchar(100)
이메일: nvarchar(100)
비밀번호: nvarchar(100)
작성일: datetime
상태: int

소장처_고문서보기

구분코드:nchar(2)
순서:int
소장처ID:nvarchar(255)
소표제:nvarchar(1000)
내용:nvarchar(MAX)
구분:nvarchar(255)

소장처_메인화면

소장처ID:nvarchar(255)
템플릿ID:nvarchar(255)
상단타이틀:nvarchar(255)
하단주소:nvarchar(255)
중앙콘텐츠:nvarchar(255)
지역분류:nvarchar(255)
소장처이름:nvarchar(255)
소장처코드:nvarchar(10)
유물유적서브메뉴:nvarchar(255)
소개이미지파일:nvarchar(255)
집성코드:nvarchar(8)
남긴사람들사용여부:nvarchar(8)
지킨사람들사용여부:nvarchar(8)
한자가계도:nvarchar(MAX)
한글가계도:nvarchar(MAX)

소장처_남긴사람들

소장처ID:nvarchar(255)
자료번호:nvarchar(10)
이름:nvarchar(255)
인물설명:nvarchar(MAX)
유물유적링크:nvarchar(255)
생물년:nvarchar(255)
인물사진:nvarchar(255)
인물UCI:nvarchar(255)
만가보ID:nvarchar(255)
사진가로크기:nvarchar(50)
사진세로크기:nvarchar(50)
자료순서:int

소장처_문중이야기

아이디:int
회원이름:nvarchar(50)
작성일:datetime
조회수:int
내용:text
제목:nvarchar(MAX)
소장처ID:nvarchar(255)
첨부파일1:nvarchar(255)
회원아이디:nvarchar(50)

소장처_댓글게시판

아이디:int
내용:nvarchar(MAX)
작성자:nvarchar(100)
이메일:nvarchar(100)
비밀번호:nvarchar(100)
작성일:datetime
게시글아이디:int
부모댓글아이디:int
상태:int

소장처_유물유적

소장처ID:nvarchar(255)
자료번호:nvarchar(10)
제목:nvarchar(1000)
썸네일:nvarchar(255)
대분류:nvarchar(255)
주소:nvarchar(1000)
설명:nvarchar(MAX)
자료파일:nvarchar(255)
중분류:nvarchar(255)
소분류:nvarchar(255)
자료구분:nvarchar(255)
선택썸네일:nvarchar(255)
대분류코드:nchar(2)
사진가로크기:nvarchar(50)
사진세로크기:nvarchar(50)
자료순서:int
출력유무:nchar(1)

검색_고문서자료관

자료명:nvarchar(MAX) 번호:nvarchar(100) 연번:nvarchar(100) 형식분류:nvarchar(100) 발급:nvarchar(MAX) 수취:nvarchar(MAX) 작성시기:nvarchar(100) 작성시기_정보원:nvarchar(100) 작성지역:nvarchar(100) 안내정보_표제어:nvarchar(MAX) 안내정보_내용:nvarchar(MAX) 상세정보_정의:nvarchar(MAX) 상세정보_내용:nvarchar(MAX) 접성번호:nvarchar(200) 접성문서명:nvarchar(200) 접성분류:nvarchar(809) 수록면:nvarchar(200) Thumbnail:nvarchar(300)

문서이미지

문서이미지 번호:nchar(4) 문서이미지파일명:nvarchar(MAX) 자료UCI:nvarchar(80) 문서명:nvarchar(MAX) 문서가로:smallint 문서세로:smallint

한국학자료표준사례

자료UCI:nvarchar(255)
순서:int 표준사례자료명:nvarchar(2000) 세기분류:nvarchar(100) 작성시기:int 형식분류코드:nchar(6)

목록해제

해제번호:nvarchar(100) 구분:nvarchar(255) 제목:nvarchar(1000) 해제:nvarchar(MAX)

● <한국고전종합DB> DB설계

가. ER-Diagram

공통정보

이름: nvarchar(50) NOT NULL
내용: xml NULL
등록일: datetime NOT NULL
수정일: datetime NOT NULL

서지관리

서지ID: nvarchar(50) NOT NULL
아이템이름: nvarchar(50) NOT NULL
서명_한글: nvarchar(100) NOT NULL
서명_한자: nvarchar(100) NULL
저자_한글: nvarchar(50) NULL
저자_한자: nvarchar(50) NULL
간행처: nvarchar(50) NULL
간행계획수: nvarchar(50) NULL
저본: nvarchar(50) NULL
판본: nvarchar(50) NULL
원문수록: nvarchar(100) NULL
DB사업수행명: nvarchar(100) NULL
내부사업분류: nvarchar(100) NULL
내부도서분류: nvarchar(100) NULL
등록일: datetime NOT NULL
수정일: datetime NOT NULL

서지_집수관리

일련번호: int IDENTITY
서지ID: nvarchar(50) NOT NULL (FK)
집수명: nvarchar(100) NOT NULL
설명: nvarchar(max) NULL
간행년: nvarchar(20) NULL
DB구축년: nvarchar(20) NULL
번역면수: nvarchar(20) NULL
원문면수: nvarchar(20) NULL
주석면수: nvarchar(20) NULL
비고: nvarchar(max) NULL

사업정보

사업일련번호: int IDENTITY
사업명: nvarchar(100) NOT NULL
사업담당자: xml NULL
사업기간: nvarchar(50) NULL
사업금액: nvarchar(50) NULL
주관사업자: nvarchar(50) NULL
사업PM: nvarchar(50) NULL
사업내용: nvarchar(max) NULL
접근권한: nvarchar(50) NOT NULL
등록일: datetime NOT NULL
수정일: datetime NOT NULL

사업결과물

사업일련번호: int NOT NULL (FK)
자료ID: nvarchar(50) NOT NULL
아이템이름: nvarchar(50) NOT NULL
자료구분: nvarchar(50) NOT NULL
자료제목: nvarchar(500) NOT NULL
파일명: nvarchar(100) NOT NULL
자료XML: xml NOT NULL
등록일: datetime NOT NULL

서지이미지

일련번호: int IDENTITY
아이템이름: nvarchar(50) NOT NULL
서지ID: nvarchar(50) NOT NULL
서명: nvarchar(100) NOT NULL
집수명: nvarchar(100) NOT NULL
원본이미지파일명: nvarchar(50) NOT NULL
서버이미지파일명: nvarchar(50) NOT NULL
썸네일이미지: binary NOT NULL
태그: nvarchar(100) NULL
등록일: datetime NOT NULL

저장소_자료

자료ID: nvarchar(50) NOT NULL
아이템ID: nvarchar(50) NOT NULL
서지ID: nvarchar(50) NOT NULL
상위자료ID: nvarchar(50) NOT NULL
자료구분: nvarchar(20) NOT NULL
자료제목: nvarchar(500) NOT NULL
저자: nvarchar(50) NULL
역자: nvarchar(500) NULL
필자: nvarchar(500) NULL
간행처: nvarchar(50) NULL
문체분류: nvarchar(50) NULL
DCI: nvarchar(50) NULL
서비스적재일: datetime NULL
자료XML: xml NOT NULL
등록일: datetime NOT NULL
수정일: datetime NOT NULL

저장소_서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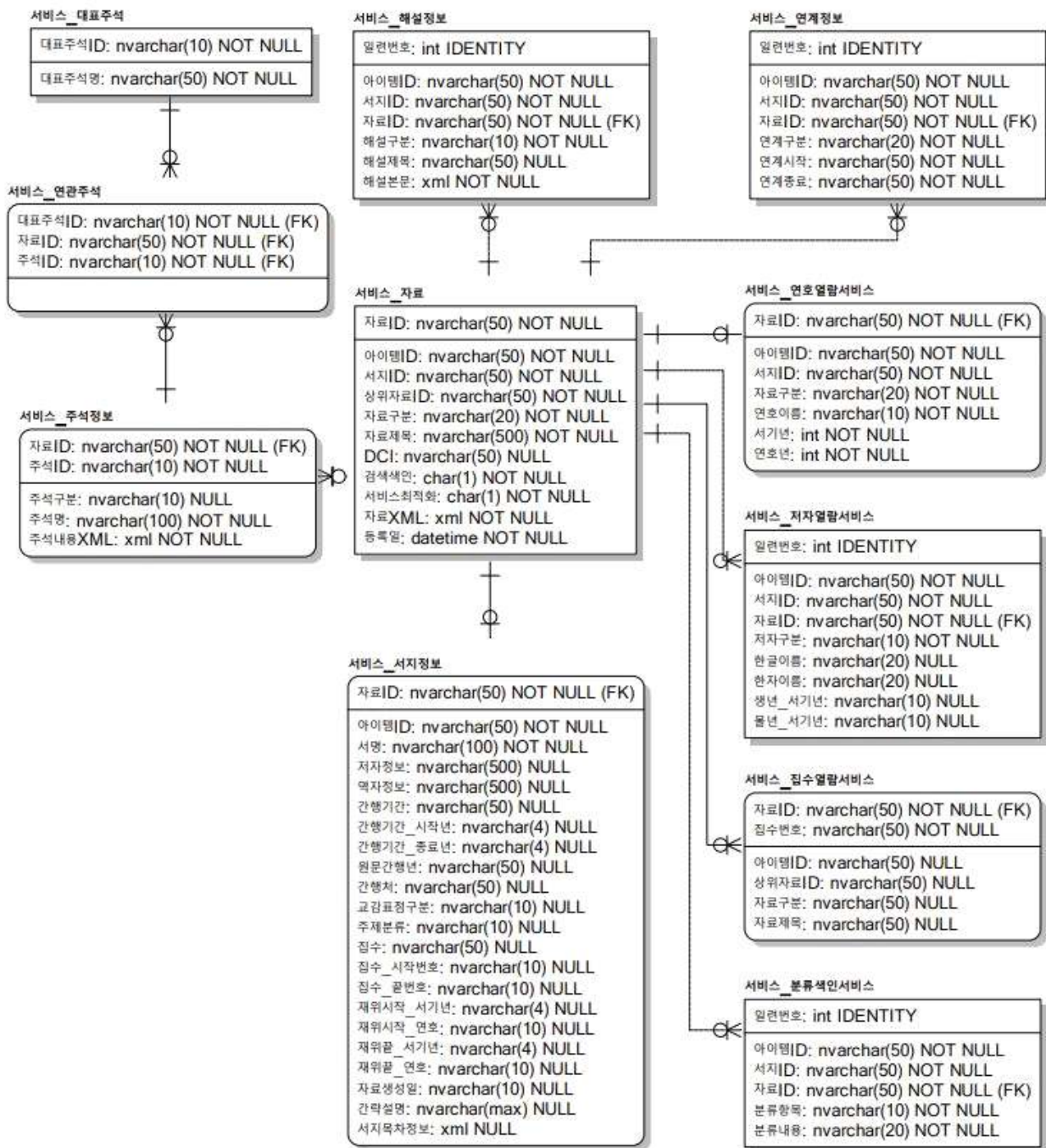
자료ID: nvarchar(50) NOT NULL (FK)
아이템ID: nvarchar(50) NOT NULL
서명: nvarchar(100) NOT NULL

저장소_수정이력

일련번호: int IDENTITY
아이템ID: nvarchar(10) NOT NULL
서지ID: nvarchar(50) NOT NULL
자료ID: nvarchar(50) NULL
DCI: nvarchar(50) NULL
자료구분: nvarchar(20) NULL
자료제목: nvarchar(500) NULL
오류신고번호: int NULL
접수유형: nvarchar(50) NOT NULL
오류유형: nvarchar(50) NOT NULL
오류URL: nvarchar(500) NULL
신고일: datetime NULL
신고자이름: nvarchar(50) NULL
신고자이메일: nvarchar(50) NULL
오류내용: nvarchar(max) NULL
수정내용: nvarchar(max) NULL
수정전자료XML: xml NULL
수정후자료XML: xml NULL
원본일: datetime NOT NULL
수정일: datetime NOT NULL
수정자이름: nvarchar(50) NOT NULL

연표자료

일련번호: int IDENTITY
아이템ID: nvarchar(50) NULL
자료ID: nvarchar(50) NOT NULL (FK)
년도: int NOT NULL
월: int NULL
연표제목: nvarchar(100) NOT NULL
연표분류1: nvarchar(50) NULL
연표분류2: nvarchar(50) NULL
연표분류3: nvarchar(50) NULL
서비스여부: char(1) NOT NULL



서비스_첨부파일

일련번호: int IDENTITY
게시물번호: int NOT NULL (FK)
원본이름: nvarchar(500) NOT NULL
저장이름: nvarchar(500) NOT NULL
파일크기: bigint NULL

서비스_열린마당

게시물번호: int IDENTITY
게시물구분: nvarchar(10) NOT NULL
제목: nvarchar(1000) NOT NULL
내용_타입: nvarchar(10) NOT NULL
내용: nvarchar(max) NOT NULL
등록일: datetime NOT NULL
등록자ID: nvarchar(50) NULL
등록자이름: nvarchar(50) NOT NULL
등록자이메일: nvarchar(50) NULL
등록자IP: nvarchar(50) NOT NULL
수정일: nvarchar(50) NULL
수정자ID: nvarchar(50) NULL
수정자이름: nvarchar(50) NULL
수정자이메일: nvarchar(50) NULL
수정자IP: nvarchar(50) NULL
조회수: int NOT NULL
상위게시물번호: int NULL

서비스_오류신고

오류신고번호: int IDENTITY
아이템명: nvarchar(50) NOT NULL
오류유형: nvarchar(50) NOT NULL
오류URL: nvarchar(500) NOT NULL
DCI: nvarchar(50) NULL
신고일: datetime NOT NULL
신고자ID: nvarchar(50) NULL
신고자이름: nvarchar(50) NOT NULL
신고자이메일: nvarchar(50) NULL
신고자IP: nvarchar(50) NULL
오류내용: nvarchar(max) NOT NULL
처리상태: nvarchar(10) NOT NULL
처리일: datetime NULL
답변자ID: nvarchar(50) NULL
답변자이름: nvarchar(50) NULL
답변자IP: nvarchar(50) NULL
답변내용: nvarchar(max) NULL

서비스_댓글정보

일련번호: int IDENTITY
게시물번호: int NOT NULL (FK)
댓글내용: nvarchar(max) NOT NULL
등록일: nvarchar(50) NOT NULL
등록자ID: nvarchar(50) NULL
등록자이름: nvarchar(50) NOT NULL
등록자이메일: nvarchar(50) NULL
등록자IP: nvarchar(50) NOT NULL

서비스_인기검색어

검색어: nvarchar(50) NOT NULL
등록일: datetime NOT NULL

서비스_검색어자동완성

검색어: nvarchar(50) NOT NULL

유관기관자료연계

일련번호: int IDENTITY
자료ID: nvarchar(50) NOT NULL
DCI: nvarchar(50) NOT NULL
연계구분: nvarchar(50) NOT NULL
연계정보: nvarchar(50) NOT NULL

연호자료

일련번호: int IDENTITY
서기: int NOT NULL
단기: int NOT NULL
간지: nvarchar(10) NOT NULL
지역: nvarchar(10) NOT NULL
시대: nvarchar(10) NOT NULL
나라: nvarchar(10) NOT NULL
요호: nvarchar(50) NULL
시호: nvarchar(50) NULL
휘이름: nvarchar(50) NULL
재위년: int NULL
연호년: nvarchar(20) NULL

□ 과업 참여자

- 관 계 자 이배용 (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박성진 (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박진재 (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신종일 (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박새은 (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 공동연구자 강문식 숭실대학교
김소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정운 경북대학교
김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소희 영남대학교
이병훈 한국국학진흥원
이선아 전북대학교
임근실 단국대학교
채광수 영남대학교
- 연구보조원 권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로
이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학술 포럼

발행일 2023년 12월 12일

발행기관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후원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달성군, 논산시, 정읍시, 장성군,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함양군

수행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